

평택군수 오횡묵의 한시집 漢詩集
 평택 총쇄 叢瑣

《총쇄》에 편집된 오횡묵의 시집 14권이 모두 53세부터 편집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는 지방 수령으로 부임한 시기에 시를 많이 지었으며, 이 시들을 중심으로 문집을 편집하였다. 제13책에는 1902~1903년에 지은 시 324제(題) 386수가 실려 있는데, 평택팔영(平澤八詠)을 비롯하여 평택군 관사 정원에 여러 가지 화초를 심고 가꾸는 중에 지은 시, 망한사(望漢寺)를 방문하여 지은 시, 십의대(十宜臺)를 신축하고 그곳에서 흥취를 즐긴 시, 두리서당 개점(開接) 시 등이 있다. 제14책에는 1903~1905년까지 지은 시 328제 413수가 실려 있는데, 평이당(平易堂)에서 모여 읊은 시를 비롯하여 평택 토지조사와 지계(地契), 환곡, 직산 민란 등에 대하여 지은 시들이 실려 있다.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
 Tel 031.655.2002 Fax 031.654.8807
 www.ptmunhwa.or.kr



평택학자자료집 ⑤

평택군수 오횡묵의 한시집 漢詩集 평택 총쇄 叢瑣

평택문화원

평택학자자료집 ⑤



평택군수 오횡묵의 한시집 漢詩集
 평택 총쇄 叢瑣

저자 오횡묵 역자 허경진



역자 허경진

연세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목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를 거쳐 연세대학교 국문과 교수를 역임했고 현재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교 객원교수로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 《조선위험문학사》, 《한시 이야기》, 《허균평전》, 《한국 고전문학에 나타난 기독교의 편란들》 등 10여권이 있고 역서로는 《다산 정약용 산문집》, 《연암 박지원 소설집》, 《매천아록》, 《서유견문》, 《삼국유사》, 《택리지》, 《난설헌 허초희 시집》, 《고운 최치원 시집》, 《정일당 김지덕 시집》, 《진교일기》, 《평택색연》 등 50여권이 있다.



❁ 발간사

오형묵의 평택 한시집,
지역사 연구의 디딤돌이 되길 바라며...

평택문화원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역사를 발굴하여 평택학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지역의 삶과 문화를 살펴보고, 과거를 되짚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택 관련 기사자료집, 삼학사, 진교일기, 평택군수 오형묵의 정무일기 평택 세언을 발간하였고 뒤를 이어 5번째 자료집을 발간합니다.

평택학자료집5-‘평택군수 오형묵의 한시집 《평택 총쇄》’의 원 제목은 《총쇄》로 24책 가운데 제13책과 제14책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오형묵은 평택군수로 재임하는 약 4년 동안 모두 799수의 한시를 지었습니다. 여기에는 평택군 관사에 화초를 가꾸고 심은 서사적 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시 평택군은 대한제국시기로 근대의 변화를 맞고 있었습니다. 경부선이 개통되었고 평택정거장에서는 서울과 지방, 외국이 교류했습니다. 또한 을사늑약과 통감부 설치 등 어지러운 국난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시에는 평택의 근대도시적 모습과 더불어 격변하는 시대변화상도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번역 발간한 평택학자료집5-평택군수 오형묵의 한시집은 자료집4와 더불어 평택의 지명, 인물 등에 대한 서술도 포함되어 있어 근대평택 연구의 기초 자료로 가치가 높습니다. 또한 시민에게는 평택시에 대한 역사적 배경 지식을 높이고 지역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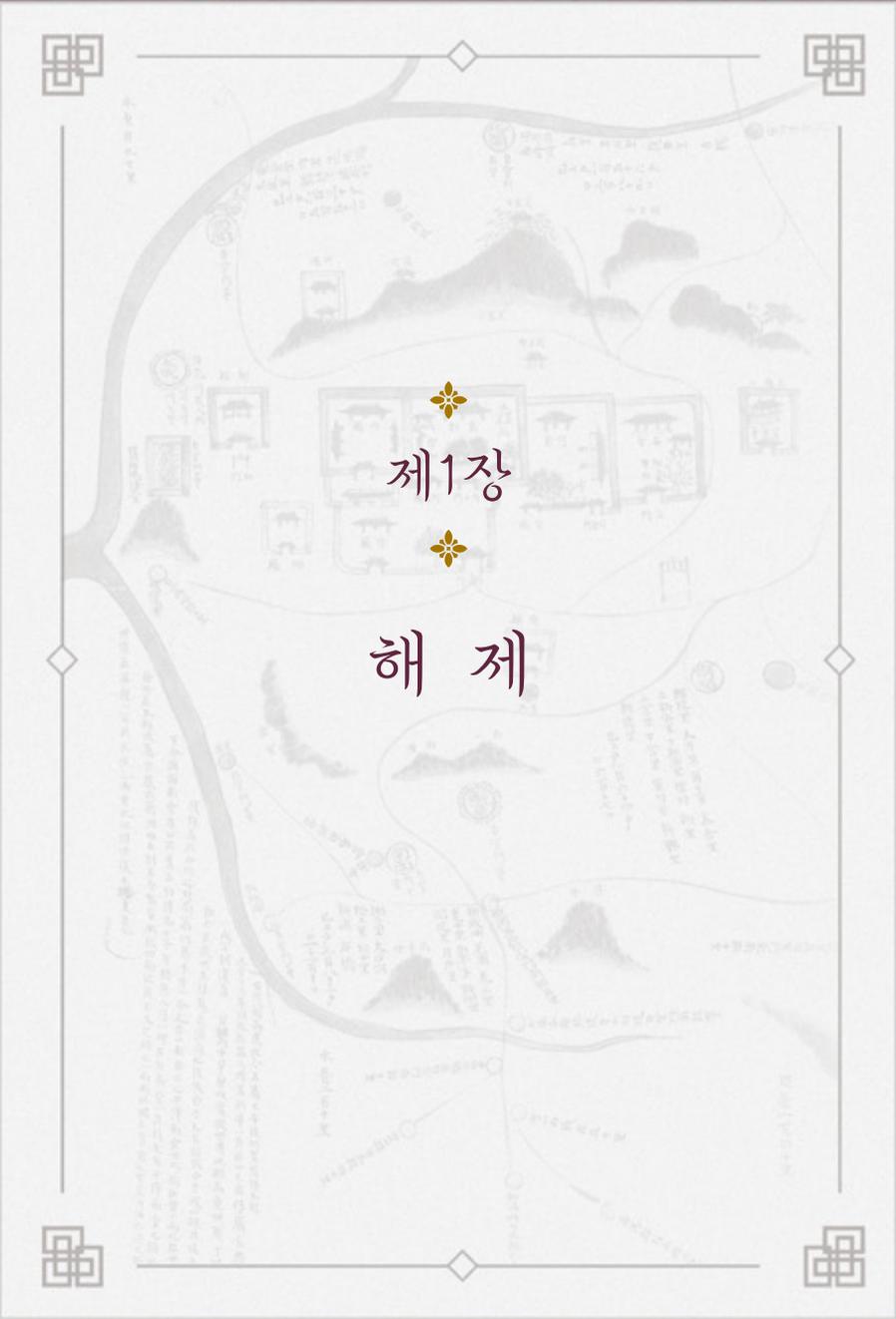
끝으로 이 책이 발간되기까지 번역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허경진 교수님, 물심양면으로 힘써주신 평택시와 평택시의회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평택문화원은 지역사 연구를 위해 앞장서서 노력하고 발전을 거듭해 가겠습니다.

2022년 12월

평택문화원장 이 보 선

❁
목 차
❁

제 1 장	해제	7
제 2 장	평택 총쇄 제13책	11
제 3 장	평택 총쇄 제14책	205
부 록	평택 총쇄 제13책 영인본	405
부 록	평택 총쇄 제14책 영인본	453



✿
제1장

✿
해 제

❖
제1장
❖
해제

평택 근대사의 자료창고 오횡묵의 평택 한시집

‘평택군수 오횡묵의 한시집 《평택 총쇄》’라고 제목을 붙인 이 책의 원 제목은 《총쇄(叢瑣)》인데,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총쇄》 24책 가운데 제13책과 제14책이 평택에서 지은 한시이다. 그는 모두 14책이나 되는 평생의 시집에서 채원(菴園), 채인(菴人), 택방(澤舫)이라는 호를 썼는데, 평택에서 지은 한시에도 자주 보이듯이 그는 평생 꽃을 사랑한 시인이었으므로 젊을 때부터 채원(菴園)이라는 호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택방(澤舫)이라는 호는 평택에 부임하여 만들었기에 ‘택(澤)’이라는 글자를 사용하고, 그 호의 뜻을 설명하는 ‘택방설(澤舫說)’도 평택에서 지었다. 4년 동안 모두 799수를 지었으니 이들에 한 수씩 지은 셈이다.

오횡묵(吳宥默 1834-1906)은 평택군 관아에 머물며 회고록 식의 시 〈근래의 몸과 집의 경력을 추려 뽑아서 시 한 편을 짓다(撮得近來身家經歷 賦一篇)〉를 지으면서 “아홉 고을의 치적이 참으로 부끄럽다(九郡聲蹟誠慚愧)”라고 술회했는데, 정선, 자인, 함안, 고성, 지도, 여수, 진보, 익산, 평택에서 지은 시집이 바로 《총쇄》의 제1책부터 제14책까지 실려 있다. 20년 동안 종4품 군수, 종6품 현감, 종3품 부사로 품

계와 관계없이 아홉 고을에 잇달아 부임하였는데, 평택에 가장 오래 있으면서 종2품으로 승급하는 영예를 얻기도 하였다.

《총쇄》에 편집된 오횡묵의 시집 14권이 모두 53세부터 편집된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는 지방 수령으로 부임한 시기에 시를 많이 지었으며, 이 시들을 중심으로 문집을 편집하였다. 제13책에는 1902~1903년에 지은 시 324제(題) 386수가 실려 있는데, 평택팔영(平澤八詠)을 비롯하여 평택군 관사 정원에 여러 가지 화초를 심고 가꾸는 중에 지은 시, 망한사(望漢寺)를 방문하여 지은 시, 십의대(十宜臺)를 신축하고 그곳에서 흥취를 즐긴 시, 두리서당 개접(開接) 시 등이 있다. 제14책에는 1903~1905년까지 지은 시 328제 413수가 실려 있는데, 평이당(平易堂)에서 모여 읊은 시를 비롯하여 평택 토지조사와 지계(地契), 환곡, 직산 민란 등에 대하여 지은 시들이 실려 있다.

그는 평택에서 관직을 마치고 곧바로 세상을 떠났는데, 을사늑약과 통감부 설치 등이 맞물려가는 시기이기에 명헌태후(明憲太后), 순명왕비(純明妃宮), 윤용선(尹容善), 민영환(閔泳煥), 조병세(趙秉世) 등에 대한 만시가 실려 있으며, 외세의 침입에 비분강개하는 시가 보이기도 한다. 팽성이라는 고을 이름과 관련하여 도연명의 시에 차운하여 짓거나 자신을 도연명과 동일시하는 시들을 지은 것이 다른 고을에서 지었던 시들과 가장 달라진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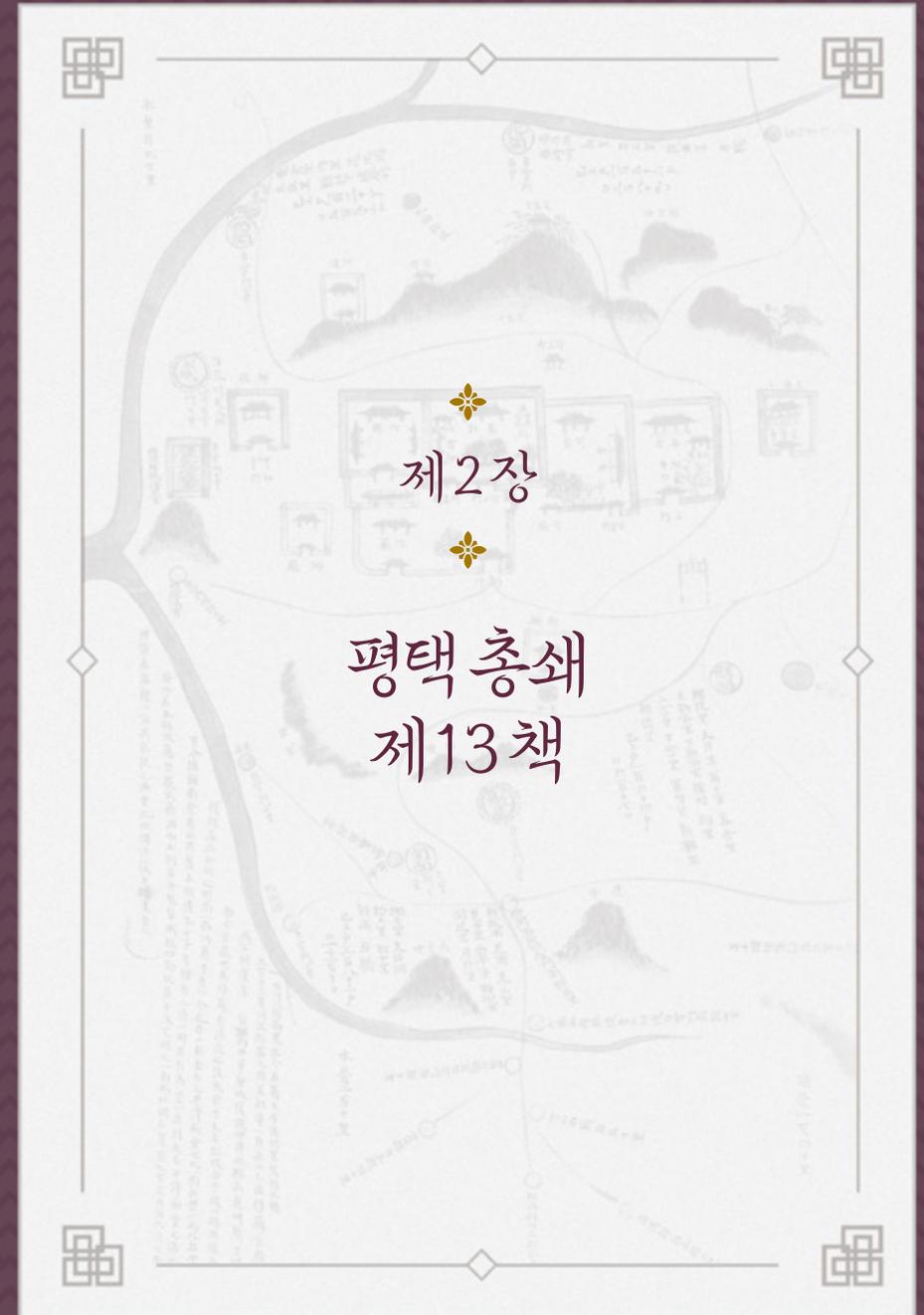
이 시집에 실린 마지막 시는 평택군수 임기를 마치고 군청을 떠나는 날 관아를 둘러보며 지었는데, 〈정원의 풀 하나 돌 하나를 둘러 보니 나의 정력이 이르지 않은 것이 없기에 느낌을 쓰다(周覽庭園 一草一石 無非我精力所到 因感作)〉이라는 제목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돌 하나 꽃 하나에도 애정을 가지고 평택을 다스렸던 그의 마지막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는 뛰어난 행정가나 시인은 아니었지만 성실한 군수이자 시인이었기에 부지런히 평택의 구석 구석을 찾아다니며 일하고 시를 썼다. 그의 시집을 들고 취석(醉石),

향반(香磐), 시경(詩境), 일섭원, 소오헌, 십의대, 평이당, 오류관, (강산)일초정 등, 그가 이름지은 유적들을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땅에 절반쯤 묻힌 바위에서 오횡목이 새긴 바위글씨들을 찾아낼런지도 모를 일이다.

그가 군수로 재임하는 동안 경부선이 개통되면서 평택은 근대도시로 발돋움하였다. <극아를 보내고 일초정에 올라 차가 가는 것을 보며 읊다(送克兒 登一草亭 望車行有吟)>라는 시에 보이듯이 떠나는 손자의 뒷모습을 동구 밖에서 배웅하며 보는 것이 아니라 평택군청에서 내려다보는 모습에서 격세지감을 느끼게 되며, <정거장에서 극아를 만나고, 이어서 또 일본 대사를 영송하고 돌아오는 길에 절구 두 수를 짓다(停車場逢克兒 繼又迎送日本大使 歸路二截)> 등의 시를 보면 서울과 지방, 외국이 교류하는 평택 정거장의 모습도 엿볼 수 있다.

평택군수 오횡목의 정무일기에도 그랬지만 이 시집에는 수많은 평택의 옛동네 이름들, 평택 시민들의 백년 전 조상 이름들이 보인다. 내년엔 평택군수 산문집까지 번역 출판되면 오횡목의 다양한 저술들이 120년 전 평택의 근대사 자료창고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 제2장 ❖

평택 총쇄 제13책

자하동 집값을 내하전¹⁾으로 받고 감격하여 짓다 紫霞洞屋價內下錢祇受有感而作

性彝吾亦與人同
不敢貪天作己功
衣君之衣食君食
頂踵生全老此躬
君看松第入雲峨
報答鴻私負已多
況當設苑稱天慶
歌頌同歸兩忘河

본성이 떳떳함은 나도 남과 같으니
감히 하늘의 공을 탐내²⁾ 자기 공으로 삼으랴.
임금께서 주신 옷 입고 밥 먹으니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전히 살아 늙어왔구나.
임금께서 송정제³⁾가 높이 솟은 것을 보시고
크신 은혜로 보답하니 받은 것이 이미 많았네.
더욱이 동산 만들어 하늘이 주신 경사 겹맞게 하니⁴⁾
노래하며 함께 돌아가 서로 잊고 사는 데랴.⁵⁾

1) 임금이 신하에게 사사롭게 내려주던 돈이다.

2) 하늘의 공을 탐내 : 《춘추좌씨전》 희공 24년 조에 “남의 재물을 훔치는 것도 도적이요 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공을 탐내어 자기의 공으로 삼으려는 것이겠는가.[竊人之財 猶謂之盜 況貪天之功 以爲己力乎]”라는 말이 나온다.

3) ‘松第’는 소나무로 지은 집인데, 뒤에 ‘松亭’이 나오므로 ‘송정제’라 번역하였다.

4) 하늘이 주신 경사 : 1902년 고종 즉위 40주년을 경축한 일을 가리킨다.

5) 서로 잊고 사는 데랴 : 《장자(莊子)》 대종사(大宗師)에, “샘물이 말라 물고기들이 물에 있으면서, 입 안의 습기로써 서로 붙어 주고 거품으로써 서로 적셔 주는 것이 강호에서 서로 잊고 사는 것만 못하다.[泉涸魚相與處於陸 相煦以濕 相濡以沫 不如相忘於江湖]” 한 데서 온 말로, 물고기들의 강호에서의 인력한 삶을 의미한다.

園丁效力思殫竭
帑宰憂公費講磨
豈謂仁天覆我偏
諄諄飭下買屋錢
微軀斷斷無他一
殊渥隆隆曠古千
私懇無由仍冒受
閤家感泣彌淵天
致茲惶蹙何由故
只爲家無負郭田
傷哉身計拙於鳩
作此無廉沒恥流
吾豈全昧辭受義
尋常亦解省愆尤
塵刹將何報佛恩
生生世世此身存
不欺敢墜青氈戒
盡命惟思白首言
司宰監前爰得所
如新受賜大開門

정원사는 힘을 내어 다할 것을 생각하고
곳간지기 나라 걱정해 애써 갈고 닦네.
어진 하늘이 어찌 나만을 편애한다 말하라
자상하게 집 살 돈을 내리셨네.
못난 몸은 절대로 다른 마음이 없어
특별한 은혜가 융성하여 천고를 밝히니,
사사로운 간절함 길이 없어 무릅쓰고 받아
온 집안이 깊고 넓은 하늘에 감읍하였네.
이에 이르러 무슨 이유 때문인지 황송하고 두려우니
다만 집에 성 가까이 옥토가 없기 때문일세.
슬프구나! 생계 꾸리기가 비둘기보다 못났으니
이렇게 엄치 없는 부류처럼 행동하네.
내 어찌 사양하는 의리를 전혀 모르랴만
허물을 반성하는 것 역시 심상하게 이해하네.
티끌 같은 세상에 무엇으로 부처 은혜 보답하라
태어날 때마다 이 몸으로 남으리라.
속이지 말고 실추시키지 말라는 것은 선대의 가르침이요
목숨 다할 것을 생각하라는 것은 백수의 말이네.⁶⁾
사재감(司宰監) 앞 적당한 곳 얻었으니
새로이 은혜 받고 문이 활짝 연 듯 하네.

성절에 문안드리고 떡을 내리시기에 삼가 받다 聖節問安 賜餅祇受退出志喜

五色雲邊玉殿崇
丹墀拜舞賀恩洪

오색 구름 끝에 어전이 우뚝하니
붉은 계단 절하며 크신 은혜 축하하였네.

6) 백수(白首)는 백수문(白首文)이라고도 불렀던 천자문(千字文)을 가리키니, ‘盡命惟思’가 어렸을 때부터 배운 글자들이라는 뜻이다.

願推海嶽爲君壽 바다와 큰 산 같이 임금께서 장수하시길 원하노니
大小臣民慶祝同 큰 신하든 작은 백성이든 경축하는 것은 같네.

평택군수로 명을 받고 성은에 감격하다
平澤 除命祇受感恩

聞命驚惶我問吾 명을 듣고 깜짝 놀라 내가 맞나 물었으니
人徵才劣識兼愚 재주 없고 견식 없는 줄 남들이 알고 있지.
百里分憂一己幸 백 리 땅 지방관은 한 몸의 행운이니
金章腰下不離紆 금장을 허리에 차고 풀어놓지 않노라.
遂令閭里生光彩 골목과 마을에 명을 내리니 광채가 생겨나고
屢典嶠湖蔑報圖 여러 차례 영호남 수령으로 은혜 보답 못했건만,
自從南移金馬郡 스스로 남쪽으로 금마군으로 옮겨서도
無由保赤癸庚呼 양식 없다는 백성들 보호할 길이 없고,
政拙心勞長繞壁 정사는 서툴고 마음은 피곤하여 벽을 서성였네.
惟思也合汰哉誅 생각하면 지나쳐서 주살당하기에 맞건만
豈意鴻私偏我厚 크신 은혜 내게만 후할 줄 어찌 생각했으랴.
煌煌花誥耀分符 빛나는 오화관고(五花官誥)에 부절이 환한 데다
況是茲州古彭澤 더욱이 이 고을이 옛날의 팽택과 같은 데랴.
偏宜閑適養衰軀 한적하게 쇠약한 몸 보양하기에 잘 맞으니
自是漢文洪度大 한문제같이 도량이 넓고 크신지라
不論季布寸功無 계포⁷⁾가 한 폰 공이 없음을 논하지 않으셨네.
感淚沾襟仍冒受 감동의 눈물로 옷깃 적시며 무릅쓰고 받잡아
洗心南下竭微驚 마음 깨끗이 하고 남하하여 미력을 다하노라.
莫使長安到廢吏 장안의 말몰이꾼 이르게 하지 말라
一龜一鶴簡駟徒 거북 하나 학 한 마리 수행원으로 뽑았으니.

7) 계포 : 본래 항우(項羽)의 장수로 여러 번 고조를 곤경에 몰아넣었으므로 고조가 통일한 뒤에 현상금을 내걸고 그를 잡으려 하였는데, 등공(藤公)이 추천하자 고조가 그를 사면하고 낭중(郎中)에 임명하였다. 《史記 季布列傳》

공상소에서 원유회를 개설했기에 느낌이 있어 한 수를 짓다
工桑所改設苑遊會社感賦一詩

供奉分司二十年 분사에 봉직한 지 이십 년
吁嗟一變劫桑田 아! 한 번 변한 것이 몇 겁 세월 상전벽해 같구나.
誰知環轉無窮已 돌고도는 것이 무궁할 뿐일 것을 누가 알라
又費園遊幾萬錢 또 원유회에 수만 전을 쓰는구나.

집값이 모자라니 더 내려주라는 처분을 받다
以屋價不足承有加下之處分力辭有作

吾君舜哲與堯仁 우리 임금 요순처럼 현명하고 어지시니
教語諄諄藹若春 말씀이 자상하여 봄처럼 따스하네.
臣是何人承有此 내가 누구라고 이런 은혜 받드나
松亭雖舊渥恩新 송정제가 옛것이나 받은 은혜 새롭구나.

공상소에서 옛날을 생각하며 짓다
工桑所感舊之作

世間萬事唏吁嘻 세상 만사 개탄스러워
我有長歌君聽之 내게 긴 노래 있으니 임금께서 들으셨네.
我生之初花正好 내가 태어날 때 꽃이 정말 예뻐는데
我生之後萋萋草 내가 태어난 후 풀이 우거졌다네.
花正好云如何 꽃이 정말 예쁜들 무어라 하라
紋窓繡戶東風早 아름다운 창호에 이른 동풍 불었네.
萋萋草云如何 풀이 우거진들 무어라 하라
流光轉眄人已老 눈 깜짝할 사이 사람 이미 늙었네.

當時混沌謾多事
鑿開七竅情根寄
呱呱一落沃焦釜
恰閱藍風倒平地
清水黃塵迭後前
何人不化麻姑仙
吾亦生且老於其間
白頭非復舊紅顏
人生不及猗那草
笑啼悲歡煎熬百般
發之爲歌歌也嘯
悠悠腔肚阿誰照
不如滿引一大白
滌蕩胸中萬種積
寒鴉叫去起昏鍾
惟見紅塵暗九陌

당시의 혼돈⁸⁾은 쓸데없이 일이 많아
일곱 구멍 뚫어서 정의 뿌리를 부쳤네.
앵앵 울며 태어나니 위태로운 상황이요
마침 비남풍⁹⁾ 겪으니 평지가 뒤집혔네.
맑은 물과 누런 먼지 번갈아 앞뒤로 오니
누군들 마고 신선이 되지 않으랴¹⁰⁾
나 역시 그 사이에 태어나고 늙었으니
흰머리가 다시는 옛 붉은 얼굴로 돌아가지 못하리
인생이 아름다운 풀보다 못하네.
웃음과 울음, 슬픔과 기쁨에 여러 모로 애태우니
표현하면 노래가 되어 큰소리로 노래하네.
아득한 속마음을 누구를 빌어 비추랴
술 한 잔 가득 들어서
가슴속 쌓인 수만 가지 씻어내는 것만 못하네.
겨울 갈가마귀 울자 저녁 종이 울리니
오직 붉은 먼지에 어둑한 세상 보노라

수각 유감 水閣有感

蛛絲絡白蝸涎青
滿地苔花不掃庭
爲問清泠閣下水
八變曾此幾回停

거미줄 희게 이어지고 달팽이 침 푸르는데
땅 가득 이끼꽃에 정원을 쓸지 않았구나.
맑고 차가운 수각의 물에 물어 보노라
황제의 가마가 이곳에 몇 번이나 머물렀던가.

8) 혼돈 : 중앙제(中央帝) 혼돈(混沌), 남해제(南海帝)인 속(儻)과 북해제(北海帝)인 홀(忽)이 후한 대집에 보답하려고 혼돈에게 사람처럼 숨을 쉬고 먹을 수 있도록 일곱 구멍을 뚫어주었으나 오히려 이 때문에 혼돈이 죽었다고 한다. 《莊子·應帝王》

9) 비남풍 : 毘藍風. 불교에서 우주의 시작과 종말에 철위산에서 불어온다고 하는 큰 폭풍.

10) 마고신선이 되지 않으랴 : 마고신선이 자신이 모시는 왕방평(王方平)에게 “결에서 모신 이래 제가 동해가 뽕나무로 변하는 것을 세 번 보았습니다.”라고 하였다. 《神仙傳》

홍릉 봉심후 동협 도중에 짓다 洪陵奉審後 東峽途中占號

電車軋軋趨朝暎
奉審仙邱仰德元
旋向東州何處是
光川秋雨抵黃昏

전차는 삐걱삐걱 아침 햇살에 달려
신선 언덕 봉심하여 덕의 근원을 우러렀네.
다시 향하는 동쪽 고을 어디에 있던가
가을비 내리는 광주에 저녁에 닿았어라.

복수동에 수장을 점취하고 읊다 福壽洞占取壽藏有吟

靑山曾擬牛眠場
經過登臨意轉傷
而寄而歸都是幻
不須勞想善吾藏

청산을 일찍이 우면장¹¹⁾이라 하였더니
지나가다 올라가니 마음이 아파오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모두가 꿈이니
나를 잘 묻으려 애써 생각할 필요 없네.

청가장¹²⁾에서 옛이야기를 하다 聽稼庄話舊

我行阻隔七年今
羅拜兒孫喜動心
豈是常羞歸未得
近來衰病又侵尋

칠 년 만에 와보는 오늘
아들 손자 나란히 절하니 기쁨이 요동치네.
어찌 돌아가지 못한 것이 항상 부끄러웠나
근래 쇠약한 데다 병이 또다시 들었구나.

11) 장사를 지낼 묘지를 가리킨다. 소가 졸고 있는 산을 길지라 여겼던 데서 연유한다.

12) 청가장 : 오형묵의 부친이 1854년 만든 집의 이름이다.

배산동에서 회포를 풀고 기뻐 읊다
拜仙洞叙阻喜吟

行行喜見洞陰鄉	가고 가서 기쁘게 동음 마을을 보니
苦被人留帶雨忙	몹시도 만류 받으며 비를 맞아 바빠졌네.
七載纔還楸下里	칠년 만에 선산에 겨우 돌아와
前宵暫宿稼餘庄	지난 밤은 잠시 청가장에서 묵었네.
或孫咸侄趨迎道	많은 손자 조카들 달려와 맞이하고
社老溪朋集滿堂	이웃 노인 동네 벗들 대청 가득 모였네.
而我年來初有事	내 생애 처음 있는 일이니
融融樂意溢壺觴	화목한 즐거운 마음 술잔에 넘치는구나.

두 군데 산소에 성묘하고 감회를 이기지 못해 한 편을 기술하여
성이 무너지는듯한 마음을 조금 억누르다
兩局山所省拜 不勝感愴 述一篇少抑隕廓之衷

久矣吾行七載今	오래구나, 내가 온 지 칠년 만인 지금
無從涕泗欲沾襟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 옷깃을 적시려네.
廖莪有痛天罔極	부모님 생각에 고통은 끝이 없고
寸草無知日已沉	보답하려는 이 마음에 해가 이미 진 줄 몰랐네.
楚子斑衣眞起羨	색동옷 입은 초나라 사람 ¹³⁾ 진실로 부럽고
柳家寒食只傷心	한식 든 버드나무 집 ¹⁴⁾ 에 마음만 아프네.
隱思循鹿空餘石	은밀히 사슴 좇을 생각하며 부질없이 바위에 남아있고
愁見慈烏每繞林	근심스레 가마귀 바라보며 매번 숲을 맴도네.

13) 색동옷 입은 초나라 사람 : 노래자(老萊子)를 가리킨다. 춘추 시대 초나라의 은사(隱士)인 노래자가 70의 나이에도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하여 색동옷을 입고 재동을 벌였다는 고사가 있다. 《二十四孝》

14) 한식 든 버드나무 집 : 개자추(介子推)를 가리킨다. 춘추시대 개자추는 진문공(晉文公)과 함께 19년간 함께 외국을 떠돌며 동고동락 하였으나 귀국 후 상을 받지 못하자 말없이 면산에 은거하였다. 진문공이 그를 불러내기 위해 불을 질렀으나 결국 나오지 않고 큰 버드나무 아래에서 어머니와 함께 타죽은 채 발견되었다. 진문공은 그 나무를 기러 청명류(淸明柳)라는 이름을 내렸다고 한다. 《春秋臣傳》

孺慕只憑瞻雨室
典刑空自仰雲岑
楸松掩迫胡無伐
花木摧殘謾見侵
難盡如心守塚戶
忍能猶笑去祥琴
餘生孤露知無幾
此日履霜愴不禁
省拜纔行單獻鼎
護幹詳飭百緡金
明當西去那將返
只恐忽忽歲月駸

아버이 그리는 마음은 오직 춘우실¹⁵⁾ 바라봄에 기대고
전형은 공연히 구름 우러른 봉우리에서 나오네.
가래나무 소나무 우거져도 어찌 벌목하지 않았나
꽃과 나무 꺾이고 시들어 함부로 침범 당했네.
마음처럼 다하지 못하는 산지기가
차마 오히려 웃으며 상금(祥琴)¹⁶⁾을 제거하라?
부모 잃은 외로운 생애 남은 날이 얼마 안 될 줄 아니
이날은 서리 밟으며 슬픔을 금하지 못하네.
성묘하고 겨우 술 한 잔을 올리고
보호할 일 상세히 백 냥돈으로 신칙하네.
내일 서쪽으로 떠나면 언제 돌아오랴
다만 총총히 흐르는 세월 걱정이네.

조소운 장¹⁷⁾을 뒤늦게 애도하다
趙小雲丈追挽

隔望爲隣托契深
前川明月映虛襟
故來雨室留佳句
每向南州寄遠音
會少別多雖可恨
才高數蹇最難諶
靈筵欲致泉臺慰
珠樹庭中有寶陰

건너편 바라보는 이웃이 되어 사귀어 깊었으니
앞 개울 밝은 달이 허심탄회한 마음을 비추었지.
일부러 춘우실에 와 아름다운 시구를 남기고
남쪽 고을 향할 때면 멀리서 소식 부쳐왔네.
만남은 적고 이별은 많아 한스러울지라도
재주는 높고 명은 온당치 않음은 진실로 알기 어려워라.
영전에서 위로가 무덤속까지 닿게 하리니
훌륭한 자식들에게 보배로운 음덕이 있으리라.

15) 춘우실 : 春雨室. 오형묵의 돌아가신 부모님 재실 명칭이다.

16) 상금(祥琴) : 고대의 상례에서 친상(親喪)의 대상일(大祥日)에 슬픔을 절제하기 위하여 거문고를 탔던 것을 이른다.

17) 조소운 장 : 1823-1900. 본관은 한양(漢陽), 자는 공수(公綏). 아버지는 조석룡(趙錫龍), 어머니는 이병구(李秉九)의 딸인 한산 이씨이다. 《漢陽趙氏大同譜》

문아리 선비 양홍의 집에서 읊다
文阿里楊雅士弘庄口占

蠟屐登臨趁午初	나막신 신고 오시 초에 오르니
阿咸遙指故人居	조카가 멀리 옛 친구 거처를 가리키네.
叅差岳色雲收壑	들쭉날쭉 산 경치 구름은 골짜기로 모여들고
蘊藉村容水抱廬	온화한 마을 풍경 물이 오두막을 감쌌네.
已有前期歸路要	앞선 기약 있어 돌아가는 길에 맞이하니
仍知宿契昔年餘	오랜 인연 옛날부터 넉넉했음을 알겠네.
茲來創猝無相贈	이번 길 창졸간이라 줄 것이 없으니
短吟留作壁間書	짧게 읊어 벽 위에 글로 남기네.

중국어학교 교사인 청나라 사람 이채(蒞籙) 호문위(胡文煒)¹⁸⁾에게
사례하여 함께 향원에서 술을 마시고 절구 세 수를 짓다
謝漢校教師清人蒞籙胡文煒同香園喝酒三截

一點靈犀照兩情	한 점 영묘한 물소뿔처럼 양쪽 마음이 통하여
故來相訪若平生	일부러 방문하러 오니 평생 친구 같구나.
曾聞海內皆兄弟	해내가 모두 형제라고 들어왔으니
莫問吾韓與爾清	내가 한인인지 네가 청인인지 묻지 마오.
申勤携手向西隣	거듭 삼가 손을 잡고 서쪽 이웃 향하니
種種天香齒頰津	꽃마다 타고난 향기 입안에 넘쳐나네.
促膝相酬成我飫	무릎 바짝 마주하고 술 실컷 주고 받으니
衰齡風味一時新	늙은 나이에 풍류가 일시에 새롭구나.

18) 호문위(胡文煒) : 청일전쟁으로 중단되었던 한어학교가 재개되면서 1897년 초빙되었던 한어학교 외국인 교관. 1900년과 1903년
에 학부에서 한어학교 교사숙합동 근무조건 계약서를 제차 체결하였다. 한어교사 계약서에는 임용기간(3년), 급여(월 100원), 주택임대
비용(월20원), 교사의 의무사항, 규칙 위반시 해고 사항, 보조금 지급 관계, 병가 시 규정, 휴가 규정, 기타 유사시 규정 등의 내용이 들어
있다. 1904년 7월 신병을 이유로 무단으로 중국으로 귀국하여 5개월간 교육에 지장을 주었으며 1904년 12월 해고되었다. <대한제국의
한어교육에 관한 연구>(이광숙, 《교육연구와실천》 77권, 서울대 교육종합연구원, 2011, 67-86면)

兒豚常說大人風
揭燭容蟠不自功
宿世奇緣知有素
何須今日點靈通

아들놈이 항상 대인 풍모라 말하였으니
촛불 들어 두루 감싸며 자기공으로 여기지 않네.
전생의 기이한 인연을 평소애 알았으니
어찌 반드시 오늘에야 신령이 통하였으리.

환구단 봉심
園邱壇奉審

長安大道如青天
瑞日紅掛終南巔
能解閑行固無數
覽遍孰與吾多焉
路過皇壇門適開
園邱新築何崔嵬
峨峨去天三百尺
鳳凰飛度應低回
疊石鞏固功萬全
其層有三其體圓
制度極宏明堂个
造化難窺七政璿
吾皇大道當天心
配祖南郊式克今
合其神祇是盛節
明乎禘嘗乃君臨
在外六年今戾洛

장안의 큰 도로는 푸른 하늘과 같고
상서로운 해는 붉게 종남산에 걸렸네.
한가로운 행차가 본디 무수한 줄 이해하니
두루 돌아봄이 나보다 많은 이 누구랴.
길이 황단을 지나니 문이 마침 열리고
환구단 새로 쌓아 어찌나 높고 우뚝한지.
높디높아 하늘로 삼백 척이 솟았으니
봉황이 날아가다 응당 밑에서 선회하리.
첩첩 쌓은 돌 공고하여 만전을 다하였고
층루는 세 층이요 본체는 둥글도다.
규모가 지극히 큰 명당이요
조화를 엿보기 어려우니 칠정 살피는 선기옥형¹⁹⁾일세.
우리 황제 큰 도는 천심에 해당하니
조상의 배향을 남쪽 교외에서 지금 행할 수 있네.
신령에 합하니 성대한 황제의 절조요
체상(禘嘗)²⁰⁾에 밝으니 임금이 임하였도다.
밖에서 6년 있다가 이제 서울로 돌아오니

19) 칠정 살피는 선기옥형 : 순(舜)이 제위(帝位)에 올라 첫 번째 한 일로, 선기옥형(璿璣玉衡)이라는 천체 관측기를 살펴서 칠정(七政), 즉 금(金), 목(木), 수(水), 화(火), 토(土) 오성(五星)과 해, 달의 운행을 실제와 맞추어 백성들이 농사의 때를 잃지 않게 하였다. 《書經 舜典》

20) 체상(禘嘗) : 체(禘) 제사와 상(嘗) 제사의 병칭. 체(禘)는 천자(天子)가 종묘(宗廟)에 지내는 대제(大祭)이고, 상(嘗)은 가을 제사로 사시(四時)의 제사를 대표한 것이다. 《중용(中庸)》에 “교사의 예와 체상의 뜻에 밝으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손바닥 위에 놓고 보는 것 처럼 쉬울 것이다.[明乎郊社之禮 禘嘗之義 治國 其如示諸掌乎]”라는 말이 나온다.

明時慚負子來役 밝은 시대에 자식처럼 달려오지 못한 것이 부끄럽구나.
 忤歡羸衷不後人 떳떳한 천성에 기쁜 마음 남에게 뒤지지 않으니
 繞壇遲回忘日夕 환구단을 더디게 돌며 날 저무는 것을 잊노라.

중화전 봉심에서 물러나와 지은 것을 기록하다
中和殿奉審退出賦而記之

天有星營室 하늘에는 영실(營室)²¹⁾이란 별이 있고
 地有山王屋 땅에는 왕옥(王屋)이란 산이 있네.
 聖主承天地 성주께서 천지를 받드니
 宜思居位育 자리에 올라 기를 것을 생각하시리.
 猗歟我大韓 아! 우리 대한제국은
 堂構厥謨完 선대를 이어 그 계책을 완전히 하리.
 自從肇基後 이로부터 후대의 기틀을 잡기 시작하고
 遺以聖孫安 성스러운 후손에 평안함을 남기리.
 重興四十年 중흥한지 사십 년
 百度不倚偏 온갖 법도가 불편부당하네.
 太室儀軒禘 종묘에서 위의 높게 체제사를 지내니
 四門慕舜玄 사문에서 순임금 같은 현덕을 사모하네.
 亶宜居廣居 진실로 넓은 곳에 거처해야 마땅하니
 經始在今初 지금 처음 경영하기 시작하였네.
 郁煥其文矣 빛나고 빛나는 문채여
 嵩高莫大於 이보다 높고 큰 것이 없네.
 肇錫中和字 처음 “중화”라는 글자를 내리시니
 名義蓋取諸 이름 뜻을 취한 것이네.
 喜樂性之謂 기쁨과 즐거움은 천성을 이르는 것이요
 推致功不踈 미루어 지극히 하니 공이 성글지 않네.

21) 영실(營室) : 별자리 이십팔수 가운데 하나인 실수(室宿). 음력 10월 황혼 때 중천에 나타나는데 이 때 토목공사를 시작한다고 한다.

穆穆垂衣裳 거룩하게 의상을 드리우니
 明明王者堂 밝디 밝은 왕자의 당이로다.
 洞開人盡見 훤히 열려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고
 儼臨德彌彰 엄연하게 임하니 덕이 더욱 퍼지네.
 囿民躋壽域 백성들을 모아 장수하는 태평성대로 이끄니
 歌頌起洋洋 노랫소리 넘실넘실 일어나도다.
 臣今躬睹盛 신하인 내가 지금 몸소 성대함을 목격하여
 敬撰清河章 삼가 청하장(清河章)²²⁾을 짓노라.

평택으로 부임하는 길에 전별하러 온 친구에게 감사하다
平澤赴任路謝知舊來餞

俶裝明發去天涯 짐 꾸려서 내일 떠나면 하늘 끝으로 가려니
 偏荷諸君惜別離 신세졌던 분들이 이별을 애석해 하네.
 祇好含盃言有味 다만 술 마시기에 좋고 말에 의미가 있으니
 人之懼悅不須知 두려운지 기쁜지 알 필요가 없네.

돌모루에서 송별주를 마시다
石隅飲餞

趣裝將赴郡 급히 여장 꾸려 고을에 부임하려고
 早出國西門 일찌감치 서울의 서문을 나섰네.
 行伴南天鴈 남쪽 하늘 기러기를 길벗 삼아 가다가
 役停北苑藩 북쪽 정원 울타리에 가던 길을 멈추네.
 忝叨偏我重 외람되게 내게 막중한 책임이 왔으니

22) 청하장(清河章) : 《시경》의 《벌단(伐檀)》의 “공공 박달나무를 베어 왔거늘 하수 물가에 버려두니, 하수가 맑고 또 물결이 일도다.[坎坎伐檀兮 實之河之干兮 河水清且漣漣]” 구절에서 연유하였다. 녹을 먹으면서 일하지 않는 관리들을 풍자한 시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사용하였다.

榮耀幾人存
報答丹衷在
那能不素殮

영화 속에 몇 명이나 살아남으랴.
은혜에 보답하는 충심이 있으니
어찌 공밥을 먹을 수 있으랴.

수원 도중에
水原途中

白沙津畔積
舟渡動詩懷
鐵道量新築
電機改舊排
老匏懸架蔓
返照曳溪涯
淒淡寒郊迥
林疎聳翠厓

흰 모래가 쌓인 나룻가에서
배로 건너니 시상이 떠오르네.
철도는 새로 측량해 건축하였고
전기는 옛것을 고쳐 배설하였네.
늪은 박이 시렁에 넝쿨 늘이고
저녁 햇빛 개울가까지 되비치니,
서늘한 겨울 교외는 멀고
숲 성긴 가운데 푸른 벼랑 솟아 있구나.

대황교 앞길에서 느낌을 읊다
大皇橋前路卽事賦得

趁朝風露冷
炊進大皇橋
禾稼黃無際
松杉翠有饒
坐乘嫌斷折
叙阻喜招邀
雲暗天將雨
羈愁一醉消

아침무렵 바람과 이슬이 차니
호호 불며 대황교로 나갔네.
심은 벼들 누렇게 끝이 없고
소나무 삼나무 넉넉히 푸르네.
작은 수레 부러질까 저어되고
회포 푸니 초대해주는 것이 기쁘네.
구름은 어두워 하늘에서 비 내리려는데
나그네 근심을 한 번 취해 푸노라.

진위 주막에서 읊다
振威外店口號

夢罷燈明滅
雨聲枕上催
吏來知境近
鷄唱覺晨回
異俗誠難副
治規自不灰
彌綸雖是素
臨事歎無媒

꿈 깨니 등불은 깜박거리고
빗소리는 베갯머리 재촉하누나.
아전이 와서 경계 가깝다 알리고
닭은 울어 새벽이 됐다고 깨우네.
다른 풍속 진실로 부응하기 어려우나
다스리는 규율은 절로 없어지지 않았네.
두루 다스리는 것이야 평소 하는 것이지만
일 하는데 매개가 없음을 탄식하네.

군물리에 이르러 그리워지네
至軍勿里有所思

行行通湫店
云是郡初疆
長浦橫帆楫
平郊熟稻梁
羅丁趨延奉
趨吏足承當
聊以舟津渡
一施使衆方

가고 가며 나루와 주막 지나니
고을의 처음 경계라고 하네.
긴 포구에 배들이 늘어서 있고
너른 들에 벼와 곡식 익었네.
늘어선 장정들이 쫓아와 맞이하고
중중걸음 아전들 명을 잘 받드네.
배 타고 나루를 건너면
사람들에게 한결같이 베풀리라.

벼슬에 오른 회포를 쓰다
上官述懷

有隕殊恩渥
本非夢寐求

특별히 입은 은혜에 눈물을 흘리니
본래 자나깨나 구하던 것이 아니었네.

分憂延九郡 책임 지고 아홉 고을 부임하였고
 任命歷三秋 명을 맡아 삼 년을 지나왔었네.
 惟恐才靡速 재주가 미치지 못한 것이 걱정일 뿐
 恒羞學無優 배움이 부족한 것이 항상 부끄러웠네.
 我師眞五柳 내 스승은 진실로 오류 선생²³⁾이니
 千載戒行休 천년 전에 일생을 경계하였네.

오류관에서 베개를 베고 오언율시 1수와 칠언절구 7수를 짓다
五柳館倚枕 得五律一首七截七頁

緬憶曾聞記 예전에 들었던 기억이 아스라이 떠오르니
 人言慣耳餘 사람들 말이 귀에 익숙하구나.
 疆形如斗小 지역 모양은 말처럼 작고
 村樣若棋疎 마을 모양은 바둑판처럼 성기네.
 山自芙蓉麥 산은 부용리에서 나오고
 川從軍勿除 개울은 군물리에서 없어지네.
 惟存風土美 오직 풍토의 훌륭함이 남아있어
 忠孝未曾虛 충효가 비었던 적이 없네.

今人不及古人高 지금 사람이 옛사람의 고상함에 못 미쳐
 偶得彭城氣欲豪 우연히 팽성현을 얻고 의기가 호기롭네.
 入境先占舒嘯地 경계에 들어서자 먼저 휘파람 불 곳을 정하니
 芙蓉一抹是東臯 부용꽃 한 가닥이 동쪽 언덕이네.

春水樓前春水池 춘수루 앞 춘수지에
 恰纔經雨貯漣漪 마침 비 지나자 물이 찰랑찰랑 찻구나.
 雲飛鳥過無相管 구름 떠가고 새 지나도 상관하지 않아
 放個游魚細浪吹 헤엄치는 물고기 놓아두니 작은 물결이 이네.

南岡如帶復如眉 남쪽 언덕 띠 같기도 하고 눈썹 같기도 하니
 一種天成拄笏宜 자연히 한가로운 관직생활 하겠구나.
 樹矮牆低人莫說 나무 짧고 담장 낮다 말하지 마오
 拳簾我愛坐看時 주렴 걷고 구경하러 앉을 때가 좋다오.

繞閣庭園一武寬 누각 둘러싼 정원이 한 걸음이면 넓으니
 舊來閑曠太無端 예로부터 있던 빈 땅 쓸모가 없네.
 行將種秫恢餘地 앞으로 널찍한 남은 땅에 차조를 심으려니
 肯笑彭衙是冷官 팽택 관아 사람 없을 것 비웃으리라.

對案香檀不記年 마주한 단향목은 나이를 기억 못하니
 亭亭直上拂雲天 꽃꽂하게 솟아 올라 구름 하늘에 닿는구나.
 鈴堂得此多顏色 영당에서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어
 髣髴長聞五月蟬 오월 매미소리 길게 듣는 듯하네.

五馬初停二豎嬰 지방관으로 부임해 멈추고 병을 얻으니
 愁兒解尙上眉橫 근심스러운 아들 문안하는데 눈썹이 가로 걸렸네.
 傍人休問烹鮮術 주변 사람은 생선 삶을 방법²⁴⁾ 묻지 마오
 邑小風淳臥太平 읍은 작고 풍속은 순박하여 태평하게 누웠다오.

箱中藥餌帶相隨 상자에 있는 약물을 서로 가지고 따르니
 雷沸奇香聞細吹 기이한 향 피어올라 가볍게 맡아지네.
 分付官僮煎得善 관노에게 잘 달여오라 분부하니
 移將濟衆我先醫 백성들 구하는데 가져가 나보다 먼저 치료하리.

23) 오류 선생 : 도연명(陶淵明)의 호. 상관(上官)에게 머리를 굽히기가 싫어서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와 은거하였다.

24) 생선 삶을 방법 : 무위로 하는 선치(善治). 나라 다스리는 것을 마치 작은 생선을 비늘도 찡자도 제거하지 않고 삶듯이 하여 번거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老子 河上公註)

소오현에서 판상 시에 차운하다
嘯傲軒次板上韻

五柳憑州號	다섯 버드나무는 고을 이름에 기댄 것이니 ²⁵⁾
近乎陶氏廬	도연명의 오두막에 가깝구나.
寵榮惟恐忝	총애와 영광이 외람될까 두려우니
恩重敢忘初	두터운 은혜에 감히 초심을 잊으랴.
村俗農多預	마을 풍속은 농사철 대비가 많고
儒風物有儲	유자의 풍모는 물건을 쌓아둔 게 있네.
欲敷平易政	평이한 정사를 베풀고자 하나
才短奈懸旟	재주 없으니 어찌 군기를 내어 달까.

경정리를 지나며 홍학사 묘소 신도비를 봉심하고 느낌이 있기에
過鯨井里 奉審洪學士墓所神道碑 有感

忠義曾欽貫日星	충의는 일성을 꿰뚫길 흠모했으나
院祠無地拜英靈	사당에 영령께 절할 땅이 없구나.
收編俎豆如天誘	거두어 하늘이 시킨 듯 제사상을 차리니
稍慰今朝感涕零	조금 위로받은 오늘 아침 감격하여 눈물 흘리네.

재해를 살피러 서면에 이르는 도중에 짓다
省災至西面途中作

新莅今三日	새로 부임한 지 오늘 삼일째
周行爲省災	재해를 살피러 두루 다니네.
原多山轉少	언덕이 많아지며 산이 줄어들고

25) 고을 이름에 기댄 것이니 : 도연명(陶淵明, 365-427)이 부임한 고을인 팽택(彭澤)이 평택(平澤) 팽성(彭城)의 글자를 합한 것이기 때문에 이른 말이다.

坪窄浦交回
衣襟貞忠著
閭旌烈孝魁
須憐生理薄
各自保村隈

평지가 좁아지며 포구가 번갈아 돌아드네.
옷을 묻어 절개와 충성 드러내고
정려는 정절과 효도로 우뚝하구나.
생계가 절박한 것이 가련하니
마을 구석에서 각자 보존하네.

북면 가는 도중에 읊다
北面途中有吟

橫叨承適乏
奇數值豐空
原脊嗟風損
郊頭惜水融
審看塩米米
酬答蜜翁翁
恤患分憂地
那能濟歲窮

외람되게 지방군수 자리를 채워
기박한 운수에 흉년을 만났네.
언덕 기슭에서 바람의 피해에 한탄하고
교외 들머리에서 침수를 애석해 하네.
살피는 것은 소금과 쌀 같은 자질구레한 일이고
수답하는 말은 달콤하기만 하네.
환난을 구휼하고 나라 근심 나눌 땅에서
어찌하면 가난을 구제할 수 있으랴.

남면 노하리 도중에
南面老下里途中

新面江山望裡晴
所過指點遍郊行
魚塩已辦商規定
稻黍渾看穡事成
黯淡雲容連海氣
淒清風色帶潮聲

신면의 강산 보이는 곳마다 개어서
지나온 곳 가리키니 교외를 두루 다녔네.
생선과 소금은 상규가 이미 정해졌고
벼와 기장은 추수를 모두 살폈네.
암담한 구름이 바다 기운까지 이어지고
서늘하고 맑은 바람에 파도소리 띠었구나.

錚笙幾處村隣近
秋熟方欣賽社情

어디선가 징과 피리소리 이웃마을 가깝고
풍년들어 새사²⁶⁾의 사정 바야흐로 기쁘네.

신성리에서 낮에 쉬다 新成里午憩

午憩從循郡吏迎
屯村與此一橋橫
新炊精粒流匙滑
供饌肥魚潑火明
兩派自分三郡勢
千帆爭湊萬家生
山頽澤破齊東諺
解好至今徭役平

오시에 설 무렵 돌다가 아전이 맞이하니
둔촌과 이곳에 다리 하나 걸려있네.
새로 지은 쌀밥은 수저 위에 윤기가 흐르고
차려온 살진 생선 불에 구워 신선하구나.
두 개의 산맥이 세 군으로 나뉘고
수천 뚝배 모여들어 수만 집이 살아가네.
산이 무너지고 못이 깨졌다는 건 제나라 동쪽 말²⁷⁾이니
지금까지 다 풀려서 요역이 공평하구나.

동면 도중에 짓다 東面途中 卽事

觀風隨處此徘徊
楓菊還多逸興催
橫澗石橋流蔭積
緣新村路亂柴堆
見輿未慣兒驚走
對客生疎女避回
放志停車江浦望
斜陽一幅畫圖開

풍속 관찰하러 가다가 여기에서 배회하니
단풍과 국화 여전히 많아 흥취를 돋우네.
개천 가로지른 돌다리에 그늘이 흐르고
언덕 따라 마을길에 쌓인 장작 어지럽네.
가마를 못 봤는지 아이들 놀라 달아나고
손님 맞이 낯선 지 여인들이 피하네.
마음대로 수레 멈추고 강나루에서 바라보니
석양이 한폭 그림을 펼친 듯하구나.

26) 새사(賽社): 추수가 끝난 뒤에 주식(酒食)을 장만해서 전신(田神)에게 지내는 제사. 《事物紀原 歲時風俗》
27) 제나라 동쪽 말: 제나라 동쪽 시골 사람들의 말로, 근거 없는 말을 가리킨다. 《孟子·萬章上》

각 면의 재해를 살핀 뒤에 서술하다 各面省災後 述事

化翁攫土蒼蒼擲
洪纖巨細殊千百
上上黃壤雍西開
凡凡青山蜀中積
我夢三刀斗小如
乃古淵明之彭澤
郡本八無秋又無
試將巡視躬阡陌
十里西窄東南并
三災水損蟲風亦
就中最有芙蓉山
一拳之小高盈尺
俯嘯傲軒開郡治
顏觀稼亭證古蹟
曾我手編輿載要
疆形果然今目擊
雖然亦足張吾軍
控引隣境四無隔
青環牙稷錯棋形
白湊威原橫帶格
山川名畫一寰中
盡是瑤圖九幅域
譬如四海皆兄弟

조물주가 흙은 잡아 무성하게 던진 듯
크게 작게 널리 짜인 논밭이 수천 수백.
최상급 붉은 토양이 옹서(雍西)처럼 열렸고
병병한 푸른 산이 촉 땅처럼 쌓여있네.
내가 꿈꾼 칼 세 개는²⁸⁾ 말처럼 작았으니
바로 옛날 도연명의 팽택일세.
고을에는 본래 여덟 가지가 없는데²⁹⁾ 가을이 또 없으니
순시하러 몸소 눈두렁 밭두렁 나가보았네.
십 리 서쪽 좁아지고 동남쪽을 아우르니
세 번의 수재에 별레, 바람 피해도 있었네.
나아간 가운데 부용산 가장 높으니
작기가 한 주먹이요 높이는 한 자 가득일세.
굽어보니 소오현이 군청에 열려있고
무너진 관가정이 고적을 증명하네.
내가 《여재촬요(輿載撮要)》 편찬했더니
경계 형태를 과연 오늘 목격하도다.
그렇지만 우리 군대 펼치기에 충분하니
이웃 경계 끌어들이면 사방에 막힘이 없네.
아산 직산 푸르게 둘러 바둑판처럼 교차하고
진위 수원 모여들어 가로로 띠처럼 도달하네.
산천은 아름다운 그림 세계 같으니
아홉 폭 그림에 다 담긴 듯하구나.
비유하면 사해가 모두 형제이니

28) 꿈꾼 칼 세 개는 : 지방에 부임하는 것을 뜻한다. 진(晉) 나라 왕준(王濬)이 칼 세 개가 서까래에 걸려 있는 꿈을 꾸고 다시 칼 하나가 더해지는 꿈을 꾸고 나서 익주 자사(益州刺史)에 부임했다고 한다. 여기에서 칼 세 개는 “주(州)”를 가리킨다. 《晉書 王濬傳》

29) 고을에는 본래 여덟 가지가 없는데 : 평택은 본래 여덟 가지가 없다고 하는데, “돌이 없고 침이 없고 산다운 산이 없고 물고기기가 없다”고 한다. 오형목의 글을 통해 여기에 시장, 꽃, 산을 거론하였다.

莫謾區區分主客
官閑公事付哦松
竟日而歸聊自適
况有他州之所無
五柳館前一醉石

구구하게 손과 주인 나누지 마오.
관아에 공사가 한가하면 소나무 읊조리고³⁰⁾
날 저물면 돌아가 유유자적하네.
더욱이 다른 고을에 없는 것이 있으니
오류관 앞에 취석 하나가 있도다.

취석을 캔 뒤에 기록하다
採得醉石後 記事

彭城與彭澤
種種多相似
有祿纔五斗
去家亦百里
獨有不同處
蓆人非徵士
猶能志嘒嘒
托物竊自以
花故東籬栽
枕思北窓倚
傳言有醉石
今不得見矣
若有天誘然
苦欲掘而視

팽성과 팽택은
비슷한 점이 많다네.
녹봉은 겨우 다섯 말이요
집에서 거리 역시 백 리라네.
같지 않은 한 가지는
채인³¹⁾이 징사³²⁾가 아니라는 점이건만,
오히려 뜻은 높을 줄 알아
몰래 사물에 스스로를 기탁했네.
꽃을 짐짓 동쪽 울타리³³⁾에 심고
베개 베고 북창에 기댄 것³⁴⁾을 생각하네.
취석이라는 돌이 있다는 말을 들었으나
지금껏 보지 못했었네.
만약 하늘이 인도하여 그런 거라면
애써 파내어 보고 싶었네.

30) 소나무 읊조리고 : 아송(哦松). 한유(韓愈)의 <남전현승청벽기(藍田縣丞廳壁記)>에 나오는 말로, 최사립이 소나무 사이에서 시를 읊조리면서 묻는 사람이 있으면 공사가 있으니 가라고 했다고 한다 《韓昌黎文集 卷13 雜著 藍田縣丞廳壁記》

31) 채인 : 蓆人, 오형묵의 호이다.

32) 징사 : 徵士, 임금이 불러도 관직에 나가지 않는 덕행과 학문이 높은 은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33) 동쪽 울타리 : 도연명의 <음주(飲酒)> 시에 “동쪽 울타리 아래에서 국화 꽃 따다가, 멍하니 남쪽 산을 바라본다.[采菊東籬下 悠然見南山]”라는 구절이 있다.

34) 북창에 기댄 것 : 도연명의 <여자엄등소(與子儼等疏)>에 “오뉴월 중 북창 아래 누워 우연히 시원한 바람이 잠시 닿으면 스스로 희황 때 사람이라고 생각했다.[五月中 北窓下臥 遇涼風暫至 自謂是羲皇上人]”라는 구절이 나온다.

先得一片碑
前候事蹟紀
繼又聲鏗鳴
挑之蹶然起
螭花間蝕膚
羶壤恣侵髓
淨拭就明瑩
乃一石床子
面有二刻字
前所云云是
蟲活會稽篆
鳥印蒼臺史
淵明如復見
不覺拜而跪
顯晦自有時
慳秘若相俟
一舉得兩蹟
我心充然喜
姑令安其位
東西對臥峙
芳隣也不孤
評品可相擬
此物於此郡
無則反所恥
求思傳久後
厥責自任已

먼저 한 조각 비석을 얻어
먼저 사적의 기록을 살폈네.
이어서 또 쟁쟁 소리가 울려
파내어 넘어질 듯 일으켰네.
비석머리 꽃 사이로 좀이 슬었고
흙덩이는 방자하게 골수에 침투했네.
깨끗하게 닦아내니 밝고 영롱하여
마침내 하나의 돌탁자가 되었구나.
표면에 두 개의 새긴 글자가
앞서 말한 그것이라네.
벌레가 살아있는 듯 왕희지의 전서체요
새 발자국 찍힌 듯 창힐의 글자로다.
도연명이 다시 보았다면
자기도 모르게 절하며 꿇어앉았으리.
드러남과 가려짐은 절로 때가 있으니
숨겨져 있던 것이 마치 기다린 것만 같구나.
한 번 발굴해 두 가지 전적을 얻으니
내 마음은 기쁨으로 충만하네.
우선 제 자리에 안치시키고
동서로 와치와 마주보게 했네.
꽃다운 이웃이 외롭지 않으니
품평을 서로 견줄만 하네.
이 고을에 이 물건이
없다면 도리어 부끄러운 것.
오랜 후에 전하기를 생각하니
그 책임이 내게 있을 뿐일세.

춘수루에서 석성³⁵⁾을 그리워하다
春水樓 憶石醒

今朝春水屋	오늘 아침 춘수루에서
悵悵憶聯襟	서글프게 함께 했던 때를 추억하네.
陶柳因成號	도연명은 버드나무로 호를 삼았고
韋槐爲庇陰	위씨는 해나무를 음덕으로 삼았지. ³⁶⁾
我遊難得伴	나는 함께 노닐 짝을 얻기 어렵고
君醉不成吟	그대는 취해도 시를 읊지 못하리.
那引扁題字	어찌하면 편액에 쓰인 글자를 끌어다가
除煩淨洗心	번뇌 없애고 마음을 맑게 닦을까.

홀로 오류관에 앉아 회포를 풀다
獨坐五柳館 遣懷

蕭條秋館裡	쓸쓸한 가을 오류관에서
我思果誰知	내 생각을 과연 누가 알랴.
殘菊香猶吐	시든 국화 여전히 향기 내뿜고
孤松勁自持	외딴 소나무 굳세게 지조 지키네.
消愁頻貰酒	근심 풀려고 자주 술을 빌리고
遣興浪吟詩	흥을 내려 낭랑히 시를 읊노라.
聊以慰幽獨	그윽한 고독을 위로하려니
官閑少累時	관아 한가하여 허물 적은 때로다.

35) 석성 : 石醒. 김인길(金寅吉, 1842-?)의 호이다.

36) 해나무를 음덕으로 삼았네 : 송나라 왕호(王祐)가 마당에 해나무 세 그루를 심고서, 후일 자기 자손 중에 반드시 삼공의 자리에 오를 자가 나올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뒤에 과연 그의 아들 단(扈)이 진종(眞宗) 연간의 명상(名相)이 되었다고 한다.

가을이 끝나 가니 나그네 시름이 그치지 않아 소오현에 기대어
오언율시 1수를 짓다

秋序向梢客懷悠悠 倚嘯傲軒賦得一五律

吾衰情趣少	내가 쇠약해 정취가 적어지니
安分外無餘	분수에 편만한 것 외에 남은 게 없네.
要路多艱險	벼슬길 험난함이 많으니
靜居易卷舒	고요한 거처에서 기거하기 쉽구나.
山茶呈眼媚	산의 차나무 반가운 눈을 보내고
園竹對心虛	정원의 대나무 텅빈 마음으로 대하네.
且與秋光澹	그리고 가을 풍경 담박하니
幽懷得又攄	그윽한 회포를 또 펼 수 있구나.

연명³⁷⁾하는 도중에 호당을 지나다
延命路過虎堂

藍輿伊軋趨天晴	남녀가 빼적거리며 하늘 갠 때 나아가니
一望郊原路轉平	교외 언덕 한 눈에 보이고 길은 평평해지네.
經過尋真吾所好	지나가며 진경을 찾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바
居人指點古彭城	주민이 손가락으로 옛 평성을 가리키네.

직산 도중
稷山途中

牛宮豚柵野人居	외양간 돼지우리 야인들이 사는 곳
禾黍豐登滿壟儲	곡식이 풍년들어 언덕 가득 쌓였네.

37) 연명 : 延命. 수령이 부임할 때 꺾때 앞에서 왕명을 널리 알리는 일을 가리킨다.

老盡物華霜落際
洗開塵障雨過初
帆檣遠浦隨潮出
詩律前村覓酒踈
爲有客愁消未盡
遍看青山故自如

아름다운 경치 스러지고 서리가 내릴 즈음
티끌 세상 씻어내듯 비가 처음 지나가네.
돛단 배 먼 포구에 물결 따라 나오고
앞 마을에서 술 찾느라 시는 드물게 짓네.
나그네 시름 미처 다 씻지 못했기에
짐짓 그대로 청산을 두루 보노라.

천안 주막에서 짓다 天安店有作

緣何役役憇成歡
須愧揮斤斲鼻端
老且宜休空自負
思惟常悶輒由難
鶴巢尚待聽三喚
鷄蹴肯隨爭一餐
身分誰知今日事
黃花對酌宿天安

무슨 이유로 애를 써 성환에서 쉬었나?
도끼 휘둘러 코끝 깎은 일에³⁸⁾ 부끄럽네.
늙었으니 쉬어야 한다고 부질없이 자부하며
생각은 항상 어려울까 근심하기만 했네.
학 둥지도 기다려야 세 번 울음을 듣고
닭도 발을 차야 한 번 먹이를 다투네.
몸이 나뉘는 오늘 일을 누가 알라
국화 대하고 술 마시며 천안에서 묵노라.

목천 가는 길에 木川途中

霜華曉來重
氣冷怯衣侵
紅葉山粧錦
黃花地綻金

서리꽃은 새벽오자 무거워지고
냉기는 옷속으로 파고드네.
붉은 잎이 산을 비단까지 꾸미고
노란 꽃은 땅에 금처럼 뿌려졌네.

38) 도끼 휘둘러 코끝 깎은 일에 : 영(郢) 땅 사람이 백토(白土) 가루를 자기 코끝에 얹게 바르고 장석(匠石)에게 깎아내게 하자, 장석이 큰 자귀를 휘두르니 백토는 다 벗겨졌으나 코는 멀쩡하였다고 한다. 《莊子 徐無鬼》

川清魚可數
林古鳥空吟
有景人無伴
孤懷謾自深

개천 맑아 물고기를 셀 수가 있고
숲은 오래 되어 새가 공연히 우네.
경치가 있어도 짝할 사람 없으니
외로운 마음만 깊어지는구나.

청주 도평을 지나다 過淸州桃坪

經過多觀聽
何妨醉裡謳
耕牛牟已播
饁婦稻方收
稔歲農情恰
淸秋眼力優
從茲相慶喜
民國兩無憂

지나다가 많이 보고 들으니
취한 중에 노래한들 무슨 상관이라.
밭 가는 소에 보리는 이미 뿌렸고
들밥 내는 아낙은 벼를 막 거두는구나.
풍년이라 농촌 인심 흡족하고
맑은 가을 멀리까지 잘 보이네.
이제부터 경축하고 기뻐하리니
백성과 나라가 둘다 근심 없으리.

전의계에서 그냥 읊다 全義界卽事

遙天叫過鴈縱橫
一簇疎林夕照明
沽酒人來眠狗吠
浣衣女起噪鴉驚
遍郊禾穗秋聲撼
滿渚蘆花雪片輕
老盡物華如畫裡
此行隨處寄幽情

먼 하늘 기러기는 종횡으로 울며 지나고
한 떨기 성긴 숲에 저녁 노을 밝구나.
술 팔러 사람 오자 자던 개가 짖고
옷 빨러 여인이 일어나자 소란스런 갈가마귀 놀라네.
교외 두루 이삭 익어 가을 소리 요동치고
물가 가득 갈대꽃은 눈 조각처럼 가볍구나.
경물의 정화가 다하니 그림 속 같아
이번 길 가는 곳마다 그윽한 정을 부치네.

공주에서 저녁에 역원에서 묵다
公州暮院止宿

一燈孤館夜	등불 하나 외로운 객관의 밤
我思轉悠悠	내 생각은 점점 아득해지네.
老驥千金市	늙은 준마를 천금으로 사고
元龍百尺樓	원룡은 백척루에 누웠구나. ³⁹⁾
如何迷出處	출처를 어찌할지 헤맨들 어찌리
只自感行休	스스로 느끼는 대로 가다 설 뿐일세.
明日錦江上	내일 금강 가에 가서
還羞見白鷗	백구를 보면 부끄럽겠지.

금강머리에서 회포를 풀다
錦江頭 遣懷

歲月消磨一再行	세월은 한두 번 가는 사이 사라지니
江頭未盡老風情	강머리에 늙은 풍정 다하지 않았네.
道臣曾慕遺名蹟	도신이 남겨진 이름난 자취 사모하였으나
彭宰還羞冒寵榮	팽택 현령은 충애를 무릅쓴 것이 부끄럽네.
天氣蕭疎人易感	날씨는 쓸쓸하여 감회 일으키기 쉽고
山容黯淡畫難成	산 자태 암담하여 그림 되기 어렵구나.
故園物色憑誰問	옛 동산 풍경을 누구에게 물으랴
籬菊應知自綻英	울타리 국화가 꽃망울 터트리겠지.

39) 원룡이 백척루에 누웠구나 : 여기에서는 인재를 우대함을 뜻한다. 후한(後漢) 말엽에 허사(許汜)가 원룡(元龍)의 집을 찾아가자 자기는 높은 침상에 놓고 자기는 아래 침상에 자게 하였으니 '호기(豪氣)가 아직도 없어지지 않았다'고 유비(劉備)에게 하소연하자, 유비가 "나 같았으면 자신은 백척루 위에 놓고 당신은 명바닥에 눕게 했을 것이다."라고 진동(원룡)을 옹호하였다. 《三國志 卷7 魏書 陳登傳》

하류하여 공북문에 앞길에 나섰으니 이는 전날 쌍수산성에서
느낀 바가 있어서 지은 것이다

因下陸即拱北門前路 此是前日雙樹山城有感作

較昔如經劫	옛날과 비교하니 난리를 겪은 듯
蕭條一望中	바라보이는 곳 모두 쓸쓸하구나.
世機隨手變	세상 인심은 손 가는 대로 변하고
人事轉頭空	사람 일은 머리 돌리면 비어버리네.
古木烟猶綠	옛나무는 안개에도 여전히 푸르고
孤城楓自紅	외딴 성은 단풍이 절로 붉구나.
老懷消不得	늙은 회포 없어지지 않아
詩句酒連筓	시구가 술통으로 이어지네.

공주관사에서 새벽에 일어나 “성(醒)” 자를 써서 시를 짓다
公州館曉起 占醒字

雲黑風蕭雨欲冥	구름 검고 바람 쓸쓸하니 비 오려는지 어둑하고
埒鷄喔喔亂交聽	헛대 닭 우는 소리 요란하게 번갈아 들려오네.
推思夜夢忘先後	밤사이 꿈을 더듬어보니 앞뒤가 안 맞지만
心眼惟存見石醒	마음속에 석성을 만난 것은 남았구나.

공주관사에서 “광(光)” 자를 써서 시를 짓다
公州館 占光字

鳳凰爲主鎮	봉황이 주인이 되니
覽德也彌光	빛나는 덕을 더욱 보네.
府領三千戶	관부는 삼천 호를 거느리고
境開十六坊	경계는 스물여섯 마을에 열렸네.
雲開龍岳屹	구름 걷히자 계룡산이 우뚝하고

帆拖錦江長 돛을 펼치자 금강이 길구나.
 鑾蹕曾經地 임금 수레가 거쳐 갔던 땅이⁴⁰⁾
 翻成悵慕場 바뀌어 서글피 사모하는 곳이 되었네.

월파루에 올라 느낀 바가 있어 짓다
登月波樓有感作

翠華想像空山裏 빈 산성에서 취화⁴¹⁾를 상상하니
 玉殿虛無野寺中 어전은 텅 비고 들녘 절로 들었겠지.
 遇境杜翁先我得 두옹⁴²⁾이 나보다 먼저 이 일을 겪었으니
 一般懷緒古今同 이런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같구나.

차유령을 지나다
過車踰嶺

酸寒心獨苦 시린 마음 유독 괴로우니
 可笑此頻過 여기를 자주 지난 것이 가소로워라.
 嶺峻行人少 고개는 험준해 다니는 사람이 적고
 林疎宿鳥多 숲은 성기어 깃든 새가 많구나.
 雲山圍碧髻 구름 산은 푸른 머리를 돌렸고
 霜葉勝紅羅 서리 맞은 잎이 붉은 비단보다 곱구나.
 堪聽斜陽路 석양길에 들을 만 하니
 後先樵豎歌 앞뒤로 초동이 노래하누나.

40) 임금 수레가 거쳐 갔던 땅이: 인조가 이괄의 난 때 공주산성으로 피난하였던 일을 가리킨다.
 41) 취화: 羣華. 임금이 멀리 순행하는 일. 여기에서는 인조가 머물렀던 일을 가리킨다.
 42) 두옹: 두보를 가리킨다. 안록산의 난을 겪으며 시를 지었다.

직산 슬음소 금광처를 지나며 느낀 바가 있어 짓다
過稷山瑟音所金礦處有感作

一變滄桑慾壑中 한 번 상전벽해 일어난 옥망의 구렁텅이
 居人自此有秋空 사는 이들 이제부터 가을 허공 뿐일세.
 世間名利眞堪笑 세간의 명리는 진실로 우습기만 하니
 得失須知塞馬翁 득실 따질 적에 새옹지마 알아야 하리.

성환가는 길에 “심(深)” 자를 뽑아 시를 짓다
成歡途中拈深字

淒清秋氣冷衣襟 서늘하고 맑은 가을 날씨 옷소매가 차갑고
 寫景新詩苦用心 경치 묘사한 새 시 쓰느라 괴로이 맘을 쓰네.
 滿圃菜莖甲甲玉 채마밭 가득 채소들이 총총한 옥과 같고
 排籬菊朶條條金 울타리 따라 국화꽃이 송이송이 금 같구나.
 禾擬黃雲屯壟畝 벼는 누런 구름처럼 이랑이랑 쌓여있고
 楓如紅錦被山林 단풍은 붉은 비단처럼 산과 숲에 덮여있네.
 牧童自有昇平樂 목동에게 저절로 태평세대 즐거움이 있어
 短笛橫來石徑深 짧은 피리 불며 가는 돌길이 깊숙하구나.

유시 초가에 관아에 돌아와 밤에 짓다
酉初刻還衙夜有作

外宰趨承拜二天 지방 수령으로 달려가 두 하늘을⁴³⁾ 받들어 절하니

43) 두 하늘에: 감사(監司)의 특별한 은혜를 가리킨다. 후한 때 소장이 기주 자사(冀州刺史)로 부임하였는데 그의 친구가 청하 태수(淸河太守)로 있으면서 비리를 많이 저질렀다. 소장이 주연을 준비해 놓고 태수를 초청하여 평생 동안 사이가 좋았던 일을 얘기하면서 매우 즐겁게 놀았다. 태수가 기뻐하며 말하기를 ‘사람은 모두 일천(一天)만 있으나 나는 이천(二天)이 있다.’ 하자 소장이 “오늘 저녁에 내가 자연인(自然人)으로서 옛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는 것은 사은(私恩)이요, 내일 기주 자사로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공법(公法)이다.” 하고는 마침내 그의 죄를 바로잡아 처벌하였다. 《通鑑節要 卷18》

澄清宣化望如仙
四宵計日程三百
七郡歷坊戶十千
遍野嘉禾方穫納
登場賀酒任周旋
古人出宰誰平易
自顧才疎老且憐

맑고 깨끗한 교화에 신선처럼 바라보았네.
네 번 밤을 보내면서 삼백 리를 다녔으니
일곱 군의 마을 수십 수천 호를 거쳤네.
들에 두루 잘 익은 벼를 막 베어 들이고
타작하는 마당 축하주는 주선하는 대로 맡기네.
옛사람 지방에 나갈 때 누가 평이하다 하였나
재주 없음을 돌아보니 늙은 데다 가련하네.

홀로 앉아 운을 잡아 짓다
獨坐拈韻

後來千載遠
邑號想陶君
醉石堪跨躋
剝碑足考文
因人稱柳老
遇境愛檀芬
斗邑多奇勝
那無得趣欣

천 년 후 늦게 태어나
고을 이름 보며 도연명을 생각하네.
취석은 유적을 넘을 만하고
벗겨낸 비문은 문자를 상고하기에 충분하네.
사람마다 오류노인이라 칭하고
곳마다 단향목 향기 사랑스럽구나.
작은 고을 기이한 경치 많으니
어찌 흥취가 없을 수 있으랴.

익아⁴⁴⁾에게 답장을 쓰고 느낌을 읊다
答翼兒書有感吟

淵明師表在
聊以古人謀
家信歸鴻杳

도연명의 사표가 존재하니
고인을 따르려고 하네.
집 소식은 돌아가는 기러기편이 아득하고

44) 익아 : 翼兒. 둘째 아들 오익선(吳翼善)을 가리킨다. 사촌 오응묵(吳膺默)에게 출계한 아들이다.

鄉心落葉愁
省躬良可笑
從宦只堪憂
形役無終已
白頭頗自羞

고향 그리움에 낙엽 보니 근심스럽네.
내 자신 살펴보면 진실로 가소로우니
벼슬길에 다만 근심을 감당할 뿐.
형체에 부림을 받는 일 끝이 없으니
흰머리가 더욱 스스로 부끄러워라.

자탄하는 시를 읊어 회포를 풀다
吟自嘆詩遣懷

人生云百歲
七十世間稀
失眠精神耗
經勞筋力微
老須無足歎
病且不爲非
饌供雖兼味
還多口與違

인생은 백 년이라 하지만
일흔살도 세간에는 드무네.
잠 못 이뤘 정신은 소모되고
고생 겪어 근력이 쇠약하네.
늙음이야 탄식할 거리가 못 되고
병은 또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닐세.
밥상에 맛있는 반찬 갖춰 올려도
입맛에는 전혀 맞지 않는구나.

집 편지를 우편으로 받고 생각하는 바를 운을 잡아 짓다
見郵來家書有所思拈韻

莫學干名苦
時時輒省躬
德宜遺恐盡
福必享無窮
分外拋求望
行來合趣同
自憐天壤內
誰與剖丹衷

이름 나길 구하는 고생 배우지 말고
때때로 자신을 살펴야 하네.
덕은 남은 것이 다할까 걱정해야 하니
복은 반드시 무궁하게 누리리라.
분수 밖을 구하고 바라는 것 포기하고
오가며 취미 같은 이와 합하리.
스스로 가련하니, 하늘과 땅 사이에
누가 함께 붉은 마음 드러낼까.

저녁에 앞산을 오르니 만송이 울창하여 배회하며 읊다
晚登南山 萬松蒼鬱 徘徊有吟

探看幽勝此徘徊
蒼鬱松田轉路隈
根托最宜官舍案
幹抽須待棟樑材
動龍日影陰初散
奏瑟風聲韻自裁
今我年來同是客
雪鬚何獨老坡催

그윽한 경치 찾아와 이곳에서 배회하니
울창한 솔밭이 갈수록 길이 외지네.
뿌리는 관사의 서안 만들기에 제일 좋고
줄기는 뽑아 동량 재목으로 써야겠네.
움직이는 용 같은 햇빛이 그늘에서 처음 흩어지고
비파 연주하는 듯 바람소리 운율이 절로 생기네.
지금까지 나는 죽 나그네와 같았으니
흰 수염이 어찌 소동파만 재촉했으랴.

망한사를 노닐다가 그냥 짓다
遊望漢寺 卽事

天德崗前一道場
東頭野濶抵天光
圓通佛相梵宮寂
頌禱睿齡金字煌
郡治如逢回普渡
浦居還擬湊慈航
且看諸子題名帖
料得鍾聲飯後當

천덕산 앞의 한 도량
동쪽 머리 들이 넓어 하늘빛에 닿네.
원통사 불상의 사찰은 적막하고
임금을 축수하는 금글씨가 빛나는구나.
군청 자리는 돌아와 모두를 건너줄 곳을 만난듯하고
포구는 자비를 베푸는 항구에 모여드는 것 같네.
사람들이 명첩에 쓴 것을 보자니
종소리가 식후에 울릴 것을 알겠네.

철도는 우리 대한제국이 만든 일인데 지나는 곳을 측량하는 동안
사람들 마음이 의혹되고 이해하지 못하기에 근심스러워 탄식하며 읊다
鐵道卽我韓創見之事 測量所經處 羣情疑惑 莫可曉解 憂歎有吟

凡天下事蓋由時

온 천하가 이를 타고 다니는 시대라

勢利無端互錯推
思究衛生新制度
也難水解抱群疑

권세와 이익이 무단히 서로 엮히는구나.
삶을 지킬 방도 궁구한 새로운 제도인데
여러 의심들을 얼음처럼 녹이기 어려워라.

백향산 운에 차운하여 그냥 읊다
次白香山韻 賦卽事

斗杓初建亥
一氣不相通
山護前時碧
楓持此歲紅
經檐駒景短
落地雪花融
墻梅消息近
恰好敵春功

북두성 자루가 처음 해방(亥方)을 가리키니⁴⁵⁾
한 기운이 서로 통하지 않네.
산은 지난 계절 푸름을 지키고 있고
단풍은 지금 시절 붉음을 지니고 있네.
처마를 스치는 햇빛은 짧고
땅에 떨어지는 눈꽃은 녹는구나.
담장에 매화 소식 가까우니
봄 공사 대적하기 딱 좋구나.

약용으로 국화를 따며 읊다
藥用採菊 有吟

傲霜雖異卉花繁
委地黃金難護根
垂殘冷艷猶生態
抵死幽香欲有痕
餐英自可除烟累
作枕端宜療眼昏

거센 서리 남달라도 풀과 꽃은 번성하나
땅 가득 황금꽃은 뿌리 남기기 어려워라.
시든 꽃에 서늘한 어여쁨이 여전히 생기있어
죽을 때까지 그윽한 향기 흔적을 남기려하네.
꽃잎을 먹으면 연초의 해를 제거하고
베개 만들면 침침한 눈 고치기에 적당하네.

45) 해방을 가리키니 : 해방(亥方)은 서북쪽으로, 시월을 가리킨다.

會得陶公堪採摘
休嫌今日把盈掬

도연명이 국화꽃 따던 일을 이해한다면
오늘 가득 따는 것을 혐의치 마오.

밤에 앉아 운을 잡아 읊시 한 수를 짓다
夜坐 占韻得一律

羈窓冷氣透衣裳
獸炭策勳功最良
凝結霜花風借力
虛明雪彙月交光
歌腔讀得三奇誌
字樣灰成萬壽香
永夜恰乎消遣法
酒餘考檢舊奚囊

나그네 창에 냉기가 들어 옷에 파고드니
수탄⁴⁶⁾의 공이 가장 훌륭하구나.
서리꽃 얼리는 데 바람이 힘을 빌려주고
행하게 눈뭉치를 밝혀 달빛이 교차하네.
노래 곡조 삼국지를 읽어내고
글자 모양 재가 되어 만수향을 이루네.
긴 밤 한가함을 없애기에 좋으니
술 마시면 옛 시주머니 살펴봐야지.

이청에서 고사에 쓸 술과 음식 한 상을 바쳤기에 시를 짓다
吏廳告祀酒物一床供來 因賦詩

年年此日賽神辰
具饌供來適口珍
田穉秋荒無以報
題詩留得試嘗新

해마다 오늘은 굿을 하는 때라
음식 갖춰 가져오니 진기한 맛이로다.
전출⁴⁷⁾이 흉작이라 보답할 길이 없으니
시를 지어 남겼다가 새로이 맛보리라.

46) 수탄 : 석탄 가루를 짐승모양으로 뭉쳐놓은 것이다.
47) 전출 : 田穉. 공전에 심은 수수. 도연명이 팽택령으로 있을 때 공전에 모두 수수를 심고 '내가 항상 취할 수 있으면 족하다'라고 하였다.

오류관에 홀로 앉아 회포를 풀다
獨坐五柳館 遣懷

陶令曾過地
依舊此江山
景物詩情適
從知官事閑

도연명이 현령으로 지났던 땅
이 강산은 예와 같구나.
경물은 시상 떠올리기에 적당하니
관사가 한가한 줄 알겠구나.

석성을 그리워하며 짓다
憶石醒 有作

嶺樹迢迢慘別顏
流雲飄雪摠情關
許多徒有相思意
莫可攀兮夢亦頑

고개 나무 멀고 멀어 이별한 얼굴 애처롭고
흐르는 구름 날리는 눈 마음의 문을 훔는구나.
허다하게 많은 것이 한갓 그리운 마음
매달릴 수 없게 꿈도 역시 완고하네.

생각한 바가 있어
有所思

星回推一氣
霜肅北風寒
木脫山容瘦
禾收野色寬
搔頭華髮短
拭目眩花殘
節物時俱盡
嗟余不忍看

별자리 돌아 기운 한 번 바뀌니
서리 매섭고 북풍이 차갑구나.
나뭇잎 떨어져 산 모습 수척하고
벼는 거둬들여 들 풍경 넉넉하네.
머리 긁으니 흰머리가 짧고
눈 비비니 침침함이 남는구나.
가을 풍경이 모두 다 사라지니
내가 차마 볼 수 없음을 탄식하노라.

새벽에 앉아
曉坐

曙色熹微雪意濃
因時俯仰叙從容
城邊古寺長隣近
却聽蒲牢吼曉鍾

새벽빛 희미하여 눈이 올 기색인데
때맞춰 조용히 우러렀다 굽어보네.
성 주변 옛 절이 길이 인근에 있어
우렁차게 새벽 종 소리가 들려오네.

밤에 유 선비와 함께 마주앉아 운을 잡다
夜與柳雅對坐 占韻

孤懷南下日增生
朋自雲山是泰卿
莫逆久貽三月阻
忘年相對一燈明
共看氣槩金蘭義
何用區分水醴評
病枕長歌雖寡況
心田抽筆韻堪耕

남쪽으로 내려와 외로운 마음 날마다 늘었는데
운산에서 벗이 오니 바로 태정일세.
막역한 사이에 석 달이나 못 만났다가
나이 잊은 채 마주 앉아 등불 하나 밝히네.
기개를 함께 보니 금란 같은 사귄이라
물 같은지 단술 같은지⁴⁸⁾ 구분해 무엇하랴.
병상에서 긴 노래 비록 적게 주더라도
마음 밭에 붓을 들어 운율을 경작하리.

번민을 떨치다
排悶

勘盡人間八嫁婚
自言無復尙平煩

세상을 다 헤아려 여덟 자식 혼인 시켜
다시는 없을 거라 말했으나 여전히 수고롭네.

48) 물 같은지 단술 같은지: “공자(孔子)가 자상호(子桑扈)에게 묻기를 ‘나의 친구들이 갈수록 멀어지고 제자들이 갈수록 흩어지는데, 무엇 때문인가?’ 하니, 자상호가 답하기를 ‘군자(君子)의 사람은 물처럼 담담하고 소인(小人)의 사람은 단술처럼 달다. 군자는 담담해도 친밀해지고 소인은 달콤해도 관계가 쉽게 끊어진다. 저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합해졌다면 아무런 이유 없이 떠날 것이다.’ 하였다.” 《莊子 山木》

官居每切憂民社
年老端宜聽子孫
豈意今年世故辛
纔經送舊又迎新
廚下忽空中饋主
門前續至伐柯人
家人望我遠回車
柳泰卿來帶一書
吉日團樂情所在
尊章主管事何如
荒年稅務亂如麻
期會愆違亦已多
公後私先吾豈敢
此時抽暇末由何
人情到此作人難
惟有長吁與短歎
秋盡霜天雙鬢禿
夜深孤館一燈寒
當時悔不敵貪泉
安用鬱林載石船
我願鄒生吹暖律
看花聽鳥度餘年

관직에서 매번 백성과 사직 근심 절박하다가
연로하니 자손들 말을 잘 들어야 하겠네.
올해 세상일 괴롭다고 어찌 생각하지 않으랴
간신히 묵은 해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네.
부엌에는 홀연 접대 주관할 사람이 비어
문앞에는 종매인이 계속해서 이르는구나.
가족들은 멀리서 내가 수레 돌리기를 바라
유태경이 편지 하나 지니고 왔네.
길일에 단란하니 정이 있는 곳이요
존장께서 주관하니 일이 어떠하리.
흉년에 세무가 삼실처럼 어지러워
기회를 어기는 일 역시 이미 많았네.
어찌 감히 공사를 뒤로 하고 사적인 일 먼저 하리
이런 때 무슨 이유로 휴가를 내겠는가?
인정이 이렇게 남을 곤란하게 만들어
오직 긴 한숨과 짧은 탄식 뿐일세.
가을 다해 서리 내리고 귀밑털 벗겨지니
깊은 밤 외로운 관사에 등불 하나 시리구나.
그 당시 탐천⁴⁹⁾을 마시지 않은 것이 후회되니
배에 실은 울림석⁵⁰⁾을 어디에 쓰랴.
내 원하노니, 추생이 따스하게 울을 불어서⁵¹⁾
꽃 보고 새소리 들으며 남은 날을 보내고 싶네.

49) 탐천: 貪泉. 중국 광주(廣州) 땅에 있다는 샘물로, 한번 마시면 돈만 알게 된다고 한다.

50) 울림석: 鬱林石. 육적(陸績)이 울림태수(鬱林太守)로 부임하여 청렴하게 지내, 돌아올 때 빈 배로 돌아오자니 너무 가벼워서 큰 바위를 싣고 돌아와 문 앞에 두었는데, 사람들이 이를 울림석이라 불렀다고 한다.

51) 추생이 따스하게 울을 불어서: 전국시대 제(齊)나라 추연(鄒衍)이 연(燕)나라 혜왕(惠王)을 섬길 적에 참소로 인해 갇히자 5월에 서리가 내리고 북방은 기후가 차서 오곡(五穀)이 자라지 못했는데, 그가 율(律)을 불어 따뜻하게 하자 곡식이 자랐다고 한다.《列子 湯問》

일본인 도키 무네나오가 조개 한 통과 신선한 도미 두 통을 준 것에 감사하다
謝日人土岐宗直蛤子一桶 新鮮鯛二桶見饋

交涉從來作主賓	교섭한 이래 주인과 손님 되었더니
蒙君顧盼謝難陳	그대 보살핌에 감사하기 어려워라.
如非承惠嘗珍味	은혜 입어 진미를 맛보지 않았다면
那識新鮮釣我津	우리 나루에서 잡힌 이 생선을 어찌 알았으랴.

관속을 징계하고 독려한 후 시로 변민을 풀다
懲勵官屬後 詩以遣悶

老我只餘空洞胸	늙은 내게 남은 것은 텅 빈 가슴뿐이니
除非太甚皆能容	너무 심한 잘못이 아니라면 모두 용서할 수 있네.
譬如經秋霜後壑	비유하자면 가을 서리 지난 후 골짜기에
收藏虎豹吞虬龍	범과 표범 갈무리하고 규룡을 삼킨 것이네.
白首南來斗小鄉	흰머리로 남쪽 작은 고을에 와서
臨民御吏視如傷	백성과 아전 대하기를 다친 사람 보듯 하였네.
武城割雞非敢擬	무성의 할계를 ⁵²⁾ 감히 비기고자 한 것이 아니니
鄭沼烹鯉也何妨	정소에서 잉어를 삶은들 무슨 상관이라.
自從入境心欲折	경계에 들어온 이래로 마음은 꺾일 듯 하니
故將口舌代斧鉞	짐짓 입과 혀로 도끼를 대신하네.
矛盾相背終悠悠	창과 방패 대치해도 끝내 느긋해지고
鑿枘難入常憂憂	둥근 구멍에 모난 자루는 들어가기 어려워 항상 뼈걱대네.
稽遲公債積如邱	갚지 못한 공채가 언덕처럼 쌓였으나
相視恬然不少憂	편안히 바라볼 뿐 조금도 걱정하지 않네.
朔朝伊始今既望	초하루에 시작하여 지금은 기망인데
簡書相續漸生疣	공문서 이어지니 원망이 점점 생겨나네.

52) 무성의 할계를 : 자유(子游)가 무성 수령으로 있을 때 공자가 그의 현가(絃歌) 소리를 듣고는 “닭을 잡는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리요. [割雞 焉用牛刀]”라고 하였다. 《論語 陽貨》

空將堆簿弄操觚
首掾安在堂堂乎
職如濫叨非分內
膠不更張豈善圖
陽春一變霜風起
沙汰紛紛出不已
只緣去舊故生新
莫曰奪彼而與此
焉得自由任屈伸
妍媸美惡不關人
使我苟無官守責
一笑何曾復一嘔
見事風生那復得
思將再遊桃源春
人誰無過貴能改
尚望而曹有時新

쌓인 문서에 헛되이 붓을 놀리니
이방이 어디에서 당당하랴.
직분은 외람된 듯 분수에 맞지 않았고
아교 붙인 듯 다시 찢지 못하니 어찌 훌륭한 시도를 하랴.
양춘이 한 번 변하여 서리 바람 일어나고
사태가 분분하여 끊임없이 나오네.
다만 옛것을 제거해야 새로운 것이 생기는 법
저쪽에서 빼앗아 이쪽에 준다 말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자유로이 마음대로 굴신하랴
아름다운지 추악한지는 사람과 상관 없네.
내가 구차히 관직에서 책임을 맡지 않았다면
한 번 웃었다가 어찌 다시 한번 찡그리랴.
바람 일 듯 빠른 일처리 어찌 다시 얻으랴
다시 도원의 봄을 노닐 생각 하노라.
누군들 허물이 없으랴만 고치는 것이 귀하니
너희들이 새로워질 때가 있으리라고 아직도 바라노라.

장청에서 고사를 지내고 주면상을 들여왔기에 시를 지어 기록하다
將廳告祀酒糴床入來 賦詩志之

炊餅蒸豚雜菜香
口甘牙滑適初嘗
珍需曾有憑公進
不及蓮堂此日觴

찜 떡과 삶은 고기, 잡채가 향기로우니
입에 달고 매끄러운 음식 마침 처음 맛보았네.
잘 차린 음식을 공진으로 받은 적이 있으나
이날 연당의 술잔에는 미치지 못하는구나.

부용산에 올라 절구 2수를 짓다
登芙蓉山 二截

鳳翥龍蜿特挺靈

봉이 나는 듯 용이 꿈틀대는 듯 빼어난 영기

芙蓉肌肉露鬢形
 一拳之大占中野
 遠拱環峯送挹青

부용 같은 살결에 쪽진 머리 드러난 모습.
 한 주먹 크기로 들 가운데 차지하여
 멀리 읍하듯 둘러싼 봉우리가 푸름을 보내네.

勢展結城主鎮靈
 虬龍聳得老松形
 幽人偏愛青山好
 爲愛青山不變青

산세 펼쳐져 성에 맺히니 주진의 영기이고
 규룡이 솟아올라 노송의 형태라네.
 그윽한 사람 편애하는 청산이 좋아
 사랑받는 청산은 푸름을 변치 않네.

망한사에서 극아⁵³⁾를 위해 신명께 고하다
望漢寺 爲克兒告祝

客到空遺現在心
 烟雲供養想幽尋
 摧頹棟宇丹青落
 磨滅彌陀歲月深
 鬢疊千峰圍曠野
 鏡開一水護疎林
 僧居靜寂憑誰話
 却恨無因聽妙音

객이 와서 공연히 현재심을 남기니
 자연의 공양에 그윽한 곳 찾아갈 생각하네.
 동량 지붕 꺾이고 단청은 떨어지고
 마멸된 미타불에 세월이 깊구나.
 비녀 같이 솟은 수천 봉우리가 빈 들을 두르고
 거울처럼 열린 한줄기 강이 성긴 숲을 감싸네.
 승려 사는 적막한 곳에서 누구와 말을 하나
 묘음을 들을 길 없는 것이 한스럽구나.

밤중 기침을 달래라고 둔포의 감 50개를 사서 보내왔기에 시를 짓다
爲夜間潤痰之資 送買屯浦柿子五十箇 有作

物品隨鄉產各殊
 林園未就八稜俱

물품은 고을 따라 각기 다른 것이 나니
 숲과 동산에 팔릉 감을 기르지 못했네.

53) 극아 : 삼남 오극선(吳克善)을 가리킨다.

每思潤痰無其術
 爲趨嘗新不負吾

매번 기침을 달래고 싶어도 방법이 없더니
 새 감을 맛보고서 나를 저버리지 않았구나.

밤에 무떡을 먹다
夜啖菁根餅

菁根稻粉合炊蒸
 十字劃分雪也凝
 一味甘馨牙齒滑
 能令老氣覺新增

무와 쌀가루 섞어 찌서
 십자로 나누어 썬 눈이 멩친 듯해라.
 달고 향기로운 맛이 이 사이에 미끄러지니
 늙은 기운에 새로움을 더욱 느끼게 하네.

석성이 부쳐온 시에 차운하다
次石醒見寄韻

苦憶黃亭金石醒
 劇談豪詠轉頭空
 嶺梅未着詩先到
 勝似逢春廿四風

황정 김 석성을 괴롭게 추억하니
 쾌활한 얘기 호탕한 시가 고개 돌리니 사라졌네.
 영매⁵⁴⁾ 피기 전에 시가 먼저 도착하니
 봄에 부는 입사풍⁵⁵⁾보다 낫구나.

통인 박희룡이 무떡 한 그릇을 바치러 왔기에 뜻이 매우 가상하여 짓다
通引朴喜龍菁根餅一盒供來 意甚嘉尙 有作

俗傳戊午賽神期
 獨坐枯淡夜久時

세속에서 무오일은 굿하는 날이라 전하는데
 고담하게 홀로 앉아 밤이 오래된 시각에

54) 영매 : 본래 대유령(大庾嶺)의 매화를 가리킨다. 강서성(江西省)에 있는데, 이곳에는 매화가 많기로 유명하여 매령(梅嶺)이라고 한다.
 55) 입사풍 : 이십사번화신풍(二十四番花信風)의 약칭. 꽃피는 시기에 맞추어 불어오는 24회의 바람을 가리킨다.

憫我侍童炊餅進 불쌍했는지 시동이 떡을 찌서 바치니
非眞在物意推知 물건 때문이 아니라 마음을 미루어 알겠네.

밤에 홍시를 먹고 마음대로 쓰다
夜啖紅柿 縱筆

彭城孤宦者 팽성의 외로운 벼슬아치
六十九衰翁 예순아홉살 늙은이.
當饌思還薄 밥을 먹어도 부실하게 느껴지고
經宵睡便空 밤을 보내도 잠을 이루지 못하네.
眼生雲并霧 눈에는 구름과 안개가 생겨나고
耳得雷兼風 귀에는 우레와 바람소리 들리네.
潤肺惟長物 폐 다스리는 데 귀한 물건이니
牛心似顯功 소염통처럼 효과가 있는 것 같구나.

외진연⁵⁶이 있던 날 기쁨을 기록하다
外進宴日 志喜

金門此日遠難攀 이날 대궐문 멀어 올라가기 어려우나
瑞氣祥雲耀入窠 상서로운 기운과 구름이 빛나며 도성으로 들어가네.
冠佩應趨朝北闕 관대 갖추고 달려가 북궐에서 조회해야 하나
臣寮遙望祝南山 신하는 멀리서 바라보며 남산을 축하하네.
表箋傳進同稱慶 표전을 전해 올려 경축하는 데 함께 하고
歌樂張來動賀班 노래 음악 펼쳐져 축하 반열 감동시키네.
草莽亦知堯舜世 백성들도 요순같은 시대인 줄 알고 있으니
願推天道壽君還 천도를 미루어 임금의 축수로 돌아오길 원하네.

56) 외진연 : 外進宴. 단오와 추석 등의 명절과 왕세자 및 왕세자빈의 생신 등을 축하하기 위해 왕과 왕세자를 비롯해 종친, 문무백관 등이 참석하던 잔치이다.

홍사필 교리와 이야기하다
話洪校理思弼

曾過違逢訪大家 예전에 대가를 방문했다 만나지 못한 적이 있는데
識荊今日意尤嘉 알아봐준 오늘은 마음 더욱 가상하구나.
淸話如流風動竹 맑은 얘기 물흐르듯 바람은 대나무 움직이니
對君疑是泛虛槎 그대 대하여 빈 뗏목 탄 것 아닌가 하네.

생각이 있어 회포를 펴다
有所思 述懷

聞道家鄉聘婦賢 고향에서 어진 며느리 들였다고 들으니
坐看松竹喜相連 앉아서 소나무 대나무 바라보며 기쁨이 이어지네.
龜息捱過還寡妙 거북처럼 숨 쉬며 버티나 묘한 일이 적었고
蕉心抽出本非堅 파초 속잎 뽑아내니 본래 단단한 것은 아닐세.
意思不如常八九 생각은 십에 팔구는 마음대로 안 되고
人間未赴杳三千 인간 세상 아득히 삼천 리도 못 가는구나.
虛糜形役堪悵悵 공연히 형역에 매였으니 서글픔을 감당하랴
晚到彭城覺乃先 늦그막 팽성에 와서 먼저 깨닫노라.

내진연⁵⁷이 있던 날 기쁨을 기록하다
內進宴日 志喜

聖德巍巍禮樂區 성덕이 예악의 구역에 높고 높아
嵩呼華祝永皇圖 황제의 경륜 영원하라 만세를 높이 부르네.

57) 내진연 : 內進宴. 경사가 있을 때 베푸는 잔치로 왕대비·왕비·왕세자빈·명부(命婦) 등 여성이 참석한 궁중연향 또는 왕실 가족과 친 인척이 참석한 궁중연향이다.

小臣曾有偏恩荷
憶昨風雷奉宴需

못난 신하 은혜를 입은 적이 있으니
지난날 풍뢰헌에서 잔치 비용 받든 일을 추억하네.

장덕환 집안의 혼인상 張德煥家婚床

大禮順成此吉辰
供余酒饌一盤珍
郭公不是要婚者
賈氏何曾出贅人
紫鳳生來廚犬豕
青鸞飛入巷朱陳
總由天定宜家室
因果從看福履眞

대례가 순조로이 이루어진 오늘 길일
나에게 진귀한 주찬이 한 상 바쳐졌네.
곽공이 혼인으로 요구하는 자는 아니니
가씨가 어찌 쓸데없는 사람을 내놓았으랴.
붉은 봉새가 개돼지 푸줏간에 태어났으나
푸른 난새가 주진촌⁵⁸⁾ 골목으로 날아들어가네.
모두 하늘이 정한 대로 가정을 이루기 적당하니
인과대로 복록이 진짜인줄 보게 되리.

무료해서 붓 가는 대로 쓰다 無聊 縱筆

可憐時序遞
却老更無方
請作翁吹火
思傳僧暖香
霜寒炭索價
酒熟詩酬嘗
因病常吟苦
頽唐也不妨

가련하다, 계절이 바뀌니
늙음을 물리치는 데 아무 방도가 없네.
노인에게 불을 피우라 청하여
스님에게 따뜻한 향기 전할 것을 생각하네.
서리 내린 추위가 솟값이 높고
술 익어 시 지으며 맛보네.
병 때문에 항상 괴로움을 읊으니
노쇠한 들 무슨 상관이라.

58) 주진촌 : 중국의 서주(徐州) 고풍현(古豐縣)에서 주씨(朱氏)와 진씨(陳氏) 두 성(姓)이 서로 혼인하면서 화목하게 살았던 마을 이름이다.

진천 용진의 박건식이 방문하여 밤에 얘기를 나누다 鎭川龍津朴建植來訪 夜話

聞君僑寓地
此距水之陽
寄梅心欲折
坐穩笑談香

듣자니 그대가 기거하는 땅이
여기에서 강 북쪽으로 떨어져 있네.
부쳐온 매화에 마음이 미어지려 하더니
평안히 앉아 담소하니 향기롭구나.

국화 베개를 두 개 만들어 하나를 유태경에게 주었는데 나중에 베개를 나란히 베고 누워서 시험해 보았다. 눈이 밝아지는 효과는 잘 모르겠으나 그 향내는 비위에 매우 맞아서 우선 기뻐할 만하다 作菊花枕二箇 一給柳泰卿 其後連枕試用 則明目之效姑未可知 其香臭甚宜於胃鼻 爲先可喜也

我來淵明郡
喜見東籬菊
居常不可無
有似坡於竹
垂垂剩晚香
摘取霜天趣
愛之欲其襯
莫如寢具近
裹作青囊枕
支我兩衰鬢
夜宜胃腥開
風送鼻孔緊
斯亦養老資
隨身最親信
又一贈柳君
用之助聰敏

나는 도연명의 고장에 와서
동쪽 울타리 국화 보고 기뻐네.
사는 데 항상 없어서는 안 되니
소동파가 대나무를 사랑하는 것과 비슷하네.
흐드러져 늦게까지 향기를 남기고
서리 내린 시기에 꽃을 땀다네.
사랑하여 가까이 두고 싶으니
가까이 둔 침구만한 것이 없었네.
싸서 푸른 주머니 베개를 만드니
내 쇠한 양쪽 귀밑털을 지탱하네.
밤에는 비린 위를 여는 데 적당하고
바람이 콧구멍에 가까이 보내주네.
이것 역시 늙은이 보양하는 바탕이니
몸을 따라 가장 가깝고 믿음직하구나.
또 하나를 유 군에게 주니
이것으로 충민하도록 돕게 하네.

침상에서 짓다
枕上 有作

失眠常自惱	불면증이 항상 고민되었으나
便臥喜猶存	편히 누우니 즐거움이 남아있구나.
編柵鷄鳴亂	울짙에는 닭울음 어지럽고
踈林鵲噪喧	성긴 숲에 까치 소리 소란스럽네.
翁憐衾尚冷	늙은이는 여전히 찬 이불이 가여운데
童報酒纔溫	아이가 술이 겨우 데워졌다 알리네.
強起忘言坐	억지로 일어나 말을 잊고 앉았자니
扶桑早掛噉	부상에 일찍 아침해가 걸렸구나.

진위 율포 김교식이 와서 묵다
振威栗浦金雅教植來宿

風雷軒上送君時	풍뢰헌에서 그대를 전송할 때
別話丁寧屬後期	이별 인사 간절하여 다음을 약속했네.
盍簪爾日須眞樂	함께 모인 이날 진실로 즐거우니
往事悠悠夢幻奇	지난 일은 아득하여 꿈처럼 기이하네.

정당의 남쪽 창에 본래 가리는 물건이 없었는데 며칠 전 목재를 사와 휘장 하나를 만들어 가렸더니 비로소 외풍이 곤장 들어오는 문제가 없어져, 잠을 전보다 조금 더 낮게 잘 수 있게 되니 기쁘기에 장난삼아 시 한 수를 짓다
政堂南窓 本無遮限之具 以日前買來木 製得一帳而遮之
始無外風直射之患 寢睡所得 比前稍勝 是可喜也 戲題一詩

睡枕寒肌冷不春	베개 벤 추운 살갓 냉랭하여 봄이 아니어서
生憎風射撼精神	웃풍에 미움이 생겨 정신이 요동치더니,
自茲舒捲從方便	이제부터 기거가 편안해져서
暖對梅花得句新	매화 마주하고 따뜻하게 앉아 새로운 시구 얻었네.

통인 무리가 밤낮으로 공관에 있는데 추위 때문에 매우 고생하는 모양이었으므로 이불 두 벌을 만들어서 하나는 통방에 지급하고 하나는 침소를 지키는 자에게 지급하니 그들이 기뻐하며 이제 얼어죽을 일은 면했다고 하여 애처롭기도 우습기도 하기에 이를 가지고 입으로 시를 짓다
通引輩夙夜在公 頗有苦寒之狀 故衾二件製造 一給通房 一給侍寢者 渠輩欣欣然 以爲從此免於凍死云 可惻而可笑也 以之口呼

何人僵臥笑袁安	어떤 이가 얼어 누워서 원안 ⁵⁹⁾ 을 비웃으랴
我識邊生廣覆難	변생이 널리 덮는 일이 ⁶⁰⁾ 어려움을 내가 아노라.
那看侍童如蝟縮	고슴도치처럼 움추린 시동을 어찌 보랴
布衾猶足禦凝寒	이불 퍼면 추위에 얼 일은 막을 수 있으리.

부주인 원용섭이 남포연석 하나를 가져와 주어 시로 감사하다
府主人元容燮持贈藍浦硯石一面 詩以謝之

形成烏玉比	오옥 ⁶¹⁾ 의 짝이 되게 하려고
藍石得心披	남포석 가운데를 파게 하였네.
難辨端溪潤	광택은 단계석 ⁶²⁾ 과 구분하기 어렵고
非同呂字奇	기이한 여자연 ⁶³⁾ 과는 같지 않네.
墨磨光不渝	먹을 가니 먹빛이 달라지지 않고
毫寫用無涯	붓으로 그리니 쓰임이 끝이 없구나.
何必潘郎友	반랑 ⁶⁴⁾ 같은 벗이 어찌 필요하랴
堪酬遺興資	수작하며 흥을 풀만 하네.

59) 원안 : 袁安. 후한(後漢)의 현사(賢士)인 원안(袁安)이 한 길 높이로 폭설이 내린 날,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밖에 나가서 양식을 구하지도 않고 차라리 굶어 죽겠다면서 혼자 집에 누워 있었다고 한다.

60) 널리 덮는 일이 : 구주의 이불을 가리킨다. 공융(孔融)이 변양(邊讓)을 조조에게 천거하는 글에 “변양은 구주의 이불을 만들기에는 부족하지만, 홑겹의 긴 단의(單衣)를 만들기에는 넉넉하다.”라고 하였다.

61) 오옥 : 烏玉. 품질이 좋은 먹을 가리킨다.

62) 단계석 : 端溪石. 중국 단계에서 나는 돌로, 벼루로서 최상품이다.

63) 여자연 : 呂字硯. 도자로 빛은 벼루. 옛날 중국 택주(澤州)에 여도(呂道)가 구운 벼루로, 벼루 머리에 “몹”을 넣었다고 한다.

64) 반랑 : 潘郎. 진나라 문인 반악(潘岳)을 가리킨다.

고양 향현의 김동진 교관이 이때 여묘살이를 하고 있는데 관노 순종이 바로 묘지기 박진이의 조카였고 가마꾼 네 명이 모두 이 고을 사람이었다고 하였으므로 조석으로 음식을 이바지하라고 아울러 명하고 읊다
 高陽香峴金教官東鎮 此是墓下居人也 率隸順宗 卽墓直朴晉伊之侄 且轎軍四名 皆本洞居生云 故并令公需供饋朝夕 有吟

朝鵲南柯報有神
 喜逢賓帶洞之人
 旋聞先壟禁樵採
 且感遐鄉慰宦辛
 啞學心機要務實
 訛傳時事得詳真
 叙情無暇人難合
 草草壺觴愧不珍

아침에 남쪽가지에 까치 울자 신이 보답했는지
 동리 사람 데려온 손님을 기쁘게 만났네.
 선산에 벌목을 금했다고 들었고
 먼 고을 벼슬하는 고생 위로하는 데 감격하네.
 묵묵히 마음의 작용 배우니 실질에 힘써야 하고
 세상일 잘못 전해지니 상세한 진실을 얻어야 하네.
 마음을 펼 시간 없고 사람은 만나기 어려우니
 거친 술병과 잔이 진미 아니라서 부끄럽구나.

향장 박준화에게 향초에 감사하다
 謝鄉長朴準華香菸

須知愛我贈遺茲
 一束淡婆細切而
 吸吸痞消香透鼻
 神精藉此倍新之

나를 아껴 이 향초 준 것임을 알겠으니
 한 다발 담배를 잘게 잘랐네.
 들이키면 체증이 사라지고 향기가 코를 꿰뚫으니
 정신이 이 때문에 곱절로 새로워지네.

동짓날 콩죽으로 명절을 쇠다
 南至日豆粥酬節

玄籥灰飛自有孚

가을과 겨울 사이 재가 날리니⁶⁵⁾ 절로 미더움이 있고

65) 재가 날리니 : 동지가 지난 것을 가리킨다. 갈대 속의 얇은 막을 태워 재로 만든 뒤 그것을 각각 울려(律呂)에 해당되는 여섯 개의 옥관(玉琯) 내단(內端)에다 넣어 두면 동지에는 황중(黃鍾) 율관(律管)의 재가 날린다고 한다.

天根轉處一陽敷
 古會八能聽均度
 俗稱亞歲見參趨
 表驗年形移日晷
 化臻春信動花姑
 須知萬物方生始
 老去如何寓意孤

별자리 도는 곳에 양 한 줄기 펼쳐지네.⁶⁶⁾
 옛날 팔능⁶⁷⁾을 모아 듣고서 운율을 바꾸었으니
 세속에서 ‘작은설’이라 부르며 달려가 절을 하네.
 농사 현황 드러내며 해그림자 옮겨가고
 봄소식 모여들어 화고⁶⁸⁾를 움직이네.
 만물이 살아나기 시작함을 알겠으니
 늙어가며 부친 뜻이 외로운들 어찌하리.

일본인 후지카와라 유이치가 편지와 궤련 1봉을 주고 또 가마와 솜이불을 부탁하였으므로 그 말에 따라 빌려주며 짓다
 日人藤瓦惟一遺書及卷烟一封 又有轎子綿衾之托 故依其言借送 有作

苔岑萍水偶相親
 青眼源源不厭頻
 自是晚交成雅面
 只緣公幹接芳隣
 定知海內皆兄弟
 莫道寰中有越秦
 惠我投分非直物
 感君高義許心眞
 病憐借乘留孤店
 神遣靈犀照兩濱
 別後吳洲千里月
 首回依黯記今辰

태잠⁶⁹⁾이 떠돌다가 우연히 친하게 되어
 반가운 눈길 끊임없어 자주 봐도 질리지 않네.
 늦은 나이 사귄 이래 아는 사이 되었으니
 공의 일로 인해 꽃다운 이웃 만났네.
 해내가 모두 형제임을 바로 알겠으니
 세상에 월나라 진나라 있다고 말하지 마오.
 나와 의기투합한 것은 재물 때문이 아니니
 그대의 의리에 감동하여 마음을 허락하였네.
 병들어 탈 것 빌리러 외딴 주점에 머문 것이 가련하니
 신령이 서로 통해 양쪽 물가를 비추네.
 이별 후 오나라 물가 천 리 멀리 달이 뜨면
 머리 돌려 그리워하며 오늘을 기억하리.

66) 《주역(周易)》〈복괘(復卦)〉 소(疏)에 “동지에 양 하나가 생기니, 이는 곧 양은 움직여서 용사하고 음은 고요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다.[冬至一陽生 是陽動用而陰復於靜也]”라고 하였다.

67) 팔능 : 八能. 고대 팔능지사 8인을 모아서 황중 등을 연주하게 하여 운율을 조정하였다고 한다.

68) 화고 : 花姑. 꽃을 관장하고 온갖 화초를 잘 키운다고 알려진 전설 속의 인물이다.

69) 태잠 : 苔岑. 벗을 의미한다. 진(晉)나라 곽박(郭璞)의 《贖溫嶠》에 “우리들의 취미를 말하자면 한 봉우리에 난 다른 이끼라네.[及余臭味 異苔同岑]”라고 한 시구에서 유래하였다.

유태경을 서울로 보내면서
送柳雅泰卿之京

殊方驚別緒
老又送君難
去路程猶近
離亭思欲殘
寢飧愁旅榻
風雪凍征鞍
後會知何日
那堪歲更闌

타향에서 놀란 이별의 마음
늙어서 또 그대 보내기 어려워라.
가는 길 여정이 여전히 가까우나
이별 정자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하네.
잘 자는지 먹는지 여행길 근심스럽고
눈보라에 안장이 얼겠구나.
나중에 모일 날이 언제인지 알겠으니
한 해가 끝나는 것을 어찌 감당하랴.

“경” 자 운으로 회포를 읊다
述懷拈經字

老去長爲客
辛酸已飽經
衰筋扶藥餌
故舊若晨星
禿木風難響
叢林鳥易聽
誰知心內想
意馬到黃亭

늙어가며 오랫동안 나그네 되어
고생을 이미 실컷 겪었네.
노쇠한 근력은 약으로 부지하고
옛 친구는 새벽별처럼 드물어졌네.
잎 떨어진 나무는 바람에 울리기 어렵고
모여있는 수풀에 새 소리 쉬이 들리네.
마음속 생각을 누가 알랴
생각은 황정⁷⁰⁾에 가 있구나.

70) 황정 : 黃亭. 성주목 증산면 황정리를 가리킨다. 친구 김인길의 거처가 있었다.

우연히 읊다
偶吟

六十九齡翁
寒暄付與公
暗香梅襯月
清韻竹交風
瘦以緣愁減
歡因得病空
宦情隨日薄
懷緒有無中

예순아홉 살 늙은이가
안부를 공무에 부쳤네.
은은한 향기 매화는 달빛을 받고
맑은 운을 대나무는 바람과 사귀네.
근심 때문에 수척해지고
병을 얻어 즐거움은 사라졌네.
벼슬할 마음이 날로 얽어지니
회포는 있는 듯 없는 듯해라.

선달 초하루 눈 내리는 중에 집에서 온 편지를 보고 기뻐서 읊다
臘月一日雪中見家書 喜吟

凍雲欲雪暮鴉啼
望裡青山便覺低
官人際至鄉書見
多勝前宵夢到闈

언 구름이 눈 내릴 듯 저녁 가마귀 우는데
보이는 청산이 문득 작게 느껴지네.
관인들 오는 사이 고향 편지를 보니
전날 밤 집에 간 꿈보다 훨씬 낫구나.

시를 지어 회포를 풀다
賦詩遣懷

飢飽暖寒自適然
人生常若歲寒憐
雪中冬栢春應媿
霜後山茶境轉鮮

배고파도 배불러도 더워도 추워도 유유자적하건만
인생은 항상 추운 겨울처럼 가련하네.
눈 속 동백은 봄에 답해 어여쁘고
서리 내린 후 산다꽃에 경치가 고와졌네.

爐火篝香增布置	화로와 향구 ⁷¹⁾ 를 늘려서 벌려 두고
綿衾紙帳任周旋	솜이불과 종이 휘장을 주선해두니,
際今如對黃亭老	지금 만일 황정의 노인을 대하면
除酒談詩興更全	외상 술에 시 얘기에 흥이 다시 온전하리라.

병 때문에 씻지 못하고 문을 닫은 채 읊다
病未巾櫛 閉閣有吟

莫欺今老矣	지금 늙었기 때문이라 속이지 말라
些些病來侵	조금씩 병이 침범해 왔네.
風眩空作祟	풍현병 ⁷²⁾ 이 공연히 빌미를 만드니
如何日常尋	어느날에야 몸이 나오랴.
親狎如知舊	오랜 친구처럼 가까이 붙어있으니
那堪苦自任	제 마음대로 주는 고통 어찌 견디랴.
眼矇廢看字	눈은 어두워 글자 보는 일 그만두고
手痺休援槩	손은 마비되어 거문고 뜯는 일 쉬었네.
減食全無念	입맛은 줄어 식욕이 전혀 없고
恻寒擁重衾	추위 무서워 무거운 이불 덮고 있네.
何須氣歎滯	하필 기운 모잘라 지체하라
無妨近事瘖	병어리에 가까워도 무방하다네.
靜思成一笑	고요히 생각하다 한 번 웃고
故擬蝦蟹臨	짐짓 새우 게를 흉내내노라.
緣病閑似得	병 때문에 한가함을 얻은 듯 하니
誰知此熏心	누가 이 타는 속을 알랴.

71) 향구 : 香篝. 화로 위에 덮는 바구니 모양의 훈로를 가리킨다.

72) 풍현병 : 풍사(風邪)로 인해 생기는 병으로, 어지러우면서 눈앞에서 꽃 같은 것이 어른거리고 땀이 나며 목덜미가 뻘뻘하고 구역질을 한다.

신기가 편치 않아 단장을 그만두고 회포를 풀다
神氣不平 廢櫛遣懷

公暇神初靜	휴가 내고 정신이 처음 안정되니
爐烟愛篆橫	구불구불 올라가는 화로 연기 어여빠라.
紫檀香不綴	자단향 끊이지 않고
翠竹韻偏生	푸른 대나무 유독 운치가 있네.
雪壓天低野	눈이 쌓여 들판에 하늘은 낮아지고
霜深鴈叫城	서리 깊어 기러기가 성에서 우네.
有誰來問我	누가 있어 내게 안부 물으랴
風烈少人行	바람 심해 다니는 사람 적구나.

서울 집에서 감귤 한 상자를 보내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장난삼아 짓다
自京第柑子一櫃送來 派饋在傍人 戲題

自我家來一櫃柑	우리 집에서 감귤 한 상자가 와
擬看懷橘意專耽	귤 품은 걸 ⁷³⁾ 볼까 욕심이 나네.
故教傾瀉成分嚼	짐짓 다 쏟아내 나누어 먹게 하니
滋味還多養老覃	노인 봉양하는 것보다 재미는 많네.

한창호, 장덕환에게 장기를 나누어주어 글자를 새기게 하고 읊다
象棋分給 韓昌浩 張德煥 使之刻字 有吟

不思人苦斲刊成	갈고 새겨 이루는 남의 고생 생각 않고
祇緣眩崇故忘情	어지럽다는 핑계로 짐짓 사정을 잊었네.

73) 귤 품은 걸 : 삼국시대 육술(袁術)을 빌 때, 귤을 주니 품에 간직하므로 원술이 그 까닭을 묻자 돌아가 어머니에게 드리겠다고 대답한 고사를 가리킨다.

這裡交攻權所在
運機隨手費經營

이 안에서 서로 권한 있는 곳을 공격하니
계책 따라 손을 써 애를 쓴다네.

눈이 온 뒤에
雪後

氣嚴慘慘晚風微
天淡雲低雪欲飛
緬憶山陰乘興者
有誰爲我載帆歸

날씨 추위 쌀쌀하고 저녁 바람 잿아들어
하늘은 담백하고 구름 낮아 눈이 날릴 듯 하네.
산음에서 흥이 난 사람⁷⁴⁾ 이어서 생각나니
누가 나를 위해 돛을 달고 돌아오랴.

8일 갑오 소설, 자시 초각에 뇌성이 세 번 크게 나고 축시 초각과 묘시 정각에 땅이 흔들려 방과 지붕이 진동하였으며 문고리가 덜컹덜컹 소리가 나고 큰 눈 보라가 종일토록 불어 눈이 한 자 남짓 쌓였으니 이것이 모두 비상한 징후라 능름하게 운을 써서 뜻을 말하다

八日甲午小雪 子初刻雷三聲大作 丑初刻卯正刻并地動 房屋振動 門環戰戰作聲 大風大雪終日深尺餘 此皆非常之候也 凜然以韻語志之

七十人間雨露天
烟花無蜚晝如年
一寒一暑羲日月
時暘時雨禹山川
溢以金膏調玉燭
三元六氣曾無愆
豈意邇來水仍旱

칠십 세에 세상에서 은혜를 입어
좋은 시절 무탈하니 하루가 일년 같았네.
한 번씩 춥고 더우니 복희 때 세월 같고
때 맞춰 해가 뜨고 비오니 우임금 때 산천 같네.
넘쳐나는 금 기름으로 옥 같은 촛불 조절하니
삼원⁷⁵⁾과 육기⁷⁶⁾에 어김이 없구나.
근래 가뭄이 들 줄 어찌 생각했으랴

74) 산음에서 흥이 난 사람 : 진(晉)나라 왕희지(王徽之)를 가리킨다. 눈 덮인 달 밝은 밤에 산음(山陰)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가, 섬계(剡溪)에 있는 벗 대규(戴逵)가 보고 싶어 배를 타고 갔다가 집 앞에서 흥이 다하자 그냥 돌아왔다는 고사가 있다.

75) 삼원 : 三元. 연, 월, 일의 시적인 정월 초하루.

76) 육기 : 六氣. 음(陰)·양(陽)·풍(風)·우(雨)·회(晦)·명(明), 또는 한(寒)·서(暑)·조(燥)·습(濕)·풍(風)·우(雨)를 가리킨다.

時氣非常不似前
適我南來遭此會
而災而賑憂心煎
繞壁不眠抵晨鐘
是時南至之深冬
戀闕思瞻雲氣霽
祈豐擬占星芒農
驀然令人喫大驚
彌天極地喧轟轟
其勢震盪床足撓
其威缺裂門環鳴
繼以大風兼大雪
商旅閉關飛鳥絕
此地無山冬候暖
有雪前曾見暝滅
居人生長老白首
深至尺餘今初有
不知今此雪風雷
一時并至胡爲哉
忽若玄冬行夏令
翻夏上帝警人災
此事無由問詹尹
疑懼彌襟不可裁
呼兒覓紙題一則
休咎何居觀下回

세상 기운 이상하여 전과 같지가 않네.
마침 내가 남으로 와 이런 일을 만나니
재해 나고 구휼하고 근심으로 애가 닳네.
벽을 돌며 잠 못자는데 새벽종이 들리니
이때는 동지라 깊은 겨울이구나.
대궐 연모하여 상서로운 구름 보길 생각하고
풍년 기원하여 별빛이 농상⁷⁷⁾에 빛나기를 점치네.
갑자기 사람을 크게 놀라게 하고
하늘과 땅 끝까지 광광 소란스러우니,
기세가 진동하여 침상을 부러뜨릴만하고
위세는 찢어버릴 듯 문고리가 울부짖네.
이어서 큰 바람과 대설이 겹쳐 오니
장사꾼은 문을 닫고 나는 새도 끊겼네.
이 땅은 산이 없어 겨울 기후 따스하여
눈에 앞서 환한 햇살 본 적이 있었네.
이곳 사람 나고 자라 늙어서 흰머리 되도록
한 자 넘게 눈 쌓인 건 오늘 처음 보았다네.
모르겠네, 이번에 눈과 바람, 우레가
한 번에 함께 이른 것은 어째서인지.
홀연 깊은 겨울에 여름의 정령을 행하니
여름을 뒤집어 상제께서 인재를 깨우치네.
이 일을 침윤⁷⁸⁾에게 물을 길이 없으니
의구심이 사무쳐서 가늠 수가 없구나.
아이 불러 종이 찾아 한 칩을 쓰니
어디에서 하회를 살피는지 허물하지 마오.

77) 농상 : 방성(房星)의 별칭으로 입춘일 새벽에 남쪽 하늘에 나타나 농사지를 시기를 알린다.

78) 침윤 : 초(楚)나라 때의 태부(太卜) 정침윤(鄭詹尹). 점을 잘 치기로 유명하여 굴원(屈原)이 자신의 진퇴를 알아보려고 찾아갔다고 한다.

동쪽뜰에 산다화 몇 포기 심어져 있는데 몇 백년 오래된 뿌리이니 꽃이 눈을
무릅쓰고 간간히 피어나 기이하고 어여쁨을 보고 동파의 “설중산다화” 원운을
써서 화운하다
東庭山茶花數叢植在 老大幾百年根也 花冒雪間間開着 見其奇愛
用東坡雪中山茶花原韻和之

山茶本自爲誰栽	산다화를 본래 누구 위해 심었나
種樹人無我獨來	심은 사람 없어지고 나 홀로 왔도다.
神品能知余所癖	신기한 성품이 내 버릇을 알고서
故教紅綻雪中開	일부러 눈 속에 붉은 망을 터뜨렸네.

관노와 사령 무리가 치성을 드리고 남은 음식이라며 음복례에 따라 드린다고
하기에 이어서 입으로 읊다
奴令輩謂之致誠餽餘需 謂以飲福例進 因口吟

城頭古木府君堂	성머리 고목의 부군당 ⁷⁹⁾ 에
由例闈人走供香	전례 따라 문지기가 달려가 향을 올리네.
異兆吉祥誰得解	기이하고 길한 징조 누가 이해하라
年豐時晏及身康	풍년들고 세상 태평하고 몸 건강하리.

태경이 장기말을 새로 새겨 푸른색과 붉은 색을 넣어 가지고 와서
함께 장기 세 판을 두다
泰卿以衆棋新刻 填青紅者持來 因相與戲賭三局

排分兩國掌中麾	두 나라 배분하고 대장기를 손 안에 두어
俱得隨機應變奇	입기응변 해내니 기이하구나.

79) 부군당 : 府君堂, 마을의 수호신을 모신 신당.

對壘縱橫爭戰地	성루 마주하여 종횡으로 전투하는 곳이니
不勞金鼓快心馳	징과 북 울리지 않고 마음껏 내달리네.

선달 12일 판관 이기정이 양성에 일이 있자 일부러 나를 방문하러 와서 말하
기를, “요사이 유 괴천과 한 번 같이 가자고 약속하였으나 출발할 때 바빠서 나란
히 오지 못하였습니다.”라고 하니, 이 사람이 바로 사직동에서 막역하게 지내
던 친구인데 이 하늘 끝에서 모이니 기쁨을 말 할 수가 없으므로 머물게 하여
춘수루에서 접대하고 시를 지어 기쁨을 표현하다
臘月十二日 李判官基禎 有幹陽城 委來訪我曰 間與劉槐川約以一番
偕行 而臨發倥傯 不及聯鑣云 此乃稷下莫逆之舊 而有此天涯相聚 喜
不可言 因留接于春水樓 賦詩叙歡

知舊雲山阻	친구와 구름산으로 막혀있더니
會面茲有時	얼굴 보는 이런 때가 있구나.
驚覺遊仙夢	신선과 노니는 꿈 놀라 깨어
蹙然到天涯	뚜벅뚜벅 하늘끝까지 이르렀네.
訪我非偶爾	나를 찾아온 것은 우연이 아니니
握手反成悲	손을 잡다 도리어 슬픔이 생기네.
少壯如昨日	젊은 시절이 어제 같은데
今焉鬢髮衰	지금은 귀밑털이 쇠었구나.
今日復何日	오늘이 다시 언제 있으랴
歡笑亟拔追	기쁨과 웃음이 자꾸 따르네.
開懷共話舊	마음 열고 함께 옛이야기 하다가
却憐此身羈	객지에 있는 이 몸을 가련해 하네.
槐泉作伴約	괴천 ⁸⁰⁾ 은 함께 가자 약속해놓고
那負巨卿期	어찌 거경과의 약속을 저버렸나.
風雪嗟歲暮	눈보라가 세모에 몰아치니
筋力不敢持	근력이 감히 버틸 수 없구나.

80) 괴천 : 유사건(劉士建)을 가리킨다.

床梅春已漏
重逢復奚疑
詩成連呼燭
酒曠繼觀棋
人生能幾許
不樂更何爲
情緒添香篆
風味亦在茲

책상의 매화에는 봄이 이미 와 있으니
다시 만날 것을 어찌 다시 의심하랴.
시를 짓자 이어서 촛불 켜라 부르고
술 데우자 이어서 장기를 구경하네.
인생이 얼마나 된다고
즐기지 않고서 또 무엇을 하리.
정서에 향전⁸¹⁾을 더하니
풍미가 역시 여기에 있네.

향장⁸²⁾이 술과 음식을 보낸 데 감사하다
謝鄉長酒物

老宦天涯又一區
喜看之子日奔趨
饅頭浮熟并湯餅
肪由細剉佐沃醪
其用意無此勝也
於回想不亦過乎
豈真向我憐枯淡
多謝今宵與客俱

늙은 신하 하늘 끝 또 한 구역에서
이 사람이 날마다 분주한 것을 기쁘게 보네.
만두를 물에 익혀 떡국에 함께 넣고
비계를 잘게 썰어 진한 술에 곁들였네.
마음씀에 이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옛날 일 생각하는 것도 지나치지 않은가?
어찌 진실로 내 고담함을 불쌍히 여기랴
오늘 밤 손님과 함께 함이 고마워라.

81) 향전 : 전문(篆文) 모양으로 만든 향인데 이를 태워 시간(時刻)을 잰다.

82) 향장 : 좌수(座首)는 조선시대에 지방의 자치 기구인 향청(鄉廳)의 우두머리로 수향(首鄉)·아관(亞官)이라고도 한다. 수령의 자문에 응하고 수령의 권력을 견제하면서 향원(鄉員)의 인사권과 행정 실무의 일부를 맡아보았다. 갑오개혁(1894-1895) 때에 향장(鄉長)으로 고치면서 유명무실한 존재가 되었다.

밤에 앉아 그냥 읊어 벗 이기정에게 보이고 화운시를 구하다
夜坐賦卽事 示李友求和

睡少更張孤客情
起居專委小方床
品評菊艷霜偏力
韻較梅幽月最清
話久興闌燈穗盡
坐來寒覺炭灰成
數聲鴈叫家千里
強把樽醪破萬緣

잠이 적어 다시 외로운 나그네 시름을 퍼니
기거를 오로지 작은 평상에 맡기네.
고운 국화 품평하니 서리가 유독 힘을 쓰고
그윽한 매화 비교하니 달이 가장 맑구나.
말은 길고 흥 그치고 등불은 다하여
앉아서 한기 느끼니 솟은 재가 되어있네.
기러기 몇 번 우는데 집은 천 리 멀어
억지로 술잔 들며 온갖 인연 깨뜨리네.

백성들의 하소연에 회포를 풀다
因民訴 寓懷遣情

獸中刀鎗鳥弋羅
其如怒吼哀鳴那
交爭蝸角空多事
非是人間有幾何

길짐승은 칼 창에 맞고 날짐승은 그물에 걸리니
포효하고 슬피 우는 것이 어찌하겠나.
달팽이 뿔⁸³⁾에서 싸우느라 쓸데없이 일이 많으니
인간 세상 아니라면 얼마나 되겠는가?

밤에 앉아서
夜坐

氣力隨年減
怯寒強自支
粉梅如舊友

기력은 해마다 줄어들고
추위 겁내며 억지로 버티네.
흰 매화는 옛 친구 같고

83) 달팽이 뿔 : 세상을 비유한 말이다. 달팽이의 왼쪽 뿔 위엔 촉씨(觸氏)라는 나라가 있고 오른쪽 뿔 위엔 만씨(蠻氏)라는 나라가 있어, 땅을 다투느라 수만 명이 죽었다고 한다. 《莊子 則陽》

雪月足新詩 눈과 달은 새 시 짓기에 충분하네.
 派渴欣茶沸 목이 마르니 차 끓는 것이 기쁘고
 糊乾怪鼠窺 풀칠이 말랐으니 쥐가 엿보는 게 괴이하네.
 靜居何所有 고요한 거처에 무엇이 있으랴
 嶺外每心馳 고개 너머로 매번 마음이 달려가네.

17일 손자 수영(壽泳)이 관례를 치렀다. 일찍 부모를 여윈 것을 걱정하다가 이제 장성한 날이 왔으나 할아버지가 된 자가 먼 지방에 앉아 보러가지 못하니 늙은이의 좋지 않은 마음이 저절로 평소보다 곱절이 되어 운을 잡아 번민을 풀다
 十七日是壽孫加冠日也 念渠早失怙恃 今至成立之日 而爲其祖者 坐在遐外 不得往見 老懷作惡 自爾倍常 拈韻遣悶

衰齡滋悅是冠孫 늙은 나이에 기쁜 일은 손자의 관례
 團聚夤緣得一番 이로 인해 단란하게 한 번 모이겠지.
 涓日在心今只隔 좋은 날 마음에 있으나 지금 멀리 떨어져
 丰儀森眼倍難緩 훌륭한 모습 눈에 삼삼하여 잊기가 더 어렵네.
 況渠情地人殊異 더욱이 그 아이 친족이 다른 사람과 달라
 依仰堂闈惟祖存 우리러 집안을 의지하나 조부모 뿐이네.
 湛和縱有聯三萼 화목하여 세 형제가 있더라도
 怙恃無由起九原 부모가 구천에서 일어날 길이 없네.
 悲當撫慰歡堪弄 슬픔은 위로해야 하고 기쁨은 즐길만 하니
 定合趨期啓我轅 시간을 맞춰 길을 떠나기에 딱 맞았네.
 公務如今方有事情私到此極無言 공무가 지금처럼 바야흐로 일이 있어
 可念老妻憂瑣瑣 내 마음이 이에 이르니 할 말이 없네.
 應嘲遠客慣蹲蹲 근심으로 불안한 늙은 처가 걱정되고
 一事前頭擔在我 찻추는 모습 익숙한 멀리서 온 객을 비웃으리.
 未知婚媾出誰門 사건의 책임이 내게 있으나
 婚인은 어느 집안과 하는지 모르겠네.

가덕 박건하가 근래 진위 은곡의 김정극 집에 머물렀기에 어제 편지를 보내 안부를 묻고 오늘 방문하러 와서 대화를 나누다가 저녁에 돌아갈 때 하늘에서 눈이 내리려고 하여 나와 이 판관이 매우 애써 만류하였으나 떠나는 일정에 폐를 끼친다고 하여 매우 섭섭하기에 읊다
 朴加德健夏 問留於振威銀谷金正克家 故日昨致書問之 今日來訪溫話 晚歸時天欲雪 余與李判官挽之甚苦 而謂云貽弊期於發程 甚悵也因有吟

同是天涯客 똑같이 하늘 끝 나그네 되어
 相看眼忽明 서로 만나 눈이 홀연 밝아졌네.
 叙情翻作夢 정을 퍼던 일이 꿈으로 바뀌었으니
 堪笑苦經營 괴로이 경영하는 일이 우스워라.

이사유와 마주 앉아 눈에 대한 시를 짓다
 與李士有對坐 賦雪

冷艷隨風望裡除 차고 고운 자태 바람 따라 가득 보이니
 漫空吹滿落粉華 공중에 가득 불어 하얀 꽃이 떨어지네.
 幻成層嶂千堆玉 층층 벼랑이 수천 무더기 옥으로 변하고
 奇着枯枝一色花 마른 가지에 한 가지 색 꽃이 피었네.
 麥秀預占蝗入地 누리가 들어간 땅⁸⁴⁾을 보리가 미리 차지했고
 梅飄錯認犬行沙 매화가 나부끼니 개가 모래를 달린 듯 착각하네.
 瓊芳不是堅牢物 아름다운 향기는 견고한 물건이 아니니
 頃刻粧成借眼奢 경각에 치장하여 눈을 사치스럽게 하네.

84) 누리가 들어간 땅: 누리는 메뚜기의 일종으로 곡식에 피해를 주는 곤충이다. 소식(蘇軾)의 〈설후서북대벽(雪後書北臺壁)〉 시에 “남은 누리가 응당 천 척의 땅 속으로 들어가리니, 하늘 달게 자란 보리 몇 집이나 풍년을 맞을까[遺蝗入地應千尺 宿麥連雲有幾家]”라고 하였다.

어제 눈이 한지쫘 쌓였으나 밤새 그치지 않았다. 오늘 아침에 이르니 하늘은 낮고 구름은 어둑하여 눈이 어지럽게 펄펄 내려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고 눈에 눌러 꺾인 수목이 매우 많아 장대함을 생각할 만하였다. 설경을 보고 싶어 삼으로 제거하게 하여 겨우 길을 뚫고 이사와 함께 걸어서 후원에 갔다. 원근에 보이는 경계가 모두 은과 옥으로 장식한 모양이었고 오직 흰 가운데 검은 한줄기가 가로질러 서북계로 이어져 있었으니 군물포인 것 같기에 시를 짓다

昨日之雪已爲尺許 而終夜不止 至于今朝 天低雲暗 紛紛霏霏 勢若傾瀉 樹木壓摧者甚多 其壯可想 欲觀雪景 命使鋤去 僅通得路 與李士有步上後園 遠近眼界 渾是銀粧玉飾樣 而惟一條帶白中之黑 橫亘西北界 認是軍勿浦也 賦得

天蒼蒼非正色
地皓皓無涯垠
目眈其不能矚
口呆了不敢言
一團團白塞兩閒
相似之野相似山
太湖三萬六千頃
倅鯨鱗倒漫空還
吳剛修斧斫桂枝
玉屑銀花送下吹
遂令萬境無區別
打成乾坤新闢時
威原牙稷四望同
不知誰是吾州地
此雪若變作米塩
虞財可阜堯封比
不如只道眼前景

하늘은 푸르디 푸르러 원래 색이 아니고
땅은 희디희어 끝이 없구나.
눈을 부릅떠도 볼 수가 없고
입은 벌리고 감히 말을 못하네.
하나로 둥글게 흰색으로 양끝이 쌓여있으니
들판 같기도 하고 산 같기도 하네.
태호의 삼만육천 이랑을
고래에게 뒤집게 하여 허공에 가득차게 한 듯,
오강⁸⁵⁾이 옥도끼로 계수나무 가지를 잘라
옥 가루 은꽃을 아래로 불어 보내네.
마침내 수만 경지가 구별이 없어져
천지가 새로 개벽할 때를 이루었네.
진위, 수원, 아산, 직산 사방이 똑같이 보이니
어디가 우리 고을 땅인지 모르겠네.
이 눈이 변하여 쌀과 소금 된다면
요순시대처럼 재물이 많고 집집마다 봉을 받을 텐데,⁸⁶⁾
눈앞의 광경을 다만 말하는 것만도 못하니

85) 오강 : 吳剛, 漢(漢)나라 때 선인 오강이 달 속으로 귀양 가서 옥도끼로 계수나무를 잘랐다는 전설이 있다.
86) 봉을 받을 텐데 : 요순시대에는 교화가 사해에 두루 미쳐 집집마다 모두 봉(封)을 받을 만큼 덕행이 뛰어났다고 한다.

茲遊奇絕冠平生
齊烟九點何能翠
海日三竿不用明
今日解能從我遊
李君士有亦高致
差擬永叔龍門賞
欲倩長卿菟園記
就中別有堪畫處
軍浦一帶分而二
寄語滕六成三白
明年以豐爲上瑞

기이한 이번 유람이 평생에 최고일세.
제연구점⁸⁷⁾이 어찌 푸를 수 있으랴
바다의 해가 세 발이나 올라도 밝지 않구나.
오늘 나를 따라 노닐 수 있다면
이사와 군도 고상한 운치를 지녔으리.
영숙이 용문을 완상한 것에⁸⁸⁾ 비기고
장경으로 하여금 토원을 기록하게⁸⁹⁾ 하고 싶네.
나야간 곳에 따로 그림 같은 곳이 있으니
군물포 한 줄기가 나뉘어 둘이 되었네.
등록⁹⁰⁾에게 삼백⁹¹⁾을 이루도록 말을 부쳐
내년에는 풍년을 최고의 상서로 삼아보세.

사유와 태경에게 시를 지어 주어 회포를 풀다
與士有泰卿 賦詩遣懷

心靜身閑得
篝香細勘碑
消愁唯有酒
遣興莫過詩
雲釀雪今日
梅橫春一枝
情懷誰共說
琴韻有餘師

마음이 고요하고 몸이 한가하여
훈롱을 안고 세밀하게 비문을 살피네.
근심 녹이기에는 오직 술이 있고
흥을 풀기에는 시만한 것이 없네.
구름이 눈을 빚어내는 오늘
매화에 봄이 한 가지 걸렸구나.
내 마음 뉘와 함께 말할까
거문고 운률에 다른 스승이 있구나.

87) 제연구점 : 齊烟九點, 제주(濟州), 즉 구주(九州)를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 보면 아홉 개의 연기 점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당나라 이하(李賀)의 시 <몽천(夢天)>에서 연유한 말이다.
88) 영숙이 용문을 완상한 것에 : 영숙(永叔)은 구양수(歐陽脩)의 자이다. 그의 시에 <遊龍門分題十五首>가 있다.
89) 장경으로 하여금 토원을 기록하게 : 장경(長卿)은 사마상여(司馬相如)의 자이다. 한나라 양효왕(梁孝王)이 토원(菴園)을 노닐다가 편지를 보내 사마상여에게 눈에 대한 시를 짓게 하였다고 한다.
90) 등록 : 滕六, 눈귀신의 이름이다.
91) 삼백 : 三白, 동지 이후 세 번째 돌아오는 술일(戌日) 전에 세 번 눈이 내리는 것을 가리킨다. 보리농사에 좋다고 한다.

선달 22일 극아의 생일날 아침에 태경으로 하여금
망한사에 시주하게 하고 짓다
臘月二十二日克兒生朝 使泰卿獻功望漢寺 有作

赫赫英靈普濟慈	빛나는 영령이 두루 중생을 구한 자비로움에
衆生歸命所無疑	중생이 귀의하는 데 의심이 없네.
焚香思獲神明佑	분향하며 신명이 보호해줄 것을 생각하여
齋禱微誠將禮時	재계하고 기도하는 조촐한 정성으로 예를 드렸네.

아산 대동 김건식 선비가 만나러 왔기에 서로 시를 짓다
牙山大洞金雅廷植來 相與賦詩

孤宦天涯暮	외로운 벼슬아치 하늘 끝에서 늙어가니
寒燈漏正遲	시린 등불에 물시계 정말 더디네.
篆香風轉纈	향전 ⁹² 의 연기는 바람에 감돌고
梅影月將移	매화 그림자는 달에 따라 옮겨가는구나.
遠客搜詩句	멀리에서 온 손님은 시구를 찾고
侍童對象棋	시동은 마주 앉아 장기를 두네.
歡娛唯實事	즐거움이 오직 실제 일이니
役役更何爲	부지런히 애써서 다시 무엇 하리오.

이청에서 부용산 고향제를 지낸 후 음복할 음식을 들여왔으므로 사유,
태경과 함께 시 한 수를 짓다
吏廳告享芙蓉山祠後飲福入來 故與士有泰卿 共之賦一詩

山頂靈祠古已陳	산꼭대기 사당은 옛날부터 오래 묵어
吏民承祀遞因循	아전과 백성들이 번갈아 이어서 제사를 받들었네.

92) 향전 : 전문(篆文) 모양으로 만든 향인데 이를 태워 시각(時刻)을 잰다.

森羅叢樹環壇址
茸軟平莎勝錦茵
徼福必從格于爾
垂祥默佑感乎神
胥情齊祝供香願
頌禱何由及老身

늘어선 수풀 그늘 제단 터를 둘러있고
부드러운 사초밭은 비단요보다 낫네.
복을 빌어 반드시 이뤄지도록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상서로움 드리워 묵묵히 돕는 신이 감응하리라.
모든 마음 한결같이 축수하며 향을 올려 비니
송도가 무슨 연유로 늙은 내게까지 미쳤나.

서울로 돌아가는 이사유 판관을 송별하다
送別李判官士有還京

風雪那能返
相看暗斷魂
強排呼酒餞
莫若送人言
恨入茫然惱
愁隨正爾煩
羈懷多未了
從此與誰論

눈보라에 어찌 돌아가라
서로 보며 암담하여 간장이 끊어지네.
억지로 술을 불러 전별하니
사람 전송하는 말만한 것이 없네.
한스러움은 아득히 뇌속에 파묻히고
근심은 곧바로 번뇌로 따르네.
나그네 심정 다하지 못한 것이 많으니
이로부터 뉘와 함께 논하라.

읍에 부임한 후 제반 사무를 총괄하여 하나의 시로 만들어 객회를 펴다
莅邑後諸般事務總之爲一詩 以叙客懷

彭城近海旋平陸
山不蓄畬水不蓄
居人勤儉作生涯
戶未滿千結七百
我來巧值荒年餘
民憂比常自倍於
察瘼閭閻輪一紙

팽성은 바다에 가까우면서도 평평한 물이라서
산에는 밭이 없고 물은 모을 수 없네.
사는 사람 근검하게 생계를 꾸리니
인구는 천 호가 안되고 땅은 칠백 결일세.
내가 오고 공교롭게 흉년을 맞은 끝에
백성 근심 평소보다 절로 배가 되었구나.
병을 살피느라 여염에 종이를 들렀고

省災郊野遍小車
 曾經吾有一副規
 所到遵施欲無虧
 風高雪積歲將改
 蔀屋寒愁最此時
 兒啼婦歎蘆綿薄
 暮去朝來桂爨遲
 爲民字牧欲如何
 五斗推捐恨未多
 散分縱少湘醪酌
 大庇何傷杜廈哦
 況有朝家優老典
 每當此時遵不頗
 盡是吾王之赤子
 仰體愚忱今髮皤
 莫道响响非實惠
 還羞塞責與同科
 夜夜詩眉起繞壁
 何由鑿倒銅山峨
 但願今秋得金穰
 四隣烟火盈倉箱
 戶戶家家擬朱頓
 熙熙皞皞歌虞唐
 太守因之無一事
 甘心十載臥淮陽

재해를 살피느라 교외와 들에 작은 수레가 덮였네.
 일찍이 내게는 부응하는 규칙이 있었으니
 같은 곳마다 준수해서 어그러짐이 없게 하려네.
 바람은 높고 눈은 쌓여 해가 바뀌려 하니
 집안의 추위와 근심이 지금이 제일 많을 때일세.
 아이는 울고 아낙은 탄식하니 갈대솜은 얇고
 저녁 가고 아침 오니 불때는 일 더더지네.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다섯 말 녹봉 버린들 한이 많지는 않네.
 흠어져 비록 적더라도 탁주를 따르니
 크게 비호함이 어찌 두보의 큰집을⁹³⁾ 상하게 하랴.
 하물며 조정에서 노인을 우대하는 은전이 있으니
 매번 이런 때를 맞으면 따라서 치우침이 없네.
 모두 우리 왕의 적자이니
 우리러 충정을 체득하다 지금 머리 희어졌네.
 은화함이 실제 은혜가 아니라 말하지 마오
 책임만 면한 일이 부끄러운 것도 같은 부류일세.
 밤마다 시 쓰는 늙은이 일어나 벽을 감도니
 어찌하여 뚫다가 구리 동산 거꾸러졌는지,
 다만 올가을 금양⁹⁴⁾을 얻기를 바라니
 사방 이웃 연기 오르고 곳간은 가득하기를.
 집집마다 주돈⁹⁵⁾을 본받아
 화락하고 자득하여 요순을 노래하기를.
 태수가 이 때문에 일이 하나 없어
 즐거운 마음으로 십년 동안 회양에 누워있기를.

93) 두보의 큰집을 : 당나라 두보의 시에 “어떡하면 넓은 집 천만 칸을 얻어 천하의 빈한한 선비들을 크게 비호하여 모두 즐거운 얼굴이 되게 할까[安得廣廈千萬間 大庇天下寒士俱歡顏]라는 구절이 나온다. 《杜少陵詩集 卷10 茅屋爲秋風所破歌》

94) 금양 : 金穰. 풍년 들 징조. 태세성(太歲星)의 운행이 금(金), 즉 유궁(酉宮)에 이르렀을 때 풍년이 든다고 한다.

95) 주돈 : 朱頓. 춘추시대 월(越)나라 도주공(陶朱公)과 노(魯)나라의 의돈(猗頓), 거부(巨富)를 이룬 사람들이다.

임인년 12월 27일 느낀 점이 있어 시를 짓고 또 오언시 절구 3수를 짓다
 壬寅臘月二十七日有感作又疊五言詩三截

老年懷緒銳於秋
 木落霜淒石出洲
 一種情根鋤不斷
 時辰強半喚成愁
 寒食青山春幾暮
 明朝霜鬢歲將周
 何苦人心不我似
 紛紛欲飾弧辰喜
 不張則已既張何
 任他前陳觀舉止
 廚供頗能解兼魚
 庭趨庶少伸稱兕
 對案悽然下箸遲
 此時心事自知之
 今朝倍悲泣風樹
 一室相思杳角涯
 強意欲忘難自抑
 幽懷黯黯痕在眉
 頓令一堂殊氣候
 東邊日出西邊雨
 無爾之爲無我愁
 故知此舉非善措
 人情大抵觸生感
 萬種悲歡肚裡聚

늙은이 회포는 가을보다 예민하니
 잎 진 나무에 서리 차갑고 돌이 물가에 드러나네.
 정 뿌리 한 가닥은 호미질해도 끊어지지 않고
 세월의 태반이 근심을 불러 일으키네.
 한식 든 푸른 산은 봄이 거의 저물었더니
 내일 아침 서리든 귀밑털에 한 해가 다 되어 가네.
 남의 마음이 내 맘 같지 않음이 어찌 괴로우랴
 분분하게 생일날 기쁨을 꾸미려 하네.
 펼치지 않으면 그만이요 펼쳐진들 어찌
 앞 차림 아랑곳 않고 행동거지 살피네.
 주방에서 제법 고기와 생선까지 올리고
 뜰에는 아랫사람들이 무소뿔잔을 올리네.
 상을 마주하고 처연하여 젓가락 놓기 더더지니
 이때의 심사를 스스로 알겠구나.
 오늘 아침 부모님 생각에 곱절은 슬피 흐느끼고
 가족들 그리움은 궁벽한 땅에서 아득하네.
 억지로 잊으려 해도 억제하기 어려우니
 깊은 마음 암담하여 얼굴에 흔적이 남는구나.
 갑자기 온 대청의 기후가 달라져
 동쪽에서 해 뜨고 서쪽에서 비 내리네.⁹⁶⁾
 네가 하는 일이 없어 내 근심이 없으니
 이번 일이 잘된 조치가 아닌 것을 알았네.
 사람 마음 닿으면 대체로 감정이 생기니
 온갖 종류 슬픔과 기쁨이 뱃속에 모이네.

96) 동쪽에서 해 뜨더니 서쪽에서 비 내리네 : 당(唐)나라 유우석(柳禹錫)의 시 〈죽지사(竹枝詞)〉의 한 구절이다. 시에 “수양버들은 푸르디푸르고 강물은 잔잔한데, 임의 노랫소리 강 위에서 들려오네. 동쪽에는 해 뜨더니 서쪽에는 비가 내려, 흐린 날이라 할까 갠 날이라 할까.[楊柳青江水水平 聞郎江上唱歌聲 東邊日出西邊雨 道是無晴還有晴]”라고 하였다.

險夷榮辱七十年
 豈復牽情膏大煎
 枯淡如梅傲冰雪
 清癯似鶴思神仙
 只緣世故隨形役
 久已斷送人間緣
 五柳先生眞我師
 并其姓字欲無知
 神遊一枕風北窓
 興來九月菊東籬
 千載氣味乃相似
 此來種種欲學之
 別有就中消遣法
 花禽盡被自家詩

우여곡절과 영욕 겪으며 70년을 살았으니
 어찌 다시 정에 끌려 스스로 크게 태우겠나.⁹⁷⁾
 고담하여 매화처럼 얼음과 눈에도 깨끗하고
 학처럼 맑게 여위어 신선을 생각하네.
 세상의 인연 때문에 형체의 부림을 받으니
 인간의 인연 끊어 보낸 지 오래일세.
 오류선생⁹⁸⁾이 진실로 나의 스승이니
 아울러 성과 이름 아는 사람 없게 하려네.
 바람 부는 북창에서 자며⁹⁹⁾ 신선처럼 노닐고
 9월 국화 핀 동쪽 울타리에서 흥이 나네.
 천년 전과 흥취가 비슷하니
 이로부터 이것저것 배우려 하네.
 별도로 그 가운데 시를 푸는 법이 있어
 꽃과 새가 모두 내 시에 들었어라.

孤露過生朝
 衰齡六十九
 追念劬勞恩
 那堪悲痛嘔

외로운 인생이 생일 아침을 맞아
 늙은 나이 예순 아홉이라네.
 낱고 기른 부모 은혜 돌이켜 보니
 비통한 노래를 어찌 견디랴.

遣懷多悵黯
 靜寂坐如禪
 家屋雖云遠
 兒來意可憐

회포 푸니 울적함이 많아
 참선하듯 고요하게 앉았네.
 집이 비록 멀리 있다 하여도
 아이가 오니 마음이 어여쁘구나.

97) 스스로 크게 태우겠나 : 자신의 재주 때문에 스스로를 해침을 의미한다. 《장자》〈인간세(人間世)〉에 “산의 나무는 유용하기 때문에 스스로 해를 당하고, 기름은 불이 붙기 때문에 스스로 저를 태운다.[山木自寇也, 膏火自煎也.]”라고 하였다.

98) 오류선생 : 五柳先生. 진(晉)나라 도연명(陶淵明)의 호이다. (오류선생전(五柳先生傳))에 “집 옆에 버드나무 다섯 그루가 있기에 이를 나 자신의 호로 삼았다.[宅邊有五柳樹 因以爲號焉]”라고 하였다.

99) 북창에서 자며 : 도연명의 〈여자엄등소(與子儼等疏)〉에 “오뉴월 중 북창 아래 누워 우연히 시원한 바람이 잠시 닿으면 스스로 회황때 사람이라고 생각했다.[五月中 北窓下臥 遇涼風暫至 自謂是羲皇上人]”라는 구절이 나온다.

石友今安在
 惟應記此辰
 強歡還笑我
 誰與傾清醇

석성은 지금 어디에 있나
 오늘을 기억하고 있으리.
 억지로 기뻐하다 도리어 나를 비웃으리니
 누와 함께 맑은 술을 기울이겠느냐고.

생각한 바가 있어 시를 한 수 짓다
 有所思 賦得一詩

梅堂靜寂似禪居
 有所思兮一夢虛
 脚氣成痺常倚枕
 眼花生崇久拋書
 朋儕漸看如星落
 年少空爲與日疎
 悵望雲山石醒子
 如何阻絕若忘余

매당이 사원처럼 고요하니
 생각 하느라 꿈 한 번이 비었구나.
 다리가 저려 항상 베개에 기대고
 흐린 눈이 빌미가 되어 오랫동안 책을 버렸네.
 벗들은 점점 떨어지는 별처럼 보이고
 젊은이들과는 공연히 날마다 소원해지네.
 운산의 석성자를 한스럽게 바라보니
 어찌하여 뚝 끊겨 나를 잊은 듯한가.

마음에 느낀 바가 있어 시를 지어 회포를 풀다
 有所感於心者 賦詩遣懷

吁嗟筋力憊君恩
 尚有桑榆短景痕
 聽每問人緣耳重
 寫難成字歎眸昏
 凍粟生膚偏索炭

아! 근력은 임금의 은혜를 받을까 겁이 나건만
 여전히 상유¹⁰⁰⁾에 짧은 해의 흔적이 있구나.
 들어도 매번 남에게 물으니 귀가 무거운 탓이요
 글을 써도 글자 되기 어려우니 눈이 어두움을 탄식하네.
 피부에 소름이 돌아 숯만 찾코

100) 상유 : 桑榆. 해가 지는 곳. 만년에 처음의 실패를 만회함을 가리킨다. 후한(後漢) 때의 장수인 풍이(馮異)에 대해, 황제가 친히 글을 내려 위로하기를 “처음에는 회계(會稽)에서 깃을 접었으나 나중에는 민지(鰲池)에서 펼쳐 비상하니, 참으로 ‘동우에 잃었다가 상유에 수습하였다.[失之東隅 收之桑榆]’라고 할 만하다.”라고 한 데서 연유한다.《後漢書 卷17 馮異列傳》

射風砭骨自驚魂 바람이 뼈를 파고드니 혼이 놀라네.
 身短心長今老矣 몸은 짧고 마음은 영원하나 지금은 늙었으니
 情懷此日與誰論 오늘 마음을 누구와 함께 논하랴.

종일 흙덩이처럼 앉아 함께 서서 말하는 자가 없었으니 기쁜 일이 없음을 알 만하다. 다만 손님으로 태경이 있고 집에서 익아가 왔으니 이것이 역시 우리 군대를 펴기에 족하다고¹⁰¹⁾ 할만하구나. 시를 한 수 짓고 또 읊시를 거듭 지어 수정¹⁰²⁾을 하는데 보낼 뿐이다

鎮日塊坐 無與立談者 其無悵況可知矣 但幸賓而有泰卿 家而有翼兒 此可云亦足張吾軍歟 聊賦一則 又疊律詩 賴以守庚云爾

官舍似僧居 관아가 스님의 거처 같으니
 臘月三十日 선달 그믐이구나.
 隨例舉重徒 전례 따라 중도를 거행하고
 收邏早已畢 순라는 일찌감치 마쳤네.
 太守髮星星 태수의 머리털은 성성하고
 塊坐何兀兀 흙덩이처럼 앉은 것이 어찌나 오뎝한지.
 時鍾響銅鳴 시계가 구리 음향을 울리고
 膩燭現花纈 기름초가 꽃 문양을 드러내네.
 何以守庚申 어찌 밤을 새우나
 無聊強抽筆 무료하여 억지로 붓을 드네.
 終年做得那 평생 무엇을 하였나
 欲語杳難悉 말하려 해도 아득해 다 말하기 어렵구나.
 斷自金馬鄉 금마문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고을에서
 公務未及卒 공무는 미처 끝내지 못했네.

101) 우리 군대를 펴기에 족하다고 : 시를 쓸 만하다고 한 것이다. 한유(韓愈)의 <취중장비서(醉贈張祜書)>에 “아메는 글자를 모르지만, 팔분서를 제법 잘 쓴다. 시가 이루어져 그에게 쓰게 하니, 나의 군대를 자랑할 만하여라.[阿買不識字 頗知書八分 詩成使之寫 亦足張吾軍]”라고 한 데서 연유한다.

102) 수정 : 守庚, 수경신(守庚申)을 가리킴. 잠을 자지 않음을 의미한다. 도교에서 사람의 몸에 삼시충(三尸蟲)이 있어 경신일(庚申日)에 자는 동안 하늘에 올라가 그의 선악(善惡)을 보고하는데, 잠을 자지 않으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여 모든 재액(災厄)을 면할 수 있다고 한다.

忽忽遽遞歸 총총히 교체되어 돌아왔으니
 是歲之秋七 올해 가을 칠월이었네.
 非敢薄淮陽 감히 회양을 하찮게 여긴 것¹⁰³⁾이 아니라
 因便耿光昵 이어서 임금의 광휘를 가까이 하기 편하네.
 桑啣耀舊園 공상소 명함이 옛 동산 비추었고
 幣幣榮新室 내탕금이 새 집을 영화롭게 하였네.
 溫諭戎南征 남쪽으로 내려가라 온유하시어
 怵惕辭天闕 두려워하며 대궐을 하직하였네.
 長歌行路難 가는 길 어려움을 길게 노래하며
 數日驅車疾 며칠 동안 수레를 빨리 몰았네.
 入境如掌平 경계에 들어서니 손바닥처럼 평평해
 山有芙蓉一 산은 부용산 하나가 있었네.
 姑性諒難諳 성품은 알기 어려움을 살피기 때문에
 故無鑿柄詰 예조¹⁰⁴⁾같이 빼격덜 일이 없네.
 嵩呼援禮趨 만세 소리에 예에 따라 달리고
 茶供省糜叱 차를 바치며 낭비를 줄이라 꾸짖네.
 邑小眞如斗 고을이 작으니 진실로 말 만하여
 稅不盈千結 세금이 천 결을 넘지 못하네.
 按簿查舊新 장부 보고 옛 것 조사해 새롭게 하니
 猶在未勘秩 여전히 감수하지 못한 것이 남아있구나.
 民多末如何 백성이 많으니 어찌할 수가 없어
 吏或作乾沒 아전이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네.
 挽回貴及時 만회는 때에 맞는 것이 귀하니
 厥責在表率 책임은 술선수범하는 데 있네.
 性非素刻深 성품이 평소 가혹하지 못하고
 語自傷纖密 말은 세심하고 치밀한 것이 문제일세.

총총히 교체되어 돌아왔으니
 올해 가을 칠월이었네.
 감히 회양을 하찮게 여긴 것¹⁰³⁾이 아니라
 이어서 임금의 광휘를 가까이 하기 편하네.
 공상소 명함이 옛 동산 비추었고
 내탕금이 새 집을 영화롭게 하였네.
 남쪽으로 내려가라 온유하시어
 두려워하며 대궐을 하직하였네.
 가는 길 어려움을 길게 노래하며
 며칠 동안 수레를 빨리 몰았네.
 경계에 들어서니 손바닥처럼 평평해
 산은 부용산 하나가 있었네.
 성품은 알기 어려움을 살피기 때문에
 예조¹⁰⁴⁾같이 빼격덜 일이 없네.
 만세 소리에 예에 따라 달리고
 차를 바치며 낭비를 줄이라 꾸짖네.
 고을이 작으니 진실로 말 만하여
 세금이 천 결을 넘지 못하네.
 장부 보고 옛 것 조사해 새롭게 하니
 여전히 감수하지 못한 것이 남아있구나.
 백성이 많으니 어찌할 수가 없어
 아전이 재산을 몰수하기도 하네.
 만회는 때에 맞는 것이 귀하니
 책임은 술선수범하는 데 있네.
 성품이 평소 가혹하지 못하고
 말은 세심하고 치밀한 것이 문제일세.

103) 회양을 하찮게 여긴 것 : 금암이 회양 태수(淮陽太守)를 고사하자 한무제가 말하기를 “그대는 회양을 하찮게 여기는가? 내 금암 군대를 다시 부를 것이다. 다만 회양의 관리와 백성들이 서로 화합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그저 그대의 중망(重望)을 빌리는 것이니, 그대는 누워서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다.[君薄淮陽邪? 吾今召君矣. 願淮陽吏民不相得, 吾徒得君重, 臥而治之.]”라고 하였는데, 금암이 부임한 뒤 회양이 잘 다스려졌다고 한다. 《史記 卷120 汲黯列傳》

104) 예조 : 방에원조(方柄圓鑿)의 준말. 네모난 자루와 둥근 구멍, 혹은 둥근 자루와 네모난 구멍을 뜻한다.

所賴齊衆心
 帳圍稍稍出
 歉荒又重之
 省灾巡一櫺
 傷哉民食艱
 憂思滿目溢
 發榮不自由
 減租那可必
 天道無盡劉
 庶幾卜云吉
 興言及身家
 諸事塞翁失
 白過嗟橫罹
 丹心欲寸折
 未遽賦歸田
 求解而沐漆
 烏兔奔何忙
 轉頭云暮聿
 凍雪積嵯峨
 寒風吹蕭瑟
 一事意差強
 斑衣來繞膝
 臨紙筆代勞
 懸弧酌許設
 及到今夕除
 懷緒難盡述
 更深不成眠

의지하는 것은 백성들의 마음이니
 휘장을 둘러싸 차츰차츰 나오네.
 흉년이 또 거듭되어
 재해 살피러 한 바퀴 돌았네.
 슬프구나 백성들이 먹고 살기 어려움이여
 근심스러운 생각에 눈물이 가득 차네.
 창고를 여는 것이 자유롭지 않으니
 세금 줄이는 것을 어찌 반드시 할 수 있으랴.
 천도는 다 없앨 수 없으니
 길하다 할 날이 있으리라.
 말이 몸과 집안에 미치면
 모든 일은 새옹지마라네.
 명백한 죄에 그물에 잘못 걸린 것을 한탄하고
 붉은 마음 마디마다 꺾이려 하네.
 갑자기 전세를 부과할 수 없으니
 머리 펴기 구하면서 옷칠에 머리를 감네.¹⁰⁵⁾
 해와 달은 어찌 그리 바쁘게 달리나
 머리 돌리니 세모가 되었구나.
 언 눈은 우뚝하게 쌓였고
 찬 바람은 쓸쓸하게 부네.
 한 가지 만족하는 것은
 효자가 와서 무릎에서 노는 것일세.
 종이를 대하여 붓이 대신 수고하고
 활을 걸고¹⁰⁶⁾ 술잔을 베풀기를 허락하네.
 오늘 그믐날이 되니
 회포를 다 진술하기 어렵구나.
 밤 깊어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105) 옷칠에 머리 감네 : 미관말직에 있음을 의미한다. 송(宋)나라 진관(秦觀)이 가족을 위해 관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신세를 한탄하여 “옷으로 머리를 감으면서 머리를 펴려고 하는 것과 같다.[如沐漆而求解]”라고 하였다. 《古文眞寶後集 送秦少章序》

106) 활을 걸고 : 아들이 태어남을 뜻한다. 옛날에 아들이 태어나면 뽕나무 활을 문 왼쪽에 걸어서 활을 잘 쓰기를 기대하였다.

翁乃作歌曰
 採採東籬花
 持以勵晚節
 如時姑未當
 聊與梅爲匹

늙은이가 다음과 같이 노래를 지었으니,
 동쪽 울타리 꽃을 캐고 캐서
 지니고서 늦은 절개를 독려하네.
 때가 우선 맞지 않으니
 매화와 함께 짝하리라.

殊方節物暗消魂
 檢盡曆頭春有痕
 孤宦每恨阻朋友
 細君應專戲兒孫
 詩文僅有年老得
 俸廩初無歲計存
 殘刻看如蛇赴壑
 滔滔苒苒孰能援

타향의 계절 풍광에 슬픔으로 마음 녹으니
 검속 끝난 책력 머리에 봄이 흔적을 남겼네.
 외로운 벼슬아치 벗들과 막힌 것이 매번 한스러우니
 아내는 아들 손자와 오롯이 놀겠구나.
 시문은 간신히 나이 들어서 얻었고
 봉록은 애초에 없어 한 해 지출이 남았구나.
 남은 시간이 구렁에 들어가는 뱀처럼 보여
 유유히 흘러가니 누가 잡을 수 있으랴.

계묘년(1903) 새해 아침 癸卯正朝

歲朝相賀極歡娛
 換曆新看老更悵
 寫爲除凶先鬱壘
 飲要消病後屠蘇
 殘梅叵耐冰魂久
 臥柳將舒暖候殊

설날 서로 축하하니 지극히 즐겁건만
 바뀐 달력 새로 보니 늙음이 더욱 근심일세.
 흉한 일 막으려 울루¹⁰⁷⁾를 먼저 쓰고
 병을 없애려고 도소주¹⁰⁸⁾를 나중에 마시네.
 남은 매화 어렵게 견디니 얼음같은 혼은 오래가고
 누운 버들 뻗치려 하니 따뜻한 기운이 다르구나.

107) 울루 : 鬱壘, 신명이다. 새해 아침에 두 개의 복숭아나무 판에다 신도(神荼)와 울루(鬱壘)의 두 귀신 이름을 써서 문 옆에 걸어 둠으로써 사기(邪氣)를 막았다고 한다.

108) 도소주 : 屠蘇酒, 설날에 마시는 약주(藥酒) 이름이다. 귀기(鬼氣)를 도절(屠絶)하고 인혼(人魂)을 소성(蘇醒)한다고 한다.

時物辛盤今日事 계절 나물 신반¹⁰⁹은 오늘 일이니
 陽和一脉自茲敷 봄기운 한 가닥이 이로부터 퍼지리라.

수서기가 떡국을 바치러 왔기에 시를 지어 주다
首書記供來餅湯 因賦詩以贈

誰云愛我者 누가 나를 사랑하는 이라 하라
 美饌盈盤新 맛난 음식 가득한 소반이 새로워라.
 心貺非容易 진심으로 주는 선물 쉽지 않으니
 何由得此珍 어떻게 이런 진귀한 것을 얻게 되었나.

호장 편우현(片禹鉉)이 면상을 바치러 왔기에 읊다
戶長片禹鉉麵床供來有吟

對饌牙流爽 음식 대하니 어금니에 상쾌함이 흘러
 新嘗一箸移 새로이 맛보러 젓가락을 옮겼네.
 酒因延壽舉 술은 장수하라고 들고
 飴固補饑持 엿은 본디 쉰 밥 대신 먹네.
 味別江鄉有 맛이 색다른 것은 강마을이 있어서요
 香眞海國知 향기가 진한 것은 바다 마을이라서네.
 感多情意厚 두터운 정에 감사하여
 聊謝短章詩 짧은 시를 지어 사례하노라.

109) 신반: 오신반(五辛盤). 파, 마늘, 생강, 겨자, 후추 등 다섯 가지 매운 맛 나는 채소를 소반에 담아 먹으며 새해를 축하하는 풍습이 있었다.

향장 박준화가 설상을 차려왔는데 많고도 맛이 있기에 시를 지어 기록하다
鄉長朴準華歲儀床供進 多且旨 賦詩志之

旅館憫余枯淡相 여관에서 말라가는 내 모습이 가련하여
 爲供佳饌新年貺 맛있는 음식을 새해 선물로 바치네.
 宮商一嚼更云何 조화롭게 한 번 씹으니 무슨 말을 더 하라
 只恨老來微酒量 다만 늙어서 주량이 적은 것이 한스럽구나.

백향산 운에 차운하다
次白香山韻

新曆驚衰老 새 책력은 노쇠함을 놀라게 하니
 年華莫可淹 세월은 멈출 수가 없네.
 微波動智井 잔잔한 물결이 마른 우물을 움직이고
 融雪滴晴簷 녹은 눈이 개인 처마에 방울지네.
 香爨龍涎碎 향기는 용연향을 부수어 태우는 듯
 雷烹雀舌纖 우레는 작설차를 가늘게 달이는 듯.
 擘禪來問歲 엽선(擘禪)이 와서 해를 물으면
 兆解話須占 징조를 풀어 점 본 얘기를 하리.

새해 초에 무당 최한주 등이 와서 걸립굿을 하다
歲初巫夫崔漢柱等乞功

歲首花郎故託禳 설에 화랑¹¹⁰이 짐짓 푸닥거리 부탁하니
 爭持工藝也相當 다투어 지닌 기예가 상당하구나.

110) 화랑: 花郎. 남자 무당을 가리키는 속칭이다.

最中童子尤奇絶 그 중에 동자가 가장 뛰어나
 簞弄身材盖一場 체 가지고 노는 재주 온 마당 제일일세.

익아에게 명하여 망한사에 빌게 하고 짓다
命翼兒虔誠于望漢寺 有作

名刹孤城近 이름난 절이 외딴 성 가까이에 있어
 莊嚴創麗時 장엄하게 고구려 때 창건되었네.
 功神存普濟 공은 신령하여 널리 중생을 보존하고
 德廣念慈悲 덕은 넓어서 자비를 생각하네.
 所欲虔誠得 정성들여 빌면 원하는 것을 얻으니
 由歆感應知 흠향하면 감응하는 것을 알겠구나.
 清齋新歲祝 맑게 재계하고 새해를 축원하니
 心炷自無欺 마음의 심지에 절로 속임이 없도다.

계묘년 1월 7일은 석성의 재회갑일이다. 작년 이날 함께 보내지 못했기에 올해는 함께 있으면서 술을 따르자고 약속하였다. 일이 끝내 마음과 어그러져 동서로 뚝 떨어진 채 오늘이 또 이르렀다. 여러 해 서로 의지한 것을 생각한 끝에 때를 만나 평소보다 곱절이나 되는 회포가 없을 수 없었다. 그리고 여기에 온 이래로 세월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발자국 소리가 여전히 적막한 것이 의아하였다. 석성이 나를 그리워하는 간절함이 내가 석성을 그리워하는 간절함과 비교해 험한 것이 아니겠는가? 알 수 없다. 그러나 차마 석성이 없다고 이날을 허투루 보내지 못하겠기에 술잔을 베풀고 음악을 연주하여 생일 지내는 모양을 꾸며서 곁에 있는 사람과 여러 아랫사람들과 함께 하여 그 날을 마쳤으니 석성이 분명 귀가 간지러웠을 것이다. 붓 가는대로 쓰다

癸卯正月七日 石醒重回甲日也 昨歲此日 既失同度 故約以今年 則相守對酌矣 事竟違心 落落東西而日又至 念積年相依之餘 不能無遇辰倍常之懷 而且訝其來此以後歲華云改 聳音尙寂 無乃石醒思我之切 較歇於我之思 石醒歟 是未可知也 然而不忍以石醒不在而虛度是日 仍令設酌奏樂 俾歸孤辰樣子 與在傍及羣下共之以終那日 石醒必耳癢矣 縱筆

石醒重回誕節新
 愛憐猶自記今辰
 料知衆賀無窮樂
 難副孤懷未了因
 聊設醞醪頒管隸
 故教絲竹奏陽春
 顧今亦有來年會
 只願保留強健身

석성의 회갑일이 새로 다시 돌아온 날
 애석하여 스스로 오늘을 기념했네.
 여러 사람 축하가 무궁한 즐거움인 것을 알겠으니
 외로운 마음 부응하기 어려워 인연을 다하지 못했네.
 술과 떡을 차려서 관속에게 나누어주고
 일부러 풍악 울려 양춘곡을 연주하네.
 지금을 돌아보면 내년 모임도 있으리니
 다만 건강하게 몸을 보존하길 빌 뿐일세.

8일 갑자일이 입춘인데 이날 마침 규성이 열리는 날이었다. 세상에서 더없는 길일이라 하는데 갑자일에 입춘이 겹쳤으니 진실로 만나기 어려운 기이한 회합이다. 팔미환(八味丸) 조제하는 것을 이날 시작하면 좋을 듯 하였기에 익아 등에게 명해 꿀을 달여 환을 만들어서 복용하기 시작하고 읊다
 八日甲子立春 是日適值奎開 世傳無上吉日 而甲子立春兼之 眞是難遇之奇會也 八味丸合製 以是日始之似好 故命翼兒等 煉蜜作丸始服賦得

日之甲子奎開辰
 適屆立春星建寅
 天上一機回令節
 人間三會載深仁
 化將發育霜枯卉
 老亦期甦病瘵身
 八味良材求自遠
 四家明訣合成眞
 茲庸饋陸晉羊贈

갑자일 규성이 열린 때
 마침 입춘인데 별이 건방을 가리키네.
 천상에 한 번 온 기회가 다시 돌아온 명절이니
 세상에 세 가지가 모여 깊은 어짘을 실었네.
 변화하여 서리에 얼어붙은 풀을 발육하고
 늙은이도 병들고 수척한 몸 회생을 기약하네
 팔미환¹¹¹⁾ 좋은 재료로 오래 살기를 구하니
 네 집안 비결이 합하여 참을 이루네.
 이것을 육(陸)에게 접대하니 진양공이 준 것이요

111) 목단피(牡丹皮) 3냥, 백복령(白茯苓) 3냥, 부자(附子) 1냥, 산수유(山茱萸) 4냥, 산약(山藥) 4냥, 숙지황(熟地黃) 8냥, 육계(肉桂) 1냥, 택사(澤瀉) 3냥을 처방한 환약이다.

是以扶吾夔杜嘸 이것으로 나를 부지하니 기두(夔杜)가 흉내내네.¹¹²⁾
 解使當時方試服 마땅한 때 시험삼아 복용하게 하면
 應知靈府可圖新 정신을 새롭게 만들어 볼만 하겠네.

예전 함안에 있을 때 나쁜 기운이 돌자 어떤 사람이 벽사부를 주어 시험해 보니 제법 효험이 있었다. 그래서 보관하여 가지고 다니다가 근래 밖에 역시 괴이한 증상이 있어 그 부적을 꺼내 주사로 백삼십여 장을 써서 안팎에 나누어주어 각 기 문에 붙였다. 얼마 후 그 증상이 점점 사라졌으니 과연 부적이 영험한 것인가, 아니면 나쁜 기운이 없어질 때여서인가? 장난삼아 시 한 수를 짓다
 往在咸安 有輪行沴氣 人遺辟邪符 試之頗驗 因藏而隨之 近日外間 亦有怪症 出其符以朱砂書一百三十餘張 散給中外 各人貼其門上 尋聞 闕症寢滅 其果符書之靈歟 抑沴氣有時消息歟 戲賦一詩

門掛金剛劍 문에 금강검을 걸어두니
 髑髏血模糊 해골이 피로 얼룩졌네.
 魑魍哭且走 도깨비가 곡하며 도망가니
 膏肓撤如無 병증이 없었던 듯 사라졌네.
 四隣聚首賀 사방 이웃 모여들어 축하하니
 片符何神哉 부적이 어찌 이리 신령스러운가.
 醫扁不足問 명의도 묻기에 부족하고
 巫祝反遭哈 무당도 비웃음만 사네.
 何如不龜手 손 트지 않게 하는 것은¹¹³⁾ 어떤가
 大可以封侯 크게는 봉작을 받을 만하네.
 所嗟人不買 한탄스러운 것은 남들이 사지 않아
 白頭泚澁愁 흰 머리에 숨 빨 걱정을 하는 거라네.

112) 미상(未詳).

113) 손 트지 않게 하는 것은 : 송나라 사람 가운데 솜뽀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손이 트지 않는 비법을 알고 있었는데 평생 솜뽀는 일을 면하지 못하였으나, 어떤 사람이 이 비법을 사서 전쟁에 활용하여 제후에 봉해졌다고 한다. 《莊子 逍遙遊》

아들이 와서 남산동조춘시를 한 장 보여주었으므로 차운시를 짓다
 兒曹來示南山洞早春詩一頁 故次其韻和之

固知春色早 본디 봄 풍광 이른 줄 알기에
 料峭尚寒時 여전히 매섭게 추운 때라네.
 積雪猶含凍 쌓인 눈 여전히 얼어있고
 凝冰自泮漸 얼음 얼어 살얼음 떠다니네.
 鳥聲如報候 새 소리 날씨를 알리는 듯하고
 花信若敷期 꽃 소식 기일이 된 듯 하구나.
 風氣多才意 바람은 재주가 많아
 吹黃着柳枝 노란 색을 불어 버들가지에 붙였네.

흥을 풀다
 遣興

時看春容靜 때로 봄 기색 고요한 것을 보고
 身閑却似癡 몸 한가하니 도리어 멍해진 듯 하네.
 旅情迷醉眼 나그네 마음은 취한 눈에 헤매고
 花信沁詩脾 꽃 소식은 시 짓는 비장에 스며드네.
 就暖風光襯 따뜻해져 풍광이 가까워지고
 辭寒韶景隨 추위 사양하니 봄빛이 따르는구나.
 天心多委曲 천심은 곡절이 많아
 萬彙趨榮茲 만물이 여기에 꽃을 피우네.

십일은 익아 생일이다. 관아의 주방으로부터 면상을 올리러 왔다. 오시에 백설기를 써서 서리 및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대접하였다. 시를 지어 회포를 풀다
 十日翼兒生日也 自官廚緬床供來 午間蒸白雪餅 派饋書寫吏及在傍人 賦詩遣懷

爾齒纔過四十強
 生朝又見此殊方
 慰多寒暖吟和軸
 喜動晨昏侍繞床
 新供瓜分玉屑餅
 舊醅仍酌椒花觴
 一恒立性堪酬世
 無愧稱當始仕郎

네 나이 겨우 사십을 넘었으니
 생일 아침을 또 이 타향에서 보는구나.
 계절마다 많은 위로에 화운시축 읊어주었고
 아침저녁 기뻐오니 상을 둘러 모셔주었네.
 새로운 상차림에 백설기를 나누어 주고
 묵은 술을 이어서 초화¹¹⁴⁾ 술잔에 따르네.
 한결같은 성품이 세상살이 견디니
 시사랑¹¹⁵⁾에 걸맞기에 부끄럽지 않구나.

서울로 돌아가는 익아를 전송하며 시를 지어 회포를 풀다
送翼兒還京 賦詩遣懷

悵悵殊鄉別
 出門冉冉行
 雖云嗟我獨
 足以慰慈情
 路指山千重
 庭空鶴一聲
 吟詩回首望
 愁緒可裁成

서글프게 타향에서 이별하니
 문을 나서 하염없이 가겠구나.
 비록 홀로인 나를 탄식한다 하여도
 이 마음을 위로하기에 충분하였네.
 가는 길 산이 수 천 겹이고
 빈 뜰에는 학이 한 번 우는구나.
 시 읊으며 머리 돌려 바라보니
 근심의 실마리를 자를 수 있으랴.

순천 쌍암리 유곡 박승진(朴勝璿)은 내 동서 박태식(朴台植)의 손자이다. 상경하는 길에 만나러 왔는데 나이가 지금 20세로 숙성하고 민오(敏悟)하며 아정(雅正)함이 지극하였다. 춘수루에 머물게 하여 접대하고 시를 지어 기록하다

114) 초화: 椒花. 산초나무 꽃으로 신년(新年)을 축하할 때 자주 쓰인다.
 115) 시사랑: 始仕郎. 여기에서는 40세가 된 아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예기》〈내칙(內則)〉에 “나이 40이 되어야 비로소 벼슬길에 나아간다. 일에 대해서 계모(計謀)를 내고 생각을 발표하여 임금에게 올리되, 도가 합치하면 복종하여 따르고 불가하다고 생각되면 떠난다.[四十始仕 方物出謀發慮 道合則服從 不可則去]”라는 말이 나온다.

順天雙巖里西谷朴勝璿 卽余同婿朴台植孫也 上京路歷見 年今二十歲 夙成敏悟 極其雅正 使之留接春水樓 賦詩志之

天涯孤館裡
 懷緒正勞煩
 昨送思兒子
 今逢喜戚孫
 生曾初會面
 訪已重敲門
 何必移南渡
 箕裘世業存

하늘 끝 외딴 관사 안에서
 마음은 수고롭고 번잡하네.
 어제 보낸 아들을 그리워하다
 오늘 친척 손자 만나서 기뻐하네.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데
 방문하여 거듭 문을 두들겼네.
 어찌 남쪽으로 건너갈 필요 있으랴
 선조의 유업을 대대로 보존하리니.

그리운 바가 있어 운을 잡다
有所思 拈韻

世事如棋看局麼
 一身多難果如何
 蛾燠自撲魚吞餌
 嗟爾浮生亦剎那

세상사 장기 같으니 판국이 어떠한가
 이 한 몸 다난함은 과연 어떠한가.
 나방이 불에 달려들고 물고기가 미끼 무니
 아! 떠도는 인생 역시 찰나로구나.

대보름 전날 저녁에 읍례에 따라 춤과 음악 및 보리타작 놀이 베풀기를 허락하고 일을 읊어 기록하다
上元前夕 因邑例許設舞樂及稊麥之戲 賦事志之

明月滿天人滿堂
 淵淵伐鼓仙樂張
 與民之樂手巾舞
 就次觀者如堵墻

밝은 달이 하늘 가득 사람들은 당에 가득
 둥둥 북을 치며 신선 음악이 펼쳐지네.
 여민락 음악에 수건무를 추니
 나아와 구경하는 자가 담처럼 둘러섰네.

第一名唱申晚葉
 斜風細雨歌春香
 銀燭燐煌更漏急
 是時樂意猶未洽
 如啖蔗味漸入佳
 秫麥祈豐傳俗習
 從中吾欲出不意
 眼去眉來備供給
 莫謾徑奏罷宴曲
 妙理最在晨鷄哭
 梅堂倏變作田家
 揮鞭打黃聲相促
 花郎擊節助聳肩
 一時收成十三石
 頭頭面面凡幾許
 酒錢酬勞日來汝
 真堪絕倒遊手兒
 相顧流涎悔恨語
 齋糧一鉢無坐立
 使佛當之亦應與
 善戲謔兮誰家子
 一場德談紛不已
 蚯吟蛙吠動天機
 好意看來亦足喜
 古例留儲期欲準
 南風散入家家裡
 民憂亦憂樂亦樂

제일 명창 신만엽(申晚葉)¹¹⁶이
 비껴부는 바람에 가랑비 날리듯 춘향가를 부르네.
 은촉이 휘황하고 저녁 물시계 빠르니
 이때 즐거운 마음이 오히려 미흡했네.
 사탕수수 맛보듯이 점입가경이라
 보리 풍년 기원은 전해오는 풍습일세.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니니
 사람들이 오가며 갖추어 공급하네.
 함부로 빨리 잔치 끝내는 곡조를 연주하지 마오
 이치는 답이 우는 새벽에 가장 묘하다오.
 매당이 홀연 변해 농가를 만들고
 누린 곡식 타작하니 소리가 서로 재촉하네.
 남자 무당이 박자를 쳐서 어깨춤을 돋우니
 일시에 거두어 십삼석을 이루었네.
 머리마다 얼굴마다 모두 얼마인가
 술값으로 보답하며 이리 오라 말하네.
 배꼽빠지는 것은 놀던 아이들이니
 돌아보고 침흘리며 후회하는 말을 하네.
 잣밥 한 바리때 먹으려도 앓고 설 곳이 없으니
 부처에게 하라 한들 역시 응하겠는가.
 해학을 잘하니 뉘 집 자식인가
 한바탕 덕담이 끝없이 분분하네.
 지렁이 개구리 울어 천기를 움직이고
 좋은 마음 보이니 역시 기뻐 만하네.
 오랜 전례가 남아서 따르기를 기약하니
 남풍이 흩어져 집집마다 들어가네.
 백성의 근심을 근심하고 즐거움을 즐거워하니

116) 신만엽(申晚葉) : 필명창 가운데 한사람으로, 전라도 여산에서 태어나 고창에서 살았다. 석화제라고 하는 경쾌한 소리제에 장기가 있어 “사풍세우(斜風細雨) 신만엽”이라고 불렸다.

今夕之遊不寂寞
 所貴相孚上下情
 謂我太康無愧作
 人散庭空還復寥
 梅陰塊坐一詩作
 奏樂歡娛跡已陳
 滿堂爭勝是吾民
 胡桃嚼破那能辟
 藥飯炊供警可伸
 望稔俗傳河八麥
 酬辰歌唱帶方春
 夜闌同飽無其物
 故把酒錢茲派均

오늘 저녁 놀이가 적막하지 않구나.
 귀한 것은 서로 믿는 상하의 정이니
 내가 너무 즐긴다¹¹⁷고 하여도 부끄럽지 않네.
 사람 흩어지고 뜰이 비어 다시 적막해지니
 매화 그늘에 흠뻑이처럼 앉아 시 한 수 짓노라.
 음악 연주하며 즐기는 자취 이미 오래되어
 당 가득 장기를 다루는 이들이 내 백성일세.
 호두 깨무는 일을 어찌 물리치랴
 약밥 지어 바치니 경계를 떨 수 있으랴.
 곡식 바라보니 세속에 하팔¹¹⁸ 보리라고 전하는 것이라
 때에 맞추어 대방춘을 노래하네.
 밤 끝나자 함께 배부르고 제대로 된 물건이 없어
 짐짓 술값을 가지고 똑같이 나누어 주네.

대보름 밤에 태경과 함께 후원에 올라 달을 바라보고 이어서 망한사로 가니 다리밧기를 하는 곳이 모두 다섯 곳이었다. 명절놀이가 늙었어도 여전하여 한 번 크게 웃을 만하였다. 입으로 시 한 수를 짓다
 上元夜 與泰卿登後園望月因 往望漢寺踏橋凡五處 酬節之戲 老猶自在 還可一噓也 口拈一頁

憶昔傳柑事已違
 孤城燈火樂園機
 無由追到虹橋步
 只見供齋望漢祈
 天上清光真放最
 人間和氣自成揮

예전 감귤 전하던 일 추억하니 일이 이미 어그러지니
 외딴 성에 등불 켜고 둥근 달을 즐기네.
 홍교를 따라 걸을 길을 없어
 다만 망한사에 공양 올리는 것을 보네.
 천상의 맑은 빛이 진실로 제일 많이 나와서
 인간 세상 화목한 기운 절로 휘날리네.

117) 너무 즐긴다 : 太康. 《시경》〈실술(蟋蟀)〉에 “너무 지나치게 즐기지 말라.[無已太康]”라는 구절이 나온다.

118) 하팔 : 河八, 평택의 옛 이름이다.

何須勞問身前卦
聊寫新詩筆欲飛

어찌 수고롭게 생전의 점괘를 물으랴
새로운 시 쓰느라 붓이 날으려 하네.

그냥 짓다
因卽事賦詩

近日條風料峭寒
常推物理以心觀
得年不畏偏衰老
却喜陽和次第看

근래 조풍¹¹⁹이 매섭게 추우니
물리를 미루어 마음을 살피네.
나이 먹어 노쇠함이 두렵지 않고
봄기운 차례로 보는 것이 즐겁구나.

운을 잡아 스스로 탄식하는 시를 짓다
賦自歎詩 拈韻

初欲期題柱
嗟跑到寡謀
月縮黃金俸
時添白髮愁
散材寧適用
操志幸無尤
驥老誰云伏
徒爲恨不驪

처음에는 기둥에 쓰려¹²⁰ 했으나
안타깝게 헛디더 피가 부족하였네.
달마다 황금 봉록은 줄어들고
때마다 백발에 근심을 더 하네.
쓸모없는 재목을 어찌 적당히 쓰랴
지조 지키는 데 다행이 허물이 없네.
천리마 늙었으나 누가 엮드리라 하랴
한갓 달리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구나.

119) 조풍 : 條風. 팔풍(八風)의 하나로 봄에 부는 동북풍인데, 따뜻한 바람이다.

120) 기둥에 쓰려 : 題柱. 사마상여(司馬相如)가 고향 성도(成都)를 떠나 장안(長安)으로 갈 때에 승선교(昇仙橋)를 지나면서 다리의 기둥에 쓰기를, “고거사마(高車駟馬)를 타지 않고는 다시 이 다리를 지나지 않겠다.”고 하였다고 한다.

여현 도중
礪峴途中

理裝緣歲問
鼓角趨熹微
雲斷孤松隔
湖生短棹歸
川冰堅尙滑
野雪積餘威
辛酸胡乃已
心煩直欲飛

여장을 꾸리는 건 새해 문안 때문이니
고각소리 희미한 데서 들리네.
구름 끊어진 곳에 외딴 소나무 떨어져 있고
호수에는 짧은 노 저어 돌아가네.
개천 얼음은 단단하나 여전히 미끄럽고
들판의 눈은 쌓인 끝에 위세 떨치네.
고생은 언제 끝나려나
마음 번잡하여 곧바로 날아가고 싶구나.

천안점에서 일찍 일어나 출발하며 짓다
天安店早起登程 有作

喔喔鷄聲雜曉鐘
勞生每恨苦奔衝
踈星點落山頭月
殘火吹明野舍春
霜重沙顏鋪似雪
凍尖泥嘴利如鋒
微官到老非榮達
應是閑人穩睡濃

각각 닭소리가 새벽종에 섞이니
고생스러운 삶은 분주히 돌아다니는 것이 한스럽네.
성긴 별 점이 떨어지는 산머리에 달이 뜨고
꺼진 불 불어 밝혀 들 집에서는 절구 쪼네.
모래 얼굴에 무거운 서리는 눈처럼 깔리고
진흙 부리 뾰족하게 얼어 칼처럼 예리하구나.
미관으로 늙어서 영달하지 못하니
한가한 사람으로 편안한 잠 깊이 자리.

덕평을 지나며 늙은 나이를 고뇌하니 실로 나를 버티기 어려워 생각한 바가 있어
회포를 읊다

過德坪衰境苦惱實難支吾 有所思 賦懷

向身心自問
몸을 향해 마음이 스스로 묻노니

可笑熱中腸
無奈驕夫瘦
那堪濼路長
草芽抽軟綠
柳眼着微黃
化物春生意
吾能却老方

끓는 창자가 가소롭구나.
가마꾼 여윈 것을 어찌할 수 없으니
긴 진창길 어찌 견디랴.
풀싹은 어린 초록을 뽑아내고
버들눈은 열은 노랑이 붙었네.
사물을 변화해 봄 기운이 생기니
늙는 방법 내가 물리칠 수 있겠네.

광정 도중에
廣亭途中

看看春色早
物色望中連
水解條風外
山明落照前
老松蒼抱屋
穉麥綠肥田
寫景孤吟處
逡巡倦着鞭

보고 보니 춘색이 이르러
물색이 보이는 중 이어지네.
얼음 풀려 조풍 밖에 있고
산은 밝아 낙조 앞에 있네.
늙은 솔은 푸르게 지붕을 안고
어린 보리 초록으로 밭을 살찌게 하네.
외로이 경물을 읊는 곳에
머뭇거리며 채찍질을 게을리 하네.

쌍수산성에서 잠시 쉬며 읊다
少憩雙樹山城 有吟

早春物色絕塵埃
款客居人掃石苔
一水練如拖白去
亂山槩擬送青來
故宮隙地曾年所
廢壘要津亦壯哉

이른 봄 물색은 세상 티끌이 없고
손님 환대하는 주민은 돌의 이끼 쓸어내네.
한줄기 강이 누인 비단처럼 흰빛을 늘어놓고
어지러운 산은 창처럼 솟아 푸름을 보내며 오네.
옛 궁궐 빈 땅은 세월이 지났고
버려진 성채 요해처 역시 장대하구나.

爲愛烟雲清賞好
覓詩題罷更含盃

안개와 구름 사랑하여 맑은 감상 좋으니
시 찾아 짓기 다하고 다시 술잔 머금네.

월파루에 올라 현판 운을 차운하다
登月波樓 次板上韻

四壓烟雲此水頭
勝區興廢幾春秋
拖藍江色橫羅帶
搖碧山容拱畫樓
尹伯詩懸編舊製
韓公記著補添修
一聲長笑乾坤窄
肯怪南華芥作舟

사방에 안개 구름 깔린 이 강머리에
경치 좋은 곳 흥이 난 것이 몇 년이던가.
쪽빛 끌리는 강빛은 비단 띠 비껴 맨 듯
푸름 흔들리는 산 얼굴이 화려한 누각에 절하네.
윤백의 시는 옛날 지은 것을 엮어서 걸었고
한공의 기문은 보수하여 꾸민 일을 드러냈네.
천지가 좁은 것에 한바탕 길게 웃으니
남화진인 지푸라기 배¹²¹⁾가 무엇이 괴이하랴.

영은사에서 완상하며 읊다
靈隱寺翫賞 有吟

危巒掩暎勢環并
寶界莊嚴傍古城
松檜滿庭常積翠
山河當戶自涵清
客閑興寓鐘聲出
僧寂心成塔影明

높은 언덕이 해를 덮고 빙둘러 있으니
사찰이 장엄하게 옛성 옆에 있구나.
소나무 노송나무 뜰에 가득하여 항상 푸르고
산과 물이 문 앞에서 절로 푸름을 품고 있네.
한가한 객은 흘러나오는 종소리에 흥을 부치고
고요한 스님은 밝은 탑 그림자에 마음을 이루네.

121) 남화진인 지푸라기 배 : 남화진인은 장자이다. 《장자(莊子)》〈소요유(逍遙遊)〉에 “대청의 우묵한 곳에 한 잔의 물을 부으면 지푸라기는 배처럼 띄울 수 있다. 그러나 술잔을 띄우면 가라앉으니, 물은 얇고 배는 크기 때문이다. [覆杯水於坳堂之上 則芥爲之舟 置杯焉則膠 水淺而舟大也]”라는 구절이 나온다.

可笑忙中能有暇 바쁜 중에 한가할 수 있는 것이 가소로우니
 暫時眞賞若爲情 잠시 진실로 감상하는 마음이 어떠하랴.

쌍수정에서 현판의 운을 차운하다
雙樹亭次板上韻

山河襟帶護崇垣 띠처럼 두른 산하가 높은 담을 보호하는데
 只有空林鳥雀喧 빈 숲만이 있어 새와 참새가 시끄럽네.
 龍御祥雲雙樹闕 용이 상서로운 구름에 머물렀던 쌍수정 궁궐
 鳳鳴瑞靄萬家村 봉황이 상서로운 안개에서 울었던 만가 촌.
 浮生難藉悲霜髮 뜬 인생 찾아보기 어려워 슬픔에 머리털 희어지고
 往跡無憑醉玉樽 지난 자취 알 길 없어 옥술잔에 취하누나.
 如夢繁華春又到 꿈처럼 변화한 봄이 또 오니
 于嗟欲語復忘言 아! 말하려고 하여도 다시 말을 잊었네.

공주관아 침상에서
公州館枕上

須知今夕好 오늘 밤 좋은 줄 알아야 하니
 宿處是江南 자는 곳이 곧 강남일세.
 整衣還早起 옷매무새 다듬고 아침 일찍 일어나니
 將爲使君談 그대와 담화 나누기 위해서라네.

금강에서 배를 타고 짓다
錦江乘船 賦得

月波堂下錦江 월파루 당 아래 금강에는
 彭城歸客波頭 팽성에 돌아가는 나그네 물결에 있네.

乘風有翼短帆 바람 타고 날개 돋은 듯 작은 돛으로
 衝浪無痕片舟 물결 헤치고 흔적없이 가는 작은 배.
 天際飛來孤鷺 하늘 끝에는 날아온 외로운 오리
 波中浮沉閑鷗 물결에는 떳다 가라앉은 한가한 갈매기.
 曠野烟雲四壓 빈 들 안개 구름 사방을 압도하고
 列岫鬢髻一周 줄지은 산굴은 트레머리처럼 한 바퀴 돌렸네.
 揮毫濤箋詩韻 붓 휘두른 설도전¹²²⁾에 시운이 있고
 換魚柳市棹謳 물고기 바꾸는 유시¹²³⁾에 뱃노래 소리.
 斜陽白沙捲地 지는 해가 흰 모래밭 땅을 차지하니
 駒隙便覺難留 망아지 같은 세월 잡기 어려움을 깨닫노라.

광정점 숙소에서 밤에 회포를 진술하는 절구 2수를 짓다
廣亭店宿所夜 賦述懷二截

荷擔騎率自維持 짐을 진 말과 시종 스스로 유지하고
 貴賤同趨隨分爲 귀천이 함께 가며 분수를 따르네.
 縱道傍觀乘者好 옆에서 보면 탄 자가 좋다 말을 하여도
 似安非穩孰能知 편안한 듯 편치 않음을 누가 알 수 있으리.

蜜熟繭成枉護持 꿀 익고 고치 이루어져 보호해 가져가니
 二蟲何事苦辛爲 두 벌레는 무슨 일로 고생을 하였던가.
 孰能解識窺魚鷺 물고기 노리는 해오라기를 누가 알 수 있으랴
 伊惱伊閑爾自知 번민하고 편안함을 네가 스스로 알리라.

122) 설도전: 薛濤箋. 설도는 당나라 명기로, 진홍색의 채색 종이를 짧게 잘라 그 위에 시를 적어 넣고 하였으므로, 당시 사람들이 그 종이를 설도전이라 하였다. 《資暇錄 卷下 薛濤傳》

123) 유시: 柳市. 유시(柳市)는 한(漢)나라 때 장안(長安)의 저자 이름이다. 당나라 왕유(王維)의 시에 “도원에서 줄곧 세속과 단절해 있다가, 유시 남쪽으로 은사를 찾아왔네[桃源一向絕風塵 柳市南頭訪隱淪]”라는 구절이 있다. 《全唐詩 卷128 春日與裴迪過新昌里訪呂逸人不遇》

원대 도중 번민을 떠다
院垞途中 遣悶

人生七十稀
我年輒當之
昏聾應來崇
風眩轉覺愁
老既不足歎
病亦尚可治
不思歸休逸
如何冒寒馳
雖無田負郭
豈是有營私
有隕云承乏
多荷聖主恩
老去怕受賜
一般亦心披
報答心攸在
寤寐盡箴規
爲人聽指揮
酸寒亦此時
今向彭城去
能效淵明師

사람 나이 칠십 세가 드문데
내 나이 문득 이르렀네.
어두운 귀는 빌미가 될 것이고
눈 어지럼증은 근심스럽게 됐네.
늙음은 탄식하기에 이미 부족하고
병 역시 오히려 치료할 수 있네.
돌아가 편히 쉴 것 생각하지 않고
어찌하여 추위 무릅쓰고 달리는가.
비록 성곽 가까운 밭이 없어도
어찌 사적으로 경영하겠는가.
곤궁하여 재주 없이 벼슬 받으니
성주의 은혜에 감사하네.
늙어가니 하사받는 것이 두려워
마찬가지로 역시 마음을 들추네.
보답하려는 마음은 있어
자나깨나 경계로 삼네.
남에게 지휘를 받게 되니
고생스럽고 추운 것 역시 지금일세.
지금 팽성으로 향해 가니
도연명 스승을 본받을 수 있을까.

부토리 도중에
富士里途中

他鄉春色早
草木摠新痕
逝水長無礙

타향의 봄풍경이 이르니
초목이 모두 자취를 새롭게 했네.
흐르는 물은 막힘 없이 가고

浮雲本不根
旅情空瑣瑣
世事自昏昏
呼酒寒堪敵
炊烟又此村

뜬 구름은 본래 뿌리가 없었네.
나그네 마음은 쓸데없이 자질구레하고
세상 일은 저절로 흐릿해지네.
술 부르니 추위를 대적할 만해
밥 짓는 연기는 또 이 마을일세.

여현 도중에 절구 2수
礪峴途中 二截

世路無非蜀道難
彭城歸客正辛酸
東風作惡謾吹雪
空惱行人透骨寒

세상길은 촉땅 가는 길처럼 어렵지 않은 곳이 없으니
팽성으로 돌아가는 나그네 정말로 고생스럽네.
동풍이 장난을 쳐 눈발이 날리니
길 떠난 사람 뼈 파고드는 추위를 부질없이 걱정하네.

何處頻傳吹角聲
驀然逢着號衣迎
是知近迫吾州界
吸唱肩風足慰情

어느 곳인가 자주 뿔피리 소리 전하더니
갑자기 맞이하는 군인들과 마주쳤네.
우리 고장 경계까지 가까이 온 줄 알겠으니
의기양양 걷는 급창이 위로하기 충분하구나.

날씨는 춥고 노복은 앓아 여러 가지로 고생하다 생각하니 가소로워 술을 가득
따르고 시를 쓰다
天寒僕痛 多般喫苦 思之可笑 滿引一酌 題詩

春半程途六日返
雪融濘滑沒東西
五步一顛三步跌
捨轎種種歎亦奚
渠輩不念工力少
只恨乘重路且泥

양식 마련해 떠났다가 옛새만에 돌아오니
눈 녹아 진창 미끄러워 동쪽 서쪽 없구나.
다섯 걸음에 한 번 넘어지고 세 걸음에 넘어지고
가마 버리고 가지가지 탄식한들 어찌랴.
저들은 공력이 적음을 생각하지 않고
들 것이 무겁고 진창길이란 것만 탓하네.

況復可憎過壚飲
烟價未償竭囊提
緩步當車曾看泛
可笑仍便計還稽
傾如灘上舟載也
搖似竿末旋懸兮
由來所得添眩崇
耳雷重動眼花迷
若使乘者皆如是
賞傭難副陟高隄
百役并驅消磨盡
經歷誰能齊不齊
于嗟苦惱何須說
今焉如夢若仙躋

더욱이 더 가증스러운 건 주막 들러 술 마시고
밥값은 갚지 않아 가져온 주머니 탕진한 걸세.
느린 걸음으로 수레를 끌다가 떠가는 배 보았으니
가소롭다 편하려다 계책을 다시 돌아보네.
여울에 배 실은 듯 기울어지고
장대 끝에 깃발 매단 듯 흔들리네.
이 때문에 어지럼증 더하게 되어
귀에는 천둥소리 눈에는 현기증 심해졌네.
만약 타는 자가 모두 이와 같다면
인부 고용해 높은 제방 오르기가 어려우리.
온갖 노역 함께 닦쳐 다 소모하였으니
거처온 사람 누가 가지런하지 않은 것을 가지런히 하라.
아! 고뇌를 어찌 말할 필요 있으랴
지금은 꿈 꾸는 듯 신선세계 오른 듯해라.

익산에서 상납한 것으로 인해 느낀 바가 있어 짓다
因益山上納有感之作

魚網緣何鴈卽嬰
訴身無處自哀鳴
要津不解風波急
只道人間太守榮

어망에 무슨 일로 기러기가 걸려서
호소할 데 없어 슬피 우는구나.
요해처에 풍파가 급한 것을 알지 못하고
인간세상 태수가 영화롭다 말할 뿐이네.

회포가 있어 우연히 읊다
有懷偶吟

衰老年來強自常
吟詩每爲病相妨
不如意事翻棋局

노쇠함이 몇 년 사이 심한 것이 일상인데
시 읊는데 매번 병이 방해를 하네.
생각과 일은 장기판 뒤집듯 되지 않으니

可與語人慎木腸
天地無情駒歲月
江山有恨插壺觴
共閑作伴惟琴鶴
雀舌煮來春味長

더불어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목석같이 신중하네.
천지는 무정하여 세월은 망아지 같고
강산은 한이 있어 술병과 술을 드노라.
한가히 짝해주는 것은 거문고와 학뿐이고
작설차 달여오니 봄의 맛이 길구나.

이날 심사가 어지러우나 떨쳐버리지 못하고 취가행 1칙을 지어 스스로 풀다
是日心緒鬢髻排遣不得賦醉歌行一則以自寬

雨雨風風白髮翁
兄兄弟弟紅玉友
長歌一曲醉歌行
請君爲我試聽取
相煎膏火太困人
破除萬事無如酒
君不見青牛道子玄牝谷
萬化橐籥守雌伏
又不見龍門玉斧疏九河
蛟鼉走藏眠風波
李憑箏篋亂樂譜
石破天傾逗秋雨
九十日春少暄風

비 오는대로 바람 부는대로 백발이 된 늙은이
형 같기도 하고 아우 같기도 한 흥옥 같은 벗.
취가행 한 곡조 길게 노래하니
나를 위해 들어달라 그대에게 청하노라.
고화¹²⁴를 태우느라 사람을 매우 괴롭게 하니
만사를 잊는 데는 술만한 것이 없네.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청우도자¹²⁵의 현빈곡¹²⁶을
수만 변화의 풀무질이 가만히 움츠리고 있네.
또 보지 못했는가, 용문의 옥도끼가 구하를 소통시켰음¹²⁷을
교룡과 악어가 도망해 숨어 풍파를 잠재웠네.
이빙이 공후로 악보를 어지럽히자
돌이 깨지고 하늘이 기울어져 가을비를 그치게 하네.¹²⁸
구십 일 봄날 가운데 따뜻한 바람이 적으니

124) 고화: 膏火. 해를 당함을 가리킨다. 《장자(莊子)》인간세(人間世)에 “산의 나무는 유용하기 때문에 벌목을 자초하고, 유지(油脂)는 불을 밝힐 수 있어서 자기 몸을 태우게 만든다.[山木自寇也 膏火自煎也]”라고 하였다.

125) 청우도자: 靑牛道子. 노자를 가리킨다. 《열선전(列山傳)》에 “산해관에서 윤희(尹喜)가 바라보니 자기(紫氣)가 관 위에 어려 있었는데 과연 노자(老子)가 청우(靑牛)를 타고 그 곳을 지나갔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126) 현빈곡: 玄牝谷. 《노자(老子)》에 “곡신은 죽지 않나니 이를 현빈이라 하고, 현빈의 문을 바로 천지의 근원이라 한다.[谷神不死 是謂玄牝 玄牝之門 是謂天地根]”라고 하였다.

127) 구하를 소통시켰음: 우임금이 치수할 때 용문의 바위를 뚫어 구하를 소통시켰다고 한다. 구하(九河)는 황하의 지류 아홉 강의 총칭이다.

128) 가을비를 그치게 하네: 당나라 이하(李賀)가 이빙의 공후 연주에 대해 쓴 시에 “여왕가 오색석(五色石)을 구워 하늘을 기운 곳에, 돌이 깨지고 하늘이 놀라 가을비를 그치게 하네.[女媧鍊石補天處 石破天驚逗秋雨]”라 하였다. 《昌谷集 卷1 李憑箏篋引》

白者不白紅渝紅
 駮駮塩車驪兩耳
 鷹鷲得意橫秋空
 星官訴帝帝悽然
 北斗一夜東杓旋
 金鷄拍翼叫喔喔
 起視乾坤動廖廓
 熒爚紛紛競收光
 春臺無處不熙陽
 有時無命奈何乎
 滿堂歡娛一向隅
 相隨倚伏早聞知
 塞翁申申格語垂
 醉歌歌終日西夕
 呼兒復引一大白

흰꽃은 희어지지 못하고 붉은 꽃은 붉음이 변했네.
 천리마가 소금수레 끄느라¹²⁹⁾ 두 귀를 늘어뜨리고
 새매가 뜻을 얻어 가을 하늘을 가로지르네.
 성관¹³⁰⁾이 호소하니 황제가 처연하고
 북두성이 하룻밤에 동쪽으로 자루가 돌아갔네.
 금계가 화를 치며 꼬끼오 울어
 일어나 천지를 보고 허공을 진동시키네.
 햇불이 어지러이 다투어 빛을 감추고
 춘대는 밝은 햇빛 없는 곳이 없어라.
 때로 명이 없은들 어찌하리
 온 당이 즐거우나 한 사람은 쓸쓸하구나.
 화와 복이 서로 따른다는 것을 일찍 들어 아노니
 새옹이 거듭해서 격언을 드리웠네.
 취한 노래 끝나니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
 아이 불러 큰 술 한 잔 다시 가져오네.

익산으로 가는 유태경을 전송하다
 送柳泰卿之益山

今日送君金馬天
 賢勞惟望妙周旋
 橫徵擔責公餘債
 全乏營謀郭外田
 愛莫助之誰不惜

오늘 금마천 가는 그대를 전송하니
 현로¹³¹⁾에 주선을 잘 하라 오직 바랄 뿐.
 지나치게 거둔 것은 관아의 빛이 많아서니
 교외 밭 경영할 계책이 전무하네.
 사랑해도 도울 수 없으니 누가 애석하지 않으랴

129) 천리마가 소금수레 끄느라 : 재주를 인정받지 못함을 뜻한다. 옛날 늙은 천리마가 소금 수레를 끌고 험준한 대항산(太行山)을 넘어 가다가 쓰러졌는데, 백락(伯樂)이 이 말을 알아보고는 통곡하며 옷을 벗어 덮어 주었다고 한다. 《戰國策 楚策4》

130) 성관 : 星官. 천문을 관찰하는 관상감(觀象監)을 가리킨다.

131) 현로 : 賢勞. 재주 있는 자가 공무가 많아 고생함을 의미한다. 《시경》〈북산(北山)〉에 “넓은 하늘 아래 모두가 임금의 땅이요, 사해(四海)의 안이 그 누구를 신하 아닌 이 없건마는, 대부의 일 처리 균등치 못한지라 나만 일하면서 혼자만 훌륭하네. [溥天之下 莫非王土 率土之濱 莫非王臣 大夫不均 我從事獨賢]”라고 한 것에서 나왔다.

嗟無及矣足堪憐
 一生謹慎徒爲爾
 未答國恩遭此愆

아, 미치지 못하였으니 가련하여라.
 일생을 근신하는 것은 너를 위한 것이니
 국은을 보답 못했는데 이런 허물을 만났구나.

초목황무 절구 2수
 草木荒蕪 二截

園中草木自成叢
 年去全疎整理功
 發育亦關人愛惜
 豈宜專恃攝天工

동산의 초목은 절로 수풀 이루건만
 해 가자 다 성겨진 것은 정리의 공이네.
 발육 역시 사람이 아끼는 데 달렸으니
 어찌 오로지 하늘의 힘만 믿을 텐가.

去穢鋤治整亂叢
 收陳培土待人功
 陽和駘蕩敷榮日
 償得天機一段工

호미로 김을 매서 어지러운 수풀 정리하고
 배양토 북돋우는 것은 사람의 공 기다렸네.
 화창한 봄 영화롭게 펼쳐질 날
 천기의 공을 상으로 받으리라.

조동승 동지를 만나 얘기하고 짓다
 逢話曹同知東承 有作

壯圖未及搏雲鵬
 身分還如受縲鷹
 知夫憐矣作孤客
 不亦樂乎來遠朋
 時騷遙絕舍冰鼠
 世故頻聽過耳蠅
 枯淡靜居何所事
 索詩餘韻又逢僧

장대한 계책은 구름 타고 오르는 봉새에 못 미치니
 신세는 줄에 매인 새매와 비슷하네.
 외로운 나그네 가련함을 알겠으니
 멀리서 벗이 오니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세상의 소란과는 북극 얼음쥐처럼 똑 떨어져 있고
 세속 일은 귀를 지나는 파리처럼 자주 듣네.
 고담하게 고요히 사니 무엇을 일삼으랴
 시운을 찾다가 또 스님을 만나네.

동산을 다스리다
治園

除拔樗根補杜蘭
界頭彰朗恣遊盤
老槐足以清陰庇
叢竹猶堪好韻攢
風月寬閑容易得
庭園傾窄就平難
莫言方便當前苦
取次須知所遇安

잡목 뿌리 뽑아내고 두란을 더하니
경계머리 화창하여 자유로이 유람하네.
오래된 해나무 맑은 그늘 덮을 만하고
총죽은 좋은 소리나게 도울 만하네.
풍월은 넉넉하여 쉽게 얻을 수 있고
정원은 기울고 좁아 평지 되기 어렵구나.
편하려면 앞서 고생해야 한다고 말하지 말라
머물 때는 편안할 곳을 알아야 하네.

석존례가 끝나고 물러나 앉다
釋尊禮畢 退坐

文教宣明象火陰
上丁禮祀義崇深
雍容當座門徒配
誠敬遵儀天下欽
儼爾衣冠觀古典
潔陳籩豆想遺音
吾州禮化庸人聽
所在攸同蘋藻心

문교가 베풀어져 밝음을 음화¹³²가 상징하니
상정일 제사는 의가 높고 깊네.
온화하게 제 자리에 문도가 배석하고
경건하게 의례 따라 천하가 공경하네.
엄연한 의관에서 옛 전범을 보고
깨끗이 차린 제기에서 남기신 성음을 생각하네.
우리 고을 예의와 교화는 용렬한 사람도 따르니
있는 곳마다 빈조¹³³의 마음은 같구나.

132) 음화 : 陰火. 화는 천간(天干)의 정(丁)에 해당하므로, 즉 정일(丁日)을 뜻한다. 진상도가 “석전일을 상정일에 하는 것은 정이 음화이니 화가 문교가 베풀어져 밝음을 상징하기 때문이다.[釋奠日用上丁者 丁陰火也 火象文教宣明]라 하였다. 《聖門禮樂統》

133) 빈조 : 蘋藻. 법도에 따라 제사를 경건히 지냄을 가리킨다. 《시경》(소남(召南) 채빈(采蘋))에서 유래한 말이다.

사직대제의 예를 마치고 읊다
社稷大祭禮畢 有吟

開靈厚地古壇成
伊始恭祈膺祀情
已著現功稱帝配
克明播殖頌神名
遺儀秩秩樽壘奠
獻幣恂恂郡邑誠
憂國爲民恩敢忘
須知率土禮非輕

신령한 두터운 땅을 열고 옛 제단이 이루어지니
비로소 제사에 응하기를 공경히 기원하네.
이미 공이 드러나 황제에 짝하기에 걸맞으니
파종과 번식 잘 하도록 신의 이름을 부르네.
남은 위의 질서있게 술잔을 올리고
바치는 폐물 순수하니 군읍의 정성이네.
나라를 근심하고 백성을 위하는 은혜 감히 잊으랴
온나라 예의가 가볍지 않음을 알아야 하리.

저녁에 시동 최정성(崔正星)이 무떡을 바치러 오니 그 뜻이 가상하여 짓다
夕間侍童崔正星菁根餅供來意甚嘉尙也 賦得

孤燈坐久強難支
一椀熏餅若有期
念我專爲無飮物
童年用意貴良知

외로운 등불에 오래 앉아 버티기 어렵더니
한 그릇 따뜻한 떡이 기약한 듯 하여라.
먹을 거리 없는 나를 염려하였으니
시동의 마음씀은 양지¹³⁴를 귀하게 여긴 것일세.

춘일즉사. 백향산의 운을 쓰다
春日卽事 用白香山韻

坐看春生意
東風喚得醒
游魚浮小沼

생겨나는 봄빛을 앉아서 보니
동풍이 불어와 깨우는구나.
헤엄치는 물고기가 작은 못에 떠있고

134) 양지 : 良知. 선천적으로 타고난 마음의 본체, 양심을 가리킨다.

融雪滿中庭
漏泄潛歸潤
胚胎未放形
梅腮誇口白
柳眼着眉青
容與羊抽角
留連鶴刷翎
幽懷詩正拙
吟罷倩誰聽

녹은 눈이 증정에 가득하네.
새어나와 잠겼다가 다시 윤택해지고
배태했으나 아직 형성되지 않았네.
매화 뺨은 하얀 입을 자랑하고
버들 눈은 푸른 눈썹이 붙었네.
배회하는 양이 뿔을 내밀고
머뭇대는 학이 깃을 씻네.
그윽한 회포에 시가 정말 졸렬해
웁고 나면 누구에게 들려주랴.

큰 안개를 읊다
大霧賦得

邪氣爲陰冒日精
豈容纔隱豹文成
奔騰初擬寒雲散
雜沓還如驟雨傾
測處何能大禹智
辨來焉用離婁明
鴻濛更向先天看
不識如何此等并

사기가 그늘 만들어 해의 정기를 무릅쓰니
어찌 표범무늬 이룬 것을 숨길 수 있나.
피어올라 처음에는 겨울 구름 흩어지나 했고
뒤섞여 아득하니 소나기 쏟아지는 듯 했네.
추측한들 어찌 우임금 지혜처럼 할 수 있으며
분변한들 어찌 이루의 눈밝음을 쓰겠는가.
홍몽¹³⁵이 다시 선천 향하는 것을 보니
지금과 어떠한지 모르겠구나.

135) 홍몽 : 鴻濛. 천지가 나뉘기 전의 태초(太初)의 상태.

봄비
春雨

東風吹雨暝雲垂
膏澤濛濛正及滋
鼓瑟聲如聽暫止
懸麻勢若看尤奇
催花無語施工日
潤物多情着意時
野外初生春水滿
從教不負趁農期

동풍이 비를 불어 먹구름 드리우고
은택이 자욱하여 바로 적셔주는구나.
거문고 소리 듣는 것 잠시 멈추듯 하고
쭉쭉 내리는 큰 비는 볼수록 더욱 기이하네.
꽃 재촉하니 말없이 꽃을 피우는 날이요
경물 윤택하니 다정하게 뜻을 붙이는 때일세.
들밖에 처음 봄물 생겨 가득차니
농사 시기 저버리지 않도록 하네.

소오헌 동쪽 뜰에 천지송 다섯 그루를 심어놓고 운을 잡다
嘯傲軒東庭 排種千枝松五株 拈韻

晚來栽植護衙園
老盡惟存百尺根
寄語郡人須愛看
破閑留待蜜蜂喧

느지막이 심어서 관아 정원을 보호하니
다 늙어 백 자되는 뿌리만 남았구나.
고을 사람들에게 사랑하며 돌보라 당부하고
소일거리 삼아 꿀벌 시끄러울 때를 기다리네.

석성의 편지를 보고 읊다
見石醒書有吟

憶從別去思難禁
尺素傳來抵萬金
詩恐浮沉書不屬
意專款密語由深
今朝稍慰猶憑信
何日相逢共話心

헤어진 후로 그리움을 금하기 어려우니
전해온 편지 한 장 만금보다 귀하네.
시는 부침이 걱정되어 써지지 않고
뜻은 다정하여 말이 이로 깊어지네.
오늘 아침 편지로 조금 위로받았으나
어느날 다시 만나 함께 마음 얘기할까.

且究遣辭還起感 우선 보낼 말 찾으니 감정이 북반쳐
 須非折簡致君臨 편지가 아니라 그대가 와야겠네.

천추절 기쁨을 기록하다
千秋節 志喜

元良初度載重賡 황태자 생신에 거듭 화답하여 노래하니
 仁孝生知繼聖明 인효를 타고나 성명을 이었네.
 丹詔宥頒咸衆頌 황제 조서 반포되어 모든 백성 칭송하고
 靑宮慶衍值時亨 동궁에 경사 넘쳐 형통한 때를 만났도다.
 維新瑞應前星耀 유신¹³⁶의 상서가 응하여 전성¹³⁷이 빛나고
 顒望權同率土情 함께 기뻐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백성의 마음일세.
 拜舞賀班趨未得 절하고 춤추는 축하 반열에 달려가지 못하였으니
 願推春化少伸誠 봄 같은 교화 미루어 정성을 조금 펴기 원하네.

태경이 익산에서 돌아왔는데 전하는 말이 사실과 가깝지 않아
개연히 붓을 놀려 3수를 짓다
泰卿自益山還所 傳多不近事情 慨然縱筆三疊

九麾家裡釜生塵 태수 아홉 번 한 집안 솔에서 먼지가 나니
 謂我知錢是妄人 나보고 돈 안다 말하면 망령된 사람일세.
 尙得靈臺餘地裕 오히려 영대의 남은 땅이 넉넉하였으니
 祇緣無愧質蒼昊 하늘에 묻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네.

136) 유신 : 維新. 《시경(詩經)》 대아(大雅) 문왕편(文王篇)에, “주나라가 비록 오래된 나라이나, 천명은 새롭도다.[周雖舊邦 其命維新]”라고 하였다.

137) 전성 : 前星. 태자를 가리킨다. 자를 가리킨다. 진(晉) 나라 천문지(天文志)에, “심(心)이란 별이 있는데, 중성(中星)은 천자를, 전성(前星)은 태자를, 후성(後星)은 서자(庶子)를 가리킨다.” 하였다.

三刀傲吏甚生驕 삼도¹³⁸의 오만한 아전이 매우 교만하게 굴어
 飽待飢人笑反饒 배불러서 굶주린 자를 기다리며 도리어 넉넉하다 비웃네.
 金馬至今靈亦老 금마¹³⁹가 지금까지 신령 역시 늙었으니
 不將神驗證昭昭 신령한 징험이 아니라도 밝게 증명하리.

黑白妍媸掩莫欺 흑백과 미추를 덮어서 가리지 말라
 尙書明鑑照無私 상서께서 밝게 살펴 사심 없음을 밝히리.
 不妨容汝須臾喘 네가 잠깐 헐떡이는 것 용납해도 상관없으나
 只恐星奔電邁遲 별이 달리고 번개가 치는 것이 늦어질까 걱정일세.

소나무를 심고 일을 읊다
種松賦事

而我一生好種樹 나는 평생 나무 심기 좋아하여
 所在田宅無閑土 사는 밭과 집마다 노는 땅이 없었네.
 家傳有素聽稼庄 집안에 본래 청가장이 전하고
 手植無窮廩巖墓 손수 늪암동 묘소에 끝없이 심었네.
 新令栽桑際挽近 새로 뿡나무 심으라 하여 가까이 와 있다가
 我今來此彭城郡 내가 지금 여기 팽성군에 와 있다네.
 蓋聞地利貴無遺 들으니 땅의 이익은 빠뜨림이 없음이 귀하니
 園多曠拋看可悶 동산에 버려진 땅 많은 것이 볼 때마다 고민일세.
 卉木譜中松最魁 초목 족보 가운데 소나무가 가장 으뜸이니
 穉亦異日棟樑材 어려도 훗날에는 동량 재목 되리라.
 寄語役丁莫嘖噉 인부에게 쟁그리지 말라 말을 부치고
 我有斗酒先釀來 내게 있는 한 말 술을 먼저 빚어 왔노라.

138) 삼도 : 三刀. 여기에서는 오형묵이 군수를 지낸 익산을 가리킨다. 진(晉) 나라 왕준(王濬)이 칼 세 개가 서까래에 걸려 있는 꿈을 꾸고 다시 칼 하나가 더해지는 꿈을 꾸었는데, 삼도(三刀)는 주(州)를 뜻하고 더해진 것은 익(益)을 의미한다는 해몽대로 익주 자사(益州刺史)에 부임했던 고사가 있다. 《晉書 王濬傳》

139) 금마 : 金馬. 익산의 별칭이다.

松是汝松非我松
只留手澤說從容
分付兒童勿剪拜
可愛凌霜傲雪冬
多人聞此欣欣然
一盃先獻出眞天
獨樂何如與衆樂
今日一舉得兩全

소나무는 너의 소나무지 내 소나무 아니니
손때를 남기라 조용히 말을 했네.
아이에게 자르거나 베지 말라 분부하니
서리와 눈 이겨내는 겨울이 사랑스럽구나.
많은 사람 이 말 듣고 기뻐하며
한 잔 술 먼저 바쳐 천진을 드러내네.
혼자 즐기는 것이 함께 즐기는 것에 어떤가
오늘 한 번 거사로 둘은 온전히 했네.

서향(瑞香), 두충(杜冲), 포도(葡萄)가 한 곳에 나서 가지가 얽히고 덩굴이 설켜 각자 퍼지지를 못하였고 포도가 더욱 곤란을 많이 당하여 매우 안타까웠다. 관노에게 명해 서향, 두충을 캐와서 소오현 동쪽 뜰 한가한 빈 터에 옮겨 심고, 포도덩굴은 본래 땅에 그냥 두고 햇대를 설치해 올렸다. 이에 세 종류가 모두 제 자리를 얻었다. 세간의 허다한 일이 모두 어떻게 조치하는가에 달려있으니 어찌 유독 화훼만 그럴겠는가? 느낀바가 있어 절구 2수를 짓다

瑞香杜冲葡萄生在一處 枝交蔓絡 各自不敷 而葡萄尤多受困 心甚愛惜 命官隸採取瑞香杜冲 移種于嘯傲軒東庭閑曠處 葡萄蔓則仍置本地 設架乘之 於是三種俱得其所 世間許多事 盡在措置之如何 豈獨花卉爲然哉 有感而作二截詩

杜冲海棠趣不同
葡萄纏束作成叢
一架二移方便好
嫣然得地待春風

두충과 해당은 취미가 같지 않고
포도가 동여매 한 무더기 이루었네.
하나는 햇대에 둘은 옮겨 편해지니
곱게 제자리 얻어 봄바람을 기다리네.

那無游刃地恢恢
人苦尋常過眼來

땅 널찍하니 어찌 유인¹⁴⁰이 없으랴
고생하는 사람들 심상하게 눈앞에 지나네.

140) 유인 : 자유자재로 어려운 일을 처리함을 의미한다. 《장자(莊子)》〈양생주(養生主)〉에, “소의 마디 사이에는 공간이 있고 나의 칼날에는 두께가 없으니, 두께가 없는 나의 칼을 가지고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가면, 그 공간이 넓고 넓어서 칼을 놀릴 때 절로 여유가 있게 마련이다. [恢恢乎其于游刃 必有餘地矣]”라고 하였다.

誰識不龜遲大用
至今泚避老庸才

손트지 않는 처방이 늦게야 크게 쓰일 줄 뉘 알았으랴
지금까지 숨 빼는 늙은이 재주가 용렬하구나.

동산의 잡풀을 제거하고 꽃과 대나무를 나누어 심으니
대나무가 더욱 사랑스러워 기뻐하며 울시 한 수 절구 한수를 짓다
修滌園中雜卉 分種花竹 而竹尤可愛 喜題一律一截

坡師彭澤我師坡
醫俗奇功與竹多
雪傲霜凌論氣味
風來日出助吟哦
長思秀節成隣里
忽喜殘叢在小阿
從此蒞翁忘外累
月明聊復抱琴過

동파는 팽택[도연명]을 스승삼고 나는 동파를 스승삼으니
세속 치료하는 기이한 공이 대나무와 많도다.
눈 내리고 서리 앓을 적에 기미를 논하니
바람 불고 해 뜰 적에 시 읊기를 돕는구나.
빼어난 절개 오래 사모하여 이웃마을을 삼으니
홀연 남은 떨기가 작은 언덕에 있어 기쁘네.
이로부터 채옹¹⁴¹은 바깥의 번거로움 잊으리니
달 밝으면 다시 거문고 안고 지나리라.

陳根宿莽故教刪
護得猗猗竹數竿
弄日吟風如有感
傍人錯比白香山

묵은 뿌리 오래된 풀들을 깎아내고
아름다운 대나무 몇 그루를 어렵사리 얻었네.
해와 바람 즐기며 읊으니 느낀 점이 있는 듯
옆 사람이 백향산[백거이]에 잘못 견주는구나.

강난수 참봉과의 문답을 엮다
綴姜參奉蘭秀問答

荷君來訪問如何
近日差痊病眩麼

그대가 찾아와 주어 어떤가 물으니
근래 어지럼증 조금 나았대오.

141) 채옹 : 오형묵. 호가 채원(菴園) 혹은 채인(菴人)이라 일컬은 말이다.

新關花園誰不愛 새 관문 화원을 누가 사랑하지 않으리
尋常行路亦看過 심상하게 가는 길에 역시 보고 지난다오.

喜聞之子帝都歸 아이가 서울에 돌아갔단 말 기쁘게 들었으니
聖世登庸是所希 태평성대에 등용되는 일이 바라는 바일세.
直把園花新染綠 곧바로 동산의 꽃으로 새로 실을 물들여
近君時補袞龍衣 임금 가까이 계실 때 곤룡포를 보완하리.

**선친의 생신에 외지에 있어 차례에 참여하지 못하니 그리움이 끝이 없어
운을 잡아 회포를 풀다**
先考生辰日在外未參茶禮 孺慕彌極 拈韻遣懷

此日難禁孺慕情 부모 그리운 마음 오늘 금하기 어려우니
白雲何處是先塋 흰구름 어느 곳이 선영이런가.
傷懷靜樹恩何報 고요한 나무¹⁴²에 슬픔으로 은혜 어찌 보답하랴
葵藿猶能向日傾 해바라기는 오히려 해를 향해 기울네.

근래 감기에 걸렸으나 여전히 차도가 없어 매우 괴로운 일이라 운을 잡다
近日感崇尙未差效 甚苦事也 因拈韻

偏苦衰年病轉侵 유독 괴로운 늙은 나이에 병이 침범하니
腰圍減覺較衣襟 허리가 줄어들어 옷깃이 넉넉하네.
醫編何用君臣藥 의서의 군신비약¹⁴³ 어찌 쓰리오
龜息保生非所任 거북처럼 숨고르며 장생하는 것은 소임이 아닐세.

142) 고요한 나무: 정수(靜樹). 가만히 있으려는 나무로, 세상을 떠난 부모를 생각하는 슬픈 마음을 의미한다. 공자(孔子)가 길을 가는데 고어(皁魚)란 사람이 슬피 울고 있기에 까닭을 물었더니,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여도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봉양하고 싶어도 어버이는 기다려 주지 않는다.[樹欲靜而風不止 子欲養而親不待]”라고 하였다. 《韓詩外傳 卷9》

143) 군신비약: 君臣秘藥. 아주 좋은 약을 가리킨다. 군(君)은 주로 쓰는 약이고 신(臣)은 보조로 쓰는 약이다.

태경과 관아 뒤 언덕에 올라 멀리 바라보며 마음을 풀다
與泰卿登衙後岡 遐眺遣情

休暇登高望 휴가에 높이 올라 바라보니
東風到酒卮 동풍이 술잔에 닿는구나.
柳心隨暖早 버들 마음은 따뜻함 따라 이르고
花眼怯寒遲 꽃의 눈은 추위 겁내 더디구나.
遠嶂晴雲散 먼 산에 개인 구름이 흩어지고
平郊宿霧披 너른 교외에 오래된 안개 흩어지네.
較看敷品物 펼쳐진 물품들을 살펴보니
世事奈參差 세상일은 어찌 그리 들쭉날쭉한가.

**태경이 내 울적함을 풀어주고 가동(歌童)을 불러 청사에서 공연하게 하여 밤이
깊어 끝났으니 역시 한 바탕 울적함을 풀었다. 베개를 베고 소리내어 읊다**
泰卿爲余叙鬱招歌童 設遊於廳事上 夜深而罷 亦一消暢也 依枕口號

不寒不暖仲春望 춥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2월 보름
官供清貧誰見邀 관아 지금 청빈하니 누구를 대접하랴.
隨身琴鶴長自任 거문고와 학이 오래도록 내 몸을 따랐고
無價江山最偏饒 강산은 값이 없어 가장 넉넉하였네.
病容衰慘爲迂叟 병든 얼굴 쇠약하고 참담하니 오할한 노인이 되어
軟褥短屏坐寂寥 얇은 요와 작은 병풍에 적막하게 앉았네.
雖云名在朝士籍 비록 이름이 조정의 관적에 있다 해도
性與時違不復聊 성품이 세상과 어긋나 다시 어쩔 수 없네.
如何世事無可戀 세상일 어떻게 연연할 것이 없었더니
每被傍人自扶搖 매번 옆 사람 때문에 스스로 높이 올라갔네.
忽得遊場驚且喜 홀연 노니는 자리 얻어 놀랍고도 기쁘니
忘憂追樂氣舒翹 근심 잊고 기쁨 쫓아 날개를 쉬네.
短闕調和奏坊曲 짧은 노래 어우러져 교방곡을 연주하고
新聲迭蕩唱街謠 새로운 소리 질탕하게 민요를 부르네.

畫燭煒煌天月白
梅如美人放香飄
今夕歡娛若爲度
不用心來足堪橋
酒與詩句隨口發
多少盡付此中消

화려한 촛불 휘황하고 하늘에 달 밝으니
미인 같은 매화가 향기를 날리는구나.
오늘 저녁 즐거움은 한도가 있는 듯하니
마음쓰지 않아도 교만함을 감당하기 족하네.
술과 시구가 입에서 나오니
다소간 근심은 여기에 부쳐 사라졌네.

방문한 창녕 정태규와 얘기하다
話鄭昌寧泰珪來訪

荷君來問頓增光
不啻高標故意長
幸值今朝鈴索靜
等閑深得笑談香

그대 문안 덕에 갑자기 빛이 더하였으니
고상한 표상 뿐 아니라 오랜 마음 길구나.
다행히 오늘 아침 설령줄이 조용하니
한가하게 담소하는 향기가 깊구나.

복사꽃, 배꽃, 해당화 등을 이 근처에서 캐어 정당의 동쪽 뜰에 벌려 배치해
심고서 짓다
桃李海棠等採取於此近 排裁政堂之東庭 有作

東風生意到桑麻
此地本無花卉佳
苦用培栽誰得解
會教隣曲見春華

동풍이 불어와 뽕나무 삼나무에 이르니
이곳은 본래 훌륭한 화초가 없었네.
고생스레 재배한다고 누가 이해할까
이웃 고을 사람이 봄꽃을 보도록 해야지.

망한사 포도를 소오현 앞에 옮겨심고 절구 3수를 짓다
望漢寺葡萄移栽嘯傲軒前 賦三截

三間一架數莖萄
移自圓通寺裡臯
寄語禪僧莫深惜
不辭指我作貪饕

세 칸 햇대 하나 몇 줄기 포도
원통사 앞 언덕에서 옮겨왔네.
선승에게 너무 애석해 말라 말을 부치며
나더러 탐욕스럽다 해도 사양하지 않으리.

植物遷居也亦愁
眼看憔悴似逢秋
官僮日漑如無關
新蔓知應就次抽

식물을 옮겨와도 역시 근심이니
초췌한지 화려한지 살피다 가을 된 듯하구나.
관아 아이 매일 물을 주어도 상관 없는 듯
새로운 넝쿨이 차례로 싹틀 줄 알겠네.

秋來待摘草龍珠
佳釀新醅味最殊
醉臥高軒恣嘯傲
風情一倍苴翁吾

가을 와서 포도알 딸 때를 기다려
새로 술 빚으니 맛이 가장 다르구나.
소오현에 취해 누워 맘대로 소요하니
나 채옹에게 풍정이 곱절이 되었구나.

이 근처 두견화를 모두 베어가서 남은 것이 한 마디 남짓되는 떨기가 아닌 것이
없기에 동산 빈터에 배치해 심었다. 잠깐 보면 마치 없는 듯하여 반드시 눈을
두고 찾은 연후에야 보였으니, 소나무를 심어놓고 정자를 짓을 보려는 것이 아
니겠는가. 우습도다. 절구 1수를 짓다
此近杜鵑花爲樵採所盡 所得無非寸餘殘叢 因排植園中空曠處 乍看
若無 必着眼看然後見之 無乃植松看亭耶 可呵也 得一截

欲採杜鵑栽後園
居人不識杜鵑存
刈取年年樵牧盡
四求輸得只殘根

두견화를 캐어 후원에 심었으나
사는 이들은 두견화가 있는 줄 모르네.
해마다 초동 목동이 다 베어가니
사방으로 구해 겨우 남은 뿌리 얻어왔네.

교리 홍사필이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다
洪校理思弼來訪叙話

老懷寥寂際難開	늙은 마음 적적하여 펴기 어렵기에
小吏傳呼學士來	아전에게 전하여 학사를 오라 불렀네.
久抱聲華荊願在	오랫동안 명성있어 먼식 있길 바랐는데
照人風彩淨無埃	사람 풍채 살며보니 깨끗하여 먼지가 없네.

수문장 유치로가 만나러 온 것이 기뻐
喜柳守門將致魯來見

君自武陵來	그대가 무릉에서 와서
借問近如何	근래 어떠한지 물었네.
依然長在目	의연히 눈에 선한데
世事空蹉跎	세상일에 공연히 비틀거렸네.
辛勤今幾載	고생하며 애쓴 지 지금 몇년인가
賦歸甕算多	귀거래사 읊다가 웅산 ¹⁴⁴ 이 많았네.
興言還自愧	말을 하면 도리어 스스로 부끄러우니
須知爲有魔	마가 낀 때문일 줄 알겠네.
自宜相慰問	내가 위문해야 하는데
今朝喜君過	오늘 아침 그대가 오니 기쁘구나.
心貺曾念我	진심어린 선물은 나를 염려했던 것이니
固知此偏頗	이것이 매우 특별했던 것임을 알고 있네.
老夫無足觀	늙은이는 볼 게 없으니
胡云舊時麼	옛날 일 무엇을 말하랴.
塵緣何日了	세속 인연 언제 끝나려나
浮生屬刈那	뜯 인생은 잘나에 속한다네.

144) 웅산 : 甕算. 향아리를 계산한다는 뜻으로 일을 그르침을 가리킨다. 향아리를 가진 가난한 사람이 그 향아리를 밀천으로 재물을 물릴 계산을 하다가 기뻐 춤추던 끝에 향아리를 밟다 깨뜨렸다고 한다. 《事文類聚 前集 卷36》

뜰가의 잡목을 다 뿌리 뽑아 잘라내고
백양과 오동의 종자를 가져다 심고 시를 짓다
庭除雜木并拔根斫伐 白楊及梧桐取種 賦詩

斤斧陳荒貴拔尤	목은 풀 베어내는 것은 뛰어난 것을 뽑는 것이 귀해서니
樗根不是棟樑謀	쓸모없는 나무 뿌리는 동량의 재목이 아니네.
執柯不遠丁丁響	자루 잡고 벌목하는 소리 멀지 않으리니
道可由兮友可求	길은 갈만하고 벗은 구할만 하네.

신이화를 심어 측간을 가리고 짓다
栽辛夷遮廁 有作

木筆叢栽集瑣零	목필화 ¹⁴⁵ 떨기 자질구레한 것을 모아 심어서
等閑排置障東庭	한가할 때 배치하여 동쪽 뜰을 가렸네.
纖長枝幹隨方便	가늘고 긴 가지와 줄기 편한 대로 따르니
繫得橫縱作翠屏	가로세로 번성하여 푸른 병풍 만드네.

서울 가는 유태경을 전송하다
送柳泰卿之京

此去長程越涉多	이번에 가는 길 여정 넘고 건널 곳이 많으니
羈窓孤寄奈愁何	객창에 외로움 부칠 때 근심을 어찌랴.
春風得意爲君賀	춘풍이 득의양양 그대를 축하하니
次第看過淑氣和	차차로 맑은 기운 온화함을 보리라.

145) 목필화 : 木筆. 신이(辛夷)의 이칭. 막 피어날 때 모양이 붓과 같아 붙여진 명칭이다.

정당의 계단과 동산 뜰의 섬돌이 모두 무너져 내려 함께 보수하고 물로 쓸어
청소하고 짓다

政堂曾階及園庭砌 舉皆頽圯 并修築汎掃 有作

庭院無人顧	정원을 돌보는 사람이 없어
佳花惜就荒	아름다운 꽃이 아쉽게도 황폐하였네.
葺修完圯砌	무너진 섬돌 모아 완전하게 하고
整理築頽墻	정리하여 무너진 담장 쌓았네.
叢雜蕪穢掃	풀숲 섞인 먼지를 씻어내니
羣芳錦繡張	꽃들이 비단수처럼 펼쳐지네.
前過凡幾許	전에도 몇 번쯤 지나갔으니
看作閑商量	한가로이 지낼 것 헤아릴만 하구나.

산다화를 심은 곳의 땅끝이 기울어져 꽃이 핀 것을 보니 거꾸로 걸린 듯 하여
보기가 좋지 않아 축대를 쌓아 평평히 하고 축대 앞에 작약, 야합수, 흰초, 국화
등을 심고 짓다

山茶花所種地界傾側 見其花開若倒懸 所見可惡 築臺平之 臺前種植
芍藥夜合萱草菊花等 爲題

山茶二朶果佳哉	산다화 두 송이 과연 아름답도다
地界傾阬補土臺	땅 끝 기울어진 곳 토대로 보충했네.
臺下排鋪羣卉譜	축대 아래 화초 족보를 배치하니
花神不識幾時來	꽃의 신이 언제 올지 모르겠구나.

꽃샘추위
春寒

餘寒料峭苦相侵	남은 추위 매섭게 파고들어 힘드니
天氣非常半是陰	기후가 이상하여 반은 그늘이 졌네.

紅翠尙遲生草木
暄和漸覺入園林
沈沈徒積登臨恨
寂寂空淹玩償心
人在異鄉春信晚
從何鄒律得如今

붉고 푸름은 더디게 초목에 생겨나고
따뜻함은 동산 숲에 드는 것을 점점 느끼겠네.
침침하게 동산에 오르지 못하는 한만 쌓이고
적적하게 공연히 완상하려는 마음 덮었네.
사람은 타향에 있고 봄소식은 늦으니
어디에서 지금 같은 추율¹⁴⁶⁾을 얻을까.

후원에 올라 회포를 풀다
登後園 遣懷

小園淨灑出塵寰
春到化工生意關
不設墻垣天廣大
多栽桃李地寬閑
望連江浦烟雲外
坐襯竹叢圖畫間
更有青山如好友
長看不改舊時顏

작은 동산 깨끗하여 속세를 벗어나고
봄이 되자 조물주가 생기를 불어넣네.
담장을 설치하지 않으니 하늘이 광대하고
복사꽃 배꽃 많이 심으니 땅이 넓어 한가해라.
멀리 뵈는 강과 나무가 구름 밖으로 이어지고
가까이 앉은 데 대나무 떨기는 그림 속 같네.
더욱이 청산이 좋은 벗처럼 있어
오래 봐도 옛 얼굴을 고치지 않는구나.

시동 최정성이 몇 종의 이름난 화초를 캐온 적이 여러 번이라 기뻐서 짓다
侍童崔正星採得幾種名卉 以來者屢矣 因喜賦

名卉窮搜見始終
機心妙意一奇童
無非爲汝誠勤到
次第培栽數十叢

이름난 풀 모두 찾아 처음과 끝을 보았으니
교묘한 마음과 뜻이 기이한 동자일세.
네가 진실로 부지런히 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차례로 수십 떨기를 북돋아 키우리라.

146) 추율 : 鄒律. 추연(鄒衍)의 율(律)이라는 뜻으로, 날씨가 따뜻해짐을 가리킨다. 추율이 연(燕)나라 소왕(昭王)의 초빙으로 북방인 연 나라에 가 있을 때, 추연이 율을 불자 따스한 기후가 되어 기장을 심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列子 湯問》

극아가 작년 겨울 학도를 시험하여 졸업시키는 일 때문에 2급을 진급하고 상을 받았다고 하였다. 나는 연이어 공금 때문에 이처럼 곤욕을 치르나 극아는 승급하고 봉록이 늘었으니 하나를 잃고 하나를 얻었다 할 만하니 역시 기쁘기에 기쁨을 기록하여 짓다

克兒以昨年冬期試驗學徒卒業事 進級陞二級俸賞証云 余則連以公錢受困如此 而渠能陞級增俸 可謂一失一得 亦可喜悅也 志喜有作

七旬未解大夫官	칠순에 대부의 관직 벗어나지 못하여
常恐虛糜學祿干	자리만 차지해 녹봉 구하길 배운건가 항상 걱정하였네.
晟世不曾遺寸善	태평성세에 작은 선함도 빠뜨리지 않았으니
新梯容汝進朝端	새로운 은혜가 너를 품어 조정 끝에 올렸구나.

남이 버린 가죽나무 뿌리를 내가 가져다 키워 목침 십여 개를 만들었으니 저마다 물건의 형체가 있어 시를 한 수 짓다
樗根人棄 我取裁成木枕十餘箇 各有物形 賦得一詩

樗根採把作經綸	가죽나무 뿌리 캐다가 경영하여
枕樣葫蘆斲看頻	베개는 호리병 모양 깎은 걸 자주 보았네.
始信王公無棄物	비로소 왕공은 버리는 물건 없단 말 ¹⁴⁷⁾ 믿게 되고
方知李子有爲身	바야흐로 이자의 몸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 ¹⁴⁸⁾ 알겠구나.
號因工就遊仙巧	호칭으로 인하여 신선이 노니는 공교함을 이루고
邪辟奇成蹲豹玃	부정을 물리쳐 웅크린 표범의 진기함을 이루었네.
不似曲肱窮道相	팔 굽혀 베고 도를 궁리하는 모습과 같지 않으니
依憑效力老偏親	기대는 효력은 노인에게 유독 가깝게 있네.

147) 왕공은 버리는 물건 없단 말 : 《노자(老子)》에 “성인(聖人)은 항상 사람을 잘 구제하기 때문에 버려지는 사람이 없게 하고, 항상 사물을 잘 구제하기 때문에 버려지는 사물이 없게 한다.[聖人常善救人 故無棄人 常善利物 故無棄物]”고 하였다.

148) 이자의 몸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 : 《도덕경(道德經)》에 “우리에게 큰 환란이 있는 까닭은 우리에게 몸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에게 몸이 없어질 수만 있다면, 무슨 환란을 받을 까닭이 있겠는가.[吾所以有大患者 爲吾有身 及吾無身 吾有何患]”라고 하였다. 이자(李子)는 성은 이(李), 이름은 담(聃)인 노자를 가리킨다.

산다화의 꽃봉오리를 기뻐하다
喜山茶花蓓蕾

絳房暎日亂枝交	붉은 방 해가 비쳐 어지럽게 가지 교차하니
春化敷榮點點苞	봄이 영화로움을 펴서 점점이 봉오리가 생겼네.
芳質粧成知有意	꽃다운 피부에 한 화장 뜻이 있음을 알겠으니
誰憐兒女寶珠嘲	아녀자의 구슬 장식 비웃음당하는 것 누가 가련히 여기랴.

박희룡이 우미인 종자 다섯 개를 가져왔으므로 뜰가에 나누어 심고 짓다
朴喜龍持來虞美人種子五箇 故分植庭除 有作

花有名稱虞美人	꽃에는 우미인이라는 이름이 있어
不施粉粧飾難眞	분단장하지 않으면 꾸미기가 진정 어렵네.
故教播近宜男草	일부러 의남초를 가까이 심었으니
非效竊香韓壽噉	향기 훔친 한수 ¹⁴⁹⁾ 를 흉내낸 것은 아닐세.

뜰가에 신이화가 비로소 피어 기뻐서 절구 한 수를 짓다
庭除辛夷花始開 喜賦一截

纖枝濡露惹含風	가는 가지 이슬 젖고 바람을 머금어
不待羣芳自化工	많은 풀들 기다리지 않아도 저절로 피었구나.
天遣花神奇樣得	하늘이 화신을 보내 기이한 문양 얻었으니
勢如抽筆欲書空	붓을 뽑아 허공에 글을 쓰려는 듯한 기세일세.

149) 향기 훔친 한수 : 한수(韓壽)는 진(晉)나라 때 미남으로, 가충(賈充)의 딸 가오(賈午)가 그를 좋아하여 몰래 사통(私通)하였다. 무제(武帝)가 가충에게 내린 향을 가오가 이것을 훔쳐서 한수에게 주었는데, 그 향이 한수의 몸에 배어 있어 가충에게 그 사실을 알고 가오를 한수에게 시집보냈다. 《世說新語 惑溺》

관아의 동산에 며칠 전 심은 두견화가 작아서 겨우 명색만 있었으나 오히려 꽃이 풍성하게 피어 지면에 깔렸으니 조물주가 사물을 살려주는 묘함이 신령스럽고도 빠르도다. 장난삼아 짓다
 官園日前所種杜鵑短小僅存名色者 而尙能開花丰丰然附着地面 化工生物之妙神且速矣 戲題

細枝短短不離根 가는 가지 짧디짧아 뿌리에서 떠나지 않으나
 愛護偏多土主恩 애호함이 유독 많았던 것은 고을 수령 은혜라네.
 猶有春工沾雨露 봄이 공교하여 비와 이슬에 젖더니
 花開鋪地點苔痕 꽃이 피어 땅에 깔려 이끼 자취 점점이 있네.

소오현 뜰에 자단목 한 그루를 심으니 가지와 줄기가 아래로 늘어져 매우 울창하게 보여 지지목 두 개로 높이 솟게 하였다. 이에 나무 아래 땅과 뜰 앞 안계가 청정한 도랑으로 변하여 시를 짓다
 嘯傲軒庭 植一樹紫檀 枝幹垂垂向下 所見甚鬱 得二株木支 使軒舉 於是樹底地及庭前眼界 便成清淨道場 賦得

幹柔葉重倒垂垂 줄기의 부드러운 잎이 무거워 거꾸로 늘어지니
 慨爾無人愛護持 애호하여 지지해줄 사람 없는 것이 애석하구나.
 物返性天人拓地 사물은 천성으로 돌아가나 사람은 땅을 개척하니
 兩宜只在一撐支 양쪽이 마땅함은 하나의 버팀목에 달려있네.

이날 뜰가를 순시하니 산다화가 해를 향한 곳이 모두 꽃봉오리를 맺었고 어떤 것은 먼저 피어 있었다. 이로부터 차례로 끊이지 않고 꽃을 볼 수 있으리니 기뻐할 만하기에 시를 짓다
 是日巡視庭除 則山茶花向陽處 皆蓓蕾成房 而或有先發者 從此可以次第看花續續不斷 可喜也 有作

栽花本爲見花奇 꽃을 심은 것은 본래 기이한 꽃을 보기 위해서이니
 花未開時苦用思 꽃이 피지 않았을 때 힘들게 마음을 쓰네.

灌溉穉根期有受
 鋤除凡卉到無遺
 蓓蕾初從今日始
 慙慙如解主人遲
 長教老我遊香國
 隨意蜂狂又蝶痴

어린 뿌리 물 줄 때도 받은 때가 있고
 모든 풀 김을 매어 남김이 없도록 하네.
 꽃봉오리가 처음으로 오늘 시작되니
 정성스럽게 주인이 늦은 것을 이해한 듯,
 늙은 내가 향기로운 고을에서 길이 노닐게 하니
 마음대로 벌은 미친 듯 나비는 멍한 듯해라.

변도이가 어제 성환의 본택에 가서 흰초 수십 뿌리와 월계수 한 그루를 얻어서 오니 뜻이 매우 가상하다. 소호현 뜰가에 심고 시를 짓다
 卞道義昨往成歡渠之本第 得萱草數十本及月桂一樹而來 意甚嘉尙種于嘯傲軒庭除 有作

憶曾南郡四時花
 愛戀心頭足自誇
 能解趨承探廣採
 誠動如爾意專嘉

남쪽 고을 사계절 꽃을 생각하면
 사랑하고 그리운 마음에 스스로 자랑하기에 충분했네.
 쫓아가 받들어서 널리 찾아 캐오니
 너처럼 성실히 움직이는 뜻 가상하다.

구기자 한 수를 읊다
 吟得枸杞一頁

藥性編方益氣眞
 佐味香茅腹滿春
 老去身輕知分外
 從今留佇犬相因

약의 성질 처방으로 엮여 진기를 더하니
 맛을 돕는 향기로운 풀로 배에 봄이 가득찼네.
 늙을수록 가벼운 몸은 분수 밖임을 아니
 이제부터 배회하여 개가 서로 따르리.

취석을 이미 남쪽 담장 향나무 아래 안치하였으나 동쪽 뜰 향나무 아래에는 괴롭게도 어울리는 물건이 없어 널리 구하다가 객사 앞에 널찍한 바위 하나를 얻어 나무 아래로 가져가 축대를 쌓아 안치하였더니 그 품성과 운치가 취석과 서로 겨룰만하였으나 부족한 것이 이름이었기에 마음대로 쓰다
 醉石既安置於南牆香樹下 而東庭香樹下則苦無相稱之物 廣求得客舍前一面盤石 就樹下築臺而安之 其品其韻可與醉石相甲乙 而所乏者名耳 縱筆

陳跡名高醉石張 오랜 자취 이름 높은 취석이 펼쳐졌고
 今來待得此方床 지금까지 기다렸다가 이 모난 상을 얻었네.
 月夕花朝無不可 달 뜬 저녁 꽃핀 아침 없을 수가 없으니
 最宜長夏納清涼 긴 여름 시원함 즐기기에 가장 적당하다네.

관아 후원에 축대를 쌓고 일을 읊다
 衙後園築臺 賦事

太守之居昔何陷 태수의 거처가 예전에 얼마나 패였었던가
 太守之居今何高 태수의 거처가 지금은 얼마나 높아졌는가.
 太守之居昔何儉 태수의 거처가 예전에 얼마나 검소했던가
 太守之居今何豪 태수의 거처가 지금 얼마나 호화로운가.
 山如奮迅踴躍出 산은 빠르게 펼쳐 튀어나오는 듯하고
 花似頃刻裁剪刀 꽃은 경각에 칼로 오려내 만드는 듯하네.
 堂賓喜笑吏人賀 손님들 기뻐 웃고 아전은 축하하고
 用凡成仙費暫勞 평범한 것을 선경 만드느라 잠시 애를 썼네.
 淘沙得金琢石玉 모래 일어 금을 얻고 돌을 쪼아 옥 만드니
 此語舉世徒能讀 이 말을 온 세상이 읽을 수 있게 되었구나.
 奇在眼前人不知 기이함이 눈앞에 있어도 사람들은 모르니
 觀物之妙迷當局 사물 보는 묘함을 그 자리 있는 사람은 모르네.
 我有胸中一片崑 내 가슴 속에 한 조각 우뚝함이 있어서
 未築臺時已見臺 축대 쌓기 전에 이미 대를 보았네.

牆外旅行纔露髻
 草間孤芳鬱未胎
 功成只在一轉移
 伐之營之乃得之
 登斯一望衆美具
 種種堪憐面面奇
 朝朝欲拄山陰笏
 夜夜宜傾李園卮
 雖然不無於心感
 顯晦遭逢也有時
 洛陽盛衰候名園
 請君莫作視空言
 今年竹樓暫爲主
 回笑鴻瓜印雪痕

담밖에 지나가는 사람들 겨우 상투만 보이는 것¹⁵⁰ 같고
 풀이 무성해 외로운 꽃은 싹 틔우지 못하네.
 성공은 오직 한 번 옮겨 심는데 있으니
 벌채하고 경영하여 얻어냈다네.
 여기에 올라 한 번 바라보면 모든 아름다움이 갖춰져
 가지가지 어여쁘고 면면마다 기이하구나.
 아침마다 산음의 홀을 떠받치고 싶고
 밤마다 도리원의 술잔을 기울어야 마땅하리.
 비록 그렇더라도 마음의 느낌이 없을 수 없으니
 드러나든 숨든 만나는 것은 때가 있다네.
 낙양의 성쇠를 이름난 동산을 살피 아니¹⁵¹
 그대는 쓸데 없는 말로 보지 말기 바라오.
 올해 죽루에서 잠시 주인이 되니
 눈 녹은 진창에 찍힌 기러기 발자국¹⁵²을 돌아보며 웃노라.

隙地新垆境轉幽
 爲寬暢叙自營謀
 役丁修築無多畢
 獻畝添來得許侷
 單父彈琴名已在
 彭城戲馬跡空留

틈난 땅 새로 대를 만드니 경지가 그윽해져
 스스로 경영할 계획 넉넉히 펼치네.
 일꾼이 보수하는 일 많이 끝낸 것은 없으나
 산굴이 보태져서 가지런히 보이네.
 선보에서 거문고 탄 사람¹⁵³ 이름 이미 남았고
 팽성의 희마대¹⁵⁴는 흔적이 부질없이 남았구나.

150) 상투만 보이는 것 : 산이 잇달아 솟은 모양을 가리킨다. 소식(蘇軾)의 (능허대기(凌虛臺記))에 “산이 나무숲 위로 나온 것을 보건대 잇달아 불쑥불쑥하여 마치 사람들이 담 밖을 줄지어 지나가는데 그 상투만 보이는 것과 같았다.[見山之出於林木之上者 彙彙然如人之旅行於牆外而見其髻也]”라고 하였다.

151) 낙양의 성쇠를 이름난 동산을 살피 아니 : 이경비(李榕非)의 <서낙양명원기후(書洛陽名園記後)>에 “천하의 치란을 낙양의 성쇠를 살펴서 알고, 낙양의 성쇠를 원유의 흥폐를 살펴서 안다[且天下之治亂 候於洛陽之盛衰而知 洛陽之盛衰 候於園圃之興廢而得]”라고 하였다.

152) 눈 녹은 진창에 찍힌 기러기 발자국 : 설니홍조(雪泥鴻爪). 흔적없이 사라져 다시 볼 수 없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153) 선보에서 거문고 탄 사람 : 공자의 제자 복자전(宓子賤)이 선보(單父)라는 고을을 다스릴 때 거문고를 타면서 마루 아래에 내려온 일이 없었으나 잘 다스려졌다고 한다. 《呂氏春秋 卷21 察賢》

154) 희마대 : 서초패왕(西楚霸王) 항우가 팽성(彭城)을 도읍으로 삼았는데, 남쪽의 남산 위에 송대(崇臺)를 세우고 희마(戲馬), 즉 말을 타고 유희를 하는 군사훈련을 구경하던 곳이다.

那人莫道嫌園小
烟景從茲足唱酬

고을 사람들은 동산이 작아 싫다고 말하지 말라
안개 낀 경치가 이로부터 창수하기에 족하리.

분지에 연꽃을 심다
盆池種蓮

栽得陶甌勝小池
任看方便好相隨
從前恨少同予者
趣味來今復有誰

질그릇에 심으니 작은 연못보다 나아
보는 대로 편하게 따르게 하네.
전부터 나와 같은 자가 적은 것이 한스러웠으니
취미 같은 이가 지금 다시 누가 있으랴.

뜰가 자단향목의 꽃이 바람에 구름처럼 안개처럼 펄펄 부슬부슬 날리고 향기는
또 방에 두루 끼쳐 진실로 꽃 가운데 기이하기에 읊다
庭除紫檀香木花從風亂飛 如雲如霞霏霏濛濛 香又徧室 眞花中之奇
也 有吟

細葉經冬不改蒼
枝頭瑣碎結花芳
惹因風打烟雲起
玉粉翻成滿室香

가는 잎이 겨울 겪어도 푸름이 바뀌지 않고
가지끝이 잘게 부서져 꽃봉오리 맺었네.
바람이 불어오니 안개 구름 일어나
옥가루가 날리고 방에 향기 가득하구나.

십의대에 올라 한가하게 입으로 읊어 마음을 풀다
登十宜臺 閑散口號遣情

他鄉節物劇蹉跎
此日登臨立土阿
杏怯番寒心未吐
柳嫌傷別眼空多

타향의 계절 풍경 매우 달라서
이날은 올라가 흠 언덕에 섰노라.
살구는 추위 겁내 꽃술을 내보이지 않고
버들은 슬픈 이별 싫어서 버들은 공연히 많네.

那堪想到瞻松檜
不忍看過長蓼菼
春色雖云和暢好
無端欲盡我頭皤

어찌 감히 선영을 찾아뵈 생각하랴만
차마 오래 육아¹⁵⁵를 간과하지 못하겠네.
봄빛이 화창하여 좋다고 말하여도
괜시리 내 머리 다 쇠려고 하네.

통인 박희룡은 나이가 지금 16세이다. 사람됨이 영리하고 재주와 성품이 가르
칠만 하나 일찍 통인에 들어 배울 기회가 없었으니 애석하다. 그리고 내가 여기
에 부임한 이래 지극히 성실하고 근면하여 오래되어도 첫날 같았다. 근래 내가
화벽이 있는 것을 보고 반드시 다방면으로 여기에 없으나 다른 데 있는 것을 구
하여, 복숭아, 살구, 매화, 오얏, 무궁화, 감나무, 홍백 작약, 홍두(紅苳), 황규
(黃葵), 길경(苦蕒), 야합, 우미인, 의남초 등을 얻는대로 가지고 와 뜰가에 배
치하여 심었다. 또 이날 오얏나무 셋과 복숭아나무 여섯과 수십 본의 화엽초를
가지고 왔으니 그 정성스러운 마음이 해이하지 않고 더욱 근면함이 이와 같아
더욱 기특하고 사랑스러웠다. 그를 위해 시 한 수를 쓰다

通引朴喜龍年今十六歲 爲人 穎悟 才性可教 而早入通引 未得受學
爲可惜 且自余莅茲 他極誠勤愈久如一日 近日見余有花癖 必多方求
此無彼有者 如桃杏梅李檳柿紅白芍藥紅苳黃葵苦蕒夜合虞美人宜男
草等 隨得持來 排種於庭除 又於是日 三李六桃數十本花葉草得來 其
誠意之不懈益勤如是 尤可奇愛也 爲之題一詩

愛金吾若愛花同
早年不羨陶朱公
悲秋非是爲畏老
滿眼芳菲漸看空
初頭出幸得桃源

금을 좋아하듯 나는 꽃을 좋아하니
어릴 때부터 도주공¹⁵⁶이 부럽지 않았네.
가을이 슬픈 것은 늙은 것이 두렵기 때문이 아니라
눈 가득했던 꽃과 풀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되기 때문일세.
처음에 수령으로 나와 도원을 얻었으니¹⁵⁷

155) 육아: 蓼莪. 부모의 무한한 은혜를 가리킨다. 《시경》〈소아(小雅)〉의 편명으로, “썩이 무성히 자란다 하였더니, 썩이 아니라 흰 썩이
있네. 가련하신 우리 부모, 나를 낳아 키우시느라 수고하셨네. [蓼蓼者莪 匪我伊蒿 哀哀父母 生我劬勞.]”라고 하였다.

156) 도주공: 陶朱公. 부자를 가리킨다. 춘추시대 월(越)나라 대부 범려(范蠡)가 구천(句踐)을 도와 오왕(吳王) 부차(夫差)를 죽여서 회
계(會稽)의 치욕을 씻은 뒤, 일업편주로 강호(江湖)를 떠돌아다니다가, 뒤에 도(陶) 땅에 들어가서는 주공(朱公)으로 이름을 고치고 수만
금을 모아 거부(巨富)가 되었다고 한다.

157) 오형목이 54세에 처음 군수로 부임했던 정선군의 옛이름이 도원(桃源)이었다.

郡名已好未到前
 巴陵園裡千條桂
 金馬池中萬朵蓮
 白白紅紅四搜索
 無花不入吾手植
 頗憎僮輩鼻太强
 口燥唇焦然後得
 有或云無無則已
 人少如心每歎息
 彭城地狹官亦閑
 縱欲捨花無他關
 來時不帶諸種子
 創猝其奈求之艱
 有一侍童喜龍云
 生得敏悟兼誠動
 初非苦使知吾意
 課日得來皆芳芬
 其多足以編花譜
 所可言也言之紛
 可愛非全在於茲
 觀人必自幼少時
 若無靈窮通悟處
 那能先意承順之
 苟非謹懿根天者
 亦何如印一板爲
 曾多閱人老白首
 可兒可兒初見兒
 所欠童年業知印
 奉公無暇經史覈
 從今欲使在傍讀
 我雖云老堪汝師

고을 이름이 도착 전부터 이미 좋았네.
 파릉원 안의 천 그루 계수나무
 금마지 가운데 만송이 연꽃
 흰 꽃 붉은 꽃 사방으로 찾아서
 들어오지 못한 꽃 없이 내가 손수 심었네.
 시동들 너무 코가 높은 것이 매우 미워
 입이 마르고 입술이 타들어야 얻을 수 있네.
 있어도 없다고 없으면 그만이고
 마음 같은 사람 적어 매번 탄식하였네.
 팽성은 땅이 좁고 관아 역시 한가하여
 꽃을 버리고 싶어도 다른 할 것이 없네.
 올 때 못 가져온 종자들을
 창졸간에 어찌 그리 구하기 어려운지,
 희룡이라 하는 시동이 하나 있어
 민첩함과 성실함은 함께 타고났네.
 처음에 괴롭게 내 뜻을 알게 한 게 아닌데
 날마다 얻어오니 모두 향기로웠네.
 많아서 꽃의 족보 만들어도 될 정도
 할 만한 말 하면 말이 분분해지네.
 사랑스러운 이유가 온전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니
 사람은 반드시 어릴 때부터 관찰해야 하네.
 만약 신령이 다 통해 깨달은 점이 없다면
 어찌 먼저 뜻을 알아 받아 따르리.
 만일 삼가고 홀륭함이 천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
 역시 어찌 한 판으로 찍은 듯 하겠는가.
 사람을 많이 겪으며 늙어 흰머리 되었으나
 괜찮다 괜찮다 하는 아이라도 처음 보는 아이라네.
 부족한 건 어려서부터 통인을 업을 삼아
 공무 받드느라 경사를 엿볼 겨를이 없었네.
 지금부터 옆에 두고 독서를 하게 하면
 내가 비록 늙어서도 네 스승을 감당하리.

자단향화 시를 짓다【서문을 아울러 쓰다】
 紫檀香花賦詩【并引】

정당 앞에 네 그루 향나무가 있어 높고 크며 오래되고 푸르나 나이를 모른다. 봄날이 시작되어 천기가 조금 화창해지자 나무 끝에 하나하나 꽃받침을 만드니 모양이 송화 같았다. 늦은 봄이 되자 꽃이 늙어 부스러져 바람에 마치 작은 티끌처럼 나부끼고 향기 안개가 정당에 퍼져 가득차니 역시 일종의 운치였기에, 붓을 마음대로 하여 짓다

五柳館前四樹香
 種之不記幾星霜
 排分初意聊隨適
 一在堦東三面牆
 遠訝檜松近側栢
 護持官閣對脩長
 枝似腕垂交卷曲
 葉如毛傑鬱蔥蒼
 喜得藍田日哦趣
 扶藜時復故徊徨
 又有一奇君識否
 丹茸箇箇吐新芳
 春谷烟消芝結露
 秋園雨過竹呈琅
 初看我亦難名狀
 認以敷榮卉木常
 朝來頗怪窓噉
 童子開門拭眼眶
 楊花欲擬憎多質

오류관 앞 네 그루의 향나무
 심고서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겠네.
 배분한 처음 뜻은 그냥 적당하게 둔 것이라
 하나는 계단 동쪽에 세 개는 담을 마주하였네.
 멀리 노송나무 소나무 맞이하고 가까이 잣나무 곁에 있어
 관아 전각 보호하며 마주하여 길게 뻗었네.
 가지는 해가 드리운듯 서로 말려 구비치고
 잎은 털이 솟은 듯 울창하게 푸르구나.
 남전을 얻어 날마다 의취를 읊는 것이¹⁵⁸⁾ 기쁘고
 명아주 지팡이 짚고 때로 다시 배회를 하네.
 또 기이한 일 한 가지를 그대는 아는가
 붉은 무더기에서 하나하나 새 봉오리를 토하네.
 봄 계속 안개 사라지자 지초에 이슬이 맺혔고
 가을 동산 비가 지나자 대나무가 옥을 바치네.
 처음 볼 때 나 역시 형상을 이름짓기 어려웠으니
 초목이 항상 꽃을 활짝 피우는 것 알게 되었네.
 아침부터 창에 햇빛 어두워 매우 괴이하기에
 동자가 문을 열고는 눈을 비볐네.
 버들꽃 많은 꽃잎이 미워지려 하고

158) 읊는 것이 : 한유(韓愈)의 《남전현승청벽기(藍田縣丞廳壁記)》에 나오는 말로, 최사립이 소나무 사이에서 시를 읊조리면서 '묻는 사람이 있으면 공사가 있으니 가라'고 했다고 한다 《韓昌黎文集 卷13 雜著 藍田縣丞廳壁記》

籜粉雖織詎解揚
 非烟似霧來何自
 高者彌空下滿堂
 試摩以指生輕軟
 氣且微吹通鼻樑
 噫嘻此可知之矣
 看取風從樹上颺
 應嫌香屑無聲色
 散作粉霏鬧一場
 漲合籠來嵐翠滴
 舖宜潤去簟紋涼
 堪惜居人不解愛
 惟憂塵暗汚衣裳
 使我留爲竹樓客
 明年和飲秣醪觴
 聚散無常那可卜
 姑先賦此備奚囊

대껍질 가루 비록 작아도 어찌 날릴 수 있나.
 연기 아닌 안개 같은 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높은 것은 허공에 퍼지고 아래로는 당에 가득하네.
 손가락으로 문질러보니 가볍고 부드러운 것이 생겨서
 작아서 불면 콧속까지 통하네.
 아! 이유를 알만하구나
 바람 불어 나무 위로부터 날리는 것을 보았네.
 향부스러기 소리 색깔 없는 것 싫어하리니
 흩어져 가루로 펄펄 날려 한바탕 요란스럽네.
 넘쳐나게 바꾸니 담아오면 푸름이 똑똑 떨어져
 펼쳐서 윤을 내면 대자리 무늬 시원케 하기 좋구나.
 사는 이가 사랑할 줄 모르는 것이 애석하니
 먼지로 어두워 옷을 더럽힐까 걱정 뿐일세.
 내가 머물러 죽루의 손님이 되게 하니
 내년에는 기장술과 함께 마시리.
 모이고 흩어지는 것 무상하니 어찌 정하라
 우선 먼저 이 시를 지어 시주머니 채우리.

변도의가 꽃을 읊은 시에 차운하다
 次卞道義詠花韻

滿庭芳樹白間紅
 或恐行逢雨與風
 能使卞生詩句妙
 依然畫出春功中
 此地稀看妖艷紅
 培栽花卉坐春風
 神功有脚敷榮在
 賴把吾州入化中

뜰 가득 꽃다운 나무가 하얀 가운데 붉으니
 다니다가 비와 바람 맞았을까 걱정일세.
 변생의 시구를 묘하게 만들었으니
 의연하게 그림에서 나와 봄풍경 가운데 있구나.
 이 땅에는 요염한 붉은 꽃 보기 드무니
 화훼를 재배하여 봄바람 맞으며 앉았네.
 신령한 공효 가는 곳마다 번성함을 펼치니
 우리 고을 힘입어 변화 가운데 들어갔네.

박희룡이 붕어를 많이 잡아왔기에 질소래기의 물에 넣어 청사 위에 놓고
 물고기 구경하는 지취를 부쳐 시를 읊다
 朴喜龍鮪魚多得以來入於陶所羅水置廳事上寓觀魚之趣吟得

傍人獵得一釜魚
 恰好成行幼族居
 莫道濠梁非我樂
 箇中生意相忘如

옆 사람이 통발 가득 물고기를 잡으니
 가지고 다니며 어린 것들 함께 살게 하기에 딱 좋구나.
 저수지가 내 즐거움이 아니라 말하지 말라
 개중에는 살려는 뜻을 잊은 듯도 하여라.

교행총서
 郊行總叙

仰無登陟苦
 俯無渡涉難
 一日環一郡
 歷歷入眼看
 出自河入門
 節屨趨朝嗽
 零星刀筆里
 桃杏花始繁
 井上主人誰
 芙蓉冒綠池
 一武雙槐下
 古出鱗之而
 苑彼校後松
 曾經洪氏植
 行行就陰休
 遐眺窮四極
 襟帶橫原威
 屏帳擁牙稷

우러러 올라가는 고생이 없고
 굽어보아 건너는 어려움이 없구나.
 하루에 한 고을을 도니
 역력하게 눈에 들어와 뵈네.
 강에서 나와 문으로 들어가니
 지팡이 신 신고 아침해가 뜰 때였네.
 엉성한 도필리에
 복사꽃 살구꽃이 번성하기 시작했네.
 우물가 주인은 누구인가
 연꽃이 푸른 못을 덮었네.
 한 걸음쯤 되는 한 쌍의 왜나무 아래
 옛날에 비늘과 수염이 나왔네.
 울창한 저 향교 뒤 소나무는
 예전 홍씨가 심은 것이라네.
 가고가다 그늘에서 쉬니
 멀리 사방으로 끝까지 조망하네.
 띠처럼 둘러 수원과 진위 가로지르고
 휘장처럼 늘어져 아산과 직산을 안았네.

疆形三百里 경계의 형태 삼백 리가
 盡在吾目中 내 눈안에 다 들어오네.
 欲識吾州界 우리 고장 경계를 알고자 하니
 一浦限西東 나루 하나가 서쪽과 동쪽 끝까지일세.
 有村不相遠 마을이 서로 멀지 않아
 烟火匝成隣 연기와 불이 둘러 이웃 이루네.
 八無花居一 팔무¹⁵⁹에 꽃이 하나를 차지해
 尋芳不盈癖 화초 찾아도 수집벽을 채울 수 없네.
 所喜荒餘麥 기쁜 것은 흉년 끝의 보리이니
 芄芄滿阡陌 풍성하게 밭두렁에 가득하구나.

관아 뜰 앞에 각종 채소를 파종하고 읊다
 衙庭前播種各菜種 有吟

衙圃耕翻種土宜 관아 채마밭 갈아 엮고 토종 작물 심으니
 類分區別合當時 종류 나누어 구분하고 때를 맞추었네.
 方池鯽鮒田蔬菜 네모난 못에 붕어 있고 밭에는 채소 있으니
 清操常思吳隱之 맑은 지조에 항상 오은지¹⁶⁰를 생각하네.

후원에 올라 마음을 풀다
 登後園 遣懷

土壘牆前臺院幽 흙성채 담 앞에 관아 건물 그윽하여
 公餘日涉自傲遊 공무의 틈에는 일섭원을 마음대로 노니네.

159) 팔무: 八無. 평택은 본래 여덟 가지가 없다고 하는데, “돌이 없고, 흙이 없고, 산다운 산이 없고, 물고기가 없다”고 한다. 오형묵의 글을 통해 여기에 시장, 꽃, 산을 거론하였다.

160) 오은지: 진(晉)나라의 청백리 오은지(吳隱之). 중국 광주(廣州)에 한 번 마시면 돈만을 알게 된다는 탐천(貪泉)이란 샘이 있었는데, 이곳의 자사(刺史)로 온 오은지가 지은 <탐천(貪泉)> 시에 “옛사람이 말하기를 이 물은 한 번 마시면 천금만을 생각한다네. 백이(伯夷) 숙제(叔齊)에게 마시게 해본다면 끝내 그 마음 바꾸지 않으리(古人云此水一飲懷千金 試使夷齊飲 終當不易心)”라는 구절이 나온다.

春功駘蕩宣明媚 봄의 공은 태탕하여 밝고 고음을 펼치고
 人力精治就葺修 사람 힘은 정치하여 이영을 엮고 고치네.
 入座青山如好友 자리에 드니 청산이 좋은 벗 같고
 穿橋長浦泛虛舟 다리 뚫고 지나는 긴 나루에 빈 배가 떠있네.
 孤羈情緒誰能識 외로운 나그네 심정 누가 알아주랴
 出谷鶯聲新得儔 > 골짜기 나온 피꼬리 소리는 새로 짝을 얻은 걸세.

통방 북창 밖에 아궁이와 굴뚝이 모두 좁아서 불을 땠 때마다 연기가 감당하기 어려웠으므로 섬돌을 고쳐 쌓고 아궁이와 굴뚝 모두 편익에 맞게 바꾸게 하니 사람들이 모두 상쾌하다고 칭찬하기에 짓다
 通房北窗外 火口與烟桶俱皆逼窄 每點火烟熏難堪 故改築砌石 火口烟桶并令變宜 人皆稱快 有吟

憶昨風雷閣裡居 지난해엔 바람과 번개 치는 전각 안에서 지내다가
 新樓見輒爽襟裾 새 누각에서 보니 문득 옷가지가 상쾌하네.
 此來烟火從方便 > 이제부터 연기가 편리하게 빠지리니
 到處經綸若待余 > 가는 곳마다 경영할 일이 나를 기다리는 듯하구나.

정원을 산보하며 마음대로 쓰다
 散步庭園 縱筆

先生柳綠拂長堤 먼저 난 버들 푸르러 긴 방죽을 스치고
 景媚韶華物已齊 고운 경치 아름다운 계절 풍경 이미 가지런하구나.
 鶯囀偏憐緣喚友 > 지저귀는 피꼬리 유독 가련하니 친구를 부르기 때문이요
 鶯忙堪笑爲含泥 > 바쁜 제비 우스워라 진흙을 물었기 때문일세.
 詩肩酒引推如聳 > 시인 어깨 술을 드니 밀어서 높이 세운듯
 花檻風來壓欲低 > 꽃 핀 난간 바람 부니 눌러서 내려 가려는 듯,
 如許江山佳麗處 > 이렇게 강산의 아름다운 곳을
 苦無隨意與提携 > 괴롭게도 마음대로 함께 다니지 못하는구나.

시동들이 꽃병을 많이 만들어서 청사에 배치하고 어항을 그 가운데 두었다.
 박계순이 작은 배를 만들어 띄우니 운치를 볼 만하기에 시 한 수를 쓰다
 侍僮輩多作瓶花 排置於廳上 以養魚器置諸其間 朴啓淳造小艇泛之
 韻致可觀 題得一詩

點檢韶華多少
 花開滿地芳馨
 愛賞最宜心眼
 護持方便膽餅
 和韻沾囊几案
 淑氣淨洗窓櫺
 老境堪羞變態
 神功自衛忘形
 蓓蕾何殊遠近
 風雨可憎飄零
 透沁臙脂明火
 互錯經緯燦星
 貯水清漪翻白
 藜枝嫩葉交青
 魚蹴浮來落莢
 風惹泛去虛舲
 蝶使媒戀常看
 蜂衙令號頻聽
 自爲括香蒙帳
 便作描畫鋪屏
 成趣不勞日涉
 寓懷無妨時丁

아름다운 계절 풍경 얼마인지 점검하니
 꽃이 땅에 활짝 피어 향기롭구나.
 아끼고 감상하는 데는 심안이 가장 마땅하니
 보호하여 지니는 데 담병¹⁶¹이 편리하네.
 은화한 운치가 궤안에 젖어들고
 맑은 기운이 격자창을 깨끗이 씻네.
 늘그막에 부끄러움 감수하여 태도를 바꾸니
 신령한 공효가 스스로 보호해 자신을 잊었노라.
 꽃봉오리가 어찌 거리 따라 다르랴
 비바람에 날려 떨어지는 것이 밍구나.
 연지가 배어들어 밝은 불 같고
 가로세로 교차하여 빛나는 별 같네.
 저수지 맑은 물결 희게 번뜩이고
 잔풀 가지 어린 잎이 푸름이 교차하네.
 물고기가 뛰어올라 떨어진 꽃잎 떠다니고
 바람 일어 빈 배를 떠다니게 하네.
 나비 사신 중매 그리워 항상 보고
 벌 관아는 호령을 자주 듣네.
 스스로 향을 묶고 휘장을 덮어
 그림으로 묘사해 병풍을 바르네.
 의취 이루느라 수로롭지 않게 날을 보내니
 마음을 부치는 데 시절은 상관없네.

161) 담병 : 膽餅. 목은 길고 배가 불룩한 꽃병.

人間萬事惣覽
 莫如花下醉醒

인간 만사 살펴보면
 꽃 아래 취하고 깨는 것만한 것이 없네.

근래 가는 곳마다 꽃동산이 아닌 곳이 없으니 소요하며 읊어 오로지 청한복
 을 누렸고 뿌리에 물을 주면 열매를 먹게된다는 말이 진실로 나를 속이지 않음
 을 깨달아 기뻐할 만하였기에 읊시 한 수를 짓다
 近日無往非衆香城 逍遙吟弄 專享清福 漑根食實之語 眞覺不我誣矣
 可喜也 賦得一律

珊珊玉珮其來遲
 拈抵番風卅四吹
 何遜梅花君不見
 河陽桃李我常思
 漸看蓓蕾如相續
 始信芳菲政有期
 何苦淵明偏愛菊
 一年纔得重陽時

찰랑찰랑 패옥 소리 오는 것이 더디니
 번풍이 스물네 번¹⁶² 불어왔다네.
 하손¹⁶³의 매화를 그대는 보지 못했는가
 하양의 도리¹⁶⁴를 나는 항상 생각하네.
 점점 꽃봉오리를 보니 이어지는 듯하여
 화초에는 기약이 있다는 걸 비로소 믿네.
 국화만 편애한 도연명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일년에 겨우 중앙절에만 보았으니.

홍교리가 만나러 왔기에 함께 후원의 대에 올라 운을 잡아 시를 짓다
 洪校理來見伴登後園臺 拈韻賦詩

當窓綠竹暎相聯
 坐領春風入酒筵

창에는 푸른 대가 서로 이어 비치며
 앉아서 봄바람 끌고 술자리로 들어가네.

162) 번풍이 스물네 번 : 이십사번풍(二十四番風). 꽃피는 계절에 불어오는 바람. 소한부터 곡우까지 120일간 5일마다 한 번씩 꽃바람이 불어 총 24번이 된다고 한다.

163) 하손 : 何遜. 남조(南朝) 양(梁)나라 사람. 양주(揚州)에 부임했을 때 관청 뜰에 매화 한 그루가 있어서 매일같이 그 나무 아래서 시를 읊곤 하였다.

164) 하양의 도리 : 진나라 반약(潘岳)이 하양 현령(河陽縣令)이 되어 경내에 복숭아나무와 오얏나무를 심었는데, 사람들이 '하양일현화(河陽一縣花)'라고 일컬었다. 《白氏六帖 縣令》

鶯歌鶯語今三月
柳眼花容又一年
可憐少壯難重得
無奈塵緣易變遷
客亦不來春已暮
香山何處欲參禪

피꼬리 노래하고 제비 말하는 지금 삼월에
버들눈 꽃 모습은 또 일년이 되었구나.
가련하다, 젊은 시절 다시 얻기 어려우니
속세 인연 쉽게 변하는 걸 어쩔 수 없구나.
손님 역시 오지 않고 봄이 이미 저무니
향산 어디쯤에 참선이라도 하려는가.

홀로 앉아 무료하기에 백향산 춘산운에 차운하여 회포를 풀다
獨坐無聊 次白香山春山韻 遣懷

鄙吝一消任折旋
老翁於此活機圓
農商隸業山無盜
絃誦遺風室有賢
修廡酬資懲後引
賞花休暇俸餘損
誰將分與春工化
白日清閑坐若仙

비린함을 일소하고 마음대로 춤을 추니
늙은이가 여기에 살 기틀이 원활하네.
농업 상업 배우니 산에는 도적이 없고
글 읽는 풍토 남아 방에는 어진이가 있네.
관아 건물 보수할 자분을 뉘우친 후 끌어오고
꽃 구경할 휴가는 봉록 남은 것 털어냈네.
누가 봄의 조화를 함께 나누랴
대낮에 한가하게 신선처럼 앉았노라.

근효곡에서 돌아온 후 짓다【서문을 아울러 쓰다】
勤孝谷還後賦得【并引】

오늘 근효곡에 갔을 적에 다정하여 감동할 만했을 뿐 아니라 눈 닿는 데마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나도 모르게 흠모하게 되었다. 겸해서 연뿌리를 준 은혜는 갈수록 마음 속에
새기게 되었기에 말 한 마디를 엮어 뜻을 기록하다

杖履稱心趣午暉
出門款接見眞機
纔經結子杏花瘦

지팡이 짚고 나서고 싶은 마음이 한낮에 들어
문 나서니 정성스러운 대접에 진기를 보았네.
겨우 열매 맺고 살구꽃은 말라가고

方吐成胚梨葉肥
賢弟金剛詩敵少
阿兄藥圃病痊幾
荷君高致眞多謝
全把蓮池許採歸

막 배태한 배나무 잎은 살지는구나.
어진 아우 금강산 시 대적할 이 적고
우리 형 약재밭에 나은 병이 얼마던가.
그대의 고상한 운치에 진실로 매우 감사하니
연지를 온전히 캐서 가길 허락했네.

상서 조동면¹⁶⁵ 만시 3수
趙尙書東冕挽三疊

四瑚八璉廟堂姿
帷幄風期英妙時
萬里亨衢猶未半
明時留佇老蒼龜

사호팔련¹⁶⁶과 같은 조정에서의 자태
임금과 국정을 논의한 것이 젊은 때였네.
만 리 벼슬길을 미처 반도 못왔는데
밝은 시대 늙은 시귀¹⁶⁷를 남겨두게 되었구나.

辰年孰謂在今茲
一臥東山奄跨箕
胡忍芳春春二月
蓉城埋却九莖枝

진년¹⁶⁸이 지금이라고 누가 말했던가?
한 사람 동산에 누워 기미성¹⁶⁹을 타고 갔네.
어찌 꽃다운 봄 이월을 견디랴
부용성에 구경¹⁷⁰의 가지를 묻었으니.

165) 상서 조동면: 조동면(趙東冕, 1867-1904). 본관은 풍양(豐壤). 1883년 교관으로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예문관 검열·성균관 대사성·홍문관 부제학·이조참판·형조판서·공조판서·이조판서 등을 역임하였다. 1902년 궁내부 특진관을 거쳐 의정부 찬정 등을 역임하고, 칙임관 1등이 주어졌다. 시호는 문헌(文憲)이다.

166) 사호팔련: 四瑚八璉. 고대 제사에서 곡식을 담은 그릇으로 쓰던 귀중한 제기로, 주로 훌륭한 인재를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167) 시귀: 蒼龜. 점을 칠 때 쓰는 시초(蓍草)와 거북껍질. 국가에서 믿고서 의지할 수 있는 원로를 비유하는 말로 쓰인다.

168) 진년: 辰年. 진년(辰年)이나 사년(巳年)에 현인군자가 죽는다는 말이 있다. 후한 때 정현(鄭玄)이 꿈에 공자(孔子)가 나타나 이르기를 “빨리 일어나라. 금년은 옹해이고 내년은 뱀해이니라.” 하였는데, 잠을 깨어 그 말을 비결로 맞춰 보고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았으며 그해 6월에 죽었다고 한다. 《後漢書 卷35 鄭玄列傳》

169) 기미성: 箕尾星. 미는 기성(箕星)과 미성(尾星)의 사이로, 부열(傅說)의 별자리가 있는 곳이다. 부열은 은(殷)나라 고종(高宗) 때의 재상인데, 전설에 의하면 부열이 죽은 뒤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었다 한다. 《莊子 大宗師》

170) 구경: 九莖. 지초(芝草)를 말한다. 《한서(漢書)》 권8 〈선제기(宣帝紀)〉에 “금지(金芝) 아홉 줄기가 함덕전(函德殿) 동지(銅池) 속에서 자랐다.”라고 하였다.

御李登門世襲因 어리등문¹⁷¹⁾을 대대로 세습해오니
 通家歡憾倍餘人 온집안 슬픔과 기쁨이 남보다 곱절은 더했네.
 援今緬昔知何痛 이제야 옛날 생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겠으니
 白首天涯淚一巾 흰머리로 하늘 끝에서 온 수건을 눈물로 적시네.

홀로 정당에 앉아 생각하는 바를 지어 시 한 수에 회포를 부치다
獨坐政堂有所思 賦寓懷一詩

此中趣味斷無他 이 가운데 취미는 다른 것이 아니니
 日涉園臺寓興多 일석원 누대에 부치는 흥이 많네.
 清漪靜觀游鱗鯉 맑은 물에 헤엄치는 작은 물고기 고요히 구경하고
 淤泥憑託種蓮荷 진흙에 연꽃 심어 맡기노라.
 蝶憐戲逐穿深樹 나비 어여삐 희롱하며 쫓아 깊은 나무 통과하고
 鷺許雙來認故窠 제비는 쌍으로 와서 옛 둥지를 알아보네.
 回憶藍田松下老 남전의 소나무 아래¹⁷²⁾ 노인을 돌이켜 추억하니
 何如今日費吟哦 오늘을 읊는 데 써버린들 어찌리.

통인 무리를 이끌고 지팡이에 의지해 교외 들판으로 나가 조망하고
그 자리에서 읊다
率通引輩扶杖作郊原之行眺望 因卽事賦得

麗日携筇第一番 고운 햇살에 지팡이 짚은 제일번¹⁷³⁾
 多情草色遍郊原 다정한 풀빛이 교외 들판에 깔렸네.

171) 어리등문 : 御李登門. 후한(後漢) 이응(李膺)의 풍도를 사모한 사대부들이 그의 집건을 받기만 해도 용문(龍門)에 올랐다면 기뻐했다고 한다. 순상(荀爽)이 그를 위해 수레를 물고는 집에 돌아와서 “오늘 내가 비로소 이 선생님의 수레를 몰 수 있었다.[今日乃得御李君矣]”라고 자랑했던 고사가 전한다. 《後漢書 卷97 黨錮列傳 李膺》

172) 남전의 소나무 아래 : 한유(韓愈)의 《남전현승정벽기(藍田縣丞廳壁記)》에 나오는 말로, 최사림이 소나무 사이에서 시를 읊조리면서 묻는 사람이 있으면 ‘공사가 있으니 가라’고 했다고 한다. 《韓昌黎文集 卷13 雜著 藍田縣丞廳壁記》

173) 제일번 : 第一番. 꽃피는 계절에 불어오는 바람이 모두 스물네번으로 이십사번풍이라 부르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 바람이 부는 시기를 가리킨다.

烟濃柳岸流鶯囀 아지랑이 짙은 버들 언덕에 피꼬리 지저귀고
 風過麥畦伏雉翻 바람 지나는 보리 밭두둑에 숨은 꿩이 날아오르네.
 水澗還疑浮世界 물이 광활해 세상을 띄울까 의심스럽고
 春融正似醉乾坤 봄이 녹아들어 천지를 취하게 할 듯하네.
 更看午饑耕牛歇 점심 들밥 먹느라 밭 갈던 소 쉬는 것을 다시 보니
 知是村村農事繁 마을마다 농사일이 번잡함 알겠구나.

석성이 온 것을 기뻐하며
喜石醒來

磬音却喜遠途寧 발자국 소리에 먼 길 평안한 것이 기쁘니
 一種閑愁喚得醒 일종의 관한 시름을 불러 일으키는구나.
 無彼此兮頭併白 피차 없이 머리 모두 허영게 되었고
 所由來者眼終青 찾아온 이 끝내 반가운 눈 하고 있네.
 花期不負壺觴醉 꽃 기약 저버리지 않고 술에 취해
 心會自生談笑馨 마음 맞아 절로 담소에 향기가 생겨나네.
 日夕相看從此又 아침 저녁 보는 일이 이로부터 또 있으리니
 披胸可敵起風靈 마음을 씻어 바람 천둥에 대적할만하구나.

비가 종일 주룩주룩 내려 운을 잡아 번민을 퍼다
雨事終日淋淋 拈韻遣悶

軒鈴不動雨鈴喧 동헌의 방울 움직이지 않고 빗방울은 시끄러우니
 搖盪詩愁惱旅魂 시 짓는 시름 요동치고 나그네 정신 번민스럽네.
 叵耐梅堂無個事 매당에 아무일 없는 것이 견디기 어려우니
 案頭文篆綠生痕 서안머리 문서에 푸르게 흔적이 생기네.

태경이 서울에서 온 것이 기뻐 짓다
泰卿自京來喜賦

眼看春欲盡	눈으로 보니 봄은 이미 다하려 하고
孤客思悠哉	외로운 나그네 그리움은 아득하네.
公事松哦去	공사는 소나무 읊느라 ¹⁷⁴⁾ 보내고
家音柳帶來	집안 소식은 버들가지 띠고 왔네.
又爲經夏計	또 여름 계획 경영하지만
曾乏濟民才	백성 구제할 재주가 부족했구나.
所喜淵明郡	도연명 고을에서 기쁜 것은
重挑醉石回	거듭 돋우어서 취석이 돌아온 것일세.

십의대에서 봄잔치를 하다[서문을 함께 쓰다]
十宜臺餞春[并引]

십의대(十宜臺)가 새로 완성되자 풍경이 밝고 고우며 가지가지 사랑스러워 한 번 올라 마음을 풀고 싶었으나 괴롭게도 함께 할 사람이 없었다. 아전 무리들이 공사하던 날 함께 수고한 것을 생각하니 그들의 생각 역시 나와 같았다. 이날 약간의 동전을 십의대에 올라 봄잔치할 자금으로 주고, 이어서 그 일을 읊어 늙은이가 이번에 흥이 적지 않다는 뜻을 보일 따름이다.

有臺有臺十宜臺	대가 있으니 십의대라
突然新起芙蓉隈	돌연 새로이 부용산 곁이에 일어났네.
被以軟綠之細草	연녹색 가는 풀들로 입혔고
繞以扶疎之老槐	우거진 늙은 해나무로 감쌌네.
昨日陳荒蕪棘地	어제 황무지에 가시나무 모였던 땅인데
今日見者思畚鍤	이제는 보는 이가 술잔 들 생각이 나네.

174) 소나무 읊느라 : 한유(韓愈)의 〈남전현승청벽기(藍田縣丞廳壁記)〉에 나오는 말로, 최사립이 소나무 사이에서 시를 읊조리면서 문은 사람이 있으면 공사가 있으니 가라고 했다고 한다 《韓昌黎文集 卷13 雜著 藍田縣丞廳壁記》

趨庭鴈鶩賀新成
三月晦日天又晴
而我一生樂與衆
那無賜暇各盡情
一樽登臨作眞率
酣歌竟日飾昇平

뜰에 종종걸음치는 기러기 오리가 완성된 것을 축하하고
삼월 그믐에 하늘 또 개었구나.
내 평생 즐거움은 대중과 함께이니
어찌 휴가 주어 각기 정을 다하게 하지 않으랴.
한 통 술 들고 올라와 진솔하게 하니
노래 즐기며 하루종일 태평세월을 장식했네.

망한사에서 노닐다
遊望漢寺

客來寂寞想幽尋
對話禪僧趣更深
壁題未證紗籠句
庵繕無煩海借金
爐火噴烟生細篆
牆條經雨補疎林
玄通圓悟休塵劫
潭水澄清照鏡心

오는 손님 적막하여 그윽한 곳 찾고 싶은데
대화 나눈 선승이 지취 더욱 깊구나.
벽에 쓴 글은 사롱구¹⁷⁵⁾를 증명하지 못하였고
암자를 수선하니 바다가 금을 빌려주기 번거롭지 않네.
화롯불 연기 토하니 가는 전자가 생겨나고
담장 가지 비가 지나자 성긴 숲을 돕는구나.
현통한 깨달음이 진겁을 쉬게 하니
담수는 맑아서 거울 같은 마음을 비추네.

향반(香磐)이라는 이름을 내리고 그 일을 읊다[서문을 함께 쓰다]
錫名香磐 賦其事[并引]

담장을 면한 향나무 아래 이미 취석이 있었으나 동쪽 향나무 아래에는 비견할 만한 것이 없어 흠이 될만하였다. 바위 하나를 구하여 짝을 맞추고 싶었으나 진실로 이 고을에서 얻기 어려운 물건이었다. 다행히 객사 앞에서 반석 하나를 캐어내었으니 이것은 예전에 다듬었던 것이나 지금은 쓰이지 않는 것이었다. 품질이 밝고 깨끗하고 모양이 단정하고

175) 사롱구 : 紗籠句. 비단에 싸 놓은 시구(詩句). 명사의 시문을 의미한다.

네모나 돌을 좋아하는 사람의 운치에 맞았다. 즉시 들어다가 동쪽 향나무 아래 두도록 하고 지지하여 안치하였다. 석성과 좋은 이름을 내려주고자 의논하여 말하기를, “취석의 뜻은 고을 이름인 팽성에서 취한 것이기 때문에 도연명의 고사¹⁷⁶⁾를 인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전 사람의 진술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향반이라 부를 만하니 도연명은 자기가 취한 것을 취하였고 나는 내가 향기를 맡는 것을 취하였으며 도연명은 바위를 취하였고 나는 내 반석을 취한 것입니다. 이는 많은 것을 구하거나 구차히 알아지려 하는 것 양쪽 다 혐의나 막힘이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향나무 아래 바위를 두었으니 향기를 버리고 바위에만 편중되어서야 되겠습니까?”라고 하자, 석성이 말하기를, “매우 잘 들어 맞는 제목입니다.”라고 하였다. 그 일을 읊어 기록하다.

樹老而靈石應語
我有新詩爲說與
曰昔未之相遇也
一東一西誰知汝
孤立庭前空老大
埋在土中人不舉
有若兩個神告余
翻然心欲適興居
先就南壇安醉石
此是前人己用餘
慳秘待今雖不偶
勒銘慕古自專譽
而我亦欲張吾軍
況有一樹高入雲
所乏者石從何得
使之四求求之勤

나무 늙고 신령하여 바위가 응당 말하리니
내게 있는 새로운 시로 설명을 하리.
말하건대, 예전에 미처 만나지 못하였으니
하나는 동쪽 하나는 서쪽 누가 너를 알았으랴.
뜰 앞에 홀로 서서 공연히 늙고 커졌으나
땅에 묻혀 있어 사람들이 꺼내지 않았네.
두 개를 신이 내게 알려준 듯 하니
번연히 마음은 거소 일으키는 데 적절히 하고 싶었네.
먼저 남단에 나아가 취석을 안치하니
이것은 이전 사람이 이미 사용한 것일세.
아끼고 숨기며 지금까지 기다려 짝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이름 새겨 옛일 사모하여 절로 명예를 오롯이 하네.
나 역시 우리 군을 자랑하고자¹⁷⁷⁾ 하니
더욱이 한 그루 나무가 높이 구름에 들어갔는 데랴.
부족한 것은 바위니 어디에서 얻나
사방으로 구하게 하여 열심히 구하였네.

176) 도연명의 고사: 도연명이 취하면 누웠던 바위가 여산에 있는데 파인 흔적이 있다고 한다. 이를 “연명취석(淵明醉石)”이라고 한다.
177) 우리 군을 자랑하고자: 글을 짓고 써서 자기 쪽의 성세(聲勢)를 떨친다는 의미로 쓰였다. 한유(韓愈)의 <취증장비서(醉贈張秘書)>에 “아매는 글자를 모르지만 팔분서를 제법 잘 쓴다. 시가 이루어져 그에게 쓰게 하니, 나의 군대를 자랑할 만하여라.[阿買不識字 頗知書 八分 詩成使之寫 亦足張吾軍]”라는 구절이 나온다.

忽於青青柳色裡
雲根一片蹶然起
全體削平開顏面
元氣堅凝作骨髓
奉之如壁檀底移
是樹是石兩相宜
仰看還勝松陰好
登坐不羨巖臺奇
天形對耦一朝成
主翁喜眉青山橫
石醒老人時適至
與共題品談一杯
有樹不可無此石
有石不可無其名
樹是香檀石是磐
名言在茲合而觀
館於竹裡稱竹館
壇在松下曰松壇
香可嗅兮磐可坐
蒞老於此審易安

홀연히 푸르고 푸른 버드나무 색 안에
구름 뿌리 한 조각이 기울 듯이 일어났네.
전체를 평평히 깎아 안면을 열고
원기가 단단히 영겨 골수를 이루었네.
벽처럼 받들어 단향목 아래로 옮기니
나무에 바위에 양쪽 서로 마땅하구나.
우러러 보니 소나무 그늘보다 더 좋고
올라 앉으니 기이한 바위 높은 대가 부럽지 않네.
하늘이 만들어준 짝을 하루 아침에 이루니
주인 늙은이 기쁜 눈썹이 청산에 가로 걸렸네.
석성노인이 때마침 이르러
함께 품평하며 한바탕 얘기했네.
나무가 있으니 이 바위가 없을 수 없고
바위가 있으니 맞는 이름이 없을 수 없네.
나무는 단향목이고 바위는 반석이니
이름을 여기에서 합하여 보겠네.
대나무 안에 있는 관사는 죽관이라 칭하고
소나무 아래 있는 단은 송단이라 하였네.
향기는 맡을 만하고 반석은 앉을 만하니
채원 노인 이번에 편안하기 쉽겠네.

난초 역시 이 고장에서는 얻기 어려운 물건이나 마침 다행히 몇 포기 얻어와서 향반의 좌우에 나누어 심었으니 향나무와 향반이 이제 이웃이 없다고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채원이라 불리는 이 역시 그 사이에서 향기로운 풀을 접할 수 있게 되었기에 기뻐서 시 한 수를 짓다
蘭亦此郡難得之物 而適幸有數叢得來 分栽香磐左右 香樹也香磐也 今可謂不孤隣 而蒞號人 亦可以接芳於其間也歟 喜題一詩

第一名香九畹蘭 제일 이름난 향은 구원의 난초¹⁷⁸⁾이니
 香檀樹下又香磐 단향목 아래 또 향반이 있구나.
 人之蒞亦香之族 사람 가운데 채인¹⁷⁹⁾ 역시 향초의 일족¹⁸⁰⁾이니
 願入三香作四看 삼향에 들어가 사계절 보고 싶네.

통인 박희룡 최정성의 재주가 가르칠만하나 읽은 것이 전혀 없어 안타까울 만하였다. 그러므로 책을 끼고 오게 하여 희룡은 소미사(少微史)¹⁸¹⁾ 제3권, 정성은 제1권을 석성에게 부탁하여 매일 과제를 주도록 하였다. 이것은 석성에게도 일종의 소일거리가 되고 두 동자에게 있어서도 그래도 낫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로서는 베개에 기대 독서하는 소리를 듣는 것이 기쁠 만하다. 시를 지어 보이다

通引朴喜龍崔正星才可教 而讀全無爲可惜 故使之挾冊而來 喜龍少微史第三卷 正星第一卷 屬石醒課日授之 此於石醒 亦一消遣法 而在二童 亦可曰賢乎已也 以余則倚枕而聽讀書聲 是可喜也 作韻示之

吾消閑寂爾開明 나는 한적함을 풀고 너는 개명을 하니
 餘力何妨一事成 남은 힘이 어찌 하나의 일을 이루는 데 방해가 되랴.
 莫曰郡無城下誦 고을 성 아래 읊는 소리 없다 말하지 마오
 官房今出讀書聲 관아 방에서 오늘부터 독서 소리 나오리라.

178) 구원의 난초 : 초(楚)나라의 굴원(屈原)의 《이소(離騷)》에 “내가 이미 구원의 땅에 난초를 심고, 다시 백 묘의 땅에 헤초를 심었노라.[余既滋蘭之九畹兮 又樹蕙之百畝]”라는 구절이 나온다. 원(畹)은 토지 면적의 단위이다.

179) 채인 : 蒞人. 오횡목의 호로, 자신을 가리킨다.

180) 향초의 일족 : 호에 나오는 “채” 역시 향초의 일종이라 이른 말이다. 굴원(屈原)의 《이소(離騷)》에 “임금님이 나를 내치면서 헤초 띠를 주시고 또 향초인 채초(菝草)를 가려 뽑아 거둬 주셨네[既替余以蕙纕兮 又申之以攬茝]”라고 하였다.

181) 소미사(少微史) : 소미가 지은 역사서. 《통감절요(通鑑節要)》를 가리킨다. 소미(少微)는 저자 강지(江贄)의 호이다.

182) 그래도 낫다고 할 수 있을 것 : 《논어(論語)》 양화(陽貨)에 “배부르게 먹고는 하루가 다 지나도록 마음을 쓰는 곳이 하나도 없다면 곤란한 일이다. 장기나 바둑이라도 둘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을 것이다.[飽食終日無所用心 難矣哉 不有博奕者乎 爲之猶賢乎已]”라고 하였다.

석성과 함께 취석 위에서 대작하며 짓다 與石醒對酌於醉石上賦得

臘梅去已遠 겨울 매화 가버린지 이미 오래
 欲飲意不適 술 마시려 하여도 마음이 맞지 않았네.
 石醒久不見 석성을 오래 만나지 못하여
 欲吟手無敵 읊으려도 대적할 솜씨가 없었네.
 昨日石醒來 어제 석성이 왔더니
 今日玉梅開 오늘은 옥같은 매화가 피었구나.
 有朋兼有花 벗이 있고 곁하여 꽃이 있으니
 詩酒合一回 시와 술이 한 차례 합하게 되었네.
 矧彼檀底石 하물며 저 단향목 아래 바위가
 傳自淵明昔 도연명의 옛날부터 전해온다네.
 氣味追千載 분위기는 천년 전을 따르고
 風流長一格 풍류는 한 단계 좋아졌다네.
 自有沽酒錢 술 살 돈이 있으니
 何待秋秫田 어찌 가을 기장밭을 기다리랴.
 不須高百尺 수 백 척 높을 필요가 없으니
 元龍浪得名 원룡¹⁸³⁾의 명성은 허랑하다네.
 欲以梅爲友 매화로 벗을 삼고자 하니
 無妨石作兄 바위로 형을 삼아도 무방하리라.
 請君酬我酌 그대는 내 잔을 받으오
 一一 是風情 하나하나가 풍정이라네.

183) 원룡 : 元龍. 삼국시대 위(魏)나라 진등(陳登)의 자이다. 유비가 진등을 옹호하면서 “만약 소인 대접을 했더라면 자기는 백척루(百尺樓) 위에 올라가 놓고 당신은 멍바닥에 눕도록 했을 것이다. 어찌 위아래 침상의 차이만 두었겠는가.”라고 대답한 고사가 있다. 《三國志 卷7 魏書 陳登傳》

석성에게 함께 십의대에 올라 간단히 마시자고 요청하고 읊다
要石醒共上十宜臺小酌有吟

官居無事自堪憐 強要登臺一爽然 花藥殿紅春似昨 風絲曳白晝如年 地經新築觀遊勝 座有良朋樂意圓 遣興消閑皆實事 床頭肯惜酒沽錢	관아 거처 무사하여 스스로 가련함을 견디니 십의대 올라 바람 씨자 억지로 요구했네. 꽃술은 붉음 펼치니 봄이 어제인 듯하고 미풍이 희게 끌리니 한낮이 한 해 같구나. 땅에 새로 건축하니 구경놀이 나아졌고 자리에 좋은 벗 있으니 즐거운 뜻 원만하네. 흥을 풀고 한가함 보내는 일이 모두 실제이니 상머리에 술 살 돈이 애석할만하네.
--	--

욕불일(浴佛日 초파일)에 분지의 연꽃 싹이 두 개 수면으로 나왔다. 이 날 이 꽃이라니 더욱 기이할 만하다. 관청으로부터 느릅나무 떡과 찢 검은 콩을 바쳤고 또 박희룡의 집에서 갑피병(甲彼餅)과 청포탕, 청주 한 병을 보내왔다. 석성과 대작하며 함께 짓다

浴佛日 盆池蓮芽二箇現出水面 是日是花尤可奇也 自官廳榆葉餅黑太蒸供來 又自朴喜龍家甲彼餅青泡湯清酒一壺際至 與石醒對酌 共賦

記取今朝浴佛身 翁心政欲酒無巡 穉蓮太巧穿池出 蒸苳如期帶榼臻 能使兩人仍大嚼 方知八日是良辰 邇來酬節頻難得 寒食清明一夢春	오늘 아침 부처의 몸을 씻은 것을 기념하여 늙은이 마음은 무수히 술을 돌리고 싶었네. 어린 연꽃 아주 기특하여 못을 뚫고 나왔고 찢 콩은 기약대로 찬합 담겨 왔다네. 두 사람이 실컷 먹을 수 있으리니 팔일이 좋은 때라는 것을 알게 되었구나. 근래 명절 쇠는 일을 자주 얻기 어려우니 한식과 청명이 일장춘몽이라네.
--	---

석성과 향반에 앉아 술을 명하고 흥을 풀며 함께 읊다
與石醒坐香磐命酒遣興共吟

香臺香果到香磐 詩可爲料酒可安 爾饋用餘初八日 吾遊生際大三韓 浮榮莫道居官好 實事無如抵老歡 一架葡萄誰贈我 至今心謝佛門寬	향기로운 누대 향기로운 열매가 향반에 도착하니 시에 재료가 될 만하고 술에 안주가 될 만하네. 그대를 대접하기에 넉넉한 초파일 내 놀이 평생에 삼한을 다하였네. 뜬 구름 같은 영화 관직이 좋다 말하지 마오 실제로는 늙을 때까지 즐거운 일만한 것이 없대오. 한 시렁 포도는 누가 나에게 준 것인가 지금까지 부처 문이 관대한 것에 마음으로 감사하네.
--	--

취석을 지탱하는 받침이 없어서 낮아 두 개의 돌을 구해 지지하니 높이가 삼 척이 되었다. 석성과 대작하며 기뻐서 쓰다
醉石撐座欠低 求得二箇石支之 高可三尺 與石醒對酌 喜題一則

大可擎天柱 小亦支月機 奈此彭城郡 石貴不但稀 自得醉石來 愛之欲其高 試搜合撐者 僮使空費勞 創卒土爲臺 平低不盈跨 風動草交侵 雨落泥倒打 有心不可轉 謀及廢廢砌	크면 하늘의 기둥을 떠받칠만 하고 낮아도 달의 베틀을 고일 만하네. 이 팽성 고을을 어찌라 돌이 귀해 드물 뿐만이 아닐세. 저절로 취석이 와서 사랑하여 높이고 싶었네. 합쳐서 지탱할 것 찾아보았으나 아이중 공연히 애만 썼다네. 창졸간에 흙으로 대를 만들었건만 낮아서 사타구니 넘지 않았네. 바람 불면 풀이 서로 침범하고 비 오면 진흙이 튀어올랐네. 마음 있어도 옮길 수가 없으니 버려진 관아 섬돌로 피가 미쳤네.
--	---

拔致雙筍根
 童童豎兩際
 舉之置其上
 高三可許尺
 離地四停均
 看看翁意適
 發縱雖自我
 作事惟汝勤
 有勞那無賞
 聊以酒賜欣
 老夫興不淺
 招邀石醒登
 勸君須盡醉
 風流聳一層

두 개의 뿌리를 뽑아내서
 우뚝하게 양 끝에 세웠네.
 들어서 그 위에 놓으니
 높이가 삼척쯤 되는구나.
 땅에 뜬 네 귀퉁이 똑 고르니
 볼수록 늙은이 마음에 드네.
 비록 내게로부터 시작되었으나
 일은 한 건 오직 너희의 근면함이네.
 공로가 있으니 어찌 상이 없으랴
 술을 내려 기쁘게 하네.
 늙은이 흥이 적지 않아서
 석성을 초청해 올랐네.
 권하니, 그대는 다 취해야 하리
 풍류가 한 층 더 올라갔으니.

**석성이 매우 노쇠한 것을 걱정하여 시 한 편을 짓다[서문을 병기하다]
 悶石醒甚衰 爲賦一篇[并引]**

《총쇄일록(叢瑣日錄)》을 지난 가을부터 지금 삼월 이후까지 비록 대략 기록해 두었더라도 석성이 도착한 후 다시 함께 한 번 교감을 하여 지금 비로소 마쳤다. 석성이 교감하고 편집하는 일에 대해 매일 하는 일에 조금도 피로한 기색이 없었던 듯한 것을 본 적이 있었다. 이번에는 하는 일이 전에 비해 조금 험하였으나 여러 가지 일에 피곤하고 번뇌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니 노쇠함을 알 만하였다. 진실로 지극히 애석하다. 그러나 몸소 이 지경을 겪지 않은 자라면 어찌 사람을 깊이 알아 또 그를 위해 애석해 할 수 있겠는가? 동병상련을 기술하여 매우 노쇠한 마음을 억제한다.

茫茫一十四年前 아득한 십사년 전

以桂亭中人日筵
 霜鐘有感云何晚
 萍絮相逢卽宿緣
 是時君年未五十
 顏如渥丹髮無鑷
 有力若可排南山
 有才如能倒三峽
 每當臨事察其眉
 只見耐久未見疲
 自從去年金馬郡
 稍稍微覺異前時
 歸心爲指回甲日
 苦語仍訴秋鷺時
 今比之來尙云健
 逝矣長程徒步爲
 舊來好事今能否
 試暫開硯日未移
 紙毛刺昏筆尖鈍
 欠伸欹側令人悶
 嗟哉惜哉石醒乎
 昔何壯也今何困
 人生眞是一劑那
 年踰六旬不老何

계정에서 있던 인일¹⁸⁴⁾의 잔치.
 상종¹⁸⁵⁾에 느껴 이리 늦은가 했었으니
 버들솜처럼 떠돌다 만난 것은 오랜 인연 때문일세.
 이때 그대 나이 오십이 되지 않아
 얼굴은 붉고 흰 머리가 없었지.
 힘이 있어 남산을 밀칠 만¹⁸⁶⁾했고
 재주 있어 삼협의 물 기울일 듯¹⁸⁷⁾ 했네.
 매번 일을 할 때는 그 눈썹을 살폈고¹⁸⁸⁾
 오래 건디는 것만 보았지 피로한 모습 못 보았네.
 작년 금마군에서부터
 조금씩 전날과 다른 것을 느꼈네.
 돌아갈 마음은 회갑일을 가리켰기 때문이니
 괴로운 말로 가을 제비 돌아갈 때라는 것을 호소했네.
 근래 와서 여전히 건강하다 말하니
 아득한 먼 길을 다만 걸어서 왔네.
 옛날 좋았던 일이 지금도 가능한가
 잠시 벼루 열어 보니 해가 아직 지지 않았네.
 종이 잔털 혼미하고 붓끝은 둔하고
 기지개 켜며 비틀거리 걱정스럽구나.
 아! 애석하다, 석성이여
 예전에 그리도 장대하였건만 지금은 그리도 피곤한 건지.
 인생은 진실로 찰나이니
 나이가 육십 넘어 어찌 늙지 않으랴.

184) 인일 : 人日. 정월 초이레. 이날 사람의 길흉을 점친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185) 상종 : 霜鐘. 《산해경(山海經)》(중산경(中山經))에 “풍산에 구종이 있는데, 이것은 서리가 내리면 울 줄 안다.[豐山有九鍾焉 是知霜鳴]”라고 하였는데, 곽박(郭璞)의 주에 “서리가 내리면 종이 울리기 때문에 ‘안다’고 말하였다.[霜降則鍾鳴 故言知也]”라고 하였다.
 186) 남산을 밀칠 만 : 제갈량의 〈양보음(梁甫吟)〉에 “힘은 남산을 밀어낼 수 있고 문장은 지리를 다할 수 있었네[力能排南山 文能絕地理]”라는 구절이 나온다. 안자(晏子)에 대해 노래한 것이다.
 187) 삼협의 물 기울일 듯 : 두보(杜甫)의 〈취가행(醉歌行)〉에 “문장의 근원은 삼협의 물을 기울인 듯하고, 필력의 전진은 천군을 쓸어낼 기세로다.[詞源倒流三峽水 筆陣獨掃千人軍]”라고 하였다.
 188) 그 눈썹을 살폈고 : 춘추시대에 진(晉)나라가 도적 때문에 고통을 겪었는데 극옹(郝雍)이란 사람이 도적의 얼굴을 보고 그 눈썹 사이를 살피서 마음까지 알아차렸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한다.

知君中晚莫如我 그대가 늙은 것이 나만 못할 것을 아니
 遇以蒼蒼到皤皤 푸르른 젊음에서 흰머리에 이르렀다네.
 由今視昔何嗟及 지금 옛날과 비교해 무엇을 한탄하리
 不如兩忘一長歌 둘이 잊고서 긴 노래 하나 부르니만 못하네.

人以前人我以吾 남은 이전 사람으로서, 나는 나로서
 乍看雖別實無殊 잠깐 보는 것이 달라도 실상은 다름이 없네.
 官居一是多公暇 관아 거쳐 한결같이 공무가 한가하고
 趣味同歸恣自娛 취미 같아 마음대로 스스로 즐긴다네.
 香磐 향반

철도공사원인 일본인 마도노 우마키치(眞殿午吉)가 만나러 와서 설백차당(雪白車簍) 한 통을 선물로 받았기에 시를 지어 감사하다
 鐵道工事組員日人眞殿午吉來見 且有雪白車簍一桶見饋 詩以謝之

衰年常苦病侵凌 노쇠한 나이에 항상 병이 심해지는 것이 괴로우니
 康濟身家愧未能 몸 건강히 집안을 잘 다스릴 수 없는 것이 부끄럽네.
 今世有人羊叔子 지금 세상에 양숙자¹⁸⁹⁾가 있어
 故將成藥餽藍丞 일부러 약을 만들어 남전현승¹⁹⁰⁾에게 주는구나.

십의대와 향반에 나란히 이름을 새겨넣고 기록하다
 十宜臺香磐并刻名志之

鐵索朱泥入石深 쇠줄과 붉은 인주 돌에 깊이 넣으니
 嘉名足備後來尋 가당한 이름은 나중에 찾아올 준비 충분하네.
 賴渠傳久非關我 그에 기대 오래 전하려는 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且喜增光卽目今 바로 지금 더 빛나는 것을 보는 게 기뻐서라네.
 十宜臺 십의대

일섭원 서사[서문을 병기하다]
 日涉園敘事[주:并引]

부임한 초기에 소오현 동쪽 뜰을 보니 지면에 붙어있는 바위가 있었다. 크기와 품질이 따라서 모두 쓸만하였으나 마음 편하게 딱히 쓸만한 곳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 사이 바위가 지나는 길이 균색한 것에 대비하여 손을 대지 않도록 하였다. 이날 대와 반석 양쪽에 이름 새기는 일이 끝났으나 날에 여유가 있었다. 그리하여 내가 손수 “일섭원(日涉園) 세 글자를 써서 그 면에 새기도록 하고 홍색을 넣어 십의대로 오르내리는 길 중간에 놓도록 하여 쉬는 데 편리하도록 하였다. 예전에 있었으나 쓰지 못한 것이 대개 이 때문이었다. 일섭이라고 동산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도처에 다 있으나 이 고을은 더욱 제목에 딱 들어맞으니 이 어찌 적게 여길 수 있으랴. 생각해 보면 괴이한 것이, 이전에 이 고을에 부임했던 이들이 고을 이름에서 도연명을 생각하여 취석, 오류관 및 제영시 같은 경우 마음을 쓰고 흥을 부친 것이 절절하게 근면하다 할 만 하나 일섭원에 이르러서는 미치지 못한 것은 어째서인가? 아니면 나를 기다렸던 것일까? 알지 못하겠다. 또 마음에 느낀 바가 있다. 이 곳은 돌이 귀하기로 이름이 나있다. 내가 근래 취하여 쓴 것들을 살펴보니 돌의 체질이 감당할 만한 것은 모두 다듬는 과정을 거쳐 이전에 쓰였고, 거칠고 딱딱해서 쓰기에 적당치 않은 것들 역시 쓰이지 않은 것들이 없었다. 오직 이 바위만이 상품이라면 다듬어서 쓰일 만하고 하품이어도 역시 쓰이지 않을 리가 없으나 버려져 그대로 있다가 오늘 내가 쓰게 된 것은 어째서인가? 불우해서인가? 알지 못하겠다. 석성이 나를 위해 해석하였다.

新闢無名一小園 새로이 이름 없는 작은 동산을 열어
 地靈爲我贈雲根 땅의 신령이 나를 위해 바위를 주었네.

189) 양숙자: 羊叔子. 진(晉)의 양호(羊祜). 숙자는 그의 자(字). 강릉(江陵)에서 오(吳)의 육항(陸抗)과 대치하였을 때 육항이 병이 들어 양호가 약을 보냈는데, 그곳 사람들이 그 약을 먹지 말라고 하자, 육항이 말하기를, “양호가 무슨 사람을 독살할 위인이라던가.” 하였다고 한다. 《晉書 卷34》

190) 남전현승: 한유(韓愈)의 <남전현 승청벽기(藍田縣丞廳壁記)>에, 최사립(崔斯立)이 남전현 승(藍田縣丞)이 되었는데, 할 일이 없어 두 그루의 소나무를 심어 놓고 그 사이에서 날마다 시를 읊었다는 내용이 보인다.

形愛天成仍用舊
刻嫌人巧只存痕
老槐動色花應促
幽竹增清葉不喧
多謝當年陶處士
錫嘉留作後來援

천연의 형태 사랑스러워 옛 모습 그대로 쓰고
사람 솜씨 싫어서 새긴 글자는 흔적만 남겼네.
늙은 해나무 반색하여 꽃을 재촉하고
그윽한 대나무 더욱 푸르러 잎이 조용하구나.
그 당시 도 처사[도연명]께 감사하니
아름다움을 내려 훗날 도움이 되도록 남겼구나.

석성 및 오위장 방대철(方大輶)과 짝해 십의대에 올라 잠깐 술을 마시다
伴石醒及方五衛將大輶登十宜臺 小酌

有酒有朋又有詩
浮生不樂更何爲
當年元亮成千古
今日蒞人擅十宜
踈竹孤松便自適
清風明月長相隨
資身官俸榮堪戀
兼得田園合老時

술 있고 벗 있고 또 시가 있으니
떠도는 인생 즐기지 않으면 더 무엇을 하리.
당시의 원령[도연명의 자]은 천고를 이루었고
오늘날 채인[오형목의 호]은 십의를 마음대로 하였네.
성긴 대나무 외딴 소나무 유유자적하고
맑은 바람 밝은 달이 길이 따르네.
봉록으로 먹고사니 영화는 그리워할만하고
겸하여 전원을 얻어 늙은 나이 맞는구나.

추팔리 도중에
秋八里途中

藍輿百折過長堤
江樹迢迢草色齊
幾片斷雲行盡處
飛鴉亂噪夕陽低

남여(藍輿)가 백번 꺾여 긴 둑을 지나노라니
강가의 나무 아득하고 풀빛 가지런하구나.
몇 조각 구름이 흘러가다 스러진 곳에
갈가마귀 날아가며 울고 저녁노을 스러지네.

사환미¹⁹¹⁾를 미쳐 나누어주지 못하였기에 가는 길에 동창에 들렀다가 벽하 방대
철을 방문하고 잠시 대화를 나누다
因社還未分給 路過東倉 訪碧下方大輶 暫話

歷路仙庄暫駐軒
松間鷄犬不聞喧
自憐邑事還多事
未暇丹經讀一番

가는 길이 신선 산장을 지나기에 잠시 가마 멈추니
소나무 사이 닭과 개 소리 들리지 않네.
고을 일이 도리어 많은 것이 스스로 가련하니
신선 경전 한 번 읽을 겨를이 없었구나.

삼학사 포의단¹⁹²⁾을 봉심하며 느낀 점을 읊다
奉審三學士褒義壇 有感作

空壇瞻仰羹牆依
只顧綱常不畏威
一代孤忠誰復見
果然視死儘如歸

빈 제단 우러러 갱장¹⁹³⁾을 의탁하니
강상을 돌아볼뿐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았네.
한 시대 외로운 충혼 누가 다시 보랴
과연 죽음 보기를 돌아가는 듯 하였네.

가는 길에 송죽리 이종돈 감찰을 방문하여 바쁜 일 제쳐두고 한 편을 짓다
歷訪松竹里李監察鍾敦 撥忙得一頁

偶爾訪君家
慇懃禮意加
村幽松竹里
林媚海棠花

우연히 그대의 집을 방문하니
정성스레 예의의 마음 더하는구려.
마을 그윽한 송죽리
숲에는 고운 해당화.

191) 사환미 : 社還米. 각 고을 사창(社倉)의 환곡(還穀). 춘궁기인 봄에 백성에게 꾸어 주었다가 추수기인 가을에 받아들었다.

192) 삼학사 포의단 : 三學士褒義壇. 홍익한(洪翼漢, 1586-1637)을 기리는 포의각(褒義閣)을 가리킨다. 홍익한은 병자호란 때 청나라와의 화의를 반대하여 죽은 삼학사 중 한 사람이다. 경기 평택시 팽성읍 본정리 322번지에 있다.

193) 갱장 : 羹牆. 사람을 앙모(仰慕)하는 일을 말한다. 예전에 요(堯)임금이 죽은 후 순(舜)임금이 3년을 양모하여, 앉으면 덩[羹]에, 먹으면 국[羹]에 요임금이 보였다고 한다.

奴僕農專力 노복은 농사일에 전력을 다하고
 兒童學孔嘉 아이들은 배움이 매우 가상하네.
 何事無別味 무슨 일이든 별미가 없으랴
 供進一盃茶 한 잔 차를 대접해주네.

노적현 귀로에 언(言) 자 운을 쓰다
露積峴歸路 拈言字

前宵經雨歇 지난 밤 내린 비 그치고
 野林漲新痕 들과 숲에 새로운 흔적 넘치네.
 村畔桐花發 마을 두둑에 오동꽃 피고
 隴原麥浪翻 밭두렁 언덕에 보리물결 넘실대네.
 農謳和應逸 농부가 받는 소리 빼어나고
 樵唱互交喧 목동 창 소리 서로 시끄럽네.
 往返爲民社 오가는 것은 백성과 사직 때문이니
 辛酸不敢言 고생스럽다 감히 말하지 못하네.

소북면 신환포 보평을 들러 자조하다
過小北面新換浦狀坪 自嘲

換浦埭成功自專 신환포 보 만드는 공을 내 마음대로 하여
 回回尋築望無邊 돌고 돌며 거듭 쌓아 바라보니 끝이 없네.
 爭先往路前曾笑 앞 다투어 가던 길이 전에는 우스웠는데
 今日便當蟻磨旋 오늘날엔 의미¹⁹⁴가 도는 것이 되었구나.

194) 의미 : 蟻磨, 개미와 연자방아. 《포박자(抱朴子)》에 “연자방아는 서쪽으로 돌고 개미는 동쪽으로 가는데, 연자방아는 빠르고 개미는 느리므로 개미가 연자방아에 휩쓸려 서쪽으로 가는 것과 같다.”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동언리(東堰里) 사창에서 짓다[서문을 병기하다]
東堰里社倉有作[并引]

사환미 원례에 매년 조적(糶糶 : 환곡의 출납)은 각자 해당 읍이 주관한다. 근년에 혜민원(惠民院)에 승부하여 원급을 대비하여 읍에서 주관하던 규정이 따라서 바뀌어 폐지되었다. 금년 혜민원에서 흉년의 백성 사정을 염려하여 반반 분급하라는 가르침이 있었으니 백성을 사랑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어 감히 마음을 다해 은혜를 다하지 않겠는가? 들으니 이전에는 매번 분급할 때 대부분 해당 관리에게 맡기고 직접 점검하지 않았고 소북면의 경우에는 사창이 있는 이래로 직접 분급한 일이 없다고 한다. 참새와 쥐 무리들이¹⁹⁵ 몰래 농단하는 폐단이 반드시 없다고 기필하기는 어렵다. 이에 며칠 전 세 번으로 나누어 날을 택해 명령을 내려 기일에 맞추어 가서 반드시 직접 쌀먼지를 뒤집어 쓰겠다고 알려주고 하루종일 쌀을 나누어주는 마당에서 간사한 일을 막도록 힘을 쓰니, 과연 미진한 것이 없었다. 처음은 동면 읍내면, 다음은 서남북면에서 전례에 따라 감독하니 별다른 이상한 단서가 없었다. 오직 소북면은 크게 해괴한 일이 있었다. 포평(浦坪)에서 길을 잃고 하루의 거의 절반이 지나버렸으나 나와서 살피고 인도하는 사람이 없었다. 사창소에 도착하니 환곡을 타가는 백성이 오지 않은 동리가 있기까지 하여 불려오도록 하였다. 이른바 존위동장이 변명하며 복종하지 않기를 견줄 데가 없으니, 너무 심하구나. 서울이 멀지 않은 땅인데 백성의 습성이 도리어 이와 같은가? 처음 보아서 그런가? 완고하고 어리석어 그런가? 알 수 없구나.

憶昨東西赴社倉 어제 동서로 사창에 간 것을 떠올리니
 風規猶得講南康 풍속과 규율이 오히려 남강¹⁹⁶을 익힐 수 있었네.
 如何一片津頭土 한 조각 나루머리 땅은 어떠한가
 纔出羊腸又互鄉 겨우 꼬불거리는 길을 나왔더니 또 호향¹⁹⁷일세.

195) 참새와 쥐 무리들이 : 몰래 곡식을 훔치는 이들을 비유한 말이다.

196) 남강 : 南康, 송(宋)나라 주희(朱熹)가 남강군에 제수되었을 때 그 고을에 큰 흉년이 들자 다방면으로 흉년 구제 정책을 실시하여 많은 인명을 구제하였다. 《宋史 卷429 道學列傳 朱熹》

197) 호향 : 互鄉, 지금 강소성(江蘇省) 패현(沛縣)에 있던 마을로, 풍기가 나쁜 것으로 유명하였다. 《論語 述而》

원봉진에서 뱃사람을 부르고 일을 읊다
院峰津呼舟子 因卽事賦得

漾漾清漪上	일렁일렁 푸른 물결 위에서
輕撥一片舳	가볍게 한 조각 배 떠 가네.
岸遠齊天勢	강언덕 멀어 하늘과 나란하고
江長判地形	강은 길어 땅의 형태 나누었네.
斷霞明復暗	끊어진 노을은 밝았다 다시 어두워지고
飛鳥去還停	나는 새는 가다가 다시 멈추었네.
的約風前韻	분명한 바람 앞 운치에
漁歌亦可聽	뱃노래 역시 들을 만 하구나.

근효곡 창녕 정태규(鄭泰珪) 농장에서 잠시 쉬다
小憩勤孝谷 鄭昌寧泰珪庄

歸旆斜陽路	석양에 돌아가는 행차 길
重尋勤孝庄	거듭 근효곡 농장을 찾았네.
園林培舊植	동산 숲에 예전에 심은 것들 복돋우고
堂壁煥新粧	당 벽에 새로 꾸민 것이 밝구나.
與子詩情好	그대와 시쓰는 마음 좋으니
慚余公事忙	공사에 바쁜 내가 부끄럽네.
寒暄猶未已	안부 묻는 일이 그치지 않고
例供酒兼糖	예에 따라 술과 사탕 대접하였네.

고을에 팔영시가 있어, 향장이 굳이 내게 지어달라 요청하였으나
겨를이 없다가 이날 다른 바쁜 일이 없어 짓다
郡有八詠 鄉長固要余作不遑 是日無他撓奪 搆得

漸覺喧和淑氣回 점차 온화해져 맑은 기운 돌아옴을 느끼니

認真春信已傳梅
化工自是多才意
先着輕黃柳眼開
花開早春 꽃이 핀 이른 봄

참으로 봄소식이 이미 매화에 전달됨을 깨닫네.
조물주는 절로 재주와 생각이 많으니
먼저 가벼운 황색을 붙여 버들눈이 열렸네.

雨過山顏放月浮
摩不濕水光流
誰家皎潔新磨鏡
好向天心掛不收
芙蓉露月 부용산 개인 달

비 지난 산 얼굴에 환한 달이 떠있고
숫아올라 젖지 않아도 물빛이 흐르네.
누집에서 깨끗하게 새로 거울을 갈았나
하늘을 향하기 좋으니 걸어놓고 거두지 않네.

西林影倒漲紅繁
斷靄殘霞晚景痕
看取眼前無限好
何須預道近黃昏
西亭落照 서정의 낙조

서쪽 숲 그림자 거꾸러져 붉음이 넘쳐나고
조각 안개 남은 노을 저녁 해 흔적일세.
보아하니 눈앞에 끝이 없이 좋으니
하필이면 황혼이 가깝다고 미리 말하라.

蘆花深處訝流星
慣見沙鷗不自驚
點點烟光寒浦上
月斜烟淡暎相明
蘆浦漁火 갈대 포구의 고깃배 불빛

갈대 꽃 깊은 곳에 흐르는 별 맛이하고
모래밭 갈매기 자주 보니 스스로 놀라지 않네.
점점이 밝은 빛이 겨울 포구에 있어
달 기울고 안개 열어 서로 밝게 비치네.

溶溶觸石勢從龍
化作文變態濃
潑墨奇形何所欲
會須爲雨澤三農
黑石歸雲 흑석리의 돌아가는 구름

칼칼 바위 부딪는 기세가 용을 쫓는 듯
변하여 무늬 만드니 변하는 모습 다양하구나.
먹을 뿌린 기이한 형태 어디에 쓰랴
비가 되어 삼농¹⁹⁸⁾을 운택하게 해야 하리.

198) 삼농 : 三農, 평지와 산과 못의 농사를 가리킨다.

一帶長洲短棹移 띠 같은 긴 모래섬을 작은 노로 떠가니
 近看偏遠遠看遲 가까이는 언뜻 보이고 먼 곳은 더디 뵈네.
 隨潮無蜚乘風處 조수 따라 탈없이 바람 타고 가는 곳
 杳渺猶含萬里思 아득하나 오히려 만리 갈 생각 머금네.
 軍勿行舟 군물포에 지나는 배

相喚相呼繞碧澗 서로 환호하며 푸른 물가 감도니
 也無關涉寄書音 물 건너 편지 부치는 일 상관 없다네.
 橫斜沙渚何攸在 가로 기운 모래 물가 어디에 있나
 故傍葭蘆趣向深 짐짓 갈대 곁으로 깊이 들어가네.
 大沙落鴈 큰 모래밭에 내려 앉는 기러기

古寺鍾聲度野垌 옛 절 종소리가 들을 건너니
 太華夜碧足堪聽 태화산 푸른 밤에 들을 만하구나.
 多情寂是無心打 다정함은 무심하게 치는 것이 최고이니
 送與羈窓砭耳醒 객창에 보내 귀를 울려 깨우치는구나.
 漢寺暮鍾 망한사 저녁 종

석성 노인과 함께 장미전병을 먹고 운을 잡아 짓다
與石老共嚼薔薇煎餅 拈韻

生亦堪餐煎況良 생으로도 먹을 만하고 지저도 좋으니
 勻停油粉更和餡 기름과 가루 고르게 하고 설탕을 더 하였네.
 宮商迭作鳴牙頰 궁상의 곡조 번갈아 일어나 입안을 울리니
 梁肉翻驚讓肺腸 밥과 고기가 놀라서 폐와 장을 양보하네.
 眼到呑咽情始釋 눈이 이르고 목에 삼키니 마음이 비로소 풀어져
 口經漱滌氣猶香 입안을 헹구어도 여전히 향기가 남는구나.

謝公徒有調梅手 공에게 매실 조리할 솜씨¹⁹⁹⁾ 있음에 감사하니
 不向東墩透妙方 동쪽 돈대 향해 묘한 비법 누설치 마오.

십의대 십영
十宜臺十詠

小小山前小小園 작고 작은 산 앞에 작고 작은 동산
 風光淡蕩艷陽暄 풍광은 담백하고 고운 햇살 따뜻하네.
 禽啼款曲如相喚 새들은 서로 부르는 듯 정답게 지저귀고
 花氣氤氳定可餐 꽃 기운 번성하니 바로 먹을 만하네.
 地近無勞携短屐 땅 가까워 나막신 신고 가도 힘들지 않고
 官閑有暇倒芳樽 관아 한가하니 꽃다운 술 기울일 틈이 있네.
 一春啓處誰多少 온 봄이 열리는 곳 사람은 몇인가
 十未二三嘯傲軒 열에 두셋 안되는 소오현일세.
 遊春 봄놀이

衰年定苦伏庚威 노쇠한 나이에 복날 더위 정말 괴로워
 岸着烏巾出北扉 오건 쓰고 북쪽 사립을 나섰네.
 竹密不容朱鳥穿 대나무 뻗뻗하여 주조(朱鳥)²⁰⁰⁾가 뚫지 못하고
 槐高解掃火雲飛 해나무 높아 불 같은 구름 나는 것을 해소하네.
 十分惟有涼生鬢 충분히 귀밑털에서 청량함이 생겨나니
 半點曾無汗透衣 반 점도 땀이 옷에 배지 않는구나.
 試問築斯誰教我 이것을 누가 쌓으라 내게 시켰나
 而今始覺未爲非 지금에야 잘못하지 않았음을 깨닫네.
 避暑 피서

199) 매실 조리할 솜씨 : 은(殷)나라 고종(高宗)이 부열(傅說)을 재상으로 삼으면서 "만일 국의 맛을 맞춘다면 그대는 소금이요 간장이니라.[若作和羹 爾惟鹽梅]"라고 하였다. 《書經 說明下》

200) 주조(朱鳥) : 남방에 있는 별자리. 오행으로는 불을 상징하므로 여기에서는 더위를 가리킨다.

行嫌老瘁坐嫌遮
最有登斯放眺遐
沃壤無邊如彼野
黃雲滿地盡誰家
已於三白占金穰
勝似千紅是稻花
寄語今秋徵索吏
官倉臥待到牛車
觀稼 농사 구경

다니면 늙고 초췌해 싫고 앉으면 가린 게 싫으니
이곳에 올라 마음껏 조망하는 것이 제일일세.
비옥한 땅 끝없어 저쪽 들판 같고
누런 구름 땅에 가득 다 누구네 집인가.
이미 삼백²⁰¹⁾에 금양²⁰²⁾을 차지하니
수천 붉은 꽃보다 나은 것이 벼꽃일세.
이번 가을 세금 걷은 관리에게 말을 부쳐
관가 창고에 누워 소달구지 오길 기다리리.

膝六訴天五色迷
翻然一夜使之齊
連空玉屑無邊野
滿地楊花極望堤
埋盡樓亭難甲乙
懸非日月失東西
祇今恨少長卿筆
輸與梁園讓品題
賞雪 눈 감상

등륙²⁰³⁾이 하늘에 호소하여 오색이 어지럽다가
번연히 하룻밤에 가지런하게 되었네.
허공에 이어진 옥가루에 들판은 끝이 없고
땅 가득 벼들꽃에 방죽 끝까지 바라보네.
누정을 다 묻어 으뜸을 따지기 어렵고
해와 달 뜨지 않아 동쪽서쪽 잃었네.
지금 장경²⁰⁴⁾의 붓이 없는 것이 한스러우니
양원²⁰⁵⁾으로 옮겨보내고 글짓기는 사양하리라.

除非聳出是驅移
散插芙蓉指點疑
行旅昔何牆隱髻
佳人今忽鏡窺眉

솟아난 것이 아니라 몰아서 옮긴 것이니
흩어져 꽃은 부용을 손으로 가리키며 의심하였네.
나그네는 예전에 어느 담장에 상투를 숨겼던가
아름다운 이가 지금 홀연 거울로 눈썹을 엿보네.

201) 삼백: 三白. 동지 이후 세 번째 돌아오는 술일(戌日) 전에 세 번 눈이 내리는 것을 가리킨다. 보리농사에 좋다고 한다.
202) 금양: 金穰. 풍년 들 정조. 태세성(太歲星)의 운행이 금(金), 즉 유궁(酉宮)에 이르렀을 때 풍년이 든다고 한다.
203) 등륙: 滕六. 눈 귀신의 이름이다.
204) 장경: 長卿. 사마상여(司馬相如)의 자. <설부(雪賦)>를 지은 문장가이다.
205) 양원: 梁園. 서한(西漢)의 양효왕(梁孝王)이 조성한 매우 크고 호사스러운 원림(園林). 당대의 문사들이 사마상여(司馬相如), 매승(枚乘), 주양(鄒陽) 등과 함께 술자리를 베풀고 놀다가, 눈이 오자 흥에 겨워 시를 지었다.

如添驟富心先飶
似按新圖眼自奇
太守從茲生一事
朝朝拄笏倚來遲
看山 산을 보다

졸부가 된 듯이 마음이 먼저 배부르고
새 그림 보게 된 듯 눈이 절로 기이하구나.
태수가 이로부터 한 가지 일을 만드니
아침마다 턱을 괴고 기대서 더디 오게 되리라.

着脚高時着眼恢
海胸分與一襟裁
涵泓浦口西南界
澄碧天光上下開
帆檣挾鷁堂堂去
島嶼撐鰲泛泛回
褊壤茲州添大觀
須知得此有從來
望海 바다를 바라보다

다리가 높이 올라갈 때 눈은 넓어지니
바다 같은 가슴 나누어 하나의 옷깃 만들었네.
깊은 포구는 서남쪽 경계이고
맑고 푸른 하늘빛 상하로 열렸네.
돛단 배는 익새²⁰⁶⁾를 끼고 당당히 가고
섬들은 자라가 떠받쳐 뚱뚱 떠 돌아가네.
땅이 좁은 이 고을에 큰 구경을 더하였으니
여기서 얻은 것이 원래 있었던 것임을 알아야 하리.

阿誰解喚主翁余
時有庵鍾曉不虛
月落更殘三點後
風微地近一弓餘
豈以塵凡通妙悟
眞知官舍似僧居
那將老入香山社
閑聽蒲牢雷吼如
聞鐘 종소리를 듣다

누가 주인 노인인 나를 부를 수 있으랴
때때로 암자의 종이 새벽에도 울리네.
달이 지고 밤이 다하니 삼 점 남았고
바람 잦아들고 땅은 가까워 활 한 번 쏠 거리일세.
어찌 세속의 범인으로 묘한 깨달음에 통하랴
진실로 관사가 절간과 비슷한 것을 알겠구나.
어찌하면 노인으로 향산의 시사에 들어가
포뢰²⁰⁷⁾가 천둥처럼 포효함을 한가히 들으랴.

206) 익새: 鷁. 익(鷁)이라는 새가 풍파를 잘 견뎌 내므로 뱃머리를 이 새 형상으로 장식한다.
207) 포뢰: 蒲牢. 쇠북의 별칭. 본래 바다에 사는 짐승 이름으로 고래를 무서워하여 고래가 그를 치면 그는 버럭버럭 운다고 한다.

庭陰乍隱漾微波
宛轉銀輪院裡過
夜深人定分光少
山遠林疎得影多
座與樓高誰是庾
身疑舟泛我其坡
衿期漸就清如水
收召吟魂呵睡魔
翫月 달구경

뜰 그늘에 잠깐 숨어 잔잔한 물결 일렁이다가
굴러가는 은빛 바퀴가 담 안을 지나가네.
밤 깊고 사람들 멈추니 나눈 빛이 적고
산 멀고 숲 성겨 얻는 그림자 많구나.
자리는 누대처럼 높으니 누구의 곳집인가
몸은 배가 뗏나 의심스러우니 내 언덕이구나.
마음의 기약 점점 물처럼 맑아지니
시 읊을 혼을 불러 보아 잠귀신을 꾸짖네.

郡官知否是何官
春水盈盈試取看
平地成堤容湊集
旱天爲雨沃枯乾
涇蹄叨冒專城責
澁髓無由闔境歡
暇日登臨渾漫興
停盃東望故盤桓
挹澤 읍택

고을 관리 무슨 관직인지 아는지 모르는지
봄물이 가득 차서 한 번 보러 가보네.
평지가 방죽을 이루어 물을 모아 들어서
가뭄에 비 만들어 마른 땅을 적시네.
소발자국 고인 물로 외람되게 온 성의 책임 무릅썼고
골수에 사무쳐서 모든 경내 기쁘게 할 방법이 없네.
쉬는 날 올라가면 부질없는 흥취라서
술잔 멈추고 동쪽 바라보며 짐짓 머뭇거리네.

蓉山西指一荒城
往事茫茫不可名
日落崩壩烏自下
草深殘堞雉空鳴
蠶魚可想其來久
桑海難爲此日情
古蹟窮搜人莫訝

부용산 서쪽으로 황폐한 성 가리키니
옛일은 아득하여 이름을 붙일 수 없구나.
해가 진 무너진 해자에 까마귀가 내려가고
풀 깊은 남은 성첩에 핑이 부질없이 우네.
잠어²⁰⁸⁾가 온 지 오래된 줄 상상할 만하고
상전벽해는 이날 심정이 되기 어렵구나.
옛 자취 다 찾으리니 사람들은 의심치 마오

208) 잠어 : 蠶魚. 잠총(蠶叢)과 어부(魚兜). 전설 상에 보이는 촉망의 왕이다. 이백의 <촉도난(蜀道難)>에 “잠총과 어부 개국한 일 어찌 나 아득한지[蠶叢及魚兜 開國何茫然]”라는 구절이 나온다.

我家叢瑣有題評
援城 원성

우리 집 《총쇄》에 평한 글이 있대요.

장미화를 마주하여 시를 지어 회포를 부치다
對薔薇花 賦得寓懷

本是玉堂換骨香
如何淪落在茲鄉
露繁不解詞臣近
只許老夫興味長

본래는 백옥당에 환골한 향기가
어찌하여 이 고을로 떨어졌는가.
이슬 짙어 사신이 가까이 한 걸 알지 못하고
다만 늙은이 흥미 길도록 허락하였네.

박계순이 내가 요즘 지은 시를 화제(畫題)로 삼아 그림을 그렸다고 바치기에
시를 지어 보여준다
朴啓淳以余近日所得韻語作畫題圖進 故吟示

내가 근래에 교외에 나갔다가 시 한 수를 지었다. “남여(藍輿)가 백번 꺾여 긴 독을 지나 노라니, 강가의 나무 아득하고 풀빛 가지런하구나. 몇 조각 구름이 흘러가다 스러진 곳에 갈가마귀 날아가며 울고 저녁노을 스러지네.” 박계순이 이 광경을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려 바쳤는데, ‘조롱박을 본따 그렸다’²⁰⁹⁾고 할만했다. 벽에 걸고 장난삼아 시 한 수를 짓는다.

一幅烟雲掛看瓊
近濃遠淡摠精神
靑浮草木圓機活

한 폭의 안개와 구름 걸고 보배롭게 보니
원근의 농담에 정신을 갈무리했네.
푸르게 뜬 초목은 원기가 생생하고

209) 조롱박을 본따 그렸다 : 글을 짓거나 그림을 그릴 때 자신이 새롭게 창작하지 못하고, 기존의 다른 사람의 작품들을 흉내 내어 짜깁기하는 것을 말한다. 송나라 한림학사 도곡(陶穀)은 문장이 당시에 으뜸이었는데, 종종 자기보다 못한 자들이 재상이 되므로 다른 사람을 시켜 황제에게 자신이 오래도록 한림원에서 국가의 문장을 담당하면서 많이 애쓴다는 것을 아뢰게 했다. 그 말을 들은 태조가 교외를 지면서, “그가 지은 제문(制文)을 보면 모두 이전 사람들 것을 말만 바꾼 것에 불과하니, 이는 속담에 ‘다른 사람이 그려 놓은 조롱박을 본따서 그린다.[依樣畫葫蘆]’라는 격이다. 무슨 수고를 했다는 것이냐.”라고 했다. <동헌필록(東軒筆錄)> 권1

紅曳山河晚景新
意匠鋪排深得趣
毫端點綴現如眞
如何中有停輿者
不與飛禽自任伸

붉게 끌리는 산하는 저녁 풍경 새롭네.
구상하는 솜씨는 깊이 의취를 얻었고
점철된 붓끝은 진짜처럼 그려냈구나.
가운데 가마 멈춘 이는 어떠한가
나는 새와 함께 하지 않고 제맘대로 기지개 펴네.

석성과 마주하여 승어찜을 먹다
與石醒對嚼秀魚蒸

來從東里饋梅堂
躍躍雙鱗尺許長
轟煎爐鑪花浪起
爛咀齒頰玉津香
饞僧適中淘糝嗜
飢鶴初充白露腸
願言贈謝吾何以
酒料官田秫未黃

동쪽 마을에서 와 매당에 대접하니
펼쩍펼쩍 물고기 한 쌍 한 자쯤 되는구나.
부글부글 노구술에 지져내니 꽃 물결이 일어나고
폭 익어 씹으니 입안에 기름진 맛 향기나네.
식탐 있는 스님의 쌀죽 좋아하는 기호에 적중하고
굶주린 학의 흰 이슬 먹는 창자를 처음 채웠구나.
어떻게 내가 받은 걸 감사할지 말해주오
술재료인 관아 밭 기장 아직 안 익었다오.

정원에 해가 길고 산새가 청사에 내려왔기에 지팡이 짚고 나막신 신고
한 번 대와 동산의 꽃과 바위를 둘러보고 총괄하여 읊시 한 수를 짓다
日長庭院山鳥下廳 携筇曳屐 一回覽臺園花石 總之得一律

深深柳館一閑官
香纈簾紋晝景寬
痛飲長宜存醉石
高吟早已置香磐
盆池蓮葉如錢疊
瓦甍蘭英比筆攢

깊고 깊은 오류관에 한가한 관원 하나
향기로운 주렴에 낮풍경이 넉넉하네.
통음은 길어야 하니 취석을 남겨두고
높이 읊음은 이르면 그만이니 향반을 두었네.
분지의 연잎은 엽전이 쌓인 듯하고
와당의 난꽃은 붓을 모은 듯하구나.

繞院松篁風送韻
有時笙瑟起無端

정원을 두른 소나무 대나무 바람이 운치를 보내주어
때때로 생황 비파 소리가 무단히 일어나네.

강난수(姜蘭秀) 참봉과 함께 십의대에 올라 짓다
與姜叅奉蘭秀登十宜臺 賦得

賀鷲纔歸信鴈來
蓉山喜色夕陽開
海天雲散思家枕
野樹花懸送客盃
可笑輸贏當局暗
須知倚伏轉環回
一春好事如相問
醉石香磐日涉臺

축하하는 제비가 겨우 돌아오고 편지 전하는 기러기 오니
부용산 기쁜 모습 석양이 열렸구나.
바다 하늘 구름 흩어지자 집의 베개 그리우니
들의 나무 꽃 달리자 나그네 술잔 전송하네.
가소롭다, 승부는 당하는 국면에서는 어둡고
알아야 할 것은 화복이 돌고돈다는 것.
온 봄 좋은 일을 서로 물어본다면
취석과 향반 일섭대일세.

정오에 십의대에 석성, 태경과 함께 올라 술을 불러 대작하고
장난삼아 장기 내기를 하다
午登十宜臺 與石醒泰卿呼酒對酌 戲賭象棋

不須嵬兀學元龍
二客從余一榻同
嫩綠槐陰侵局面
微涼竹氣入樽東
臺高本爲消長憂
園小猶堪納善風

우뚱하게 원룡²¹⁰을 배울 필요 없으니
두 손님 나를 따라 한 평상을 같이 했네.
연록빛 해나무 그늘이 장기판을 침범하고
서늘한 대나무 기운이 술상 동쪽으로 들어오네.
대가 높으니 본래 긴 근심 없애기 위해서이고
정원 작으니 오히려 좋은 바람 들일 만하네.

210) 원룡: 후한(後漢) 말엽에 허사(許汜)가 원룡(元龍)의 집을 찾아가자 저는 높은 침상에 놓고 자기는 아래 침상에 자게 하였으니 호기(豪氣)가 아직도 없어지지 않았다고 유비(劉備)에게 하소연하자, 유비가 "나 같았으면 자신은 백척루 위에 놓고 당신은 땅바닥에 눕게 했을 것이다."라고 진등을 응호하였다. 《三國志 卷7 魏書 陳登傳》

莫遣申牌輕報我 신패를 보내 가벼이 내게 알리지 말라
 蓉山定好抹殘紅 부용산이 바로 붉음이 스러져 가니.

십의대에 오르니 석성 역시 왔다. 점심을 명하여 대 위에서 먹기 좋았다. 시를 지어 마음을 풀다

登十宜臺 石醒亦至 命點心好頓於臺上 賦得遣興

雙箸丁丁對主賓 쌍 젓가락 정정하게 주인 손님 마주앉아
 翠陰爲幕草爲茵 푸른 그늘 장막 삼고 풀을 자리 삼았네.
 竹間嚼比楊州鶴 대나무 사이에서 먹으니 양주의 학에 견주고
 松下需兼丙穴鱗 소나무 아래 음식은 병혈²¹¹의 물고기를 겸하였네.
 禽語繞盤如款勸 새 소리 반가운 듯 반석을 감돌고
 花香度鉢倍甘瓊 꽃 향기 곱절은 감미롭게 주발을 지나가네.
 定知此處多佳境 이곳에 아름다운 경치 많은 줄 바로 알겠으니
 唉到深時漸入眞 아! 깊이 도달한 때 점점 진경으로 들어가는구나.

동쪽 뜰 해당화가 며칠 전부터 피기 시작하여 어여뻐 사랑스러웠다. 베개를 베고서 짓다

東庭海棠花自數日前始開 嫣然可愛 倚枕賦得

不與梅爭早 매화와 빨리 피려고 다투지 않고
 脩條美艷新 쪽 뺨은 가지의 아름다움이 새롭네.
 懶來無氣力 게을러 무기력했었는데
 睡起更精神 깨고 나니 정신이 다시 드는구나.
 詩士當稱號 시 짓는 선비는 부르기에 적당하고
 酣妃恰寫眞 술 취한 짝은 모습을 그려내기 흡족하네.

211) 병혈 : 丙穴. 맛 좋은 물고기가 나오는 곳이다. 병혈은 동굴의 입구가 병향(丙向)으로 뚫렸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品題誰捨爾 글 지으려면 너를 버리고 누구라
 惆悵杜家淪 슬프게도 두씨 집안이 빠졌구나.

근래 동산과 대의 경물이 가지가지 기이하고 사랑스러운데 오동꽃과 죽순이 감상하는 지취를 더하여 그냥 마음대로 붓을 휘두르다

近日園臺景物種種奇愛 而桐花竹筍添得翫賞之趣 因卽事縱筆

小關林園近地魁 작게 만든 숲과 동산이 지괴에 가까우니
 常食佳趣此徘徊 항상 좋은 의취 탐이나 이곳에서 배회하네.
 鳳柯吐紫桐花發 봉새 같은 가지가 자색 토해 오동꽃이 피고
 龍節包黃竹籜開 용같은 마디 황색 품어 대 꺼풀이 열렸네.
 忙或如之時幹圃 바쁘다가 간혹 가게 되면 때로 채마밭 갈고
 閒斯得矣日登臺 한가함을 얻게 되면 날마다 대에 오른다.
 傍人莫謂官貧瘠 옆사람이여. 관아가 빈약하고 수척하다 말하지 마오
 俸可資供景又恢 녹봉은 쓸만하고 경물도 또 넉넉하다오.

강참봉 대인의 수연을 축하하다

賀姜叅奉大人壽宴

堂弧難老兕觥稱 당의 활²¹²이 늙지 말라고 물소 뿔잔²¹³을 드니
 賀事今朝種種仍 축하할 일이 오늘 아침 가지가지 이어지네.
 花誥增光同日慶 화고²¹⁴가 빛을 더하여 경사스러운 날 같이하고
 銀鈴助喜有年徵 은 방울은 기쁨을 도우니 풍년이 들 징조일세.

212) 당의 활 : 사내대장부의 큰 뜻. 옛날에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뽕나무로 활을 만들어 문 왼쪽에 걸고 봉초(蓬草)로 만든 화살로 사방에 쏘는 시능을 하며 장차 이처럼 웅비할 것을 기대했다고 한다. 《禮記 內則》

213) 무소 뿔잔 : 《시경(詩經)》〈칠월(七月)〉에 “저 공당에 올라 저 무소뿔잔을 들어 비노니, 만수무강하리로다.[躋彼公堂 稱彼兕觥 萬壽無疆]”라고 하였다.

214) 화고 : 花誥. 증직(贈職)에 봉(封)하는 조서(詔書). 오색 금화(金花) 무늬가 있는 비단으로 썼으므로 붙여진 명칭이다.

石家華髮猶無恙
海屋遐籌幾度乘
更願茲州從此後
咸躋壽域樂三登

석가²¹⁵의 흰 머리에도 여전히 무양하고
해옥²¹⁶의 먼 산 가지 몇 번이나 올랐다.
다시 기원하니, 이 고을이 이로부터
함께 장수하며 삼등²¹⁷을 즐기워하길.

일섭원에 있는 대나무가 전보다 조금 더 뺏어나갔으나 여전히 빈 공간이 많았다. 이날 문지기들을 신칙하여 동쪽 언덕 및 내아에 있는 것들을 채취하여 십의 대 사망 주변에 심었다. 차츰 번창하게 되면 죽리관이라 하더라도 괜찮을 것 같다. 시를 지어 기록하다

日涉園所存竹樹比前稍敷 而尙多空缺處 是日飭閹屬採取東岡及內衙所在者 栽植於臺之四圍 若就次暢茂則雖謂竹裡館可也 賦詩志之

會事天中宿雨開
蒞翁一上十宜臺
臺下風光近何若
花時已去綠陰來
就中竹樹抽新翠
猗猗不似舊憔悴
忽憶東亭白司馬
臨風三誦養竹記
園中寸土惜如金
所可樹也多餘地
一臺未得圍如帳

때 맞추어 하늘에 오랜 비가 개어
채옹²¹⁸이 한 번 십의대에 올랐네.
십의대 아래 풍광이 어떠한가
꽃 시절은 지나고 녹음이 왔네.
대나무 사이에 새로운 푸름이 나와
무성하여 옛날처럼 초췌하지 않구나.
갑자기 동쪽 정자 백 사마²¹⁹가 떠오르니
바람을 맞이하여 세 번 양죽기를 외웠네.
동산의 한 줌 흙이 금처럼 아까우니
나무를 심을 곳에 남은 땅이 많구나.
십의대를 아직 휘장처럼 두르지 못하여

215) 석가: 石家. 한(漢)나라 때의 명신(名臣) 석분(石奮). 네 아들과 함께 오부자가 모두 이천석의 관직에 올랐다고 한다.《史記 卷103》
216) 해옥: 海屋. 장수함을 가리킨다. 소식(蘇軾)의 글에 “바닷물이 말라서 뽕나무밭이 될 때면 내가 산가지 하나를 내려놓는데, 이래로 내 산가지가 이미 열 칸의 집에 가득 찼다.《海水變桑田時 吾輒下一籌 爾來吾籌 已滿十間屋》”라고 하였다.《東坡志林 三老語》
217) 삼등: 三登. 27년 연속해서 오곡이 풍년이 드는 태평성대를 가리킨다.
218) 채옹: 오형목의 호이다.
219) 백 사마: 당나라 시인 백거이(白居易)를 가리킨다. 사마는 백거이의 벼슬 이름이다. <양죽기(養竹記)>를 지어 대나무를 현인에 비유한 바 있다.

肩背僅被腰眉曠
縱云今歲長兒孫
何待三年蕃族黨
特飭朱衣脫荷鍤
散搜遺根授栽法
溫存本埴手護持
活着新培脚緊踏
安生受氣俾忘移
養就睢園坐可期
依然耳畔龍吟籟
隱若筵前鳳啄枝
翁心動喜欲忘肉
貌瘦何妨俗可醫
圍棋且可消三夏
飲酒亦堪加一卮
日來逍遙自作主
何須更問太守誰

어깨와 등에 겨우 있고 허리와 눈썹은 비었네.
비록 올해 아들손자 기른다 해도
어찌 삼년 기다려 친족 무리를 만들랴.
주의²²⁰에게 특별히 신칙해 삼을 벗도록 하고
흩어져 남은 뿌리 찾아 심는 법을 전수했네.
뿌리 흙을 온존하여 손으로 보호해 가지고
새로 복돋운 곳에 살리고 밭로 단단히 밟아주었네.
편안히 살아 기운을 받아서 옮겨온 것을 잊도록 하면
길리서 수원²²¹에 나아가는 것은 앉아서 기대할 수 있으리.
의연하게 꺾가에서 용이 죽순을 노래하고
은은하게 대자리 앞에 봉황이 가지를 쪼네.
늙은이 마음 기뻐서 고기맛도 잇을 지경
수척한 모습 무슨 상관이라 세속에서 치료할 수 있으니,
바둑 두며 또 무더위를 씻을 만하고
술 마시며 역시 한 잔 더 할 만하네.
날마다 소요하며 스스로 주인이 되니
하필 태수가 누구냐고 다시 물으리.

일섭원에 석상을 놓고 짓다
日涉園置石床 有作

白鑿明瑩一石床
園中物色倍顏光
如今濯去泥塗辱
依舊帶來璞玉相

하얗게 깎아 밝게 빛나는 석상 하나
동산 물색이 곱절이나 밝아졌네.
지금 진흙 범벅 씻어낸 듯
여전하게 박옥 같은 상을 띠었네.

220) 주의: 朱衣. 하급 관리를 가리킨다. 붉은 옷을 입었으므로 일컬은 말이다.
221) 수원: 睢園. 한(漢)나라 양효왕(梁孝王)의 아름다운 정원인 토원(囿園)을 가리킨다. 왕발(王勃)의 <등왕각서(滕王閣序)>에 “수원(睢園)의 푸른 대는 그 기상이 도연명(陶淵明)의 술동이에 넘쳤고, 업수(鄴水)의 붉은 꽃은 그 빛이 사령운(謝靈運)의 붓을 비추었네.《睢園綠竹 氣凌彭澤之樽 鄴水朱華 光照臨川之筆》”라고 하였다.

用代支機儀織女 베틀 피는 돌을 대신 쓰니 직녀를 본뜬 것이요
 拜思具笏學元章 절하며 홀을 갖출 것을 생각하니 원장²²²⁾을 배운 것일세.
 湖西坐得關西寶 호서 지방에 앉아 관서 지방의 보물을 얻어
 蒞老登斯幾舉觴 채원 노인²²³⁾이 이곳에 올라 몇 번이나 술잔을 들었던가.

해당화가 핀 것을 보고 기뻐하다
 喜海棠見開

羣芳早發反先萎 온갖 화초 일찍 피어 도리어 먼저 시드니
 喜見棠花在此時 해당화가 이곳에 핀 것을 보고 기뻐하는 때라네.
 才思迎風裁錦繡 재주 있는 생각 바람 맞이하여 비단 수를 놓고
 嬌容浥露點臙脂 아리따운 용모는 이슬 젖어 연지분을 찍었네.
 遠淪爾有東坡感 먼 옛날 젖어들어 네게는 동파의 감상²²⁴⁾이 있었고
 愛賞吾無子固詩 아껴 감상하니 내게는 자고의 시²²⁵⁾가 없구나.
 莫恨孤根開較晚 외로운 뿌리 비교적 늦게 핀다 한스러워하지 마오
 中於萬綠一紅奇 수많은 초록 가운데 하나의 붉음이 기이하다오.

오시에 손님과 함께 십의대 위에서 종일 술 한 병을 마시고 입으로 읊다
 午與賓從上十宜臺酌日酒一瓶口號

彭城五月十宜臺 팽성의 오월 십의대에서
 林翠蕭森排酒盃 숲 푸르고 쓸쓸하여 술잔을 놓았네.

222) 원장 : 元章. 송나라 서화가(書畫家) 미불(米芾)의 자이다. 기암괴석을 좋아하여 무위군(無爲郡)에 부임하였을 때 기이한 큰 바위를 보고 “내가 절할 만하다”라고 하고 의관을 갖추고 홀을 들고 바위에 절을 하였다고 한다. 《宋史 文苑傳六 米芾》

223) 채원 노인 : 오형묵을 가리킨다. 채원은 오형묵의 호이다.

224) 동파의 감상 : 송나라 소식(蘇軾)이 황주에 좌천되어 있을 때 (정혜원해당(定惠院海棠))을 읊은 바 있으며, 해당화를 시의 소재로 등장시킨 여러 편의 시를 지었다.

225) 자고의 시 : 증공(曾鞏)의 자이다. 증공은 당송팔대가 중 한 사람이다. 송나라 팽연재(彭淵材)가 다섯 가지 한스러운 것으로 준치(鱖魚)가 뼈가 많은 것, 금굴(金橘)이 신 것, 순채의 성질이 냉한 것, 해당화가 향기가 없는 것, 증자고(蒸子高) 시를 잘 못하는 것을 꼽았다.

諸客不知傍有石 손님들 옆에 있는 바위를 모르고
 只疑風送麥涼來 바람이 맥량²²⁶⁾을 보내오나 의심하기만 하네.

석성 노인과 함께 강난수 참봉을 방문하고 나서 뒷동산에 올라 산책하고
 이어서 당시 일을 읊다

偕石老訪姜叅奉蘭秀轉 登後岡閒散 仍賦卽事

端陽天氣郡南村 단오의 날씨인 군 남쪽 마을
 爲踐書中宿約存 편지로 한 오랜 약속 실천하였네.
 一室簪纓賢父子 한 방에 있는 높은 벼슬은 어진 부자이고
 四圍松槭好田園 사방 둘러싼 소나무 울타리는 좋은 전원일세.
 兒童勝事鞦韆索 아이들 즐겁게 그넛줄을 일삼고
 風水荒談走肖原 풍수장이 황탄하게 주초²²⁷⁾ 언덕을 말하네.
 聽罷黃鸝鷄唱午 피꼬리 소리 다 듣자 닭이 오시를 알려
 歸來嘯傲是吾軒 돌아온 소오현이 바로 내 집일세.

일십원 석상 사면에 벌초를 하고 장난삼아 시 한 수를 짓다
 日涉園石床四面伐莎被之 戲題一詩

白石新床已自奇 흰 바위 새로운 석상이 이미 스스로 기이한데
 金莎細草又重之 금빛 가는 사초가 또 거듭하였네.
 依如玉女春風面 옥같은 여인이 봄바람 같은 얼굴과 같아
 更遣雙蛾貼畫眉 한 쌍 누에나방 더 보내 그림같은 눈썹 붙였네.

226) 맥량 : 麥涼. 보리가 익어가는 4월의 기후를 의미한다.

227) 주초 : 走肖. 조(趙)자의 파자. 조선조 “走肖爲王”, 즉 조씨가 왕이 된다는 참언이 있었다.

매번 한가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짓다가 십의대 절구시 10수를 얻다
【짧은 서문을 병기하다】

每爲消閒構 得十宜臺詩十截[并小引]

이상 십의대 십절은 첫구마다 당나라 시인의 시에서 찾아오고 아랫구는 오로지 내 생각에서 지어낸 것이다. 근래 제가가 이 방법을 많이 쓰기 때문에 한 번 훑내내 보았다.

坐隨意便誰賓主
景爲春妍費獻酬
點檢芳菲惟自適
何須較計幾來遊
遊春 봄놀이

앉아서 뜻대로 하니 누가 주인이고 손님인가
풍경은 아리따운 봄이라 술잔을 주고받네.
꽃다운 풀 점검하는 것도 오직 유유자적하니
얼마나 노닐러 왔나 따져볼 필요 있으랴.

瀟灑園臺無暑氣
扶疎松竹有清風
老槐兼得陰如海
蓋取襟期冷淡中
避暑 피서

깨끗한 일석원과 십의대에 더위 기운이 없으니
우거진 소나무와 대나무에 맑은 바람이 있구나.
늙은 해나무가 아울러 바다같은 그늘을 만드니
서늘하고 담박한 가운데 지취를 취하는구나.

黃塵墮隴搖風穗
碧玉凝烟濕露莖
日望不愁憂國願
盈箱終獲見西成
觀稼 농사 구경

누런 먼지 밭두둑에 떨어지니 바람에 이삭이 흔들리고
푸른 옥이 연기에 엉기니 이슬에 줄기가 젖는구나
날마다 바라보며 나라 근심하여 원하는 것²²⁸⁾을 걱정하지 않고
상자 가득히 수확을 마쳐 추수하는 것²²⁹⁾을 보리라.

228) 나라 근심하여 원하는 것 : 여기에서는 풍년을 가리킨다. 두보(杜甫)의 시 <오중(吾宗)>에 “집에 있을 때 항상 일찍 일어나 나라 근심하여 풍년 들기를 원하네[在家常早起 憂國願年豐]”라고 하였다.

229) 추수하는 것 : 西成. 《서경》<요전(堯典)>에 “지는 해를 공경히 전송하여 추수(秋收)를 고루 다스리게 한다.[寅饒納日 平秩西成]”라고 하였다.

勢合便疑包地盡
功成終欲放春回
等閒遠眺如何恨
誰駕扁舟訪我來
賞雪 눈 감상

기세가 합쳐서 문득 땅을 다 덮었나 의심했더니
공을 이루자 끝내 봄기운 돌아오려 하네.
무심하게 멀리 바라보며 한스러움이 어떠한가
누가 작은 배 타고 나를 찾아오려나.

飛盡雲烟開錦繡
發生草木煥文章
便爲畫出添新面
如對好人興愈長
看山 산을 보다

구름 연기 다 날아가고 비단 수가 열리니
살아난 초목이 무늬를 밝히네.
그림에서 나온 듯 새로운 얼굴을 더하니
좋은 사람 대하여 흥이 더욱 길어진 듯하구나.

望窮烟島霧中小
心駭風潮天際寬
分外奇緣良有以
蓬萊仙子庶幾看
望海 바다를 바라보다

바라다 본 끝에 연기 섬은 안개 가운데 작고
마음 놀라게 한 바람 파도 하늘 끝에 너럭하네.
분수 밖 기이한 인연은 진실로 이유가 있으니
봉래산 신선을 거의 만나겠구나.

微擊數聲清客耳
漸聞餘韻斷塵心
洪纖忽到來何自
妙悟方知警佛音
聞鐘 종소리를 듣다

가볍게 치는 몇 번의 소리가 나그네 귀를 맑게 하니
점차 여운을 들으니 세속 마음이 끊어지네.
넓고 큰 것과 작고 가는 것이 어디로부터 홀연 오나
묘한 깨달음에 경계하는 부처의 소리임을 바야흐로 알겠네.

盈手水光寒不濕
流天素彩靜無痕
尋常一樣軒前月
遍照能開萬像渾
翫月 달구경

손 가득 물빛이 차가워도 젖지 않고
하늘에 흐르는 흰 광채는 고요하여 흔적이 없네.
심상하게 한결같은 모양 소오현 앞의 달이
두루 비추어 삼라만상을 혼연히 열 수 있으려나.

淸涵星斗光垂地
冷覺魚龍氣逼人
挹彼瑩然心自照
新磨鏡面絕纖塵
挹澤 음택

맑게 잠긴 북두성 빛 땅에 드리우니
어룡의 기운이 사람에게 닥쳐옴을 차갑게 느끼네
저것을 끌어당겨 밝게 마음을 스스로 밝히면
새로 간 거울처럼 작은 먼지도 없겠구나

萋萋草色層堦密
寂寂苔封疊壘高
自我豈能容易看
人傳援古涉風騷
援城 원성

무성한 풀빛이 층계에 뺨뺨하고
쓸쓸한 이끼가 첩루에 높이 쌓였구나.
내가 어찌 쉽게 볼 수 있으랴
사람이 전하고 옛것을 끌어와 시를 섭렵하노라.

오후 십의대 나무그늘이 딱 좋아서 성간(聖懇), 석성(石醒)과 함께
조출한 술자리를 가지다
午後十宜臺樹陰政好 與聖懇及石醒設小酌

邂逅筇鞋却暇閒
方知宿契重於山
虛心風韻深篁裡
隙地涼陰老樹間
官自清貧酬客至
園因冷淡少人還
賦詩沽酒無餘事
謂我胡云名利關

찾아온 손 해후하여 한가함을 물리치니
오랜 약속이 산보다 무거운 줄 알겠구나.
텅빈 속 바람 운율이 깊은 대나무 안에 있고
틈새 땅 시원한 그늘은 늙은 나무 사이에 있네.
관아는 청빈하게 오는 손님 접대하고
동산은 냉담하여 돌아오는 사람 적구나.
시를 짓고 술 사는 것밖에 다른 일이 없으니
나를 일러 어찌 명리에 관계한다 말하랴.

두리서숙(頭里書塾) 개접²³⁰⁾ 운에 차운하다[서문을 병기하다]
次頭里書塾開接韻[并引]

이 근처 마을 글방 가운데 일컬을 만한 것을 들은 적이 없으니 이것 역시 근래 일반적
인 걱정이라 심상하게 근심하며 탄식하였다. 이날 신시에 들으니, 어른과 동자 수십 명
이 부용산에 올라 배회하며 조용히 시를 읊는 상황이 있었다고 하였다. 물론 두리서숙
의 학도들이 개접음례를 하고 망(望)자, 향(香)자, 광(光)자 운을 잡아 시를 짓는다고 하
였다. 진실로 이른바 긴 밤 끝에 닭이 운다는 것이니 마음에 매우 기이하고 기특하여 술
잔을 보내 흥을 돋고 싶었으나 날이 이미 저물어 흩어져 돌아갔으므로 끝내 하지 못하였
다. 이어서 예전을 생각하면 모든 고을에 반드시 그 고장 인사들과 창수한 시집이 번성
하다 할 만하였으나 요즘들어 이런 일은 전생처럼 막연하니 탄식할 만하다. 그 운에 차
운하여 회포를 풀다.

文字飲來人所望
書英不是等閒香
茲州選勝今初見
喜似鷄聲透曙光
騷壇好事人相望
敗胃如聞徹鼻香
此處誰知吾往蹟
祇今南社有聲光

문자음²³¹⁾은 사람이 바라는 바이니
글 꽃은 등한히 할 향기가 아니네.
이 고을에서 명승 찾는 일은 지금 처음 보니
닭울음이 서광을 뚫은 듯이 기쁘구나.
시단의 좋은 일을 사람들이 바라니
상한 비위에 코를 뚫는 향기를 맡은 듯 하구나.
이곳에 누가 내 예전 자취를 알랴
지금 남사에 명성과 영광이 있구나.

230) 개접: 開接. 글을 짓고 읽는 모임을 시작함을 의미한다.

231) 문자음: 文字飲. 시문을 짓고 논하면서 술을 마시는 것을 가리킨다.

동쪽 뜰에 있는 많은 화초 중에 해당화 같은 모양의 화훼가 한 종 있어서 해당화라고 생각하였다. 근래 꽃이 핀 후 자세히 보니 색은 진홍이고 향기는 넘쳐나서 해당화보다 나은 듯하였다. 이것이 바로 서향화(瑞香花)였다. 이것이 생각지도 않게 나오니 더욱 기이하고 사랑스러웠다. 내 춘우실(春雨室) 정원을 생각하면 일찍이 심었던 종자가 거의 다 찾아 모았다고 이를 만하였으나 유독 이 서향화만은 구하여도 얻지 못하여 항상 미련이 남았었다. 지금 이 땅에서 보게 되니 옮겨 심고 싶으나 멀어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말구에 언급하였다

東庭衆芳之中 有一種花卉狀若海棠 認以海棠矣 近日開花後諦視 則色殷紅香太溢 勝似海棠 茲乃瑞香花也 此出於非意 尤可奇愛 念我春雨室庭園 曾所栽種者 自謂搜括殆遍 而獨此瑞香花求之未得 心常係戀 今於此地見之 思欲移得而遠莫致之 故末句及之

紫袖碧裳冷艷枝
芳心帶露正紛披
名傳廬阜添花譜
韻入酣鄉佐酒卮
殿晚性疎桃李面
通幽香襲蕙蘭姿
白雲春雨將移得
老境長隨看愈奇

자주빛 소매 푸른 치마 차갑고 고운 가지
꽃술에 이슬 띠고 바야흐로 활짝 피었네.
이름을 여산에 전해²³²⁾ 화보²³³⁾에 올랐고
운치는 술 고장에 들어 술잔을 도왔네.
늦게 피는 성품 성겨 복사꽃 오얏꽃 얼굴이요
사무치는 향기 배어 혜초 난초 자태라네.
백운산 춘우실로 옮겨갈 수 있다면
늘그막 길이 따르며 볼수록 더욱 기이하리.

232) 이름을 여산에 전해 : 여산의 한 승려가 낮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강렬한 꽃 향기를 맡고 깨어나 그 꽃을 찾아낸 뒤 수화(睡花)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사람들이 상서로운 꽃이라고 하여 집에 심으면서 서향화(瑞香華)라고 불렀다고 한다. 《清異錄 睡香》

233) 화보 : 花譜. 사계절 피는 꽃들의 품종, 재배 방법, 역사 등을 실어놓은 책이다.

봄 사이 남산동으로부터 작약 한 뿌리를 캐와 동쪽 뜰에 심었다. 이 꽃은 심은 해 꽃이 피는 것이 기필하기 어려운 일이나 근래 한 송이가 피었고 꽃잎 역시 매우 컸다. 마침 주사 오경묵(吳敬默)이 만나러 왔으므로 내가 기뻐서 이 꽃을 광릉고사²³⁴⁾처럼 해당하게 하여 장난삼아 절구 한 수를 짓다

春間 自南山洞芍藥一本採來 栽于東庭 蓋此花當年種當年花 是難必之事 而近見一朵開着 瓣亦甚大 適會吳主事敬默來到 故余喜以此花當之如廣陵故事 戲題一截

南隣芍藥我庭今
日看花開托意深
一朵廣陵方有待
坡雲來坐喜傾心

남쪽 이웃 작약이 오늘 내 정원에 있으니
날마다 피는 꽃 보며 주는 마음이 깊네.
한 송이가 광릉에서 바야흐로 기다리니
동파의 구름 와서 앉아 기쁜 마음 기울이네.

앵두를 새로 맛보다 櫻桃嘗新

庭除崖蜜未全貧
培養曾多有本因
粉面花開如昨日
珠彈子結的今辰
香隨杏酪形形潤
色照珊瑚顆顆勻
僮輩擎盤驚老眼
丹砂得賞腹中春

뜰가 산꿀이 온전히 가난한 것은 아니니
북돋아 기른 것이 많은 것은 본래 이유가 있었네.
하얀 얼굴 꽃이 어제 피었더니
구슬 탄환 열매가 바로 지금 맺었네.
향기는 행락²³⁵⁾ 따른 듯 형태마다 윤기 있고
색깔은 산호 비춘듯 알알이 퍼져있네.
아이들이 소반 받들어 늙은 눈을 놀라게 하니
단사로 배 안에 봄을 얻었구나.

234) 광릉고사 : 광릉은 양주의 다른 이름으로, 작약이 유명하여 매년 오월 만화회(萬花會)를 개최하였다. 소동파가 양주에 부임하였을 때 이 만화회를 기대하였으나 만화회로 인해 농가가 피해를 입는다는 백성들의 호소를 듣고 만화회를 폐지하였다고 한다.

235) 행락 : 杏酪. 살구씨를 줄여 꿀을 섞은 음식이다.

장의 정태형(鄭泰衡) 대인의 수연(壽宴)에 감사하는 시[짧은 서문을 병기하다]
謝鄭掌儀泰衡大人壽宴詩[并小引]

전에 이미 환갑연 아침에 시를 부탁하였으므로 지금 졸렬하게나마 지었으나 늘그막 부질없는 흥이라 남해²³⁶⁾의 시축에 넣기에 부족하니 보고서 운색하기를 바랄 뿐이다.

親壽偕躋慶孰優	어버이 수연에 함께 오르니 누가 더 경사스러운가
高堂讌喜日悠悠	높은 당 안락함이 날마다 넉넉하구나.
重逢古甲天中節	옛 갑자 단오를 거듭 만나니
再始東溟屋裡籌	동명옥 ²³⁷⁾ 의 산가지를 다시 시작하네.
繞膝斑衣雙對戲	슬하 둘러 색동옷이 ²³⁸⁾ 쌍으로 재롱부리고
滿園花樹四回周	동산 가득 화수 ²³⁹⁾ 가 네 번을 감싸 도는구나.
需雲一朵來何自	수운 ²⁴⁰⁾ 한 떨기 어디로부터 왔나
醉把軒梅詠未休	취하여 난간 매화 잡고 그치지 말라 읊노라.

시경을 경각에 이루어 절구 1수를 쓰다
詩境刻成 題一截

新成詩境景全恢	새로이 시경을 이루니 경물이 온전히 넉넉하고
方便居然自我裁	편한대로 쉽사리 내가 지었네.

236) 남해 : 南陔. 《시경》 생시(笙詩)의 편명으로, 생시는 가사는 없어지고 제목만 남은 시를 가리킨다. 내용은 어버이를 봉양하는 효자의 심정을 노래한 것이다.

237) 동명옥 : 東溟屋. 해옥(海屋)과 같은 말로, 장수함을 가리킨다. 소식(蘇軾)의 글에 “바닷물이 말라서 뽕나무밭이 될 때면 내가 산가지 하나를 내려놓는데, 이래로 내 산가지가 이미 열 칸의 집에 가득 찼다.[海水變桑田時 吾輒下一籌 爾來吾籌 已滿十間屋.]”라고 하였다. 《東坡志林 三老語》

238) 색동옷이 : 초나라의 은사(隱士) 노래자(老萊子)를 가리킨다. 칠십의 나이에도 부모님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하여 색동옷을 입고 재롱을 떨었다고 한다.

239) 화수 : 花樹. 친족을 의미한다. 참삼(岑參)의 시 《위원외화수가(韋員外花樹歌)》에서 “그대의 집 형제를 당할 수 없나니 경과 여사, 상서랑이 출지어 있네. 조회에서 돌아와 꽃나무 아래 항상 객이 모이니, 꽃이 옥 항아리에 떨어져 봄 술 향기롭구나[君家兄弟不可當, 列卿御使尚書郎. 朝回花底恒會客, 花撲玉缸春酒香]”라고 하였다.

240) 수운 : 需雲. 잔치를 베푸는 것을 의미한다. 《주역(周易)》 《수괘(需卦)》의 상사(象辭)에서 “구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수괘이니, 군자가 이로써 마시고 먹으며 잔치하고 즐거워한다.[雲上於天需 君子以飲食宴樂]”라고 하였다.

此石此園俱在此	이 바위 이 동산이 함께 여기에 있으니
昔人何事泛看來	옛사람 무슨 일로 언뜻 보러 오겠는가.

최정성의 혼인상을 보고 입으로 절구 한 수를 짓다
見崔正星婚床 口拈一截

經年在侍作聰明	한 해 동안 모실 적에 총명했기에
情愛從來跡近生	사랑하여 내내 가까이 살았네.
今日齋床去把酒	오늘 혼인상에 가서 술을 잡으니
百年琴瑟福盈盈	백년토록 금슬 좋고 복이 가득하기를.

석성²⁴¹⁾의 맏아들 종현(琮鉉)이 와서, 영남의 보리가 크게 기근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근심스럽게 탄식하며 짓다
石醒允琮鉉來 聞嶺麥大歉 憂歎而作

新聞過半畢金生	새로운 소식 과반이 모두 김생 얘기니
今歲年荒嶺最嬰	올해 흉년은 영남이 가장 심하다네.
收不瓶儲廚火絕	추수해도 병에 쌓지 못하고 부엌에 불은 끊기고
價如樓屹市風驚	가격은 누각처럼 높고 시장에는 바람이 놀라네.
發棠舊事吾難復	당읍 창고 열던 ²⁴²⁾ 옛 일을 나는 다시 하기 어려우니
移粟良籌孰有營	곡식 옮길 좋은 계책을 누가 경영하라.
憶昔森然經歷地	옛날 주옥 지나온 땅을 떠올리고
興言南望倍關情	말을 하며 남쪽 바라보니 곱절은 마음에 걸리네.

241) 석성 : 김인길(金寅吉, 1842-?)의 호이다.

242) 당읍 창고 열던 : 창고를 열어 진휼함을 뜻한다. 《맹자》(진심 하(盡心下))에 “제나라가 흉년이 들자, 진진(陳臻)이 말하였다. ‘나라 사람들이 모두 부자(夫子)께서 장차 다시 당읍의 창고를 열어 주게 하실 것이라고 기대하는데, 이는 다시 할 수 없을 듯합니다.’[齊饑 陳臻曰 國人皆以夫子 將復爲發棠 殆不可復]”라고 하는 구절이 나온다.

손자 이영(怡泳)이 온 것을 기뻐하다 喜怡孫來

月姥星期冉冉回
阿孫喜見望中來
音容久阻方思爾
冠服新加似勝哉
世債何言垂老遇
天緣始覺在鄉開
眼看旭日行將近
送把東床壽福盃

월하노인 약속한 날이 흘러흘러 돌아와
기다리던 중 온 손자를 기쁘게 만났네.
얼굴 본지 오래되어 너를 생각하였는데
관복을 새로 입으니 훌륭하구나.
세상 빛을 어찌 늘그막에 만났다 말하라
하늘의 인연이 시골에서 열렸음을 깨달았네.
아침해에 떠날 차비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동상²⁴³의 장수와 복을 비는 술잔 잡아 보내네.

손자 이영의 납채 怡孫納采

歸雨翻晴動夕曛
西征星使擁如雲
繡函鄭重依珠蘊
畫燭煒煌替月紛
天上奇緣元有定
人間實事此堪欣
篆香未歇回音至
禮數其家盡足聞

비 그치고 반짝 개어 석양빛을 움직이고
서쪽 갔던 사신들이 구름처럼 둘러쌌네.
수놓은 함 정중하게 구슬 기대 쌓여있고
화촉은 휘황하게 달빛 대신 분분하네.
천상의 기이한 인연은 원래 정해진 법
인간세상 실제 일 되니 기쁘기만 하구나.
시간 알리는 향 다 타기 전에 답신이 이르니
그 집안 예법은 충분히 다 들었다오.

243) 동상 : 東床. 사위를 가리키는 말이다. 진(晉)나라 처감(郝鑾)이 왕씨(王氏) 가문에 사람을 보내 사윗감을 고를 적에, 오직 왕희지(王羲之)만은 아랑곳하지 않고서 동상에 누워 배를 내놓은 채 호떡을 먹고 있었으므로, 그를 사위로 삼았다고 한다.《世說新語 雅量》

손자 이영의 초례가 잘 이루어진 후 기뻐서 한 수 짓다[서문을 병기하다] 怡孫醮禮利成後 喜題一則[并引]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에 ‘혼인은 하늘이 정한다’고 하였으니 지금 손자 이영의 일을 보면 더욱 믿음직하다. 이영은 그의 부모가 늦게 낳아 가장 사랑을 받았으나 불행하게 아이가 될 나이에 갑자기 부모를 잃었다. 일찍 고아가 된 것이 가련하여 곱절은 항상 염려하였다. 그러나 외직에 있었기 때문에 돌보는 일 일체를 집안 식구에게 맡겼다. 어느새 상복 입는 기간이 끝나고 혼처를 구하였으나 한갓 헛된 혼처에 허비하여 또 일년을 보냈다. 이에 온 집안이 때를 놓칠까 근심하였다. 내가 이에 서울은 버리고 지냈던 지방에서 구하였다. 한 번 입을 열자 일이 순탄하게 성사되었으니 어찌 인간의 계획이 미칠 수 있는 것이겠는가. 이른바 하늘의 뜻이란 것이니, 하늘에서 이미 정해졌으나 정하지 않은 곳에서 구하였으니 어찌 성사될 리가 있었겠는가. 더욱이 신부의 현숙함이 바라던 바에 지극히 맞으니, 이승에 있는 사람들의 경사와 다행일 뿐 아니라 구천에서 알고 역시 어둡고 어두운 중에서도 기특함과 기쁨으로 응할 것이다. 다만 앞에 있을 혼례가 마음에 걸리는 바였다. 그러나 행사가 차례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나니 일종의 빛을 청산하여 상쾌하다.

家有晚生孫
童年背怙恃
零丁及勝冠
媒氏拙於理
既嫌無舅姑
或欠過年紀
嗟哉俗漸降
婚不揣人已
吾家世居京
姻婭盡洛里
何乃到今茲
反遭公路恥
舉家憂失時

집안에 늦게 얻은 손자가 있어
아이 적에 부모를 잃었네.
의지할 데 없이 관례 치를 나이 되었으나
중매장이 중매가 서툴렀네.
시부모가 없는 것이 이미 싫은데
간혹 과년한 나이가 흠이 되었네.
아! 세속이 점점 떨어져
혼인에 사람을 따지지 않네.
우리 집은 대대로 서울에 사니
사돈은 모두 서울에서 맺었네.
어찌 지금에 이르러
도리어 벼슬길 부끄러움을 만났나.
온 집안이 때를 놓칠까 근심하여

聚首費虛擬
時余在彭城
飜悟一張弛
偉哉方碧下
爲我發縱指
一使纜去來
事事如相俟
星期旣云吉
禮數亦孔美
萬口賀婦賢
我心充然喜
向何多枉筭
天緣乃在此
自有定嘉耦
人苦不知爾
世事少圓滿
渠親不見是
惟願從茲往
床琴偕百禩

머리 맞대고 헛된 혼처에 낭비했네.
이때 내가 팽성에 있어
돌연 깨달아 한 번 장이²⁴⁴하였네.
위대하구나, 방벽하²⁴⁵여!
나를 위해 발종²⁴⁶하여 가리켜 주었네.
심부름꾼 하나가 겨우 오갔으나
일마다 기다린 듯 하였네.
흔레일이 이미 길일이라 하고
예수 역시 매우 훌륭하였네.
많은 사람들이 신부가 현숙하다 축하하니
내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였네.
지난번에 어찌 그리 그릇된 혼처가 많았는지
하늘의 인연이 여기에 있었구나.
정해진 가당한 짝이 절로 있으나
사람은 괴롭게도 알지 못했을 뿐,
세상일 원만함이 적으니
그 부모가 이를 보지 못하네.
오직 바라건대, 이로부터
거문고 상에 두고²⁴⁷ 온갖 제사 함께 하리.

탄천제에서 물고기잡이를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그냥 일을 읊다
灘淺堤觀獵歸路 因卽事賦得

守株三檀五柳
官閑日長如年
卷中昏拭花眩
案上香消篆烟
柳友能通犀點
灘池爲設魚筌
彈冠步出門外
曳杖行臨澤邊
樂意莫問濠上
風流却憶斜川
食者雖云甚美
得之未必獨全
荏苒行將西夕
逍遙薄言回旋
去留自任筇屐
散頒隨例針錢
酒解長卿消暍
石評太湖先天
薄暮歸來太守
平地高臥神仙

세 그루 박달나무 다섯 그루 버드나무 그루터기 지키니
관아 한가하여 하루가 일년처럼 길구나.
책이 잘 안 보여 어지러운 눈을 비비고
서안 위 시간 재는 향은 연기로 사라지네.
유우(柳友)²⁴⁸가 내 마음을 통할 수 있는지
탄천제에 물고기 잡을 통발을 설치했네.
갓을 털고 걸어서 문밖으로 나가서
지팡이 끌고 가 못 주변에 다가갔네.
즐거운 뜻은²⁴⁹ 해자 위에서 묻지 말라
풍류에 도리어 사천²⁵⁰을 떠올리네.
먹은 것이 비록 매우 맛있다 하여도
잡은 것을 홀로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은 아닐세.
하염없이 흘러 석양이 되려하니
소요하는 잠깐 사이에 돌아가네.
갈지 말지 지팡이와 나막신에 맡기고
나누어서 전례 따라 동전을 찢러주네.
술은 장경²⁵¹의 소갈증을 해소하고
바위는 태호²⁵²의 전생을 평하네.
황혼 무렵 돌아온 태수는
평지에 높이 신선처럼 누웠네.

244) 장이 : 張弛. 당겼다 풀었다 잘 조절함을 가리킨다. 《예기》〈잡기(雜記)〉에 “활을 당기기만 하고 늦추지 않듯이 백성을 오랫동안 부리기만 하면 문왕, 무왕일지라도 다스리지 못하고, 활을 늦추기만 하고 당기지 않듯이 백성을 안일에 빠지게만 함은 문왕, 무왕도 하지 않는 것이니, 한 번 당기고 한 번 늦추는 것이 문왕, 무왕의 도이다.[張而不弛 文武不能 弛而不張 文武不爲 一張一弛 文武之道也]”라고 하였다.

245) 방벽하 : 方碧下. 방대철(方大輻). 평택 관아의 관원으로 보인다.

246) 발종 : 發縱. 본래 사냥개를 풀어 놓아 방향을 지시하여 짐승을 쫓는 것을 가리킨다. 한고조(漢高祖)가 논공행상을 할 때 “제군들은 달려가 짐승을 잡은 것뿐이니 공이 개가 한 일에 해당하고, 소하는 개를 풀어놓아 짐승이 있는 곳을 가리켜 보여주었으니 공이 사람이 한 일에 해당한다[今諸君徒能得走獸耳 功狗也 至如蕭何 發縱指示 功人也]”라고 하였다. 《史記 卷53 蕭相國世家》

247) 거문고 상에 두고 : 부모 잃은 슬픔을 잊는 것을 가리킨다. 친상(親喪)의 대상일(大祥日)에 슬픔을 절제하기 위하여 거문고를 탔다고 한다.

248) 유우(柳友) : 유태경(柳泰卿)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249) 즐거운 뜻은 : 물고기의 즐거움을 가리킨다. 장자가 친구인 혜시(惠施)와 함께 호량(濠梁)을 거닐다가 물고기가 한가롭게 노니는 것을 보고 “이것이 물고기의 즐거움이다.[是魚之樂也]”라고 하자, 혜시가 “그대는 물고기가 아닌데, 물고기의 즐거움을 어떻게 안단 말인가.[子非魚 安知魚之樂]”라고 반박하여 장자가 대답한 것이 《장자》〈추수(秋水)〉에 실려 있다.

250) 사천 : 斜川. 도연명이 나이 37세 되던 401년 정월 5일에 이웃사람 두세 명과 함께 울리(栗里)와 가까운 사천(斜川)에 나가 노닐 적 이 있는데 이때 〈유사천(遊斜川)〉이라는 시를 지었다.

251) 장경 : 長卿. 한나라 문장가 사마상여(司馬相如)의 자. 지병으로 소갈증을 앓았다고 한다.

252) 태호 : 太湖. 중국 소주부(蘇州府)에 있는 호수 이름. 이 호수에서 나는 돌이 산봉우리, 골짜기, 동굴 등 다양한 모양을 하고 있어 정원석이나 분재에 많이 쓰인다.

可喜一時佐味
且堪今夕安眠
此間余有公事
老去謾興詩篇

한 때 맛을 도운 것이 기쁠만 하고
게다가 오늘밤 편안히 자겠구나.
요사이 내게 공사가 있어
늙은이 부질없는 흥을 시편에 쓰네.

가뭄 걱정 憫旱

念余髮種種
半是白雲壇
兜率捫星屹
餘航沐露寒
比年年失稔
民食不堪難
金神何負爾
大麥又無秋
那將息鼎沸
惟雨慰黎憂
奈茲畎畝日
旱魃虐斯怒
風伯戲加鞭
雷師寂斂鼓
良苗何地托
大地一焦土
陰雲既未靈
杲日更辛苦

듬성듬성한 내 머리털 생각하니
반은 하얗게 우단(雲壇)²⁵³⁾이 되었네.
도솔산은 별 닿아 우뚝하고
여항산은 이슬에 씻어 서늘했네.
근래 해마다 이삭이 패지 않으니
백성이 먹는데 어려움을 감당하지 못하네.
금신²⁵⁴⁾은 어찌 저버렸는지
보리가 또 익지 않았네.
어찌하면 쉬는 술을 들끓게 하라
오직 비만이 백성 근심 위로하리.
저 논두렁 밭두렁 햇볕을 어찌랴
가뭄 귀신 포악하여 이리 노했네.
풍백은 장난삼아 채찍을 더하고
뇌사는 적막하게 북을 거두었네.
좋은 모를 어디에 심으랴
대지가 초토화가 되었구나.
먹장구름이 이미 신통치 못하니
밝은 해가 더욱 고통스럽구나.

253) 우단(雲壇) : 기우제를 지내는 높은 대이다.
254) 금신 : 金神. 서방의 신, 즉 가을의 신을 가리킨다.

天道本幽遠
茫茫不可諶
羣生積殃咎
邱壑行將臨
百里司民命
憂懼熱中腸
圭璧舉乃已
復恐謀不臧
近聞西人說
旱潦是天常

천도는 본래 심오하고 심원하니
아득하여 미답지가 않네.
몹 백성이 재앙을 쌓으니
심산유곡으로 가려 하네.
백 리 땅 백성 목숨을 맡아
걱정과 두려움에 창자가 타들어가네.
규벽²⁵⁵⁾을 바쳤으면 그만이나
계책이 좋지 않을까 다시 걱정일세.
근래 서쪽 사람 얘기 들으니
가뭄과 장마는 하늘의 상도라 하네.

단향목 아래 괴석을 두고 운을 잡아 “수(誰)” 자를 얻다 香樹下置怪石 拈韻得誰字

一樹香前一石隨
香香石石兩相奇
間依白傅排三逕
數叶黃岡擅六宜
今日寒山堪可語
千秋彭澤足爲師

단향목 한 그루 앞에 바위 하나 딸려서
향기는 향기롭고 바위는 바위답게 양쪽이 기이하네.
그 사이 백부²⁵⁶⁾를 따라 세 오솔길²⁵⁷⁾ 배치하고
자주 황강에 맞추어 여섯 가지 마땅함²⁵⁸⁾을 만들었네.
오늘날 한산²⁵⁹⁾을 말할만 하고
천 년 팽택을 스승 삼기 족하네.

255) 규벽 : 圭璧. 신에게 바치는 예물을 의미한다. 신에게 예물로 바치는 옥으로 여기서는 기우제(祈雨祭)를 뜻함. 《시경(詩經)》 〈운한(雲漢)〉에,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음이 없고 이 희생을 아낌이 없어 규벽을 이미 다 바쳤거늘, 어찌 나의 호소를 들어주시지 않나? [靡神不舉 靡愛斯牲 圭璧既卒 寧莫我聽]”라고 하였다.

256) 백부 : 白傅. 일반적으로 만년에 태자소부(太子少傅)를 지낸 당나라 시인 백거이(白居易)를 가리킨다. 여기에서는 저자가 잘못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57) 세 오솔길 : 三逕. 서한의 장후(蔣詡)가 은거한 후 오솔길 세 개를 만들어 절친한 친구들과만 교류했다고 한다. 도연명의 〈귀거래사(歸去來辭)〉에 “삼경은 황폐해졌어도, 술과 국화는 여전히 남아 있네.[三逕就荒 松菊猶存]”라는 구절이 나온다.

258) 여섯 가지 마땅함 : 송나라 왕우칭(王禹偁)의 〈황강죽루기(黃岡竹樓記)〉에 “여름에는 소나기에 마땅하니 폭포수 소리가 나고, 겨울에 함박눈이 마땅하니 옥이 부서지는 소리가 나고, 거문고 타기 마땅하니 꼭조가 조화롭게 퍼지고, 시를 읊기 마땅하니 시운이 청절하고, 바둑 두기 마땅하니 바둑돌 소리 쩡쩡 나고, 투호하기 마땅하니 화살소리 쟁쟁하니 모두 죽루가 돕는 바이다[夏宜急雨 有瀑布聲 冬宜密雪 有碎玉聲 宜鼓琴 琴調和暢 宜詠詩 詩韻清絕 宜圍棋 子聲丁丁然 宜投壺 矢聲錚錚然 皆竹樓之所助也]”라고 하였다.

259) 한산 : 寒山. 한산자(寒山子)라는 시승이 살았던 한암(寒巖)이다. 그의 시에 “사람들은 한산 가는 길을 묻지만, 한산의 길은 통하지 않네[人間寒山道 寒山路不通]”라는 구절이 나온다.

自憐玆怪青州舊
採得申勤太守誰

진기하고 기괴한 청주의 옛 것²⁶⁰ 절로 어여뻐
캐서 얻느라 정성 다한 태수는 누구인가.

일섭원
日涉園

吾以錫名日涉園
推思種種本原存
剗碑堪與明疑信
醉石茲從慕扳援
寓得十宜光景好
排張羣蒔起居繁
閒中取趣兼斯得
叙事集成叢瑣言

내가 붙인 이름 일섭원은
미루어 생각하면 가지가지 본원이 보존되어 있네.
깎은 비석은 의심 밝혀 믿음을 줄만 하니
취석은 여기에 사모하여 끌어온 이름이네.
우연히 십의대 얻어 광경이 좋으니
온갖 화초 펼쳐놓아 일상이 변화하네.
한가한 중 취미에 이것을 곁했으니
서술해 모아서 총쇄를 만들었네.

가뭄 끝에 비를 만나 매우 기뻐 입으로 읊다
旱餘遇雨喜甚 口占

醞釀藏來人不知
雲微風冷似常時
忽聞珠落鳴荷葉
更看烟沉碎柳枝
若使既張成慰滿
何難盡瘁變雍熙
民憂較甚相如暘
始得青山一展眉

빚어내 숨겨 와서 사람들이 몰랐으니
구름 얇고 바람 서늘해 평상시와 같았네.
홀연 구슬이 떨어져 연잎을 울려
다시 보니 연기 가라앉아 버들가지를 부수네.
이미 펼쳤다면 위로가 가득하였을 텐데
다 초췌한 뒤 화락함으로 변하는 것이 어찌 어려우랴.
백성 근심 심하여 사마상여 소갈병 같았다가
비로소 청산이 눈썹 한 번 펴게 되었네.

260) 청주의 옛 것 : 기괴한 돌을 가리킨다. 《서경》 우공(禹貢)에, 청주(靑州)의 공물 가운데 괴석(怪石)을 언급하였다.

병으로 누운 정창녕을 위문하러 갔다가 달빛 받으며 돌아오는 길에 입으로 읊다
往問鄭昌寧病臥 帶月歸路口號

昏鴉飛盡桂陽天
策策筇鞋共後前
夕氣含風松際嫩
露華承月草頭鮮
烟村訪友憐多病
灌圃勞民恨少錢
不是官貧無代步
猶堪脚力薄言旋

저녁 갈까마귀 다 날아간 계양(桂陽)의 하늘
또각또각 지팡이와 신발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저녁 기운 바람 머금어 소나무 가에 어여쁘고
이슬 꽃은 달빛 받들어 풀 끝에 곱구나.
연기 오르는 마을에 벗 찾으니 많은 병이 안쓰럽고
채마밭 물대느라 고생하는 백성은 적은 돈이 한스럽네.
관아가 가난해 가마를 못탄 것이 아니라
다리 힘이 잠시 돌아가는 길 감당할만 해서일세.

후원의 살구가 새로 익어서 태경에게 따서 가르게 하고
그 씨로 죽을 만들어 읊다
後園杏子新熟 屬泰卿摘取派分 以其仁作粥有吟

宜花宜果又宜仁
一物兼三杏最眞
紅紫庭院粧錦片
甘酸牙頰動香瓊
匣中剖出團團子
鼎裡煎來緊緊津
不是奇方資飲啜
人言養得老精神

꽃도 좋고 열매 좋고 씨까지 좋아
한 물건에 셋을 곁했으니 살구가 가장 진귀하네.
정원을 붉게 비단 조각으로 장식했다가
달콤새콤 입안에 진귀한 향기 요동치네.
껍질 갈라 둥근 씨를 발라내어
솥 안에 주의 깊게 잘 달이네.
기이한 방법으로 먹고 마시려는 것이 아니라
늙은 정신 보양할 수 있다 사람들이 말하네.

달빛이 정말로 아름다워 석성, 태경과 함께 배회하다가 시를 지으려고 앉아서 술을 가져오게 하여 흥을 풀다

得月色政佳與石醒泰卿盤桓 因坐詩境 命酒遣興

良宵步月上高臺	좋은 밤 달빛 속을 거닐다가 높은 대에 올라
故遣風流酒作媒	짐짓 풍류를 풀어내려 술을 매개로 삼네.
槐竹一邊三影寫	해나무 대나무 한쪽에 세 그림자 쏟아지니
却疑千載李仙來	천년 전 이태백이 왔나 의심하였네.

이날 저녁 석성이 달빛 아래를 걸으며 서성이다가 취석에 올라 오도카니 앉아서, “석성이 취석에 앉았네.”라고 하였다. 그 말이 흡사 장난 같았으니 서로 상처되어 짝이 맞지 않는 것이 실로 재미있었다. 내가 “석성이 취석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곧 서로 짝이 맞는다.”라고 하였다. 나 때문에 사람과 바위가 나란히 짝이 맞았으니 어찌 그 사이 한 마디 전달할 말이 없겠는가? 석성의 시구로 인해 시편을 이루다

是夕石醒步月逍遙 登醉石塊坐曰石醒坐醉石 其言似戲而實喜其相值之不偶也 余謂以石醒遇醉石 直是兩相遇而已 以余則并人與石而遇之 何可無一轉語於其間乎 因石醒句而成篇

石醒坐醉石	석성이 취석에 앉아
千載挹陶襟	천 년 전 도연명의 회포를 품었네.
蒞識酒中趣	채인 ²⁶¹ 이 술 가운데 지취를 알아
自斟還自吟	스스로 짐작하여 스스로 읊네.

261) 채인: 蔗人, 오형묵의 호이다.

뜰 앞 분지의 연꽃에 수시로 물을 담아 마를 걱정을 면할 수 있었는데 근래 꽃을 만들기 시작하니 사랑스럽다

庭前盆池蓮 隨時盛水 免得旱憂 近始作花 可愛也

蓮池用意蓋云深	연못에 신경을 써 깊게 하라 했더니
可愛花開始見今	사랑스러운 꽃이 피어 지금 처음 보았네.
亢旱邇來憂孔棘	근래 큰 가뭄이 모질까 걱정하였더니
無心爲汝一豪吟	무심하게 너를 위해 한 번 호탕히 읊노라.

서울로 돌아가는 손자 이영을 전송하고 홀로 소오현에 앉아 있으니 매우 무료하여 입으로 읊시 한 수를 짓다[서문을 병기하다] 送怡孫還京獨坐嘯傲軒 懷甚無聊 口占一律[并引]

내가 지방관직을 수십 년 하면서 집안 식구를 따르게 한 적이 없었으니 팽택으로부터 천 년 뒤에 도연명을 배우면서 터득한 것이 바로 이 한 가지 일이었다. 올여름에 셋째 손자 이영이 혼사 때문에 보름 남짓 와서 머물렀다. 곁에서 공손히 따르고 아침저녁으로 종종 걸음치며 모시는 것을 보니 할아버지의 애뜻한 정이 솟아나서, 비로소 세상에 지방 수령을 하면서 아들과 손자를 데리고 가는 자가 있는 것 역시 인지상정이 본래 그러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돌아보면 이번에 가뭄 걱정이 극심하여 모든 생각이 식은 재가 되어버려, 버리기 어려워하는 사랑이 있을 겨를이 없었다. 이제 겨우 서울 집으로 돌아가라 명하고 유태경 벗에게 함께 가달라 부탁하였다. 이후로 쓸쓸한 외딴 관사에서 오도카니 홀로 앉아있으니, 늙은 마음이 걱정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 버려두었던 혀를 연주하여 스스로 회포를 풀 뿐이다.

天涯久作獨孤人	하늘 끝에 오랫동안 고독한 사람이 되었다가
喜得阿孫洽一旬	기쁘게도 손자가 열흘을 함께 하였네.
幾度含飴慈愛篤	몇 번이나 엿을 물리니 자애로움이 돈독하고
纔經撫棗禮儀彬	폐백 겨우 지나니 예의가 잘 어우러졌네.
容隨家累非吾素	가족 딸려 오는 것이 내 평소 하는 일이 아니나
牽動羈懷爲汝新	이끌리는 나그네 회포가 너 때문에 새로워졌구나.

萬事忘情眞太上 만사에 정을 잊은 것이 진실로 최상이라
無端去住費心神 이유없이 가서 살며 심신을 허비하네.

부용산에 올라 입으로 “생(生)” 자 운으로 시를 짓다
登芙蓉山 口拈得生字

芙蓉秀碧掌中擎 부용산 빼어난 푸름을 손바닥 안에 받들고
每一登來輒有情 한 번 오를 때마다 정이 드는구나.
草似細氈團可坐 풀은 가는 모포같이 둥글어 앉을 만하고
松爲寶蓋蔭偏清 소나무는 일산이 되니 자리가 유독 맑구나.
峰回無盡歐陽興 봉우리 돌아가니 구양수의 흥이²⁶²⁾ 끝이 없고
峴小猶傳叔子名 현산이 작아도 숙자의 이름²⁶³⁾을 전하네.
只恨岳靈今亦老 다만 한스러운 것은 산신령이 지금 역시 늙어서
不將雲雨沃蒼生 구름과 비로 창생을 적셔주지 않는 것일세.

철로를 수축하는 것을 구경하다가 비를 만나 돌아와서 그 일을 읊다
觀翫鐵路修築 遇雨而還 賦其事

古蹟尙窮搜 옛자취를 여전히 다 찾고 있으나
卽事可無視 지금 일을 무시할 수 있으랴.
欲審鐵路形 철로의 형태를 살피고자
拂袖東征指 소매 떨쳐 동쪽으로 향하였네.
時天雲氣蒸 이때 하늘은 구름 기운이 찌는 듯
童孺驗坵蟻 아이들이 개미독으로 징험하네.

262) 구양수의 흥이 : 송나라 문장가 구양수(歐陽脩)가 지은 <취옹정기(醉翁亭記)>에 “봉우리 돌아 길이 굽어서 있는 날개를 편 듯한 정자가 샘가에 있는데 바로 취옹정이다(峰回路轉 有亭翼然 臨于泉上者 醉翁亭也)”라는 구절이 나온다.

263) 숙자의 이름 : 숙자(叔子)는 진(晉)의 양호(羊)의 자이다. 그가 선정을 베풀어 그가 죽은 후 오의 백성들이 그의 덕을 추모하여 현산(峴山)에다 비를 세웠는데, 그 비를 바라보는 자들이 모두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晉書 卷34)

人以雨窘嫌 사람들이 비 때문에 근색한 것을 싫어하나
我以雨沾喜 나는 비에 젖는 것을 기뻐하네.
越浦遇霏微 나루 건널 때 부슬부슬 내리서
入店暫休止 점사 들어가 잠시 쉬었네.
少間更起程 잠깐 있다가 다시 떠나니
鐵道役所是 철도역소가 있는 곳일세.
彼人執箠鞭 그들은 채찍을 잡고
我人把鍤子 우리는 삽을 들었네.
沿邊沃壤田 주변 따라 비옥한 밭이
片片入築壘 조각조각 쌓는 보루로 들어가는구나.
不知幾許年 몇 년 쯤인지 알 수 없으니
車轂飛也似 수레 바퀴 나는 것과 같네.
東去數武寬 동쪽으로 몇 발자국 너넉한 곳에
新屋白板以 흰 널판으로 새 집을 지었네.
鏹鋸役方張 흙손과 톱으로 공사가 펼쳐지니
聞道會社擬 회사와 같은 것이라 들었네.
巡回一周觀 한바퀴 죽 둘러보니
結構亦云侈 짓는 것 역시 사치스럽다 할 만하네.
西川聞去京 니시카와가 서울을 떠났다 들었는데
何必才良里 하필이면 재량리라네.
雨昏日且西 비내려 어둑한데 해도 서쪽으로 기우니
行將歸去矣 떠나서 돌아가려 하네.
何處是停車 어느 곳에 수레를 멈추나
過路近尺咫 지나는 길이 가까이 지척이라네.
歷入一板扉 거쳐서 들어간 널판 문 하나
主云德三氏 주인은 도쿠조 씨라 하네.
款款如舊親 친구처럼 다정하여
出待茶酒美 나와 대접하니 차와 술이 맛있구나.
飲戶殊淺深 주량은 많고적음이 다르고
人多我一已 남은 많고 나는 하나일세.

사람들은 비 때문에 근색한 것을 싫어하나
나는 비에 젖는 것을 기뻐하네.
나루 건널 때 부슬부슬 내리서
점사 들어가 잠시 쉬었네.
잠깐 있다가 다시 떠나니
철도역소가 있는 곳일세.
그들은 채찍을 잡고
우리는 삽을 들었네.
주변 따라 비옥한 밭이
조각조각 쌓는 보루로 들어가는구나.
몇 년 쯤인지 알 수 없으니
수레 바퀴 나는 것과 같네.
동쪽으로 몇 발자국 너넉한 곳에
흰 널판으로 새 집을 지었네.
흙손과 톱으로 공사가 펼쳐지니
회사와 같은 것이라 들었네.
한바퀴 죽 둘러보니
짓는 것 역시 사치스럽다 할 만하네.
니시카와가 서울을 떠났다 들었는데
하필이면 재량리라네.
비내려 어둑한데 해도 서쪽으로 기우니
떠나서 돌아가려 하네.
어느 곳에 수레를 멈추나
지나는 길이 가까이 지척이라네.
거쳐서 들어간 널판 문 하나
주인은 도쿠조 씨라 하네.
친구처럼 다정하여
나와 대접하니 차와 술이 맛있구나.
주량은 많고적음이 다르고
남은 많고 나는 하나일세.

同舟載胡越
 談屑何密邇
 其意亦可感
 別語中自揣
 石翁莫愁漣
 有車一彼此
 嘉哉朴浦監
 午啖非所使
 浦口落潮痕
 舟子不可艤
 擡輿涉薄言
 泥融欲滅趾
 借問徒步人
 何如坐以俟
 人情大抵同
 甘苦各自揆
 辱或轉成榮
 臥亦不如起
 快哉今日霖
 往迎不辭死
 仁天無盡劉
 普澤須與被
 歸臥嘯傲軒
 高吟一枕倚
 惟願大滂沱
 蒼生舞化裏

같은 배에 호월²⁶⁴⁾을 실었으나
 이어지는 이야기 어찌 그리 친밀한지.
 그 마음 역시 감동할 만하니
 이별 말 가운데 스스로 헤아리네.
 석성 노인은 진창을 근심 마오
 수레가 있는 것은 피차가 같다오.
 가상하구나, 박포감이여
 점심상은 시킨 것이 아니었네.
 포구에 썰물의 흔적이 있어
 뱃사람이 배를 댈 수가 없구나.
 가마 메고 건너는 사이
 진창에 빠져 발이 없어지려 하네.
 묻노니, 걸어서 가는 사람들이여
 앉아서 기다린들 어떠리.
 사람 마음 대체로 같아서
 즐거움과 고생은 각자 따지네.
 욕됨이 혹 바뀌어 영광이 되고
 누워있는 것 역시 일어나는 것만 못하네.
 상쾌하구나, 오늘 장맛비
 맞이하러 가는 데 죽음도 사양하지 않으리.
 어진 하늘은 다 죽이지는 않으니
 두루 은택이 잠깐 사이 미쳤네.
 돌아와 소오현에 누워
 베개에 의지에 높이 읊조리네.
 오직 원하노라, 쏟아지는 빗속에
 창생이 춤추게 되기를.

학이 올면 반드시 비가 온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과연 징험하였기에
 그 일을 시로 짓다[서문을 병기하다]
 鶴鳴必雨今果驗矣 因賦其事[并引]

근래 가뭄 중 위로 해, 별, 바람, 구름에서부터 아래로 곤충과 새에 이르기까지 미루어
 비가 올 기후를 점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지 않은 것이 없으나 모두 막연하여 알려주는
 것이 없었다. 아마 있을 텐데 사람의 통찰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20일 저녁 홀연 학
 한 마리가 날아 올면서 지나갔다. 내가 기뻐서 석성에게 말하기를, “내가 학이 올고서도
 비가 오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없으니 비가 이번에 올 것이다.”라고 하였다. 며칠 기다려
 도 비가 오지 않아 또 석성에게 말하기를, “날짐승도 갑오경장(甲午更張)을 했나 보네.”
 라고 하여 서로 한번 크게 웃었다. 그후 사흘이 지나고서 과연 이번 비가 내렸으니, 학의
 울음이 영험하다. 이로 인해 시 삼첩을 읊어 기쁨을 기록하다

涎蝸無驗潤龜癡
 天道幽深未可窺
 獨有前宵一奇事
 飛鳴老鶴向西之

침흘리는 달팽이 효험 없고 젖은 거북 어리석으니
 천도가 심원하여 엿볼 수가 없구나.
 유독 지난밤 기이한 일 한 가지가 있어
 날면서 우는 늙은 학이 서쪽 향해 갔다네.

懲羹餘悸半疑然
 莫是飛禽亦異前
 始識鶴非欺我者
 今朝果見雨連天

지나치게 경계한 나머지 두려워 반쯤 의심하였으나
 날짐승 역시 전과 달라진 것은 아니었네.
 비로소 학이 나를 속이지 않았음을 알았으니
 오늘 아침 과연 하늘에 이어진 비를 보네.

鵠鵝鵝鵝謾自喧
 何如彼鶴警人昏
 可憐郡舊多神樹
 借汝年年長子孫

빼꾸기 올빼미 부질없이 시끄러우니
 혼미한 인간을 경계하는 저 학은 어떠한가.
 가련하다, 고을에 옛날부터 신령 나무 많았으니
 너를 빌려 해마다 자손을 이어가도록 하리.

264) 호월: 胡越. 중국 북방의 호와 남방의 월을 말한다. 서로 거리가 아주 먼 지역이다.

죽성(竹醒) 정은교(鄭閔敎)가 내방하여 석성과 함께 운을 잡아
절수 세 수를 짓다
鄭竹醒閔敎來訪 共石醒拈韻三截

契舍相從趣志同 사귄 땀어 서로 따라 지취가 같으니
笑談如得坐春風 봄바람 속에 앉아있는 듯 담소하네.
靜思更有難言妙 고요한 생각은 말하기 어려운 묘함이 더욱 있어
竹石香深鼻觀通 대나무와 바위에 향기 깊어 코끝을 통하네.

居然合席喜生同 어느새 합석하니 기쁨 생기는 것이 같고
語到玄虛有晉風 말이 현허에 이르자 진나라 풍모가 있구나.²⁶⁵⁾
舉世盡從愁裡過 온 세상이 모두 근심 따라 지나가니
誰言大道三杯通 큰 도가 석 잔 술에 통한다²⁶⁶⁾ 누가 말하라.

陽春白雪寡和同 양춘백설²⁶⁷⁾은 화답한 이가 적어
爽朗心期林下風 마음을 상쾌하게 하니 임하의 풍도²⁶⁸⁾일세.
夜雨連床燈半壁 밤 비에 침상 나란히 하고 벽에 등불 비추니
掛醪剪韭興堪通 술 거르고 부추 베어 흥을 통할 만 하네.

삼첩 시에 화운하여 죽성 사백에게 주다
和三疊詩 贈竹醒詞伯

念我作文凡不同 내가 짓는 글을 생각하면 같지 않으니
尋常長憶古人風 심상하게 고인의 풍모를 길이 기억하네.

265) 진나라 풍모가 있구나 : 진나라 도연명의 풍모가 있음을 의미한다.

266) 큰 도가 석 잔 술에 통한다 : 이백(李白)의 시 <월하독작(月下獨酌)>에 “석 잔의 술에 대도가 통하고, 한 말의 술에 자연과 합한다.[三杯通大道 一斗合自然]”라고 하였다.

267) 양춘백설 : 陽春白雪, 초(楚)나라의 가곡인 양춘곡과 백설곡을 가리킨다. 곡조가 매우 고상하여 청화(唱和)하는 사람이 아주 드물었다고 한다. 전하여 아주 뛰어난 시가(詩歌)를 뜻한다.

268) 임하의 풍도 : 담박한 풍도를 가리킨다. 진(晉)나라 여류 문인인 사도은(謝道韞)에 대해 “정신이 초일하고 명량하여 임하의 풍기가 있다.[神情散朗 故有林下風氣]”고 하였다.

片牘無如今看面
却喜靈犀一點通

편지가 지금 얼굴 보는 것만 못하니
한 점 영서²⁶⁹⁾가 통한 것이 기쁘구나.

此日盍簪歡笑同
詩如花圃對春風
方知筆下文章力
奪却人間造化通

이날 서로 모여 함께 즐겁게 웃으니
시가 꽃밭에서 봄바람 대한 것 같네.
붓 아래 문장의 힘을 바야흐로 알겠으니
인간 세상 조화가 통하는 것을 빼앗았네.

白頭辛苦醉醒同
文氣渾渾濂洛風
一道胸中經濟策
有爲留待玉階通

흰머리로 고생하는 것은 취하나 깨나 같으니
문장 기운 원만하여 염락의 풍모²⁷⁰⁾라네.
홍중에 있는 하나의 도는 세상을 살릴 계책이니
훌륭한 일 하며 머물러 옥계²⁷¹⁾가 통하기를 기다리리.

초경일²⁷²⁾에 석성, 죽성과 함께 짓다
初庚日 與石醒竹醒共賦

六尺簞鋪衣葛成
披襟露頂故無情
雨來蓮葉跳珠走
風動竹林噓籟生
園榭寧教專杜甫
杯盤不使把淵明

여섯 자 샷자리를 펴고 갈옷을 입으니
가슴 풀고 정수리 내놓는 것에는 무정하구나.
비가 연잎에 내리니 구슬이 흘러 달려가고
바람이 대숲을 움직이니 툽소 소리가 생기네.
동산 정자를 어찌 두보만 독점하랴
술상은 도연명에게 잡게 하지 않으리.

269) 영서 : 靈犀. 두 사람의 생각이 서로 통함을 비유하는 말이다. 영묘(靈妙)한 무소불이 한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어 양방이 서로 관통한다고 한다.

270) 염락 : 濂洛. 도학자를 가리킨다. 염계(濂溪)의 주돈이(周敦頤), 낙양(洛陽)의 정이(程頤), 관중(關中)의 장재(張載), 민중(閩中)의 주희(朱熹)를 통칭한 염락관민의 준말이다.

271) 옥계 : 玉階. 궁궐의 섬돌을 가리킨다.

272) 초경일 : 初庚日. 입추로부터 첫 번째 경일(庚日), 즉 말복을 가리킨다.

忽看眞率遺心貺 홀연 진솔한 마음의 선물 주는 것을 보니
何必品題得細評 하필 작품에 세세한 비평을 하라.

전운을 또 차운하다
又疊前韻

趙日傳霖片刻成 조일²⁷³이 전한 장맛비가 잠깐 사이 이루어지니
天心委曲答人情 천심이 몸을 굽혀 인정에 답하였네.
一涼隨意恩非淺 한가닥 시원함이 뜻을 따르니 은혜가 얕지 않고
萬物回蘇潤自生 만물이 소생하여 스스로 적셔 살아나네.
葉促槐頭陰正暗 잎은 해나무 머리를 재촉해 그늘 정말 어둡하고
花繁榴眼火偏明 꽃은 석류 눈에 번성하여 불꽃처럼 밝구나.
良辰取醉君能否 좋은 때 취하는 것 그대는 가능한가
我有園臺樂志評 내게 정원과 대가 있어 즐겨 평을 기록하리.

소오현에서 죽성, 석성 두 사백과 함께 “유(幽)” 자 운을 잡아 짓다
嘯傲軒 共竹石兩詞伯 拈幽字

多生各自抱懷幽 수많은 생애 각자 그윽한 회포 품으니
逸氣風騷盡白頭 빼어난 기운 시문 짓느라 흰머리가 다 되었네.
名號舊聞成契合 이름과 호는 예전에 듣다가 사귀를 맺으니
詩文茲有證賡酬 시문이 여기에 있어 창수를 증명하네.
陶謝如今非獨步 도사²⁷⁴가 지금이라면 홀로 걸지 않으리니
鄭金堪可與同遊 정김²⁷⁵이 함께 노닐 만 하였으리.

273) 조일 : 趙日. 따뜻하기도 하고 뜨겁기도 한 태양을 가리킨다. 춘추시대 진(晉)나라 가계(賈季)가 “조치는 겨울날의 태양이요, 조순은 여름날의 태양이다.[趙襄冬日之日也 趙盾夏日之日也]”라고 평가하였다. 《春秋左傳 文公7年》
274) 도사 : 陶謝. 진(晉)나라 도연명과 송(宋)나라 사령운(謝靈運). 전원시(田園詩)와 산수시(山水詩)에 능하였다.
275) 정김 : 鄭金. 오형목의 벗인 죽성 정은교(鄭闇敎, 1850~1933)와 석성 김인길(金寅吉, 1842~?)을 가리킨다.

記實秤量新揭扁 사실을 기록하고 평가하여 새로이 편역을 거니
後功惟得掩前羞 뒷날 공을 세워야 오직 이전 부끄러움을 덮을 수 있으리.

죽성의 떠나는 수레를 전별하다[서문을 병기하다]
奉臚竹醒行轡[并引]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태어나 같은 세상을 살면 천 리 떨어져 정신적인 교유가 있는 법이니, 일은 기약하지 않아도 일어나 우연히 한 번 만나 바른 사귀를 이루게 되고, 때가 되어 오면 실로 흡잡을 것이 없다. 동해선생이 조승²⁷⁶에게 구하는 것이 있어서가 아님을 본디 알고 있으니, 다행히 남주고사²⁷⁷가 특별히 허락하여 진번(陳蕃)에게 왕림함을 입었다. 만나니 듣던 바에 미치지 못하고 작디 작은 하나의 동산이 부끄럽고 가난하여 예로 삼을 것이 없으니 다섯 말 적은 봉록을 어찌랴. 믿고서 서로 준 것이 정이니, 오직 만난 것으로 기쁨을 삼았다. 형체를 잊을 수 있으니 우주가 통발과 덮이 되고, 의기가 서로 투합하니 강산에서 즉시 그 잔을 잡았다. 아아! 부평초 같은 인연은 헤어지기 쉽고, 뽕나무 아래 묵는 인연²⁷⁸은 많지 않다. 순생²⁷⁹이 사흘간 머물러줌을 빌려주어 남은 향기가 부질없이 향기로우니, 그대에게 이번 생애의 빛을 졌으나 아득한 자취에 올라갈 길이 없으니, 무엇으로 얼굴을 대신하여 볼 자료로 삼을 것인가? 마음 속에 있는 말을 펴니 거칠어도 오히려 낫다고 할 것이다. 이에 오십육 글자가 있으니 만나고 헤어지는 일이 어찌 항상 있는 것이라. 본래 수백 수천 수만 겹의 인연이니 운문의 포고²⁸⁰와 다름이 없다. 영

276) 조승 : 趙勝. 전국시대 조(趙)나라 공자(公子)로, 봉호는 평원군(平原君)이다. 어질고 빈객을 좋아하여 그를 추종하는 빈객이 수천 명에 이르렀다.
277) 남주고사 : 南州高士. 후한(後漢) 때의 고사(高士) 서치(徐穉)를 가리킨다. 당대의 고사였던 곽태(郭太)로부터 남주고사(南州高士)라는 존칭을 받았다. 예장 태수(豫章太守) 진번(陳蕃)은 본디 빈객(賓客)을 접대하지 않았는데, 오직 서치가 오면 특별히 한 걸상을 내다가 그를 정중히 접대하고, 그가 떠난 뒤에는 다시 그 걸상을 걸어두곤 했다고 한다.
278) 뽕나무 아래 묵는 인연 : 뽕나무 밑에서 하룻밤을 지낸 인연을 가리킨다. “불법(佛法)을 닦는 승려가 뽕나무 아래에서 사흘 밤을 계속 묵지 않는 것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애착이 생길까 두렵기 때문이니 정진(精進)의 극치라고 할 것이다.[浮屠不三宿桑下 不欲久生恩愛 精之至]”라고 하였다. 《後漢書 卷30 襄楷列傳》
279) 순생 : 荀生. 순옥(荀彧)을 가리킨다. 순옥이 다른 사람의 집에 가면 앉은 자리에 사흘 동안 향기가 났다고 한다. 《藝文類聚 卷70 襄陽記》
280) 운문의 포고 : 포고(布鼓)는 베로 만든 북으로 소리가 나지 않는다. 회계(會稽)의 성문(城門)인 뇌문(雷門)에 큰북이 걸려 있어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므로 포고는 소용이 없다는 뇌문고(雷門鼓)라는 말이 있다. 본문의 운문(雲門)은 뇌문(雷門)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땅 저자에 도끼로 바람을 일으켜 주기²⁸¹⁾를 바라노라.

與君相見即相親
晚契犁然默有神
家指晉陽三坂水
路過河上一團春
小園題品今初勝
先室文辭久愈珍
自是棲遲猶自適
知應憂道不憂貧

그대와 만나 즉시 가까워지니
만년의 사김은 분명하여 말없이 정신이 통했네.
집은 진주 삼판수를 향하고
길은 물가 단란한 봄을 지나네.
작은 동산 쓴 글이 지금 처음 나오니
선실의 문사는 오래될수록 진귀하리.
이로부터 전원생활 유유자적 하리니
도를 근심하고 가난을 근심하지 않아야 함을 알겠네.

덕삼²⁸²⁾행
德三行

蒞翁無事事題評
把酒戲作德三行
德三生在日本國
公榦多年住釜京
近日躬掌鐵道務
來留板屋通浣坪
向余郊行避雨入
黃緣暫憩通姓名
衣冠語音兩不類
便是同舟胡越并

채옹²⁸³⁾이 일이 없어 품평을 일삼으니
술을 들고 장난삼아 덕삼행을 짓노라.
덕삼은 일본국에서 태어나
공사 때문에 많은 해를 부산과 서울에서 살았네.
근래 몸소 철도 일을 관장하여
판옥에 와 머물며 보평으로 다니네 .
저번에 내가 교외에 갔다가 피를 피해 들어가
잠시 신 인연으로 통성명을 하였네.
의관과 언어가 양쪽이 다르나
호월²⁸⁴⁾이 같은 배에 나란히 타게 되었네.

281) 영 땅 저자에 도끼로 바람을 일으켜 주기 : 뛰어난 솜씨를 의미한다. 영인(郢人)의 코끝에 살짝 흙을 묻혀 놓고 장석(匠石)이 도끼를 휘둘러 흙덩어리만 떨어뜨렸는데, 영인은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다. 영인이 죽고 나자 장석이 그 기술을 발휘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莊子 徐無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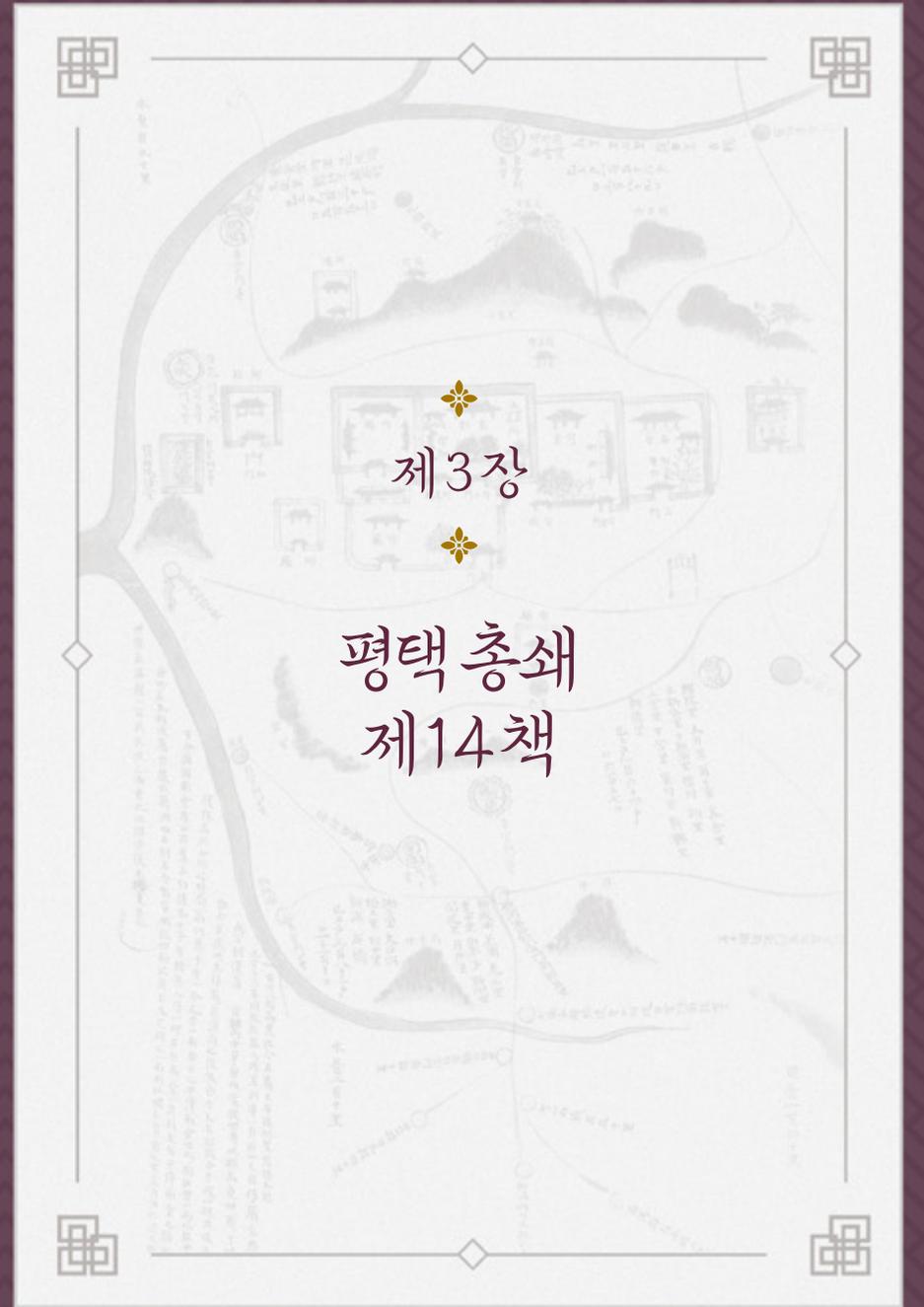
282) 덕삼 : 일본인 오오카 도쿠조(大岡德三)를 가리킨다.

283) 채옹 : 蒞翁, 오횡목의 호이다.

284) 호월 : 胡越, 중국 북방의 호와 남방의 월을 말한다. 서로 거리가 아주 먼 지역이다.

世界東南馬牛風
彼我本自無相涉
頗怪初筵駿奔走
設卓傾樽如不及
數目通辭傳密意
令人款款交情洽
二把團扇一壺酒
臨別慙慙望勿負
申勤昨又來探安
我欲酬之物無有
薄薄殘盃草草肴
未知渠曾可口否
自言殊方形影單
依仰於吾父叔看
越鳥悲鳴代馬嘶
其言認是出心肝
不爲孤窮寧有此
一邊吾亦惻隱端
閱盡炎涼白紛如
域中人或有負余
千重山海半面阻
委曲輸情少似渠
蓋聞彝性出自天
天之所覆同歸於
寄語六洲僉君子
莫以殊居別親疎

지역은 동남이라 바람난 마소도 닿지 않고
피차가 본래 서로 간섭한 일이 없었네.
처음 자리에 신속히 달려와 매우 괴이했으니
상 차리고 술 따르는 일을 미치지 못할 듯했네.
머칠 말을 통하고 친밀한 뜻을 전하니
정성스러워 사귀는 정을 흡족히 느끼게 하네.
두 자루 둥근 부채 한 병의 술
이별하게 되어 간절하니 바람을 저버리지 말라.
정성스레 어제 또 안부를 물으러 와서
내가 답하고 싶었으나 있는 물건이 없었네.
도수 낮은 남은 술잔과 허술한 안주가
그의 입에 맞을지 알지 못하겠네.
스스로 말하기를 타향이라 훌훌단신
나를 우리러 아버지 숙부처럼 보겠다 하네.
월 땅 새 슬프게 울고 대 땅 말이 울부짖으니
그 말이 마음에서 나온 것을 알겠네.
외롭고 궁한 것이 아니라면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한편으로 나도 역시 측은한 마음이 드네.
염량세태 다 겪어도 백발 되도록 그대로니
나라 사람 가운데 나를 저버린 이도 있었네.
천 겹 산과 바다 반쪽 면은 막혀 있으니
몸을 굽혀 정을 옮기니 그와 같은 사람 적구나.
땃땃한 천성은 타고나는 것이라 들었으니
하늘이 덮은 곳은 함께 돌아가리.
육대주 모든 군자에게 말을 부치노니
다른 곳에 산다고 가깝고 먼 사이를 구별하지 마오



✧
제3장
✧

평택 총쇄
제14책

❖ 제 3 장 ❖

평택 총쇄 제 14 책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걱정되어 탄식하다 因時事憂歎[并引]

이 고을은 근래에 비 오고 맑은 날이 고르지 않아 흉년이 끊이지 않았다. 이 근처 평원이 비옥하다 불리고 따로 피지(陂池)를 막아 놓은 듯한 독도 없어 모든 권세 있는 집안이 모경을 하는 이유가 되었다. 대개 농사짓는 사람은 우선 도량을 만들어 물을 일으켜서 일하는 데 편히 만든다. 지금 태서(서양) 각국 또한 농사를 근본으로 여겨 별도로 학교를 세워 기술을 익혀 공업과 상업을 일으켰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 전국의 명령하는 사람들은 다만 이 한 가지 일만 해도 다만 강구할 뿐만 아니라 실행은 하지 않는다. 예전에 일해 놓은 바들이 점차 퇴축되기에 이르러 산림은 줄어들고 연못은 말라 버렸는데 이를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다만 겹으로 돌아오니, 만약 흉년을 만나면 끊임없이 이어짐을 모두 면치 못하는 것이 개탄스럽구나! 지금 이 고을을 돌아보니 물과 뚝에 위치해 있어 농업과 상업의 요충지를 접하건만, 황폐하고 노는 땅이 어디를 둘러봐도 볼 수 있어서 성공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니, 어찌 이 고을만이 그렇겠는가? 심히 개탄할 만하다!

世間營業自相隨 세간에 하는 일이 알아서 서로를 따르니
仕農工商推可知 사농공상을 미루어 알 수 있다.

率土莫非農爲本
力穡應無困饑羸
比年旱乾茲失稔
職守司民髮欲絲
怨之所歸其故憊
澤渴山童咎在誰
對此近聞西人說
器具巧拙適時宜
曰我民生須精理
必不外乎古制遺

온 천지에 농사를 근본으로 삼지 않는 땅이 없으니¹⁾
힘써 거두어들이면 응당 굶주림에 곤궁할 일이 없네.
매년 가물어 한해 내내 여물지를 앓으니
백성을 다스리는 자들의 머리카락도 가늘어지려 하네.
돌아오는 바를 원망하는 것이 실로 참혹하니
못이 마르고 산이 벗겨지는 건 누구의 잘못인가?
이에 대해 최근 서양인의 말이 들리길
기구의 정교하고 못남은 마땅히 때에 맞아야 한다네.
우리 민생도 모름지기 이치를 정교하게 하여
반드시 옛 제도와 유산에 벗어나지 않아야 하리.

근심을 떨치고자 쓴 시 排悶賦事

聞道長安米價高
高猶喫窘又從操
高材方得一升買
一升之外如斷刀
橫行猛吏檢違越
縛之毆之氣太豪
衝街囊橐謾荷肩
萬家蕭瑟空炊烟
無錢不買猶可說
有亦飢困今初然
吾家有口三十餘
日食十升猶無儲

하니 장안의 쌀값이 비싸서
높은 사람도 먹을 것이 근색하여 잡히는 대로 따르는구나.
재주가 뛰어난 자는 바야흐로 한 되를 살 수 있지만
한 되 외에는 칼로 잘라내듯 하는구나.
황행하는 사나운 관리들은 법을 어기는 자를 검문하여
묶어놓고 때리니 그 기운이 심히 사나워라.
길을 뚫고 다니며 자기 뚫을 마구 어깨에 지고
온 집이 쥐 죽은 듯해 공허히 불만 때고 있네.
돈 없으니 살 게 없어도 오히려 기쁠 수 있으며
또한 배고프고 곤궁해도 지금은 조용하네.
우리 집은 식구가 삼십여 명인데
하루에 열 되를 먹어도 쌓아둔 것이 없네.

1) 《시경(詩經)》 소아(小雅) 〈북산(北山)〉에 “온 하늘 아래가 왕의 땅 아닌 곳이 없으며, 땅을 빙 두른 바다 안 사람이 왕의 신하 아님이 없네.[溥天之下 莫非王土 率土之濱 莫非王臣]”라고 한 데서 가져온 말이다.

紛然盈室老及幼
想見艱憂日甚於
思量方便無其術
何心獨安專城居
物之不齊物之情
力使低昂便不行
從來濟荒貴便宜
任他流通自扶傾
而今作事異於是
遏絕羣情與之爭
孰主張是必有人
揚揚自云裁處均
生民厄會伊誰怨
畢竟仁愛臨蒼旻
但願從茲屢豐年
粒米狼戾斗一錢
虞時阜財海戴四
漢家紅腐倉盈千
不問街市米高下
飽喫雕胡高枕眠

늙은이와 어린아이들이 방을 채우고 있으니
어려움 겪는다는 생각이 날로 심해지는데.
임시방편을 헤아려 봐도 그 방법이 없으니
어떤 마음으로 홀로 편하게 성주 노릇을 하겠는가?²⁾
만물이 가지런하지 못한 것이 만물의 성정이며
힘을 써서 낮은 것을 높인다고 행해지지가 않네.
종래에 가뭄이 그치고 편의가 귀해진 것은
흐르고 통하게 하여 스스로 기울어진 것을 받치기 때문일세.
지금 하는 것은 이와는 다르게
민의를 가로막고 함께 다투는 것일세.
누군가는 반드시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
양양하게 스스로 이르는 자가 재판과 처벌을 고르게 하네.
백성의 삶에 재앙을 만나게 하는 자는 누구든 원망할 것이며
마침내 인애가 푸른 하늘에 임하게 되리라.
다만 풍년이 여러 해 따르길 바라노니
곡식이 남아돌아 한 말에 일전이 되리라.³⁾
순임금 시절 풍족한 재물이 사해를 덮듯이,
한나라의 묵은 쌀창고가 천 군데 차 있듯이,
저갓거리 사람들이 쌀값을 묻지 않고
조호를 배불리 먹고⁴⁾ 베개를 높이 해서 자게 되리라.

2) (고악부(古樂府))에, “마흔 살에 한 성주가 되었네.[四十專城居]”라 하였다.

3) 《맹자》(등문공 상(滕文公上))에 “풍년에는 곡식이 남아돌아 세금을 많이 취하여도 포학함이 되지 않지만 적게 취하고, 흉년에는 그 토지에 거름을 주는 데도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정한 액수를 가득 채운다.[樂歲 粒米狼戾 多取之而不爲虐 則寡取之 凶年 糞其田而不足 則必取盈焉]”라고 하였다.

4) 구황 식물로 알려진 줄물의 열매를 말하며, 고미(苽米)라고도 부른다.

평상과 휘장을 배치하고 붓 가는대로 쓰다
排置床帳 縱筆

道家患三彭
制之以不睡
吾法異於是
嗜眠如飲食
所惡有三蟲
昏夜狡益肆
匿形窓壁間
乘機枕簟地
一指奈衆攻
往往驚針刺
轉輾臥復起
通宵不得寐
縱有朝來捕
無由殄族類
借問此何物
惟蚤與蚊蝮
其害也如此
隄防不可忽
一部高足床
兀支攀緣絕
四圍青紗帳
欲穿烟縷密
而我處其中
隨意穩貼膝
但見栩栩蝶
導余園之荼
黃粱熟耶未
更漏頓忘歇

도가에서는 삼팽(三彭)을 근심하였고,
이를 제어하여도 잠들지 못하였네.
나의 법은 이와 달라서
먹고 마시듯 잠을 즐겼네.
악한 것으로는 삼충(三蟲)이 있는데,
어두운 밤에 교활하고 더욱 방자하구나.
형체를 숨기고 창과 벽 사이에
기회를 틈타 베개와 대자리에 살고,
한 곳을 때를 지어 공격해서
왕왕 바늘로 찌르는 듯하여 놀라네.
이리저리 뒤척이고 눕다 일어나기를
밤 내내 하여 잠을 잘 수 없었네.
마침내 아침에도 찾아오기에 붙잡아서
이유를 묻지 않고 그 족속을 멸해버렸네.
한번은 ‘이게 무엇이고?’ 하고 물어보니
‘생각건대 이입니다. 모기나 전갈같이
그 해로움이 이와 같으니
막는 데 소홀히 해서 안 됩니다.’ 하니
일부는 발 받침대를 높여
발을 우뚝 솟게 만들어 기어 올라오지 못하게 막고
사방에는 푸른 사장(紗帳)을 둘러
뚫고 싶어도 연루(烟縷)가 뻑뻑하게 하였네.
내가 있는 가운데에는
뜻에 따라 평온히 무릎을 붙이고,
다만 활기찬 나비만이 보이게 하여
나를 도산의 옷나무로 이끄는구나.
누런 조밥은 아직 익지도 않았건만
다시 깜빡 잇고 빠뜨려 버렸도다.

依然羲上人
直到高春日
休勞問無恙
惺惺神氣逸

의연한 희황상인은
곧바로 해질녘에 도착해
쉬시면서 ‘무양하신가’ 물었으니
늘 깨어 있어 신기가 뛰어나구나.

월계수
月桂

種得孤根自遠區
護持堪作以歡娛
淺深花艷肌膚軟
長短枝繁雨露濡
終賴生成皆掌握
須知造化亦規模
嚮時南郡渾如夢
肚裡猶存日夕輸

씨앗에서 뿌리 홀로 멀리서부터 구구하게
지키고 유지하며 이루어내어 기쁘구나.
얕고 깊은 꽃은 요염하지만 그 겉은 여리며
길고 짧은 가지는 무성히 뻗어 비와 이슬에 젖네.
마침내 생을 이룸에 힘입어 모든 것을 손에 얻어내니
모름지기 조화 또한 정해진 모양임을 알겠구나.
남군으로 향하는 때엔 꿈처럼 흐릿하여
몸속에 마치 저녁노을을 옮겨 놓은 듯하네.

두정리를 가는 도중에 늦게 귀가하다
斗井里途中晚歸

松陰岳色墮懸厓
夕照蒼蒼影半街
代步何須彭澤馬
率徒常念密州鞋
農旗遍野知勤稼
度械行原見積柴
雖是吟肩緣此聳
興懷難與少陵偕

소나무 그늘과 산 빛깔이 절벽에 드리우고
노을빛은 창창히 거리 반쪽에 그림자를 드리우네.
대신 걸어 다니니 팽택(도연명)의 말이 왜 필요한가?
무리를 이끌고 항상 밀주의 신발을 염려하네.
농기가 들날 곳곳에 세워졌으니 열심히 농사짓는 곳임을 알겠고
가죽 공구를 들고 벌판을 가는 게 섭을 쌓는 것처럼 보이네.
비록 시인의 어깨가 이로 말미암아 으쓱이지만
흥을 품어도 소릉(두보)과 함께하기는 어렵겠구나.

이날 저녁 베개에 기대어 두정리에 다녀온 일을 쓰다
是夕 倚枕賦斗井里往返即事

老來一種滋況
讌爾新婚孔嘉
幾度手書安問
七旬筋力咨嗟
往見情隨禮合
延拖事與心差
早餘適時得雨
今日方纔命車
德性已知婉順
淑容愈見繁華
尋常滋悅乃祖
庶幾昌大吾家
既喜世債薄勤
更覺慈情益加
鄉婚得此賢婦
歸去吾將自誇

늘그막에 씨 하나가 자라나
즐겁고 아름다운 신혼 잔치를 하네.
몇 번 수서로써 문안 편지를 건네주어
칠순의 근력은 어떠신지 문안하였네.
아아! 가서 보는 정은 예의에 맞게 따르지만,
일에 끌리디보니 마음과 어긋났네.
가뭄 끝에 때맞춰 단비를 만나
오늘에야 바야흐로 수레를 준비하라 명했네.
덕성은 이미 예쁘고 순함을 알았건만
내 보니 정숙하고도 아름다워
너의 할아버지를 기쁘게 하였구나.
이제 우리 집안이 창대해지리니
세상의 빛이 줄어들어 기쁘리라.
자애로운 정이 더함을 다시금 깨달았네.
고향에서 혼인하여 이런 어진 아내를 얻었으니
돌아가면 내 장차 자랑스러우리라.

시경
詩境

隙地名園景物彰
新篁放梢作垣牆
展開風月壺觴適
粧點江山畫幅張
幽鳥長隨如欲語
好花相續自生香

빈 터의 이름난 정원이 경치가 아름다워
새 대나무가 가지를 뻗어 담장을 만들었구나.
풍월을 풀어서 술잔에 보내고
강산을 아름답게 꾸며 화폭을 펼치리라.
깊은 산 속 새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오래 따라오고
예쁜 꽃들은 스스로 향기를 내어 서로 잇는구나.

十宜題品添佳境
端合排舖白玉床

십의대의 표제와 품평을 아름다운 경에 보태어
응당 백옥으로 된 상(床)을 배포하리라.

천안 가는 길에 본 것을 쓰다
天安途中卽事

出門時物換
眺望興偏長
蒺藜延畦潤
稻花滿壟香
功全修線路
營就築車場
一抹荒寒外
放懷晚景當

문을 나서자 물색이 바뀌어
멀리서 바라보니 흥이 절로 나는구나.
오이 덩굴 뻗어 있는 밭패기는 비옥하고
논두렁 가득한 벼꽃은 향기롭구나.
모든 선로를 공들여 고치고
정거장을 경영하여 세우네.
조금 황량하고 추운 것 말고는
이 늙은이 마음에 꼭 드는구나.

생각한 바가 있어 침대 위에서 짓다
有所思枕上作

空存仁愛計還疎
臨事常羞未得攄
風打寧城驚散鳥
雨鳴平澤樂浮魚
麥荒已辦夏艱措
農穡惟堪秋有儲
寄語扶吾多少者
那能容易看過如

부질없는 인애는 소홀히 돌아오고,
일에 임하면 항상 부끄러워 생각을 펼 수가 없네.
바람이 영성을 때려 새들이 놀라 흩어지고
비가 평택에서 후두둑 떨어져 물고기들이 즐거워하네.
보리가 흉작이어서 여름에 힘써 어려움을 조치하니,
농사에 힘써야만 가을에 쌓아둘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을 부쳐 나의 여러 가지를 불드노니
어찌 용이하게 이런 것들을 보아 넘기랴.

운을 집어 자조하다
拈韻自嘲

床褥跳迤蚤蝸蟲
怪夫還矣醒昏蒙
熱中誰解東風面
點點櫻桃遍體紅

이불에서 날고 기던 벼룩 같은 벌레들이
돌아와서 침침한 눈을 띄우니 괴이하구나..
누가 알아주랴 봄바람 맞기에 열중하여
온몸에 앵두같이 붉은 점이 퍼진 것을.

여관에서 시를 쓰다
旅館賦得

曾於溫幸侍鑾輿
雲氣繞宮現若初
槐棘植如周土置
堂宇排擬野人居
法規有度詹成獄
絃誦遺傳見讀書
築路礪山今日事
生民猶自樂熙如

임금께서 온천 가실 때에 난여를 모셨었지.
구름이 궁을 감싼 모습이 처음같이 나타났네.
주나라 선비들이 한 것처럼 괴극(槐棘)을 심었고⁵⁾
당우는 시골 사람들이 사는 집처럼 배치하였네.
법규는 정도가 있어 송사가 이루어지기에 이르고
줄 뜯고 노래하는⁶⁾ 것이 전해져 책 읽는 모습이 보이네.
광산의 길을 다지는 것이 오늘 일이니
백성을 살게 하는 것이 참으로 기쁘구나.

5) 괴극(槐棘)은 삼괴구극(三槐九棘)의 준말로 삼공(三公)과 구경(九卿)을 말한다. 주(周)나라 때 외조(外朝)에 해나무와 가시나무를 심어 조신(朝臣)들이 서는 자리를 만들었다. 《주례(周禮)》〈추관(秋官)〉에 “원편 구극에는 고(孤)와 경(卿)과 대부(大夫)가 자리하고, 오른편 구극에는 공후백자남(公侯伯子男)이 자리하며, 앞 삼괴(三槐)에는 삼공이 자리한다.”라고 하였다. 사도세자가 1760년에 온양 행궁에서 활쏘기 연습을 하다가 그늘이 없음을 아쉬워하여 해나무 세 그루를 심었는데, 정조가 뒷날 그 옆에 영괴대비(靈槐臺碑)를 세워 그 사연을 기록하였다.

6) ‘현송(絃誦)’은 원래 현악(絃樂)에 맞추어 시를 노래했던 것을 현가(絃歌)와 현악 없이 시만 읊조린다는 말이다. 뒤에 ‘수업을 받다’, ‘글을 읽다’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다. 《논어》〈양화(陽貨)〉에 “공자가 무성에 가서 현악에 맞추어 부르는 노랫소리를 들었다. 공자가 빙그레 웃고 말하였다. ‘닭을 잡는 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는가?’[子之武城, 聞絃歌之聲, 夫子莞爾而笑曰: 割雞焉用牛刀?]”라고 하였다.

여관에서 달밤에 석성을 추억하며 운을 고르다
旅館月夜 憶石醒拈韻

勞逸何須說	수고로움과 편함을 어찌 말하라.
離懷悵幾時	서글픈 감회에서 언제야 벗어나려나.
較將同伴惱	장래의 일을 헤아리느라 함께 고민되어
不及異鄉思	타향이라는 생각을 미처 못하였네.
誰念煩招案	누가 번잡한 생각들을 책상으로 불렀는가?
應知未勘棋	수를 감당할 수가 없음을 응당 알겠네.
高懸今夜月	밤의 달을 높이 걸어서
兩地照無私	두 땅을 사사로움 없게 비추게 하리.

화축관을 봉심하며 느끼다
奉審華祝館有感

寧城館下永南樓	영성관 아래의 영남루에서
華祝扁題有自由	화축관 ⁷⁾ 편액을 자유로이 쓰셨네.
宸墨炳煌追慕日	어필(御筆)이 화려하게 추모하는 날
臣民共戴寵恩優	신하와 백성이 모두 함께 후한 은총을 입었도다

수선정에서 삼가 가정 이 선생의 판상시에 차운하다
水仙亭 謹次稼亭李先生板上韻

小亭規度易爲安	작은 정자의 모습이 마음에 편안하여
公餘隨意足盤桓	공무 여가에 마음 내키면 이곳에 거닐었네.
迥出溪山渾絕勝	멀리 시내와 산이 어울려 절경이자 명승이니

7) 『속중실록』 43년(1717) 4월 2일 기사에 “직산(稷山)의 영소정(靈沼亭)과 천안(天安)의 화축관(華祝館)은 선조(先朝)에서 온천에 거동하실 때에 지은 것이니, 이 밖의 관사는 모두 사객이 유숙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世間甚事豈能干
林樾交翠香不斷
夕月虛明曉露溥
浩然今古無窮思
滿沼荷花韻自寒

세간의 심한 일을 어찌 능히 간여하라.
숲속 그늘의 녹음과 향이 끊이지 않는데
저녁달의 공허한 빛이 새벽 이슬을 맺는구나.
예나 지금이나 끝없이 탁 트인 생각에
연못에 가득 한 연꽃의 운치가 절로 차갑구나.

새벽 침상에서 풍경 소리를 듣고 비(悲)자를 운으로 잡다
曉枕上聞簷鈴 拈悲字

簷鈴曉雨動羈思
詩向愁中轉覺悲
功名誰識云鷄肋
細究於心我自知

침령⁸⁾과 새벽 비가 나그네 마음을 움직여
시름 속에 시를 쓰니 더욱 슬프구나.
공명은 계륜임을 누가 알려주었는가.
마음속으로 생각해보니 나 스스로 알게 되었구나.

천안군을 떠나가면서 회포를 쓰다
離發天安郡 述懷

宦遊從出此途牽
疑讞當時困暑天
赦典宜無施楚種
恤刑每易失衡權
早知絆繫籠中鳥
始覺飛升世外仙
何幸今朝能事畢
輕輿快豁任回旋

벼슬을 얻으려 이 길에 끌려나와 따라나섰는데
당시의 의심스러운 옥사(獄事)가 힘들게 했네.
사전(赦典)을 베풀면 마땅히 매질함이 없으니
홀형(恤刑)을 할 때마다 균형을 잃기 쉽구나.
일찍이 새장에 매여 있는 새임을 알았는데
비로소 날아 올라 세상 밖 신선임을 깨달았네.
요행히 오늘 아침에 일을 다 마치면
가벼운 가마를 타고 쾌활히 맑은 곳을 돌리라.

8) 침령은 처마 끝에 매단 풍경인데, 낙숫물 소리를 뜻하기도 한다.

도중에 과(瓜) 자를 운으로 삼다
途中拈瓜字

繁陰涼透有人家
爲看耘耜暫駐車
清濁混流溪合水
紅黃相匝樹交花
行威焉用畫頭帟
欲速奚當添足蛇
拙計未歸空笑盡
多慚書嚼鎮心瓜

우거진 그늘에 서늘함이 스며드는 인가가 있어
김매는 것을 보기 위해 잠시 수레를 멈추었네.
맑고 흐린 물이 섞여 흘러 계곡물이 모이고
붉고 노란 나무와 꽃이 서로 뒤섞여 있구나.
위엄을 행하려고 어찌 호랑이 머리를 그리고
빨리 가려고 어찌 마땅히 뱀에 발을 붙이는가?
어설피 계획해 놓고 돌아가지 못하니 공허한 웃음만 나와
많이 부끄러워 글로 마음의 오이를 씹어 누르네.

일십원 경치를 최근 오랫동안 보지 못하여 오후에 억지로 지팡이를 짚고 십의대에 올랐더니 아름다운 꽃이 나를 기다리는 것 같아 기뻐서 시 두 수를 읊조리다
日涉園物色 近久不見 午後强策扶老 上十宜臺 卉花嫣然有若待余 喜占二詩

小園詩境十宜臺
竹韻槐陰可倒盃
客枕長教幽想切
今朝恰好此徘徊

작은 동산 십의대가 시경(詩境)이니
대나무의 운치와 왜나무 그늘이 술잔을 기울일 만하구나.
객지의 잠자리가 오랫동안 그윽한 생각 간절케 해
오늘 아침 이곳에 올라 맘껏 거니네.

卉花競發自芬芳
爲報主翁各噴香
未知經過尋眞處
較客看余誰最良

꽃들이 피어 저마다 향기로움을 겨루며
주인어른에게 보답하러 저마다 향기를 내네.
진경(眞境)을 찾아가는 길을 알지 못해
객이 나를 찾아와 누가 가장 좋은지 묻네.

창녕 현감 정태규를 추모하는 시 세 수
鄭昌寧泰珪輓三疊

在鄉褒義在家旌
事業終期就次成
一夜霜風摧玉樹
茫茫天意說難明

고향에선 칭찬받고 집에선 신임 받으며
사업이 끝날 때까지 차례에 맞춰 이루어 냈네.
하룻밤 서리바람에 아름다운 나무가 꺾어버리니
아득한 하늘의 뜻을 제대로 말하기 어려워라.

達觀乘化視如歸
脩短何曾動喜悲
獨有泉臺無盡恨
人間未卒老萊衣

자연의 조화에 달관하여 마치 귀의하듯 바라보니
길고 짧음이 어찌 희비를 움직이랴.
홀로 구천에 있어도 한이 다하지 않아
인간세상 노래자는 마치지 못했네.⁹⁾

相知日淺契還深
我往君來約共尋
溪雪未闌樑月落
滿園花竹只傷心

서로 알게 된 날은 짧아도 친분은 깊어져
내가 가고 그대가 온다는 약속을 함께 맺었지.
시냇가의 눈이 녹지 않고 대들보의 달이 지니
동산에 가득 한 꽃과 대나무가 마음을 아프게 하네.

황색 한련꽃
黃旱蓮花

상자 안에 가져 온 한련 씨앗은 작년에 익산군 정원에서 따온 것인데, 4월 초까지 잊어버리고 있다가 정원에 뿌렸더니 열덱 개에서 싹이 났다. 요즘 꽃 핀 것을 보니 대부분이 예전처럼 붉었으나 유독 한 송이만은 황색이었다. 옛말에 ‘황색 한련은 차례에 가장 좋다.’고 했는데, 말만 들었지 보지는 못했었다. 지금 이 씨가 붉지만 황색 꽃이 핀 것은 조물주의 신묘함이니, 참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일이다. 또 황색의 은부함은 붉은 것과 서로 같지만, 붉은 것은 씨를 맺지만 황색은 맺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 세간에서 말하는 황색

9) 춘추시대 초(楚)나라의 노래자(老萊子)가 효성으로 부모를 섬겨 70세의 나이에도 항상 색동옷을 입고 어린아이의 놀이를 하였다. 《고사전(高士傳)》 권상 〈노래자(老萊子)〉. 효성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이다.

한련이란 것은 본래 씨가 없거나 붉은 것이 변화한 것이리라. 내가 장차 이를 증험할 것이니 이로 인하여 운을 잡아 기(奇)자를 얻었다.

賞到旱蓮花樣兒	한련꽃의 모양을 감상하여 말하자면
爛紅叢裡一黃奇	붉은 꽃 더미 가운데 한 송이 황색이 기이하네.
講肆稱祥蔥蒨變	총채(蔥蒨)의 변화를 배우고 상서로움을 칭송하지만
喟嗟生化蕙荃衰	아아! 향기로운 풀의 생화도 쇠하였구나.
堯世徵看指佞草	요임금 때는 사람들이 모여 지녕초 ¹⁰ 를 보았고
秦時辨解養神芝	진나라 때는 신묘한 지초 기르는 법을 밝혀내었네.
不須預卜爲何兆	어떤 조짐을 위해 점을 칠 필요도 없이
可愛中央正色持	중앙에 바른 색 ¹¹ 을 지닌 모습이 사랑스럽구나.

오늘은 아내의 생일이다. 늙은이 마음에 서울집에서 오늘 아침 가족들이 단란히 둘러앉아 함께 밥이나 먹고 있는지 궁금하였다
是日室人生朝也 老懷不能不煇煇 念京第今朝室家團聚以共飯也否

年老萬緣空	나이가 들어가니 수많은 인연이 공허해
情根脆欲斷	정의 뿌리가 취약하니 끊어내고 싶구나.
桑海雖頻變	뽕나무 밭과 바다가 비록 자주 변하건만
麻姑在彼岸	마고는 아직 피안에 있구나.
迢迢牛女星	멀리서 견우성과 직녀성이
相望隔霄漢	서로 바라보며 은하수 건너 떨어져 있네.
記得在家日	집에 있던 날들을 기억해보면
今朝每共饌	오늘 아침엔 언제나 함께 밥을 먹었지.
兒孫列侍傍	자손들이 곁에서 즐지어 돌보아 주고

10) 지녕초는 간사하고 거짓된 자를 식별할 줄 안다는 풀 이름이다. 요(堯) 임금 때에 굴일초(屈軼草)라는 풀이 조정의 뜰에 나서 아첨하는 사람(佞人)이 입조하면 반드시 구부러져 그 사람을 가리키곤 하였으므로, 이 풀을 지녕초라고 했다고 한다.

11) 청(靑)-적(赤)-흑(黑)-백(白)-황(黃)의 오색을 각각 사방(四方)과 중앙에 배열하면 동쪽은 청색, 서쪽은 백색, 남쪽은 적색, 북쪽은 흑색, 중앙은 황색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오색을 오방(五方)에 배열하는 것은 오행설(五行說)에 근거한 것인데, 황색은 중앙의 토(土)로 가장 존귀하게 보아 황제의 일용복식(日用服飾)이 모두 황색으로 되어 있다.

隣里亦來飭
 餽得小圓滿
 見者興咨歎
 自從外官來
 節序頻回換
 那能敲瑟琴
 僅得憑魚鴈
 難忘復易知
 此日又當案
 一室應團聚
 羣婦克營辦
 舉匙不忍下
 畫燭想無伴
 吾雖有年例
 無意備呼喚
 何由付象罔
 只惱森眼看
 願採忘憂草
 高眠到日旰

이웃 사람들 또한 와서 구경했지.
 꾸며서 제법 원만해지니
 보는 사람들이 칭찬하였지.
 스스로 지방관으로 나오니
 철이 어느새 자주 바뀌어,
 어찌 능히 금슬을 탈 수 있으랴
 근근이 물고기와 기러기에 의지하네.¹²⁾
 잊기는 어려워도 알기는 쉬우니
 오늘도 또 책상을 마주하였네.
 한 방에 응당 단란하게 모이면
 여러 며느리들이 상을 차려 주건만,
 손가락을 들고는 차마 내려놓지 못하니
 화촉(畫燭)을 밝혀도 함께 할 짝이 없구나.
 내가 비록 연례적인 날이긴 해도
 갖추어 부를 마음이 없구나.
 무엇 때문에 상망¹³⁾에 부치는가
 눈 앞에 삼삼하게 보이는데,
 바라건대 망우초를 캐어
 베개 높이 베고 해 뜰 때까지 잠자고 싶구나.

12) 물고기나 기러기는 편지를 전해주는 동물들이다.

13) 《장자(莊子)》〈천지(天地)〉에 “황제(黃帝)가 적수(赤水)의 북쪽을 유람하고 곤륜산(崑崙山)에 올라가 남쪽을 바라보다가 돌아오는 길에 현주(玄珠)를 분실하자, 상망(象罔)을 보내어 찾아오게 하였다.” 하였는데, 그 주에 “상망은, 현상(現象)이 있는 듯하나 실제로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무심(無心)한 경지를 뜻한다.” 하였다.

우습다
可笑

雄吞大嚼擅當年	많이 삼키고 크게 씹으며 당년을 멋대로 하니
二子徐卿莫我前	서경의 두 아들 ¹⁴⁾ 이 내 앞에 없구나.
東陵認是非堅物	동릉의 오이가 단단한 물건 아니니
對案如今只下涎	책상에 마주 앉아 지금처럼 침만 흘리는구나.

직산 겸부를 받고¹⁵⁾ 자조하다
領收稷山兼符.自嘲

昔年兼領五州符	옛날에 5주의 부를 겸하여 다스렸는데 ¹⁶⁾
志氣猶恢自有孚	지조와 기개가 넓어 스스로 미더웠네.
一綬今來何太重	한 가닥 인끈이 이제 오니 얼마나 무겁겠는가.
羸腰力弱不勝紆	고달픈 허리가 힘이 약하여 구부러짐을 견딜 수 없네.

포도 시렁
題葡萄架

新蔓葡萄雨後長	새 포도 덩굴이 비 온 뒤에 길어져
橫樓一架滿春光	누각을 가로지르는 햇대에 봄빛이 가득하구나.
朝看寸進承溥露	아침에 보니 한 마디 더 나아가 부슬부슬 이슬을 받고
日愛傍抽帶嫩涼	날로 사랑하니 옆으로 뻗어 초가을 햇살을 받네.

14) 두보(杜甫)가 <서경이자가(徐卿二子歌)>를 지어서 그의 두 아들을 매우 칭찬했는데, 그 노래에 “내 서공이 매사에 걱정 없음을 아는데, 선행을 쌓은 덕에 줄줄이 공후가 나오리.[吾知徐公百不憂, 積善衰衰生公侯.]”라고 하였다. 서공의 자식들이 출중하여 장차 공후(公侯)가 될 만하다고 칭찬한 것이다.

15) 평택 군수로서 잠시 직산 군수를 겸임하는 것이다.

16) 은호는 진(晉)나라 때 은호(殷浩)가 청담(淸談)으로 유명하였는데, 강제(康帝) 때에 부름을 받아 건무장군(建武將軍)이 되었고, 뒤에 양주(楊州)·예주(豫州)·서주(徐州)·연주(兗州)·청주(靑州) 등 오주(五州)의 군사도독(軍事都督)이 되었다.

恰自成陰當晝暗
偏能結子待秋香
誰知蒞老申勤意
勝似蓮紅與菊黃

흡족하게 스스로 그늘을 이루어 낮에도 어둑해지니
능히 씨를 맺어 가을 향기를 기다리누나.
내가 늙어도 부지런히 힘쓰리라고 누가 알겠는가.
붉은 연꽃과 노란 국화처럼 훌륭하도다.

쌍괴당의 높은 문장 아래 가르침을 청하다
雙槐堂崇藻下請教

신선의 제택이라 하면 계산(溪山)을 그린다. 마당의 남새밭과 과수원은 중장통의 낙지론에서 볼 수 있고, 거문고 소리가 대숲에 울리니 왕망천의 별장을 볼 수 있다. 전날에 공부하다 잠시 유람한 적이 있었는데 무릉도원의 아름다움을 다 즐기지 못하였다. 이제 추억하며 조출하게나마 남전의 평화로움을 기록하고, 감히 비루한 정성을 다하여 삼가 짧은 서문을 짓고 시로써 이어 말한다.

窈窕城北洞
瀟灑靈槐堂
天設何奇壯
人謀且停當
有泉皆雪瀑
無石不金剛
畫裡三山出
壺中九華藏
小舟撐葉嶼
危閣架虹樑
庭園丹壁繞
門戶翠屏張
屋中誰是主
山外世皆忙
晚樂隨三可

고즈넉한 성북동
산뜻한 쌍괴당.
하늘이 기이하고 장엄한 곳을 배풀고
사람이 또한 합당하게 도모하였네.
샘물은 눈처럼 흘날리는 폭포이고
돌들은 금강석 아닌 것이 없구나.
그림 속엔 삼신산이 나오고
병 속에는 국화꽃이 담겨 있네.
작은 배로 작은 섬에 노를 젓고
높은 누각에는 무지개 들보를 얹어놓았네.
정원은 붉은 벽으로 감싸고
문호는 비취색 병풍을 펼쳤네.
이 집의 주인은 누구신가?
산 밖의 세상은 모두 바쁘구나.
늦고 나면 즐겁게 삼가(三可)를 따르고

初心付兩志
勇退仙何遠
調閒病不妨
似將神秘地
留待福人庄
占取專清餉
粧修集衆芳
法帖懸楣古
朝衣在笥香
棋園今綺皓
詩社舊蘇黃
聽鳥兼絲竹
栽花驗雨暘
方外乾坤大
閒中日月長
水聲喧語笑
樓氣適暄涼
視履祥宜考
撫謙德彌彰
庭趨賢子弟
床繞妙孫郎
鍾雲親董役
船月又傳光
堂謨貽有翼
廚供養無方
高臥憑羲上

초심은 몰아를 잇는 데 붙이네.
용감히 물러나니 신선이 어찌 멀리 있으며
한가로이 지내니 병이 방해하지 않는구나.
마치 장차 신비로운 땅에 있는
복스런 사람의 전장에 머물러 기다리는 듯,
맑은 먹거리들을 모두 차지하고
뭇 향기들을 모아 단장하고 꾸몄네.
법첩이 걸린 문미는 오래되었고
상자 속에 있는 조복은 향기롭구나.
바둑 두는 정원은 맑고 아름다우며
시사는 옛 소식과 황정견과 같도다.
새소리와 풍류 소리를 함께 들으며
심은 꽃은 비와 햇빛을 맞는구나.
세속 밖의 하늘과 땅은 크고
한가한 가운데 낮과 밤은 길구나.
물소리는 왁자지껄 웃는 소리 같고
누각에 부는 바람은 따뜻하고도 시원하네.
신발을 보고 상서로움을 의당 생각하니
겸손한 미덕이 더욱 드러나네.
뜰에는 어진 자제들이 뛰놀며
상에는 어린 자손들이 돌아다니네.
삼으로 친히 토역을 감독하고
배 위에 뜬 달 또한 빛을 전해 주네.
집에 모(謨)를 전해주어 편안하게 하고¹⁷⁾
주방에서 공양하는 데에 격식에 구애받지 않네.¹⁸⁾
높은 곳에 누워 회황상인에 기대어

優遊入壽鄉
陽春元寡和
白賁貴含章
我來窮覽勝
公喜賜顏詳
仙凡雖有異
離合苦無常
自顧散樗櫟
長懷啄稻梁
斗祿何嘗大
田園久已荒
雪興乘難得
風儀暗自量
平生知遇感
垂老遠離傷
佳境要窺管
蕪辭謾敲簧
博粲賢乎已
庶幾入鑑諒

넉넉히 장수하는 마을에 들어가는구나.
양춘곡에 화답하는 이 적으니¹⁹⁾
질박하게 꾸며도 아름다움을 간직하였네.
내가 마침내 명승지를 다 구경하니
공께서 기뻐하며 좋은 얼굴로 맞아 주시네.
신선과 범인은 비록 다름이 있지만
헤어짐과 만남은 아주 무상하구나.
성글고 미천한 나를 스스로 돌아보다가
긴 회한이 들어 벼와 기장만 쪼는구나.
한 말의 녹봉으로 어찌 큰 가족을 먹이겠는가?
전원은 오래전에 이미 가물었는데.
눈오는 날 흥취를 타기가 어려우니²⁰⁾
풍채와 법도를 어렵듯이 헤아릴 수 있구나.
평생을 서로 알며 감격하였으나,
늙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 마음이 아프네.
경치 좋은 곳은 꼭 대롱으로 엿보듯 하면서
조리 없는 말로 함부로 혀를 놀리는구나.
현명하다고 크게 웃으며
당대의 현인에게 보여드려 헤아리네.

17) 익(翼)은 공경한다는 뜻인데, 《시경》 대야(大雅) 〈문왕유성(文王有聲)〉에, “자기 손자에게 모(謨)를 끼쳐주어 자기 아들을 편안히 하고, 공경하게 한다[貽厥孫謀以燕翼子].”라고 하였다.

18) 《예기》 단궁 상(檀弓上)에 부모를 섬길 때에는 “좌우에 가까이 나아가 봉양하며 격식에 구애되지 않고, 죽을 지경이 되도록 힘든 일에 부지런히 종사한다.[左右就養無方 服勤至死]”고 하였다.

19) 세상에 도를 아는 고명한 사람이 드물다는 뜻이다. 《문선(文選)》 권45 〈대초왕문(對楚王問)〉에 “처음 하리(下里)·파인(巴人)을 노래할 때는 국중에서 그에 화답한 자가 수천 인이었건만 …… 양춘·백설(白雪)을 노래할 때는 국중에서 그에 화답한 자가 수십 인에 지나지 않았다.” 하였다. 양춘과 하리는 다 곡명(曲名)인데, 양춘은 그 수준이 높아서 부르기 힘들지만 하리는 민간의 통속적인 것이어서 아무나 부를 수 있다.

20) 당나라 시인 두보(杜甫)의 시 〈다병집열 봉회이상서지방(多病執熱 奉懷李尚書之芳)〉에 “상서와의 약속을 돌아보지 않음이 아니라, 산음의 눈 오는 밤의 흥취를 탈 수가 없어서일세.[不是尚書期不顧 山陰夜雪興難乘]”라고 하였다.

패랭이꽃
石竹花

亂抽青節細花叢
深淺幽芳綵繡同
粧點剪裁非手巧
天機自有化功中

어지러이 뻗쳐 있는 푸른 마디와 가는 꽃 더미가
깊고 얇게 그윽하고 향기로워 곱게 수놓았구나.
예쁘게 단장하고 잘라낸 것은 솜씨 교묘함이 아니라
천기가 스스로 조화롭게 공들여진 것일세.

괴석 뒷면에 16자 찬을 지어 새기고 장난삼아 한 수 짓다
怪石後面 刻成十六字贊 戲題一語

惜汝天形質勝文
尋常扁豹在羊羣
化權吾有南山霧
衣被身章到十分

아쉽구나, 너의 타고난 모습은 무늬보다도 나은데
호랑이와 표범이 심상하게 양 무리에 있구나.
조물주께서 내게 남산의 안개를 가지도록 내려 주어
옷을 입고 십분 이르러 몸이 빛나게 되었네.²¹⁾

백합꽃
百合花

纖長嫩綠畫難裁
一種芳菲最異哉
匪合伊反花樣子
宜參名實兩看來

가늘고 긴 여린 풀이 그림 같아 재단하기 어려운데
한 종류 향기가 짙으니 가장 기이하구나.
합쳐지지 않았으니 이 꽃의 모양과 반대이므로
마땅히 이름과 실제 모두 살펴보아야 하리.

21) 서주(西周) 때 도(陶) 땅의 대부(大夫) 답자(答子)가 3년 동안 도 땅을 다스렸으나 명에는 드러나지 아니하고 집안만 세 배로 부유하게 되었다. 그러자 답자의 아내가 아이를 안고 울면서 말하였다. “침이 들으니 남산에 검은 표범이 있는데 안개비 속에서 이래 동안이나 가만히 있으면서 산에서 내려와 먹을 것을 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그 털을 윤택하게 하여 무늬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드러나지 않아야 해를 멀리할 수 있는 법이니, 개나 돼지도 먹을 것을 가리지 않고 제 살만 찌우면 앞은 자리에서 잡아먹힐 뿐입니다.” 시어머니가 노하여 답자의 아내를 내쳐버렸는데, 과연 일년 만에 도적이 들어 주살을 당하고 말았다. 후에 이를 ‘표은(豹隱)’ 또는 ‘남산무표(南山霧豹)’라 하여 세상에 나가 벼슬하지 않고 산림(山林)에 은거하여 몸을 깨끗이 닦는 것을 비유하였다. 《열녀전(列女傳) 권2 <도답자의 아내(陶答子妻)>

죽성 정은교가 찾아왔지만 금방 헤어졌기에 짓다
鄭竹醒來訪旋別 因有作

有客臨門荷解頤
歡情旋別更成悲
幸緣握手由期日
徒悵論文未滿時
已料風流壇社擅
應知題品里閭推
如今無暇添香篆
君亦勝於自我思

문 앞에 온 손님이 있어서 빠진 턱을 들고 나왔는데
기쁜 마음으로 곧바로 헤어져도 다시금 슬퍼지네.
다행히 손을 잡은 인연으로 기일을 정해
글을 논하다 때를 채우지 못한 것이 서글프구나.
풍류가 시사(詩社)를 차지했음을 이미 헤아려
웅당 마을 사람들을 품제하여 추천하였네.
지금처럼 향전을 더 넣을 틈이 없는 때에도
그대 또한 내 생각에 스스로 사로잡혔는가?

석로를 만나 닭과 술을 배불리 먹었기에 시를 지어 향장 박준화에게 사례하다
對石老滿嚼鷄酒之饋 詩以謝鄉長朴準華

郵丞知我淡如僧
爲設盃盤大嚼仍
佐以黃腥珍自別
兼之白熟軟可稱
好消一度壺中日
爽踏千層脚底冰
能使老夫風味足
夕陽梧几懶來凭

찰방이 내가 승려만큼 담박할 것이라 알기에
이에 술잔과 술상을 준비하여 많이 먹었네.
아주 각별하니 황색 진미로써 귀하고
백숙도 겸하니 연하여 칭찬이 나오네.
한 번 술병 안에서 좋게 날을 보내니²²⁾
시원하기가 천 층의 얼음을 밟는 것 같구나.
능히 늙은이로 하여금 풍미를 만족스럽게 하고
석양에 나른해져 오동나무 침상에 기대었네.

22) 호중일월(壺中日月)은 별천지(別天地), 즉 선경(仙境)을 말한다.

요새 바람이 잠깐 서늘해져서 송강에 그물을 던지는 흥이 있으나 얻지 못하였다.
 지금 이 정송암이 농어를 보내겠다고 한 것이 생각나서 기뻐 시 한 수를 짓다²³⁾
 近日風氣乍涼 政有松江舉網之興而不可得 今此鄭松庵鱸魚專饋 定
 中所思 喜題一詩

西風嫋嫋入郊新
 苦憶鱸魚未有因
 江上老仙空對酒
 吳中達士恨無蓴
 贈遺勝似墻頭饋
 惠好真知谷口隣
 何處得來如許大
 官廚三日雪紛鱗

가을바람이 솔솔 동네로 불어오니
 이유도 없이 농어가 생각나는구나.
 강 위의 늙은 신선은 공연히 술을 마주하고
 오중의 달사는 순채 없는 것이 한스럽구나.
 남에게 주는 것은 담장 너머로 주듯이 해야 훌륭하고
 은혜를 베푸니 참으로 골짜기의 이웃을 아는구나.
 어디서 왔기에 이렇게도 큰가?
 관아 주방에 사흘간 비늘이 눈처럼 흩뿌려지네.

평이당에서 비 오는 중에 향불을 피우고 조용히 앉아 운을 잡고 심회를 풀다
 平易堂雨中 焚香靜坐 拈韻遣懷

三時霖霖勢油然
 散却人間苦鬱痊
 嘉禾垂穎風無損
 雜卉吐花雨不愆
 把扇姑停涼入席
 調琴暫捨潤含絃
 篝香煮茗支頤坐
 錯落明珠濺碧蓮

세시에 가랑비가 하염없이 내리니
 인간사 괴롭고 우울함을 흩어 고치는구나.
 아름다운 벼가 이삭을 드리워 바람에도 떨어지지 않고
 온갖 풀이 꽃을 피우니 비는 잘못하지 않았구나.
 부채를 쥐고 잠시 멈추니 서늘함이 자리로 들어와
 거문고를 조율하여 잠시 놓아두니 현이 윤택해지네.
 향내나는 모닥불에 찻잎을 볶으며 턱을 괴고 앉았노라니
 밝은 구슬이 들쭉날쭉 푸른 연꽃에 잘랑이네.

23) 소동파(蘇東坡)의 <후적벽부(後赤壁賦)>에 나오는 이야기를 써서 풍류를 나타냈다. 소동파가 “손님은 있으나 술이 없고 술이 있더라도 안주가 없으니, 달은 밝고 바람이 맑은 오늘 밤을 어이하리오.” 하니, 손님이 “오늘 저물녘에 그물을 견여서 고기를 잡았는데 입은 크고 비늘은 가는 것이 송강(松江)의 농어처럼 생겼소.” 하였다.

십의대에 올라 붓 가는 대로 쓰다
 登十宜臺縱筆

步隨生印碧苔坳
 透骨天香碎繡包
 餘韻清幽蟬曳響
 殘暉明淡鳥投巢
 烟和筠綠緣臺匝
 風帶槐黃滿地拋
 對景賞心惟勝事
 招朋端合以詩敲

걸음 따라 생겨난 푸른 이끼가 언덕에 찍혀 있어
 뼈로 스며드는 천향이 수놓은 가방에 모이네.
 여운이 맑고 그윽한 매미 소리 길게 남고,
 스러지는 햇살 밝고 맑은데 새들은 둥지로 돌아가네.
 안개와 푸른 대나무가 누대를 둘러싸고
 바람은 노란 해나무 잎에 불어 땅에 가득 떨어뜨리네.
 경치를 바라보며 즐기는 마음이 오직 승사이니
 벗들을 불러 응당 시로써 즐기리라.

가을이 시작되니 절물(節物)의 느낌이 없을 수 없어서 운을 잡아 춘(春) 자를
 얻어 감회를 풀다
 秋序伊始 不能無節物之感. 拈韻得春字遣懷

晚雨翻荷洗點塵
 堂深碧樹嫩涼新
 鶯囀如流今處暑
 人騰入醉即長春
 老態那堪悲宋玉
 孤懷將擬賦安仁
 田園香稻知多少
 正是鱸魚一味珍

늦은 비에 연꽃이 뒤집혀 먼지를 씻어내고
 집이 깊어 푸른 나무는 여리고도 산뜻하구나.
 피꼬리 지저귀는 소리가 처서에 물 흐르듯 하고
 사람이 취하니 늘 봄과 같구나.
 늙은 몸으로 어찌 송옥을 슬퍼하며
 고독한 감회를 장차 안인을 비겨 시를 짓겠는가?²⁴⁾
 전원의 향긋한 벼가 얼마나 자랐는지
 바로 이 농어가 가장 맛있는 진미일세.

24) 안인은 진(晉)나라 반약(潘岳)의 자이다. 아내를 잃은 뒤에 <도망시(悼亡詩)> 세 수를 지어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였다.

죽성이 찾아와 함께 시를 짓다
竹醒來訪共賦

竹風醒我午眠慵
把論論文幸再逢
交契已編蘭簿簡
親朋漸看曉星容
固知之子遊將勝
却恨伊人翫未供
莫謝當前須盡樂
送君他日去何從

대나무 바람이 게으르게 낮잠 자는 나를 깨우니²⁵⁾
술잔을 붙잡고 글을 논했는데 다행히도 다시 만났네.
교분은 이미 맺어지고 난초 같은 서간을 엮었는데,
친했던 벗이 차츰 새벽별 보듯 되었네.
참으로 그대를 아니 경치 좋은 곳에 노닐며
이 사람에게 놀 기회 베풀지 못한 회한을 덜었네.
바로 앞에서 즐거움 다한다고 고마워하지 마소
다른 날에 그대를 전송하면 어디로 가겠소.

운을 집어 시를 지어 죽성에게 보여주다
拈韻賦得示竹醒

微痾作崇轉和平
握手悲歡好弟兄
病是安心爲客穩
詩因換骨對人驚
清蟬脫殼惟專化
老鶴梳翎豈有營
縱道君臣曾試藥
芝蘭編合最關情

숙환이 빌미가 되었다가 도리어 화평해지니
손을 잡고 슬픔과 기쁨 나누며 좋은 형제가 되었네.
병이 마음을 편하게 하고 객이 평온하게 되니
시로 인해 환골탈태하여 사람을 대하는 것이 놀랍네.
맑은 매미가 허물을 벗어 오로지 변화하고
늙은 학이 깃털을 빗질하니 어찌 경영하랴?
비록 군신이 일찍이 약을 시험하였다 말하지만
지초와 난초가 엮여 합해지니 가장 유관한 정이리라.

25) 정은교의 호가 죽성(竹醒)이기에, 친구가 찾아와 잠에서 깬 것을 죽(竹)과 성(醒) 두 글자를 넣어서 시로 만들었다.

정죽성을 만나 이야기가 정내산에 이르자 연잎주로 서로 맺은 약속에 감회가
있어 시를 짓다

逢鄭竹醒 語到鄭乃山 蓮葉酒相約事 有感而作

世事變遷日復新
相酬幸得舊交親
池荷釀酒無消息
悵望泉臺是故人

세상일 변천하는 것이 날로 자꾸 새로워지건만
서로 술을 따르며 다행히도 오래 친구로 사귀었네.
못의 연꽃으로 술을 빚어도 소식이 없어
서글피 황천을 바라보니 고인이 되었구나.

7월 5일 밤 꿈에서 깬 후 베개 위에서 감흥이 일다
七月初五日子夜夢覺後 枕上有感

神理人情是一間
今宵夢見二親顏
平時三字家庭訓
爲念空官戒速還

신의 이치와 인간의 정은 한 사이이니
오늘 밤 꿈에 두 분 부모님의 얼굴을 뵈었네.
평소에 세 글자로 가정을 가르쳤으나
비어 있는 벼슬을 생각하니 속히 돌아가야겠네.

연엽주
蓮葉酒

옛말에 이르길 사탕수수 뿌리를 먹으면 점입가경이라 했는데, 나는 연잎주도 또한 그렇
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빚은 것은 예전의 주방문에 따라 불을 때서 건조한 곳에서는 이
미 없어지고, 또한 비가 오고 어두운 곳에서는 방해를 받는다. 날이 저번보다 많으면 오
히려 진하게 익지 않으므로, 날마다 한 포를 열어 그 단 향기의 차별을 맛보는 것이다.
처음에는 갓 핀 연꽃을 보는 것과 같아 눈이 즐겁더니, 중간에는 고사전(高士傳)을 읽
는 것같이 사람으로 하여금 호기를 부리게 하며, 마지막에는 사당의 맑은 거문고 소리를
듣는 것같이 일창삼탄(一倡三歎)의 뜻이 있다. 날이 오래됐든 가깝든 맛의 얇고 깊음이
이처럼 같지 않으니, 어찌 연엽주만 유독 그렇겠는가!

貝葉蓮花八萬辭 패엽경²⁶과 연화경²⁷은 팔만 자의 말이니
 談龍盡日竟何爲 용처럼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끝내 어찌 되랴.²⁸
 爭如妙理吾家釀 신묘한 이치를 논쟁하며 우리 집에서 술을 빚으니
 美飽中兼長一知 기분 좋게 배부른 중에도 아는 것이 하나 늘어나네.

칠석날 밤에 석성과 즉석에서 시를 지으며 걸교²⁹의 쩡그림을 본받다
 七夕夜 與石醒口占 以效乞巧之嘯

今宵河漢放光新 오늘 밤 은하수가 새로운 빛을 내니
 老去攸求却有因 나이가 먹어서 구하는 바에 이유가 있네.
 橫羅徵債要清帳 뜻밖의 재앙으로 빚을 저서 장부를 청산해야 하는데
 無妄侵痾得祛身 무망괘³⁰가 속병에 침투하여 몸을 떨쳐낼 수 있었네.
 蜘蛛結網占多少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걸 어느 정도 점치고
 烏鵲戕毛認假真 까마귀 까치의 털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아네.
 只恨才疎不及矩 다만 재능이 서툴러서 기준에 못 미침을 한탄하여
 思量惟自費空嗔 생각이 오직 스스로를 축낼 뿐이니 공연히 화를 내네.

26) 고대 인도에서 불경(佛經)을 패다라(貝多羅 patra) 잎을 가공하여 기록했으므로, 패다라 잎에 기록된 불경을 패엽경(貝葉經)이라고 한다.

27) 대승 경전(大乘經傳) 가운데 《묘법연화경(妙法蓮花經)》이 가장 중요한 경전이다.

28) 소식(蘇軾)이 진술고(陳述古)와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진술고는 자신의 말은 지극하게 여기고 소식의 말은 비루하게 여겼다. 그러자 소식이 진술고에게 말하기를 “그대가 하는 말을 음식에 비유하자면 용 고기(龍肉)와 같고 내가 하는 말은 돼지고기와 같아서 참으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대가 종일토록 용 고기에 대해 말하더라도, 내가 돼지고기를 실제로 먹으면 맛도 있고 배도 부른 것만 못하다.” 하였다. 《동파전집(東坡全集)》 권74 《답필중거서(答畢仲舉書)》

29) 여인들이 바느질과 길쌈 등의 일을 잘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형초세시기(荊楚歲時記)》에 “칠월 칠석날에는 부인이 채색 실을 맺어 칠공진(七夕鍼)에 꿰어 놓은 다음 오이와 과일을 뜯어 차려놓고 직녀에게 걸교(乞巧)를 하는데 거미 새끼가 오이 위에 내려와 그물을 치면 소원대로 된다고 좋아했다.”라고 하였다.

30) 무망(無妄)은 아무런 까닭이 없이 걸린 뜻밖의 병을 말한다. 《주역》 〈무망괘(無妄卦) 구오(九五)〉에 “아무런 까닭이 없이 걸린 병이니, 약을 쓰지 않아도 저절로 낫는 희소식이 있으리라.[無妄之病 勿藥有喜]” 하였다.

방벽하가 한번 오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어느새 여름이 지나 절물이 점점 늦어져 그리운 정서를 품다
 方令碧下一來之約 居然過夏 節物漸晚 懷緒依黯

觸物興懷百感尋 사물에 부딪쳐 회포가 일어나 백 가지에 미치니
 援琴欲作少知音 거문고를 잡고 적은 지음이나마 만들고 싶구나.
 風聲戛擊庭梧葉 바람 소리 가벼이 뜰의 오동잎을 두드리고
 雲氣低迷院竹林 구름 기운이 집안의 대나무 숲을 낮게 떠도네.
 鶯喚尚含求友意 꾀꼬리 소리도 친구를 구한다는 뜻을 품었으며
 鶴閑惟有聽經心 학의 한가함도 오직 마음 다스리는 소리를 들은 것일세.
 花香細瑣無人會 꽃 향기가 가늘고 열어서 모이는 사람이 없으니
 孤酌清樽謾費吟 외로이 맑은 술잔에 술을 따르고 마음 내키는 대로 읊조리네.

작은 못에 핀 연꽃
 盆池蓮花

盆池種得妙蓮莖 작은 못³¹ 기묘한 연꽃 줄기에서 씨를 얻었는데
 雨聽跳珠碎玉聲 빗소리가 옥구슬이 굴러가듯 옥이 깨지는 듯하구나.
 花以聞香葉釀酒 꽃향기를 맡아 보고 잎으로 술을 빚으니
 能令孤客寄幽情 외로운 손님으로 하여금 그윽한 정에 기대게 하는구나.

31) 분지(盆池)는 땅에 동이를 묻고 물을 부어 작은 못을 이룬 것인데, 여기에 관상용 수생(水生) 화초를 심는다.

방벽하가 닭을 선물했는데, 흰 닭 두 마리는 기르고 노란 닭 네 마리는 먹으니
몹시 고마워 시를 써서 사례하다

方碧下惠鷄 二白養四黃饌云 甚感也 詩以謝之

碧下施遺念此翁
冠文距武好雌雄
羽毛正備千羣卓
質品雖殊五德同
調鼎的知扶眩暈
養埒期得破昏蒙
嘉君所惠多由感
試向陶鷗意不空

벽하가 이 늙은이를 생각하여 선물을 주었네.
관을 썼으니 문이고 발톱이 벌어져 무이니 좋은 암수 짝일세.
깃털을 다듬으니 천 무리 가운데 뛰어나고
기질과 품행이 비록 다르나 다섯 가지 덕³²⁾은 같구나.
술을 조리하는 지혜는 어지러움을 돕고
혜를 세우는 때는 어두움을 깨뜨리네.
좋은 임금이 은혜를 베푸니 감흥이 많이 일어나
도한(陶鷗)으로 여긴다는 뜻이 빈말은 아니구나.

시경(詩境)을 붓 가는대로 쓰다
詩境縱筆

一區詩境在巔涯
樂意於斯正偶諧
自有清涼延客興
可無殘暑逼人懷
地連海域烟雲供
花續園林錦繡排
行路猶堪常看過
茲吟何況舊朋儕

산봉우리와 절벽에 시경(詩境) 한 구역이 있어
즐거운 마음이 들어 좋은 짝과 함께하네.
절로 맑고 시원함이 있어 객을 끌어들이 흥을 돋우니
남은 더위가 사람의 감회를 몰아내지 못하리라.
땅은 바다에 맞닿아 있어 안개와 구름이 갖춰지고
꽃은 동산 숲에 이어져 수놓은 비단이 펼쳐졌네.
가는 길은 지금까지 늘 보며 지나던 곳이니
지금 읊음이 어찌 오랜 벗 때문이랴!

32) '계지오덕(鷄之五德)을 가리키는데, 머리에 깃을 쓴 것은 문(文), 발에 머느리발톱이 생긴 것은 무(武), 적을 만나 용감히 싸우는 것은 용(勇), 먹을 것이 있으면 서로 부르는 것은 인(仁), 새벽마다 우는 것은 신(信)이다. 《한시외전(韓詩外傳)》

가을 근교 기행 일곱 수
秋郊紀行七頁

大地焦熬似隔晨
蒼生濟活杳無津
如今喜看豐年象
儘覺皇穹渥澤仁
年形 농사 형편

대지가 타들었던 것이 마치 어제 같은데
창생을 구제함이 아득하여 갈 길이 없구나.
지금에야 기쁘게 풍년의 모습을 보고
황궁의 두터운 은택이 어둠을 한껏 깨달았네.

似有前因是大岡
夫妻款款出尋常
珍甘萬里其來遠
葡釀牛酥罄所藏
大岡德三 오오카

이전에 인연이 있어 오오카를 만났는데
부부가 느긋한 것이 심상치 않구나.
달고 맛난 것이 만 리 먼 곳에서 왔으니
포도주와 연유를 모두 쟁여 놓았네.

多從殊俗托知音
暗暗靈犀照不沉
今日西川成惠好
一樽酬酌海山深
西川健 니시카와

많은 이들이 다른 풍속을 좇아 친구에게 의탁하였는데
암암리에 의기투합하여 빛이 가라앉지 않는구나.
오늘 니시카와가 잘 베풀어 주어
한 잔씩 주고 받으니 바다와 산이 깊구나.

能通韓語導逢迎
我識松公是俊英
機密慙心內事
街頭出餞有餘情
若松嘉吉 와카마츠

한국어에 능통하여 소통하고 만났으니
나는 와카마츠 공이 빼어나게 똑똑한 사람임을 알았네.
마음속 일을 아주 조심스럽고 은근히 하였는데
길에 나와 전별하면서도 남은 정이 있구나.

形田英藝又岡田
譯桶傳話主專權
箇中橐鑰先天妙

카타다는 오카다와 함께 재주가 있어
역통으로 이야기 전하는 것을 담당하였네.
개중에는 선천의 신묘함을 풀무질하여

自是人爲日勝前 사람됨이 날마다 더 좋아진다고 절로 여기네.
會社電話 전화회사

津頭午啖抵黃昏 나루터에서 낮부터 먹다가 황혼에 이르러
浪費殘村一日煩 마을에서 낭비하니 하루가 번잡해졌네.
烟價分毫須計給 담뱃값은 적더라도 모름지기 세어서 주어야 하니
由來可畏是多言 유래가 두려워 말이 많아라.
軍浦午飧 군포의 점심과 저녁식사

浦雲漠漠隱蟾蜍 군포 포구에 구름이 자욱하여 두꺼비가 숨고
軋軋藍輿十里餘 남여가 빼격거리며 십여 리를 달렸네.
一抹芙蓉行漸近 한 줄기 부용산이 갈수록 점점 가까워져
枯琴瘦鶴返吾廬 마른 거문고와 야윈 학이 있는 내 집으로 돌아왔네.
還衙 관아로 돌아오다

육방옹의 시에 이르길 “깊은 산 속에선 사월에 피꼬리 소리를 처음 듣는다”고 하였는데, 이는 대개 사월의 피꼬리는 그 무리보다 늦다는 뜻이다. 이곳에서 근래 피꼬리 소리가 낭자하여 이상하기에 거기 살고 있는 사람에게 물었더니, 이곳에는 칠팔월부터 피꼬리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소동파는 시월에 중구의 모임을 만들겠다고 말하였으니, 남방의 기후가 다른 곳 같지 않다는 말이다. 이 피꼬리도 또한 영남의 국화이리라. 마음으로 몹시 기이하기에 기록하고 짓다
放翁詩云山深四月始聞鶯 此蓋以四月鶯猶屬晚之之意也 此地近日鶯聲狼藉 怪問居人 則此地由來七八月 鶯聲自在 東坡十月作重九會 語南方氣候不常 此鶯其亦嶺南之菊耶 心甚異之 錄而賦之

百囀鶯歌碧樹巔 나무 푸른 산꼭대기에 지저귀는 피꼬리 소리
南方秋候似春妍 남방의 가을 날씨가 봄같이 어여쁘구나.
翻疑臘月看飛鷺 선달에 날아가는 제비를 보았던가 의아스럽고
正憶天津聽杜鵑 천진에서 두견이 울음소리를 들은 것이 정확히 기억나네.
啼鳥自能隨地氣 지저귀는 새는 스스로 땅의 기운을 좇을 수 있고

騷人亦足賦詩篇 시인 또한 넉넉히 시편을 짓는구나.
近來世事多新異 근래에 세상일이 많이도 새롭고 기이하니
未必深求物一邊 반드시 만물의 일변도만을 탐구할 필요는 없다네.

지계 사무원 신현석을 만나 짓다
逢地契事務員申鉉碩賦得

金馬離懷亟未伸 금마³³⁾에서 이별의 회한을 제대로 펴지 못하다가
偶今相對話情親 우연히 이제야 만나 대화하며 정이 친밀해졌네.
回思往事誰知我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해보면 누가 나를 알리오.
君亦當時承準人 그대 또한 당시에 준인(準人)³⁴⁾을 이었으니.

가을 공기가 점차 차가워져서 여행하는 감회가 무료하여 마음대로 붓을 잡고 스스로 달래다
秋氣漸冷 旅懷無聊 縱筆自遣

大火西流一葉凋 큰 불이 서쪽으로 흘러가 한 잎이 시들고
指申星斗點招搖 손가락으로 북두성을 가리키니 점이 흔들리네.
健夏無媒誰許嫁 군센 여름도 중매쟁이가 없으니 누가 결혼을 약속하겠는가.
新秋有路自歸嬌 새 가을은 길이 있어 예쁘게 하고 시집가는구나.
匏花高掛黃金片 박꽃이 높게 걸려 황금 조각 같고
藜杖直抽碧玉條 명아주 지팡이 곧게 뻗어 푸른 옥 같은 가지일세.
不必人生多感慨 인생이 반드시 감개가 많을 필요는 없지만
證看前事扇風消 이전 일을 보면 부채바람이 없어진 걸로 증명하였네.

33) 오형묵이 군수로 부임했던 익산군의 옛이름이다. 본래 마한국(馬韓國)이었으므로 백제시대에 금마저(金馬濟)라 불리다가, 신라 신문왕(神文王)이 금마군(金馬郡)으로 고쳤다.

34) 《서경》 입정편에는 “삼택(三宅)”이란 말이 나오는데, 그 주석에 “상백(常伯 敎民官)·상임(常任 政사를 위임받은 공경)·준인(準人 법을 맡은 관원)의 직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했다. 신현석은 익산군 관원이었던 듯하다.

기원 명절을 축하하는 연회에 평이당에서 지계 사무원을 기다리며
紀元慶節日 宴待地契事務員于平易堂

原隰勞動孰似量 曾經同事我知詳 民國關由何等大 簿書期會每懷忙 追惟往事還多感 況遇今辰迥出常 只恨從來彭澤小 需雲薄薄不成章	들판과 습지에서 열심히 일하니 누가 비슷하게 헤아리겠는가? 일찍이 같은 일을 해 보았으니 ³⁵⁾ 내가 자세히 알고 있네. 민국에서 내린 관유이니 얼마나 큰일인가? 장부가 때맞춰 모이는 것이 매번 바쁘구나. 돌이켜보니 지난번에도 또 감회가 많았는데 하물며 오늘 아침에 만난 것은 평소에서 멀리 벗어났네. 다만 종래로 팽택이 작음을 한탄하여 수운이 엷디엷어 무늬를 만들어내지 못하네. ³⁶⁾
--	---

김연배가 내방하여 기뻐서 짓다
金煉培來訪喜題

回首前塵每黯然 關河貽阻動經年 音書地遠無因寄 夢想秋來只自懸 豈意滿天風雨裡 翻成今日祖孫筵 莫辭備說西疇事 蠟炬通宵喜不眠	돌이켜 보니 지난 일은 매번 어두워 관하가 막혀 한 해를 경영하기 어려웠네. 땅이 멀어 편지를 부칠 길 없기에 가을에는 오리라고 몽상하며 스스로 목 매달았네. 어찌 온 하늘이 비바람 가득한 날 오늘에서야 조손이 모이는 연회를 열었네. 서주의 일을 갖추어 말한 건 말할 것도 없고 밀랍 등불을 켜고 밤새 기뻐서 잠도 자지 못했네.
--	--

35) 오형묵이 51세 되던 1884년에 공상소(工桑所) 감동낭관(監董郎官)이 되고, 62세 되던 1895년에 공상소 감동(監董)이 되었으며, 68세 되던 1901년에 겸임 전라북도(全羅北道) 양무감리(量務監理)로 근무하였다.

36) 원문의 '수운(需雲)'은 연회를 성대하게 베풀어 즐기는 것을 말한다. 《주역(周易)》 〈수괘(需卦)〉의 상사(象辭)에서 "구름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수괘이니 군자가 이로써 마시고 먹으며 잔치하고 즐거워한다.[雲上於天需 君子以飲食宴樂]"라고 한 데서 나온 말이다.

사창에서 환곡을 나누어 준 일을 시로 짓다
社還米分給後賦事

西風吹送雨霏霏 整理申勤太守襜 際此艱虞王事適 派還施惠慰蒼黔	서풍이 불어 빗방울 흩날리니 태수의 흠옷을 정리하며 부지런히 일하네. 이 어려운 시기에 나라 일을 맞아 물결 돌아오듯 은혜를 베풀어 억만창생을 위로하리라.
--	---

서남면을 순회하며 농사짓는 것을 보다
巡西南面觀稼

一望青黃半熟禾 泰平留像慶時和 豐年何地酬君賜 自是農家擊壤多	푸릇 누릇 반쯤 익은 벼들을 보니 태평세월 머문 모습이 경사스럽고 화평하구나. 어느 땅에 풍년을 임금의 내려 주시는지 이로부터 농가에서 격양가를 부르리라. ³⁷⁾
--	--

석성에게 조롱을 변명하려 시를 읊어 보여주다
吟示石醒解嘲

君奕余詩性所令 人言罕見老風情 手談口詠誰兼得 且可名留各一評	그대가 나의 시를 바꾼 것은 성정이 시킨 바이니 사람들은 늙은이의 풍정을 드물게 보았다고 하네. 손으로 말하고 입으로 읊는 것을 누가 아울러 얻었는가? 이름이 남는 것은 각자 하나의 평일세.
--	---

37) 요(堯)임금이 50년 동안 정치를 펴면서, 천하가 잘 다스려졌는지 백성들이 임금을 떠받드는지 알 수 없었다. 이에 복장을 평범하게 차려 입고 강구에 나가보니 90세 노인이 격양가(擊壤歌)를 부르기를 "해가 뜨면 나가서 일하고 해가 지면 들어와 쉰다. 우물을 파서 물을 마시고 밭을 갈아 곡식을 먹으니 제왕의 힘이 나에게 무슨 상관 있겠는가.[日出而作 日入而息 鑿井而飲 耕田而食 帝力於我何有哉]"라고 하였다. 이에 요 임금이 기뻐하였다고 한다. 《열자(列子)》 〈중니(仲尼)〉

지계위원 고석홍이 종이와 붓과 먹을 가져다주어서 시를 써서 사례하다
地契委員高錫弘持贈紙筆墨 詩以謝之

深荷宣情方絮敷	베풀어 주시는 마음 돈독하여
文房堪作蘊藏輸	문방에서 간직하던 보물들을 보내 주셨네.
煤香色重翻鴉羽	먹의 그을은 향과 무거운 색이 까마귀 깃털을 번득이고
毛穎形珍摘鼠鬚	붓의 모양이 보배로워서 쥐의 수염을 뽑아왔네. ³⁸⁾
松處士宜同志有	소나무 처사는 마땅히 동지가 있지만
楮先生豈結交無	닥나무 선생은 어찌 맺은 벗이 없는가?
賴君此物充成四	그대 덕분에 이 물건을 채워 문방사우를 이루었으니
端硯從茲不恨吾	단계연이 이제부터는 나를 한탄하지 않으리라. ³⁹⁾

십의대의 가을 흥취
十宜臺秋興

竹氣清涼爽透襟	대나무 기운이 청량하니 상쾌하게 이불에 스며들고
西風近復動商音	서풍은 근래 다시 상음(商音)을 움직인다.
蓼花穗穗堆紅粒	여뀌 꽃 이삭마다 붉은 낱알이 쌓이고
檀葉纍纍結綠絃	박달나무 잎은 주렁주렁 녹색 실을 매어 놓았네.
野水天長平鷺下	들판의 물은 하늘처럼 너른데 해오라기 내려오고
園林陰邃散蟬吟	동산 숲 그늘에는 곳곳에 매미가 우네
此時歸興誰先得	이때 나오는 흥취를 누가 먼저 얻으랴
正好江東一帆尋	바로 강동에 돛배 하나 띄우기 딱 좋구나.

38) 옛날 명필들이 쥐 수염으로 만든 붓을 사용했다고 한다. 왕희지(王羲之)의 《필경(筆經)》에 “세상에 전하는 말에 의하면, 장지와 종이가 서수필을 사용했는데, 서수필은 붓끝이 아주 강강하여 칼끝 같은 것이 있었다고 한다.[世傳張芝鍾繇用鼠鬚筆, 筆鋒勁強有鋒芒.]” 하였고, 왕희지 또한 《난정서(蘭亭序)》를 서수필로 썼다고 한다.

39) 그 동안은 벼루만 있었는데, 이제는 종이와 붓, 먹까지 갖추어 문방사우가 이루어졌으니 벼루가 외롭지 않으리라는 뜻이다.

붓 가는 대로 감회를 짓다
縱筆賦懷

焉用生平志	어찌 평소의 뜻을 쓰랴
病纏衰耗因	병에 매여 기력이 쇠한 까닭일세.
飄零爲百里	이리저리 떠돌아다닌 것이 백 리나 되어
自笑我何人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웃음만 나오네.

수령 방벽하가 물고기를 보낸다는 글이 왔기에 시로써 사례하다
方令碧下有書送遺魚鮮 詩以謝之

非筌非網貨非媒	통발도 아니고 그물도 아니고 돈도 매개가 아니라
來自故人尺素裁	옛사람에게서 나왔으니 한 자 비단을 마음질했네. ⁴⁰⁾
煮汁扶元云有法	생선 즙이 원기를 북돋아 준다고 하던데
深知近我胃全頽	근래 나의 위가 온통 쇠약해진 것을 잘 알고 있었다오.

만수성절에 평이당에서 기쁨을 알다
萬壽聖節 平易堂識喜

오늘은 우리 한국이 만억 년 동안 무강함을 축하하는 명절이다. 무릇 그 영험함을 머금은 자들은 누구든 목을 늘이고 두손을 모아 축하하는 이 없으나, 신 황묵에 이르러 평소보다 더욱 지극해졌다. 한번은 스스로 통적하여 연곡의 아래에서 친근히 굴고 배무하는 대열에서 허리를 굽히고 중중걸음을 걸었다. 지금 늙어 백발이 되어도 개와 말 같은 구구한 정성은 진실로 이미 길들여지고 익혀서 이루어진 것이다. 비록 평소와 같은 시절을 묻는다면 활기찼고 남들이 우러러봤지만 남은 사람들의 뒤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였

40) 악부(樂府) 상화가사(相和歌辭) 음마장성굴행(飲馬長城窟行)에 “손님이 멀리로부터 와서, 나에게 잉어 두 마리를 주기에, 아이 불러 잉어를 삶게 했더니, 뱃속에서 짙막한 서신이 나오네.[客從遠方來 遺我雙鯉魚 呼兒烹鯉魚 中有尺素書]”라고 하였다. 척소(尺素)은 한 자 남짓의 비단이자, 척독(尺牘), 즉 짧은 편지이다. 곧 서신을 가리킨다.

는데, 하물며 탄신하시어 크게 경사로운 날이겠는가? 자취를 돌아보면 먼 마을에 머물러 이기지 못하고 달음질하여 하늘을 바라보니 인연을 이어짐을 이기지 못해 이 잔을 베풀었다. 조금이나마 미친한 몸이 강구에 나뒹굴어도 화봉삼축⁴¹⁾의 뜻을 배운 것은 또한 그 사이를 빗대어 말한 것이라고 한다.

斗極終南瑞氣盤	북두와 북극성, 종남산에 상서로운 기운이 머무르니
呼嵩朝野胥情歡	숭(嵩)을 불러 아침 들판에서 서로 기쁜 정을 나누네.
龍擎金鑑雲容碧	용이 쇠거울을 받들어 구름은 푸르고
鳳啄萸花日影丹	봉황의 부리 같은 멧협 꽃은 해 그림자에 붉어지는구나.
四海均霑天雨露	사해가 하늘의 비와 이슬로 고르게 젖어
一堂同慶郡衣冠	마을사람들 의관을 입고 한 집에서 같이 경하하네.
烏鳧未效鸕班賀	오리 신발 ⁴²⁾ 이 조정 반렬 ⁴³⁾ 에서 경하하는 걸 본받지 못했으니
小酌能無此會團	작은 술잔이 이 사람들을 모으지는 못했으리라.

당현 잎과 꽃을 읊다 吟唐莧葉華

鵝花差早菊差遲	진달래꽃이 조금 빨리 피고 국화는 조금 늦게 피는데
愁見羣芳近少衰	꽃들을 보니 요새 조금 시든 것 같아 근심일세.
續往抵來唐莧在	계속 가고 오다보니 당현꽃이 있구나.
紫黃選領一春時	보랏빛과 노란빛이 돌아와 봄날 한때를 거느리네.

41) 화축은 화봉삼축(華封三祝)의 준말로, 《장자(莊子)》〈천지(天地)〉에 보인다. 당요(唐堯) 때 화(華) 땅에 봉(封)해진 사람이 요임금에게 정수하고 부유하고 아들을 많이 낳기를 축원하였는데, 임금에게 다복하기를 축원한다는 용어로 쓰인다.

42) 후한(後漢) 때 하동(河東) 사람 왕교(王喬)가 섭현(葉縣)의 수령으로 있으면서 자주 도성에 드나들었는데, 그가 도성에 올 때 수레나 말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두 마리의 오리만 날아오자,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겨 그물로 오리를 잡아보니 그물 속에 왕교가 섭현의 수령으로 부임할 때 조정에서 하사한 신발 한 짝만 있었다고 한다. 《후한서(後漢書)》 권82 〈왕교열전(王喬列傳)〉

43) 원(鴈)은 차례를 지어 날아다니는 새이므로, 조정 관원의 반열(班列)을 원반(鴈班)이라 한다.

평이당에서 바로 시를 지어 감회를 보내다 平易堂 賦卽事遣懷

交換觀時物	철 따라 경물이 바뀐 것이 보여
遣懷平易堂	평이당에서 감회를 푸네.
鳳仙粘白雪	봉선화에는 흰 눈이 붙어 있고,
山蔣掛紅囊	줄풀에는 붉은 주머니가 달렸구나.
地暖鶯猶晚	땅이 따뜻해지자 피꼬리는 더욱 늦고
天晴鷺自忙	하늘은 맑아지자 제비는 절로 바쁘네.
何勞消日靜	어찌 수고롭게 고요히 소일하라
琴韻奏疎篁	성긴 대나무 숲 소리에 거문고로 운을 타네.

천리경을 읊다 咏千里鏡

目力常嫌視有涯	시력이 늘 안 좋아서 보는 데에 한계가 있었는데
鏡名千里最神奇	거울 이름이 천리라니 정말 신기하구나.
雙銅海市磨玄得	구리 두 개를 갈아 신기루처럼 현묘함을 얻으니
疋練吳門辨白知	오문의 한 필 비단을 명백히 알겠구나.
機逐壯衰殊左右	때가 장성함과 쇠함을 쫓는 것이 좌우가 다르니
孔隨低仰競毫釐	공수가 낮은 곳에서 올려다본 것과 한 치를 다투네.
不須一郡躬行盡	한 마을에 몸소 다 다니려 할 필요도 없이
持此疆形坐可移	이것만 가지면 강역의 모양을 앉아서 움직일 수 있구나.

닭 떼가 포도 훔쳐 가는 것을 한탄하다 歎葡萄爲鷄羣見偷

愛護申勤看暮朝	아끼며 보호하고 근면하게 밤낮 돌봤지만
榮枯豐薄豈曾料	영글고 마르고 풍성하고 모자란 것을 어찌 미리 헤아리랴.

橫欄暎日垂蒼玉
滿架濃雲簇翠翹
鷄子啄餘懸幾顆
龍鬚長處減傍條
欲收多實供佳釀
竟被庭雛先我饒

난간에 비치는 해가 푸른 옥에 드리우고
햇대 가득 흰 닭 떼가 무리지어 늘어져 있네.
달려 있던 남은 포도알 몇 개를 닭이 쪼아 먹고
용의 수염처럼 길게 늘어놓아 곁 가지를 줄였네.
열매를 많이 수확해서 좋은 술을 빚고 싶었는데
결국 내가 배부르기 전에 뜨락 병아리들에게 당했구나.

중화전 밖에 연회를 베푸는 날에 황태자 전하께서 송수시를 내리시니
원래의 운에 삼가 차운하다
中和殿外進宴日 皇太子殿下獻壽詩原韻謹次

吾君舜朔與堯旬
寶曆遐籌歲歲新
仙李靈根春不老
恭將華祝效封人

우리 임금께서는 순임금의 초하루와 요임금의 열흘 같아
보배로운 책력과 많은 산가지⁴⁴⁾가 해마다 새롭구나.
선계 오얏나무⁴⁵⁾의 신령스러운 뿌리는 늘 봄이어서 늙지 않으니
공경히 장차 화 땅의 봉인을 본받아 세 번 축하하리라.

신속희와 고별한 후 이어서 짓다
申雅肅熙叙別後追賦

經事徒勞夢一場
對攄憂樂足相當
權宜實放三營窟
就勝遷移八世庄

겪어온 일이 덧없는 한바탕 꿈이었구나.
마주하며 속 털어놓고 근심하고 기뻐한 것이 상당하도다.
권력은 매방(賣放)해도 세 개의 굴을 파 놓으며⁴⁶⁾
나아가 여덟 세대의 전장을 옮길 수 있네.

44) 하수(遐籌)는 장수를 상징하는 말로, 소식(蘇軾)의 《동파지림(東坡志林)》 권7에 나온 말이다. “세 노인이 서로 만나서 나이를 물으니, 한 사람이 ‘바다가 뽕나무 밭이 될 때마다 나는 산가지를 하나씩 놓았는데 지금까지 10칸 집에 그 산가지가 가득 찼다.[海水變桑田時吾輒下一籌 爾來吾籌已滿十間屋]’라고 하였다.”

45) 선리(仙李)는 오얏나무 아래서 태어나서 스스로 성(姓)을 이(李)로 삼았던 노자(老子)를 시조로 삼은 모든 이씨(李氏)를 가리킨 것으로, 여기서는 바로 조선 왕실을 가리킨 말이다.

46) 토끼가 위난(危難)을 피하려고 구멍 셋을 만든다는 뜻으로,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미리 몇 가지의 계획을 짜 놓음을 이르는 말이다.

敢擬昔賢鸞棘止
最憐新業蚕桑張
武陵去住前期在
預籌他時較孰長

감히 옛 성현들을 본떠 난극(鸞棘)⁴⁷⁾에 그치니
누에에 뽕잎을 베푸는 새 사업이 가장 좋아라.
무릉도원에 간 것은 전에도 있었지만
다른 때에 예산하여 누가 더 좋은지 비교해보네.

모기로 고생해 쫓아내려다 못했기에 자조하다
蚊苦驅不得 自嘲

爾是何生物
那由苦病翁
此而無制術
不復責微蟲

너는 무슨 생물이기에
무슨 이유로 병든 늙은이를 괴롭히는 것이냐.
이렇게 해도 제압할 방법이 없어서
작은 벌레를 다시 책망할 수가 없네.

당현을 조리하여 먹고 읊다
唐莧調饌吟

楓以霜鮮菊露華
色先二種勝於花
尋常非特嘉心眼
美饌調將口便奢

단풍이 서리를 맞아 신선하고 국화는 이슬 맞아 화려하니
두 종류 색이 꽃보다 낫구나.
평범해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마음의 눈으로 보니 아름답고
맛있는 찬으로 조리해 입으로 들어가면 편하고 넉넉하네..

47) 난극(鸞棘)은 맹자나무나 가시나무를 가리키는데, 이런 나무에는 봉새나 난새 같은 영조(靈鳥)가 깃들지 않는 것처럼, 낮고 천한 지위는 뛰어난 인재가 있을 자리가 아님을 뜻한다.

햅쌀 떡을 마주하고 기뻐서 짓다 對新稻餅喜題

錦巒玉飧七十年
今朝大嚼楊州仙
此語傍人如不信
請君看我新題篇
邇來比年年不熟
荒憂溢目民顛連
賑錢不足救涸轍
社米何能解倒懸
一身擔負百里重
臨餐忘味心惘然
翳桑一變作石廩
仁覆黔黎上有天
東臯昨日觀野色
腹飽之前眼飮先
堯封可比康衢屋
虞財擬阜南熏絃
廚人可謂沒風味
別供至今忘設焉
赤膚之荳長腰米
出自金穰新歲田

비단 같이 저민 고기와 옥 같은 밥 먹기를 칠십년
오늘 아침을 많이 먹으니 양주의 신선이 된 것 같구나.
이 말을 옆에 있는 사람이 못 믿으니
그대여! 내가 새로 지은 시편을 보소.
근년에 해마다 풍년이 들지 않아
흉년에 백성 가난하니 근심에 눈물이 차오르누나.
돈을 내어 주어도 수레바퀴 고인 물의 물고기를 구제하기 부족한데
사곡미로 어찌 거꾸로 매달린⁴⁸⁾ 걸 해소할 수 있을까.
일신에 부담이 백 리보다 무거워
밥상 앞에 있어도 맛을 잊어버리고 마음도 근심스럽네.
예상의 굶주림이 한번 변하여 쌀창고가 지어지고
어둠이 백성들을 덮으니 위에는 하늘이 있구나.
어제 눈을 보러 갔다가 들판의 색을 보니
먹어서 배 부르기 전에 눈으로만 보아도 배부르구나.
강구⁴⁹⁾ 노래는 요봉(堯封)⁵⁰⁾에 비할 수 있으며
남훈 노래는 우임금의 재물⁵¹⁾을 본떴다네.
주방에 있는 사람을 풍미가 없다 할 수 있으나
따로 이바지하니 지금에 이르러 베풀 걸 잊었네.
붉은 껍질 콩과 허리가 긴 쌀은
금 같은 줄기로부터 나오니 새 시대의 밭일세.

48) 도현(倒懸)은 곤고(困苦)가 심함을 이른 말이다. 《맹자(孟子)》에 “백성이 즐거워함이 거꾸로 매달린 것을 끌러버린 것과 같다.[民之悅之 猶解倒懸]” 하였다.

49) 요(堯)임금이 즉위 50년 만에 천하 백성들이 자신을 칭찬하는지 어떤지 살피기 위하여 미복(微服)으로 큰 거리(康衢)에 나갔더니, 한 노인이 배부르게 먹고는 흥덩이를 치며 노래를 부르기를, “해가 뜨면 일하고 해가 지면 쉬고, 밭 갈아 밥 먹고 우물 파서 물 마시니, 임금이 나한테 무슨 상관이냐.” 하였다. 강구요(康衢謠)는 태평성대를 노래인 동시에 임금을 축수한 노래이다.

50) 요봉(堯封)은 요임금이 순(舜)에게 명해서 천하를 순시하여 12주를 만들고, 12개의 큰 산에 봉토(封土)를 쌓아 제사 지내게 했다는 데서 온 말이다. 영토를 가리킨다.

51) 순(舜)임금이 오현금(五絃琴)을 만들어 타면서 남풍시(南風詩)를 지어 노래했는데, “남풍의 훈훈함이며, 우리 백성의 노역을 풀어줄 만하도다. 남풍이 제때에 불어오미여, 우리 백성의 재물을 풍부하게 하리로다.[南風之薰兮 可以解吾民之憊兮 南風之時兮 可以阜吾民之財兮]”라고 하였다.

篩天撒積雪色白
甑地分鋪棋點圓
大塊雄橫小塊側
勝似八珍方丈前
色可餐兮香可嗅
不待雪糖甘香咽
何人錯道嚼崖蜜
是時無羨烹松鮮
其味靡他別有在
所貴家家各自專
少婦怡顏洗鼎笑
阿翁便腹抱孫眠
酒食豐年風日好
朝朝暮暮起炊烟
且喜官倉租稅日
不教太守勞蒲鞭

체로 치듯 하늘에서 뿌려 쌓이니 눈처럼 색깔이 희며
시루에 찌서 고르게 나누니 바둑판의 동그란 점 같네.
큰 덩어리는 작은 덩어리 옆에 썩썩하게 굴러다니니
뛰어나기가 팔진이 늘어진 방장의 앞과 같구나.
빛깔도 먹음직스럽고 향도 맡기 좋으니
설탕을 달게 삼킬 것을 못 기다리겠네.
누군가 잘못 알려줘 애미를 한입에 삼켰는데
이때는 신선한 팽송도 부럽지가 않았다.
그 맛이 유난스레 다른 점은 없지만
집집마다 맛이 달라 귀하게 여기네.
젊은 며느리는 기쁜 얼굴로 솥을 씻으며 웃고
아버지는 배가 편해 손주를 안고 잠자네.
술과 밥이 풍년인데 날씨가 좋아
아침마다 저녁마다 밥하는 연기가 피어오르네.
게다가 관창에서 조세 거두는 날도 기쁘니
태수가 고생하며 부들 채찍으로 다스리지 않아도 되네.

왜나무 아래에서 마음을 적다 槐下遣情

槐陰聽訟見歸情
豈止令人顏色生
正好採黃皇里去
當時染補袞龍成

왜나무 그늘에서 송사를 들으며 돌아가고픈 마음이 드니
어찌 사람들로 하여금 안색이 살아나도록 하기를 그치겠는가?
노란 꽃을 캐니 황리에 가기 알맞아
당시에 물들이고 기워 곤룡포를 만들었네.⁵²⁾

52) 《춘추》의 필법(筆法)은 포평(褒貶)이 매우 엄격하여, 한 글자의 칭찬이 곤룡포(袞龍袍)보다 영광스럽고 한 글자의 폄척이 부월(斧鉞)보다 엄하다고 하였다

이병좌가 붕어를 지지고 정태영은 장과 김치를 한 그릇씩 보내 왔다. 지진 것은 아주 잘 익혀서 요리한 것인데, 병이 나올 즈음에 밥맛을 돋굴 만했다. 관아 주방에서 만드는 음식이 솜씨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정해진 방법으로만 가르치고 잘 받아들이지 않으니 예전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에 절구 두 수를 지어 속마음을 털어놓는다

李炳佐煮鮑魚 鄭泰瑛醬沈菜各一器送來 其煮之也濃爛 調之也甘適 使病餘之口 佐之加餐 所謂官廚之饋 非但手本不嫻 教之以方而亦不承順 嘗所憎悶 仍述二截遺情

栢子菘梨與雪糖
材料不是出尋常
寄來病叟偏宜口
可想調和手法良
沈菜 김치

жат과 배추, 배와 설탕이
재료로는 특별한 것이 아니건만,
요즘 병든 늙은이의 입에 잘 맞으니
조화를 생각할 수 있는 솜씨가 좋구나.

煮得新鮮京法依
掛唇膚骨爛同歸
最憎強鼻官廚下
非熟非生故欲違
煮鮮 생선 지짐

신선하게 지지는 것은 서울 조리법을 따른 것이니
은 몸을 여러 토막 내어 다 같이 따뜻하게 지지네.
가장 가증스러운 것은 콧대 높은 관아 주방이니
익은 것도 날것도 아니기에 물리고 싶구나.

운초 이용익을 만나 부용산 관가정에서 즐기자고 약속했기에 방벽하와 고위원과 모든 사무원에게 청하여 함께 올랐다. 마침 안개가 사라지고 구름이 걷히며 바람과 해가 맑고 아름다웠다. 온갖 곡식으로 누렇게 익은 들판은 색이 왕성하였다. 관가정(觀稼亭)은 비록 폐허가 되었지만 때맞춰 풍년의 즐거움으로 유쾌했으니, 오늘의 유람은 좋았다고 할 수 있기에 시를 짓다

對李雲樵容儀 有一暢於芙蓉山觀稼之約 而方碧下高委員及諸事務員 并請邀登臨 于時烟消雲斂 風日清佳 百稼黃熟 野色油油 觀稼之亭雖墟 而時政值快有豐年之樂 是日之遊 可謂好也 呵 賦詩

卽看秋容淡若空

가을 풍광이 비어 있는 듯 맑아

蘆花蓼穗曬西風
山圍野曠天疑盡
江抱崖回水似窮
鷗白易知分上下
禾黃難得辨邊中
招邀選勝年豐慶
幸與芝蘭氣味同

갈대꽃과 여뀌 이삭이 서풍을 쐬네.
산에 둘러싸인 들판이 횡해서 하늘이 다한 듯하고
강이 벼랑을 감싸고 흘러 물이 다한 듯하구나.
갈매기는 희어 위 아래를 쉽게 분간하지만
벼는 누래서 주변과 가운데를 분별할 수가 없네.
불러 모여 명승지를 골라 풍년임을 축하하니
다행히도 지초와 난초처럼 기미가 같구나.⁵³⁾

황진성을 만나 이야기하다가 공상소 백운동 일을 들으니 감회가 있어
절구 두 수를 짓다
對黃辰性語到工桑所白雲洞事狀 有感二截

年來衣狗事難常
語到工桑意輒傷
今日又聞前所未
叢鈴雨碎桂旗揚
果屋 과옥

해마다 변화무상해⁵⁴⁾ 심상치 않았는데
공상소 이야기를 하다보니 마음이 또 아프구나.
오늘 또 예전에 듣지 못한 이야기를 들었으니
총령은 비에 부서지고⁵⁵⁾ 계수나무 깃발을 들었다네.

聞道東農金尙書
名園新築好樓居
自憐初意非鳩拙
老買荒庄一弊廬
白雲洞 백운동

듣건대 동농의 김 상서⁵⁶⁾
동산에 이름을 짓고 좋은 누각을 새로 지어 산다고 하네.
첫 뜻이 어리석고 졸렬함을 스스로 불쌍히 여겨
늙어서 낡은 전장을 사들여 오두막에 산다네.

53) 《공자가어(孔子家語)》 권4 〈육본(六本)〉에 “착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치 지초와 난초의 방에 들어간 것 같아서 오래되면 그 향기는 맡지 못하더라도 곧 동화하게 된다.[與善人居 如入芝蘭之室 久而不聞其香 卽與之化矣]”라고 하였다.

54) 본문의 의구(衣狗)는 세상일이나 세태가 수시로 변하는 것을 가리킨다. 두보의 시 〈우탄(又歎)〉에 “하늘 위의 뜬구름 흰 옷과 같더니만, 잠깐 사이 변하여 푸른 개와 같구나.[天上浮雲如白衣 斯須改變如蒼狗]”라고 하였다.

55)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을 옥과 방울이 부서지는 것에 비유하였다. 옥과 방울이 부서지는 것이 격경이 된다는 뜻이다.

56) 동농(東農)은 농상공부 대신을 지낸 김가진(金嘉鎭1846-1922)의 호이다. 고종이 창덕궁 후원을 공사하고 남은 자재를 그에게 주어, 종로구 청운동에 백운정(白雲莊)을 짓고 살았다. 그 자리에 백운동천(白雲洞天) 바위굴씨가 남아 있다.

당국화가 신선하고 예쁜 것이 사랑스럽다
唐菊花鮮妍可愛

一種芳菲早菊花	일찍 피는 국화가 향기도 좋아
秋風分色自裁花	가을바람이 색을 분간하니 절로 꽃이 피네.
何嫌陶醉屈原醒	도연명이 취하고 굴원이 깬 것을 어찌 꺼리랴.
只許蒞翁眼欲奢	채옹에게만 눈이 호사스러움을 허락하였네.

일본인 오오카 도쿠조가 전의로 이사하면서 작별을 알린 글이 있기에
서글피 시를 짓다
日人大岡德三移住全義 有書叙別 怛然有作

人情不以越秦殊	인정은 월나라나 진나라라고 해서 다르지 않으니
我與岡三契意孚	나와 오오카는 뜻 맺은 것이 미쁘구나.
今日一書成遠別	오늘 편지 하나로 멀리 헤어진다니
前期悵望杳天涯	앞으로 만날 기약 있을는지 아득한 하늘가를 서글피 바라보네.

추석날
嘉俳節日

오늘은 추석 아닌 사람이 없으나 오직 나만 그렇지 않다. 떡으로 찾아뵈러 가는 것은 형 세상 그만둘 수 없지만, 문에 기대어 바라보는 것은 또한 이유가 있다. 이는 사람들이 듣거나 듣지 않거나 관계 없으니 세상일에 자유를 얻지 못함이 이오 같구나. 늙은이의 시름이 형클어져 풀 길이 없기에, 애오라지 짧은 노래를 지어 시름을 잊고자 한다

中秋望日稱令節	중추에 해를 보며 명절이라 칭하는데
羅代嘉俳傳古說	신라 때의 가배라고 옛부터 전해져 왔네.
茶酒家家神鬼飽	차와 술을 집집마다 귀신들에게 먹이고
裙帶處處兒童悅	새 옷 받은 아이들은 곳곳에서 기뻐하네.

況是今年秋早成
 歉餘快樂他時別
 眼看羣生各得所
 遊戲平林喧笑語
 彭城老尉年七旬
 白頭遠在江湖處
 豈無家人滿堂室
 只能遇辰增懷緒
 又有一憂君知無
 聽此令人惱心膺
 南轅北駕次第事
 去留由人不由己
 棠梨一樹媚春暉
 明日雨晴難預揣
 違心身計十常九
 種種思量欲狂叫
 梅花何瘦鶴何孤
 橘酸藥苦新稻酒
 衆樂之日獨憂感
 孰云今朝是秋夕
 所賴俯仰無愧怍
 上有蒼旻照丹赤

하물며 올해에는 추석이 일찍 찾아와
 추수가 끝나지 않으니 즐거움이 다른 해와 다르네.
 눈으로 군생을 보니 각자 자리를 얻어
 평평한 숲에서 놀며 떠들고 웃으며 말하는구나.
 팽성의 늙은 벼슬아치는 나이가 칠순인데
 흰 머리에 멀리 강호에 거처하고 있네.
 어찌 집안의 방들을 가득 채운 사람이 없는가
 명절을 맞으니 감회가 더하는구나.
 또 그대가 알지 못하는 걱정이 하나 있으니
 이를 들으면 사람들이 걱정하리라.
 남쪽으로 수레 몰고 북쪽으로 말 모는 것이 차례로 오니
 가고 머무는 것은 남을 말미암지, 내게서 오는 게 아닐세.
 팔배나무 한 그루가 봄같은 햇빛 받아 예쁘니
 내일은 비 내리고 맑은 것을 미리 알기 어렵도다.
 마음을 거슬러 몸을 헤아리면 열에 아홉은
 가끔 생각하느라 미칠 듯이 부르짖네.
 매화는 어찌 야위고 학은 어찌 외로운가.
 곱은 시고 황벽나무 쓴데⁵⁷⁾ 험살 술 마시네.
 모두가 즐거운 날에 홀로 근심이 가득하니
 누가 오늘 아침을 일러 추석이라 했는가?
 아래위를 보아도 부끄러움이 없으니⁵⁸⁾
 위에서는 푸른 하늘이 붉은 마음을 비추는구나.

57) ‘벽고(藥苦)’는 당나라 시인 설봉(薛逢)의 《여취황수재서(與崔況秀才書)》에 “맑은 얼음을 마시며 절개에 힘쓰고 황벽나무를 먹으며 마음을 가다듬네.[飲冰勵節 食藥苦心]”라는 구절에서 온 말인데, 청고(淸苦)한 생활을 잘 견뎌낸다는 뜻이다.

58) 《맹자》〈진심 상(盡心上)〉에 “위로는 하늘에 부끄럽지 않으며 아래로는 인간에게 부끄럽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즐거움이다.[仰不愧於天 俯不忤於人 二樂也]” 하였다.

추석 달밤에 석로와 더불어 십의대에 올랐는데 마침 마을 아래서 나무꾼들이
징과 북을 치며 와서 한마탕 놀았다. 시끄럽고도 호쾌하게 활발히 뛰며 기뻐하
니 이는 백성들과 더불어 누리는 진솔한 즐거움이다. 그래서 술과 넉넉히 먹이
고 돈을 나눠주고는 붓 가는 대로 시를 짓다
中秋月夜 與石老登十宜臺 適時邑底樵丁 以鉦鼓來集 遊戲一場 轟鬪
豪壯 踴躍歡喜 是知與衆之眞率樂也 因以酒及錢饋以派給 縱筆賦得

太和元氣月華熙	태화 원기에 달이 밝게 밝아서
正照山河分外奇	산과 강을 비추니 참으로 기이하구나.
佳興非爲誇此夕	오늘 저녁의 아름다운 흥취를 과장하는 게 아니건만
清光自是勝他時	맑은 빛이 별로 다른 때보다 낫구나.
曾聞公遠干歌舞	일찍이 듣기로 공원(公遠)이 노래와 춤을 구하고 ⁵⁹⁾
故效袁宏暢酒詩	옛날 원굉 ⁶⁰⁾ 을 본받아 술과 시를 즐겼네.
可謝樵丁稍慰寂	고적함을 위로해준 나무꾼들에게 하노니
相酬何惜賞錢施	술 따르고 산으로 돈 주는 것을 어찌 아끼랴.

금래 상서가 내가 병들어 고생하는 것을 걱정하여 영험한 인삼을
보내 주었기에 시 한 수를 지어 사례하다
琴來尙書悶余病苦 惠遺靈蓎 爲述一詩謝之

吟骨年來減却春	음골(吟骨)에게 몇 년 사이 봄빛이 줄어들어 ⁶¹⁾
身形自問亦愁人	몸의 상태를 스스로 물으며 남을 시름겹게 하네.
蟹疵添崇緣衰邁	게의 흠집이 빌미를 더해 늘어서 힘이 없어졌는데
龜息保生轉苦辛	거북의 숨쉬기로 생을 보전해 괴롭게 되었네.

59) 당(唐) 도사(道士) 나공원(羅公遠)이 추석날 밤에 계장(桂杖)을 공중에 던져 은다리를 만들어 현종(玄宗)과 함께 월궁(月宮)에 올라
선녀들의 춤을 구경하고 예상우의곡(霓裳羽衣曲)을 듣고 돌아왔다고 한다.

60) 진(晉)나라 원굉(袁宏)이 젊었을 때 조운선(漕運船)에서 노역하며 살아갔는데, 달 밝은 어느 날 밤 배 위에서 자기가 지은 역사시(詠
史詩)를 낭랑하게 읊어 그 주위에서 뱃놀이를 즐기던 진서 장군(鎭西將軍) 사상(謝尚)으로부터 그 재주를 높이 인정받았다.

61) 두보의 <곡강(曲江)>에 “한 조각 꽃잎이 날려도 봄빛은 줄어들는데, 바람에 나부끼는 수많은 꽃잎 사람을 시름겹게 하네.[一片花飛
減卻春 風飄萬點正愁人]”라고 하였다.

廩俸囊無錢子母
醫編籠乏藥君臣
尙書明鑑懸秋水
遠寄靈蓎補效神

관청의 봉급으로는 가족들에게 돈을 줄 수 없고⁶²⁾
의서와 약룡이 적어서 약을 제대로 지을 수 없네.⁶³⁾
상서의 명감이 가을 물에 매달려
멀리서 영험한 인삼을 부쳐 신묘한 효험을 돕네.

사무원 신현석이 준 흰 두루마리 종이를 사례하다
謝申事務員鉉碩白周紙

蒙君方絮惠
團製備文房
山水濡毫活
雲烟沁墨光
縱無瓊玖報
堪與硯池張
心貺非容易
深知故意長

그대에게서 따뜻한 선물을 받으니
문방사우를 모아서 갖추게 되었네.
산수화는 털을 적시어 활기를 더하고
구름과 안개는 먹이 스며들어 빛나는구나.
비록 아름다운 시로 갚지는 못하나⁶⁴⁾
벼루와 더불어 연못을 넓힐 수 있네.
마음을 주는 것이 쉬운 일 아니니
깊이 알기에 더욱 고마워라.

맨드라미꽃
鷄冠花

藥圃乏奇凡卉排
鷄冠尸素浪參儕
縱云丹頂渾相似
一喔無期比德乖

약초밭에 잡초를 건어냈더니
맨드라미가 시위소찬하여 함부로 무리에 끼어드네.
붉은 정수리와 아주 비슷하니
한번 울면 기약이 없어 덕이 어그러지네.

62) 자(子)는 이자이고 모(母)는 원금이다.

63) 약을 조제할 때 병을 치료하는 주약(主藥)을 군(君)이라 하고, 이를 돕는 보약(補藥)을 신(臣)이라 한다.

64) '경(瓊)'은 아름다운 옥이고 '구(玖)'는 패옥의 이름인데, 남의 아름다운 시문(詩文)을 비유한다. <시경> <위풍(衛風) 모과(木瓜)>에
“나에게 오얏을 던져주기에, 그에게 경구로 보답하였네.[投我以木李 報之以瓊玖]”라고 하였다.

아침에 연명(延命)하는 길에 오른 찬정 이지용 씨를 전별하며 감회를 쓰다
朝餞李贊政址鎔氏爲延命登途 述懷

宜休何以未曾休
可笑奔忙此走騶
早餞經過李贊政
次尋承接鄭公州
人言有對猶堪慰
誰道爲憐只自愁
好事常求虛事是
登梯妄想意無由

의당 쉬어야 하거만 왜 일찍 쉬지 않았는가?
우습구나! 바쁘게 이리저리 달리는 것이.
아침에 이 찬정을 전별하고는
다음에 공주군수 정관희를 찾아 보았네.
사람이 만나 말하면 위로받을 수 있으니
누가 가련타 말하면서 스스로 시름만 하나.
좋은 일을 항상 구하면 허무한 일도 일어나니
사다리에 올라가 망녕되이 생각하지 말라.

목천의 가게에서 묵다
宿木川店

天寒侵臥內
轉輾睡難成
霜草虫聲急
月林鳥夢驚
水砧舂火冷
蟹柵獵燈明
石老應相憶
但聞鴈陣橫

날씨가 추워 찬기가 누워 있는 곳으로 들어오니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기 힘들구나.
서리 내린 풀에 벌레 소리가 다급하여
달빛 비치는 숲에 꿈꾸던 새들이 놀라네.
쌀 찧던 물레방아간 불빛이 차가운데
게 잡는 목책에선 등불 밝히고 잡는구나.
석로를 응당 기억하건만
기러기들이 늘어서서 가는 소리만 들리네.

천안으로 가는 길에
天安途中

郊原行盡日
多稼足民藜

온종일 교외 들판을 지나노라니
백성을 살릴 만큼 곡물이 많구나.

砧杵村村響
樵歌處處呼
流光拋客路
晚景愧名途
碧山知有素
應不負吾迂

다듬질 소리 절구질 소리가 마을마다 울리고
나무꾼들도 곳곳에서 노래 부르네.
흐르는 빛이 나그네 가는 길에 뿌려지고
저녁 경치는 좋은 벼슬을 부끄러워하네.
푸른 산은 그 바탕이 있음을 알고
응당 나의 우월함을 저버리지 않네.

금강 나루터
錦江渡頭

秋容淡沫畫圖依
鷗鳥漁翁兩忘磯
隴畝黃雲禾稼熟
江湖白雪葦蘆霏
傍城樓榭仍經葦
懸壁楓林始放輝
何必吳中鱸獨美
鯖魚墮釣正甘肥

가을 경물이 담담하여 그림 같은데
갈매기와 어부가 모두 여울을 잊었구나.
밭두둑과 이랑에는 벼이삭이 누런 구름 같이 익었고
강호에는 흰 눈이 갈대처럼 펄펄 내리네.
옆 성의 누각은 수리를 하고
벼랑에 걸린 단풍나무 숲은 빛을 내기 시작하네.
어찌 반드시 오중의 농어만 맛이 있으랴.
청어도 낚싯대 드리우면 맛있게 살찌 있다네.

공산관에 연명한 후 물러나며 읊다
公山館延命後退吟

名德曾聞清白箴
聲譽望重甸湖臨
今朝儀節三呼祝
直出微忱愛國心

명망과 덕성은 일찍이 청백잠을 들은 적 있고,
명성과 영예는 높은 명망이 경기 호남에 임하였네.
오늘 아침 예절에 따라 만세를 세 번 불러
나의 작은 애국심을 내보였네.

신숙희의 전장에서 여(余) 자를 들어 짓다
申雅肅熙庄 拈余字

夙計辛勤一屋廬	일찍이 오두막집에서 고된 일을 헤아리고
營鳩得失竟何如	득실을 경영하고 헤아렸으니 마침내 어찌 되었나.
最憐新卜仁爲美	새로 집을 치니 어집이 아름답다 하였는데
回憶先基悵復餘	선조의 기반을 돌아보면 서글프구나.
柿勝封侯無彼此	감이 봉후보다 낫다는 말은 피차 없으나
稷看登圃有乘除	피가 타작마당에 올라도 승제가 있네. ⁶⁵⁾
荷君推讓田園托	그대에게 은혜를 주어 추양하고 전원을 맡기니
但恐將來愧屬余	다만 부끄러움이 장차 나에게 속할까 두렵네.

공주로 가는 도중에 지나온 길에서 본 바를 시로 짓다
公州途中 因歷路所見. 賦一詩

點檢豐年樂	풍년의 즐거움을 점검해보니
無非食作勞	먹고 일하지 않는 이가 없네.
嘗新兼粟飯	햅쌀에 조를 넣은 밥을 맛보니
味別具苾蓏	줄포로 찢 떡 같이 별미구나.
圃老編蒿晒	밭의 늙은이는 벼단을 묶어 말리고
村兒炙菽羹	마을 아이들은 콩을 거워 먹네.
擊壤歡有象	땅을 두드리며 기뻐하는 모습이
妙理又清醪	이치가 묘하고도 맑은 술 같구나.

65) 인간의 일에 있어 승(乘)은 잘되는 일을 가리키고, 제(除)는 잘못되는 일을 가리킨다.

천(天) 자를 들어 시를 짓다
拈天字賦卽事

清秋望不極	맑은 가을날 바라봐도 끝이 없어
遠水淨兼天	먼 바닷물이 하늘같이 깨끗하구나.
野菊香無賴	들판의 국화 향기는 말을 길 없고
山楓色入鮮	산의 단풍잎은 색이 선명해지네.
播徠惟恐後	씨 뿌리러 올 때는 뒷날이 걱정되더니
刈穡各爭先	벼단을 벨 때는 저마다 앞을 다투네.
晚景知多少	저물 녘의 경치를 다소나마 알아
詩成寫一箋	시를 짓자 벌써 이루어졌네.

직산에 가는 도중 생각나기에
稷山途中 有所思

老盡物華露已霜	늙으면 인물이 시들고 이슬도 서리가 되니
天時人事自空忙	하늘의 때와 사람의 일이 부질없이 바쁘구나.
黃雲滿地禾千里	누런 구름 같은 벼가 천리 땅에 가득하고
紅錦掛林楓一場	숲에 걸린 단풍은 한바탕 붉은 비단 같구나.
鐵路辛勤功漸就	철로는 힘들여 일해 점점 완성되고
電機張搭信相將	전선탑을 설치해 소식을 전하네.
至今世故商量在	지금 세상 물정을 생각하며
試向西風意轉傷	가을바람을 맞으니 마음 더욱 아프구나.

관아에 돌아와 명(名) 자를 들어 시를 쓰다
還衙拈名字

閱盡辛酸六日程	옛새 동안의 여정을 힘들게 돌아보니
修人事上一番行	사람됨을 닦는 일이 한 번 행차하는 것보다 위일세.

病酬叙暢堪稱意
職妥專關足勝情
應物無心心轉小
觀華有眼眼空贏
如今徒費消金俸
太守爲榮浪得名

병들어도 실컷 즐기면 뜻대로 된 것이니
직분으로 전관하면 정을 이길 수 있으리라.
만물을 물욕 없이 대하면 물욕은 작아지고
꽃을 볼보는 눈이 있으면 눈이 차오르리라.
지금은 헛되이 녹봉을 쓰면서
태수가 영화를 위해 명성을 얻으려는구나.

감역 임희근을 찾아갔으나 만나지 못하다
訪林監役喜根不遇

製作看來過丰思
曾因先故托深知
範模便着斯文重
聲韻堪爲後世推
一識韓荊誰不願
今尋東野我猶遲
滿樓山色人何去
悵悵徘徊轉覺悲

제작하는 걸 보니 반 넘게 됐다 싶어
일찍이 예전의 일로 깊이 아는 이에게 맡겼네.
모범이 이뤄져 사문(斯文)에 중망이 있고
성운(聲韻)이 후세에게 추앙받으리라.
한 번 한 형주자사를 알면⁶⁶⁾ 누구든 원하지 않으랴
지금 동야를 찾으니 내가 오히려 더디구나.⁶⁷⁾
누각에는 산빛이 가득하니 사람들이 어찌 떠나랴
서글피 거니노라니 더욱 슬프구나.

십의대에 올라 경관을 감상하며 붓 가는 대로 짓다
上十宜臺 覽賞縱筆

自從公府去
寥落遣懷難

스스로 공을 좇아 관아에 갔는데
적막하고 쓸쓸하여 시름을 풀기 어렵구나.

66) 당나라 시인 이백(李白)이 자기를 천거해 달라는 뜻으로 형주 자사 한조종에게 보낸 편지에 “내가 듣건대, 천하의 담론하는 선비들이 서로 모여 말하기를 “태어나서 만호후에 봉해지기는 굳이 원치 않고 다만 한 형주를 한 번 알기를 바랄 뿐이다.[生不用封萬戶侯 但願一識韓荊州]” 라고 한다.” 하였다.

67) 동야는 당나라 시인 맹교(孟郊)의 호이다. 그가 지은 <유자음(遊子吟)>에 “떠나기에 앞서 꼼꼼히 꿰매시며, 행여 더디 돌아올까 염려 하시네.[臨行密密縫 意恐遲遲歸]” 라고 하였다

日涉思常切
十宜見即歡
菊花傍醉石
楓葉暎香磐
殊有清真趣
請君說與看

날마다 거닐고픈 생각 늘 간절하더니
십의대를 보니 기쁘구나.
국화꽃 옆에 취석(醉石)이 있고
단풍잎은 향기로운 반석을 비추네.
자못 맑고 참다운 흥취가 있어
그대에게 함께 보기를 청하노라

산국화가 환하게 피어 정원이 두루 노랗기에 사람을 시켜 문을 닫지 못하게 하고 우두커니 앉아서 병이 깊어 누각에 기대 해가 서쪽으로 기우는지 알지도 못하고 읊다
山菊爛着 庭園遍黃 令人不堪閉戶塊坐 強病倚樓 不覺日之西沉 有吟

山菊芳菲瑣瑣黃
先于甘種後於唐
何須苛採名相異
未必淵明得許香

산국화가 향기롭게 피어 자잘한 꽃들이 노란데
감국⁶⁸⁾보다 먼저 심고 당국보다 나중에 하였네.
어찌 꼭 가혹하게 캐어 이름이 서로 달라야 하나?
만드시 도연명도 향기를 허락받지는 않았으리라.

십의대에 올라 가을날 본 것들을 쓰다
登十宜臺 賦得秋日卽事

盛德在金五政張
涵空遠水逼寒光
浥露竹容優夏碧
經霜柳色似春黃
愁轉孤懷鳴擣杵
涼添衰病慙衣裳

웅성한 덕이 금에 있어 다섯 정사가 펼쳐지니
공중에 담긴 먼 물이 찬 빛에 가까워지네.
이슬 젖은 대나무가 넉넉히 여름의 푸름을 품고
서리를 겪은 버드나무 빛이 봄날의 노란색 같구나.
절구 찢는 소리에 시름 더욱 외로워지고
서늘해지자 더욱 쇠약해져 겁나서 옷을 입네.

68) 《본초(本草)》에, “꽃이 크고 향기가 있는 것이 감국이다. [花大而香者爲甘菊]” 라고 하였다.

更看一雁排雲去 다시 보니 기러기 한 마리가 구름을 헤치고 가기에
却惹詩情到遠蒼 시 짓고 싶은 마음 일어나 먼 창공에 이르렀네.

요즘 차려준 반찬이 차츰 밥맛을 일깨워 시를 지어 자조하다
近日調饌稍覺食味以詩自嘲

一周來在水雲鄉 한 바퀴 돌고 나서 수운향에 있노라니
廚品當秋滋味長 주방의 음식들이 가을 맛아 맛이 좋아졌네.
炊飯流匙完稻粒 밥 짓고 숟가락을 저어 쌀알을 온전하게 하고
炙魚挾箸潑油漿 고기 구워 젓가락으로 짚으니 고기 기름이 튀는구나.
摘園棗栗時方美 동산의 대추와 밤을 따니 때가 바야흐로 좋고
採圃菘菁日復香 남새밭의 배추와 무를 따니 날이 갈수록 향기롭구나.
正值重陽黃菊發 이제 중양절 맞아 노란 국화가 피니
故披秫釀指先嘗 차조로 빚은 술을 열고서 손가락으로 맛을 보네.

정원의 각종 꽃과 풀들이 입추 이래로 차례차례 씨를 맺기에, 익는대로 따서 모아 두었다. 이 땅에 이름 없는 꽃이 있다는 것이 부끄러웠다. 생각해 보니 한번 변함이 있어 꽃의 고향이라는 뜻을 짓기 위해서 이와 같이 꽃을 심는데 생각이 남는 것이 있어 그래서 읍내와 바깥 마을의 꽃을 사랑할 줄 아는 이들에게 나누어 주어 그들이 명년 봄에 심게 하였다. 이로 인해 시 한 수를 짓다
庭園各種花卉 入秋以來 次第結子 隨熟隨摘儲聚 盖知此地無花之名可耻也 思有一變作花鄉之意 故花種如是留念者也 因各分散給邑下及外村知能愛花者 使之明春栽植 因成一詩

一一封中百百仁 봉지 하나하나에 씨가 수백 개 있으니
家栽戶種不爲貧 집집마다 뿌리고 심으면 가난하지 않으리.
無他德政臨民上 덕 있는 정치는 다름 아니라 백성의 위에 임하여

藉作明年有脚春 내년엔 따뜻한 봄 기운이 백성들에게 미치게 하는 것일세.⁶⁹⁾

석로와 일섭원에 올라 함께 짓다
與石老登日涉園共賦

爲看物華陟後岡 계절의 변화를 보려고 뒷산에 올랐더니
江山寥廓淨秋光 강산과 적막한 성곽이 가을빛으로 맑구나.
漫空玉雪蘆紛白 하늘에 흩날리는 옥 같은 눈으로 갈대가 희끗해지고
委地金錢菊韞黃 금전화와 국화 꽃잎이 누렇게 땅에 떨어졌네.
野稼頻生聲稔稔 들판 농가에는 벼 베는 소리가 자주 나오
寺鍾稀送響唐唐 절에서는 종소리가 드물게 땡땡 울리는구나.
霜楓還似渾中酒 서리 맞은 단풍이 술에 섞인 듯하여
喚起風前醉欲狂 바람 앞에 취하여 미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네.

산수국 떡을 장난삼아 만들어 방벽하에게 부치고 변명하다
苳餅戲作 寄方碧下解嘲

重陽前五日之甲 중양절 5일 전 갑일에
方碧下下蒞人榻 방벽하의 아래에 채인의 평상이 있네.
蒞人平生善戲謔 채인은 평생 우스개소리를 잘해
說與碧下造餅法 벽하와 함께 떡 만드는 법을 이야기했네.
黃苳菁根細切片 노란 산수국과 무 뿌리를 가늘게 잘라 조각내고
調蒸粉米濃匝匝 알맞게 찐 쌀가루를 두건으로 감싼다 했지.
蒞人言之碧下聽 채인은 말하고 벽하는 들으며
微意所在暗相合 작은 뜻 말하지 않고도 서로 잘 맞았지.

69) 원문의 '유각춘(有脚春)'은 봄날의 따뜻한 기운이 만물에 미치는 것과 같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사람을 말한다. 《개원천보유사(開元天寶遺事)》 〈유각양춘(有脚陽春)〉에 "송경(宋璟)이 태수가 되어 백성을 사랑하고 만물을 긍휼히 여기니 당시 사람들이 그를 일러 유각춘이라 했다."라고 하였다.

忽怪今朝食指動
 有來一僮擔兩挾
 新發釘餛氣薄熏
 佐以菹酪紛盈盒
 教我飜成一小宴
 饋派全衙不見乏
 吾將往討反迎擊
 所見畧同將計賺
 譬如吳蜀相持久
 先機送兵遙相壓
 好漢方能識好漢
 志氣相投到歡狎
 蒞人願爲陶後老
 碧下可作文中俠
 眼看良辰在隔宵
 與君泛黃一大敵

홀연히 오늘 아침 괴이하게도 식지 손가락이 움직이니⁷⁰⁾
 등에 메고 양 옆에 낀 동자 하나가 왔네.
 새로 음식을 늘어놓았는데 김이 열어서
 김치와 술로 도와 그릇을 채웠네.
 나로 하여금 한 작은 연회를 베풀게 하니
 온 관아를 먹여도 모자라지 않았네.
 나는 장차 치러 가도 도리어 맞아 칠테니
 보는 바가 대략 같아 속임 당할까 헤아리네.
 비유컨대 오나라와 촉나라가 서로 버텨이 오래 되어
 먼저 기회가 되면 병사를 보내멀리서 짓누르네.
 좋은 사내는 바야흐로 좋은 사내를 알아볼 수 있으니
 뜻과 기개가 서로 투합하면 기쁘게 친해지네.
 채인은 도연명을 따라 늙기를 원하였고
 벽하는 글 속의 협객이라 할 만했지.
 눈으로 보니 하루가 지나면 좋은 날이라
 그대와 함께 노란 국화를 띄워 한번 크게 마시리.

중양절 시
 重陽詩

이곳에 온 뒤로부터 이제 일년이 되었는데, 세상 물정에 젖어든 마음은 속세의 빛을 즐
 기느라고 아름다운 철을 여러 번 보내면서도 절기에 따라 시를 짓지 못하였으니, 내가
 돌아봐도 역시 늙었구나. 요즘 들어 가을바람이 쓸쓸하고 기러기 떼가 추위 속에 울며
 가니 계절이 바뀌는 느낌과 고향 그리운 생각을 빗자루로 씻어낼 수가 없고, 삼으로 파
 문을 수도 없다.

중양절이 돌아와 국화꽃 떨기가 요염해지니, 일어나 바라보면 유연히 기량이 일어나 동

70) 초(楚) 나라 사람이 큰 자라를 정(鄭)나라 영공(靈公)에게 바쳤다. 그때 공자 송(公子宋)과 공자 가(公子家)가 어전에 들어가 영공을
 뵈려고 하였는데, 공자 송의 식지(食指)가 움직이자 그 식지를 공자 가에게 보이며 “지금까지 나에게 이와 같은 일이 생기면 반드시 진귀
 한 음식을 맛보게 되었다.” 하였다. 어전에 들어갔을 때 마침 재부(宰夫)가 자라를 요리하고 있으므로 두 사람은 서로 쳐다보며 웃었다.
 《춘추좌전(春秋左傳)》〈선공(宣公) 4년〉

쪽 울타리에서 노란 국화를 따고 싶어졌다. 서쪽 동산에서 백주를 걸러 외롭게 읊으며
 혼자 마시노라니, 도리어 흥취가 없어짐을 깨달았다. 그래서 마을의 친구 두세 명을 불
 러 취해 시를 짓고 신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날 맹참군에게 다른 사람을 웃기게⁷¹⁾ 하
 지 않아 적적하였지만, 이는 이 늙은이가 부질없는 흥을 없앤 것이다. 어찌 시를 주고받
 지 않을 수 있겠는가? 허술하나마 나의 즐한 시를 보인다.

異鄉多病減腰圍
 節物驚心奈已非
 人事空生今日趣
 菊花還作去年菲
 無風嘲解欹烏帽
 有酒思違望白衣
 戲馬彭城何處是
 共君堪與醉相依

타향에 병이 많아 허리둘레가 줄었네.
 계절 변화가 마음 놀라게 하니 어찌 이미 글렀으랴.
 사람의 일은 부질없어 오늘에 미치지 못하건만
 국화는 작년의 향기를 다시 살려냈네.
 바람 없기를 바라건만 오모는 비뚤어지고
 술 있으면 좋겠던 생각 어긋나 흰 옷을 바라보네.⁷²⁾
 말을 놀리어 쟁성이 어디인고 하였으니
 그대와 함께 취해서 서로 의지하리라.

試把愁城藉解圍
 吁嗟雙鬢竟成非
 登高幾處要消厄
 掃榻如今共食菲
 病胃何嫌澆菊酒
 霜天正合換蘿衣

한번 수성⁷³⁾을 붙들고 금심을 푸니
 아아, 양쪽 살쩍이 마침내 어긋났구나.
 액을 없애기 위해 높은 곳에 올라
 걸상을 털고⁷⁴⁾ 지금처럼 함께 부추를 먹네.
 위가 병 들었다고 어찌 국화주 마시기가 싫겠는가?
 하늘에 서리 내리니 담쟁이옷 바꾸기에 알맞구나.

71) 맹참군(孟參軍)은 진(晉)나라 맹가(孟嘉)인데, 환온(桓溫)이 중양절(重陽節)에 용산(龍山)에서 주연을 베풀었을 때 바람이 불어 맹
 가의 두건이 땅에 떨어졌으나 맹가가 이를 몰랐다. 환온이 좌우의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게 하고 그의 행동을 보고자 하였다. 맹가가 한참
 후 번소에 간 동안 환온이 모자를 주워 그 자리에 두고 손성(孫盛)에게 명하여 맹가를 조롱하는 글을 지어 맹가의 좌석에 붙여 두게 하니
 맹가가 돌아와 보고 곧바로 화답했는데 그 글이 매우 아름다워 모두 찬탄하였다 한다. 《진서(晉書)》 권98 《환온열전(桓溫列傳) 맹가(孟
 嘉)》

72) 진나라 은사 도잠(陶潛)이 구월 구일 중양절(重陽節)을 맞았지만 마실 술이 없어 집 주변에서 국화를 따다가 앉아 쉬던 참에 먼 곳을
 바라보니, 백의(白衣)를 입은 사람이 자사(刺史) 왕홍(王弘)이 보내는 술을 가지고 오고 있었으므로 곧바로 그 술을 마시고는 흥백 취하
 였다.

73) 아주 풀기 어려운 고동스러운 시름을 성벽(城壁)에 비유한 것으로, 유신(庾信)의 《수부(愁賦)》에 “허다한 수성은 공략해도 끝내 부서
 지지 않고, 허다한 수문은 흔들어도 끝내 열리지 않네.[攻許愁城終不破 蕩許愁門終不開]”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74)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려고 걸상을 소제하는 것이다. 송나라 육유(陸游)의 《기제서재숙수재동장(寄題徐載叔秀才東庄)》에 “남대의
 중승은 걸상을 쓸고서 만나고, 북문의 학사는 신발을 거꾸로 신고서 마중한다.[南臺中丞掃榻迎 北門學士倒屣迎]” 하였다.

多情剩得東籬下 정이 많아 동쪽 울타리 아래에서 꽃을 얻으니
故放秋香滿眼依 가을 향기를 뿜어 눈에 가득하기 때문일세.

가족을 데리고 남쪽으로 건너갔다 들은 말이 기이하여 붓 가는대로 감회를 쓰다

聞携家南渡奇 縱筆述懷

秋風颯颯秋日薄 가을바람 쓸쓸하게 불고 가을 햇볕 엷어지니
鷹鷂橫擊鴻鴈落 송골매가 기러기를 쳐서 떨어뜨리네.
門前五株楊柳樹 문 앞에 버드나무 다섯 그루는⁷⁵⁾
榮耀幾時今蕭索 빛난 것도 잠시, 지금은 쓸쓸하구나.
昨日歸去龍山客 어제 용산에서 돌아오는 객은
東籬採採空復酌 동쪽 울타리에서 캐고 캐어 부질없이 술을 따르네.
忽驚家書自郵至 홀연히 가서(家書)가 우편으로 도착해 놀랐는데
書中備說家中事 글 중에 집안일을 자세하게 설명했구나.
陳陳債主急索錢 빚쟁이는 진진하게 급히 돈을 찾고
屋券已屬他人地 집문서는 이미 다른 사람의 땅에 귀속되었네.
咨嗟妻子怨無家 아아! 처자식은 집이 없음을 원망하고
扶携欲來於我寄 이고 지고 나에게 와서 얹혀살려 하는구나.
生平不用子莫中 평생 자막의 중도를⁷⁶⁾ 쓰지 않았는데
任渠從權團聚同 제멋대로 변통해 같은 무리를 모으는구나.
口衆食寡將何以 입은 많고 밥은 적으니 장차 어찌할꼬.
益復紛然失西東 더욱 분연히 동서를 잃었구나.
垓心卒困也如此 해심이 곤궁하기가 이와 같아
靜言思之咎在躬 조용히 생각해보니 허물이 내 몸에 있네.

75) 팽택 현령을 지낸 도연명이 자기 집 문 앞에 버드나무 다섯 그루가 있어 오류선생(五柳先生)이라 자호(自號)한 데서 온 말이다

76) 자막은 노(魯)나라의 현자(賢者)였는데, 그는 양주(楊朱)·묵적(墨翟)의 도가 중(中)에 어긋남을 헤아려, 양주·묵적의 중간을 고집했으므로, 맹자가 이르기를, “자막은 중을 잡았으니 중을 잡은 것이 도에 가깝기는 하나, 중을 잡되 권도가 없는 것이 마치 한쪽을 잡은 것과 같다.[子莫執中 執中爲近之 執中無權 猶執一也]”고 하였다. 《맹자(孟子)》〈진심(盡心) 상〉

人願腰符有由然 사람이 허리에 부절 차기를 원하는 데에는 이유 있으니
一出便作楊州仙 한번 출세하면 편히 양주의 선인 노릇을 할 수 있네.
吾觀熱境紈袴子 내가 있는 집 자식들의 열경을 보니
謗雖山積家有錢 비방이 산같이 쌓여도 집에 돈이 있네.
如海良田入雲第 바다 같이 좋은 밭에 구름 사다리⁷⁷⁾에 들어가
全家坐食日高眠 모든 가족이 앉아서 먹고 날마다 편히 자는데,
而我何心獨自貞 나는 어찌 마음이 홀로 올곧아
惟求素志不營生 오직 소박한 뜻을 구하고 삶을 영위하지 않는가?
一麾如貫二十載 지방 수령⁷⁸⁾을 스무 해 동안 관철하였고
所到只要治有聲 부임하면 반드시 치적 칭송받기를 바랐네.
謹慎何曾衣我美 삼가고 신중했으니 어찌 옷으로 나를 아름답게 하며
廉潔亦非糧我贏 청렴결백했으니 또한 양식으로 나를 살찌우지 않았네.
世態漸不如前時 세태가 점차 옛날과 같지 않아져
滄桑衣狗長相隨 상전벽해로 흰 옷과 검은 개가⁷⁹⁾ 서로 따르네.
公家一物吾何有 공가의 물건 하나라도 내가 어찌 가지랴
魚網之設鴻則罹 고기 잡는 그물을 설치하면 기러기가 걸리네.
西抹東塗罇百出 서쪽에서 바르고 동쪽에서 치대어도 틈이 백 개나 되니
存者如干不能支 남아 있는 자가 여간 버틸 수 없네.
彌天鉅帳滾到極 하늘을 두른 큰 장막 흔들리는 것이 극에 달해
禍及鷓鴣一個枝 화가 한 가지에 있는 뱀새에게까지 미쳤구나.⁸⁰⁾
家人捨我其誰歸 집사람은 나를 두고 누구에게로 돌아갈꼬
聞說南渡來相依 남쪽으로 건너가면 의지할 수 있다고 하네.
使我早入謀生術 나와 일찍 모의하여 살 길을 만들었지만
決無今朝此式微 오늘 아침 이 방식이 정교하지 않음을 알았네.

사람이 허리에 부절 차기를 원하는 데에는 이유 있으니 한번 출세하면 편히 양주의 선인 노릇을 할 수 있네. 내가 있는 집 자식들의 열경을 보니 비방이 산같이 쌓여도 집에 돈이 있네. 바다 같이 좋은 밭에 구름 사다리⁷⁷⁾에 들어가 모든 가족이 앉아서 먹고 날마다 편히 자는데, 나는 어찌 마음이 홀로 올곧아 오직 소박한 뜻을 구하고 삶을 영위하지 않는가? 지방 수령⁷⁸⁾을 스무 해 동안 관철하였고 부임하면 반드시 치적 칭송받기를 바랐네. 삼가고 신중했으니 어찌 옷으로 나를 아름답게 하며 청렴결백했으니 또한 양식으로 나를 살찌우지 않았네. 세태가 점차 옛날과 같지 않아져 상전벽해로 흰 옷과 검은 개가⁷⁹⁾ 서로 따르네. 공가의 물건 하나라도 내가 어찌 가지랴 고기 잡는 그물을 설치하면 기러기가 걸리네. 서쪽에서 바르고 동쪽에서 치대어도 틈이 백 개나 되니 남아 있는 자가 여간 버틸 수 없네. 하늘을 두른 큰 장막 흔들리는 것이 극에 달해 화가 한 가지에 있는 뱀새에게까지 미쳤구나.⁸⁰⁾ 집사람은 나를 두고 누구에게로 돌아갈꼬 남쪽으로 건너가면 의지할 수 있다고 하네. 나와 일찍 모의하여 살 길을 만들었지만 오늘 아침 이 방식이 정교하지 않음을 알았네.

77) 운제는 신선이 승천(昇天)할 때에 타고 오르는 구름사다리인데, 높은 벼슬에 오른 것을 뜻하기도 한다.

78) 일취(一麾)는 지방 수령의 직임을 맡는 것을 뜻한다. 남조(南朝) 송나라 안연지(顔延之)의 〈오군경(五君詠)〉에 “누차 천거해도 관직에 들어오지 않더니, 수레 하나 타고서 지방관으로 나갔네.[屢薦不入官 一麾乃出守]”라고 하였다.

79) 본문의 의구(衣狗)는 세상일이나 세태가 수시로 변하는 것을 가리킨다. 두보의 시 〈우탄(又艱)〉에 “하늘 위의 뜬구름이 흰 옷과 같다니만, 잠깐 사이 변하여 검은 개와 같구나.[天上浮雲如白衣 斯須改變如蒼狗]”라고 한 구절에서 유래하였다.

80) 《장자(莊子)》〈소유유(逍遙遊)〉에 “뱀새는 깊은 숲에 동지를 틀어도, 의지한 것은 나뭇가지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鷓鴣巢於深林 不過一枝]”라고 하였다.

所賴關西楊夫子 관서의 양부자⁸¹⁾에게 의뢰하는 바
 四知千秋人不非 하늘과 땅과 두 사람이 아니 천추에 모르는 사람이 없네.

남쪽 산등성이에 올랐다가 돌아오는 길에 망한사에 들러 관아로 돌아왔는데,
 맑은 정신이 조금 들어 생생하기에 운을 부르다
 登南岡 回至望漢寺. 仍還衙. 神思稍覺惺然. 因招韻

雙屐逍遙一策扶 양 발에 나막신으로 지팡이 짚고 거닐고 나니
 沉痾故遣得秋蕪 숙환이 씻겨나가 가을에 소생함을 얻었네.
 山容入眼搜窮勝 산 모습이 눈에 들어와 명승을 찾고
 佛氣凝心悟寂無 부처 기운이 마음에 묻쳐 적막한 경지를 깨닫네.
 量小謾勞沽酒使 조금 지쳤다는 핑계로 술을 사 오게 하고
 睡回旋見引燈奴 졸다 문득 깨보니 종이 등불을 켜는구나.
 誰知此老歸時興 이 늙은이가 거닐다 돌아온 흥취를 그 누가 알아.
 疏淪神精月滿衢 정신을 씻어냈더니 달이 거리에 가득 비치는구나.

동쪽 언덕의 가을 흥취
 東阜秋興

振策臨高放遠眸 지팡이 흔들며 높은 곳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西風吹入稻梁秋 서쪽 바람이 벼와 기장 사이로 불어 드는 가을이구나.
 雲屯海客牙樞浦 수많은⁸²⁾ 해객들이 돛단배⁸³⁾ 타고 포구에 들고
 金散日人鐵道邱 일본인들은 철도 언덕에 돈을 뿌리네.
 三登宛覩昇平像 세 번 올라 나라가 태평한 모습을 완연히 보니

81)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내가 알고, 상대가 안다는 사지(四知)의 고사(故事)로 이름난 양진(楊震)의 성품이 몹시 청렴하고, 경전(經典)에 특히 밝았으므로 당시의 선비들이 '관서공자양백기(關西孔子楊伯起)'라고 칭하였다.

82) 운둔(雲屯)은 구름이 모인 것처럼 무성한 나무 그늘을 가리킨다. 한유(韓愈)의 시 <송진사유사복동귀(送進士劉師服東歸)>에 "여름 해나무가 짙은 녹음 드리웠네.[夏槐作雲屯]"라고 하였다.

83) 아장(牙樞)은 상아 돛대이니 화려한 놀이배나 전함을 가리킨다.

百里初無太守憂 백 리에 비로소 태수의 근심이 없구나.
 我秫官田今亦熟 나의 차조⁸⁴⁾와 관아의 밭은 지금 또한 무르익으니
 一樽聊復十宜遊 한 잔을 마시고 다시 십의대에서 놀리라.

오후에 석로, 향장과 함께 동쪽 언덕을 향해 상신대(上新垆)를 지나갔다. 정태 영을 만나 함께 얼어붙은 언덕에 올라 천리경으로 멀리 보니 들판의 색이 처연하고 바람 기운은 쓸쓸했다. 벼는 거의 다 거둬들였고, 철로는 예전에 비해 갑절이나 길어졌다. 잠깐 사이에 술이 와서, 술잔을 돌리지 않고 마셨다. 날이 저물어 돌아오는 길에 신대촌(新垆村)을 지나다가 차조를 타작하는 사람들을 보고는, 준엄한 소리로 꾸짖었다. "관아의 밭에 차조를 심는 것이 팽택의 옛 법인데, 너는 감히 고하지 않고 마음대로 수확하다니 몹시 해괴하구나. 마음대로 타작하고 수입하는 것이 옳은 짓이냐?" 하였더니 타작하던 사람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두려워하였다. 바라보던 종자가 입을 가리고 슬며시 웃은 뒤, 이내 말하였다. "괜찮다. 웃자고 하신 말씀이다." 돌아와서 시 한 수를 짓다
 午後偕石老及鄉長 向東阜過上新垆 逢鄭雅泰球 作伴上冰磴 以千里鏡轉相注視 野色淒迷 風氣蕭森 禾稼幾盡收穫 鐵路比前倍就 俄已酒至 以無巡盃行之 日西而歸 路過新垆村 見打秫者 以峻辭哄之曰 官田種秫 乃是彭澤古法 爾敢不告擅收 甚可駭然 打畢輸入可也 打者瞠然有恐懼之狀 覩得從者掩口微笑而後 乃曰唯亦一笑料也 還賦一詩

陟巘逾原信步行 산봉우리 오르고 들판을 넘어 밭길 닿는 대로 가노라니
 蕭蕭經草響笳鳴 쓸쓸히 풀밭을 지나며 지팡이 소리가 나네.
 參天黛色青龍屹 질푸른 청룡산은 하늘을 찌르고⁸⁵⁾
 挾日寒聲白鴈橫 차가운 소리를 내며 흰 기러기는 해를 끼고 가로지르네.
 樽裏重陽香不斷 술잔 속엔 중양절의 향기가 끊이질 않고
 鏡中千里視偏明 거울 속에는 천 리가 두루 밝게 보이는구나.

84) 《용재수필(容齋隨筆)》 권8 <도연명(陶淵明)>에 "연명이 팽택에 있을 때, 공전마다 차조를 심게 하고 말하기를 '내가 술에 취해야 만족한다.' 하였다.淵明在彭澤, 悉令公田種秫曰, 吾常得醉於酒, 足矣."라는 기록이 있고

85) 두보(杜甫)의 <고백행(古柏行)>에 제갈량(諸葛亮)의 사당 앞에 있는 거대한 잣나무를 두고 "질푸른 빛 하늘을 찌러 높이 이천 척일세.[黛色參天二千尺]"라고 하였다.

歸時絕倒田間事 돌아오다가 발두둑 사이에서 포복절도해
賣弄村傭一喫驚 마을 농사꾼을 농락하여 한바탕 놀래켰네.

십의대에 올라 달을 감상하고 감회를 쓰다
上十宜臺 賞月遣情

淸宵散步迢郊原 맑은 하늘에 교외 들판을 산보하노라니
鴈叫橫來遶故園 기러기 울며 옛 동산을 돌아 오는구나.
露氣浥塵纖不動 이슬 기운이 먼지를 적셔 움직이지 않고
霜華渾月冷無痕 서리맞은 꽃은 달빛 같아 차가워 자취가 없네.
時當秋景偏多感 때에 맞춰 가을 풍경에 두루 느끼는 바가 많아
愁惹虫音最斷魂 벌레 소리에 시름이 일어 혼이 모두 끊기는구나.
戀闕丹心誰得似 조정을 그리는 일편단심이 누구와 비슷하랴?
仰觀星拱紫微垣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자미원을 받들고 있구나.

지금 이 내행이 내려가는 것을 단란하게 모인다 할 수도 없고,
집을 옮겨 남으로 간다고 할 수도 없으니 우습기에 시 한 수를 짓다
今此內行下來 謂之團聚亦不可 謂之移家南渡亦不可 可笑也 因賦一詩

自從彭澤莅 스스로 팽택의 임무를 좇아
愈慕陶淵明 더욱 도연명을 사모하게 되었네.
高風卓難及 높은 풍모가 뛰어나 따라가기 어려운데다
詩酒亦讓衡 시와 술 또한 견줄 수가 없네.
一事差可擬 한 가지 일은 그런대로 비할 만하니
家累不曾隨 집안의 근심을 일찍이 따르지 않았네.
筆硯爲兄弟 붓과 벼루를 형제로 삼고
梅鶴卽妻兒 매화와 학은 부인과 아이일세.
首尾二十載 머리에서 꼬리까지 스무 해
官舍似僧居 관사가 마치 중이 사는 절 같구나.

自喜如脫屣 험 신발 버리듯⁸⁶⁾ 절로 기뻐서
超入上乘虛 빈 틈을 타고 넘어 들어오네.
世故忽驚心 세고에 갑자기 마음이 놀라
蒼茫問家室 창망하게 가족들 소식을 묻네.
扶携南渡來 부축하고 붙들어 남쪽으로 건너와
奄見有今日 문득 보니 오늘이 되었구나.
甕盎纔整頓 장독과 동이들이 겨우 정돈되고
柴塩揚關愁 땀감과 소금 마련하니 근심을 덜었네.
孤負歸田計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홀로 저버리니
沐沐解何求 옷으로 머리 감으면서 어찌 퍼려고 하나.⁸⁷⁾
聚首天涯裡 하늘 끝에서 머리를 모으고
徒勞枉筭打 헛되이 산가지를 휘어 치는구나.
陶曾有是否 도연명도 일찍이 이런 적이 있었던가.
又覺出其下 그 아래에서 나왔음을 또 깨달았네.
醉石應嘲我 취석은 웅당 나를 비웃지만
黃花莫笑人 노란 국화는 나를 비웃지 않으리라.
尙願從今往 이제부터 가길 원하니
屋裡生陽春 집 안에 따뜻한 봄이 생겨나는구나.

自喜如脫屣 험 신발 버리듯⁸⁶⁾ 절로 기뻐서
超入上乘虛 빈 틈을 타고 넘어 들어오네.
世故忽驚心 세고에 갑자기 마음이 놀라
蒼茫問家室 창망하게 가족들 소식을 묻네.
扶携南渡來 부축하고 붙들어 남쪽으로 건너와
奄見有今日 문득 보니 오늘이 되었구나.
甕盎纔整頓 장독과 동이들이 겨우 정돈되고
柴塩揚關愁 땀감과 소금 마련하니 근심을 덜었네.
孤負歸田計 고향으로 돌아갈 계획을 홀로 저버리니
沐沐解何求 옷으로 머리 감으면서 어찌 퍼려고 하나.⁸⁷⁾
聚首天涯裡 하늘 끝에서 머리를 모으고
徒勞枉筭打 헛되이 산가지를 휘어 치는구나.
陶曾有是否 도연명도 일찍이 이런 적이 있었던가.
又覺出其下 그 아래에서 나왔음을 또 깨달았네.
醉石應嘲我 취석은 웅당 나를 비웃지만
黃花莫笑人 노란 국화는 나를 비웃지 않으리라.
尙願從今往 이제부터 가길 원하니
屋裡生陽春 집 안에 따뜻한 봄이 생겨나는구나.

방벽하에게 홍시를 선물받았기에 사례하다
謝方碧下紅柿遺惠

相如思渴苦難裁 사마상여의 소갈증을 생각하니 글 짓기 어려워
獨坐愁看砌菊開 홀로 앉아 섬돌에 핀 국화를 시름겹게 보네.
物貺以心情可愛 마음으로써 물건을 주니 마음이 사랑스러워

86) 《한서(漢書)》 권25상 《교사지 상(郊祀志上)》에 “아! 만약 황제(黃帝)와 같을 수 있다면 나는 처자식을 버리는 것을 신발 벗듯이 할 것이다.” 하였다.

87) 생계를 위해 미관발직에 붙어 있는 것을 비유한 말이다. 송나라 진관(秦觀)이 가족을 위해 관직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신세를 한탄하여 《송진소장서(送秦少章序)》에서 “옷으로 머리를 감으면서 머리를 퍼려고 하는 것과 같다. [如沐漆而求解]” 하였다.

書來匪意感須推
凝霜圓顆豐肌潤
暎日朱苞美味該
甘逾露醬眞高品
名稱七絕未應該

오는 편지는 감회를 미루는 뜻이 아니리라.
서리가 둥글게 엉겨 살이 올라 윤택하고
햇볕 받아 붉게 영글어 맛이 아름답구나.
한층 달아진 이슬 장맛은 참으로 품격이 높아
이름은 칠언절구지만 값이 맞지를 않네.

승려 경엽이 두부전 한 그릇을 와서 바치기에 석로와 함께 술을 마신 다음
극아가 지은 '망한사에서 지재(持齋)하며 밤에 잃은 시'에 차운하다
慶燁僧荳煎一器供來. 與石老佐酒. 次克兒望漢寺持齋夜唵韻

如意天花月滿庭
心香芬苾曉痕青
固知冥佑生分別
不是維摩賴乞靈

천화는 뜻과 같아 꽃과 달빛이 뜰에 가득하고
마음의 향기가 아름다워 새벽의 자취가 푸르구나.
참으로 명계에서 삶의 분별을 도와주는 줄 아니
유마(維摩)에게 기대어 영혼을 구걸하는 게 아닐세.

국화를 대하고 읊다
對菊吟

정원의 꽃과 풀이 참으로 또한 많구나. 가벼운 자태와 연한 바탕이 다만 비와 이슬 중 하나이지만, 발이 없이 뜻을 의탁하는 자는 모두 국화에 이른다. 홀로 서리를 맞은 후 한때 그 뛰어난 오래 견디니 지사가 숭상하는 바이다. 요즘 섬돌을 둘러싸고 누르고 희게 핀 국화를 보니 만향(晩香)이고 항절(抗節)이어서 볼수록 더욱 사랑스럽기에 붓을 들어 다듬어지지 않은 글을 지어 한 칩을 얻었다.

平易堂中秋欲暮
陸人居士按花譜
早非不愛晚尤奇
我已區分割場圃
種種芳菲難盡名

평이당 안에 가을이 저물려고 하여
채인 거사는 화보(花譜)를 생각하네.
일찍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건만 늦은 때 더욱 기이해
내가 구분하며 마당의 남새밭을 나누었네.
씨마다 향이 짙어 다 이름 짓기가 어려우니

春粧夏飾如相爭
彭郡八無花居一
今年便作河陽城
自從蒹葭露爲霜
香園就次斂羣芳
金谷樓危綠珠碎
武陵水落漁舟藏
最有淵明所愛花
不與桃李競繁華
含英不吐經春夏
看與凡卉歸同科
令人苦憶其來遲
挖到楓明鴈落時
重陽少前與少後
白綻黃開互始之
黃者如金白如雪
金雪雪滿眼悅
風前作態弄旖旎
月下寫影搖聯綴
太似列貨波斯市
明珠寶貝爛盈視
又如排成六花陣
金鑿銀鏝頭頭是
萬木風霜搖落天

봄에 단장하고 여름에 꾸미는 것을 서로 다투었네.
평택에 여덟 가지가 없는데 꽃이 그 가운데 하나라
올해는 편히 하양성을 지을 수 있네.
스스로 갈대를 좇으니 이슬이 서리가 되어
향기로운 정원이 다음에는 꽃의 무리를 거두네.
금곡루는 녹색 구슬이 깨지듯⁸⁸⁾ 위태롭고
무릉도원에 물이 떨어져 고기잡이배가 감춰졌네.
도연명이 가장 사랑하던 꽃은
복숭아와 오얏이 더불어 번하하기를 다투지 않네.
꽃부리를 머금고 틉우지 않은 채로 봄과 여름을 보내고
여러 풀들과 함께 보이며 같이 있구나.
늦게 찾아와 사람들에게 기억을 괴롭게 해
단풍이 밝고 기러기가 끊어질 때까지 견디며 끄네.
중양절 조금 전이나 후에
흰 꽃은 퇴고 노란 꽃은 열려 서로 시작하는구나.
노란 것은 금 같고 흰 것은 눈 같아
금빛과 눈빛이 눈에 가득 기쁘구나.
바람 불기 전의 모습은 깃발이 나부끼듯
달 아래 나온 그림자는 이어져 흔들리는구나.
페르샤 시장에 진열된 보화 같아
밝은 구슬과 값진 보배가 찬란히 시야를 채우네.
또한 육화진⁸⁹⁾을 펼쳐놓은 것 같이
금 투구와 은 갑옷이 모두 그러하네.
만 그루 나무에 바람과 서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니

88) 녹주는 진(晉)나라 때 부호였던 석송(石崇)의 애기(愛妓)로서 미색(美色)이 뛰어났고, 금곡원(金谷園)은 석송의 원명(園名)이다. 당시 조왕 윤(趙王倫)의 하수인이던 손수(孫秀)가 녹주의 미색을 탐하여 석송에게 녹주를 달라고 요구했으나 석송이 듣지 않으므로, 손수가 조왕 윤에게 석송을 잡아 죽이도록 권유하여 마침내 석송을 체포하기 위해 금곡원으로 갑사(甲士)들이 들이닥쳤다. 그때 석송이 녹주를 데리고 청량대(靑涼臺)에서 놓고 있다가 녹주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금 너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하니, 녹주가 슬피 울면서 스스로 청량대 아래로 몸을 던져 자살했다.

89) 제갈량(諸葛亮)의 팔진법(八陣法)에 기초하여 당나라 이징(李靖)이 만든 진법이다. 군사가 적어 9군(軍)을 만들기 곤란한 경우, 주위에 6진(陣)을 만들고 가운데에 중군(中軍)이 들어가는 형태의 7군(軍)으로 만든 것이다. 이때 주위의 6진은 정병(正兵)으로, 가운데의 중군은 기병(奇兵)으로 배치한다.

靡渠誰復持芳鮮
胡塵不涅文丞相
周天獨戴魯仲連
傾我稊膠爲君賀
托我晚節長相勉
歲寒心事聊持贈
誓把松筠作後殿

너 아니면 누가 다시 향기로움과 신선함을 지나랴.
오랑캐 땅의 티끌이 문 승상을 막지 못하고
주나라 하늘은 노중련을 홀로 머리에 이었네.
내가 차조 막걸리를 기울여 그대를 축하하니
늦은 계절에 의탁해 길이 서로 권면함일세.
날이 추워지니 마음 일을 애오라지 넘겨주고
소나무와 대나무를 잡고 후군이 되기를 맹세하네.

정송암에게 동어⁹⁰를 받고 사례하다
謝鄭松庵惠銅魚

向荷蕞鱸感尚餘
尺書來伴又銅魚
何當有此承珍重
相報無緣歎自噓

지난번 보내준 순채국과 농어도 감사한 마음 남았는데
편지와 함께 동어를 또 함께 왔네.
어찌 이 진중한 보물을 받을 자격 있으랴
보답할 방법 없으니 길게 탄식하네.

손자며느리 김씨 혼인날에 짓다
孫婦金氏于歸日作

誰言南渡是天涯
三世居然集一衙
虛箔夜澄迎滿月
孤根春煖着新花

누가 남쪽으로 오는 것이 하늘끝이라고 말하는가
세 세대가 단란하게 한 관아에 모였노라.
맑은 밤에는 비어 있는 발이 보름달을 맞이하고
봄날씨 따뜻해 외로운 뿌리가 새 꽃을 피우네.

90) 동어부(銅魚符)로 한나라 때 지방관이 차던 물고기 모양의 신분(信符)인데, 오른쪽은 경사(京師)에 두고 왼쪽은 군국(郡國)에 주어 군사를 출동하는 데에 썼다. 흔히 고을의 수령에 임명되었다는 뜻으로 쓰인다.

孟光就我同鍾鼎
阿戎成人有室家
笑聽堂實騰賀語
洋洋景祿比恒河

맹광⁹¹이 나에게 와서 종정⁹²같이 되었으니
욱이가 어른 되어 집안을 꾸렸구나.
집에 손님들 모여 축하하는 말을 들으며 웃으니
양양한 앞길을 항하⁹³에 견줄 수 있구나.

석성이 베개 위에 감회를 서술하는 시를 써서 나에게 보여주었는데, 참으로 정
서를 잘 풀어냈기에 그 운을 받아쓰다
石醒以枕上所述懷詩示余 真是一般情緒也 步其韻

寒燈殘夢醒還驚
苦憶人生多變更
最隣伏枕昏蒙裡
叫送金鷄報曙明

차가운 등불 아래 꿈에서 깨어 놀라
인생이 많이 바뀐 것을 괴롭게 기억하네.
베개에 엎드려 혼몽한 가운데
금계⁹⁴가 울어서 먼동이 튼다고 알려 주네.

방백하의 집에 다섯 늙은이가 모이다
方令碧下庄 五老會

訪君筇屐接風烟
一室琴書恰眼前
節序推遷嗟昔日
村坊深臥送流年
興隨宿契由心合

나막신 신고 바람과 안개를 만나며 그대를 찾아오니
한 방에 거문고와 책이 눈앞에 흡족하구나.
절기가 차례로 지나가 옛날을 탄식하며
시골 마을에 폭 누워 세월을 보내네.
마음이 맞기에 흥겹게 묵은 약속을 따르고

91) 양홍(梁鴻)의 아내 맹광(孟光)인데, 양홍에게 시집가서 가시나무 비녀를 꽂고 삼베 치마를 입었으며 남편을 감히 마주 보지 못하고 밥상을 눈썹 높이에 맞추어 들어서 공경을 다하였다.

92) 종정(鐘鼎)은 종을 울려 식구를 모아 정(鼎)에 담긴 음식을 먹는 것을 가리키니, 고관이 되어 부(富)와 귀(貴)를 모두 누리는 것을 뜻한다.

93) 항하사첩(恒河沙劫)의 준말로 항하(恒河)의 모래알처럼 많은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이라는 뜻의 불교 용어이다. 항하는 인도(印度)의 갠지스강이다.

94) 본디 천상에 산다는 금계성(金鷄星)의 닭을 가리키는데, 전설에 의하면, 이 닭이 천상에서 새벽을 알리면 지상의 모든 닭이 그 소리에 응하여 다 같이 울어 댕다고 한다.

喜聽清談任口懸
人數多於商老會
且將我欲付龍眠

입담이 좋아 맑은 이야기를 기쁘게 듣네.
사람의 수가 상로의 모임보다 많아
장차 내가 용면⁹⁵에 글려달라 부탁하고 싶구나.

踏盡物華捲宿烟
居人款我喜迎前
松依商韻吟清日
菊似官啣抵暮年
地迥無遮羣嶂列
風號有力遠帆懸
開懷對蓋多般趣
共醉何妨自在眠

묵은 안개가 걷혀 좋은 경치 다 둘러보자
주인이 나를 환대하여 앞에서 기쁘게 맞아 주네.
소나무는 상운(商韻)으로 맑은 날을 노래하고
국화는 관함으로 저무는 해를 맞이하네.
땅은 멀리 막히는 것 없지만 산봉우리들 늘어섰고
바람이 힘 있게 불어 멀리서 돛을 다네.
가슴을 열고 잔을 마주하니 흥취가 많아
함께 취하니 무엇이 방해되랴, 알아서 잠들리라.

극아⁹⁶의 새벽 눈 시에 차운하다
次克兒曉雪韻

睡起推窓曙不迷
驚看世界一夷齊
神功已象銀成海
奇貨將居玉作堤
豫候知夫隨雨後
驟痕明是自風西
等閑莫說花粧早
梅信從茲續舊題

잠에서 깨어 창을 밀었더니 날이 밝아져
놀라서 세계를 보니 이제가 하나 같구나.
신의 공이 이미 나타나 은으로 바다를 이루고
기이한 재화는 자리를 잡아 옥으로 독을 만들었구나.
예후는 비온 뒤에 따라 알고
취흔은 서풍에 명백하구나.
매화장이 이르다고 등한하게 말하지 말라
매화⁹⁷는 이를 좇아 옛 화제를 잇는구나.

95) 용면(龍眠)은 송나라의 이름난 화가로 호가 용면산인(龍眠山人)인 이공린(李公麟)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화가를 가리키기도 한다.
96) 오형묵의 3남 극선(克善)을 가리킨다. 1900년 11월 27일에 외국어학교 부교관(副敎官)으로 임명되어 서울에 살고 있었다.
97) 매신(梅信)은 매화나무 가지와 서신이다. 남조(南朝) 송나라의 육개(陸凱)가 강남에서 멀리 장안(長安)에 있는 친구 범엽에게 매화 한 가지를 부치며 아울러 매화시 한 수를 지어보내기를 “꽃을 꺾어 역사를 도중에 만나, 농두의 사람에게 부쳐 보내네. 강남 땅 아무것도 있는 건 없고, 한 가지 불소식을 바쳐 올리네[折花逢驛使 寄與隴頭人 江南無所有 聊贈一枝春].” 하였다. 당시에 추위가 매서워 봄기운이 전혀 없다는 말이다.

남강 강원석의 전장에 멧이 모여 백향산의 상치회를 본받아 운을 날라와 짓다
南岡姜畹石庄小集 倣白香山尚齒會輪韻之作

偶成尚齒盡朝衣
合得四三九歲歸
草木斂華根已晦
蜚蟲閑戶動全稀
固知處世人爲貴
茲有選遊興欲飛
轉重親交謀會是
保留康健莫相違

공무가 끝나고 짝 지어 상치회를 이루어
서넛이 모여서 아홉 해나 되었네.
초목은 꽃 시들고 뿌리도 이미 말라붙어
곤충도 문 닫고 들어앉으니 움직이는 게 드물구나.
처세를 잘 해야 사람이 귀해지니
함께 노닐 사람을 잘 골라야 흥이 나네.
친교를 무겁게 하고 모임을 피하여
건강을 보전하는 것이 서로 어긋나지 않네.

하릴없이 앉아 일이 적기에 석성에게 받은 국화 베개 시에 차운하여 짓다
端居少事 次石醒見贈菊枕韻

任便不須試越方
靑囊裁作裹花黃
眼睜偏襯精加視
鼻孔常隣氣透香
較看箇人支也枕
倣追陶令泛於觴
同憐苦海扶衰意
可使隨身用濟航

편리한 대로 월방을 시험할 필요 없이
푸른 주머니를 잘라서 노란 국화를 감쌌네.
눈이 가까우니 시력 더욱 좋아지고,
콧구멍이 가까이 있어 향기로운 공기가 스며드네.
채인이 베던 베개와 비교해 보고
도연명을 본받아 술잔 위에 꺾화꽃을 띄우네.
같이 고해에서 쇠한 몸 부축하여
몸 가는 데마다 가져다가 쓰리라.

소오헌에서 영(營)자를 얻어 시름을 풀다
嘯傲軒 得營字遣情

笑傲忘懷氣味清

회포를 잊고 즐기다 보니 기미가 맑으니

世間形役若爲情
風翻簾縠波紋纈
烟噴爐香篆字成
鍾較抄分輪軋軋
棋關勝負子丁丁
處官無事堪茲適
何必休閑有辨營

세간에 형역되는⁹⁸⁾ 것이 정을 위하는 것 같구나
바람이 불어 주렴이 물결 모양처럼 되고
연기가 피는 화로의 향은 전서 글자를 이루네
종들이 분 초를 견주어 바퀴가 빠걱거리고
바둑에 승부를 걸었기에 바둑알을 탕탕 내려놓네.
관직에 있으면서 별일 없어 유유자적하니
한가로이 쉰다고 어찌 변명할 필요 있으랴?

평이당에 일곱 늙은이들이 이어 모이다
平易堂七老續集

三品官階到七旬
公家金俸未全貧
炎涼豈是尋常地
榮悴原非別樣人
諳性無如依老室
暢懷誰似接交親
謀歡眞率多般趣
琴鶴相隨最要身

삼품의 관직으로 칠순에 이르고 보니
국가의 녹봉이 아주 가난하지는 않구나.
뜨겁다가 차가워지는 세태에 어찌 심상하랴
영화롭거나 초췌하다고 원래 별난 사람은 아닐세.
본성이 늙은이가 의탁할 방만도 못함을 알아
마음 후련하니 누가 사귀어 친해진 것 같으랴.
기뻐서 진솔하게 다양한 흥취를 꾸며
거문고와 학이 서로 따르는 것이 가장 필요하구나.

극아를 서울로 보내다
送克兒之京

悄然送汝向京師
風氣淒淒欲雪時

서글피 너를 서울로 보내고 나니
바람 기운이 싸늘하여 눈이 오려고 하는구나.

98) '형역(形役)'은 정신이 육신으로 인해 구속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도잠(陶潛)의 <귀거래사(歸去來辭)>에 "이미 마음이 육신으로 인해 구속을 받고 있으니 어찌 실의에 빠져 슬퍼만 하고 있으리.[既自以心爲形役，奚惆悵而獨悲。]"라고 하였다.

寄重維持公務在
勿令爲慮此分離

중임을 맡아 공무를 유지하여
헤어진다고 염려하지 말거라.

男兒年少致身初
鵬路扶搖萬里餘
日下親知如問我
爲言漸覺廢看書

남아가 어린 나이에 처음 나라에 몸을 바치니⁹⁹⁾
봉새의 회오리바람 타고 만여 리를 날아가네.¹⁰⁰⁾
서울의 친지들이 나에게 물어보면
점차 깨달아 책 보기를 폐했다고 말하거라.

운초의 집에서 다섯 늙은이에게 잔치를 베풀기에
雲樵庄宴五老

茲遊會趁桂英繁
喜看清風爲掃門
有酒地惟皆樂國
吟詩境豈是窮村
籬華向晚凌霜勁
山意凝寒釀雪昏
細故隨緣消却了
白頭相勸笑談喧

노는 모임에 달려오니 계수나무 꽃이 무성하여
맑은 바람에 문 앞 쓰는 것을 기쁘게 보네.
술 마실 땅이 있는 곳은 모두 즐거운 나라이니
시를 읊는 지경이 어찌 궁박한 마을이랴.
울타리 꽃이 철 늦어갈수록 서리를 이겨 굳세어지고
산의 뜻대로 추위가 모여 눈이 어둡게 하였네.
시답잖은 일로 맺어진 연은 모두 지워 없애고
백발로 서로 권하며 웃고 이야기하네.

참찬 곽중석의 '방계' 시에 차운하다
次郭參贊鍾錫蟊螟詩韻

爾本安生泉石家
我要泉石便忙多

너는 본디 샘 속 돌집에서 편히 살았는데
내가 샘 속 돌을 필요했다가 바쁜 일 많아졌네.

99) 《논어》〈학이(學而)〉에 "부모를 섬기되 그 힘을 다하며, 임금을 섬기되 그 몸을 바친다.[事父母 能竭其力 事君 能致其身]"라고 하였다.
100) 《장자(莊子)》〈소유유(逍遙遊)〉에 "봉새가 남쪽 바다로 옮겨 갈 때에는 물결을 치는 것이 삼천 리요, 회오리바람을 타고 구만 리를 올라가 여섯 달을 가서야 쉰다.[鵬之徙於南冥也，水擊三千里，搏扶搖而上者九萬里，去以六月息者也。]"라고 하였다.

飜然一出烟寰界 한번 뒤집어 연환계에 한번 나오니
苦樂而今問若何 괴로움과 기쁨이 지금은 어떠한가.

국화주가 익었다고 알리다
菊花酒告熟

淵明不解彈 도연명은 연주할 줄을 몰랐지만
尙蓄琴之素 평소에 거문고를 가지고 있기를 좋아했네.
蒞人不嗜飲 채인은 술 마시기를 즐기지 않았지만,
能知酒中趣 능히 술 마시는 흥취를 알았네.
俗方止麴米 속방은 국미춘¹⁰¹⁾에 그쳐
滔滔不足慕 도도하게 사모하기에 부족하였네.
杜康有密付 두강주는 은밀히 전해졌으니
得於花卉譜 화훼보에서 얻어낸 것일세.
松精試已驗 송정은 그 효험을 이미 시험했고
蓮葉妙亦具 연잎도 교묘해 또한 갖추었네.
可哉東籬菊 동쪽 울타리의 국화도 가능해
謀秋早自春 봄부터 가을 일찍까지 도모하였네.
蒔占秫畝半 차조밭의 반을 차지하고 모종을 내어
移傍柳館隣 오류관 옆에다 옮겨 놓았네.
摘佐重陽釀 중앙절에 따서 술을 담그면
甘香頗認真 달짝한 향기가 자못 참다움을 알게 되네.
霜餘手自掇 서리 내린 뒤에 손으로 주워
淨乾朵朵勻 꽃잎 하나하나 깨끗하게 말려서,
煞費枕貯用 베개 만드는 재료로도 많이 쓰고
非全藥料神 온전히는 아니지만 약재로 신묘해라.

思將與衆醉 장차 여럿이서 함께 취할 수 있으리니
謀及老孟光 늙은 맹광에게도 미치기를 도모하였네.
指使依夫子 부자들에게 맡겨 지시하여
調和異外鄉 다른 바깥 마을과도 조화하였네.
及期開春甕 때에 맞춰 봄에 장독을 열고
先遣石醒嘗 먼저 석성에게 맛보라고 보냈네.
斟從太守手 태수의 손으로 술을 따르니,
香滿平易堂 향기가 평이당에 가득 하구나.
試問有餘幾 얼마나 남았느냐 물어보니
資本五升強 본디 다섯 되 넘게 담았다네.
我有投河術 나는 물에다 풀어 마시는¹⁰²⁾ 기술이 있어서
用之鴈鵝羣 그걸 써서 집오리와 기러기를 모았네.
渴可說梅止 매실 이야기를 해서 갈증을 그칠 수 있기에
丹宜舐鼎分 정성스레 술을 나누어 훤아먹었네.
餘波尙恨少 여파는 오히려 회한이 적어
纔得在傍醺 겨우 얻어서 옆에서도 취하였네.
茲吾性所喜 나의 마음이 더욱 기쁘니
推己及諸君 나 자신을 미루어 제군들 기쁨을 알겠네.
謀眼不謀口 눈으로만 도모하고 입으로 도모하지 않으면
豈眞愛菊云 어찌 참으로 국화를 사랑한다 말하랴.

장차 여럿이서 함께 취할 수 있으리니
늙은 맹광에게도 미치기를 도모하였네.
부자들에게 맡겨 지시하여
다른 바깥 마을과도 조화하였네.
때에 맞춰 봄에 장독을 열고
먼저 석성에게 맛보라고 보냈네.
태수의 손으로 술을 따르니,
향기가 평이당에 가득 하구나.
얼마나 남았느냐 물어보니
본디 다섯 되 넘게 담았다네.
나는 물에다 풀어 마시는¹⁰²⁾ 기술이 있어서
그걸 써서 집오리와 기러기를 모았네.
매실 이야기를 해서 갈증을 그칠 수 있기에
정성스레 술을 나누어 훤아먹었네.
여파는 오히려 회한이 적어
겨우 얻어서 옆에서도 취하였네.
나의 마음이 더욱 기쁘니
나 자신을 미루어 제군들 기쁨을 알겠네.
눈으로만 도모하고 입으로 도모하지 않으면
어찌 참으로 국화를 사랑한다 말하랴.

101) 국미춘(麴米春)은 당나라 때의 술 이름이다. 《주소사(酒小史)》에 ‘운안(雲安)의 국미주(麴米酒)’라 하였고, 두보(杜甫)의 〈발민(撥悶)〉 시에 “들자 하니 운안의 국미춘은 한 잔만 마셔도 취한다고 하네.〔聞道雲安麴米春 纔傾一盞即醺人〕” 하였다.

102) 아랫사람을 아끼면서 동고동락(同苦同樂)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 옛날 어떤 사람이 대장(大將)에게 술 한 병을 선사하자, 그 술을 강물에 풀어서[投河] 부하들과 함께 강물을 마셨다는 이야기가 황석공(黃石公)의 《삼략(三略)》 상략(上略)에 나온다.

평이당
平易堂

慈愛爲治化信誠
推將孝友得權衡
委輸官事如家事
審察民情若己情
才補有由方寸地
心懸莫越半分程
春蘭秋菊俱難闕
然後期圖平易成

자애로움으로 다스리면 믿음과 정성으로 교화되고
효와 우애를 추장하면 민생의 균형을 얻네.
관아의 일을 맡겨 행하는 것을 집안일처럼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기를 내 마음처럼 해야 하네.
사방 작은 땅을 말미암아 재능 있는 자를 보임하고
마음에 걸리는 것은 일정의 반을 넘지 않아야 하네.
봄의 난초와 가을의 국화는 다 빠지기 어려우니
그런 후에 기약하여 평이하기를 도모하리라.

동창에서 환곡을 돌려받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서 창고 뜰에 이슬이 맺혔다. 여린 추위에도 이렇게 괴로웠기에 내가 심히 노쇠했음을 알고는 시를 지어 시름을 풀다
東倉捧還也 日氣猝寒 露立倉庭 頗苦薄寒 於此可知吾衰之甚也 賦詩自遣

爲念民憂不計身
携筇故意作東巡
倉風永革前時濫
野頌初騰此日均
恰受玉樓寒起粟
頓忘銀髮亂蒙塵
今行可喜還堪愴
勞悴深知異昔辰

백성의 근심을 생각하다 내 몸을 생각지 않아
지팡이 짚고 일부러 동쪽을 순방하였네.
창풍이 예전의 넘침을 길이 바꾸고
야송이 오늘 고른 것을 처음 떨치네.
마침 옥루에서 찬바람을 맞고 소름이 돋아
잠깐 은발임을 잊고 먼지를 덮어썼네.
지금 행하는 것이 기쁘지만 도리어 슬퍼할 수 있어
수고로 초취해지니 옛날과 달라졌음을 깊이 알겠네.

석성이 침상 위에 있다 닭 울음소리를 듣고 시를 지었기에 그 운을 따라 짓다
石醒有枕上聽鷄之作 故次其韻

陽精隨照唱天庭
遍得人間曙色青
畜族縱云皆有職
無差守信最爲靈

해의 정기가 비치는 곳마다 천정을 노래하니
인간세상의 새벽빛이 두루 푸르게 되네.
비록 축족이 모두 직분이 있다 말하지만
어긋남 없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영험하구나.¹⁰³⁾

사곡미를 기한 내에 내지 못하는 것은 비단 백성의 관습이 개탄스러울 뿐만 아니라 흉년의 뒤끝으로 궁한 집의 어려움이 또한 불쌍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연일 눈이 내려서 빨래를 말리거나 절구질할 수도 없다고 하니 형세가 그러하기에 시 한 수를 짓다
社米愆納 非但民習慨然 歎餘窮鄙之艱 亦可惻也 且以連日雪仍之故 未得曝春云 勢或然矣 爲賦一詩

趁期公糶糶倉開
辛苦吾民社課催
天意如今慳雨粟
只將糜雪謾成堆

기한을 쫓아 공무를 수행하려 환자쌀 창고를 열었는데
고생하는 우리 백성들은 사창에 널 것을 재촉받누나.
하늘의 뜻이 지금까지 곡식에 비를 내리는 것 아끼더니
이제는 싸라기눈이 쌓이려 하는구나.

석성이 침상에서 쥐에 대한 시 한 절을 읊었기에 차운하여 짓다
石醒有枕上詠鼠詩一截 故次之

行跡蕭如枯葉庭
窺人時復壓燈青
從來推究穿墉習
只是奸陰不是靈

행적이 들의 마른 잎같이 쓸쓸하여
사람의 때를 엿보아 등불 심지를 누르는구나.
종래 생각한 것은 담장을 뚫는 연습이니
이는 간악하고 음험하여 신령스럽지 못한 것일세.

103) 가족 가운데 닭은 날마다 새벽에 울어서 시간을 알려주는 직분을 지킨다는 뜻이다.

백향산 상치회의 원래 운에 차운하여 남강의 시첩에 붙이다
次白香山尙齒會原韻 附南岡帖

江鄉爾汝新交結	강향에서 그대와 새로이 교분을 맺어
氣槩相投盡白鬚	기개를 서로 투합했는데 모두 수염이 희어졌네.
老去酬情須頃刻	늙어 가며 술 주고받는 정이 모름지기 경각이니
吾生實事是歡娛	내 생애 실사가 기쁘고 즐겁구나.
高山流水知音好	고산유수곡은 지음이 좋건만 ¹⁰⁴⁾
下俚巴人腔調麤	하리 파인 ¹⁰⁵⁾ 은 곡조가 거칠구나.
折簡只要依古勝	접은 편지는 다만 옛 명승지에 의지하고
傳觴何妨倩他扶	술잔을 전하며 남에게 부탁하기를 어찌 꺼리랴.
聊將風月供談笑	풍월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웃으며
且把衣冠入畫圖	옷과 갓을 잡고 화폭에 담네.
宇內弟兄餘幾許	우주에 형제가 얼마나 남았는가
晨星落落漸看無	새벽별이 지니 차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구나.

영수목 지팡이
靈壽杖詩

서울 집에 있는 영수목 지팡이를 요즘 가지고 내려왔는데, 가깝고 편리하게 내려오니 이는 대개 만아들 태천이 육지도에 가 있을 때 섬 안에서 얻어와 재단하고 옷칠을 해서 나에게 늘그막에 주었다. 길이가 내 키를 넘었는데 대충 위아래가 없었으며, 마디에 사마귀가 낫기에 고르게 밀어냈으니, 이는 참으로 조물주가 그 교묘함을 지극히 한 것이라

104) 춘추시대의 백아(伯牙)가 거문고를 타면서 고산(高山)에 뜻을 두면 그의 벗 종자기(鍾子期)가 “높고 높기가 마치 태산과 같구나.[峨峨兮若泰山]”라고 하였고, 또 유수(流水)에 뜻을 두면 “넓고 넓기가 마치 강하와 같도다[洋洋兮若江河]”라고 하였다. 종자기가 죽자 백아는 자신의 거문고 소리를 들을 사람[知音]이 없다 하여 줄을 끊고 다시는 거문고를 타지 않았다고 한다. 《열자(列子)》(탕문(湯問))

105) 하리(下俚)는 비천한 노래이다. 초나라의 서율인 영(郢)에서 어떤 사람이 노래를 잘 불러 처음에는 보통 유행가인 <하리파인(下俚巴人)>을 불렀더니, 같이 합창하여 부르는 자가 수만 명이였다. 그러나 보다 고급의 노래를 부르니 따라서 합창하는 자가 수백 명에 지나지 않았고, <양춘백설(陽春白雪)>이라는 최고급의 노래를 부를 적에는 따라 부르는 자가 몇 명에 지나지 않았다고 한다. 《악서(樂書)》 권 161 <가하(歌下)>

인간의 솜씨로는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청려장이나 오균 등은 나도 보았고, 또한 많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구하자면 얻을 수 있지만, 이 물건은 타고난 것이다. 이런 것은 절대 없음을 아니, 어찌 사람과 외물이 서로 만나고 못 만나는 것이 있는지, 느낀 바를 한 수 짓다

天上白榆花
海底珊瑚樹
榆花精下流
珊瑚氣逆溯
有時適相遭
乃於島中土
化爲一靈根
仍被喬松護
瑤桃故容蟠
火棗與爲伍
滋長異凡卉
寸寸星霜屢
豈無樵斧過
緣薄尋常覩
吾兒昔公榦
一見知奇遇
愛親欲其壽
斫爲扶老具
天質雖云美
人功亦可取
全身衣荼髻
兩端圍錫固
長過身少許

하늘 위에는 흰 느릅나무 꽃이 있고
바다 밑에는 산호수가 있네.
느릅나무 꽃은 정(精)이 아래로 흐르고
산호수는 기가 거슬러 올라가네.
때가 맞아 서로 만나게 되면
섬 속의 흙에서 만나니,
조화하여 하나의 영험한 뿌리가 되어
높은 소나무의 보호를 받네.
요지(瑤池)의 복숭아는 감쌌을 받고
화조¹⁰⁶⁾는 함께 나란히 서네
불고 자라는 것이 평범한 풀과는 달라
마디마디에 빛과 서리가 쌓였는데,
어째서 나무꾼의 도끼질을 받지 않았는가?
인연이 적어 평범해 보였기 때문일세.
나의 아이가 예전에 공무를 볼 때
한 번 보고 기이한 만남을 알게 되어,
사랑하는 부모가 장수하기를 빌며
도끼질하여 노인을 부축하는 도구를 만들었네.
타고난 자질이 비록 아름답다 하겠으나
사람의 공으로 또한 취할 수 있었네.
온몸에 시커먼 칠을 입히고
양 끝에 주석을 둘러 굳게 하였네.
길이는 내 키를 살짝 넘겼고

106) 화조(火棗)는 신선이 먹는다는 과일로 이것을 먹으면 하늘을 날아다닌다 한다.

使我時一撫
 礪礪復聯綴
 癭瘻何多數
 似鱗龍身錯
 如螺佛頂附
 若非化工妙
 殫巧詎能做
 此如有錢買
 富人先我顧
 因知天地間
 物各有其主
 桃柳既屬蕪
 桃竹竟歸杜
 吾知我靈壽
 奇愛罕今古
 逝將學淵明
 倚聽田水圃

나에게 때때로 만져 보게 하였네.
 바위가 쌓이고 다시 이어지니
 혹이 왜 이다지 많은 것인가.
 마치 용의 비늘이 몸에 섞인 것 같고
 부처의 정수리에 있는 소라 모양 같구나.
 조물주의 신묘함 아니고서야
 교묘함이 어찌 이렇게 뛰어나 수 있으랴.
 이는 돈을 주고 산 것과 같아
 부유한 사람이 먼저 나를 돌아보네.
 이로 인해 하늘과 땅 사이에
 만물은 각기 주인이 있음을 알았네.
 광랑나무는 이미 소식에게 속했고¹⁰⁷⁾
 도죽장(桃竹杖)은 마침내 두보에게 돌아갔네.
 나는 나의 영수장을 아니
 기이한 사람이 예나 지금에 드물어라.
 이제 장차 도연명을 배워
 밭과 물과 남새밭을 의지하여 들으리라

소오현에서 여러 가지를 읊다
 嘯傲軒雜詠

본 고을의 정당에 편액(扁額), 제영(題詠), 공을 기리고 폐단을 바로잡는 등의 여러 판이 있는데, 해가 오래되어 색이 변화되거나 조치할 시기를 잃었다. 이제 모두 보수하여 다시 배치하려고 한다. 나 또한 보좌관들의 청원을 듣고 취석중출기(醉石重出記), 십의대서(十宜臺序), 평이당(平易堂) 등의 세 판을 걸었다. 그러자 소오현의 벽과 들보가 뻑뻑하고 가지런해져 그 새로운 판액과 오래된 시판들이 한눈에 다 들어왔다. 이는 비록 일 만들기 좋아하는 자의 행위이기는 하지만 관아의 한

107) 소식(蘇軾)이 혜주(惠州)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십일월이십육일송풍정하매화성개(十一月二十六日松風亭下梅花盛開)〉 시에 “긴 가지는 여지 포구에 반쯤 내려앉았고, 누운 줄기는 광랑의 동산에 홀로 빼어났구나.[長條半落荔枝浦 臥樹獨秀桃樹園]” 하였다.

가로운 모습을 볼 수 있으니, ‘느긋하고 한가롭구나’¹⁰⁸⁾하는 뜻을 얻은 것이다.

暫晦雖云替
 重懸愈見新
 非爲金侯地
 於權亦有因
 五柳先生館 오류선생관

잠깐 어둑해져 비록 바뀌었다 하더라도
 무겁게 걸려 있어 더욱 새롭게 보이네.
 돈과 제후를 위한 땅이 아니건만
 권세에는 또한 이유가 있구나.

五柳館三字
 當年先我過
 求多非本素
 仍舊貫如何
 五柳館 오류관

오류관 세 글자는
 당년에 나보다 먼저 왔네.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은 본래의 뜻이 아니니
 예전 그대로 두어도 어땠겠는가.

一韻傳相次
 羣侯互後前
 還似題名記
 指言某也賢
 題詠 제영

하나의 운을 전하여 서로 이어가니
 여러 군수들이 서로 앞뒤에 따르네.
 제명기¹⁰⁹⁾와도 비슷하니
 시판을 가리키며 ‘아무개는 현명했다’ 하리라.

五斗彭城郡
 煥乎堂及室
 苟無賢者勞
 豈有後來逸
 紀功 기공

오두미 녹봉의 팽성군
 당과실이 빛나는구나.
 참으로 어진 자의 수고가 없었다면
 어찌 뒤에 오는 자가 편안했으랴.

108) 《시경》〈채숙(采芣)〉에 “즐거운 군자여 복록으로 그를 후하게 대하네. 느긋하게 노닐기에 또한 이에 이르렀네.[樂只君子 福祿膺之 優哉遊哉 亦是戾矣]” 라고 하였다.

109) 송나라 사마광(司馬光)이 지은 〈간원제명기(諫院題名記)〉에 “뒷사람들이 하나하나 이름을 지적하면서 ‘아무개는 충성스러웠고 아무개는 간사했으며, 아무개는 정직했고 아무개는 정직하지 못했다.’ 할 것이니,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라는 구절이 있다.

出意作良圖
一朝民隱去
城頭菊牧場
今日種禾黍
揀弊 구폐

뜻을 내어 좋은 도모를 하려는데
하루아침에 백성이 숨어 버렸네.
성 앞의 꼴을 먹이던 목장은
오늘 벼와 기장 씨를 뿌리네.

先天一片石
民故曰太守
偉哉劉使君
風虎亦云偶
醉石重出記 취석중출기

선천의 한 조각의 돌을
백성들은 예로부터 태수라 하였네
위대하구나, 유사군이여!
풍호도 또한 짝이라 일컬었네.

竹樓宜何少
不及我臺優
東坡亦多事
爲說廢興愁
十宜臺 십의대

죽루¹¹⁰⁾가 어찌 적겠는가마는
내 누대의 아름다움에는 미치지 못하네.
소동파 역시 일이 많아
이야기를 하여 일어나는 근심을 폐하였네.

檐隙恢餘地
一楣容我揭
試腕如扛鼎
翁今七十歲
平易堂 평이당

처마의 틈이 넓게 자리가 남아
한 처마에 내 글을 걸었네.
팔뚝을 시험하면 술을 볼끈 들어올렸지만¹¹¹⁾
늙은이가 이제 일흔 살이 되었네.

110) 소동파가 〈적벽부〉를 지은 벼랑 위에 있는 누각이다. 송나라 왕우칭(王禹偁)이 〈황주죽루기(黃州竹樓記)〉 첫머리에 “황강의 땅에 대가 많아 큰 것은 서까래만 하다.[黃岡之地多竹 大者如椽]”라고 하였다.

111) 《사기(史記)》 권7 〈항우본기(項羽本紀)〉에 “항우는 힘이 세어서 세 발 달린 술을 두 손으로 볼끈 들었다.[力能扛鼎]”고 하였다.

가족의 어른인 감역관 공수 씨를 추모하며 세 절구를 짓다 輓監役族丈兢秀氏三截

아아, 나는 이 어른을 보내며 곡하노라. 옛날 사랑받던 것을 생각하니 지극한 정을 뛰어 넘었네. 젊었을 적에도 그러했으니, 하물며 지금 노쇠하여 동병상련의 신세임에랴. 남과 북으로 이별한 슬픔이 때때로 열매로 맺혀 꿈꾸고 생각나 힘이 들었는데, 장차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들은 지가 오래지 않아 거듭 옛 약속을 찾았는데 어찌 오늘 갑자기 그 만 아들이 수척해져서 상복을 입고 앞에 있을 줄이야 생각이나 했으랴. 서로 바라보고 눈물을 줄줄 흘리며 오랫동안 서러워하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아아! 정답고 간절한 말을 다 하지 못하고, 만가 세 첩을 지어 한두 가락을 대략 서술한다.

吾宗長德數公先
望若靈光獨巋然
自我南來書鴈斷
豈知離別遽成千

우리 집안의 어른신의 덕이 수많은 분을 앞서
바라보면 영묘한 빛이 홀로 우뚝 서 있는 것 같았네.
내가 남쪽으로 오면서 서신이 끊어지더니
어찌 이별이 아주 갑자기 올 줄 알았으랴.

悲時無幾不悲多
三姓堂前忍復過
此去趙徐相見日
爲言葱蒨變皤皤

슬플 때는 얼마 안 되고 슬프지 않았던 때가 많았고
삼성당 앞에서도 참고 다시 지났네.
이번에 떠나고 조씨와 서씨와 서로 만난 날
총채에게 말하며 허영게 변하였네.

權安猶幸我家山
伊昔烟霞杖履間
早晚賦歸知有日
且將原草想春顏

임시 안장은 다행히 우리 가문의 선산에 하니
예전에 경치 즐기며 지팡이 나막신으로 거닐던 곳일세.
조만간에 시를 짓고 돌아올 날이 있으리니
장차 들뜬 풀이 봄날의 모습을 보이리라.

정송암이 그 선조인 임진왜란의 선무공신 휘 담수의 남기신 일을 시로 짓고 화답을 구하기에 차운하여 짓다

鄭松菴以其先祖諱聃壽壬亂宣武功臣遺事韻求和 次之

天爲龍蛇輩出雄	하늘이 임진왜란 ¹¹²⁾ 을 위해 영웅을 내고
丹書鐵券誓僉同	단서와 철권 ¹¹³⁾ 으로 모두 함께 서약했네.
二三豪傑重興運	두세 호걸이 국운을 중흥하였는데
第一元勳不世功	제일 으뜸가는 공훈은 세상에 없는 공일세.
敵愾誠深唐浦上	적개심은 당포 해전에서 진실로 깊었으니
裕昆謨炯石泉中	후손에게 덕행을 남겨 ¹¹⁴⁾ 석천 안에서 밝았네.
至今樵牧猶能說	지금까지도 나무꾼과 목동이 공을 말하니
千載芬芳孰似公	천년 동안 꽃다운 명성 떨침이 누가 공과 비슷하랴.

십의대에 올라 설경을 감상하고 절구 한 수를 짓다

登十宜臺賞雪. 得一截

歷數臺宜到雪霏	여러 누대를 거쳐 눈이 펄펄 내리자
婆娑亂舞逐風飛	하늘하늘 어지러이 춤추며 바람 타고 날아다니네.
傾刻翻開花世界	잠깐 동안 나부끼며 눈꽃 피는 세계에
等閑無物不光輝	등한하지 않은 물건은 빛이 나지 않는구나.

112) 원문의 용사(龍蛇)는 임진년(壬辰年)과 계사년(癸巳年)을 가리킨다.

113) 첫조각에 지워지지 않게 붉은 글씨를 써서 공신(功臣)에게 주어 그 자손(子孫)이 죄를 지어도 죄를 면하도록 하던 일종의 증서인데, 이 시에서는 어란포 만호 정담수가 받은 선무공신 녹권을 뜻한다.

114) 유곤(裕昆)은 후손에게 덕행을 많이 남겨 준다는 뜻으로, 《서경》〈중궤지고(仲虺之誥)〉에 “의로 일을 바로잡고 예로 마음을 바로잡아 후세에 덕행을 남겨 주소서.[以義制事 以禮制心 垂裕後昆]” 한 데서 나온 말이다.

석성의 ‘평이당에 옮겨서 자다’의 원래 운에 이어 짓다

次石醒移宿平易堂原韻

愛看窓梅欲放春	창가의 매화를 사랑스레 보니 봄을 열려고 하여
尋常便作弄珠人	심상하게 구슬을 가지고 노는 사람 ¹¹⁵⁾ 이 되었네.
更憐石老寒燈夕	관등절 날에 추워하는 석로가 더욱 가여워
就煖須知句語新	따뜻하게 하려니 말 한 마디도 새로워야 하네.

밤에 앉아 곧바로 짓다

夜坐卽事

風透書燈細穗飛	바람이 글 읽는 등불에 스며들고 가는 이삭이 날아다니
跫音半夜問誰歸	한밤중 발소리에 ‘누가 오는가’ 물었네.
廚人爲我枯淡坐	부엌일 하는 사람이 나를 위해 담담하게 앉아
煖酒施情故不稀	술을 데워 마음 느긋하게 하는 것이 예부터 드물지 않았네.

삼국지를 읽고 느낀 감회를 쓰다

讀三國誌有感作

근일 밤에 등불 아래에서 시동 박희룡을 시켜 삼국지를 읽게 하고 베개에 기대어 들었는데 자못 들을만한 이야기가 많았다. 황족(皇族)이 세 번이나 찾아오고 종신이 여섯 번 나온 것에 더욱 감탄하였다. 한나라 왕실을 일으키려고 자기 국사에는 시간이 없었으니, 오장원(五丈原) 전투에 이르러서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두소룡의 ‘장사영웅루 만금(長使英雄淚滿衿)’이 또한 이와 같으리라. 일찍이 ‘인재는 다른 시대에서 빌려오지 않는다’¹¹⁶⁾는 말을 들었는데, 하늘이 재능 있는 자를 내려 주는 것이 어찌 옛날에는 풍요

115) 당나라 시인 왕적(王適)의 〈강빈매(江濱梅)〉에 “문득 매화나무를 보니, 한수 가에서 꽃을 피웠구나. 어느새 찾아온 이른 봄빛에, 구슬 가지고 노니는 선녀인 듯하구나.[忽見寒梅樹 開花漢水濱 不知春色早 疑是弄珠人]” 하였다. ‘농주인(弄珠人)’은 계란만 한 구슬을 차고 있었다는 전설 속의 신녀(神女)로, 매화를 가리키는 시어이다

116) 명나라 상로(商輅, 1414~1486)의 〈정무소(政務疏)〉에 나오는 속담이다.

롭고 지금에는 인색한 것인가. 또한 지금도 인재가 만드시 있겠지만, 나에게 수경선생¹¹⁷⁾ 같은 식견이 부족하여 봄날의 우레¹¹⁸⁾에 대한 짧은 글조차 쓰지 못하니 가히 한스럽구나.

不以異時少有間
南陽喜得臥龍還
遂令帝胄單寒力
弘濟金刀緒業艱
다른 시대보다 조금도 못한 게 아니어서
남양에서 기쁘게 와룡을 얻어 돌아왔구나.
마침내 황손의 단출한 군사력으로
한나라¹¹⁹⁾를 널리 구제하여 어려운 왕업을 풀어나갔네.

鼎足風雲出出奇
興劉指日仰軍師
運乖中道天何意
五丈原頭萬事悲
셋이 대립해 풍운 일으킬 때마다 기이해
한나라 일으키려 해를 가리키며 군사를 올려다보네.
운이 중도에 어그러지니 하늘의 뜻이 무엇인가
오장원 머리에 만사가 슬프구나.

大業由來在得賢
延莘載渭豈徒然
只緣風雪躬三顧
綿歷炎興再紀年
대업의 유래는 현명한 사람 얻는 데 달렸으니
유신에서 모시고¹²⁰⁾ 위수에서 말에 태운¹²¹⁾ 것이 어찌 헛되랴.
풍성을 무릅쓰고 몸소 삼고초려하니
불꽃이 계속 일어나 다시 연호를 세웠네.

117) 삼국시대에 양양(襄陽)에 은거하던 사마휘(司馬徽)를 수경선생(水鏡先生)이라 불렀다. 유비(劉備)가 형주(荊州)에 있을 적에 양양의 사마휘를 찾아가서 인재에 대해서 물어보자, 사마휘는 자기가 사는 곳에 복룡(伏龍) 제갈량(諸葛亮)과 봉추(鳳雛) 방통(龐統)이 있다고 하며 이들을 추천하였다.

118) 《주역》(해괘(解卦) 단(象))에 “천지의 기운이 화창해지면서 뇌우(雷雨)가 일어나고, 뇌우가 일어나면 백과(百果)와 초목이 모두 싹을 틔운다.”라고 하였다

119) 금도(金刀)는 묘금도(卯金刀)의 약자이니, 한(漢)나라 항실의 성인 유씨(劉氏)를 가리킨다.

120) 유신(有莘)의 들밭에서 농사짓던 이윤(伊尹)을 은나라 탕왕(湯王)이 데려와 하(夏)나라 폭군 걸(桀)을 쳤다.

121) 주나라 문왕(文王)이 위수(渭水) 가에서 사냥을 하다가 낚시질하던 태공을 만나서 말을 나눠 보고는 크게 기뻐하여 수레에 오르게 하여 함께 돌아와 스승으로 섬겼다.

십의대의 경치가 쓸쓸하니 참으로 사계절의 경치가 다르기에 시를 짓다 十宜臺物色蕭然 眞是四時之景不同也.賦得

日涉園中臺十宜
四時風物具於斯
此翁滋味誰知解
趣可含盃興可詩
일십원 가운데 십의대에
사계절의 풍물이 이처럼 갖추어졌네.
이 늙은이의 재미를 누가 알고 이해하랴.
흥취가 잔을 채울 만하고 시를 쓸 만하구나.

동지에 읊다 冬至吟

道脉一分物始情
天時人事序方成
老懷猶似葭灰管
暗逐微陽興轉生
도맥이 한 번 나뉘어 만물의 정이 시작되고
하늘의 때와 사람의 일의 순서가 이루어지네.
늙은이의 감회는 갈대 재를 담은 관과 같아
어둠을 몰아내고 작은 빛이 일어나네.

성북서첩의 운을 이어 쌍괴당에게 바치고 가르침을 구하다 次城北書帖韻. 呈雙槐堂崇鑑下求教

소동파의 시와 원장의 글씨는 베풀어 전하는 자가 오직 미치지 않을까 두려워했고, 빌려 보는 자는 오히려 사랑스러움을 알았는데, 하물며 베풀어 쓰지도 않고 빌려 보지도 않고 앉아서 주는 책을 받아 보는 사람에서랴. 하물며 시첩과 서첩을 한 권으로 겸한 것이야 말로 참으로 금과 옥을 합한 물건이니 대대로 물려줄 보물이라고 할 수 있다.

나 횡묵을 돌아보면 어떻게 이를 택정 선생澤艇先生에게서 얻었는가? 아! 나는 알겠다. 오구(吳鉤)¹²²⁾를 풀고 흰 명주 띠[縞帶]¹²³⁾를 주는 것은 물건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

122) 오구는 춘추시대 오(吳)나라 사람이 만든 갈고리 모양의 병기로, 보검이다. 당나라 노은(盧殷)의 <장안친고(長安親故)>에 “초나라는 난초를 차지 않고 오구검을 차고서 술 가지고 성 앞에서 친구와 이별한다.[楚蘭不佩佩吳鉤 帶酒城頭別舊遊]” 하였다.

123) 《춘추좌씨전》 양공(襄公) 29년 조에 “오(吳)나라 계절(季札)이 정(鄭)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자산(子山)을 보고 옛날에 알던 사람처럼 친밀해져 호대(縞帶)를 선사하자, 자산이 답례로 모시옷을 선사하였다.”라고 하였는데, 후세에 이를 친구 간에 사이가 두터운 것의 비유로 사용하였다.

음을 아는 것이다. 횡묵이 이 늙은이를 일러 전체를 안다고는 감히 말할 수 없지만 그의 아량이 높아서 태산 북두를 우러러보는 것 같은 줄은 안다. 백정옹 또한 횡묵의 얹이 능히 이에 미치는 것을 아니, 그렇다면 마음으로 안다도 말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이렇게 훌륭한 선물을 앉아서 받고 아무런 보답도 없기보다는, 차라리 화운시를 지어 바치며 한바탕 웃음거리라도 제공하여 보답이야 되지 않겠지만 좋아하는 뜻을 같이 간직하고자 한다.

人間脫落渺茫居
經過倏如一瞬餘
北海謾稱豪士氣
南華原有養生書
鷄知抱卵心常密
蟬到成形殼自虛
憂喜榮枯都是夢
維持莫若愛吾廬
處世 처세

인간 세상에서 빠져나와 아득한 곳에 사니
지나온 시간이 매우 짧아 한 순간 같구나.
북해는 호기로운 선비의 기개를 칭찬하고¹²⁴⁾
남화진인¹²⁵⁾은 양생서(養生書)를 남겼네.
닭은 알 품을 것을 알아 마음이 항상 밀접하고
매미는 형태 갖출 때가 되면 허물을 스스로 비우네.
근심과 기쁨, 무성함과 시들이 모두 꿈이니
유지하는 것은 나의 집을 사랑하는¹²⁶⁾ 것 만한 게 없네.

鵬路惟如獸渡河
類看難辨後先花
屠龍畫餅何須說
雨露同霑揚一家
仕宦 사환

봉새의 길은 마치 짐승이 물을 건너는 것 같아
앞의 꽃을 따르는 것이 비슷해서 봐도 분별이 어렵네.
용을 죽이는 법과 그림의 떡을 어찌 설명하라.
비와 이슬이 한 집안을 모두 같이 적시는구나.

可憐貢禹彈冠日
金石平生托意眞

가련하다, 공우가 관을 털던¹²⁷⁾ 날에
금석같이 평생 뜻을 의탁하였네.

124) 북해상(北海相) 공융(孔融)이 손님들과 술 마시기를 좋아하여 “자리에 빈객이 항상 가득 들어차고, 술통 속에 술이 떨어지지만 앓는다면, 더 이상 근심할 것이 없다.[座上賓客常滿 樽中酒不空 吾無憂矣]”고 하였다. 《후한서(後漢書) 권70 (공융열전(孔融列傳))

125) 《장자(莊子)》를 지은 장주(莊周)가 당나라 때에 남화진인(南華真人)이라는 시호를 받아, 그의 저서를 남화경(南華經)이라고도 하였다.

126) 도잠(陶潛)의 <독산해경(讀山海經)>에, “못 새들도 기꺼이 의탁할 곳 있으니, 나 또한 나의 집을 사랑한다오.[衆鳥欣有託 吾亦愛吾廬]” 하였다.

127) 뜻에 맞는 친구와 함께 벼슬길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한나라 때 왕길(王吉)과 공우(貢禹)는 서로 친구 사이로서 벼슬에 나가고 물러남을 똑같이 하였으므로, 세상에서 그들을 일컬어 “왕양이 벼슬에 나가면 공우가 관의 먼지를 털다.[王陽在位, 貢禹彈冠.]”고 하였다.

經涉險夷惟我爾
炎涼兩截彼何人
結交 결교

험하건 평탄하건 산 넘고 물 건너는 이는 오직 나와 그대이니
염량세태에 따라 판관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小歇曾聞名利關
見君超得便心安
詩思燁燁生花散
不負明時惟惠愛
所存舊業是清閑
歲寒晚節貞彌勵
也合聲華重若山
聲華 성화

잠시 쉬며 일찍이 명분과 실리의 관계를 들었는데
그대를 보고 아주 편안한 마음을 얻었네.
시 지으려는 생각이 번쩍번쩍 살아있는 꽃으로 흩날리고
문장의 기개는 혼혼하여 금의환향을 보는 것 같네.
밝은 때를 저버리지 않고 오직 사랑을 베푸니
보존한 구업(舊業)이 참으로 맑고 한가롭구나.
날이 추워진 늦은 계절에도 올곧게 두루 힘쓰니
성화(聲華)가 합당하게 산같이 무겁구나.

孰謂緣詩瘦
五言屹若城
故逢蝦蟹崇
非學安期生
貞符丹藥在
抖擻暑無傾
形骸勞後逸
神思暗中明
譬彼松壇鶴
時有夏雲聲
調病 조병

누가 시 때문에 파리해졌다¹²⁸⁾ 하는가?
다섯 글자도 높기가 성 같구나.
그러므로 새우와 게를 만난 게 비밀되어
안기생¹²⁹⁾을 배우지 않았네.
정부와 단약이 있으니
정신 차려서 계략에 기울어지지 않으리라.
형체와 뼈는 수고로운 후에 편안하고
신묘한 생각은 어둠 속에서 밝구나.
저 송단의 학을 비유하자면
때때로 구름에 닿는 소리가 있네.

128) 연시수(緣詩瘦)는 시를 괴로이 읊다가 파리해진 것을 말한 것으로, 두보의 <모동사안사중루기배십적(暮登四安寺鐘樓寄裴十迪)> 시에 “그대 괴롭게 생각하느라 시 때문에 여윈 줄 아노니, 친구에게 만사를 게을리하네.[知君苦思緣詩瘦 太向交游萬事慵]”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129) 안기생(安期生)은 신선 이름으로, 일찍이 하상장인(河上丈人)을 따라 황제(黃帝)와 노자(老子)의 설을 배우고 동해(東海) 기에서 약을 팔았다고 한다.

名區留待主人還
一屋雙槐水石間
翁與禽魚機兩忘
客稀車馬境常閑
寇萊莫道樓無地
謝眺今看宅近山
事業明時知進退
眞仙何必羨商顏
雙槐堂 쌍괴당

경치 좋은 곳에 머물며 주인 돌아오길 기다리는데
해나무 한 쌍과 수석 사이에 집이 하나 있구나.
늙은이는 새와 물고기와 보느라 둘 다 기회 엿보기를 잊었고
수레나 말 타고 오는 손님 드물고 지경이 늘 한가롭네.
구래공이 누각 지을 땅이 없다 말하지 않았고¹³⁰⁾
사조를 지금 보니 집 가까이에 산이 있었네.¹³¹⁾
사업이 밝은 때에 나아가고 물러남을 아니
참다운 신선이 굳이 상안을 부러워하라.

蹇箔耽看坐故遲
風光種種上吟眉
清泉白石連三徑
好鳥奇花自四時
身計優閑加寢飯
主恩歌詠報毫絲
城闔咫尺超烟火
惟有飛雲許共隨
景致 경치

발을 걷고 앉아서 느긋하게 바라보니
풍광 곳곳마다 눈썹에 올라 읊는구나.
맑은 샘과 흰 돌이 세 길에 맞닿아 있고
예쁜 새와 기이한 꽃은 절로 사계절에 보이네.
몸이 넉넉하게 쉬기를 꾀하여 잠과 밥을 더하고
주인의 은혜를 노래하여 조금이나마 보답하네.
성문 가까이에서 연기가 올라와
떠 가는 구름이 같이 따르기를 허락하네.

龍蛇活動掃雲烟
想見揮毫費老年
妙透銀鉤排位置
工裁文錦飭邊緣

용과 뱀이 살아 움직여 구름과 안개를 쓸어내니
붓을 휘둘러서 본 것들을 생각하며 노년을 보내네.
신묘하게 밝은 은 갈고리는 자리에 늘어서 있고
세밀히 재단한 화려한 비단이 가장자리에 꾸며졌구나.

130) 구래공은 송나라의 명상(名相)인 구준(寇準)을 말하는데, 내국공(萊國公)에 봉해졌기 때문에 구래공으로 불린다. 그는 30년 동안 재상을 지내면서 사지를 짓지 않아 당시 처사 위야(魏野)가 구준에게 준 시에 “벼슬은 삼공의 높은 자리 앉았는데 누대 하나 지어 울릴 땅이 없구려.[有官居鼎鼐 無地起樓臺]”라는 구절이 있었다. 《국로담원(國老談苑) 권2

131) 이백(李白)의 시 〈제동계공유거(題東溪公幽居)〉 “푸른 산에 가까운 집 사조와 같고, 푸른 버들 드리운 문 도장과 비슷하네.[宅近青山同謝眺 門垂碧柳似陶潛]”라는 구절처럼 집 주위의 아름다운 산 경치를 표현할 때에는 으레 사조를 떠올리는데, 남조 제(齊)나라 시인인 사조(謝朓)가 종산(鍾山) 아래에 별장을 짓고 〈유동전(遊東田)〉이라는 시를 지은 고사에서 유래한다. 그 시의 말구(末句)에 “향기로온 봄술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푸른 산의 성곽만 머리 돌려 바라보네.[不對芳春酒 還望靑山郭]”라고 하였다.

珍藏不羨千金寶
擊讀還輸一局眠
惠好深知持贈遠
百齡心膽照相連
書帖 서첩

보물처럼 간직하니 천금 보화가 부럽지 않아
가져다 받들어 읽으며 한숨을 자네.
좋은 은혜를 깊이 알아 선물을 멀리 보내니
백세가 되어도 마음과 쓸개를 서로 비추리라.

迷塗雖失足
佳處每回頭
何日雙槐下
從公盡意遊
睽澗 규활¹³²⁾

어지러운 길에 비록 길을 잃어도
매번 아름다운 곳을 향하게 되네.
어느 날에야 쌍괴당 아래에서
공을 따라 마음껏 놀 수 있으랴.

古人貴交結
同調樂不堪
兩家綠楊社
千尺桃花潭
湖西去城北
重疊幾雲岑
單吟太沒味
獨酌不成酣
老仙遊天上
孤客滯江南
逝將歸田日
訴與滿腔談
思想 사상

옛날 귀한 사람들이 교분을 맺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곡조에 동조하는 걸세.
양쪽 집은 녹양사이고
천 척이나 되는 도화담¹³³⁾일세.
호서에서 성북으로 가는데
구름 겹친 봉우리가 몇 개나 되네.
홀로 읊으니 아주 맛이 없고
홀로 술 따라 마시니 취하지 않는구나.
늙은 신선은 하늘 위에서 놀고
외로운 객은 강남에 머물러 있네.
맹세컨대 장차 고향으로 돌아가는 날에는
마음속에 가득 찬 이야기를 하소연하리라.

132) 규활(睽澗)은 떨어져 지낸다는 뜻이다.

133) 이백(李白)의 〈증왕륜(贈汪倫)〉 시에 “이백이 배를 타고 곧 출발하려 하는데, 갑자기 언덕 위에서 답가 소리가 들리누나. 도화담 물은 깊기가 천 척이나 되지만, 왕륜이 나를 보내는 정연 미치지 못하리.[李白乘舟將欲行 忽聞岸上踏歌聲 桃花潭水深千尺 不及汪倫送我情]”라고 하였다.

宜仙宜佛坐超然
 勘盡人間萬種緣
 彩舞無疆餘愛日
 丹砂有訣引長年
 書評米帖詩談杜
 飢食松脂渴飲泉
 惓惓雲泥成晚賀
 荒詞敢望補瓊篇
 賀六十宴 하육십연

신선과 부처는 초연히 앉아 있어
 인간의 만 종류 인연을 다 헤아리네.
 색동옷 입고 무강하기를 춤추니 살 날이 남고
 단사(丹砂)에 비결이 있어 긴 세월을 늘였네.
 미불의 서첩을 평론하고 두보의 시를 이야기하며
 배고프면 송진을 먹고 목마르면 샘물을 마시네.
 멀리 떨어진 게 서글퍼 환갑을 축하하며
 거친 말로 감히 아름다운 시편에 보태려 하네.

宿昔青雲志
 騫騰欲着先
 自從通籍後
 如若有爲然
 工園鞅務日
 沿海賑飢年
 腰佩連州郡
 風毛遇順便
 樗散雖非適
 蟠容實有緣
 不欺君三字
 圖報一心懸
 卷置歸田賦

청운의 뜻을 품은 지 오래건만
 느릿느릿 올라도 먼저 도착하길 바랐네.
 스스로 통적¹³⁴⁾을 좇은 후에야
 그렇게 된 적이 있는 듯하네.
 공원 공사를 주관하고¹³⁵⁾
 바다가를 다니며 흉년을 진휼하였네.¹³⁶⁾
 허리에 찬 패옥이 주와 군으로 이어지니
 털이 바람을 만난듯 편한 대로 따랐네.
 저력산목(樗櫟散木)¹³⁷⁾이라 비록 책임자는 아니었지만
 반응도 실로 이유가 있네.
 ‘임금을 속이지 않는다’는 세 글자에
 모든 마음을 걸어 보답하고자 했네.
 귀전부 책을 옆에 두고

134) 통적(通籍)은 본디 궁문(宮門)의 출입을 허가받은 사람의 성명·연령 등을 적은 명패(名牌)로, 전하여 처음 벼슬아치가 된 것을 의미한다.

135) 오형묵이 51세 되던 1884년에 공상소(工桑所) 감동낭관(監董郎官)이 되었다.

136) 53세 되던 1886년에는 흉년으로 인하여 영남(嶺南) 별향사(別餉使)가 되었다.

137) 저산(樗散)은 저력산목(樗櫟散木)의 준말로 보잘것없는 인재를 비유한 말이다. 《장자》〈소요유(逍遙游)〉에 “내가 큰 나무가 있느냐 사람들이 가축나무라 한다. 큰 줄기는 웅이가 저서 줄자에 맞지 않고 작은 가지는 말려서 구구에 맞지 않으니, 큰 길에 서 있어도 장인들이 돌아보지 않는다.[吾有大樹 人謂之樗 其大本擁腫而不中繩墨 其小枝卷曲而不中規矩 立之塗 匠者不顧]”라고 하였다.

冷看貨殖篇
 豈知神反忤
 遭此玉焚烟
 羸駒服塩踟
 寒雀失巢翩
 惟公縱憐我
 今在五湖船
 有悔難追往
 無因自至前
 衷腔傾瀉盡
 收置記存邊
 自鳴 自鳴 自鳴

차갑게 화식편¹³⁸⁾을 보았네.
 어찌 알았으랴 신을 거슬러서
 옥이 불타¹³⁹⁾ 연기가 될 줄이야.
 파리한 망아지가 소금자루 저서 나아가지 못하고
 추운 참새가 둥지를 잃어 왔다 갔다 하네.
 오직 공만이 나를 마음껏 가련히 여겨
 지금 오호의 배 위에 있네.
 쫓아갈 수 없어 후회되지만
 스스로 이를 길이 없구나.
 몸과 마음을 기울여 모두 쏟아내니
 글을 거둬들여 곁에 두소서.

침상 위에서 읊다 枕上有吟

음식을 공궤받고 관아 안채에 있었더니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으나 자못 괴로웠다. 도적을 경계한 후에 나는 시동 한 명을 데리고 관아 안채 건넌방에 들어와 잤는데, 늘 침상에서 자꾸 뒹가를 밟는 소리가 삐걱삐걱 들렸다. 이는 분에 맞지 않기¹⁴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계엄(戒嚴)을 그만 둘 수도 없었다. 잠이 오지 않기에 본청의 벽에 걸린 시에 차운하여 자조(自嘲)하였다.

樑上驚塵付水流
 家人且莫却看愁
 一婢執爨新移內

대들보 위에 놀란 티끌은 흐르는 물에 붙고
 집안사람은 또 근심이 보여 물리치지 못하네.
 한 여종이 부뚜막을 들어 새로 안으로 옮기고

138) 사마천(司馬遷)이 《사기(史記)》 권129에 〈화식열전(貨殖列傳)〉을 지어서 범려(范蠡), 자공(子貢), 백규(白圭) 등 이재(理財)에 밝아 큰 부(富)를 이룩한 사람들을 높이 평가하였다.

139) 《서경(書經)》〈윤정(胤征)〉에 “곤강에 불길이 번지니 옥석이 모두 탄다.[火炎崑岡 玉石俱焚]” 하였다.

140) 《시경》〈소성(小星)〉에 “이불과 흠이불을 안고 가노니, 진실로 분수가 같지 않기 때문일세.[抱衾與裯 寔命不猶]”라고 하였다.

四里巡更遞作頭
陶令坐逢還宅日
天孫來阻渡橋秋
此身難似安巢鳥
心事長如不繫轡

작두를 교체하여 네 마을을 번갈아 돌아다니네.
도연명은 앉아서 집에 돌아가는 날을 맞았고
천손이 올 때 길이 막혀 가을에 다리를 건넜네.
이 몸이 편안히 둥지에 사는 새처럼 굴기 어려우니
심사가 매이지 않은 수레 끈처럼 길구나.

관루에 일이 없어 석성의 운을 따라 바로 시를 짓다
官樓無事 次石醒韻賦卽事

踐卒回回冒雪風
酒錢不計有無中
情懷此日君休閒
勞逸身前便不同

순라군들이 눈바람을 무릅쓰고 빙빙 도니
술 살 돈이 있는지 없는지 헤아리지 않네.
오늘 회포가 많으니 그대여 묻지 마소.
이 몸이 괴롭고 편안함이 같지가 않네.

관아의 등불 앞에 홀로 앉아 생각하는 바가 있어 감회를 풀다
官燈獨坐 有所思遣懷

水生於水豈無緣
眩暈如何不可痊
月照直如排闥入
風號迅似置郵傳
心隨爐火常要煖
髮與霜華較孰鮮
近日下工猶未已
坐禪莫怪鏡成甄

얼음은 물에서 생기니 어찌 연고가 없으며
어지러운 햇무리라고 어찌 나올 수 없으랴.
달이 곧바로 비추는 것이 문을 밀어 들어가는 듯하고
바람이 빨리 부니 우편물 전하는 것 같구나.
마음은 화로의 불 따라 항상 따뜻하길 좋아하고
머리카락은 서리꽃과 함께 누가 더 고운지를 견주네.
최근에 하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아
좌선하다 보니 거울이 벽돌 되어도 괴이하지 않구나.

밤에 앉아 무료하기에 가(家)자를 불러 석성에게 보여주고 화답을 구하다
夜坐無聊 拈家字示石醒求和

漏壺氷結燭垂花
心眼交攻演古家
獸炭灰消深擁坐
風聲蕭漸雪紛斜

물시계에 얼음이 얼고 초에는 불꽃이 드리워
심안이 번갈아서 옛 집 이야기를 하네.
수탄(獸炭)¹⁴¹⁾이 재가 되어 화로를 깊이 끌어안노라니
바람 소리가 쓸쓸하고 눈발이 흩날리네.

사무원 신현석과 대화하다
對話申事務員鉉碩

休說酸寒未穩時
愛君何止郡人思
毫分自解權衡試
等第當隨檢量爲
已判登庸薦白屋
應知陞級拜丹墀
尋常不與人爭利
日俸一囊堪笑飢

시리도록 춥고 평온하지 못한 때에
임금을 사랑하면 어찌 마을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으랴.
털을 쪼개듯 나누어 저울추를 시험하고
등계에 따라 검사하고 헤아려야 하네.
잘 판단하여 등용하고 초라한 집의 인재를 천거하니
응당 직급 올림을 알고 궁 앞에 절하네.
보통 사람들이 이득을 다투는 데 함께하지 않고
하루 한 주머니 녹봉을 받고 굶주려도 웃을 수 있네.

수탉 한 마리를 얻어 두고 이른 새벽 높게 우는 소리에 잠에서 깨니 상쾌하기에
기뻐서 시를 한 수 읊조리다
得置一雄鷄 早曉高叫 睡起爽覺 喜占一詩

驚覺殘眠冷透衾
傍人對宿夜沈沈

잠에서 놀라서 깨니 찬 공기가 이불로 들어오네.
옆 사람을 마주 보고 자니 밤이 째깍하구나.

141) 수탄은 석탄을 가루로 만들어 짐승 모양으로 뭉쳐 놓은 것인데, 도성의 부귀가들이 이것으로 술을 데웠다고 한다.

金鷄也解鴻濛剖 금색 닭이 홍몽¹⁴²⁾을 쪼개고 나누어
 撲撲雙翎報曉音 양 깃을 펄럭거리며 새벽의 소리를 알리네.

밤에 앉아 자조하다
夜坐自嘲

天容如鑑月如水 하늘은 거울처럼 포용하고 달은 얼음 같으니
 把向身宮較孰澄 나의 신궁(身宮)과 비교하면 누가 더 맑은가.
 筋骨奈非金石質 근육과 뼈는 어찌 쇠와 돌 같은 바탕이 아닌지
 難堪霜氣日侵凌 서리 기운이 날로 침투하니 난감하구나.

오늘은 양력 1월 1일이다. 각국의 사람들이 와서 대한제국에 머물기에 성대하게 차려 먹고 술을 따르며 즐겼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오늘이 서력의 첫날인지 모르는 자가 많기에 시를 읊다
 是日即陽曆一月一日也 各國人來留大韓者 盛饒酬節之喜 而我人則不知今日爲西曆元日者亦多有吟

聞道泰西人 듣기에는 서양의 사람들에게겐
 新元今日乃 새해 첫날이 오늘이라 하네.
 自有舊傳常 오래전부터 늘 전해져 오던
 太陰猶未改 태음은 아직 바뀌지 않았건만.

142) 홍몽(鴻濛)은 우주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있어 온 천지의 원기, 혹은 그와 같은 혼돈 상태를 가리키는 말인데,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여 외물에 구속되지 않는 이상적인 무애(無碍), 해탈(解脫)의 경지를 뜻하기도 한다.

점을 쳐서 스스로 풀어 보다
問卜自解

卜本前知計 점은 본디 전에는 헤아리는 것이었으나
 驗多後義爻 많이 해본 후에 복희의 효¹⁴³⁾를 정했네.
 消長理已定 쇠하고 자라나는 이치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
 何必索瓊茅 하필 경모초를 풀¹⁴⁴⁾ 필요 있으랴.

매우 춥기에
苦寒

陽微陰壯攝寒威 양기는 미약하고 음기가 건장하니 추위가 위세를 부려
 欲雪頑雲凍不飛 욕심스런 눈과 완고한 구름이 얼어서 날아가지 않네.
 知是嚴凝天氣使 이 굳게 언 것이 날씨가 한 것인 줄 알기에
 占春酒力亦今非 술의 힘으로 봄을 점쳐보니 오늘도 글렀구나.

병에서 일어나다
病起

衰病乏良方 쇠약하고 병들었지만 좋은 처방이 없으니
 不須披藥錄 약 목록을 펼칠 필요가 없네.
 請看老鶴吟 늙은 학이 읊은 것을 보길 청하니
 雖瘦非塵躅 비록 야위었으나 세속에 머뭇거리는 건 아닐세.

143) 효(羲)는 복희(伏羲)의 괘(卦), 즉역(易)이다.

144) 굴원의 (이소(離騷))에 “내 진정을 품고 말하지 못했으니, 내 어찌 끝내 이렇게 참고 있을 수 있으랴. 경모초를 꼬아서 점치는 도구로 삼고서 영분에게 명해 나를 위해 점치게 하노라. [懷朕情而不發兮 余焉能忍與此終古 索瓊茅以筮簪兮 命靈氛爲余占之]” 하였다. 경모는 점에 사용하는 신령한 풀이며, 영분은 고대에 점을 잘 쳤던 무당이다.

지계 地契行

최근에 지계(地契)¹⁴⁵⁾ 일로 감리(監理) 이공(李公)과 여러 사무원들이 우리 군의 여관에 와서 머물렀다. 날이 춥고 여관이 낡아서 본디 난감했는데, 하물며 막중한 공무원이라. 귀한 분이 계시기에 빨리 수리하라고 호소도 하고 관망도 하면서 어느새 열흘이나 되었다. 군수 된 자는 일로 본다면 국민과 나라가 모두 관계되는 일이고, 본분으로 본다면 손님과 주인인 셈이니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아침 저녁으로 답답했는데, 다행히도 관아의 훈령이 간절하고도 확고하여 여러 가지 의심거리가 다 풀렸다. 이공의 조치가 무사히 시행되어 지계(地契) 업무가 차츰 실마리를 잡아가더니 오래지 않아 일을 마치게 되었다. 큰 부담을 덜어내고 기쁨을 스스로 이기지 못해 이 일을 시로 지었다.

率土莫非吾王有
八家一井其區九
民有餘力頌聲作
治規純粹昔三后
自從商鞅開阡陌
貧無立錐渴王澤
漢氏三征名但假
橫渠一方志可惜
公家田簿徒擁虛
奸僞日滋弊末如

땅 끝까지 모두 왕의 땅 아닌 곳이 없으니
우물 정(井)자로 나누어서 여덟 집이 농사지었네.
백성들은 남는 힘이 있으면 임금 칭송하는 노래 부르니
규칙에 맞게 다스려 순수함이 옛날 삼후와 같구나.
상앙 때에 천맥법(阡陌法)¹⁴⁶⁾을 만들어
가난해 송곳 세울 땅이 없어도 왕의 은택이 다하였네.
한씨의 삼정은 이름만 빌린 것이지만
장횡거의 일방¹⁴⁷⁾의 뜻이 정말 아쉽구나.
공가의 전부(田簿)를 공허히 끌어안고
간사하고 거짓된 날이 많아 폐단이 많아졌네.

145) 대한제국 정부가 토지소유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문서이다. 1901년 대한제국 정부가 자주 중심의 근대적 개혁을 위한 기초사업으로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양지아문(量地衙門)을 설치했으나, 이후 양전(量田)과 함께 토지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지계(地契) 발행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지계아문을 신설하였다. 초기의 소속직원은 총재관(總裁官) 1인, 부총재관 2인, 칙임(勅任)과 판임(判任)의 대우 각 4인씩 모두 8인의 위원, 그밖에 기수(技手) 2인이었다. 13도에는 감리(監理) 각 1인을 파송하였는데, 각 지방관을 임시감리로 임명하기도 하였다.

146) 천맥(阡陌)은 전답 사이에 있는 남북과 동서의 소로(小路)를 가리킨다. 상앙(商鞅)이 진나라 효공(孝公)에게 발탁된 뒤에 이 천맥을 없애는 일종의 경지정리 작업을 해서 토지 면적을 늘리고 새로운 세법을 적용하여 국가 재정을 증대시켰다.

147) 횡거는 장재(張載 1020-1077)의 호인데, '일방(一方)'은 그의 행장에 실려 있는 토지개혁사상이다. "토지 1방(方)을 사서 구획하여 몇 정(井)을 만들어 위로는 공가의 부세와 요역을 잃지 않고 물러나서는 그 사전을 가지고 경계를 다스리고 택리를 나누어주며, 거두는 법을 세우고 저축을 넓히며 학교를 일으키고 예속을 이루며 재난이 있는 자를 구제해 주고 환난이 있는 자를 구출하며, 본업을 후대하고 말업을 억제하면 충분히 선왕이 남기신 법을 미루어서 지금에 정전법을 시행할 수 있음을 밝힐 수 있다."

張三價售李四土
北陌稅徵西隣墟
博望星槎返西天
打破膠柱張新絃
不才吾亦眼承乏
量田規度知其然
國計民隱一出公
片壤昭如指掌中
繼以官契編鐵券
從前謬習一洗空
只緣朮見轉疑眩
互相睚眦莫或先
總衙辛勤揭告示
賢監老鍊從方便
王事憚勞簿書期
竣功今在未多時
窃幸茲州能事畢
梅下呵凍賦一詩

장씨네 셋째가 이씨네 넷째의 땅을 값 매겨 팔고
북쪽 밭의 세금을 서쪽 이웃에서 징발하네.
박망후¹⁴⁸⁾ 사신이 탄 배가 서쪽 하늘에서 돌아오고
아교로 붙인 기둥을 때려 부수고 새 현을 늘이네.
내 재주가 좋지 않고 또한 햇볕을 부족하게 받아
밭을 측량하는 법이 그러함을 아네.
나라는 계획하고 백성들은 숨는데 공이 한번 나와서
한 조각 땅이어도 손바닥 가리키듯 밝았네.
관청의 문서로써 잇고 철권으로 엮어
종전의 잘못된 관습을 단번에 씻어내었다.
다만 처음 본다는 이유만으로 의심스러게 여겨
서로 눈 부릅뜨며 보니 누가 먼저랄게 없네.
모든 관아가 힘들게 일하며 고시문을 걸고
현명하고 노련하게 감독하여 방편을 쫓았네.
왕의 일이라 문서 작업을 수고롭게 하니
일을 마치고 나자 이제는 시간이 많지 않구나.
요행히도 이 고을의 일을 다 마치고 나서
매화나무 아래에서 손을 호호 불며 시를 한 수 적네.

새벽에 앉아 시를 짓다 曉坐口占

曙色初升射暈紅
羣鴉飛散亂呼風
情隨日事今猶昨
祗合商量自反躬

새벽의 색이 처음 올라와 붉은 햇무리에 비치고
갈가마귀들이 흩어져 날며 바람을 일으키네.
날마다 하는 일이 지금 어제와 같으니
다만 잘 헤아려보며 내게서 잘못을 찾네.

148) 박망후(博望侯)는 한나라 무제(武帝) 때 박망후에 봉해진 장건(張蠡)을 가리킨다. 장건은 일찍이 서역(西域)에 사신으로 나가서 모진 고생을 겪고 돌아와, 서역 제국(諸國)에 한나라가 널리 알려지고 서역과의 교통 또한 크게 열리는 계기를 마련한 공으로 박망후에 봉해졌다.

우차행(吁嗟行)
吁嗟行

밤이 깊디깊고 촛불은 활활 타오르며, 바람은 쓸쓸히 불고 시계소리만 똑딱거리는데, 오탁하게 홀로 앉아 시름겹게 생각해 보았다. 아아! 땅에 떨어진 지 칠십 년, 강역을 돌아 다닌 것이 삼천 리이니 비록 눈앞에서 상전벽해가 여러 번 있었어도 가슴 속 골짜기는 그대로이다. 내가 처음 태어날 때에는 삼라만상이 기쁘고 즐겁더니, 내가 태어난 뒤에는 온갖 우환에 정성없이 분주하였다. 아래로는 녹림(綠林)에 길이 막히고, 위로는 황진(黃塵)이 하늘에 널렸으니, 대장부가 태어나 이런 시대를 당하면 웃어넘길 뿐이지 무슨 일을 하겠는가? 백발이 성성한 몸으로 나라에 보답하겠다는 마음만 공연히 품고, 구구한 칠실(漆室)¹⁴⁹⁾에서 시국을 걱정하는 눈물을 금할 수 없다. 이에 <우차행> 한 수를 지어 품고 있던 강개한 마음을 백방으로 풀고자 한다.

天悠悠兮地漠漠
日烈烈兮風蕭索
關山道途何險巖
行盡羊腸又劔閣
鼠狗縱橫任弄牙
蠻蜀輸贏互掎角
憂心怲怲漆室發
發之爲歌中夜作
所可言也言之慘
去月才經落心膽
驚弦餘悸猶未定
幾又不免豺虎噉
頭頭黑漢持刀丸

하늘은 아득하고 땅은 고요하며
햇빛은 뜨겁고 바람은 스산하게 부네.
관산으로 가는 길이 어찌나 험준한지
양의 창자같은 길 다 지나니 또 검각관일세.
쥐와 개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멋대로 이빨을 놀리고
만과 족이 승부를 걸고 서로 뿔을 세우네
근심하는 마음 우울하여 칠실에 홀로 있으며
한밤중에 일어나 노래하고 시를 쓰네.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곤 슬픈 말이니
지난달이 겨우 지나 심장과 쓸개가 떨어지는구나.
활시위에 놀라서¹⁵⁰⁾ 두근거림이 아직도 멈추지 않아
승냥이와 호랑이에게 삼켜지기를 면하지 못하겠구나.
머리가 검은 사내들이 환도(環刀)와 철환(鐵丸)을 들어

149) 노(魯)나라 칠실읍(漆室邑)의 과년한 여자가 기둥에 기대고 슬퍼하므로 이웃 여인이 연유를 물으니, “노나라의 임금은 늙었고 태자는 어리기 때문이다.”라고 하기에 이웃 여인이 “그것은 경대부(卿大夫)가 근심할 일이다.”라고 하였다. 분수에 맞지 않게 나라를 걱정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150) 경현(驚弦)은 어떤 일에 대단히 놀란 것을 비유한 말. 《곡량전(穀梁傳)》 소(疏)에 “활시위[弦]에 놀란 새는 활에 대응할 수 없다.”고 하였다.

禍機搃吭人誰敢
銅山浮入綠林中
大劫滄桑一瞬暫
嗟乎吾亦居今世
獨也全安所無勢
頑兒凶器擅買弄
名色頗多非古制
梵宮劫灰幾處飛
大市血雨無時霽
況又鷹鷂爲之毆
曷不揚揚化外逝
時憂又有大於此
請君看過新聞紙
露日相持睥睨久
爭雄且將朝暮起
艦中戰士如雲屯
港口軍儲似山峙
人心繹騷擔相荷
物價刁翔穀不市
長鯨巨浪對吞吐
鯨域安能晏然已
如滕處在齊楚間
未知廟筭將何以
國計民憂兩岌業
大海無津漏船艤
石邱先生去已遠
朝歌太守云誰是

재앙의 기회가 목을 조이니 사람이 감히 막으랴.
구리 산이 푸른 숲 안으로 떠서 들어가는데
아주 오랜 상전벽해가 한순간처럼 잠깐이었네.
아아! 나 또한 지금 세상에 살기에
홀로 안전하고자 해도 어쩔 수 없네.
완악한 아이들이 흥기를 들고 마음대로 희롱하니
명색이야 파다하건만 옛 제도가 아니구나.
범궁의 겁회는 어느 곳으로 날아갔는가
큰 도시에 피비가 그칠 때가 없구나.
하물며 송골매도 얻어맞는데
어찌 양양하지 않고 밖으로 가는가?
때국의 근심이 이보다 더 큰 게 있으니
그대여 신문지를 펼쳐 보소.
러시아와 일본이 서로 흘겨본 지가 오래이니
영웅들의 다툼이 장차 조석간에 일어나리라.
배 안에는 전사들이 구름처럼 주둔해 있고
항구에는 군대가 마치 산처럼 쌓여 있네.
사람 마음이 소란스러워 이고 지는데다
물가는 치솟아 곡식이 팔리지 않는구나.
긴 고래와 큰 물결이 서로 삼키고 토하니
가자미의 구역¹⁵¹⁾이 어찌 능히 편안하게 있겠는가?
마치 등나라가 제나라와 초나라의 사이에 끼어 있듯
조정에서 어떻게 계책을 세울런지 알 수 없구나.
나라의 계책과 백성들의 걱정 둘 다 위태로워
큰 바다에서 물이 새는 배를 났 나루가 없구나.
석구 선생은 이미 멀리 가셨고
조가의 태수¹⁵²⁾는 누구라고 해야 하는가.

151) 접역(鯨域)은 접허(鯨墟) 또는 접강(鯨疆)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자미가 많이 잡힌다 하여 부르는 이름이다.

152) 우후(虞翽)가 조가현(朝歌縣)의 현령이 되어 온갖 모책으로 비적(匪賊)을 토벌하자, 태후(太后)는 그가 장수의 지략이 있다고 여겨 무도 태수(武都太守)로 삼았다.

獨使至尊憂社稷
 昇平美祿何顏食
 水調詞中問知音
 玉宇迢迢斗依北
 把筆爲作吁嗟行
 一字字是不平鳴
 恨無長劔一千仞
 起挾浮雲廓掃清

홀로 지존께 사직을 걱정하시라 하니
 태평시대 아름다운 녹봉을 무슨 면목으로 먹는가?
 ‘수조가두’ 중에 지음을 묻는 말이 있는데¹⁵³⁾
 옥우(玉宇)는 아득하게 북두를 의지하네.
 붓을 잡고 우차행을 짓고나니
 한 글자 한 글자가 불평스럽게 우는구나.
 천 길이나 되는 장검이 없는 게 한스러워
 일어나 뜯구름을 걷어내고 주변을 청소했네.

명헌태후 만장
 明憲太后輓章

躬秉坤維德配旻
 天生倪妹際昌辰
 黃裳化洽三千里
 彤管箴垂六十春
 北望忍言今日痛
 南巡猶帶暮雲曠
 遐厭未克趨廡衛
 恩海茫茫不見津

몸소 곤유¹⁵⁴⁾를 붙잡고 덕을 하늘에 펴시니
 하늘이 누이동생¹⁵⁵⁾을 보내어 태평성대를 이루었네.
 황색 치마의 교화가 삼천리에 두루 미치고
 붉은 붓대의 가르침은 예순 해 봄에 드리웠네.
 북쪽을 바라보며 오늘의 아픔을 차마 말하랴
 남쪽을 돌아보며 아직 남아있는 저녁 구름에 찡그리네.
 흠위¹⁵⁶⁾를 따라가고 싶지만 멀리 매여 있어
 은혜의 바다가 망망하건만 나루터가 보이지 않네.

153) 소동파(蘇東坡)가 귀양가 있으면서 지은 수조사(水調詞)에, “다만 경루(瓊樓) 옥우(玉宇)에 임금께서 추위가 견디지 못할까 걱정 되네.” 하였는데, 공녀가 그 노래를 부르니, 임금이 듣고, “소식(蘇軾)이 끝내 임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였다.

154) 곤유(坤維)는 대지(大地)를 유지하는 동아줄이란 뜻인데, 황후의 역할이다.

155) 하늘의 누이동생에 비유할 만한 성덕(聖德) 있는 여인이란 뜻으로, 주나라 문왕(文王)의 비(妃) 태사(太姒)를 일러 《시경(詩經)》 〈대명(大明)〉에 “대방에 자식 있으니 하늘의 누이에 비유하리다[大邦有子 倪天之妹]” 한 데서 온 말이다.

156) 흠(廡)은 수레 즉 영려(靈輿)이고, 위(衛)는 영려를 호위하는 사람들이니, 임금이나 왕후의 장례 행렬에 쓰던 기구(器具)나 장례 행렬을 가리킨다.

지계 감리 이민유를 보내다
 送地契監理李敏裕

올해 초겨울에 취남(鷲南) 이공이 팽성에서 지계(地契)를 감리하였다. 내가 마침 군수를 맡고 있었으므로, 그와 사귀고 싶던 소원을 풀고 여러 달 계속 평상시처럼 기쁘게 지냈다. 돌아보면 남들과 떨어져 변방에 살다가 늦게나마 만났으니 어찌 불우한 자가 그 사이에 존재하지 않았겠는가? 지금 공무를 마쳤다고 알리면서 행차하는 수레를 열었다. 연말의 쓸쓸하고 두려운 감회에 강가 나루에서 떠나는 자와 머무는 자가 서글프니, 나도 모르게 혼이 녹아내렸다. 이에 거친 말이나마 엮어서 나의 슬픈 마음을 대략 서술하였으니, 근심¹⁵⁷⁾ 속에서 분수상 감히 운어(韻語)를 올릴 수 없지만, 이것은 흥을 돋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어쩔 수 없이 곧바로 나오는 것이기에 또한 의리에 해가 없을 것이다.

江漢風流後謫仙
 苔岑宿契證奇緣
 寒愁旅館憐同病
 劇務公家念獨賢
 道路雪晴雲散處
 別離梅放柳舒前
 可堪兩地相思夜
 回首茲遊已去年

강한에서의 풍류는 후적선이니
 좋은 친구와 오랜 맺음으로 기이한 인연을 증험했네.
 추워서 여관을 걱정하는 것에 동병상련 느꼈기에
 관가에서 바쁘게 일하며 나만 홀로 현명한가¹⁵⁸⁾ 생각하네.
 길에 눈이 개이자 구름이 흩어지고
 헤어지자 매화가 피고 버들은 앞에 늘어졌네.
 양쪽 땅에서 서로 그리워하는 밤에
 머리를 돌려 이미 지나간 해를 생각하네.

157) 《시경》 〈육아(蓼莪)〉에 “아버지가 없으면 누구를 믿으며 어머니가 없으면 누구를 믿을까. 나가면 근심을 품고 들어오면 이를 곳이 없네.[無父何怙 無母何恃 出則銜恤 入則靡至]” 라고 하였다.

158) 《시경(詩經)》 〈북산(北山)〉에 “대부가 공평하지 못한지라, 나만 현명하다 하여 내게만 일을 시키네.[大夫不均 我從事獨賢]”라고 하였다.

잠을 이루지 못하다 不寢

點檢形骸崇	육신의 빌미를 점검하느라
還如過凍蠅	추위를 겪은 파리처럼 되었네.
無眠衰自致	잠을 못 자서 절로 쇠해지니
不是守孤燈	외로운 등불을 지키는 게 아닐세.

평이당에서 아(鴉)자를 집다 平易堂 拈鴉字

樹老多風色	나무는 늙으면서 바람의 색이 많고
斜陽亂噪鴉	해질녘 노을에 까마귀가 어지러이 우네.
旅愁催歲暮	나그네 시름이 세밀을 재촉해
謾試沃腸茶	뱃속을 차로 씻어내 보네.

느낀 바가 있어 붓 가는 대로 쓰다 有感縱筆

形骸堪笑老遨頭	늙어서 들놀이 ¹⁵⁹⁾ 를 하니 몸과 뼈가 우습구나.
鷄肋功名是唇樓	계륜같은 공명이 신기루일세.
一瓣酬來歡極感	일판향 ¹⁶⁰⁾ 을 보내 오니 지극히 기뻐
百般從見愛生憂	온갖 방법으로 보니 사랑과 근심이 생기네.
非徒報國心如火	나라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불 같긴 하지만

159) 오두(遨頭)는 1월부터 4월 사이에 태수(太守)가 들놀이 하는 것을 말한다. 《노학암필기(老學菴筆記)》에 “4월 19일을 성도(成都)에서 완화일(浣花日)이라 하여 오두연(遨頭宴)을 두보(杜甫)의 초당(草堂)에서 여는데, 성중 사람이 다 나와서 금수(錦繡)가 길을 메웠다.” 하였다.

160) 일판향(一瓣香)은 화판(花瓣) 모양의 향(香)으로, 존경하는 어른을 흠양(欽仰)할 때 사용한다.

奈此謀身芥作舟
檢束生平空費惱
謾將懷抱爲詩留

어찌 이 지푸라기 같은 몸을 배처럼 띄우랴.¹⁶¹⁾
평생 검속하느라 공연히 번뇌하였으니
부질없이 회포를 시로 지어 남기리.

입춘 날에 두소릉의 시에 화운하여 짓다 立春日 和杜少陵韻

流光荏苒暗中催
雪未消時春又來
天地一周旋斗柄
陰陽二氣換爐灰
坼開纖粉窺新笋
漏洩奇香點少梅
頭白旅人猶有祝
喜看嗣歲臘前回

흐르는 빛은 차츰 바뀌어 어두운 중에 일어나고
눈이 아직 녹지 않은 때에 봄은 또 오네.
하늘과 땅이 북두칠성 자루를 한 바퀴 돌면
음양 두 기운은 화롯가의 재로 바뀌는구나.
터져 나오는 고운 가루에서 새순이 엿보이고
새어 나오는 기이한 향에서 작은 매화 움이 보이네.
머리 허연 나그네도 축하할 것이 있어
기쁘게 다음 해를 보러 낚일 전날 돌아가네.

밤에 앉아 소(嘯) 자를 얻다 夜坐得嘯字

時物得天然
風來竹自嘯
詩無梅所關
梅發詩偏妙

철 따른 사물은 천연에서 얻고
바람이 불어오니 대숲이 절로 휘파람 부네.
시에선 매화가 관여한 바 없지만
매화가 피면 시도 마침 교묘해지네.

161) 《장자(莊子)》〈소유유(逍遙遊)〉에 “한 잔의 물을 움푹 패인 마루 위에 부어 놓으면, 지푸라기야 배처럼 뜨겠지만, 잔을 놓으면 달라 붙을 것이다. 이는 물이 얇고 배가 크기 때문이다.[覆杯水於坳堂之上，則芥爲之舟，置杯焉則膠，水淺而舟大也.]”라고 하였다.

본 대로 느끼다
因卽事有感

氷作瑤池雪作花
物華便得看來奢
因時粧點雖云好
較此春工立等差

얼음이 만든 요지에 눈이 꽃을 만들어
사물이 정화가 문득 화사하게 보이네.
철에 따라 단장한 점이 비록 좋다고 하겠으나
이 봄의 정교함을 견주어 등수 차이를 세우리라.

극아⁶²⁾가 손자를 즐거워하며 와서 기쁘다
喜克兒怡孫來

少輩今行到
先看尺素書
聞騷憂自切
叙阻喜有餘
見汝是誰賜
思君不忘初
團和從此得
可趁老懷攄

어린 무리가 지금 도착하는데
먼저 짧은 편지를 보았네.
시끄러운 소식 들어도 근심을 절제하고
격조했음을 썼으니 기쁨이 넘치는구나.
보아하니 너는 누가 내려 주신 것인가.
임금을 생각하는 초심을 잃지 않았네.
단란하고 화목함을 이에서 얻었으니
가히 늙은이와 감회를 터놓을 만하구나.

생일날 아침에 감회를 말하다
生朝述懷

세상에 집안이 단란하고 원만하여 자손의 지체가 넓게 번성한 자가 생일 아침을 맞으면
잔치상을 차려 드리는 것이 다 같은 습속이고, 집안 사람들의 인지상정이다. 내가 평택
군을 맡은 날부터 매년 이 날에는 공관에서 홀로 살았으니, 비록 부엌에서 생일상을 차
려 내어 와도 않았다. 집안에는 다만 이 한 아이가 멀리서 찾아왔으며, 자리에는 다만 이

162) 극아는 오형목의 아들 극선(克善)이고, 이손은 손자 이영(怡泳)이다.

낮선 손님이 한가로이 술을 따랐으니, 어찌 반쪽짜리 즐거움이라도 있었겠는가. 이번 잔
치 자리에는 늙은 아내가 있고, 아이들 부부도 있으며, 새로운 손자며느리도 있고, 또 재
롱부리는 손자 손녀들이 좌우에 있으니 ‘참으로 나의 군대를 자랑할만 하구나!’¹⁶³⁾라는 격
이 되었다. 힘이 닿은 대로 마음에 들게 하여 지난날 생일을 맞았던 때의 느낌을 다 털어
주었다. 파초같은 늙은이는 고담한 맛이나 알며 슬픔과 기쁨에도 무상무념한 지가 이미
오래 되었다.

게다가 날씨가 추워져 병이 생기니, 문을 닫고 깊이 누웠다. 병이 많으면 모름지기 약
물만이 소중한 법이니, 아침밥도 나누어 먹이기에 이르렀다. 늘 있던 전례를 폐하지 않
을지의 여부는 아이들에게 있지, 내가 알 바가 아니다. 다만 한 가지 늙은이의 감회를 밖
으로는 잊고 안으로는 잊지 않는 것을 시에 몰아 넣거나 의탁하지 않았으니, 아이야, 나
를 위해서 붓을 가져 오너라.

當年此日恨睽離
團聚今看便不奇
携挈徒煩龜鶴累
劬勞謾動蓼莪悲
身痾巧爾新添病
口業非緣喜作詩
良苦茲朝無計忘
幽愁一一上痕眉

당년 오늘에 가족들 멀리 떨어져 한스러웠는데
집안사람들 모임을 지금 보니 기이하지 않구나.
들고 끌고 오느라 거북과 학에게 번거롭게 하고
수고롭게 기르셨으니 육아(蓼莪)¹⁶⁴⁾의 슬픔이 느껴지네.
몸의 지병이 공교롭게 새 병을 더하여도
입의 업보에 기인한 것이 아니기에 기쁘게 시를 짓네.
좋고 괴로운 것은 오늘 아침에 헤아리지 않고 잊으니
그윽한 시름이 하나하나 눈썹 위에 남는구나.

163) 한유(韓愈)의 <취증장비서(醉贈張秘書)>에 “조카 매[兒賈]는 글자를 모르지만 팔분서는 제법 쓸 줄을 알기에, 시 지어서 그에게 쓰
도록 하면 우리 군사를 자랑하기에 넉넉하네.[阿賈不識字 頗知書八分 詩成使之寫 亦足張吾軍]”라고 하였다.

164) <시경> <육아(蓼莪)>에 “슬프고 슬프다 우리 부모여, 나를 낳아 기르느라 얼마나 애쓰셨나.[哀哀父母 生我劬勞]”라고 하였다.

아침에 일어나 뒷간에 가면서 흩날리는 눈을 보니 느끼는 바가 있어 즉석에서 시를 지어 세 절구를 얻다

朝起如廁 見亂雪有感. 口占得三截

人言世亂紛如雪 사람들은 세상이 눈처럼 어지럽고 분분하다 말하지만
 我謂雖同便不眞 나는 비록 같지만 참은 아니라고 여기네.
 雪紛猶有春晴日 눈이 어지러이 내리면 오히려 봄의 맑은 날이 있고
 世亂何時可滌塵 세상이 어지러워도 언젠가는 먼지를 씻어낼 것일세.

人道時憂似奕棋 사람들은 시대의 근심이 바둑이나 장기 같다 하지만
 奕棋猶得傍觀奇 바둑과 장기는 옆에서 보아도 기이하네.
 時憂終有餘波及 시대의 근심은 끝난다 해도 그 여파가 미치니
 淸簞何由坐拄頤 시원한 대자리에 무슨 이유로 턱을 괴고 앉아 있는가.

漆室無端甕箒紆 칠실에서 무단으로 장독의 산가지를 굽히건만
 難將一木廈傾扶 나무 하나로 문간방 기우는 것을 받치기 힘들구나.
 不如滿引屠蘓酒 도소주를 맘껏 마시는 것만 못하니
 全把游魂去化蝴蝶 오로지 떠다니는 혼을 붙들어 나비처럼 화하리라.

선달 그믐날 저녁에 촛불을 켜고 앉았는데 만 가지 염려가 아른거려 시를 지어 시름을 풀다

除夕 懸燭而坐 萬慮耿耿 以韻語排遣

내가 매년 선달 그믐날 저녁에 반드시 시를 지어 한 해가 끝나는 감회를 서술하였다. 수세(守歲)¹⁶⁵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기록하는 것이기도 한데, 올해 오늘 저녁에 이르렀다. 올해 안에 겪은 사변을 회고해보니 놀랍고도 괴이하며, 사건마다 기이하여 하나하나 이루 말할 수가 없다. 가려움은 긁지 않아야 낫는다는 것보다도 못하다. 최근

165) 《동경몽화록(東京夢華錄)》에 선달 그믐날 밤, 궁중에서는 폭죽(爆竹) 소리와 만세(萬歲) 소리가 가득하고, 사서인(士庶人)의 집에서는 가족들이 화롯가에 둘러앉아 밤을 지새는 것을 수세(守歲)라고 한다 하였다.

내가 한가하면서도 시름겨워 《삼국지》에 눈을 붙였는데 그동안 세상에 보기 드문 느낌이 들었기에, 이를 가져다 제목으로 삼아 나의 오늘 밤 불평스런 마음을 울리고자 한다. 대개 시를 짓는 사람은 세 가지 변하는 법이 있다고 하는데, 내 시는 이제 비로소 한 번 변했다. 이를 따라서 하늘이 나에게 수명을 연장해 주어 상전벽해의 기이함을 보게 되면 반드시 천태산의 노관¹⁶⁶을 기다릴 필요가 없으니, 다만 나의 총쇄록에서 찾아보는 것만으로도 또한 족하다고 하겠다.

<p>一大氣數金刀季 天故教人設劇戲 張家水符作妖火 海內鼎沸雲集四 董呂李催互吞噬 紹術孫曹對睥睨 建安天子坐受制 皇室之危一髮墜 樓桑羽葆毓禎祥 龍種自與常人異 桃園大酒誓三人 命脉精神義一字 譬如羽翼雖已成 所欠風沙猶未備 低回大耳坐寂寞 歲月尋泣髀淚 好好先生爲之憂 片言雷撼龍岡睡 幡回胸裏八陣圖</p>	<p>하나의 큰 기운이 금도로 나뉘어 하늘은 인간에게 연극과 놀이를 베풀게 했네. 장씨 가문의 물 부적으로 요사스러운 불을 만들어 천하의 술을 끓게 하여 네 개로 모았네. 동탁과 여포 이각이 서둘러 서로 삼키고 씹어 재주를 이은 손권과 조조가 마주보고 눈을 흘기네. 건안¹⁶⁷의 천자가 앉아서 명령을 받으니 황실의 위태로움이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듯 하였네. 누각의 뽕나무는 잎을 보전하여 상서로움을 기르고 용의 씨앗은 스스로 일상적인 사람과는 다르네 도원에서 큰 술잔을 두고 맹세한 세 사람의 명맥을 이은 정신은 의(義) 한 글자일세. 비유하자면 날개가 비록 이미 완성되었지만 바람과 모래가 흠집을 내도 오히려 미비하였네. 큰 귀¹⁶⁸를 숙이고 적막하게 앉았노라니 세월은 점점 흘러 넓적다리 살 찼다고 눈물 흘렸네. 호호선생(사마휘)는 근심하여 말 한 마디가 우레 같지만 용강에서 잠들었네. 깃발이 돌아 마음속에 팔진도를 그리고</p>
---	---

166) 천태산은 절강성(浙江省) 천태현(天台縣)에 있는데, 도교에서 남악(南嶽)으로 삼고 노자의 도관(道館)이 있다.
 167) 건안(建安)은 후한(後漢) 헌제(獻帝)의 세 번째 연호이다. 196년 1월에서 220년 3월까지 24년 3개월 동안 사용하였다.
 168) 유비(劉備)의 귀가 커서 남의 말을 잘 들었다고 한다.

許驅門前三顧轡
 羽扇指麾若旋篷
 掃蕩羣邪指就次
 西收鳥道蜀爲基
 北鑿烏林荊有誌
 皇天無意右漢否
 白帝城秋悲萬事
 丹心星炳兩表日
 白髮霜繁六出地
 千秋掩卷五丈原
 有志男兒足涕泗
 風雲際遇昔何壯
 天地重恢竟莫遂
 香吳遺恨石不轉
 少陵詩人知厥志
 從來天定能勝人
 不須復論成敗利
 餘子紛紛滾波浪
 煞費勤過金仁瑞
 華賈貪榮誰不唾
 石崔果忘終非義
 出處得正惟忠武
 伊呂之間伯仲視
 嗚呼九原難復作
 誰念鸞棲枳棘寄
 悵望蕭條不同時
 撫劔悲歌半狂醉

말을 몰고 문 앞에 나아가 세 번 굴레를 씌웠네.
 백우선(白羽扇)으로 지휘하니 마치 선봉과 같아
 간사한 무리를 소탕하고 다음으로 나아갔네.
 서쪽으로는 조도를 거두어 촉나라의 기틀을 만들었고
 북쪽으로는 오림을 쳐서 형주를 기록하였다.
 하늘이 한나라를 도울 뜻이 없었는지
 백제성의 가을은 만사가 슬프구나.
 붉은 마음 별은 빛나 두 번 출사표를 내고
 서리 내린 백발로 여섯 번 출정하였네.
 천년 니레 책 읽다가 오장원에서 덮어 두니
 뜻이 있는 남자는 눈물을 흘리리라.
 풍운의 때를 만났으나 그 옛날 얼마나 웅장했으랴
 천지의 중후하고 넓은 뜻은 따를 수가 없구나.
 오나라를 삼키고 한이 남아 돌이 구르지 않았으니¹⁶⁹⁾
 시인 두보는 그 뜻을 알았으리라.
 종래에 하늘이 능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을 정했으니
 성공과 실패의 이득을 다시 논할 필요가 없네.
 남은 것들은 분분히 파도가 되어 흐르고
 많이 쓰는 것은 김인서를 넘을 만하네.
 화고가 부귀영화를 탐내니 누가 침을 뱉지 않으랴
 석쇠는 과연 잊으니 결국 의가 아닐세.
 들고 나는 것이 분명한 분은 오직 충무¹⁷⁰⁾뿐이니
 이윤과 강태공의 사이에서 엇비슷해 보이네.
 아아, 구원에서 다시 일어나기 어려우니
 누가 난새를 탕자나무와 가시나무에 부쳐 산다 생각하라.
 시대가 달라 함께 못하기에 쓸쓸히 바라보며
 반쯤 미친 듯 취해 칼을 어루만지고 슬프게 노래하네.

169) 두보(杜甫)의 시 <팔진도(八陣圖)>에 “강물은 흘러도 돌은 아니 굴렀네(江流石不轉)”라고 하였다.
 170) 제갈량(諸葛亮)의 시호가 충무후(忠武侯)이다.

詩成却向東窓笑
 海鷄喚日雙拍翅

시를 완성하고 동쪽 창문을 향하여 웃으니
 바다의 닭이 해를 부르며 두 날개를 치네.

정월 1일에 길을 가다가 읊다
 正月一日途中吟

搖搖旋旆得年寬
 天地初如攝履端
 自顧尚羞垂紱吏
 代差堪笑進香官
 承當奔走緣公惱
 正乏安居適我歡
 多少人生知此味
 酬辰莫若屠蘓餐

흔들리는 깃발 따라 몇 해를 얻어
 천지에 처음으로 조섭하게 되었네.
 스스로 돌아보니 인끈을 드리운 관직이 부끄러워
 우습게도 진향관으로 대신 차정되었네.
 일을 이어받아 분주한 까닭에 공무로 괴롭더니
 편안히 거주할 곳으로 나를 보내 기쁘구나.
 어느 정도 인생 살며 이 맛을 알아
 술 마시는 날이 도소주 마시는 것만 못하네.

관찰사 정인승을 만나 이야기를 하다
 對觀察使鄭公寅昇叙話

甘棠令尹世相親
 凡事綜詳迥出人
 得失自無閒白日
 是非那有好青春
 會看圖報專持櫺
 共說紆籌淨洗塵

팔배나무¹⁷¹⁾ 영운과 대대로 서로 친하니
 모든 일에 치밀하고 상세해 출중한 사람일세.
 득과 실이 절로 없어 밝은 날에 한가로우니
 시비가 어찌 좋은 청춘에 있으랴.
 만나서 보고 보답을 꾀하느라 칼자루를 쥐고
 세상의 먼지를 씻어 깨끗하게 할 온갖 이야기를 하였네.

171) 주(周)나라 소공(召公) 석(奭)이 남국(南國)을 순시하다가 팔배나무 밑에서 민원을 처리해 주었다. 후세 사람들이 그의 덕정(德政)을 사모하여 그 팔배나무를 차마 베지 못하며 “무성한 저 감당나무, 베지도 말고 치지도 말라. 우리 소백께서 쉬시던 곳이니라.[蔽芾甘棠 勿剪勿伐 召伯所芟]”라고 노래하였다. 후세에 지방관의 선정(善政)을 칭송하는 고사로 곧잘 인용되었다.

多謝今行偏受賜
故教鳧鳥早朝宸

이번 행차에 받은 것들을 많이 사례하려고
지방관¹⁷²⁾으로 하여금 일찍 조정에 참여케 했네.

칠월에 가는 도중에
七院途中

奔忙自是若翻盆
風陣磨天掃凍痕
人趁年華新歲月
春蘓時物舊乾坤
凝雲畦麥初抽葉
賽雪籬梅暗放魂
進退得中誠不易
羞爲今日利名昏

물동이가 엮어지듯 바쁘게 돌아다니며
바람이 하늘을 갈아 얼었던 흔적을 쓸어내네.
사람들은 풍광을 따라 세월을 새로이 하고
봄은 옛 천지의 시물(時物)¹⁷³⁾을 소생시키네.
구름에 엉킨 밭두둑의 보리가 처음으로 잎을 틔우고
눈과 겨루는¹⁷⁴⁾ 올타리의 매화는 몰래 혼을 내어놓는구나.
나아가고 물러남에 중용을 얻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아
오늘의 이득과 공명이 어두움을 부끄러워하네.

김석성의 전별시 세 절구를 차운하여 짓다
次金石醒餞詩三截

臨行無暇祝春辭
一種情懷誰得知
只恨年來歸未賦
如何枉作攢愁眉

길 떠나며 봄날 축사를 전할 겨를이 없었으니
누가 나의 정회를 알 수 있으랴.
새해가 와도 시가 오지 않는 것이 한스러워
그릇된 작품으로 어찌하나, 시름겨워 미간을 찌푸리네.

172) 부석(鳧鳥)은 오리로 변화한 신을 말한다. 후한(後漢) 명제(明帝) 때 선인(仙人) 왕교(王喬)가 신술(神術)이 있었는데, 그가 일찍이 섭(葉) 현령(縣令)으로 있으면서 매월 삭망(朔望) 때마다 수레도 없이 떠나면 길을 와서 조회에 참여하므로 임금이 그를 괴이하게 여겨 그 내막을 알아보게 한 결과, 그가 올 때마다 오리 두 마리가 동남쪽에서 날아왔다. 그물을 쳐서 그 오리를 잡아놓고 보니 바로 왕교의 신이었다는 고사에서 온 말로, 전하여 지방관을 의미한다.

173) 계절에 따라 나오는 사물을 말하니 봄의 꽃, 여름의 녹음, 가을의 햇곡식, 겨울의 눈이나 여름 따위이다.

174) 새설(賽雪)은 너무 희어서 눈이 왔다고 속거나, 눈과 겨를 만하다는 뜻이다.

別話忽忽趁孟陽
歸期自慰見眉黃
將來會面知何處
有隕隆恩却一方

이별하며 이야기가 바빠 1월이 되었으니
돌아올 땐 미간이 퍼지리라 위로해보네.
장차 어디에서 얼굴을 보게 될런지
크나큰 은덕이 한쪽에 내렸구나.

自子非凡出俊奇
心乎愛矣共追隨
長无相忘君知否
證看晚松貞不移

그대가 비범하고 출중하여
마음에서 사랑하고 함께 따랐네.
오래 서로 잊지 않았음을 그대는 아는가
늙은 소나무가 곧아 옮겨지지 않음을 보면 알리라.

수레 위에 앉아서 두 절구를 짓다.
坐輪車上二截

電乘如樓坐挾仙
尻輪拍拍入雲烟
任重致遠工茲在
不是人間造物偏

누각 같은 전차에 신선을 끼고 앉으니
엉덩이 쪽 바퀴가 덜덜거리며 구름과 안개로 들어가네.
임무는 막중하고 갈 곳은 먼데 이런 기술이 있으니
이야말로 인간이 만든 물건이 아닐세.

自御冷冷列子風
雲邊看過退飛鴻
一鍾離發永登浦
及到彭城四點中

열자가 타고 다니던 바람을 스스로 제어하여
구름을 보며 지나노라니 기러기기도 뒤쳐지네.
한시에 영등포를 떠났는데
팽성에 이르러 보니 네 시구나.

관아에 돌아오던 날 홀로 평이당에 앉아 운을 집어 감회를 쓰다
還衙日 獨坐平易堂 拈韻述懷

曾我錫名平易堂
却憐到老爲身忙

일찍이 내가 평이당이라 이름 지은 까닭은
늙도록 몸이 바쁜 것을 가엾게 여겼기 때문일세.

會稽懷印誰知得 회계에 인끈 감추어¹⁷⁵⁾ 돌아온 뜻을 누가 알았으랴.
 莫慢今朝引綬償 게으름 없이 오늘 아침에 인끈을 끌어 갚으리라.

청명 날에 느낀 바를 읊다
 清明日有感吟

寂寞孤衙改火新 적막하고 외로운 관아에 불씨를 새로 바꾸자
 餘寒風峭度今辰 남아 있던 세차고 추운 바람이 오늘 지나가네.
 篝香靜坐和誰語 모닥불 향기에 조용히 앉아 누구와 더불어 이야기하나.
 傷感無由蕩遠塵 까닭 없이 아픈 마음에 머나먼 먼지만 씻어내네.

육영재의 여러 학생들의 재화시축에 차운하다
 次育英齋諸生栽花詩軸韻

培養羣芳各趁時 각각 때를 좇아 여러 꽃들을 배양하니
 育英習俗較推移 영재 기르는 습속과 추이를 견줄 만하네.
 蘓君蒔卉嘗嫌早 소동파는 모종을 내며 너무 이르다 꺼렸고
 杜老種松每恨遲 두보는 소나무를 심고는 매번 더딤을 한탄하였네.
 妙意將看揮翰手 묘한 뜻은 장차 붓 휘두르는 솜씨를 보리니
 機心化作破藩籬 기심이 화하여 울타리를 부수리라.¹⁷⁶⁾
 榮枯一致何須說 영고성쇠가 일치함을 어찌 설명해야만 하랴
 風氣隨生自有宜 바람의 기운이 일어나는 곳마다 스스로 떳떳함이 있네.

175) 한(漢)나라 주매신(朱買臣)이 파직을 당하고 나서 회계군(會稽郡)의 수저승(守邸丞)에게 기식(寄食)했었는데, 뒤에 주매신이 회계 태수가 되자 예전에 입던 옷을 그대로 입고 인끈을 품속에 감추고서 걸어서 관아에 들어갔다. 회계군 아전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주매신이 방으로 들어가 수저승과 밥을 먹고 인끈을 조금 드러냈다. 여기서의 지방관이 되어 간 것을 가리킨다.

176) 주희(朱熹)의 〈우계현학관대각(尤溪縣學觀大閣)〉시에 “사물과 내가 근본이 같음을 살펴서, 울타리를 부수 버리면 곧 대가라네.[應觀物我同根處 剖破藩籬卽大方]”라고 하였다.

철로를 두루 보고 유천에 이르렀는데 다리를 만들고 있었다. 잘 세워지고 있었다. 넓고도 크게 건축했는데 오로지 기계만 이용하였으니, 그 정묘한 기교의 공이 또한 배가 되었다
 周覽鐵路至柳川 架橋方張 建築浩大 專在器械利用 其精妙之巧 功亦倍之

橋變滄桑斷復連 다리가 상전벽해처럼 변해 끊어졌다 이어졌는데
 精微妙處可回旋 정교하고 미묘하여 돌고 돌 수가 있구나.
 作成勿以人功少 작성하는데 사람의 수고가 적다고 말하지 말라
 造物留看化自然 조물주가 머물며 보니 자연의 조화이니라.

상관리에 가는 도중에
 上宮里途中

行穿芳草放清眸 향기로운 풀들을 뚫고 가며 맘껏 둘러보니
 野麥茸茸綠潑油 들판의 보리가 부들부들 기름 뿌린 듯 푸르구나.
 百囀流鶯何處自 쉬지 않고 지저귀는 꾀꼬리 소리는 어디서 들려오나.
 沿溪垂楊一村幽 그윽한 마을 시냇가에 버들이 늘어졌네.

망한사에서 참봉 강원석을 만나 백향산의 <대주한음증동로자(對酒閑吟贈同老者)> 오언고시 14자 원운에 차운하여 짓다
 望漢寺 逢姜參奉畹石 次白香山對酒閑吟贈同老者五言古詩十四字原韻 賦事

老以無何崇 늙어서 어떠한 빌미 내릴 것도 없는데
 昔聞今當之 예전에 들었던 것을 지금 당하네.
 山期將近日 산에 가려던 약속 가까워져도
 曉夢不多時 새벽에 꿈조차 꾸지 않는구나.
 筋力轉衰弱 근력은 더욱 쇠약해지고

惟存少壯思
 細故隨緣盡
 眩昏那可治
 永日若爲度
 謀歡賴侍兒
 天供陽和氣
 春色染苔衣
 風光引我興
 開顏瘦可肥
 情懷猶堪遣
 對景強裁詩
 酒性雖云薄
 陶然倒一卮
 試爲閑散勝
 携杖自扶羸
 招提遊行熟
 神暢熏四肢
 談禪心彌寂
 虛空果誰知
 愛戀無終已
 孤雲野鶴歸
 不須證因果
 自悟是還非

오직 젊고 건장했을 때 생각만 있어,
 작은 탈만 나도 옛부터 따르던 인연 다하니
 어지럽고 어두워서 어떻게 다스릴까.
 긴 해가 지나가려 하자
 기쁨을 도모하려 시동에게 맡기네.
 하늘이 밝고 온화한 기운을 주어서
 봄빛이 물들어 이끼 옷을 입네.
 풍광은 나의 흥취를 끌어내
 얼굴을 펴서 수척했던 것이 살찌리라.
 회포를 풀 만하니
 경치를 바라보며 억지로 시를 짓네.
 술 마시는 성정이 박하다고는 하나
 얼근히 한 잔을 들이부었네.
 한가롭고 경치 좋은 곳을 찾아
 지팡이를 짚고 여윈 몸 부축하네.
 절간에 놀러 다니는 것이 익숙하여
 맑은 정신이 사지에 젖어드네.
 선을 이야기하니 마음이 두루 고요해져
 공허해진 마음들을 과연 누가 알랴.
 사랑하고 그리는 것은 끝이 없으니
 외로운 구름과 들판의 학이 돌아가네.
 굳이 인과를 증명할 것도 없이
 스스로 시를 깨달아 비로 돌아가는구나.

이른 봄이 온 뒤부터 어지러운 햇무리가 빌미가 되어 아름다운 경치를 시로 지
 을 흥취와 감회가 하나도 없었다. 어느덧 봄이 장차 끝날 때가 되었는데도 시를
 짓지 못했기에 애오라지 한 수를 읊으며 감회를 부친다
 早春以來 眩暈作祟 一無興懷以酬韶景 而於焉春將盡 強鼓廢簧 聊吟
 一頁寓懷

獨對東風病作魔
 賞心無賴奈如何
 花容柳眼詩和否
 鶯語鶯歌琴調麼
 春日那由晴景少
 人生素自苦時多
 從今識得韶華暮
 非是尋常攝老過

홀로 동풍을 맞으니 병이 말썽을 부려
 마음껏 구경할 길이 없으니 이를 어이하랴.
 꽃의 얼굴과 버들의 눈이 시를 조화롭게 하지 않던가
 제비의 지저귐과 피꼬리의 노래가 거문고 곡조 같구나.
 봄날인데 어찌하여 맑은 경치가 적은가.
 인생은 본디 스스로 괴로운 때가 많구나.
 지금껏 알고 있던 봄빛이 저물어
 심상하지 않던 것들이 노인을 잡고 지나가네.

백향산의 <억강남사(憶江南詞)> 세 수의 원운에 차운하여 봄날의 회포를 풀다
 次白香山憶江南詞三首原韻 遣懷春日即事

春光好
 委曲天心譜
 少女風前長白日
 王孫草上拖青藍
 淑氣滿江南

봄빛이 좋아
 하늘의 마음을 소상하게 알겠구나.
 소녀의 바람 앞에 밝은 해가 길고
 왕손의 풀 위에는 푸른빛이 물들어
 맑은 기운이 강남에 가득하구나.

春光暮
 物色暢南州
 草已夢回才子枕
 花猶羞上老人頭
 日涉憶交遊

봄빛이 저물었건만
 물색이 남쪽 고을에 밝구나.
 풀은 재자의 베개에 꿈으로 들고
 꽃은 노인의 머리 위에 오르길 부끄러워하니
 날마다 걸으며 함께 노닐던 때를 그리워하네.

春光去 봄빛이 가니
 悵悵遶身宮 서글픈 마음이 몸을 감싸네.
 忍可相忘證萱草 원추리를 증험한다고 차마 잊으랴¹⁷⁷⁾
 爲酬送別陟芙蓉 술잔 나누고 부용산에 올라 송별하니
 只恨是曾逢 일찍 만난 것이 한스럽구나.

삼월 그믐날에 <억강남사>의 저번 운으로 다시 짓다
 三月晦日 再疊憶江南詞前韻

春辰好 봄날이 좋아
 淑景有惟諳 맑은 경치가 기억나는구나.
 濃靄淡雲山擬畫 짙은 아지랑이와 맑은 구름이 낀 산은 그림 같고,
 飛鷗停鷺水如藍 날아가는 갈매기와 백로가 서 있는 물은 쪽빛 같으니
 駘蕩盛東南 화창함이 동남에 가득하구나.

春辰暮 봄날이 저무니
 明媚散江州 밝은 빛이 강주에 흩어지네.
 風剪垂楊金織縷 바람이 자른 수양버들은 금색으로 실을 짜고
 雨過芳草碧齊頭 비가 지난 향그런 풀은 푸른빛 가지런하니
 選得插花遊 꽃을 골라서 꽃고 노니네.

春辰去 봄날이 가니
 觸眼悵心宮 눈에 닿는 것마다 마음을 서글프게 하네.
 愁緒空添鳴鷓鴣 시름이 더해 두견새 울리고
 夕陽偏照爛芙蓉 석양이 부용산을 밝게 비추니
 星會記重逢 별들이 모여 다시 만남을 기억하리.

177) 《의림촬요(醫林撮要)》에 실린 '망우산(忘憂散)'의 처방에 "호박(琥珀)을 가루로 만들어 한 번에 반 돈씩 흰초근(萱草根) 1줌[撮]을 달인 물에 타 먹는다."고 하였다. 오횡목이 이즈음 평택에서 《동의보감》을 발췌하여 《의감집요(醫鑑集要)》라는 의학서를 편찬하였다.

봄을 보내는 날 술과 밥을 마련하여 다함께 즐기자는 뜻을 보이려고 교리에게
 명하여 십의대에 다들 모이게 하였다. 마침 수령 방벽하가 내려와서 참여했기
 에 운을 내어 함께 짓다
 餞春日備酒飯 命校吏團會于十宜臺 以示同娛之意 適時方令碧下來
 參 出韻共賦

可憐代謝不相遭 불쌍하구나, 신진대사가 서로 만나지 못해
 空盡洪鈞借一陶 헛되이 홍균¹⁷⁸⁾을 다해 한 도균¹⁷⁹⁾을 빌렸네.
 骨董飯兼松釀酒 비빔밥에 곁들여 송양주를 마시고
 豆泡湯具艾蒸饅 두부탕에 쫄떡도 함께 먹었네.
 惜歸徒切吾人悵 아쉽게 돌아가니 나의 슬픔 간절하여
 遣興施爲爾輩豪 그대들을 위해 흥취를 펼쳐 보이네.
 試問明年重到地 내년엔 다시 이 땅에 올 것인가 물어보니
 緣何遽作發詩騷 왜 갑자기 시를 지어 보이냐.

덕평 주막의 침상에서
 德坪店枕上

晚雨霏微午夜鳴 늦은 비가 계속 내리며 낮이건 밤이건 울려
 覺來枕上客心驚 침상에 와서 깨니 나그네 마음 놀라네.
 無端滴破思鄉夢 무단한 물방울이 고향 그리는 꿈을 깨니
 暗裡誰憐太瘦生 어둠 속에 누가 아주 파리한 삶을 가엾게 여기랴.

178)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는 신으로, 조물주를 말한다. 균(鈞)은 도기(陶器)를 만드는 녹로(輪轆)로, 조물자(造物者)를 뜻한다. 두부의 <상위상(上韋相)> 시에 "팔황에 수역을 열자, 한 기운이 홍균을 돌리누나.[八荒開壽域 一氣轉洪鈞]" 하였다.

179) 도균(陶勻)은 도자기를 만들 때에 그 그릇의 용도에 따라 속도를 조절하여 적절히 굴리는 물레인데, 조정에서 정국을 통제하는 대권(大權)을 장악하고 백성을 교화하는 것을 뜻한다.

공주관에서
公州館

令尹尙金賑窮民
滿城和氣一團春
幸逢忝在承流地
取次將看惠化均

영윤이 돈을 풀어 가난한 백성들을 진휼하니
성 가득 온화한 분위기가 단란한 봄이로구나.
요행히도 승류¹⁸⁰의 땅에 있으니
다음에는 교화가 고르게 베풀어짐을 보리라.

허문리 이태현의 여관에서
許門里李泰鉉旅館

頓覺衰年惱病諸
臨餐撕箸每趑趄
主人料我調新味
苦草甘醬塩石魚

문득 몸이 쇠할 때임을 깨달아 고뇌하고 아프니
밥을 먹으면서도 수저 들기를 매번 망설이네.
주인이 나를 생각하고 새로운 맛을 조리해
고추와 단 간장에 굴비¹⁸¹를 주었네.

경물을 접하고 느낀 바가 있어 세 절구를 읊다
觸物有感雜詠三截

名利關身道路長
堪憐風絮共飄揚
楊花只是春時蕩
顧我如何到老忙

몸에 관한 명리(名利)의 길은 길고
버들개지와 함께 나부끼니 가련하구나.
버들 꽃은 다만 봄날에 쓸어버리니
나를 돌아보면 어찌 늙고 바쁘다 하겠는가?

180) 승류(承流)는 《한서(漢書)》 권56 동중서전(董仲舒傳)에 나오는 말로, 풍교(風教)를 받들어 숭상하고 은택을 베풀어 백성을 교화하는 관원의 직분을 가리키는 말인데, 보통 방백(方伯) 등 지방 장관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다.

181) 염석어(塩石魚)는 소금에 절인 조기이니, 굴비이다.

風雨尋常貫四時
調順物態更多宜
客情空惹愁難過
偏於此地理莫追

바람과 비는 사계절 일관되고
만물의 모습을 조화롭게 따르니 마땅하구나.
나그네 정회는 괜히 근심을 일으켜서 지나기 어렵고
이러한 처지에 이치를 좇을 수가 없구나.

山水靈精各一稱
山惟蘊藉水清澄
望來只是心常愛
故欲身親俱未能

산수의 영험한 정기는 각각 칭하는 바가 있어
산은 마음이 넓고 고요하며 물은 맑구나.
오면서 보니 마음으로 늘 사랑해
몸소 함께 친해지려 하나 할 수가 없구나.

길을 가는 중에 바로 적다
途中卽事

樹陰軟綠雨過餘
耕播時當百穀初
麥穗隨風翻起浪
關由農蒞喜何如

나무 그늘의 연록빛이 비가 온 후 더 짙어져
밭 갈고 씨 뿌릴 때 백곡이 시작되었네.
벼이삭이 바람 따라 물결이 일렁이니
농가에 문서 보내는 즐거움이 어떠한가.

향반(香磐) 뜰에 심었던 꽃이 봄이 지나며 차례로 꽃이 피어, 장미가 잇달아
짓고 열게 아름답다가 결국엔 비바람에 떨어졌다. 지금은 작약, 해당화, 월계수
등이 한 기운으로 화동하여 온화하고 요염함을 드러내는 것이 기이하니, 사람
들에게 '만 개의 푸른 가지에 한 점 붉은 꽃, 사람을 감동시키는 봄빛은 많을 필
요가 없네[萬綠枝頭一點紅 動人春色不須多]'라는 옛사람의 시구¹⁸²를 상기
시킨다. 이로 인해 감회를 시로 지어 펼치다

香磐庭除 所種花品 自春以後 次第敷榮 繼以薔薇濃淡媚麗 終歸風雨
飄零 現今芍藥海棠月桂等 一氣和同 妖艷呈奇 令人想起古人詩句 萬
綠枝頭一點紅 動人春色不須多底意 因賦感懷以抒

182) 송나라 시인 왕안석(王安石)이 석류화를 보고 지은 시의 "새싹 돋는 가지 끝에 붉은 꽃 한 송이 피니, 사람을 감동시키는 봄 경치는
많을 필요 없구나.[嫩綠枝頭紅一點 動人春色不須多]"라는 구절이다.

芍藥海棠月桂花	작약과 해당화와 월계화는
芳菲粧點眼前奢	향기가 좋고 예쁘게 단장해 눈앞이 호사스럽네.
縱教孤客生幽想	외로운 나그네에게 그윽한 생각이 들게 하니
自是香心不慣賒	향기로운 마음에 느긋하기가 익숙치 않구나.

십의대 위에서 강(剛) 자를 운으로 집어 감회를 부치다
十宜臺上 拈剛字寓懷

십의대에서 피서할 때가 되니, 왜나무 잎이 그늘을 펼친 것이 바다처럼 푸르렀고, 여린 린 소나무와 어린 대나무가 좌우에 뽀뽀히 섞였다. 그밖에 두죽(杜竹)이나 치장(蒹菼 국화) 등속도 이품(異品) 수방(殊芳) 아닌 것이 없었다. 게다가 네 그루 자단이 십의대 앞에 우뚝 서서, 높이 솟아 하늘을 쥐고 기세 좋게 있는 모습이 황홀하여 선비나 군자와 함께 도관에 들어가서 한가로이 노니는 듯하다. 요즘 나는 하루하루 노쇠하고 아픈 것이 심해져서 날마다 거닐 수가 없었다. 참다운 흥취를 저버렸으니 아아, 탄식할 만하구나. 당나라 사람의 시¹⁸³⁾에 '세월은 파도 같고 일은 꿈과 같으니, 푸른 비취처럼 꾸며 놓고 누구를 기다리는가[歲月如波事如夢 竟留蒼翠待何人]라 하였으니, 어찌 나의 마음의 품제(品題)를 먼저 얻어간 것이 아니겠는가?

蒼松綠竹紫檀香	푸른 소나무 푸른 대나무와 자단의 향기가
淸絕塵氛不染霜	먼지 기운을 맑게 끊어내니 서리가 더럽혀지지 않네.
勁節高標如可借	굳센 마디와 높은 자태가 빌릴 만하기에
心身從得老尤剛	심신이 따라 얻으니 늙어도 더욱 굳세구나.

183) 당나라 시인 진도옥(秦韜玉)이 지은 시 〈회수(檜樹)〉의 한 구절이다.

익아를 보내고 홀로 앉아 있다가 마침 정죽성을 만났기에 운을 집어 회포를 풀다
送翼兒獨坐 適逢鄭竹醒 拈韻抒懷

衰齡作幸一孤城	노쇠한 나이에 한 외로운 성의 수령이 되어
細故隨緣易感生	작게나마 인연을 생기니 감흥이 쉽게 생기네.
喚友鶯聲偏好意	친구를 부르는 피꼬리 소리는 좋은 뜻이고,
引雛鶯語是歡情	새끼를 이끄는 제비 소리는 기쁜 정일세.
別懷因病難爲緒	이별하는 감회로 병이 나서 풀어지기 어려우니
醉思經時覺減精	취해 시간을 보내느라 감각이 줄어들네.
竹醒此來徒偶爾	죽성이 여기 온 곳도 우연이라
適當慰話坐班荊	적당히 위로하며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네. ¹⁸⁴⁾

북헌에서 마음 내키는로 글을 쓰다
北軒縱筆

酒氣豪騰打麥聲	보리를 타작하는 소리에 술기운이 부쩍 올라
旱騷空負慰民情	가뭄 소동 버리고 백성의 마음 위로하였네.
關窓茲得心幽獨	창문을 여니 마음이 그윽해지고
浥翠松篁分外淸	비에 젖은 푸른 소나무와 대숲은 어제보다 맑구나.

6월 17일에 십의대에 올라 한산하게 감회를 풀다
六月十七日 登十宜臺 閑散遣懷

故園長在目	낡은 정원에 오랫동안 눈을 두어
觸物感多時	보이는 것들에 감회가 많구나.

184) 《춘추좌씨전》 양공(襄公) 26년 조에 “초나라 오거가 정나라로 달아났다가 다시 진나라로 도망가던 도중, 친구인 채나라의 성자 또 한 진나라로 가던 길에 정나라의 교외에서 둘이 만나 자형나무를 깔고 앉아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오거의 초나라 복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伍舉奔鄭 將遂奔晉 聳子將如晉 遇之於鄭郊 班荊相與食 而言復故]”라고 한 데서 온 말로, 자형나무를 깔고 앉았다[班荊]는 것은 친구 간에 길에서 만나 함께 앉아서 회포를 나누는 것을 말한다.

斜日難重住 지는 해는 더 머물기 어렵고
 好花不耐吹 예쁜 꽃은 불어오는 바람을 견디지 못하네.
 壯心緣病減 씩씩한 마음은 병으로 인해 줄어들고
 精力爲愁衰 정력도 근심 때문에 쇠하였네.
 遙望思靡逮 멀리 바라보아도 생각이 미치지 못하여
 回頭有影隨 고개를 돌리니 그림자가 따라오누나.

門庭豈是蘓湖室 문 앞의 뜰이 어찌 소호¹⁸⁷⁾의 방이며
 經籍何嘗弘正樓 경서는 어찌 홍정의 누각이라.
 幽湛錦幢香遠益 그윽하게 비단 휘장을 치니 향기가 멀수록 더해지고
 靜涵冰鏡影偏留 조용히 밝은 달빛을 받아들이니 그림자가 머무네.
 滿腔添得清明韻 몸속 가득히 청명한 운을 더하고 얻어
 文氣從茲待柳州 문장의 기운이 이를 좇아 유주¹⁸⁸⁾를 기다리네.

강산일초정에서 시구를 모으다
 江山一草亭集句

一間草亭接太清 한 칸 초정이 태청¹⁸⁵⁾과 접해 있어
 倚欄縱目最分明 난간에 기대어 구경하니 가장 분명하구나.
 千里江山增逸興 천리 강산은 뛰어난 흥취를 더하고
 四時風月助吟情 사철 풍월은 시 읊으려는 마음을 돕는구나.
 漸覺愁隨烟霧散 시름이 점점 안개를 따라 흩어지니
 只恁身外羽翰生 몸 밖에서 날개가 생기어나.
 且堪留作遊觀勝 좋은 경치를 보며 머물러 시를 지으니
 野稼芄芄原樹平 들판의 농사가 아주 잘 되고 나무도 편편하구나.

강산일초정에서 보이는대로 짓다
 江山一草亭卽事

幽興每隨任去來 그윽한 흥취가 올 때마다 일어나니
 孤亭物色絕浮埃 외로운 정자의 경치가 속세와 단절되었네.
 地從日月生時見 땅은 해와 달이 생겨난 때를 보았고
 天到江山盡處回 하늘은 강산이 끝나는 곳에 이르러 도네.
 絃管替成林鳥鬧 관현악기가 연주하여 숲속에 새들 지저귀고
 綺羅留作野花開 비단을 남겨 두어 들판의 꽃이 피었네.
 城頭畫角無窮意 성 머리의 불피리 소리 다하지 않았으니
 且酌西風酒一盃 또한 서풍에 술 한 잔을 따르리라.

근효곡 육영재 하월루 시에 차운다
 次勤孝谷育英齋荷月樓韻

聲教天南第一流 성교¹⁸⁶⁾는 천남의 제 일류라
 構椽高闕趁新秋 서까래를 엮어 높게 열고 새 가을을 좇네.

홀로 앉아 무료하기에 심의대에 올라 당(塘) 자를 운으로 집어 감회를 풀다
 獨坐無聊 登十宜臺 拈塘韻遣懷

一官心境輒商量 한 관리가 심경을 헤아려 보려고
 獨上高臺坐夕陽 홀로 높은 누대에 올라 석양에 앉아 있네.

185) 도가(道家)에서 말하는 신선세계로 삼청(三淸) 가운데 하나인데, 여기서는 하늘을 가리키기도 한다. 삼청은 상청(上淸)·태청(太淸)·옥청(玉淸)이다.

186) 임금이 덕으로 백성을 감화시키는 교육. (우공(禹貢)의 끝 부분에서 우 임금이 치수(治水) 사업을 완성하고 천하에 덕화(德化)를 펼 것에 대해 “동쪽으로 바다에 닿고, 서쪽으로 유사(流沙)에까지 덮고, 북방과 남방에까지 이르러 성교(聲教)가 사해(四海)에 두루 미쳤다.” 하였다.

187) 소호(蘇湖)는 소주(蘇州)와 호주(湖州)이니 송나라 학자 호원(胡瑗)이 이 두 고을의 교수가 되어 제자가 1천 명을 헤아렸다. 사부(辭賦)가 유행하던 당시에 호원은 경의재(經義齋)와 치학재(治學齋)를 두어 수재를 배출했다. 《송사(宋史)》〈호원열전(胡瑗列傳)〉

188) 유주자사(柳州刺史)를 지낸 당나라 문장가 유종원(柳宗元)을 가리킨다.

火宅人間皆酷熱
水壺何處是清涼
雲含雨意翻天黑
風打槐花滿地黃
造物能知偏我寂
聲聲曳出匣蝸蟻

화택(火宅)¹⁸⁹⁾에 있는 인간은 모두 혹독하게 뜨거우니
맑고 시원한 얼음 항아리는 어디에 있나.
구름이 비를 머금어 하늘이 검게 덮이고
바람은 왜나무 꽃을 쳐서 땅이 한가득 노랗구나.
조물주가 나만 고적한 것을 알아서
매미를 둘러서 온갖 소리를 끌고 나오네.

읍청루 난간에서 보이는 대로 시를 짓다
挹淸欄 賦卽事

軒窓新闢暢心寬
林翠挹淸逼小關
容易相關啼鳥樂
尋常盡得好山看
卉花香襯琴書潤
松竹韻涵枕簟寒
俯仰中間多趣味
羲皇人似漫爲官

헌함 창이 새로 열려 화창하니 마음이 넓어지고
읍청루의 푸른 숲이 작은 난간에 다가오네.
용이하게 상관하니 새는 즐거이 울고
심상하게 맘껏 좋은 산을 볼 수가 있구나.
풀과 꽃의 향기가 거문고와 책에 가까워 운택하고
소나무 대나무의 운이 베개와 대자리를 적시니 차갑구나.
굽어보고 올려다보는 중간에 취미가 많아
희황상인¹⁹⁰⁾이 부질없이 관원이 되었네.

189) 불교 용어로 괴로움이 가득한 속세를 비유한 것이다. 《법화경(法華經)》(비유품(譬喻品))에 “삼계(三界)가 편안하지 않으니, 화택(火宅)과 같다.”라고 하였다.

190) 평화스러운 태고시대처럼 한가롭게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 도연명의 《여자엄등소(與子儼等疏)》에 “오늘월 중에 북창 아래에 누워 있다가 서늘한 바람이 잠깐 지나가기라도 하면, 스스로 희황(羲皇) 시대의 사람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北窓下臥 遇涼風暫至 自謂是羲皇上人]”는 말이 나온다.

홀로 읍청루 난간에 앉아 나 자신의 분수를 돌아며 나도 모르게 개탄스러워 강(康)자를 집어 감회를 풀다

獨坐挹淸欄 自顧身分 不覺慨歎 拈康字遣懷

居逸勝勞盛激昂
稀年爲客爲誰忙
病昏精耗知無奈
心足身閑歎未嘗
何苦纏綿蚤在繭
須憐睥睨鼠窺床
願將此老餘生事
自樂優遊且健康

편안히 사는 것도 너무 힘들어 한껏 격앙되니
칠십년 동안 객으로 지냈으니 누구를 위하여 바빴던가.
병들고 혼미해져 정기가 소모돼도 어쩔 수 없으니
마음 느긋하고 몸이 한가한 적이 없었네.
누에가 고치에 있는 것처럼 얽혀 있음을 어찌 괴로워하라
쥐가 밥상을 흘깃흘깃 엿보는 것을 가엽게 여기리라.
바라건대 장차 이 늙은이의 여생의 일은
즐겁게 잘 놀러 다니며 건강한 걸세.

일초정에 올라 운자를 집고 시를 짓다
登一草亭 賦卽事拈韻

烟樹江雲指顧中
展開粧點畫圖同
竹清不到三庚暑
簷短長收四面風
最好青山如友對
更宜流水照心空
坐來參看農家事
老少歌謠樂歲豐

안개 낀 나무와 강가의 구름을 가리키며 돌아보니
아름다운 경치가 펼쳐져 그림 같구나.
대나무의 서늘함 이르지 않으니 삼복¹⁹¹⁾이 덥건만
처마가 짧아 사방의 바람을 많이 받아들이네.
푸른 산을 가장 좋아하여 벗을 대하듯 하고
흐르는 물을 좋아하니 마음의 빈 곳을 비추리라.
농가의 일을 앉아서 바라보니
늙은이 젊은이 모두 노래하며 풍년을 즐기네.

191) 삼경(三庚)은 1년 중 가장 더운 한여름의 세 경일(庚日), 즉 삼복(三伏)을 가리킨다. 책력에 의하면, 하지 후 셋째 경일로부터 이후 열흘간을 초복(初伏), 넷째 경일로부터 이후 열흘간을 중복(中伏), 입추 후 첫째 경일로부터 이후 열흘간을 말복(末伏)이라고 한다.

읍취함에서 보이는 대로 짓다
挹翠檻卽事

小小幽園景色新
檻前生態畫難眞
陰深花媚分高下
臺築亭成任屈伸
蒼鬱松浮雲氣槩
蕭涼竹帶雨精神
老來愛物偏多癖
坐臥堪容此一身

작고 그윽한 동산에 경치가 새로워져
난간 앞의 생태를 제대로 그려내기 어려워라.
그늘 깊고 꽃은 아름다워 높고 낮게 나뉘고,
누대에 정자를 세우니 맘껏 팔다리를 굽혔다 펴네.
울창한 소나무에 구름의 기개가 떠 있고
쓸쓸한 대나무에 비의 정신이 들렸네.
늙어가며 만물을 사랑함에 편벽된 버릇이 많아지니
이곳에 앉고 누워 이 한 몸을 용납할 수 있구나.

7월 24일에 일초정에 올라 서울을 바라보며 생각한 바가 있어 운을 집다
七月二十四日登一草亭望京有所思拈韻

遙看天際接秋光
五色雲浮是帝鄉
憶昨丹墀趨侍日
朝衣猶濕御爐香

멀리 하늘 끝을 보니 가을빛과 닿아 있고
오색 구름이 떠 다니니 제향(帝鄉)¹⁹²이구나.
붉은 섬돌에서 따라가며 모셨던 지난날을 기억하니
조의를 어로의 향기에 젖어 축축하였지.

저물 녘에 일초정에 올라 서글피 산고개의 구름을 보며 석성이 그리워 운을 집어 두 절구를 짓다
晚上一草亭悵望嶺雲憶石醒拈韻二截

分張曲脂到新秋
眩暈聳愁不自由

이별의 곡지가 새 가을에 이르러
어지럽고 시름겨우니 자유롭지 못하구나.

192) 신선이 사는 하늘나라로, 백운향(白雲鄉)이라고도 한다. 《장자(莊子) 〈천지(天地)〉》에, “저 흰 구름을 타고 제향에 이른다.[乘彼白雲 至於帝鄉]” 한 데서 유래하였다. 여기서는 고종황제가 있는 궁궐을 가리킨다.

近構草亭消遣地
嶺雲江樹思悠悠

근처에 초정을 지어 시름을 푸는 곳으로 삼으니
산고개의 구름과 강의 나무가 유유하구나.

渴塵生滿寸心田
悵望孤吟意可憐
若待輪車功就日
川原尺地舊襟聯

애타는 마음 참았다가 촌심¹⁹³에 가득해져
서글피 바라보며 홀로 읊으니 뜻이 가여워라.
운차를 기다려 공을 이루는 날에
좁은 땅에서나마 옛 정을 이으리라.

가을날 여러 명승지를 방문하여 보이는 바를 시로 짓다
看秋日訪諸名勝賦得卽事

多稼如雲半熟穰
田疇交遠匝青黃
西成何地酬君賜
老穉含生樂歲康
看秋 가을을 보다

농사를 많이 지으니 구름 같은 낱알이 반쯤 익었네.
멀리 보이는 밭이랑이 푸르고 누렇게 둘러졌구나.
어떤 땅은 추수하여 임금이 내려준 것에 보답하고
늙은이 젊은이가 삶을 머금고 한 해의 강녕함을 즐기는구나.

玉堂學士謹庭闈
架上遺書絕俗非
款客趨迎情可表
新醞開釀海鰲肥
鯨井里洪應教庄 경정리 흥응교의 집

옥당의 학사가 삼가 부모를 모시니
선반 위에 남은 책이 절대 속되지 않네.
손님이 반가워 뛰어나와 맞으니 정이 드러나며
새 술 마개를 열고 살진 바다자라를 곁들이네.

小庄住在曲江邊
勝槩何妨近市塵
罷釣歸來須有暇
兼看穡事慶時堅
老下浦李都事庄 노하포 이도사의 집

작은 집이 굽은 강변에 있으니
아름다운 경치에 근처 장터가 어찌 방해되랴.
낚싯대를 거두고 돌아오면 쉴 틈이 있어
아울러 농사도 돌보니 확실히 경사롭구나.

193) 심장이 사방 한 치가 된다고 하여, 마음을 방촌(方寸) 또는 촌심(寸心)이라고 한다.

松下岡前一草廬 소나무 아래 언덕 앞의 한 초가집
 高人寓得卜新居 고결한 분이 머물며 새 집을 꾸렸구나.
 傳家緒業推將見 집안의 유업을 잇는 것을 드러냈으니
 滿架縱橫教子書 시렁에 가득 종횡으로 아이들 가르치는 책이 있구나.
 松下里洪參奉庄 송하리 홍참봉 집

家聲傳播孝聞名 집안 명망이 전해지고 효도로 이름이 들리니
 隨分床書適性情 분수에 따른 책상의 책이 성정을 맞게 하네.
 如今客到鬢堂下 지금처럼 손님이 서당에 오면
 童穉能知禮數迎 어린아이들이 예의를 알아 헤아려 맞으리라.
 松下里李監察庄 송하리 이감찰 집

歷盡郊原到竹關 교외의 평원을 다 돌고 죽관에 이르러
 尋君不遇又空還 그대를 찾았으나 만나지 못해 또 헛되이 돌아가네.
 好山繞屋靑如畫 산이 집에 둘러 있을 좋아해 푸르름이 그림 같으니
 無限離情返照間 석양에 이별의 정 끝이 없구나.
 松竹里李雅庄不遇 송하리 이선비 집에 갔으나 만나지 못하다

倒着衣裳不自量 윗아래 옷을 거꾸로 입고 스스로 헤아리지 못해
 靑燈拭眼熱中腸 푸른 등불에 눈을 비비고 뱃속을 덥히네.
 羅陳需品皆新味 여러 음식을 차렸는데 모두 새로운 맛이니
 感子于今故意長 그대가 지금까지 옛정을 지냈음을 느끼겠네.
 松竹里李監察庄 송죽리 이감찰 집

不憚侵昏有意過 저녁에 와도 꺼리지 않아 정이 두터우니
 前街延佇感銘多 길에서 기다려도 감명이 많구나.
 知君自是陰功厚 그대의 음공(陰功)이 두터움을 아니
 曾荷醫予效宿痾 일찍이 의원을 데려와 목은 병을 고쳐 주었지.
 鞍峴李雅庄 안현 이선비 집

山回路轉日初沉 산길을 돌아오다가 길이 막 어두워져
 遠水空明鳥沒林 먼 시냇물 희미해지고 새들은 숲속으로 사라지네.
 爲訪村扉歸杖暮 마을 집을 찾기 위해 저녁에 지팡이를 짚고 돌아오니
 纖塵不動月天心 달빛이 환해 티끌 하나 움직이지 않네.
 歸路 돌아오는 길

**저물 녘에 일초정에 올라 다듬이질 소리를 들었는데 처량하기에 침(砧) 자를
 집어 감회를 풀다**
晚登一草亭 聞砧聲淒涼 因拈砧字遣懷

每逢佳節思難禁 매번 명절을 만날 때마다 집안 생각을 금하기 어려워
 晚上園亭一散襟 날 저문 동산 정자에 올라 옷깃을 풀어헤치네.
 萬事何嘗老無味 늙어가면서 만사에 아무런 흥미가 없어
 孤懷偏苦夕陽砧 석양의 다듬이질 소리 홀로 쓰라린 회포를 품고 있구나.

한가위에 정회를 풀다
嘉俳日遣情

嘉俳令節卜年豐 중추가절에 올해도 풍년 들기를 점치니
 遊戲於今俗尙風 지금의 유희도 옛풍속 그대로일세.
 弱緒鬢鬢生觸感 한 가닥 흐트러진 머리에 촉감을 살리니
 懽娛故作與人同 기뻐하며 즐기는 것은 옛사람들도 했던 것일세.

眉間喜色幾時黃 미간에 기쁜 기색이 언제 노래졌나
 滿貯羈愁着瘦腸 가득 쌓인 시름이 여윈 장에 달라붙었네.
 微宦虛糜一鷄肋 낮은 벼슬에 헛되어 계륜처럼 묶여 있으니
 嗟予豈是室家忘 아! 내 어찌 집안을 잊었는가.

홀로 일초정에 올라 한산하기에 운을 집다
獨登一草亭 閑散拈韻

眺望寬懷得一分	멀리 바라보니 느긋한 회포가 일어
蓼紅蘆白稼黃雲	여뀌는 붉고 갈대는 희고 곡식은 누렇구나.
思將欲共何人倚	장차 누구와 함께 하며 의지할까 생각하노라니
孤鴈橫窓亦念羣	외로운 기러기도 창을 가로질러 또한 무리를 생각하네.

전의군에서 판상의 시에 차운하다
全義郡 次板上韻

三峯圍野水如巴	세 봉우리가 들을 감싸고 물은 뱀같이 흐르는데
碧樹中開一小衙	푸른 숲 속에 작은 관아를 하나 열었구나.
敦美絃歌風尚古	아름다운 현가(絃歌)가 도타워 옛 풍속을 숭상하고 ¹⁹⁴⁾
地肥猶足課桑麻	땅은 비옥하여 뽕과 마를 세금으로 내기에 넉넉하네.

북면 대부리로 가는 중에
北面中大夫里途中

郊東閭里匝	성 바깥 동쪽은 마을로 둘러싸여 있고
名蹟尙留多	이름난 고적들이 많이 남아 있네.
力穡須知課	힘써 농사짓고 모름지기 조세를 알아
豐登滿隴禾	풍년이 드니 고개마다 벼가 가득하구나.

194) 공자의 제자 자유(子游)가 무성(武城)의 읍재(邑宰)가 되어 백성들에게 예악을 가르쳤으므로, 곳곳에서 현가(絃歌)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전의군의 사또 권택수의 정치에 느낀 바가 있기에
全義倅權宅洙政治有感

驥足淹小縣	천리마가 조그만 고을에 발을 담그고,
專功製錦任	오로지 비단을 만드는 임무에 공을 들이네.
把公摧吏膽	공무를 파악하여 아전들의 담을 꺾고
施惠愜民心	민심에 흡족하게 은혜를 베푸는구나.
治道躬親檢	다스리는 방법을 친히 점검하고
修災手自斟	재난을 보수하는 것도 스스로 헤아리네.
種松彭澤郡	평택군에 소나무를 심으라고
及我賴詩吟	나에게 시 지어달라 부탁하네.

전의군 여관에서 회포가 일어 두 절구로 묻고 답하다
全義旅館 因情懷問答二截

我今七十一齡翁	나는 지금 일흔한 살 늙은이이니
氣眩眼昏兼耳聾	기력은 어지럽고 눈은 침침한데다 귀까지 먹었네.
微宦是知錮身鑠	미관말직에 몸을 사슬로 채워 놓고도
如何不省愧心宮	어찌 마음을 부끄러워하고 반성하지 않나.

偏荷洪恩不敢忘	나는 큰 은혜를 받아 감히 잊지 않으며
憂愁歡樂此承當	근심과 걱정, 기쁨과 즐거움을 이에 마땅히 잇네.
對人言病知無實	사람을 대하여 괴롭다고 말하면 실속 없음을 아니
誰識今朝苦自強	오늘 아침에 괴롭게 힘쓸 줄이야 그 누가 알랴.

여관에서 가을날 보이는 대로 짓다
旅館秋日卽事

楓葉微紅近有霜	단풍잎이 살짝 붉어지니 서리가 곧 내리겠구나.
---------	---------------------------

野人籬落菊初黃 야인의 울타리에 국화가 처음 노랗게 피었네.
 淹留旅館秋將老 가을이 장차 저물어가니 여관에 몸을 담고
 夔老空嗟晚景粧 늦은 날 경치가 아름다워 두기가 늦었다 탄식하네.¹⁹⁵⁾

전의군 의현에 산을 1리 정도 뚫어서 굴을 만들어 철도를 통하게 하기에 느끼는 바 있어 짓다
全義蟻峴地 山一里許 作穴通鐵道 有感作

世事翻如面不同 세상사가 뒤집어져도 면이 같지가 않아
 陵遷谷變適時中 언덕이 옮기고 골짜기가 변하는 것이 다 때가 있네.
 昔聞蜀道黃牛鑿 옛날에 촉나라 길은 황소가 뚫었다 들었는데
 一度驚心夢裡通 한 번 놀란 가슴이 꿈속에서도 통하는구나.

열차 위에서 경(輕) 자를 집다
列車上拈輕字

鴈落天空動客情 기러기 내려앉고 하늘이 비니 나그네 심정도 움직이는데
 坐來雙轂快歸程 쌍 바퀴 위에 앉아서 오니 돌아오는 길이 빠르구나.
 江山拖碧如電過 강산의 모습이 푸른 산을 당기듯 번개처럼 지나가니
 奚啻風前一葉輕 어찌 바람 앞의 잎사귀 하나만 가볍겠는가?

195) 두기(杜鰲)는 한나라 영제(靈帝) 때 아악랑(雅樂郎)으로 있다가 형주(荊州)의 유표(劉表)에게 위탁하였는데 뒤에 조조(曹操)에게 귀순하였으며, 종률(鍾律)과 구악(舊樂)에 뛰어났다. 두기가 늙은 지 이미 오래 되자 연습을 하지 않아서 《시경》 300편 중에서 얻은 것은 오직 <녹명(鹿鳴)>, <추우(騶虞)>, <벌단(伐檀)>, <문왕(文王)> 4편뿐이었고 나머지 곡조는 전하지 않게 되자 탄식하였다.

직산관에서 사가 서거정의 원운에 차운하여 감회를 풀다
稷山館 次徐四佳居正原韻遣懷

秋日羈窓意欲平 가을날 객관의 창가에 마음이 평온해져
 每從愁裡鴈關情 매번 시름 속에 기러기에 정을 부치네.
 舍恩植物頌靈沼 은혜를 받은 식물은 영험한 못¹⁹⁶⁾을 칭송하니
 建國遺墟都禮城 나라를 세운 옛터는 위례성¹⁹⁷⁾ 도움이었네.
 岩爲全形災未制 바위는 온전한 형태가 되어 재앙을 억제하지 못하고
 地緣金窟禍旋橫 땅은 금을 파낸 까닭에 화가 횡행하고 도네.
 紛忙俗事終何用 세속의 일에 분망하였으니 끝내 어디에 쓰랴.
 無限西風笛一聲 끝없는 가을바람에 피리 소리만 들려오네.

밤에 안핵사 안종덕¹⁹⁸⁾과 이야기하다
夜話按覈使安鍾惠

送罷南樓阻候門 남루에서 전송하고 나서 후문을 막아
 同參覈事更承溫 같이 핵사에 참여하여 온화한 말씀 들었네.
 致身要識丹衷在 요직에 몸을 다하여 붉은 충성심 있으니
 曾見憂時奏萬言 일찍이 시국을 근심하여 만 가지 말을 아뢰었네.

196) 영소(靈沼)는 주나라 문왕(文王)의 정원 안에 있는 연못인데, 문왕이 선정을 베풀어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영험한 못’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197)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16 <직산현>에, 직산이 본래 백제의 위례성이었다고 설명하였다.

198) 《승정원일기》 고종 41년(1904) 8월 6일 기사에 안종덕이 안핵사로 파견된 이유가 실려 있다. “충청남도 관찰사 심건택(沈健澤)이 내부에 보내온 전보(電報)에 따르면, 직산군(稷山郡)의 광부(礦夫) 수천 명이 감히 동헌(東軒)을 부수고 군수 유병응(劉秉應)을 난타한 다음 찢러 죽였으니 또한 사관을 정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래 지방의 소요가 뒤를 이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장리(長吏)를 살해하는 일은 전에 없던 변고입니다. 수령 혼자 조사하고 말면 안 되니, 종2품 안종덕(安鍾惠)을 안핵사로 임명하여 그를 즉시 출발하여 먼저 시흥을 조사하고 이어 직산에 가서 사변의 연유를 엄히 밝혀낸 다음 합당한 징계 조치를 강구해서 보고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아편 대로 하라. ... 명백하게 조사하여 밝혀내서 징벌하는 일을 잠시 잠깐이라도 늦출 수 없다. 안핵사를 빠른 시일 내에 출발하게 하라.”

천안 사포 김용래와 대화하다
對話天安倅金用來

聲績湖南聞最雄	실적이 호남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들었는데
今宵來坐忽春風	오늘밤 와서 앉으니 갑자기 봄바람이 부네.
對君推想賢勞日	그대를 대하고 현명하게 수고한 나날을 생각해보니
官不稱才愧此同	관에서 재주를 칭송하지 않아 부끄럽구나.

예성관에서 상(霜) 자를 얻다
禮城館 得霜字

秋老江南我思長	가을 늙은이 강남에 있어 나의 생각이 길어지고
單衣初慙曉添霜	홀옷에 새벽 서리가 없어지니 처음엔 겁이 났네.
鄉書無鴈何時到	고향 편지 전해 줄 기러기 없으니 언제야 오려나
黯黯情懷恰一觴	어두운 이 마음이 한 잔 술에 적당하구나.

직산 사포 곽찬이 나에게 천안 사포 김용래와 만나길 요청하기에 함께 마시다
稷山倅郭璨 要我對天安倅金用來小酌

旅懷孤寄向誰裁	떠도는 감회를 외로이 부치니 누구를 향한 것인지.
深感共君要舉杯	깊은 감회가 그대와 함께 잔을 들기를 바라네.
景物看來無不可	경물을 보고 오는 것이 안될 게 없어
黃花正好滿庭開	노란 국화가 바로 뜰 가득 피었구나.

전의군 여관에서 영평 신극환을 만나 같이 누워 읊다
全義旅館 逢永平申雅極煥 聯枕有吟

客裏相逢意可憐	나그네 길에 서로 만나니 뜻이 가련하구나.
---------	-------------------------

挑燈中夜話無邊	등불 돋우고 한밤중에 이야기가 끝이 없네.
宜歸未賦緣何事	돌아가야 하건만 시 짓지 않으니 무슨 일인가
不見雲山已五年	구름과 산을 안 본 지가 이미 오년일세.

공주부에서 총순 윤영구를 만나 밤에 이야기하다
公州府 逢尹摠巡永九夜話

窓燈欲滅月如何	창가의 등불이 꺼지려는데 달빛은 어떠한지
喜聽琤音荷訪過	연꽃을 찾아오는 발소리를 반갑게 들네.
憶昨吾州監理署	지난번 우리 고을의 감리서가
賴君經濟阜民多	그대 덕분에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들었네.

공주 동혈현으로 가던 중에 짓다
公州銅穴峴途中卽事

眼前多少景	눈앞의 다양한 경치들에
覓句欲留題	구절을 찾아 시를 짓고 싶어지네.
野菊香無賴	들국화 향기에 마음 산란하고
原楓色不齊	언덕의 단풍은 색이 고르지 않구나.
古庵懸絕壁	옛날 암자는 절벽에 걸려 있고
曲徑陞危隄	길이 구부러져 위태한 독을 오르네.
禾稼收方盡	벼 수확이 이제 다 끝났으니
民斯壽域躋	이곳의 백성들은 태평세월 ¹⁹⁹⁾ 이 되었구나.

199) 수역(壽域)은 인수지역(仁壽之域)의 준말로, 천수(天壽)를 다하며 살 수 있는 태평성대를 가리킨다. 《한서(漢書) 권22 <예악지(禮樂志)>에 “한 세상의 백성들을 몰아서 인수(仁壽)의 지역으로 인도한다면 풍속이 어찌 성강(成康) 때처럼 되지 않을 것이며, 수명이 어찌 고종(高宗) 때처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에서 나왔다.

전익군의 의관 황두연의 집을 방문하여 하룻밤 묵다
訪全義郡黃議官斗淵庄一宿

酸寒行役到而今	괴롭고 추운 행역이 이제 다 끝나
鷄黍曾成此夜尋	닭과 기장술 차려 오늘밤에 찾았네.
可笑別來頭併白	우습구나, 헤어진 뒤에 둘 다 머리가 희어졌으니
盍簪相對共論心	함께 모여 마주보며 마음을 논해 보세.

전익군에서 돌아오는 길에 두 절구를 짓다
全義歸路二截

霜落千林薄	모든 숲에 서리가 떨어져
無端感客情	끝없이 나그네 감정을 느끼게 하네.
物華空黯淡	물화(物華)가 공허하고 암담하여
有筆畫難成	붓을 들어 그려낼 수가 없구나.

流光拋客路	달빛 비치는 강물이 나그네 길에 비쳐
病苦自知疲	병들고 괴로우니 절로 지치네.
車乘如電迅	차에 타면 번개처럼 빠르니
堪憐夸父追	과보가 쫓아가던 ²⁰⁰ 것이 가엽구나.

200) 과보(夸父)는 전설에 나오는 거인으로, 태양을 쫓아가다가 목이 마르자 하수(河水)와 위수(渭水)의 물을 마시고 그것도 부족하여 북쪽으로 대택(大澤)에 가서 들이켰는데, 급기야는 갈증이 나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다고 한다. 《산해경(山海經)》〈해외북경(海外北經)〉

평이당에서 백향산의 귀전 시에 차운하여 두 절구를 짓다
平易堂次白香山歸田韻賦得二截

湖海經年景物優	호수와 바다가 해가 지나면서 경치가 좋아져
謾將試墨記曾遊	일찍이 돌아다녔던 곳들을 먹으로 적어 보네.
秋光正似宦情薄	가을빛이 바로 벼슬아치의 얽은 정과 닮아
堪笑歸心人白頭	돌아가고픈 마음만 있어 머리 희어지니 우습구나.

却看庭菊有餘香	뜰의 국화를 보니 남은 향기가 있어
自問何時返故鄉	언제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인지 묻는구나.
撫景題詩堪遣興	경치를 두루 보고 시를 지어 감흥을 달래려니
神昏不得誇身強	정신이 혼미해 몸 강건하다 자랑할 수가 없네.

우룡 스님을 만나 '선사화인시'에 차운하여 시를 주고받다
對雨龍僧次禪師和人詩韻唱酬

踏遍尋窮幾息眠	궁벽한 곳 찾아 두루 다니니 언제 쉬고 자는가?
從來法教演三天	종래 불법의 가르침은 삼천 ²⁰¹ 을 설명하는 것이었네.
隨緣參證香山社	인연을 따라 향산사에서 참여하고 증험하니
聽講無爲度瘦年	무위를 청강하며 파리한 날만 보냈네.

우룡 선사가 와서 이야기하다가 그가 외운 황매천의 시에 차운하여 지어 주다
雨龍禪師來話依其所誦黃梅泉韻賦贈

煉得眞形一指龍	진형의 일지룡을 구워내니
寶山泉誦幸今逢	보산천 노래를 이제 만났구나.

201) 불가(佛家)의 삼천(三天)은 욕계(欲界) · 색계(色界) · 무색계(無色界) 등이다.

圖新將就塗金像 새롭게 도모하여 불상에 금을 바르고
 警衆須知徹曉鍾 중생을 일깨우려 새벽 종 침을 알게 되리라.
 人我相來認杯渡 남과 내가 서로 와서 배도화상(盃渡和尚)을 인증하고
 色空談起悟雷封 색과 공을 이야기하며 뇌봉²⁰²을 깨닫네.
 曾從覺海惟長物 일찍이 깨달음을 쫓아 오직 장물 뿐이니
 到老何嫌日陷松 늙음에 이르니 어찌 날마다 솔잎 먹는 것을 꺼리랴.

우룡 스님과 걸으며 망한사 시판의 운을 이어서 시로 지어 보여 주다
 步雨龍僧次望漢寺板上韻. 因贈示

眞緣憑掛錫 진정한 인연에 석장을 기대어 걸고
 擬着遠師廬 헤아려서 보니 저 멀리 선사의 오두막일세.
 白傳談禪日 백부²⁰³는 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淵明入社初 도연명은 백련사에 처음 들어왔지.²⁰⁴
 沈腸潭月照 창자처럼 굽은 못에 달이 비치면
 搜句架經儲 글귀를 찾아 서가에 쌓인 경전을 뒤적이네.
 參透機心妙 물처럼 스며드는 기심이 묘하여
 定如風止旗 바람이 깃발을 멈추듯 정해졌구나.

202) 뇌봉은 중국 고대에 현령(縣令)을 일컫던 말이다. 보통 사방 100리 정도 되는 고을이 현(縣)이 되는데, 천둥이 치면 그 소리가 100리쯤 진동한다 하여 현령을 뇌봉이라고 하였다. 여기서의 지방관이다.

203) 태자 소부(太子小傅)에 임명되었던 당나라 시인 백거이(白居易)를 가리킨다.

204) 혜원법사(慧遠法師)가 백련사를 결성하고 서신(書信)을 보내 도연명(陶淵明)을 초청하니, 연명의 답서에 “나의 천성(天性)이 술을 즐기는데 법사께서 술 마시는 것을 허락한다면 곧 가겠다.” 하였다. 혜원이 이를 허락하자 연명이 마침내 찾아갔는데, 그가 입사(入社)할 것을 권유하니 연명이 눈썹을 찌푸리고 돌아갔다.

순명비²⁰⁵의 궁에 삼가 올리는 만장
 純明妃宮 謹述輓章

毓祉名門教有方 복을 기른 명문의 교육을 받아
 幽貞淑德配元良 그윽하고 정숙한 덕으로 황태자의 짝이 되셨네.
 調和甘旨誠心篤 조화롭고 아름다운 뜻에 성심이 돈독하셨고
 定省晨昏孝思彰 혼정성신하시는 효성이 빛나셨네.
 常閱古今論及史 항상 예와 지금 책을 두루 보시어 역사를 논하시고
 屢經艱險淚沾裳 어렵고 험한 일들을 겪으시며 눈물이 치마를 적시셨네.
 寶齡闕未躋仁壽 보배로운 연세가 막히어 인수에 이르지 못하셨으나
 厥衛式嗟反兆祥 장례식 날 한숨을 쉬니 도리어 조짐이 상서로웠네.
 已矣那堪成往蹟 이미 지나가신 발자취는 어찌 말하랴
 嗚呼無復被回光 아아! 회광²⁰⁶을 다시 맞을 수가 없구나.
 忍言私分當時事 차마 사사로운 분수로 지금 당한 일을 말하지 못하고
 恩海茫茫輒自傷 은혜의 바다가 망망하니 절로 가슴 아프네.

아산의 공관에서 어(漁) 자를 운으로 집다
 牙山公館 拈漁字

曾余筇屐夢過餘 일찍이 내가 꿈에 대나무 나막신을 신고 지나가는데,
 隣接吾州隔一渠 우리 고을과 인접해 개천 하나 떨어져 있었네.
 前藪叢深知縣古 앞의 숲이 우거져 고을이 오래됨을 알고
 平郊土沃利民居 들판의 땅이 비옥하니 백성이 살기에 이롭구나.
 曲橋商貨時堪販 곡교에서 물자를 팔아 언제나 살 수 있고,
 白石行舟晚可漁 백석포에 배가 가니 늦게까지 고기를 잡을 수 있네.

205) 민태호의 딸이자 황태자비인데, 11월 5일(음력 9월 28일)에 죽자 순명비(純明妃)로 추존하였으며 순종이 즉위 후에 순명효황후로 추존하였다.

206) 해바라기 꽃이 언제나 해를 향해 있듯이 임금을 향한 진실된 충정을 말한다. 소식(曹植)의 〈구통친친표(求通親親表)〉에 “해가 해바라기 꽃에게 방향을 돌려 비취 주지 않더라도, 그러나 언제나 해를 향해 바라보는 것은 해바라기의 정성이다.[太陽雖不爲之回光 然向之者誠也]”라고 하였다.

來按羣奸宣恤意 와서 간악한 무리를 다스려 긍휼한 뜻을 펴지만
瘡痍幾處竟何如 여러 군데 상처는 끝내 어찌하랴.

아산의 여관에서 밤에 앉아 감회를 적다
牙州館 夜坐遣懷

夜寥孤坐想 밤에 적막하여 홀로 앉아 생각하며
點檢正堪嗟 점검해보니 참으로 탄식이 나오네.
冷覺爐殘火 화로에 잔불이 남았으나 추위가 느껴져
昏緣燭結花 어둠 속에 촛불을 켜 꽃을 맺었네.
唱鷄當曉亂 새벽을 맞아 닭이 어지러이 우는데
鳴雨逐風斜 울리는 빗소리는 바람 따라 빗겨 내리네.
自解愁眠怯 스스로 시름을 풀고 잠들기가 겁나
須令喚酒餘 모름지기 술을 사 오라 시키네.

영인으로 가는 도중에 눈바람이 불기에 읊다
寧仁途中 風雪有吟

忽忽征旆雪中催 바쁜 행차가 눈 속에 서두르니
到老衝寒難自裁 늙어 추위에 부딪치자 스스로 이겨내기 어렵구나.
漸瀝風驅舡棹去 바람 거세게 몰아쳐도 배는 노를 저어 가고
蕭條山挹馬頭來 쓸쓸한 산이 말머리를 당겨 오네.
空憐乘興無知己 흥에 겹지만 지기(知己)가 없어 가여우니
還乏思賢訪隱才 돌아와 성현들을 생각하고 은자들을 방문하네.
心眼展開詩意味 마음의 눈으로 시의 의미를 전개하니
吟肩聳得酒能媒 읊으며 어깨 들썩이는 것은 술로써 할 수 있네.

자유재 의정 윤용선 상공을 추모하다
輓自由齋尹議政容善相公

壽過耆齡古亦稀 수명이 일흔을 넘는 것은 옛날에도 드물었건만
文星忽墜此心違 문성이 홀연히 떨어지니 이 마음이 답답하구나.
鼎湖龍化空遺跡 정호의 용이 화하여²⁰⁷⁾ 하늘에 자취를 남겨
薶露西風事已非 서풍에 해로기²⁰⁸⁾를 부르니 일이 이미 글렀구나.

우룡당 채오²⁰⁹⁾의 시에 차운하여 짓다
次雨龍堂彩五詩韻

旅窓風雪眼初明 여관 창에 눈보라가 쳐서 눈이 처음 밝아져
參透禪關悟此生 선의 관문을 깊이 알고 이 삶을 깨달았네.
晚事浮屠香老趣 늦은 일에 스님의 향기가 늙은이의 흥취를 일으켜
便聽說法釋塵情 문득 설법을 듣고 작은 정을 풀었네.
三乘奧義心身淨 삼승²¹⁰⁾의 오묘한 뜻으로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고,
五蘊真空水月清 진정한 공허를 다섯 번 쌓으니 물과 달이 맑구나.
莫道雲霞須異色 구름과 노을이 다른 색이라고 말하지 마라
同流妙處自天成 신묘한 곳으로 함께 흘러가 절로 하늘을 이루네.

207) 황제(黃帝)가 수산(首山)의 동(銅)을 캐어 형산(荊山) 아래에서 솥(鼎)을 만들었는데, 그 일이 다 끝나자 용이 내려와서 황제를 태우고 하늘로 올라갔으므로 그곳을 정호(鼎湖)라고 불렀다는 전설이 있다.

208) 제(齊)나라 때 전횡(田橫)이 자살하자, 그의 문인들이 이를 슬퍼하여 “부추 잎의 이슬은 어찌 그리 쉬이 마르는가. 이슬은 말라도 내일 아침 다시 내리지만, 사람은 죽어 한번 가면 언제 다시 돌아오나.[薶上朝露何易晞 露晞明朝更復落 人死一去何時歸]”라는 <해로가(薶露歌)>를 지어 불렀는데, 이는 풀잎의 이슬방울이 쉽게 사라지듯 인생이 덧없다는 말이다.

209) 오형묵의 편지 가운데 <답우룡당채오서(答雨龍堂彩五書)>라는 제목을 보면 채오가 자이거나 범명으로 보인다.

210) 부처가 중생을 태우고 생사(生死)의 바다를 건너는 세 가지 교법이니, 성문승(聲聞乘)·연각승(緣覺乘)·보살승(菩薩乘)이다.

우룡선사의 별장(別章)에 답하다
答雨龍禪師別章韻

邂逅殊方歲聿催 旋開祖帳悵難裁 香蔬偏荷龍禪貺 尺牘相酬竹丈來 飢飽憂嘆經世策 艱危慚愧濟時才 縱知重會非無日 臨別何勞酒作媒	타향에서 해후하여 세월이 재촉하니 전별연을 베풀고 슬픔을 막을 수 없네. 향기로운 채소를 담아 우룡 선사에게 드리니 편지를 주고받으며 죽장이 오네. 주리고 배부름을 걱정 탄식하니 경세책(經世策)이요 어려운 세상 부끄러워하니 시대를 구제할 인재일세. 다시 만날 날이 없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별할 때가 되자 어찌 술 마시며 수고롭게 하나.
--	--

석달 그믐밤에 등불 아래에서 감회를 적다
除夕燈下遣懷

年光垂盡莫能遮 看看正如赴壑蛇 堪笑兒童強不睡 爲將分歲夜諠譁	한 해가 다 저물어 막을 수 없으니 볼수록 구렁의 뱀이 달리듯 빠르구나. 아이가 억지로 잠 자지 않는 것이 우스운데 자정이 되어가며 한밤이 시끄럽구나.
--	---

離家鞅掌宦遊中 五載今逢此夕同 窮裡送迎良自感 七旬添筭二齡翁	집 떠나 바쁘게 벼슬하던 중에 다섯 해 전 만난 밤이 오늘 밤과 같구나. 곤궁한 중에 혼자 느끼며 보내고 맞노라니 칠순에 두 살을 더 세는 늙은이 되었구나.
--	--

殘曆明朝却換新 燈花有似報先春 須知老去渾漫興 無計陽和及此身	남은 달력을 내일 아침에 새 것으로 바꾸니 등의 불꽃이 먼저 봄을 알리는 것 같구나. 늙어 가면서 모두가 제풀에 흥겨운 것을 아니 온화한 양기가 이 몸에도 미침을 헤아리지 않네.
--	--

把將世故竟紛紜 衰病侵尋未暇云 拜祝皇圖新曆願 河清海晏掃群氛	세상 일을 점치느라 떠들썩하건만 쇠하고 병들이 점점 심해져서 겨를이 없네. 황제께서 새로운 책력을 원하고 도모하심을 축하하네. 물이 맑아지고 바다가 편안해지니 여러 재앙을 쓸어내리라.
--	---

정월 초하루에 한가로이 앉아 운을 집다
正朝閑坐拈韻

曆以寅爲正 從看賴物醒 稱觴栢葉頌 添壽椒花銘 筋力隨年改 心懷感節惺 賀人相過少 閑坐點茶經	책력이 호랑이를 정월로 삼아. ²¹¹⁾ 만물이 힘입어 깨어나는구나. 술을 백엽주 ²¹²⁾ 라 칭하고 장수하시라고 초화송 ²¹³⁾ 을 바치네. 근력은 해를 따라 바뀌고 마음에 품은 것은 계절마다 깨닫네. 축하하는 사람이 적어지기에 한가로이 앉아 다경에 점을 찍네.
--	--

사세국장 이견영이 그 선친인 옛 부사과 이현성의 효행 정려가 내려왔다고
나에게 시 한 수를 부탁하기에 축하하다
司稅局長李健榮以其先親故副司果李顯惺孝行旌閭事 要余一詩故賀之

至誠冠百行 馳楔褒褒擎 靈草隨因出	지극한 정성으로 온갖 행실에 으뜸이니 문설주에 황제의 포상을 높이 걸었네. 영험한 풀은 인과를 따라 나오고
-------------------------	---

211) 1905년 정월이 무인(戊寅)이어서 호랑이라고 하였다.

212) 장수(長壽)를 비유하는 말로 쓰이는 백엽수(栢葉壽)와 사기(邪氣)를 쫓기 위하여 설날에 마신다는 백엽주(栢葉酒)의 합계 썼다.

213) 신년 축사(新年祝詞)를 뜻한다. 유진(劉璣)의 아내 진씨(陳氏)가 총명하고 글을 잘 지었는데, 일찍이 정월 초하룻날에 초화송(椒花頌)을 지어 올린 데서 온 말이다

鱗魚格化成
 聖朝彰孝理
 祖席顯恩榮
 繼述知君感
 頓令勵世情

물고기 비늘은 변화가 이르러 만들지네.
 성스러운 아침에 효도의 이치를 밝히니
 선조가 자리에 계시어 은혜와 번영이 드러나네.
 이어받는²¹⁴⁾ 그대의 마음을 아노니
 이것으로 세간의 정을 힘쓰리라.

시 한 수를 지어 감회를 풀다
 賦得一詩遣懷

斗柄回寅日漸長
 條風氣候動微陽
 雪痕尚逞梅含白
 春意先從柳着黃
 椒酒蟻浮仍臘味
 石鑪龍吼透茶香
 須知取次洪鈞轉
 試遣詩人第一章

북두칠성 자루가 인의 자리로 돌아 날이 점점 길어지고
 동풍이 불어 기후가 살짝 양으로 움직이는구나.
 눈발은 오히려 왕성해 매화가 흰색을 머금고
 봄의 뜻이 먼저 따라와 버들에 노란빛이 붙었네.
 선달에 담근 초주에 개미가 뜨고
 돌솥이 용처럼 울어 차의 향기가 스며드네.
 모름지기 홍균이 바뀔을 알기에
 시인을 보내 글 한 장을 짓게 하노라.

설날 밤에 등불을 마주하며 짓다
 上元夜對燈作

病裡酬辰獨對燈
 可憐身似遇冬蠅
 散花雲集云摩喝

병중에 술을 따르며 등불을 홀로 대하니
 가련한 몸은 마치 겨울을 만난 파리 같구나.
 흩날리는 꽃 운집함을 마힐²¹⁵⁾이라 하고

214) 계술(繼述)은 효자가 선세(先世)의 업적을 잘 계승하는 것을 말한다. 《중용장구(中庸章句)》에 “무릇 효(孝)란 선세의 뜻과 일을 잘 계승하는 것이다.” 하였다.

215) 《서역기(西域記)》에 “마힐타국(摩嚧陀國)에서 정월 대보름에 승려와 일반 사람들이 운집하여 부처의 사리를 구경하니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다.” 하였다.

奏樂風傳是廣陵
 預杜沍災千壟火
 驗看豐歉一輪水
 殘梅粉白猶堪伴
 老境何嫌少友朋

음악을 연주하여 바람에 전하니 광릉산일세.
 미리 천 개 밭두둑에 불이 나는 재앙을 막아
 경험해 보니 풍년과 흉년은 하나의 둥근 달이구나.
 쇠잔한 매화의 분백도 함께할 수 있으니
 늙은 지경에 어찌 어린 벗을 꺼리겠는가?

만은 참봉 김행건에게 답하여 준 시에 차운하여 짓다
 次答晚雲金參奉行健贈詩韻

來書銘謝好風翻
 賢胤須知世業存
 筋力保生同病瘦
 文源接武仰師尊
 嗟余今日江南去
 愛子當時洛下論
 濁水清塵難會合
 臨岐恨未共含樽

주신 편지에 감사하는 마음을 새겨 좋은 바람이 부니
 현명한 자손은 모름지기 세업을 존속해야 하네.
 근력을 보존하거나 병들어 아위거나 마찬가지로
 문의 근원은 무와 접해 사조를 우러러보네.
 아아! 나는 오늘 강남에 가는데
 사랑하는 아이는 그때 서울에서 의논하는구나.
 흐린 물과 맑은 티끌은 서로 만나기 힘들니
 갈림길에서 함께 술잔을 마시지 못해 한스럽구나.

벽돌 화분의 동백꽃을 마주보고 짓다
 對甌盆山茶花作

甌盆兒女想幽尋
 培養敷榮水力深
 堪笑老來心尚在
 坐令香氣惹衣襟

벽돌 화분의 아녀자는 생각이 그윽하여
 배양하고 꽃을 피우니 물의 힘이 깊구나.
 우습게도 늘그막에 마음이 오히려 있어
 앉아서 향기가 옷자락에 달라붙게 하네.

일초정에 올라 시를 짓다 登一草亭賦詩

獨立孤亭一望春
青山無約眼偏親
舉頭悵悵家何在
暮靄連雲便作隣

홀로 외로운 정자에 서서 한번 봄을 바라보니
청산에 기약이 없어 눈으로만 친하네.
고개를 들어 서글프게 집이 어디 있나 보니
저녁 노을이 구름과 이어져 옆에 있는 듯하네

봄 추위 春寒

剪剪輕風小雨殘
如今造物料尤難
節候已過春信半
清明猶似社前寒
未放杏花紅綻萼
無由麥隴翠翻瀾
非常天意良多感
倒盡金樽醉睡闌

살살 부는 가벼운 바람에 가랑비 내리니
지금같으면 조물주는 헤아리기 더욱 어렵네.
계절은 이미 봄소식 절반이나 지났건만
청명인데도 사일(社日) 전같이 춥네.
살구꽃도 붉은 꽃받침 아직 터지지 않았는데
이유 없이 보리밭은 푸른 윤기가 출렁이네.
비상한 하늘의 뜻은 꽤 다감하여
금 술잔을 뒤집어 마시고 취해 난간에 기대 자노라.

오류관의 봄날 감회를 쓰다 五柳館春日書懷

因病得閑自忘疲
最宜琴鶴樂相隨
天時方暢皆敷化
人事須知略抄醫
北里要施花卉種
南隣違約壽辰辰

병 때문에 한가로워져 피곤함을 잊으니
거문고와 학이 즐거이 서로 따르는구나.
하늘의 때는 한창 화창해서 모두에게 교화가 퍼지고
사람의 일은 의서를 뽑아 베껴야 함을 아네.
북쪽 마을에서 부탁해 꽃과 풀을 심고
남쪽 이웃은 생일날 술 약속을 어겼네.

軒窓晝永無聊坐
桃杏鮮妍滿故枝

집안 창가에 낮이 길어 무료하게 앉았노라니
복숭아와 살구가 산뜻하고 곱게 옛 가지에 가득하구나.

의관 죽헌 이종돈의 회갑잔치를 축하하다 賀竹軒李議官鍾敦回甲壽筵

蒼鬢駝顏甲再回
喜逢初度暮春來
牡丹花插簪紗帽
栢葉酒熏酌玉盃
行己以仁天報壽
傳家惟孝世稱魁
更期鶴筭長生訣
自任賓朋賀語裁

푸른 살쩍과 길쭉한 얼굴에 갑자가 다시 돌아와
늦봄이 오니 기쁘게 생일을 맞았네.
비단모자에 모란꽃 비녀를 꽂고
백엽주를 옥 술잔에 따라 마셨네.
어질게 행하니 하늘이 장수하게 갚았고
가문에 효를 전하여 세간에 으뜸이라 칭찬하네.
다시 학의 산가지로 장생을 기약하고
손님이라 자임하여 축하하는 말을 지었네.

연명²¹⁶⁾하러 가는 도중에 延命行途中

調病春過半
頗知景物新
乘車添宿眩
放眼軟香塵
壯志憐常在
少年難重陳
忙官惟要健
始覺老吾身

병을 치료하느라 봄이 반쯤 지났기에
경치가 새로워졌음을 많이 알았네.
차에 타니 졸리고 어지러우며
눈을 뜨면 향기로운 먼지가 날리네.
당당한 뜻이 항상 있는 것이 좋지만
소년은 거듭 말하기 어렵네.
바쁜 관리는 오직 건강하기만 원했지만
비로소 나의 몸 늙게 한 것을 깨달았네.

216) 새로 부임한 고을 원이 소속 감사(監司)를 찾아가 인사하는 의식. 또는왕명(王命)을 맞이하는 의식이다.

공주 황룡동 주점에서 비가 와 머물다
公州黃龍洞店滯雨

捲地東風計莫遮
村庄籬落亂飛花
山雲暗合鳩鳴雨
偏惱行人暫住車

땅을 말아 올린 동풍을 막을 수 없어
마을 집 울타리에 꽃이 어지럽게 날리네.
산의 구름이 비둘기 울음과 절로 합해 비가 내리고
행인을 골치 아프게 해 잠시 차를 멈추네.

此境清幽却自然
比隣松竹喜相聯
店翁能解羈情獨
剪燭閑談七月篇

이 동네가 맑고 그윽하여 자연스러우니
이웃의 소나무와 대나무와 이어진 것이 기쁘네.
주막 늙은이는 나그네 외로운 심정을 알기에
촛불심지 잘라가며 한가로이 7월편을 이야기하네.

공산관에서 우연히 짓다
公山館偶吟

短燭公山館
須知羈宦愁
行將前道晚
歸必故園幽
酒蕢堪澆膈
詩成自點頭
愛看新氣像
江錦雨初收

공산관의 짧은 촛불은
돌아다니는에 관리의 시름을 알리라.
앞으로 갈 길이 늦었으니
돌아가면 반드시 옛 동산이 그윽하리라.
외상술을 사서 가슴을 적실 수 있고
시가 이뤄지면 스스로 머리에 비점을 찍네.
새로운 기상을 사랑스럽게 보고
강의 비단이²¹⁷⁾ 비를 처음 거두어들이네.

217) 금강(錦江)을 뜻하는 듯하다.

하주평에서 바로 짓다
霞酒坪卽事

病餘行趁感羈情
恰恰韶華望裡生
四野天垂芳草遠
千林烟散好花明
暗飛霖雨沾衣重
橫過微風皺水輕
老眼不隨佳麗景
關情春事秩方平

병 뒤끝에 가다보니 나그네 시름이 이는데
아름다운 봄 풍광이 눈에 들어오네.
사방 들판에 하늘이 드리워져 방초가 멀리 자라고
천 그루 숲에 안개가 퍼져 예쁜 꽃이 밝구나.
은근히 훑날리는 봄비에 젖어 옷이 무거워지고
미풍이 비껴 붙어 물 위에 주름을 만드네.
늙은 눈은 아름답고 고운 경치를 따르지 못해
봄의 일에 관한 마음이 덤덤하구나.

돌아오는 길에 읊다
歸路吟

靑春歸有限
物色爲誰除
漲綠溪前樹
危紅雨後花
多情鶯自囀
無事燕空斜
客路如天遠
驅馳意轉嗟

푸른 봄이 와도 한이 있으니
물색(物色)은 누구를 위해 마련되는가.
푸른 시물이 앞의 나무에 넘쳐 흐르고
비가 온 뒤에 붉은 꽃이 시드는구나.
다정한 피꼬리는 저 혼자 울고
제비는 일 없이 공연히 비껴 나네.
나그네 길은 하늘처럼 멀어
말을 몰면서 다시 탄식하네.

죽헌 이종돈의 환갑잔치 원운
李竹軒鍾敦壽席原韻

오늘 아침은 이죽헌 사백의 환갑날이다. 태음력으로 봄이 돌아와 모래같이 많은 산가지
가 이 집에 더해졌으니, 옛말에 '선을 쌓으면 경사가 남고, 어진 사람은 장수함에 오른다'

는 말이 참으로 속이지 않았다. 이 기쁜 자리에 글을 써서 축하해야 하지만 병이 들어 직접 가서 유쾌히 볼 수는 없기에, 나도 모르게 생각이 치달려 읍시를 삼가 지어 축하하는 충심을 펼치고자 한다.

一室和融滿眼前
身膺五福到稀年
矩謨承度家惟守
仁善作基里所傳
月甲棟風榆莢地
日丁穀雨薰鶯天
愛看蘭砌春長在
賀客稱觸意正圓

한 집에 융융한 화기가 눈앞에 가득하고
오복을 한 몸에 받아 희년(稀年)에 이르렀구나.
재고 도모하고 계승하고 헤아려 가문을 지켜왔고
어질고 선함으로 터를 잡아 마을에 이야기가 전해졌네.
갑의 달에 용마루에 바람 부니 느릅나무에 깍지 트이고²¹⁸⁾
정의 날이 곡우이니 제비와 꼬꼬리가 하늘을 나네.
난초가 핀 섬돌이 봄에 온 걸 사랑스럽게 보니
하객들 칭송하는 모습이 참으로 원만하구나.

봄 그믐날에 십의대에 오르다 春晦日登十宜臺

春去誰能住
功歸代謝中
飄殘花濕雨
飛遍絮含風
恨入詩難盡
愁消酒不空
那堪垂老日
寥落夕陽紅

봄이 가면 누가 머무는가.
공이 돌아가서 대사하던 중이네.
흩날리던 꽃잎은 비에 젖고
버들개지 바람에 두루 날아다니네.
시를 지어도 끝내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워
시름을 없애려 해도 술이 비지 않네.
늙어가는 것을 어찌 감당하라
붉은 석양이 쓸쓸하구나.

218) 유희(榆莢)은 느릅나무의 꼬투리이다. 느릅나무 가지 사이에 꼬투리가 나오는 3월 무렵에 내리는 봄비를 유희우(榆莢雨)라고 한다.

평이당의 초여름에 붓 가는 대로 쓰다 平易堂初夏縱筆

예전에 육영재 뜨락에 몇 가지 화훼(花卉)가 있었지만 별로 말할 만한 게 없었다. 그래서 포도와 산다화 각 한 뿌리를 각 한 뿌리를 씨를 받아 부쳐왔기에, 변도의에게 명하여 《동의보감》 베끼던 것의 착오를 살펴보고 바로잡게 하였다.

新布乾坤號令行
趨炎紅瘦綠陰張
釀宜美醪松芽茁
待得清風竹笋長
緣病抄醫爲看症
對人分卉愛聞香
歲方憂旱同蘓望
慰洽農情雨一場

새로 하늘과 땅을 펼쳐 호령을 행하니
더워지며 붉게 여위고 녹음이 펼쳐지네.
좋은 술 기에 알맞은 송순(松筍)이 열리고
맑은 바람을 기다려 죽순도 자라네.
병 때문에 의서를 베껴 증상을 보며
사람 마주해 풀을 분류하니 향기가 사랑스럽구나.
올해는 가뭄이 걱정되니 되살아나기를 바라
비가 한바탕 내려 농부의 마음을 한바탕 위로하네.

꽃과 풀 여섯 뿌리의 씨를 받아 정죽성의 서재에 주며 짓다 取種花卉六本贈鄭竹醒書齋作

팽성에는 일찍이 꽃과 풀이 없었으니, 속칭 팔무(八無)에 이것도 하나로 끼어 있었다. 나는 본래 꽃을 좋아하는 버릇에 있어서 꽃 한 가지나 풀 한 포기 얻으면 아침저녁으로 부지런히 사랑하고 보호하며 심고 길러서, 마치 보물처럼 진귀하게 여겼다. 그렇게 몇 년을 지냈더니 내가 사는 집 전후 좌우에 문득 중향성(衆香城)²¹⁹⁾이 이루어졌다. 지난번 공가(公暇) 때에 육영재로 사백 정죽성을 찾아가 만나니, 도를 강연하고 후학들을 깨우치는데 학도 수십 명이 모두 산뜻하고 단정하여 장차 인재가 되기를 기약할 수 있었다. 집안을 두루 둘러보니 모범이 모두 갖추어졌지만, 다만 뜨락에 별로 말할 만한 꽃이나 풀이 없는 점이 아쉬웠다. 화훼라는 것도 또한 (학도들과 마찬가지로) 기르고 배

219) 《유마힐경(維摩詰經)》 〈향적불품(香積佛品)〉 권10에 “이름이 중향(衆香)이란 나라가 있는데 불호(佛號)는 향적(香積)이라 한다.”에서 나온 말로, 흔히 온갖 꽃이 활짝 피어 있는 곳을 비유하였다.

양하는 일 가운데 하나이다. 봄과 여름 사이에 새 꽃과 어린 잎이 좌우로 예쁘고 푸르고 빛나면 마음이 펴지고 창달하리니, 또한 어찌 하나의 도움이 아니겠는가? 돌아간 뒤에 곧바로 국화, 대나무, 장미, 석류, 포도, 산다화 등 여섯 종류를 나누어 주고, 아울러 짧은 읊시를 지어 바로잡음을 구한다.

葡萄架畔關書帷	포도 시렁 두둑에 서당을 열었으니
培育羣芳若有期	향기로운 자들을 배육하는 것이 기약한 듯 하구나.
薇露云何容易得	장미의 이슬은 어떻게 해야 쉽게 얻는가
竹風非是等閑知	대숲에 부는 바람도 등한시할 게 아닐세.
石榴紫透霜前顆	석류는 자줏빛 스며들어 서리 내리기 전에 열매 맺히고
宮粉紅奇雪上枝	궁분은 눈 위 가지에 분홍색 기이하구나.
叢菊最爲人愛種	떨기 국화가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니
能令晚節勝春時	늦은 계절이 봄철을 이기게 하네.

정거장에 나가서 일본 대사 히로야스 친왕을 영접하고 세 절구를 읊다
出停車場 迎接日本大使博恭親王 有吟三截

回禮星槎軌道通	회례사가 탄 기차가 궤도를 통하여
交聘玉帛一團中	한 무리를 이끌고 옥백(玉帛) 갖추어 교빙(交聘) ²²⁰ 하는구나.
原隰偏勞攸有利	언덕과 습지 ²²¹ 가느라 피곤해도 이로운 바 있으니
友邦敦密庶和衷	우방이 돈독하고 긴밀하여 속마음도 온화하구나.
黃屋輪車快聘馳	황색 옥륜차가 빠르게 달려가고
國旗雙掛表盛儀	국기 한 쌍이 걸려 성대한 의식임을 나타내네.

220) 두 나라가 서로 사신을 주고받으며 우호를 맺는 것이다.

221) 《시경》〈황황자화(皇皇者華)〉에 “화려한 저 꽃들 언덕과 습지에 피어 있구나. 부지런히 달리는 사신은 행여 사명을 수행하지 못할까 걱정일세. [皇皇者華 于彼原隰 馳驅征夫 每懷靡及]” 라고 하였다.

觀瞻不及如電過
讚美皇華竟坐誰

번개처럼 지나쳐 보지 못했는데
황회²²²를 찬미하노니 누가 앉았던가.

郊社出迎克表歡
如雲士女匠旁觀
驛亭風日何漫急
幸遇巡郎暫賴寬

교사²²³에 나와 영접하며 기쁨을 표현하니
구름 같은 사내와 여인들이 빙 둘러서 보는구나.
역참의 정자는 바람과 햇살이 어찌 급한지
다행히 순방하실 때 잠시나마 풀렸구나.

생각난 바가 있어 운을 집다
有所思拈韻

閱盡炎涼世事灰
近來愁病兩相催
有心難辨誰能解
空負孤懷未至孩

염량세태를 보니 세상 일 재깁이 식어
근래의 시름과 병이 서로 재촉하는구나.
내 마음 나도 모르겠으니 누가 능히 풀어주랴
공연히 외로운 감회가 일어 어린아이보다 못하네.

박희용을 서울로 보내며 기차가 가는 것을 보다
送朴喜用之京 望車行

朝來南鵲喜
對面竟何如
世事聞常憫
羈情話輒攄
車行良易得

아침에 남쪽에서 까치가 울어 기쁘더니
얼굴을 마주 보니 마침내 어땀했다.
세상일 듣기에 항상 근심스러워
나그네 시름을 이야기하네.
기차로 가기가 참으로 쉬워

222) 사신을 보낼 때 불렀던 《시경(詩經)》〈황황자화(皇皇者華)〉에, “달리고 또 달려며 두루 문고 강구하네. [載馳載驅 周爰咨詢]”라고 하였다. 왕명을 받은 사신의 임무를 말한 것이다.

223) 교(郊)는 하늘에 제사하는 것이고, 사(社)는 땅에 제사하는 것이다. 동지에는 남교(南郊)에서 하늘에 제사하고, 하지에는 북교(北郊)에서 땅에 제사한다.

書信亦難虛 서신 또한 비어 있기 어렵네.
 目渺嗟君去 눈에서 그대가 멀어지니 탄식이 나와
 愁殘日落初 해가 떨어지자 시름만 남는구나.

낮에 후원에 올라 노닐며 감상하다
午登後園遊賞

物色隨時任飽觀 물색을 때에 따라 마음껏 보니
 綠秧黃麥野漫漫 녹색 모와 누런 보리밭이 들판에 끝 없구나.
 徬徨頓忘身前惱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잠깐 몸 앞의 괴로움을 잊고
 俯昂方知眼界寬 사방을 둘러보니 시계가 넓어짐을 알겠네.
 松筍龍形三四寸 송순은 용 모양으로 서너 치 나고
 篔胎豹籜百千竿 죽순은 표범 모양 대껍질로 백천 개 장대가 되었는데.
 尙貪幽賞堪消遣 그윽한 감상거리로 소일할 수 있어
 携得琴書聊自歡 거문고와 책을 들고 스스로 기뻐하네.

평이당에서 채옹의 시품을 열람하고 차운하여 바로 시를 짓다
平易堂 閱覽蔡邕詩品 次其韻賦卽事

古碑醉石下庭除 옛 비석 취석 섬돌 아래 정원에
 風月相交任起居 풍월을 서로 교류하며 마음대로 일어나 있다.
 隙曠已經鋤苦草 담의 빈 곳에는 이미 고추를 김매고 나서
 片崎將擬種香菸 한쪽 패기밭에는 향초를 심으리라.
 含英月桂胚胎再 월계수는 꽃술을 머금어 다시 태어나고
 爛實櫻桃潤潤初 앵두는 열매가 익어 윤기가 나네.
 老境眞須稱好好 늙은 지경에 참으로 좋은 사람이라 칭송받으니
 等閑收拾外無餘 등한했던 것들을 수습하여 남다른 일 없게 해야 하리.

오후에 지팡이를 짚고 한가로이 향반 근처를 산책하는데, 수령 이운초가 왔다
고 하기에 함께 이야기하고 운을 집어 시를 짓다

午後倚杖閑散于香磬近處 李令雲樵適到與語 拈韻賦得

日涉香磬吟境恢 일섭원 향반에 시 읊는 경역이 넓어져
 嫩陰芳卉與爲媒 여린 그늘과 향기로운 풀이 함께 매개가 되네.
 黃金初散薔薇落 황금이 처음 흩어지고 장미가 떨어져
 紅錦新粧芍藥開 붉은 비단을 새롭게 단장한 듯 작약이 피네.
 傍啄羣隨鷄母掠 병아리 떼는 어미 닭을 따라 쪼아서 뺏고
 學飛翅軟鷺雛裁 제비 새끼들은 부드러운 날개로 나는 법을 배우네
 陶然取適人知少 느긋하게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 적어
 賴得隣翁話暫陪 이웃 늙은이를 만나 잠시 이야기하네.

단오날에 느낀 바가 있어 감회를 쓰다
重午日 有感述懷

雨洗梅黃淑氣晴 비가 누런 매화를 씻어내어 맑은 기운이 개고
 節分重午客懷縈 절기가 나뉘어 단오가 되자 나그네 감회가 얽히네.
 竹竿神水療身術 대나무 막대기에 신령스러운 물로 몸을 낮게 하는 술법은
 艾草先生醫國情 애초선생이 나라를 치료하는 마음일세.
 新縷彩成纏命壽 새로운 실에 색채를 물들여 장수를 빌고
 舊衣香襲訖恩榮 옛 옷에 향이 배어 은혜와 영광을 자랑하네.
 殊鄉孤寄無滋味 타향에 외로이 얽혀 살아 입맛 없기에
 回憶當年朝玉京 돌이켜 기억해보니 당년 옥경에 조회하였네.

수령 이운초가 내방하여 운을 집다
李令雲樵來訪拈韻

吟苦頭慵久未梳 시 읊느라고 게을러서 오랫동안 머리를 빗지 못했는데

荷君筇屐訪孤居
曉過修道黃亭夢
朝接清風碧下書
自是情因知舊重
如何跡與少年踈
隨緣細故徒煩惱
却被交親喜尚餘

지팡이에 나막신으로 그대가 이 외로운 곳에 방문했네.
새벽이 지나도록 도를 닦는 것은 황정의 꿈이고
아침에 접하는 맑은 바람은 벽하의 글일세.
이러한 정으로 친구가 중함을 아노니
어찌다 발자취가 소년처럼 드물어졌소.
사소한 인연들은 헛된 번뇌이니
친구들과의 교제가 끝까지 남는 기쁨일세.

느끼는 바가 있어 쓰다
有感述懷

老去蹉跎久別家
聊將背痒轉思爬
餌丹心活寒灰火
對鏡面生朽木花
要逸易諳清莫渝
貪忙不覺苦無涯
端知少壯難重得
試向愁懷酒可賒

늙은이가 크게 이루지 못하고 오래 집과 떨어지니
등에 가려움 생기면 더욱 긁고 싶어지네.
단심을 먹고 식은 재에 불 붙이며
거울면을 마주해 썩은 나무에 꽃을 피우리라.
편안함을 찾으려면 알기 쉬우니 맑아도 변하지 말라
바쁨을 탐하니 모르는 사이에 괴로움 끝이 없구나.
끝내 젊음과 건강함은 한꺼번에 얻기 어려움을 알아
시름을 없애려 술을 마련해 보네.

화분 위의 월계수가 마침 한창 활짝 펴서 예쁜 꽃이 나무에 가득하기에 시를 짓다
盆上月桂時方爛開. 滿樹鮮妍. 因賦得

靑枝綠葉最佳珍
異稟含英月月新
落艷何論開艷美
賞情尤勝惜情臻
長隨孤榻生幽想
不比凡花委點塵

푸른 가지와 녹색 잎이 가장 보배로워
색다른 기품과 머금은 꽃부리가 달마다 새롭구나.
떨어져도 요염하니 어찌 필 때의 아름다움을 논하라
감상하는 마음이 더욱 넘쳐 아쉽기까지 하네.
외로운 걸상을 길게 따라 그윽한 생각이 생기니
먼지에 덮힌 평범한 꽃과 비교할 수 없네.

靑帝歸將餘意在
故教占領四時春

청제²²⁴가 돌아오며 남긴 뜻이 있어
사계절 가운데 봄을 차지하게 했네.

음취함 앞의 여러 풀들의 자태가 요염하고 사랑스러워, 난간 앞에 있는 여러 꽃
들을 모아서 흥취를 부칠 자료로 삼는다
涓翠檻前 衆卉呈態 妖艷可愛 綴拾檻前所在羣芳 以寓取趣之資²²⁵

수령 방벽하에게 부치는 절구 2수
寄詩方令碧下二截

聞道清風山水鄉
遙知遊賞快心腸
一從君去春而夏
無酒無詩獨自傷

듣기로는 청풍 산수가 고향이라니
노닐며 감상하면 마음과 몸이 유쾌한 줄 알겠네.
한번 그대 간 뒤로는 봄이 여름이 되어
술도 없고 시도 없으니 홀로 마음 아프구나.

漫興迢迢無處尋
幾回欲棹訪山陰
故園喜有歸來約
顛倒相迎擬話心

질펀한 흥이 까마득히 멀어 찾을 곳 없기에
몇 번 노를 저어 산음을 찾아보고자 했네.²²⁶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기쁘게 약속했으니
엎어질 듯 나와 맞으며 속마음을 말하겠지.

224) 오행(五行)으로 따질 때 동방(東方)은 목(木)에 속하는데, 목은 또 봄과 청색과 인(仁)을 상징하므로 봄을 주재하는 신을 동황(東皇) 혹은 청제(靑帝) 등으로 부른다.

225) 20여 가지의 꽃 이름과 정자 이름을 시 형태로 나열한 것이기에 번역하지 않았다.

226) 산음(山陰)은 산의 북쪽인데, 산음(회계산 북쪽)에 살던 진(晉)나라 왕자유(王子猷)가 눈 내리는 밤에 작은 배를 타고 섬계(剡溪)에 사는 벗 대안도(戴安道)를 찾아갔다 그곳에 도착해서는, “내가 본래 흥에 겨워 왔다가 흥이 다하여 돌아가는 것이니, 대안도를 보아 무엇 하겠는가.” 하고 돌아왔다. 여기서는 방벽하가 사는 곳을 가리킨다.

소오현에 한가로이 앉아 읍시 두 수를 지어 수령 이운초에게 주다
閑坐嘯傲軒 賦二律贈李令雲樵

西隣卜築繞山蒼
木石安排興味長
松韻引風當戶牖
荷香浥露噴池塘
若無心向功名小
薄有人來話笑張
誰識待時招隱起
置身康濟合商量

서쪽 이웃이 집 지을 땅을 골라 푸른 산을 감싸고
나무와 돌을 안배하니 흥미가 더해지누나.
소나무 소리가 바람을 끌어들여 창문에 닿고
연꽃 향기에 젖은 이슬이 연못에서 뿜어지네.
만약 공명을 향하는 마음이 없으면
웃고 이야기하자고 찾아오는 사람도 적어지리라.
누가 알랴 은자를 불러줄 때를 기다려
몸을 건강히 보살피며 함께 헤아려 보리라.

藉藉家聲醴有源
幽居里巷拙吾存
耕耘須務專奴僕
文藝自任教子孫
面對溪山看淑靜
心期風月脫囂煩
孤雲野鶴同歸趣
竟與何人日夕溫

가문의 명성이 자자하면 예천에 근원 있는²²⁷⁾ 법이니
그윽하게 사는 마을에서 나의 졸함을 지키네.
농사일은 모름지기 노예와 종의 일이니
문예를 자임하여 자손을 가르치네.
시내와 산을 마주하여 맑고 조용함을 보니
마음으로 풍월을 기약하여 시끄럽고 번잡한 곳을 벗어나네.
외로운 구름과 들판의 학이 함께 돌아가니
오늘 저녁은 누구와 함께 저녁을 따뜻하게 보내랴.

지팡이를 짚고 동산의 누대를 배회하다가 생각난 것을 붓 가는대로 쓰다
扶杖徘徊于園臺 有所思縱筆

異鄉孤寄少交親
日涉林園自養神
院裡三槐陰可庇

타향에 홀로 몸 부쳤기에 친구와 교류도 적어져
날마다 숲과 동산을 거닐며 스스로 정신을 함양하네.
동산의 해나무 세 그루의 그늘이 덮을 만하고

227) 옛말에 “신령한 지초(靈芝)와 단맛의 샘(醴泉)은 반드시 뿌리와 근원이 있다.”라고 하였다. 훌륭한 조상이 있어서 훌륭한 후손이 나온다는 뜻이다.

門前五柳躋空陳
俗情冷煖當來事
世路是非分外因
回想舊遊成拱木
那堪今日此存身

문 앞의 버드나무 다섯 그루는 자취가 별려져 있네.
세속의 정이 차갑고 따뜻한 건 장래의 일이건만
세상 일은 바깥으로 인해 시비가 나뉘네.
옛날 노닐 적 생각하면 아름다리나무 되었으니
어찌 오늘 이 몸이 남을 수 있었을까.

백향산이 72세에 소부(少傅)로 바뀌자 한가함을 길러 시를 썼다. 내 나이가 같아졌는데도 아직 인끈을 풀지 못하였기에 부끄러운 뜻을 시로 짓다
白香山七十二歲 遞差少傅 養閑有詩 而余齡參同 尚未解紱 因賦志愧

年及香山少傅差
官班尚絆愧留衙
耳聾常怪聽虛籟
目眩空多見亂花
白髮可憐來不逮
靑山聊識去無遐
衰疴判案精筋耗
強作歡娛是最佳

백향산이 소부 벼슬로 바뀌었는데,
관직에 아직도 얽혔으니 관아에 머무는 게 부끄럽구나.
귀가 먹어 늘 괴이하게 바람 소리만 들리고,
눈이 아찔해 공연히 어지러운 꽃 보인 적이 많았네.
흰 머리가 가련해 와도 붙잡지 않고,
청산을 아니 가도 멀지가 않네.
문서를 결재하느라 노쇠하고 병들어 정신과 근육이 다했으니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즐기는 것이 가장 좋구나.

근래의 몸과 집의 경력을 추려 뽑아서 시 한 편을 짓다
撮得近來身家經歷 賦一篇

이 근래 4년 동안 병이 더 심해져, 몸을 어루만지며 내려보고 올려보니 하나도 즐거울 게 없다. 근해(近海)의 수령을 거듭 맡았다가 해일 피해를 입어 백성들의 먹을 것 걱정이 내 몸에 모였건만, 어떤 계책을 내야 할는지 알지 못하였다. 마침 적시에 한바탕 비가 내려 보리농사가 조금 나아지고, 늙은 아내의 병이 나은 데다가 종2품으로 승급하라는 명까지 받았다. 받은 은총이 하늘과 같아 황송하고 감격함이 이를 데 없었다. 마을과 백성들의 순박한 풍속이 두터웠고, 이웃과 경계로 시끄럽고 번잡한 일이 없었기에, 내가 즐

거운 마음으로 국화를 먹으며 마음놓고 소나무 사이에서 시를 읊을[哦松]²²⁸⁾ 수 있었다. 첫머리에 효상(交象)으로 보자면 오늘 이렇게 은혜를 받음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세상 만사의 승제(乘除) 의복(倚伏)은 사람의 힘으로 안배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사사로운 에서 이룬다면, 어찌 우리 성상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 주신 은혜가 아닌 것이 없겠는가. 이에 시 한 수를 지어 사사로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서술하였다.

彭城斗小地低濕
太守病多年七十
未效栗里歸田陶
空似淮陽臥閣汲
四年坐嘯費廩儲
逸韻羞向梅前拾
海上一夜盲風起
大地忽若天吳徙
彈丸黑子陸半沉
漏卮蒼生郡百里
頃年捐帑不可復
那將復見呼庚癸
陰陽休咎一轉移
野麥芄芄雨以時
寵蛙出曝荒城下
澤鴻還集前村炊
官醪擬餽豐年慶

팽성의 녹봉은 작고 지대는 낮고 습한데
태수는 병이 많고 나이는 일흔일세.
아직 울리로 돌아간 도연명을 본받지 못해
공연히 회양 쪽문 안에 누운 급암인 체하였네.
4년 동안 앉아 휘파람 불며 곳간만 축내고
매화 앞에 앉아서 편안한 운을 주웠네.
바다 위 한 밤엔 눈먼 바람이 일어나고
대지에서는 홀연히 천오²²⁹⁾가 옮겨 가네.
탄환 같이 작은 땅이 반이나 가라앉은데다
백리 고을의 백성들은 물 새는 배²³⁰⁾에 탔네.
근년의 국고 손실은 되돌릴 수가 없으니
어찌 다시 경계 외침[呼庚癸]²³¹⁾을 보겠는가?
음과 양, 길함과 흉함은 한 번씩 돌아오고
들판의 보리는 비가 때 맞춰 오면 잘 자라네.
황폐한 성 아래 부엌 개구리가 나와 햇빛을 쬐고,
못가의 기러기는 마을 부엌으로 돌아와 모이네.
관아의 탁주로 풍년을 축하하는 잔치 차렸지만,

228) 원문의 '아송(哦松)'은 한유(韓愈)의 <남전현승청벽기(藍田縣丞廳壁記)>에서 나온 말이다. "뜰에는 늙은 해나무가 네 줄 벌여 있고 남쪽 담장에는 큰 대나무 천 그루가 우뚝이 서서 서로 버티고 있으며 물이 졸졸졸 들을 따라 흘러갔다. 최사림은 깨끗이 청소하고 물을 대 주면서 그곳에 두 그루의 소나무를 마주 심어 놓고는 날마다 그 사이에서 시를 읊었다. 묻는 자가 있으면 대답하기를 '나는 지금 공적(公的)인 일이 있으니, 그대는 우선 가라.' 하였다."

229) 사람의 얼굴에 머리가 여덟 개 달렸다는 물귀신[水伯]의 이름이다.

230) <주자대전(朱子大全) 권34 <답여백공서(答呂伯恭書)>에 "우리와 백만 명 백성의 생명이 모두 물이 새는 배 위에 있으나, 만약 부수와 뱃사공을 불러온다면 크게 취하기에는 이르지 않을 것이다.[吾輩與百萬生靈性命盡在此漏船上 若喚得副手稍工 不至沈醉]"라고 하였다.

231) 경(庚)은 서방(西方), 계(癸)는 북방(北方)인데, '경계'는 옛날 진중(陣中)에서 양식과 물이 없어졌다는 암호이다. 후세에 와서는 '호경계(呼庚癸)'라는 말이 흥남 문자로 되었다.

小山靑展芙蓉眉
忽見怡孫從車來
辛勤備說荊憂劇
神精漸綴敗無餘
蓼荼那能回正脉
殊方驚心悔莫追
從權戒行何太迫
悲喜相看團聚渾
病者無知我詳繹
幸參議藥情不非
合施調劑平和獲
近復連接郵來書
氣度漸臻依平昔
况荷恩資隕自天
霜髮自此菘花鮮
九郡聲蹟誠慚愧
二品榮階特眷憐
但恨才疎年又迫
涓埃圖報恐無緣
時憂短歎復長吁
賊警義鬧無處無
紙上異聞間一日
境外騷訛接兩湖
適幸吾州獨恬靜
實賴民淳不同區
官無事兮民有食
似此優閑選不得

작은 산은 푸르게 연꽃 눈썹을 펼쳤네.
손자가 기차 타고 오는 것을 갑자기 보고
괴롭고 부지런히 준비해도 아내의 병은 심해지네.
정신이 위중해지고 지쳐 소망이 없는데.
인삼과 복령이 바른 맥박으로 돌려놓을 수 있으랴.
타향에서 놀란 마음이 후회 막급이니
권도를 좇아 계행할만큼 어찌 그리 긴박한가.
슬픔과 기쁨을 서로 보니 모여서 혼탁해
병든 자는 내가 자세히 말해도 알지 못하네.
신참의가 주는 약은 인정상 그릇되지 않아
합하여 조제하니 평온해졌네.
근래에 우편으로 온 글을 다시 접하니
기도가 점점 나아져 예전처럼 되는구나.
하물며 은총으로 받은 자품이 하늘에서 떨어지니
서리 맞은 머리가 이로부터 오이꽃처럼 곱구나.
아홉 고을²³²⁾의 치적이 참으로 부끄러우니
2품의 영화로운 계급은 사랑으로 받은 것일세.
다만 재능이 부족함을 한탄하고 나이가 또 많아져
물방울과 티끌로 갚으려 하나 인연이 없을까 두렵네.
시국이 근심스러워 짧게 탄식하고 또 길게 탄식하니
도적을 경계하는 의로운 소리가 없는 곳이 없네.
신문지에는 다른 소식이 날마다 들리고
지경 밖의 소요가 호남 호서에 닿았네.
다행히도 우리 고을은 유독 평온하고 조용해
백성의 순박함에 힘입으니 함께 구구하지 않구나.
관아는 무사하고 백성들도 먹을 게 있어
이같이 넉넉하고 한가함은 찾아볼 수가 없네.

232) 오형목이 정선군수, 자인현감, 함안군수, 고성부사, 지도군수, 여수군수, 진보군수, 익산군수를 거쳐 평택군수까지 아홉 고을을 다스렸다.

宜臺日涉恣遊賞
 醉石香磐任棲息
 應知天意爲出此
 放牧老馬無勞力
 旣警之灾又降嘉
 事事種種皆堪誇
 哦松可記藍田壁
 種花且作河陽衙
 萬事無如知自足
 生涯舉世孰爲奢
 忽憶美人湘江潯
 夢裡威顏尺五臨
 桑榆縱過懸車限
 葵藿猶有戀闕心
 聖節清秋知漸邇
 烏鳧聊展抃鰲忱

십의대를 종일 거닐며 마음껏 노닐고 감상하다가
 취석과 향반의 아무데서나 쉬네.
 응당 하늘의 뜻을 알아 이에서 나오게 되니
 늙은 말을 방목하여 힘을 들일 게 없네.
 이미 경계한 재앙은 또 기쁨을 내리니
 일마다 모든 것들을 다 자랑할 만하구나.
 소나무 사이에서 시 읊어 남전의 벽에 쓰고²³³⁾
 꽃씨를 뿌리고 또 피워내니 하양의 관아로다.²³⁴⁾
 만사는 스스로 만족함을 아는 것만한 것이 없으니
 온 세상 사람 가운데 누가 생애를 자랑하랴.
 홀연히 상강 물가의 미인이 생각나니
 꿈속의 위엄있는 얼굴이 가까이 임하였네.
 해가 저물어 수레를 매어달²³⁵⁾ 때를 지났건만
 해바라기는 여전히 대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네.
 임금께서 태어나신 맑은 가을이 점점 가까워짐을 알고
 오리 신발²³⁶⁾로 박수를 치는 정성을 펴리라.

233) 최사립(崔斯立)이 남전현(藍田縣)의 현승(縣丞)으로 와서 청사(廳舍)의 한쪽에 소나무 두 그루를 심어 놓고는 매일 와서 시를 읊으며 유유자적한 생활을 하였다는 이야기가 당나라 한유(韓愈)가 쓴 <남전현승청벽기(藍田縣丞廳壁記)>에 실려 있다.

234) 진(晉)나라 반악(潘岳)이 하양 영(河陽令)이 되어 정사에 부지런하고 곳곳마다 도리화(桃李花)를 심게 했으므로, 후세 사람들이 성문에 '종화구전(種花舊甸)'이라는 액자를 걸었다고 한다.

235) 벼슬하던 이가 늙으면 그만 물러나서 수레를 달아매고 출입하지 않았다.

236) 부석(鳧)은 오리로 변화한 신을 말한다. 후한(後漢) 명제(明帝) 때 선인(仙人) 왕교(王喬)가 신술(神術)이 있었는데, 그가 일찍이 섬(葉) 현령(縣令)으로 있으면서 매월 삭망(朔望) 때마다 수레도 없이 떠나면 길을 와서 조회에 참여하므로 임금이 그를 괴이하게 여겨 그 내막을 알아보게 한 결과, 그가 올 때마다 오리 두 마리가 동남쪽에서 날아왔다. 그물을 쳐서 그 오리를 잡아놓고 보니 바로 왕교의 신이었다는 고사에서 온 말로, 전하여 지방관을 의미한다.

감회를 풀다 遣懷

室患近聞臻復常
 天憐病者報無疆
 財占偏隣桑工局
 家住新搬壽進坊
 最喜合成偕老日
 却憎長在別離場
 際今那忘生朝隔
 裁得心書就寄將

아내의 우환 소식을 근래 들으니 평상시로 돌아왔다네.
 하늘이 병자를 불쌍히 여겨 무강함으로 보답하는구나.
 서울 집이 이웃 상공국에 점유되어
 집을 새로 수진방으로 옮겼네.
 가장 기쁜 것은 합하여 함께 늙는 것이니
 오래 헤어져 있는 것을 미워했었네.
 지금이라도 생일날 떨어져 있던 것을 어찌 잊으랴.
 마음속 편지를 써 가지고 장차 부치리라.

마음에 느낀 바가 있어 절구 한 수를 지어 뜻을 기록하다 心有所感 賦一截識志

丹墀承命得茲行
 方外相看揚是榮
 三品陞資奇且貴
 祖孫偏被荷生成

궁궐에서 명을 받들어 얻고 이를 행하고,
 방외에 서로 보니 모두 영화롭구나.
 삼품으로 승급하여 기이하고 또한 귀하나,
 할아버지와 손자²³⁷⁾만 은혜 입어 부담이 생기네.

아내의 생일에 홀로 앉아 정을 부치다 細君生朝 獨坐遣情

病餘保有晷辰回
 稱慶權娛自在開

병이 남아 보전하면서 생일이 돌아오니
 축하하며 즐기느라 마음 절로 열리네.

237) 손자 유영(惟泳)이 정위(正尉)를 거쳐, 1907년 11월에 금성군수로 부임하였다. 손자 진영(璉泳)은 1904년 8월 11일에 육군 보병 정위(陸軍步兵正尉)에 임용하고 육군 무관학교 교관(陸軍武官學校教官) 겸 연성학교 교관(研成學校教官)에 보(補)하고 교성대 중대장(敎成隊中隊長)에 겸보(兼補)하였다.

愛看呼雛鷄啄立
羞增築壘鷺飛來
竊性惆悵應思我
正是團和各獻杯
極目鄉關無美況
聊將詩句謾敲推

병아리를 불러 닭이 쪼며 선 걸 사랑스레 보지만
증축한 보루에 제비가 날아오니 부끄럽구나.
나 혼자 있는 걸 생각하니 서글퍼져
이 모임에 화답하여 각각 잔을 바치네.
멀리 마을 관문까지 보아도 아름다운 정황 없으니
이미 지은 시구를 느긋하게 퇴고하리라.

소오현에 홀로 앉아 시를 지어 감회를 풀다
獨坐嘯傲軒 賦得遣懷

滿園濃綠潤涵床
香纈簾紋白晝長
無賴轉鶯求友意
多情鶯語向人量
烟雲揚是心神供
風雨全非時日常
何恨眼前茶具乏
宦遊到老費空忙

동산 가득 짙은 녹색이 윤택하게 상을 적시고
향기로운 비단과 밭의 무늬가 한낮에 길구나.
피꼬리는 벼를 찾아 아무렇게나 지저귀고
정이 많은 제비는 사람을 향해 헤아리며 우네.
안개와 구름 모두 심신을 바치고
바람과 비는 전부 일상이 아닐세.
어찌 눈앞에 차 도구가 부족하다 한탄하는가?
벼슬길에 놀다 늙었으니 공연히 바쁘게 세월 보냈네.

정원의 풀이 근일 바람과 비에 시드니, 내가 병든 몸을 떨쳐 일어날 수 없는 것
과 거의 같기에 웃다가 다시 안타까워했다. 이로 인해 마음에 느낀 바가 있어
시 한 수를 지어 감회를 풀다
庭際草卉 爲近日風雨萎靡 殆同我病軀不能振起 可呵而還惜也 因有
感於心 賦一則叙懷

無酒無詩何所適
一生剩得看花癖
杜甫驚句曾傳誦
淵明醉石已陳迹

술도 없고 시도 없으니 어디로 가야 할까?
일생에 남은 거라곤 꽃을 보는 버릇일세.
두보의 놀라운 글귀는 일찍이 전해져 외웠고
도연명의 취석은 이미 지난 날 자취가 되었네.

以之葆老情偏多
排置羣芳莫誰何
其綏足以編成譜
無花不入吾手摩
生成縱道屬陶甄
長短亦關在幹旋
粧點奇妍如剪綵
人言太守花中仙
紫白交加相輝暎
日夕耽看頓忘病
香襲衣襟悅目心
便教文士堪觴詠
翻盆一雨風兼隨
朝來吁嗟被萎靡
自同衰疲誰得似
怪他芳質更難期
榮瘁本滋雨露成
從來恩怨兩關情
可憐摧頹秋氣近
對此難禁老懷生

채로는 꽃에 정이 쏠리는 것이 많아
여러 방초를 늘어놓으니 누가 어찌 할 수 없네.
그 숫자 많아서 계보를 엮을 만하니
내 손에 들어와 쓰다듬지 않은 꽃이 없네.
마음대로 도를 만들어내고 인재를 양성하는 데 속하여
길고 짧음이 또한 관련되어 즐기에서 도네.
단장한 것이 기이하게 예뻐 비단을 잘라낸 듯하니
사람들이 태수를 꽃 속의 신선이라 말하네.
자주색과 흰색이 교차하여 서로 밝게 비추고
밤낮으로 즐겁게 바라보니 병을 잠시 잊었네.
향기가 옷자락에 배어 눈도 마음도 기쁘니
글 짓는 선비들이 술 마시고 시 읊을 만 하구나.
화분을 엮는 하루 비에 바람이 아울러 따라
아침이 와서 탄식하니 시들고 쓰러졌네.
절로 노쇠하고 피곤하니 누가 나 같으랴
다른 꽃다운 자질은 괴이하여 다시 기약하기 어렵네.
번영하고 시들이 본디 비와 이슬로 이루어졌으니
종래의 은혜와 원수는 둘 다 연관된 정일세.
가엽게도 꺾여 쓰러지는 가을이 가까워져
이를 안 보기 어려우니 늘그막에 감회가 생기네.

주서 김명수가 이번 봄에 죽었는데, 그 문장의 화려함을 사람들이 많이 사랑하
고 애석하게 여겼기에 시로써 그를 조문하다
金注書鳴洙今春化去 其文華人多愛惜 詩以輓之

正擬同觀日涉春
如何易輿返元眞
以君經世才名重
應選玉樓作記賓

일십원에서 봄날을 함께 보았는데
어찌 샷자리를 바꾸어 원래의 참모습으로 돌아갔는가?
세상을 경영하는 그대의 재주와 명성이 묵직하니
응당 옥루에서 골라 손님으로 기록하리라.

筆花零落硯生塵
悵悵那堪下榻人
靑山長臥何所事
得失茫茫不復伸

필화(筆花)²³⁸가 떨어지고 벼루에는 먼지가 생기니
슬픔을 어찌 문하의 사람이 감당하랴.
푸른 산에 길게 누워 무슨 일로 소일하려나
득과 실이 망망하여 다시 펴지 못하리라.

의관 이종돈 만사
輓李議官鍾敦

長夜成千古
哭君淚滿巾
同心同病苦
一死一生辛
可笑桑榆晚
復嘆唇齒因
筋骸雖化土
名德不爲塵
頓覺添新恨
須知少舊親
佳城今已閉
回憶黯傷神

긴 밤이 천고를 이루어
그대에게 곡하니 눈물이 수건에 가득하네.
같은 마음 같은 병으로 고생하며
한 번 죽고 한 번 사니 괴로워라.
가소롭다, 뽕나무와 느릅나무에 날 저물어여.²³⁹
순망치한을 다시 탄식하네.
근육과 뼈는 비록 흙이 되었으나,
이름과 덕은 먼지가 되지 않았네.
갑자기 깨달으니 새삼 한스러워
어릴 적부터 친구임을 알았지.
가성²⁴⁰이 지금은 이미 닫아
돌이켜 보니 정신이 암담하구나.

238) 양(梁)나라 문장가 강엄(江淹)이 야정(冶亭)에서 잠을 자는데, 곽박(郭璞)이라는 노인이 와서 말하기를 “내 붓이 그대에게 가 있는 지 여러 해이니, 이제는 나에게 돌려다오.” 하므로, 품속에서 오색필(五色筆)을 꺼내어 그에게 돌려준 꿈을 꾸었는데, 그 후로는 좋은 시문(詩文)을 전혀 짓지 못했다는 고사에서 온 말로, 필화(筆花)는 오색필을 말하며, 전하여 뛰어난 문재(文才)를 의미한다.

239) 인생의 말년이 된 것을 말한다. 상유(桑榆)는 해가 질 때 햇빛이 뽕나무와 느릅나무의 꼭대기에 비치는 것으로, 《태평어람(太平御覽)》 권3에, “해가 서산으로 떨어질 때 햇빛이 나무의 꼭대기에 비치는 것을 상유라고 한다.”라고 하였다.

240) 묘지(墓地)를 가리킨다. 《박물지(博物志)》에 “하후영(夏侯嬰)이 죽어서 송장(送葬)의 행렬이 도성문 밖에 이르자 말이 땅을 긁으며 슬피 울므로 파 보니 석곽(石槨)이 나왔는데 새겨져 있기를 ‘울울한 가성이여, 등공의 거실이다.[鬱鬱佳城 勝公居此室] 했다.” 하였다.

칠석날에 홀로 앉아 이(離) 자를 얻어 감회를 풀다
七夕獨坐遣懷 得離字

健暑無媒不自持
旅懷此日話襟期
莫言牛女稀相見
猶勝人間久別離

굳센 더위도 매개 없으면 스스로 버티지 못하니
나그네 감회를 오늘 속 터놓고 말하리라.
견우와 직녀가 서로 못 보는 것은 말하지 마세
인간 세상에 더 오래 떨어진 사람도 있네.

백향산의 추일 운을 써서 감회를 풀다
用白香山秋日韻遣懷

律變新涼至
孤居誰與偕
蟬吟秋意思
鴈惹客情懷
炎脫秦刑苦
恩成漢網諧
病蘓須自擬
何恨久沉埋

음률이 변해 새 가을이 오니
홀로 머물며 누구와 함께 하랴.
매미는 가을의 의사를 읊고
기러기는 나그네 정회를 불러일으키네.
더위를 벗어나기가 진나라 형벌처럼 괴롭고
은덕이 이루어지니 한나라 범망처럼 화합하네.
병에서 살아나 스스로 짚어 보니
오래 묻혀 있음을 어찌 한탄하랴.

소오현에 달밤에 석성을 추억하며 읊다
嘯傲軒月夜 憶石醒有吟

月白風涼秋氣清
吟蛩繞夢旅魂驚
無邊欲寫思君恨
嶺樹迢迢鴈叫聲

달 밝고 바람 시원하니 가을 기운이 맑구나.
시를 읊어 꿈을 두르니 나그네 혼이 놀라겠네.
끝없이 그대 그리운 한을 시에 적으려 하니
까마득한 고개 나무에서 기러기가 울부짖네.

만수성절 날에 이운초에게 요청하여 작은 술자리를 베풀고 시를 지어
기쁨을 적다

萬壽聖節日 請要李雲樵設小酌 賦得識喜

仁靄乾坤入鑄陶
山呼萬歲拜恩袍
願推天道爲君壽
何必遠求度索桃

인자한 아지랑이가 하늘과 땅에 들어와 도자기를 빚어내고
산이 만세를 부르고²⁴¹⁾ 은포에 절하네.
원하건대 하늘의 도에 미루어 임금의 장수를 비니
하필 멀리서 도삭산의 복숭아를 구하라.

차 안에서 짓다
車中有作

秋容無跡淡山阿
瞻望皇都在剎那
穡事可知占有慶
病情須得快臻和
蟬聲斷續千村樹
鷺影縱橫萬頃波
經過速於電氣掣
夢中還笑到家多

가을 모습이 자취가 없이 산과 언덕이 맑고
황도를 바라보니 찰나에 있네.
농사짓는 일은 경사로움을 차지하고 있다고 알 만하고,
병든 정한은 모름지기 빨리 완화되어야 한다.
매미 소리는 마을 나무마다 끊어졌다 이어지고
백로의 그림자는 만경창파에 이리저리 너울거리네.
전기에 끌려당기는 듯 빨리 지나
꿈속에서 돌아와 웃으니 벌써 집에 도착했구나.

241) 산호만세(山呼萬歲)는 한나라 무제(武帝)가 숭산(嵩山)에 올라갔을 때, 어느 산이 만세를 세 번 외쳤다는 고사를 말한다.

어제 손자 제영이 맡은 일에 정성껏 부지런함으로 인해 특별히 훈6등 팔괘장을
하사받았기에 영광스러운 기분이 가득하여 시를 지어 알리다

昨日悌孫因恪勤職事 特蒙勳六等 八卦章賜給 榮感萬萬 作詩戒之

慚無祖業裕孫傳
恩數便蕃降自天
班進六勳何特爾
章加八卦信叨然
榮途凜惕吾存戒
少輩騫騰孰任愆
非我言髦曾有受
貞符三字佩茲篇

할아버지 업적이 부끄러움 없이 손자에게 전해져
은수²⁴²⁾가 늘어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네.
반렬이 육등훈으로 나아가니 얼마나 특별한가
훈장에 팔괘가 더해져 참으로 탐스럽구나.
영예로운 길에 의젓하고 삼가니 나의 훈계가 이어져
젊은이들이 날아오르니 누가 허물을 맡으랴.
내가 머리카락을 일찍이 받은 것이 있지 않고
바로 부적 석 자를 차고 이를 엮은 것이다.

아이들이 석성과 함께 열미초당필기를 살펴보다가 백목단화시 절구 2수를 보
니 그 정묘함이 지극해, 서로 시격을 이야기하며 그 운을 밝아 시를 지었기에
나도 또한 차운하였다

兒輩與石醒考覽閱微草堂筆記 見白牡丹畫詩二截極其精妙 相與談話
詩格 步其韻有作 故余亦次之

筆精神妙洗塵沙
一幅天成冠百花
展處留春深得趣
依然長似富豪家

신묘한 붓의 정기가 티끌과 모래를 씻어내니
한 폭으로 하늘이 온갖 꽃의 으뜸을 이루었네.
펼쳐진 곳에 봄을 남겨 깊이 흥취를 얻고
의연하게 오래 가니 부호의 집 같구나.

別樣素羅高捲莖
巧施心匠妙難名
若教解語應傾國
任是幽人也動情

색다른 모양에 높이 말려 올라간 흰 그물이
심혈 기울여 교묘하게 그리니 묘함을 이름 짓기 어렵네.
가르쳐 말을 알아듣게 하면 나라를 기울게 하리니
이 그윽한 사람도 정이 움직이네.

242) 훈공에 의하여 왕의 특별한 은전과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한다.

남대에 노닐며 구경하다 南臺遊觀行

平明日出東南郭
紅埃匝匝彌廖廓
動地輪雷鼙鼓喧
張空線電蛛絲絡
緩步行穿鑄筆泥
種種達人百不齊
紛紛前過兩無涉
戴履凌矜語言呢
塹崖填壑起結構
突兀上與雲仙邁
洋檐日壘互鋪排
所見非復南山舊
聯街列肆又何壯
觸生眩耀難名狀
除非闔苑花卉繁
便是波斯珠貝朗
波斯闔苑夾兩傍
左應右接令人忙
若使丹青移巧妙
茫然舉筆愁長康
常情悅眼本同然
遂使東人解尚妍
帷房充玩几案具
競怪爭奇不惜錢

아침에 밝은 해가 동남쪽 성곽에서 뜨고
붉은 모래가 텅 빈 외성을 감싸네.
땅에 움직이는 바퀴는 악어가죽 북처럼 시끄럽고
하늘에 늘어진 전선은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네.
느리게 걸어가면 주조한 것에 구멍이 나고 붓에 진흙이 튀니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면 저마다 다르네.
분분히 앞을 지나가도 양쪽에 건넌이 없어
신발을 이고 업신여기고 자랑하며 수군거리며 말하네.
언덕에 구덩이를 파고 골짜기를 메워 일어나 엮고,
돌출되어 구름과 함께 위로 우뚝 솟으니 신선의 길이라.
서양의 처마와 일본의 보루가 서로 안배되니
보기에는 남산의 옛 모습을 복구할 수 없겠구나.
이어진 길과 늘어선 가게들이 얼마나 장엄한지
보면 어지럽게 빛나 형상을 분간하기 어렵네.
낭원²⁴³⁾이 아니건만 꽃과 풀이 번성하니
마치 페르샤의 진주같이 밝구나.
페르샤와 낭원을 양옆에 끼고 있으니
왼쪽에서 응하고 오른쪽에서 접해 사람이 바쁘구나.
마치 단청을 교묘하게 옹기 것 같아
망연히 붓을 드니 시름이 길구나.
상정과 열안은 본디 같은 것이니
마침내 동쪽 사람이 상간과 애연을 풀게 하였도다.
장막 친 방의 안석과 책상 가구들에 구슬을 채우니
괴이하고 기이함을 다투느라 돈을 아끼지 않았네.

243) 곤륜산(崑崙山) 꼭대기에 있는 낭풍산(闔風山)으로 신선이 사는 곳이다. 당나라 시인 허적(許確)의 시에 “낭원의 꽃 앞에서 술에 취하여 서양모의 구하상 그릇 앞질렀네” 하였다.

百道川流決尾閭
黃塵清水幾多餘
浩歌一曲都人士
睠顧周京發歎歎
天心佑宋厭羶區
玉樓宵旰臨唐虞
側席虛佇聞已久
海內今豈無夷吾
密勿風雲廟筭恢
掃清塵翳昭光回
黃河莫道清期晏
暖律復從寒後來
癯衰尚有須與願
待到那時舞袖揮

백 갈래 냇물이 흘러 미려²⁴⁴⁾에 모이니
노란 먼지가 맑은 물에 꽤 남았구나.
도성의 인사들이 노래 한 곡을 크게 부르고
서울을 돌아보며 흐느끼고 탄식하누나.
천심이 송을 도와 고기에 질리고
옥루에 소의한식하니²⁴⁵⁾ 요순시대 같구나.
측석에 우두커니 앉아서 듣는 것이 이미 오래되고
나라 안에 지금 어찌 오랑캐가 없으랴.
세상의 변화가 열심히 힘쓰고 사당의 산가지가 갖춰지며
먼지로 덮인 것을 말끔히 쓸어내고 밝은 빛이 돌아오리.
황하가 맑아질 기약이 없다 말하지 말라
추위진 뒤에 추연이 피리 불어 따뜻케 하였네.
늙고 쇠약하지만 아직도 잠시 동안의 소원 있으니
어느 때가 이르길 기다려 소매 휘두르며 춤추랴.

열차를 타고 가다 列車行

車制吾曾未學洋
日人得之通扶桑
直因身跨驚心眼
試歌其事言難詳
京釜千里路削冰
兩邊鐵索直如繩
長亭間置停車所

기차는 우리가 서양을 배운 적 없어
일본인이 얻어서 부상에 통하였네.
바로 탑승하다니 마음과 눈이 놀라서
그 일을 노래할래도 상세히 말하기 어렵구나.
서울에서 부산까지 천릿길을 얼음 깎듯이 하고
양옆에는 철삭(鐵索)이 노끈처럼 곧게 뻗었네.
장정(長亭)²⁴⁶⁾ 사이에 정거장을 설치하고

244) 미려(尾閭)는 바닷물이 한없이 새는 곳으로, 《장자(莊子)》 〈추수(秋水)〉에 “천하의 물은 바다보다 큰 것이 없으니,……미려에서 새어 언제 그칠지 모르는데도 텅 비는 일이 없다.[天下之水 莫大於海,……尾閭泄之 不知何時已而不虛]”라고 하였다.

245) 소한(宵旰)은 소의한식(宵衣旰食)의 준말이니, 날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옷을 입고, 해가 진 뒤에야 저녁을 먹는다는 뜻으로 제왕이 정사에 부지런함을 뜻한다.

246) 옛날 행인의 휴식이나 전별 장소용으로 길거리에 설치한 휴게소로, 5리(里)마다 단정(短亭)을, 10리마다 장정(長亭)을 두었다.

計程近遠貰人乘
 余時作吏彭城館
 烏鳧替自軍浦岸
 援梯躡檻穿稠曠
 置身椅卓兼式案
 列車鉤連一武強
 人多物衆咸容藏
 一聲瀟笛電噴烟
 首尾齊動如貫然
 響漸豪雄走漸疾
 經城歷都等蟻垤
 近岸飛奔却倒行
 遠山展縮還杳失
 魂慄慄坐昏眩
 耳欲無聞目無見
 風雨驟至羣扁咆
 雷霆格掣雙龍戰
 轉眄之間到露梁
 隔斷浮橋橫跨長
 下容帆檣通來去
 上列欄楯擁邊傍
 南門道里百六重
 晷刻纔消二點鍾
 當年造此阿誰是
 鬼斧神鞭泣聽從
 札口買票人奔波
 萬家貨泉問幾何
 吾恐一時眼前快
 未免識者在傍呵

가깝고 먼 거리를 헤아려 사람이 타도록 빌려주네.
 내가 때마침 평성의 관리가 되니
 까치와 오리가 번갈아 군포의 해안에서 오네.
 사다리를 가져다 난간을 밟고 뻑뻑하고 빈 것을 뚫어
 몸을 의자와 탁상에 두고 식안을 겸한다.
 열차는 갈고리로 연결되어 아주 굳세고 강하며
 사람 많고 물건도 많은데 모두 수용하네.
 기적 소리 한 번에 번개처럼 연기를 뿜어내고
 머리와 꼬리가 일제히 움직이니 일관되었구나.
 울림이 점점 호쾌하고 커지며 차츰 빠르게 달려
 성읍과 도시를 지나는데 개미굴처럼 보이는구나.
 가까운 언덕을 나는 듯 달려도 거꾸로 가지는 않고
 먼 산을 펼쳤다 줄여도 아득하게 없어지네.
 혼백이 두려워 떨어 앉아서도 어지러우니
 귀는 듣고 싶지 않고 눈은 보고 싶지 않아지네.
 바람과 비가 빨리 달려 호랑이 무리가 포효하는듯
 우레와 천둥이 자리를 만들어 쌍용이 싸우듯하네.
 눈 돌려 힐끗 본 사이에 노랑진에 도착하니
 끊어진 부교가 길게 걸쳐 있구나.
 아래서는 돛단배에 태워 통할 수 있고
 위에는 난간을 세워 놓아 옆에 끼고 갈 수 있네.
 남문까지의 거리가 백육 리쯤 되는데
 구각은 겨우 두 시간만 쓰였구나.
 올해 이것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가?
 귀신이 도끼질하고 신이 채찍질해 눈물 흘리며 따랐는가.
 개찰구에서 표를 팔아 사람들이 물밀듯 달려드니
 만 집안의 돈이 얼마나 몰려 들었으랴.
 나는 한순간에 눈앞이 빨라지는 것이 두려우니
 식자가 곁에서 잔소리하는 것을 면치 못하겠네.

수서기가 이른 홍시를 보내 주어 사례하다
 謝首書記早紅柿

結向霜前氣早交
 豐肥熟帶絳紗包
 多君雅意遺珍貺
 新味甘香足供肴

서리 전에 맺혀 기운이 일찍 만나니
 풍요롭고 비옥하고 익은 띠에 붉은 비단이 감싸졌네.
 그대가 보배를 주는 아름다운 뜻이 넉넉해
 새로운 맛이 달고 향기로우니 안주로 올릴 만하네.

은혜에 감사하는 시
 感恩詩

나는 관원에 처음 임명된 뒤부터 임금의 사사로운 큰 은혜를 받았으니, 갖가지로 남들보다 갑절로 받았다. 이제 인생의 만년이 되었는데도 녹봉에 매여 있으니, 늘 하는 일 없이 녹봉만 축내고 있지 않을까 두려워하기에 겨를이 없었다. 근래에 열흘 한 달 사이에 할애비가 가선대부에 승급되고 손자도 정3품 훈6등으로 승진하였으니, 이 또한 너무나 큰 은총이기에 보답할 길이 없어 더욱 놀란다. 이에 감히 사물에 의탁해 속마음을 펴서 은혜에 감사하는 시를 한 수 지었다.

附著孰非地
 懈懈孰非天
 地自不相等
 天或未盡全
 苑彼高岡樹
 托所何軒然
 上者入雲直
 下猶舞風前
 哀哉巖上松
 礪礪困挺出
 亂藤罨其顛
 寒霜逼其骨

붙어 사는 데가 땅 아니면 무엇이고
 믿는 데가 하늘 아니면 무엇이랴.
 땅은 스스로 서로 같지 않고
 하늘은 간혹 아직 다 온전하지 않네.
 저 높은 언덕에 무성한 나무는
 어느 집에 처소를 의탁하는가.
 위는 바로 구름에 들어가고
 아래는 바람 앞에서 춤추네.
 슬프구나, 바위 위의 소나무는
 바위가 쌓여 뺨쳐 나오기 곤란하네.
 어지러운 등나무는 뒤집힐까 그물질하고
 차가운 서리는 그 뼈에 엄습하네.

所賴好生成
 昂藏多歲月
 安用寒歲姿
 甘作陰崖物
 忽聞解雷響
 繼以陽春隨
 枝柯先向暖
 根柢暗含滋
 豈知搖落節
 朽質又一時
 歷顧林蔥裏
 誰似此偏私
 癰腫含老靈
 尙知感遇情
 報效將何以
 風枝盡日鳴
 瑟琴材不中
 樑棟老無成
 願化來生石
 爲補媧天頃

생성하기를 좋아함에 힘입어
 오랜 세월 헌칠하구나.
 어찌 추운 때의 자태를 이용하여
 그늘진 벼랑 물건을 달갑게 여기는가.
 우레 소리가 홀연히 들리니²⁴⁷⁾
 이어서 밝은 봄이 오리라.
 나뭇가지가 먼저 따뜻한 곳으로 향하고
 뿌리는 땅속에서 물기를 머금네.
 어찌 알라, 나뭇잎 흔들려 떨어지는 철에는
 썩은 나무도 또한 한때라는 것을.
 푸른 숲속을 지나며 돌아보니
 누가 이만큼 치우치게 사랑받았으랴.
 웅이가 늙은 몸에 박혔지만
 오히려 사랑 받았음을 아네.
 장차 어찌 값고 본받으랴
 나뭇가지에 바람이 하루 종일 부는구나.
 비파와 거문고 만들기에는 적합치 않고
 들보와 용마루도 늙어서 쓰지 못하네.
 바라건대 내생에는 돌이 되어
 여와처럼 하늘을 기우리라.²⁴⁸⁾

247) 순음(純陰)의 달인 10월을 지나 동지(冬至)가 되면 일양(一陽)이 처음 생기는 지뢰복괘(地雷復卦)를 이루게 되는데, 그 괘상(卦象)이 땅 밑에서 우레가 치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248) 《열자(列子)》〈탕문(湯問)〉에 “옛날에 여와씨(女媧氏)가 오색(五色)의 돌을 구워 찢어진 하늘을 기웠다.[昔者女媧氏煉五色石以補其闕]”고 하였다.

석성과 함께 일초정에 올라 같이 시를 짓다 與石醒登一草亭共賦

석성이 온 후에 잇달아 비가 내려 습한 까닭에 일초정에 함께 올라 한 바퀴 한가롭게 산책하지 못하였다. 이날은 바람과 해가 알맞게 좋아서 함께 나막신을 신고 정자 위에 이르러 상쾌하게 널리 펼쳐진 광경을 바라보았다. 옅은 구름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서늘한 기운이 옷자락에 가득하니 이 몸이 상쾌하여 날아갈듯 하였다. 산과 들을 차례로 보니 하나하나 사랑스러워, 사방이 병풍으로 둘러쌌다. 비가 온 뒤에 정신이 땅에 가득하고 구름처럼 파도치지 않은 것이 없으니, 참으로 풍년의 기상이었다. 나도 모르게 기쁨이 가득 차올라 읍청루 난간의 판상운(板上韻)을 써서 읊시 한 수를 지어 석성에게 보이고 화답을 요청하였다.

去亭曾未一弓寬
 久後登臨興欲關
 稻黍潑黃潮落浦
 芙蓉秀碧雨過山
 了無盡日朱扉開
 豈有今年白屋寒
 遍意賞心惟實事
 營營何必問高官

정자에서 일찍이 1궁²⁴⁹⁾도 떨어지지 않다가
 오랜 만에 올라 보니 흥취가 다하려 하네.
 벼와 기장은 누런 빛이 넘치고 조수는 포구로 빠지는데
 비 지나가자 부용산이 더욱 빼어나게 푸르구나.
 종일 시끌벅적한 붉은 대문집²⁵⁰⁾은 없으니
 어찌 올해라고 가난한 집만 추우랴.
 두루 경치를 감상하려는 마음만이 사실이니
 앵앵거리며²⁵¹⁾ 어찌 반드시 높은 관직을 물으랴.

저문 뒤에 술을 시켜 석성과 또 시 한 수를 짓다 晚後命酒 與石醒又賦一詩

명일은 민속에서 한가위라고 부르는 명절이다. 옛사람들이 이르길 ‘다음날 밤이 흐릴지 개일지 알 수가 없다’고 하였으니, 참으로 딱 들어맞는 말이다. 만약 비를 만나면 문득 흥

249) 일궁(一弓)은 사적(射的)의 거리로 6척, 또는 토지를 잴 때의 8척을 이르는 말로, 매우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

250) 주비(朱扉)는 대문을 붉은색으로 치장한 집으로, 귀족이 사는 고대광실(高臺廣室)을 가리킨다.

251) 《시경》〈청승(靑蠅)〉에, “앵앵거리리는 파리가 가시나무에 모이는도다.[營營靑蠅 止于棘]” 하였다.

취가 없어짐을 깨닫게 되니, 어찌 하루 먼저 시를 짓고 술을 따르며 명절의 유흥을 즐기는 것만 하겠는가? 앞의 운을 받아서 시를 지었다.

掃地焚香意自寬	땅을 쓸고 향을 피우니 뜻이 절로 느긋해져
小樓琴鶴坐來闌	작은 누각에 거문고와 학이 난간에 와서 앉네
清風枕擬陶彭澤	맑은 바람을 베고 누웠으니 평택의 도연명이고
錦瑟詩評李義山	금슬 시를 평하니 이의산 ²⁵² 일세.
啓處是賓還是主	편히 쉬며 손님이던 사람이 도로 주인이 되니
時辰非暑又非寒	날씨가 덥지 않고 또 춥지도 않구나.
秫醪亦足酬佳節	차조 막걸리 또한 넉넉하여 술 따르기 좋은 명절이니
誰道江南一冷官	누가 강남의 한 한 냉관 ²⁵³ 이라 말하는가?

공자성적도를 받들어 보고 느낀 바가 있기에
聖蹟圖奉翫有感

성적도지(聖蹟圖誌)는 우리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성대한 업적이다. 수천 년 뒤에 태어나서 이 책을 얻어 받들어 보니, 혈기 있는 자라면 누구든 얼굴빛이 바뀌며 다시 보고 싶은 느낌이 들지 않겠는가? 이에 시 한 수를 지어 기록한다.

尼峯綿邈杏壇空	니구산 아득히 먼 은행나무 강단은 비어 있고
籩豆春秋只懷衷	제기는 봄가을로 속마음을 깨닫네.
鄉畫豈眞朝暮遇	공자 고향의 그림을 아침 저녁으로 만나다니
繫花惟自古今同	꽃을 맨 건 예나 지금이나 같구나.
幸茲圖誌新頒日	다행히 이 그림책을 새로 받은 날

252) 의산은 당나라 시인 이상은(李商隱)의 호로, <금슬(錦瑟)> 시에 “금슬은 깨닭 없이 오십 현으로 되었구나[錦瑟無端五十絃]”라고 하였다.

253) 두보(杜甫)의 <취시가(醉時歌)>에 “광문선생 혼자서 한직에 남아 ...광문선생 혼자만 먹는 것도 부족하네.[廣文先生獨冷官 ... 廣文先生食不足]”라고 하였다. 여기서는 지방의 수령 같은 한산한 벼슬을 가리킨다.

如復羹牆及見躬	국그릇과 담장에서 ²⁵⁴ 직접 얼굴을 본 듯하구나.
畢竟乘桴靈未沫	신령이 없어지지 않아 뗏목을 타고 ²⁵⁵
故教傳寫達吾東	모습을 그려 전하게 해서 우리 나라에 이른 것일세.

낮에 관아의 수요를 헤아려 술과 떡, 국수, 과일 등을 성대하게 준비하고, 석성과 한바탕 크게 먹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서울의 오래된 풍속이 오늘 반드시 선조의 묘에 반드시 정성을 펴는 것인데, 혹시 지방에 있어 참여하지 못하게 되면 유유주의 한식날²⁵⁶ 느낌이 없을 수 없다. 오늘 근래의 이 풍속을 보면 사람마다 각각 자기 힘에 따라 제물을 바쳐서 귀신을 섬기고, 스스로 즐기는 즐거움이 따른다. 소년배와 여러 아이들이 북을 치고 팽과리를 울리며 거리를 메우는 것도 풍년의 성대한 행사이니 즐겁다고 할 수 있다. 나를 돌아보니 위로는 제사의 의례를 어기고, 아래로는 가족끼리 모여 사는 즐거움을 잃었으니 참으로 탄식이 나온다. 이로 인해 번민하는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절구 세 수를 지었다. 午量 自公需盛備酒餅糲果等諸品 與石醒做了一番大嚼 而回憶京中古俗 於此日必展誠於先墓 若或在外未參 不能無柳柳州寒食之感 盖由來久矣 是日見此近俗尚 人各隨其力供具 以之事神 而自娛之樂隨之 少輩及羣童則打鼓鳴錚 填咽街巷 亦一豐年盛事 可謂樂矣 而顧余則上而愆祭祀之儀 下而失團居之樂 良可吁也 因爲撥悶賦得三絕

餅酒家家歡笑聲	집집마다 떡과 술에 기쁘게 웃는 소리
填街鑊鼓饒昇平	거리를 메우는 징과 북소리가 태평시대를 보이네.
也知造化猜圓滿	조화를 알아 원만함이 샘나니
故遣陰霖沮月明	따라서 어두운 장마를 보내서 밝은 달을 막노라.

254)羹장(羹牆)은 요(堯) 임금이 죽은 뒤에 순(舜) 임금이 3년 동안이나 앙모하여, 앉아서는 요임금을 담장에서 보고 밥을 먹을 때면 요 임금을 국에서 보았다는 데서 나온 말로, 여기서는 공자를 몹시 사모하고 그리워한다는 뜻으로 썼다.

255) “나는 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뗏목을 타고 바다로나 나가겠다.[道不行 乘桴浮于海]”라고 탄식한 공자(孔子)의 말이 《논어》 <공야장(公冶長)>에 실려 있다.

256) 가족이 있는 고향을 그리워한다는 뜻이다. 당나라 때 유주 자사(柳州刺史)로 좌천된 유종원(柳宗元)이 한식(寒食)만 되면 고향을 그리워한 데서 나온 말이다.

我家京洛此良辰
香火先墳孝思伸
白首江關歸未得
每逢佳節只傷神

우리 집은 서울이어서 이 좋은 날에
선조의 무덤에 향불을 피우고 효성을 펴네.
흰 머리로 강남에서 돌아갈 수 없으니
매번 중추가절을 만나도 마음만 아프구나.

閑愁黯黯上眉痕
一味伊蒲抵夕曛
消遣奇方餘口業
強來前檻喚詩魂

한가로운 시름이 암암리에 눈썹 위에 흔적을 남겨
이보새²⁵⁷⁾를 맛보며 저녁 어스름을 맞이하네.
소일하는 기이한 방법으로는 구업이 남아
억지로 난간 앞에 와서 시혼을 부르네.

오늘 저녁은 어떤 저녁인가 今夕何夕

저녁에 적막한 시간을 보낼 길이 없었는데, 망한사의 승려 축종, 성문, 재원이 와서 보았다. 그들에게 염불을 외게 했는데 축종은 못한다 사양했고, 성문과 재원이 나란히 앉아 함께 소리를 내니 빈도(貧道)들이 시주를 구걸하는 가락이었다. 그 말이 심히 속되고 저급하였지만, 그 소리는 부드럽고 매끄럽고 맑고 밝으니 또한 범패에서 바뀐 것이었다. 잠깐 사이에 보는 자들이 담처럼 둘러싸, 문득 풍류장의 모양새가 되었다. 이 늙은이가 이를 보며 적막하지 않게 되어, 3장을 부르고 마치자 떡을 찌서 곡차와 함께 먹인 뒤에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베개에 기대어 그 일을 시로 지었다.

漏月駁雲山鳥廳
胡僧念佛亦堪聽
泉鳴雪壑喧猶靜
珠落金盤轉不停
擊節烏羅嫺手法

달빛이 새는 얼룩 구름은 산새의 집이고
호승²⁵⁸⁾의 염불도 또한 들어줄 만하네.
눈 덮힌 골짜기 샘물 소리 시끄러워도 고요한데
구슬이 금쟁반에 떨어져 멈추지 않고 구르네.
박자를 맞춰 우아한 수법으로 오라를 치니

257) 이보는 부들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보새(伊蒲塞는) 이보천(伊蒲僊)이라고 하는데, 재(齋)를 올릴 때 바치는 음식 등을 말한다.
258) 옛날 서역(西域) 출신의 승려를 일컬어 벽안 호승(碧眼胡僧)이라 했던 데서 온 말로, 전하여 흔히 승려를 이렇게 일컫는다.

懸櫺紅燭照唇形
緣渠好送嘉俳夕
一笑回頭顧石醒

창에 걸린 붉은 촛불이 입술 모양을 비추네.
갑자기 추석날 저녁을 좋게 보냈기에
한 번 웃으며 고개를 돌려 석성을 돌아보네.

침상에 엎드려 신음하며 병을 잊으려 했으나 방법이 없어 즉석에서 읊시 한 수를 짓다 伏枕呻嚙 忘病無 口占一律

湖上秋風日夜清
旅人情事政堪驚
辭巢海鷺悠悠去
促織陰虫切切鳴
身計有憂添白髮
國恩無路畢丹誠
行將待到重陽節
且對黃花一說明

호수 위의 가을바람이 밤낮으로 맑으니
나그네 심정이 참으로 놀라워라.
둥지를 떠난 바다 제비는 유유히 날아가고
바쁘게 실을 짜라고[促織]²⁵⁹⁾ 벌레가 절절하게 우네.
내 몸의 계획에 근심 있어 백발이 더해져도
나라 은혜는 갚을 길 없어 참된 정성을 다하리라.
가장차 중앙절이 오기를 기다려
노란 국화를 대하여 한번 설명하리라.

익아가 와서 집안에 남은 경계가 있는지 들었는데, 갑자기 먼 길을 갈 일이 생겼다 하여 함께 근심하는 생각을 묶고 시를 써서 감회를 풀다 翼兒來。聞家有餘戒。渠有遠役。俱係憂念。詩以抒懷

兒帶家音暫覲過
不如意事十常多
思抽匣裡三寅劔
快斫人間百戲魔
頭戴恩天寧愛髮

아이가 집안 소식을 가지고 잠시 보러 왔는데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십중팔구였네.
칼집에서 삼인검을 꺼내야겠다 생각하고
인간을 백방으로 희롱하는 마귀를 빠르게 베어냈네.
머리에 은혜로운 하늘을 이었으니 머리털을 사랑하고

259) 귀뚜라미[蝻] 울음소리가 가을밤에 길쌈을 재촉하는 듯하다 하여 촉직(促織)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身遊畏道戒憑河 몸은 노닐지만 길을 두려워하여 무모한 일을 경계하리라.
 良辰記取重陽近 중앙절이 가까워지니 좋은 날을 취하여 적고
 且對籬花盡日酌 울타리의 꽃을 마주하거든 날이 다하도록 취하리라.

중앙절에 모이다
重陽會

병든 걱정과 나그네 시름을 씻어낼 방법이 없어, 중앙절이 되면 두세 명의 친구들과 함께 국화를 띄워 실컷 마셔 한바탕 마음을 터놓고 놀기로 하였다. 일전에 어떤 이는 글로, 어떤 이는 얼굴을 보고 반드시 그 시기를 따라 나란히 오라고 요구했다. 오늘이 되자 동자를 불러 국화 소식을 물어보았는데, 바야흐로 피려는 봉오리는 방에 싸여 있다고 하였다. 국화가 사람을 속임이 이와 같다. 국화는 대개 기후의 일정함을 지킬 줄 알건만 나는 다만 때에 맞춰 꽃 피기를 구하였으니, 속임당하고 배신당하는 것도 또한 마땅하지 않은가? 참으로 웃을 만하다. 그러나 자리에 객이 있고 동이에는 술이 있으니 또한 좋은 명절에 보답하기에는 충분하다. 이에 시 한 수를 지어 늙은이가 이에 흥이 다시 알아지지 않음을 보인다.

常年重九見黃花 해마다 구월 구일에는 노란 국화꽃을 보았는데
 今日黃花未及葩 오늘의 노란 꽃은 꽃이 피지 못하였네.
 尙記令辰太陰曆 아직도 명절은 태음력에 적고
 強排小酌淵明衙 억지로 술을 따라 도연명의 관아에 내놓네.
 賓朋纒纒如期到 정다운 손님들이 약속한 대로 도착하고
 談笑團圞盡意譁 단란하게 이야기하고 웃으며 마음껏 떠드네.
 莫道茲遊香味薄 이 놀이에 향미가 적다고 말하지 마소
 東坡晚宴在非遐 소동파의 저녁 연회가 멀지 않은 곳에 있네.

청풍 관아에 있는 벽하 방대철에게 부치다
寄淸風衙留方碧下大轍

無端懷緒亂於絲 무단으로 품은 정서는 실처럼 어지러워
 悄倚窓櫺有所思 시름겹게 창가에 기대어 그리워하네.
 鴻鴈不來之子遠 기러기는 오지 않는데 그대는 멀어
 琴書多暇與誰爲 겨를 많건만 거문고와 책을 누구와 함께하라.
 丹山碧水知何處 붉은 산과 푸른 물이 어디 있는지 알고
 紅樹黃花政此時 붉은 나무와 노란 꽃은 바로 이때일세.
 別後音容秋欲暮 헤어진 후 소식 받고 가을이 저물려 하니
 故人那惜一緘辭 옛사람들이 어찌 편지 하나를 아까워했으랴.

남쪽으로 돌아가는 석성을 보내다
送石醒南歸

離家三月值殘秋 집을 떠나 석 달에 늦가을을 맞아
 偶爾相逢却忘愁 우연히 서로 만나 시름을 잊었네.
 楓菊何妨共旅緒 단풍과 국화는 어찌 함께 여행하는 즐거움을 방해하나
 詩樽正是合風流 시와 술이 바로 풍류에 합당하구나.
 怕無此去重看日 이제 가면 다시 만날 날 없을까 두려워
 想料茲來更起頭 생각하고 헤아려 보니 이가 와서 다시 고개를 일으켰네.
 迢遞長程不須惱 까마득히 먼 여정에 번뇌할 필요 없이
 方便賴有電行輶 전차라는 방편에 신세를 지네.

祖帳孤吟兩鬢秋 송별하며 홀로 읊으니 양 살쩍에 가을이 오고
 黃花空惹別離愁 노란 국화는 공연히 이별의 시름을 일으키네.
 霜深林圃紅堆匝 서리 깊은 숲이 붉은 더미로 둘러싸이고
 雨過山屏淡欲流 비가 산 병풍을 지나니 맑은 물이 흐르는구나.
 羈思難禁頻拭眼 나그네 시름을 금하기 어려워 자주 눈을 비비고
 悵懷頓覺自搔頭 서글픈 감회가 갑자기 떠올라 머리를 긁적이네.

忘言極處爲君賀 말을 잊은 지극한 곳에서 그대를 축하하니
 瘦梅釋竹待回輶 야윈 매화와 어린 대나무는 수레가 돌아오길 기다리네.

침상 위에서 번민을 밀쳐내다
枕上排悶

五柳館中秋夜長 오류관 안에 가을 밤이 기니
 怪來神思海茫茫 괴이하게 온 신묘한 생각이 바다처럼 망망하구나.
 金鷄好沒人情感 금계²⁶⁰는 물인정하기를 좋아하여
 不借一聲咫尺傍 바로 옆에서 한 소리를 빌려주지 않네.

평이당에서 가을날에 감회를 쓰다
平易堂 秋日書懷

緣病難堪鬢雪侵 병 때문에 살짝 희끗해지는 걸 감당치 못하니
 誰知此老意殊深 누가 이 늙은이의 뜻이 깊음을 알랴.
 霜繁紅葉排林錦 서리가 붉은 잎에 내려 숲의 비단을 걷어내고
 露冷黃花滿地金 이슬이 국화에 차갑게 내려 땅을 금빛으로 채우네.
 張翰奚爲孤棹興 장한이 어찌 홀로 흥겨워 노를 저으랴
 淵明自有故園心 도연명은 스스로 옛 동산에 마음이 있었네.
 從來羈緒謾吟處 종래 나그네 시름을 부질없이 읊던 곳에
 敲玉風生聽竹音 옥을 두드리는 바람이 일어 대나무 소리를 듣네.

260) 금계(金鷄)는 전설상의 신조(神鳥) 이름이다. 동쪽 바다 먼 곳인 부상(扶桑)에 옥계(玉鷄)가 있고, 이 옥계가 울면 금계가 울고 금계가 울면 석계(石鷄)가 울고 석계가 울고 나면 천하의 모든 닭들이 따라서 온다고 한다.

가을 장마로 번민을 떨쳐내다
秋日陰雨排悶

風驅歷耳戰寒聲 바람이 불어 귀를 스치니 추워 떠는 소리가 나고
 一雨連天撼客情 비가 하늘에 이어져 나그네 마음을 흔드는구나.
 料得隴原多稼熟 밭두둑과 들판을 헤아려보니 심은 게 많이 익어
 倘無穡事失權衡 아마도 농사가 실패하지 않았나 보네.

석성이 가고 난 뒤부터 정신이 적막해져 비로소 나간 사람의 자취를 알겠기에 시를 지어 감회를 풀다
白石醒去後神思寂寥 始知出人之跡 賦得叙懷

握手悲懽洛下家 손을 잡고 서울 집에서 슬퍼하고 기뻐하다가
 列車同搭抵彭衙 열차에 같이 타고 팽성 관아에 이르렀네.
 題詩遣興驚心目 시를 짓고 흥을 부쳐 마음과 눈을 놀라게 하고
 試茗留香沁齒牙 찻잎의 남은 향기를 치아에 스며들게 하였네.
 顧我慰情須可辦 나를 돌아보고 위로하는 정을 알 만하건만
 對君歸思正堪嗟 그대를 만났다가 돌아서려니 정말 탄식할 만하구나.
 旋言難住離歌發 맴도는 말이 자리 잡기 어려워 이별가가 나오니
 路遠寒山人已遐 길 멀고 산은 추운데 사람은 이미 멀어졌구나.

시월 구일
十月九日

정원의 풀 가운데 얼어 시들지 않은 것이 없었으나, 유독 희고 노란 국화만은 활짝 피어 기이함을 자랑하고, 바람 서리에 다른 꽃들이 흔들려 떨어질 때에도 무성하여 기쁘게 하였으니, 이것이 가을철의 남다른 점이였다. 그러나 지난번 중앙절에는 명절이 일찍 돌아왔는지 국화 꽃송이가 터지지 않아 다만 술잔만 주고받는 명절이었는데, 해가 돌아와 근 일에는 땅에 가득 요염함을 바치니, 동파의 저녁 연회의 흥취를 미루어 생각하기에 충분

하였다. 흥겨운 말이 이에 미치어 외롭게 읊으며 홀로 술을 따라도 흥이 다시 알아지지 않기에 시 한 수를 지어 감회를 풀었다.

對花何事愛偏眞
性耐風霜爛小春
萎卉爭教天有定
靡渠誰復眼生新
傲追陶令傳觴泛
推想蘇翁晚宴因
氣候盖知隨節物
重陽空負守時辰

꽃을 마주 보니 무슨 일로 사랑이 이다지 참다운가
성정이 바람과 서리를 견뎌 작은 봄같이 흐드러졌구나.
시든 풀은 앓다투어 하늘이 정한 철을 알게 하니
너 아니면 누가 다시 눈 앞에 새로운 풍광 보이랴.
도령(陶令)을 본받아 술잔에 띄워 전하며
소옹(蘇翁)의 저녁 연회도 미루어 생각하네.
기후가 절물(節物)에 따름을 어찌 알랴
중양절에 날짜 약속을 부질없이 저버렸구나.

**정거장에서 극아를 만나고, 이어서 또 일본 대사를 영송하고 돌아오는 길에
절구 두 수를 짓다**
停車場逢克兒 繼又迎送日本大使 歸路二截

強顏眺望作郊行
滿袖征塵兩鬢霜
多稼束收畦隴晒
誰云穡事近歉荒

염치를 모르고 바라보며 교외로 갔더니
소매에는 길가의 먼지 가득하고 양 살쩍에 서리 덮혔네.
많은 곡식을 거두어 묶고 밭두둑에 쌓았으니
누가 올해 농사가 흉년 들었다 하였는가?

兒行先着大賓來
特地相看意難裁
自是公私偏有感
淡雲斜日送迎回

아이가 먼저 도착하고 큰 손님도 오시어
특별히 만나게 되니 뜻을 절제하기 어렵구나.
공과 사가 겹치니 유달리 감회가 있어
맑은 구름과 노을빛에 보내고 맞이하네.

천하가 어지러우니 언제나 안정되랴
天下紛紛何時定

배와 수레로 돌아오니 다스려진 날은 늘 적었고, 어지러운 날은 늘 많았다. 춘추, 진(秦), 한, 진(晉), 당, 오계(五季)를 거쳐 송, 원, 명에 이르기까지 이미 역사가 문헌에 실려 있어 고증할 만한데, 이는 담장 안의 일이어서 깨끗하게 쓸어내고 바로잡으면 머지않아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천하의 대세가 해내(海內)와 해외(海外)로 경계가 국한되는 것이 아니어서, 풍속이 다르고 재능과 지혜의 교묘함이 복잡해졌다. 삼대의 올바른 도를 이 백성들에 행하니 처음에는 향기나는 풀과 냄새 고약한 풀, 얼음과 솥처럼 어울리지 않았으나, 결국에는 칩과 등나무같이 엮혔던 것이 아교와 칠같이 달라붙어 친하게 되었다. 이러한 형세는 그들이 우리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바꾼 뒤에야 끝이 난다. 이러한 시대를 당하면 비록 관중이나 제갈량이 수천명이 있더라도 결코 구별할 수 없어 하나로 정해질 것이니, 하물며 깊이 그 독에 빠진 자이랴. 가장 먼저 그를 좋아하는 자들이 왕왕 우리 무리에서 나오니, 아아, 시운의 곤궁함이 이에 이르렀구나! 나를 돌아보니, 비와 이슬을 맞은 초목 같구나. 진실로 나의 재주가 보잘 것 없어 위험한 시국을 지탱하고 붙들기에는 부족하고, 홍균의 글을 얻거나 잘 배우는 데에는 부족하다. 매번 이러한 생각을 할 때마다 개탄스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천하가 어지러우니 언제나 안정되랴[天下紛紛何時定]’ 하고 길게 탄식하였다. 그래서 이 일곱 자를 부연하여 시를 지어 외사(外史)의 뜻을 담아 보았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걱정하고 겁내는[畏首畏尾]²⁶¹⁾ 것을 면치 못했으며, 모호하고 명확치 못한 뜻을 포함하였으니, 동호(董狐)²⁶²⁾와 손성(孫盛)²⁶³⁾이야말로 역사를 화살같이 곧게 쓴 분들이다.

汎濫洪流甚九年 홍수가 심하게 범람한 지 구년이니
眼前郊藪入蛟涎 눈앞 교외의 늪에 이무기의 침이 들어갔구나.

261) 《춘추좌씨전》 문공(文公) 17년 조에 “머리가 어찌 될까 두려워하고, 꼬리가 어찌 될까 두려워한다면, 몸 전체 중에 걱정되지 않는 부분이 얼마나 되겠는가.[畏首畏尾 身其餘幾]”라고 하였다

262) 동호는 춘추시대 진(晉)나라의 사관으로, 진 나라의 경(卿)인 조돈(趙盾)이 자기 인군을 시해한 일을 사실대로 썼다.

263) 손성이 《진춘추(晉春秋)》를 편찬하였는데, 말이 바르고 사리가 정당하여 양사(良史)로 일컬어졌다. 진나라 환온(桓溫)이 연(燕)나라를 치러다가 방두(枋頭)에서 크게 패배하여 수치를 안고 돌아왔는데, 손성의 아들이 방두의 기록을 고치고자 하였으나 손성이 끝내 허락하지 않자 자식들이 몰래 고쳤다. 《진서(晉書)》 권82 <손성열전>

龍門玉斧無消息 용문의 옥도끼는 소식이 없는가
我欲乘槎一問天 내가 뗏목을 타고 올라가 하늘에 한 번 물어보리라.

本末無端倒着打 본말을 무단으로 거꾸로 붙이니
歌聲在市哭聲野 저갯거리에선 노랫소리, 들판에선 곡소리가 나네.
當時悔不烹弘羊 당시에 홍양을 팽하지 않은²⁶⁴ 것이 후회되니
一潰隄防水就下 한번 제방을 무너뜨려 물을 아래로 내려가게 하리라.

新聞社長太申勤 신문사 사장은 아주 부지런하여
時耗日聞所未聞 시간을 써서 아직 듣지 못한 소식을 날마다 들려주네
萬里帆風吹不斷 만 리 돛대에 바람이 끊이지 않고 불어
紅墩東出雨西紛 붉은 해가 동쪽에 나오는데 비는 서쪽에 어지럽구나.

一孔方能勢焰熏 구멍²⁶⁵ 하나가 바야흐로 불꽃처럼 타오르니
傷時著論盖云云 시국을 가슴 아파하며 논쟁이 다양하하네.
如今貨幣多名色 지금은 화폐가 명색이 많아
新舊公私互競紛 새것과 옛것, 공전과 사전이 서로 어지러이 다투네.

午旭亭亭半已過 낮 해가 높이 오르니 반이 이미 지나고
岷崙倒景碧嵯峨 곤륜산이 가장 높아 푸르고 높고 험하구나.
但謀歸宿安身地 집에 돌아가 잠 자며 몸 편안하기를 도모하건만
莫道挽回沒奈何 만회할 길이 없으니 어찌하면 좋으랴.

淒淒風吹夜何其 싸늘한 바람이 밤에 얼마나 불었는가
度世慈航便覺痴 세상을 제도하는 자비로운 배가 어리석음을 깨닫네.

264) 한나라 무제(武帝) 때 날이 몹시 가물어 무제가 백관에게 비를 청하게 하자 어사대부(御史大夫) 복식(卜式)이, “상홍양(桑弘羊)을 삶아 죽여야 하늘이 비로소 비를 내릴 것입니다.[烹弘羊 天乃雨]”라고 아뢰었다. 상홍양은 염철(鹽鐵)과 술의 전매를 실시하고 경사(京司)에 평준사(平準司)를 두고 천하의 수운(輸運)을 받아들이어 국가의 재정을 풍부하게 하였으나, 복식은 상홍양이 이익을 독점하는 것을 미워하여 이렇게 말한 것이다

265) 상평통보 같은 동전을 가리킨다. 평택군수 오형묵의 정무일기 첫 장에 일본 영사가 인천항 감리 하상기를 통해서 제일은행권 견본을 보냈다는 이야기가 실려 있다.

只恨人非金石壽 사람이 쇠나 돌 같은 수명이 없음이 한스럽구나
黃河千一詎無時 황하가 천년에 한번 맑아진다니 어찌 때가 없으랴.

華髮星星雙鬢暎 흰 머리카락 성성하여 양 살쩍이 빛나고
婆憂猶自坐宵永 과부는 긴 밤 내내 앉아서 걱정을 하는구나.
短歌歌罷傍寒梅 짧은 노래 부르기를 마치니 곁에 차가운 매화가 있어
宿鳥不驚人己定 사람이 이미 그치지자 자던 새가 놀라지 않네.

극아를 보내고 일초정에 올라 차가 가는 것을 보며 읊다
送克兒 登一草亭 望車行有吟

孤懷抖擻向誰傾 외로운 감회를 떨쳐 버리고 누구를 향해 기울이나
幸得談論對爾并 다행히 너를 만나 함께 담론을 나누었네.
漸覺衰疲緣眩崇 점점 노쇠하고 피로해지니 어지러움이 빌미 되어
偏增憂慮弱神情 우려가 늘어나고 정신이 약해졌네.
來陪纔過今三日 와서 같이 지낸 지 이제 겨우 사흘이 지났는데
歸觀²⁶⁶應知這二更 귀근(歸觀)²⁶⁶하다 보니 어느새 이경이 되었구나.
悵悵車行遙望處 서글프게 멀리 가는 차를 바라보노라니
斜陽一點鴈羣橫 저녁노을 한 점에 기러기 떼가 가로지르는구나.

근래에 병이 들자 날마다 괴롭더니 어지러움을 빌미로 귀가 먹은 것이 더욱 심해져서 시름을 풀다
近來病情日以侵苦 眩崇一直 耳聾添劇 聊以遣情

年來些病苦侵尋 해가 갈수록 자잘한 병이 점점 심해져

266) 관원이 휴가를 얻어 고향에 있는 어버이를 뵙는 일이다. 영조(英祖)가 귀근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하였다. “명나라 태조(太祖)는 까치가 보금자리에서 알을 보호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고 감동하여 신하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봉양하는 것을 허락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 부모를 멀리 떠나 벼슬에 종사(從仕)하는 자에게 특별히 1년에 한 차례의 귀근(歸觀)을 허락하였던 것 또한 효도로 다스리는 것을 추양한 것이다.” 《영조실록》 3년(1727) 1월 20일

衰邁力難從仕任 쇠한 몸으로 매진해 임무를 맡기에는 힘이 부치네.
 非是何妨聾兩耳 두 귀가 먹은 것이 어찌 방해되지 않으랴
 忘言底處几如瘡 어딘가 말을 잊으니 병어리 같구나.

소동파의 상화시격(賞花詩格)을 본떠 열한 글자를 돌려가며 스물여덟 글자 시의 형식을 만들어 교육의 뜻으로 쓰고 그에 차운하여 절구 한 수를 짓다
倣蘇東坡賞花詩格 以十一字環成二十八字詩體 用教育意旨 次其韻 一截

育英歸趣鳥如飛 영재를 기르는 것이 새가 나는 데에 귀결되니
 趣鳥如飛導識微 새처럼 날게 되면 기미(機微)를 알게 되네.
 導識微時開進步 기미를 알게 되면 개화 진보되니
 時開進步育英歸 시대를 열고 진보하여 영재를 기르는 데로 돌아가세.

밤에 앉아 회포를 풀며 짓다
夜坐遣懷作

獨守殘燈覺夜長 꺼져가는 등불을 홀로 지키며 밤이 긴 것을 아니
 雪窓添暈滿天霜 눈 오는 창가에 달무리 보이고 하늘에 서리 가득하구나.
 月如好友偏開眼 달은 좋은 벗 같아 눈을 열어 주고
 梅擬佳人故近床 매화가 아름다운 사람 같아 책상 가까이 두었네.
 愁劫試醪無可敵 시름을 없애기에는 탁주만한 게 없지만
 寒侵撥炭莫能防 추워서 숯불 피워도 막을 수가 없구나.
 且將世事何煩惱 또한 세상일이 얼마나 번민되는지
 不用多方在意量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네.

해가 갈수록 늙은 생각이 들어 명절이 될 때마다 서글픈 마음을 금할 수 없기에 운을 집어 회포를 풀다
年來老懷每當名節 自不禁紆悵 因拈韻遣懷

陰窮底處轉微陽 어둡고 곤궁한 곳에 미약한 빛이 들어오니
 節物漸隨已備嘗 절물이 차츰 따라와 이미 즐길 준비를 하였네.
 證驗前曾標八尺 일찍이 표가 여덟 척임을 증명하였으니
 名言誰復舉三觴 세 잔을 들자는 명언을 누가 다시 하랴.
 心灰不似葭灰動 마음의 재는 자작나무 재가 움직이는 것과 달라
 繡線初添日線長 낮 시간이 길어지니 수 놓는 선이 처음 늘어나네.²⁶⁷⁾
 孤寄殊方須有感 다른 곳에 홀로 사니 모름지기 감흥이 있어
 天時人事自紛忙 하늘의 때와 사람의 일이 절로 분망하구나.

향장이 민충정공 충절시 한 수를 지어 보여주기에 차운하여 짓다
鄉長賦閔忠正公忠節詩一則示及 故次其韻

效忠臣分綴芳塵 충신의 본분을 본받으니 아름다운 명성 이어져
 分綴芳塵步武親 아름다운 명성 이어지니 보무가 친하구나.
 步武親常多慷慨 보무가 친해지니 강개한 마음 많아져
 常多慷慨效忠臣 늘 강개한 마음 많으니 충신을 본받누나.

늙고 병들을 한탄하다
老病嘆

體中多病痛 몸속에 병이 많아 아프고
 頭重未梳爬 머리는 무거워 빗으로 긁지 못하네.

267) 낮 시간이 길어지기 시작한 것을 몸으로 느끼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궁중의 여인들이 일하는 작업의 양을 가지고 낮 시간의 장단(長短)을 가능한 데에서 온 말로, 동지 뒤에는 점점 낮이 길어지기 때문에 “바느질하는 일이 한층 더 늘어났다.[添繡]”고 표현한 것이다.

耳或訝聽雨
眼常怪纈花
口沙火緣極
鼻嚏涕偏加
手鈍風隨惱
足痠眩轉嗟
心神雖少壯
筋力奈橫斜
傲幸稀年過
歸期自不遐

귀는 어쩌다 빗소리를 들리나 의아해하고
눈은 늘 괴이하게 아물거리네.
입이 벉석거리 불난 듯하고
코에 재채기가 나면 눈물까지 더하네.
손이 둔해지니 바람 따라 머리 아프고
다리가 저리니 어지러워 탄식 나오네.
마음과 정신이야 비록 장년 때보다 즐었다지만
근력까지 어찌 줄어들는가?
요행히 희년(稀年)이 지났으니
돌아갈 때가 절로 멀지 않았구나.

이화실을 만나 이야기하다
逢李和實叙話

天涯逢客喜
聊欲話田園
風竹聲生枕
雪梅影倒樽
憫常時局事
雅是故人言
何苦愁冰硯
詩成可細論

천애에 손님을 만나니 기쁘기에
애오라지 전원을 이야기하고 싶구나.
대숲에 부는 바람 소리가 베개에 들려오고
눈 덮인 매화 그림자가 술잔에 거꾸로 비치네.
늘 시국의 일을 걱정하니
우아하도다, 옛사람의 말이여.
어찌 벉루가 얼까 괴롭게 걱정하라.²⁶⁸⁾
시가 이뤄지면 자세히 논해 보리라.²⁶⁹⁾

268) 소동파의 <화유경문실(和劉景文雪)> 시에 “동자는 언 벉루 녹이기를 걱정하고, 미인은 언 술잔 녹이는 게 고통일세.[童子愁冰硯 佳人苦膠杯]”라고 하였다.

269) 당나라 시인 두보(杜甫)가 봄날에 친구인 이백을 생각하여 지은 시에, “어느 때나 한 동이 술을 갖추어, 거듭 함께 글을 자세히 논해 볼까.[何時一樽酒 重與細論文]”라고 하였다.

시사에 느낀 바 있어
感事

利權長自反時常
自反時常揚惋傷
揚惋傷何須有感
何須有感利權長

이권이 늘어나니 늘 스스로 돌아보고
스스로 돌아보니 늘 모두 가슴 아프구나.
모두 가슴 아프니 어찌 모름지기 감회 있으랴
감회가 없으니 이권이 늘어나는구나.

밤에 앉아 스스로 읊다
夜坐自詠

睡魔初醒漏聲長
雪暈交添月共霜
輸與老夫詩興發
孤梅故放一枝香

쏟아지는 졸음에서 막 깨니 물시계 소리 들려
눈빛이 달과 서리에 함께 더해지네.
이 늙은이와 함께 나르며 시흥이 일어나니
외로운 매화가 일부러 한 가지 향을 내뿜네.

우연히 읊어 감회를 풀다
偶吟遣懷

天涯節物正堪嗟
雪壓園林揚是花
一歲等閑餘幾日
人皆怪我忘歸家

천애의 절물이 감탄할 만하구나.
눈이 동산 숲을 덮으니 모두가 꽃일세.
한 해를 등한히 보내다가 며칠 남으니
사람들은 내가 집에 돌아가길 잊었다고 괴이해하네.

생각한 바가 있어 감회를 서술하다
有所思述懷

七十二齡歲且闌

일흔두 살에 세월이 또한 막혀

窮通歷數謾辛酸 궁하고 통했던 세월 헤아려보니 괴로웠구나.
 苦爲公正當猜忌 힘들게 공정함을 위하면 시기를 받고
 甘作清廉涉困難 기꺼이 청렴하게 일하면 곤란함을 겪었지.
 詩律幾多從飯顆 시의 운율은 밥알처럼 꽤나 많았고
 榮華可笑夢槐安 영화는 괴안국의 꿈처럼 가소로웠네.
 思量經過成何事 경과를 헤아려보니 어떤 일을 이루었는가
 對酒無如此日歡 술을 마주하니 오늘같은 기쁨은 다시 없으리라.

충신 민영환 공을 추모하다
 輓閔忠臣公咏煥

鴻毛重處泰山輕 기러기 털 무거운 곳에 태산은 가벼우니
 立辦熊魚取舍明 곰과 생선을 취하고 버리는²⁷⁰⁾ 것은 명백하구나.
 東蹈一人於古有 동쪽은 한 사람이 옛날에 있더니
 西登二子至今生 서쪽에 오른 두 아이가 지금 살고 있네.
 圖酬五百年恩造 오백 년 은혜로운 덕 갚기를 도모하고
 激倡三千里義聲 삼천리에 의로운 소리를 격하게 주창하였네.
 畢竟泉臺歸報日 마침내 황천에 돌아가 아뢰는 날
 公爲杵臼孰程嬰 공이 저구라면 정영²⁷¹⁾은 누가 되려나.

270) 맹자(孟子)가 “생선도 내가 바라는 바이고, 웅장(熊掌)도 내가 바라는 바이지만, 이 둘을 다 가질 수 없다면 생선을 버리고 웅장을 취하라. 삶도 내가 바라는 바이고 의(義)도 내가 바라는 바이지만 이 둘을 다 가질 수 없다면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하겠다.”라고 하였다. 《맹자》〈고자(告子) 상〉

271) 진나라 대부(大夫) 도안가(屠岸賈)가 조식(趙朔)의 일족을 살해하자 그의 문객인 공손저구(公孫杵臼)는 정영(程嬰)과 함께 조식의 고아를 세울 일을 논의하였다. 정영은 조식의 아들을 안고 산중으로 피하여 화를 면하게 하고, 공손저구는 다른 사람의 아이를 데리고 달아나 산중에 숨어 있으면서, 정영에게 자신을 도안가에게 밀고하게 하였다. 결국 공손저구는 가짜 아이와 함께 도안가에게 살해되고, 조식의 아들은 정영에 의해 목숨을 보전하게 되었다.

충정공 조병세를 추모하다
 輓趙忠正公秉世

寧學劉謚便訣堯 차라리 유심²⁷²⁾을 배워 문득 임금을 떠나니
 如公忠義日星昭 공의 충의는 해와 별처럼 밝구나.
 三朝髮白恩誠大 삼조에 머리카락이 희도록 은혜가 진실로 크고
 七竅心丹血未銷 칠규(七竅)에 마음이 붉어 피가 녹지 않네.
 陸海葦扶宗社重 땅과 바다에 갈대는 종사의 무거움을 받치고,
 霜天花發世家喬 서리 내리는 하늘에 꽃이 피니 세가가 높구나.
 懸知烈烈精靈氣 분명히 아네, 열렬한 정령의 기운이
 應化長虹貫九霄 응당 긴 무지개로 화하여 높은 하늘 꿰뚫을 줄을.

귀밝이술을 대하고 시로써 감회를 풀다
 對耳明酒 詩以遣懷

官廚新釀見深情 관아 주방에서 새로 빚어 깊은 정을 보이니
 使我專爲祝耳明 오로지 나를 위해 귀 밝기를 빌었구나.
 近日微聾緣眩暈 근일에 살짝 귀가 안 들리고 어지러우니
 嗟君枉用費神精 아아, 그대는 잘못 써 정신을 낭비하였네.

향 바구니로 감회를 읊다
 篝香咏懷

煖帳寒梅境轉幽 따뜻한 장막과 찬 매화에 지경이 더욱 그윽해
 有官還似是眞休 관아에 있으면서도 참으로 쉬는 듯하구나.

272) 삼국시대 촉(蜀)나라 후주(後主) 선(禪)의 아들로 북지왕에 봉해졌다. 263년에 위(魏)나라 대장 등애(鄧艾)가 촉의 수도 성도(成都)를 공격하자 후주는 순순히 항복하였다. 북지왕 유심은 “부자와 군신이 성(城)을 등지고 저들과 일전을 벌여 함께 사직(社稷)에 순절해서 선제(先帝)를 뵈어야 한다.”라고 하였으나, 후주가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북지왕은 선제의 사당에 가서 통곡하고 먼저 처자(妻子)를 죽인 다음에 자신도 자결하였다.

閑來每好逢詩伴
老去方知少酒儔
實記新編將述事
斗經專習自爲謀
多方調得衰中健
餘外榮枯何足憂

한가로울 때마다 매번 시 짓는 친구를 만나 좋고
늙어갈수록 바야흐로 술친구 적어짐을 알겠네.
실기를 새로 엮어서 장차 일을 서술하고,
북두경을 오로지 익혀서 스스로 도모하리라.
여러 방면에서 조절하여 쇠한 중에 건정해지리니
나머지 번영하고 쇠퇴하는 것이야 어찌 근심하랴.

날씨가 어둡고 추우니 도무지 봄이 올 기미가 없기에
天氣陰寒 頓無春意

春意非常料峭寒
衰年偏苦病來干
何人能解吹鄒律
付與洪勻和一團

봄의 뜻이 예사롭지 않아 몹시 추워
쇠한 나이에 괴로운데다 병까지 들었네.
누가 능히 추연의 음률을 불 줄 알아
조물주와 함께 한 덩어리의 화기²⁷³⁾를 부여하려나.

경칩 날에 놀이삼아 짓다
驚蟄日戲作

蝎子多陰苦
長憂睡未常
記將驚蟄日
塗壑試新方

전갈은 어둡고 괴로움이 많아
늘 걱정하느라 잠을 예전만큼 못 자네.
장차 경칩 날에 기록하여
새 처방을 시험해 흠을 바르고 지붕을 덮으리라²⁷⁴⁾

273) 송나라 학자 정명도(程明道)가 흠을 앉아 있을 적에는 석고상(石膏像)처럼 보이다가도, 일단 사람을 접하면 한 덩어리의 화기[一團和氣]가 뭉쳐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274) 주나라 무왕(武王)이 강숙(康叔)에게 자신의 뜻을 이어받아 마무리를 잘하도록 타이르며 “비유하건대 집을 지을 적에 부지런히 담을 쌓았으면, 이제 벽에다 흠을 바르고 띠뿔로 지붕을 덮어야 하는 것과 같다.[若作室家 既勤垣墉 惟其塗壑茨]”라고 말한 내용이 《서경》〈재재(梓材)〉에 나온다.

2월 13일에 감회를 펴다
二月十三日抒懷

春氣陰寒怯老疲
復緣衰病得歸遲
今朝懷緒偏多感
詩思怱怱轉覺悲

봄의 기운이 어둡고 추워 피로한 노인을 겁박하니
쇠하고 병든 까닭에 귀거래가 늦어지네.
오늘 아침에 회포가 일어나 느낀 것이 많은데
시사가 서글퍼 더욱 슬퍼지누나.

병 끝에 봄날의 느낌
病餘春感

八十日春剪剪風
怯寒衰病及吾躬
須知時候洪勻在
桃杏強顏始綻紅

팔십 일 봄에 바람이 쌀쌀해
무서운 추위가 내 몸에 미치네.
사철의 징후는 조물주에 있음을 알아야 하니
복숭아와 살구가 뻥뻥스럽게 붉게 터지기 시작하네.

영친왕을 망한사에서 위축하고 참선하기에 느낀 것이 있다
英親王位祝望漢寺 參禪有感

法界千年古道場
莊嚴臺殿妙空王
恩施曾荷皇明勅
祇祝爲徼聖子祥
香烟芬苾燒檀白
花彩玲瓏剪菊黃

법계의 천년 된 옛 도량에
장엄한 불전과 신묘한 부처가 있네.
일찍이 황제의 칙령으로 은혜를 베풀어²⁷⁵⁾
황태자 상서롭기를 빌었네.
백단향 태워 향연기 향기롭게 오르고
노란 국화 자른 화채가 영롱하구나.

275) 200년대 초기에 한나라가 망하자 고승과 장군들이 배를 타고 표류하던 중 아산만에 이르렀으나, 귀국길이 막연하여 이 곳에 절을 짓고 고향인 한나라를 기리는 뜻에서 망한사(望漢寺)라고 하였다는 전설이 있지만, 이때는 우리 나라에 불교가 전해지기 전이므로 전설에 대한 신빙성은 없다. 망한사에 세자궁원당(世子宮願堂)이라는 현판이 있어 조선시대에는 왕실과 인연이 깊은 사찰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龍歸鉢底參清演 용이 바리때 밑으로 돌아와 맑은 강연에 참여하니
眞覺禪關禮制詳 진정 선의 관문을 깨달아 예의와 제도가 상세해지네.

정원의 꽃과 풀이 난만하게 펼쳐지다
庭院花卉爛熳敷榮

日涉園中快賞心 일섭원 안에서 감상하는 마음 상쾌하여
郊原從此想幽尋 교외에서도 이를 좇아 그윽한 곳을 찾네.
一齊草入分高下 일제히 풀들은 고하가 나뉘고,
五色花隨各淺深 오색의 꽃들은 각기 얇고 깊음을 따르네.
帘幟飄揚誇酒好 술맛 좋다고 자랑하는 깃발이 나부끼고
鳥聲斷續和春吟 봄이 좋다고 새소리가 끊어졌다 이어지네.
坐來貪看韶華美 앉아서 봄의 아름다운 풍광을 탐내 보노라니
更有踈鍾送梵音 끊어질듯 종소리가 있어 범패 소리를 보내네.

느지막히 십의대에 올라가 거닐며 읊다
晚上十宜臺逍遙有吟

官事從容得自宜 관아의 일이 조용하여 지내기 적당하니
病餘閑散不嫌疲 병끝에 한산하건만 피로함이 싫지는 않네.
釀紅醞綠皆堪賞 붉은 술 빛고 푸른 술 담아 모두 맛볼 만하니
便是東風手段奇 문득 불어오는 동풍의 수단이 기이하구나.

培栽名卉各隨宜 이름난 꽃마다 적성에 맞게 재배하니
枉用心神頓忘疲 심신을 헛되이 써 갑자기 피곤함을 잊었네.
莫說任他歸賦近 다른 이에게 맡기는 것을 막론하고 돌아와 근체시를 짓고
後來留得便稱奇 뒤에 오는 자들에게 머물러 편함을 얻으니 기이하다 칭하네.

재를 지내는 승려 창균과 경호가 와서 보고 공양의 절차를 갖추어서 아뢰었다. 위
축한 뒤 참선할 때에 매번 나를 향해 축원하는 것은 심히 온당하지 않기에 느낀
것이 있어 절구 두 수를 짓다
持齋僧昌均慶浩來見 備陳供養節次 至於位祝後參禪時 每向余祝願
者 事甚未妥 因以有感賦二截

感君杖錫到塵涯 그대들이 석장을 짊고 속세에 이른 것이 고마워
小榻逢迎禮意加 작은 걸상에 맞이하여 예를 갖추었네.
妙演法文芳樹下 향기로운 나무 아래에서 묘하게 법문을 설명하니
落花彷彿似僧家 꽃잎 떨어지는 절간에 온 것 같구나.

供養長齋付有緣 공양하고 길게 재를 지내는 것이 인연이 되어
朝來說法夜參禪 아침에 와서 설법하고 밤에 와서 참선하는구나.
慙慙向我慈悲念 나를 향한 은근하고 자비로운 생각에
爲祝身康宿眩痊 몸의 건강을 빌어 주니 잘 때 어지러움이 나았네.

생각해 보니 올해 봄은 절기가 조금 늦었다. 꽃 피는 것으로 보자면 봄이 아닌
데 꽃 피는 광경을 다했으니 봄이 다한 것이기에 느낀 바가 있어 감회를 풀다
竊想今春 以節候差晚 凡係花事 渾非春盡光景而春則盡矣 因有感賦懷

三月正當三十朝 삼월에는 마땅히 30개의 아침이 있는데
惜春情懷便悽悵 봄의 정회가 아쉬우니 처연하고 서글프구나.
陰氣貪婪愆節候 음습한 기운이 어그러진 절후를 탐내니
七分韶景五分堯 칠분은 순의 음악이요 오분은 요의 음악일세.²⁷⁶⁾

276) 소(韶)는 순(舜)의 음악이고, 호(護)는 탕(湯)의 음악이며, 함(咸)은 함지(咸池)이니 황제(黃帝)의 음악을 다듬은 요(堯)의 음악이다.

難住歸期風雨催 돌아가는 날 바람과 비가 몰아쳐서 머물기 어려우니
落花無語望中摧 지는 꽃은 말이 없어 바라보는 중에도 꺾이네.
老懷當餞偏多恨 늙은이 회한은 전별할 때에 특히 더 슬퍼
爲構詩篇酒以媒 술을 매개로 하여 시편을 만드네.

초여름 날에 병을 무릅쓰고 동산의 정자에 올라 만물의 화려함을 보며
즐기다가 멀리 북쪽으로 가는 전차를 바라보고 느낌이 있기에
肇夏日 强病登園亭 觀翫物華 遙望見北行電車有感

倩人登陟際清和 예쁜 사람은 맑음과 조화로움 사이를 올라가고
芳草成茵麥漲波 방초가 자리를 만들고 보리 물결이 출렁이네.
園關通明忘地窄 동산이 열리고 빛이 통하니 땅이 좁은 것을 잊고
亭無關鍵得山多 정자엔 빗장과 열쇠가 없어 산을 많이 얻었네.
將看乳哺鷺泥壘 진흙 둥지에서 젖 먹이는 제비를 보리니
應就香探蜂蜜窠 향기를 찾아 꿀벌의 집으로 나아가리라.
趁取逍遙幽竹畔 그윽한 대나무밭에 나아가 거닐다가
歸心偏向電車過 전차가 지나가니 돌아가고픈 마음이 한쪽을 향하네.

마음에 느껴진 바가 있어 시를 지어 감회를 풀다
有所感於心 賦詩抒懷

鷄肋名途冒詬譏 좋은 벼슬자리는 험뜯고 비웃음을 무릅써야 하니 계륜이고
多慚啼鳥不如歸 새가 돌아가는 것만 못하다고 우니 많이 부끄럽구나.
衰癯轉劇緣何事 느른함이 더욱 심각해지니 무슨 일 때문인가?
念到家山計已違 마음은 고향에 가 있지만 계획은 이미 어긋났네.

旅食東南二十年 동남 지방에서 이십년 동안 떠돌며 먹다 보니
近民平易樂天真 근처의 백성들은 평이하게²⁷⁷⁾ 천진을 즐기네.
吁嗟數畝歸無託 아아! 몇 마지기 고향으로 돌아가도 의탁할²⁷⁸⁾ 곳이 없으니
不是蠶蜂費苦辛 누에와 벌이 수고와 괴로움을 낭비하는 것은 아닐세.

정원의 풀 하나 돌 하나를 둘러 보니 나의 정력이 이르지 않은 것이 없기에
느낌을 쓰다
周覽庭園 一草一石 無非我精力所到 因感作

今朝離恨轉堪悲 오늘 아침 떠나는 한이 더욱 슬프니
往事悠悠便感時 지난 일들이 유유히 느껴지누나.
醉石重酬參古蹟 취석은 고적을 참조하여 다시 세우고
香磐新舖藉良資 향반은 좋은 자질이 살려서 새로 펼쳤네.
亭臺建築因其勢 정자와 누대는 지세에 따라 건축했고
花卉栽培得所宜 꽃과 풀들은 본성을 살려 재배하였네.
驛路何須勞跋涉 역으로 가는 길이 어찌 산을 넘고 물을 건너랴?
還携琴鶴喜相隨 돌아갈 때 거문고와 학만 가지고 기쁘게 따라 가리라.

277) 원문의 '평이'는 평택에 있는 평이당을 가리키고, '근민'은 오형묵이 군수로 있던 익산군 옆의 여산군에 있는 근민당을 가리키기도 한다. 중의법을 쓴 것이다.

278) 원문은 탁(託 수제비)인데, 문맥상 탁(託)으로 고쳐 번역하였다.



부록



평택 총쇄
平澤 叢瑣

제13책

영인본

見鄭來家書有所思	晚登南山
遊望漢寺即事	城道即我韓別見之事
次白香山韻賦即事	藥園採菊有吟
夜坐占韻得一律	史應吉祀酒物
獨坐五柳館遺懷	憶石醒有作
有所思	曉坐
夜與柳雅對坐占韻	排悶
謝日人上成宗直	懲勸官屬後詩以違問
將應告祀	登芙蓉山二載
望漢寺為克兒告祝	為夜間潤疾之資

秋序尚稍客懷悠悠	途 命路過虎堂
櫻山途中	天安店有作
木川途中	過清州地坪
金養界即事	公州某院止宿
錦江頭遺懷	園下陸即拱北門前路
公州雜曉起占韻字	公州雜占光字
登日波樓有感作	過車踏嶺
過櫻山聽音所	戒歡途中拈源字
園初到運街夜有作	獨坐北韻
答望見書有感吟	吟有數詩遺懷

一日人藤尾惟一遺書	送柳雅恭卿之京
述懷拈韻字	偶吟
臘月一日	賦詩遺懷
病未中柳開閣有吟	神氣不平處柳遺懷
自京第村子一橫送來	象棋分給
雪後	八日甲午小堂
東庭山茶花	叔令筆謂之致誠
恭卿以象棋新到	臘月十二日書判官
謝柳長酒物	夜坐賦即事示書友
因元許寓懷遺情	夜坐

夜啖著根餅	次石醒見書韻
通引外喜龍著根餅	夜啖紅柿根餅
外進宴日忘喜	拈洪校理思卿
有所思遺懷	內進宴日忘喜
張德煥家婚床	無聊縱筆
魏川龍津外健植未訪	作菊花帖
枕上有作	振威菓酒全雅教植未
政堂南窓	通引葦瓦夜在公
府主人元卷受	南陽省規全教官東頰
謝柳長外筆華香英	南至日豆粥剛卸

叢瑣

中和殿奉書送岳	平澤赴任路
石鴨歌	水原途中
大皇橋前路即事	振威外店口號
至單勿里有所思	上官遺懷
五柳館倚枕	嘯傲軒次板上韻
過銀井里奉審洪	省史至西面途中作
北面途中有吟	南面老下里途中
新成里平窓	東面途中即事
各面省史後送事	株得醉石後紀事
春水樓憶石醒	獨坐五柳館遺懷

叢瑣 送平澤即詩目錄	
日錄	
紫雲洞屋價	山下鏡
平澤	除命稅史感恩
以愛價不足	取有知
水閣有感	盧合
福善洞古風壽菴有吟	洪陵奉書後東次途中
拜仙洞數椽喜吟	聽松庄結舊
趙小雲交遊挽	丙午山所有拜
謝漢校教師	文阿里楊雅士臥在
	園卸壇奉書

❖
 평택 총쇄
 제 13 책
 ❖

盆池種蓮	庭除紫檀香木花
登十宜臺閣敞口號	通引升喜龍
紫檀香花賦詩	文道慈諒花韻
升喜龍射魚	郊竹總叙
街庭前種各菜種	登後園遺懷
通序北窓外大口	散步後園微竿
侍童輩多作瓶花	近日無往非來香成
洪校理來見律登後園	獨坐無聊次白香山
勳考谷還後賦得	趙尚書史克祝三登
獨坐政堂有所思	率通引輩扶杖作都原

庭除雜木并披根	歲辛房遮潤有作
送泰卿之京	政堂曾階及園庭
山茶花所種地界	春寒
登後園遺懷	侍童崔正星
克兒以昨年冬期試驗	榜得人素戎取
喜山茶花符書	升喜龍時未虞美人種
庭除年英花始開	官園日前所種杜鵑
嘯傲軒庭植一樹紫檀	是日題庭除
卜道義非性成歎	吟得物化一頁
醉石既安置	街後園紫臺賦事

奉審三學士褒表壇	歷訪松竹里香盛果
露積規路指言宇	過小北面新樓瑞玖坪
東堤里社倉有作	院津津吟舟
少慈勤孝谷	那有八詠
與石老共嚼薔薇煎	十宜臺十詠
對薔薇花賦得寄懷	升喜龍以余近日所得
與石醒對噴香魚蒸	日長庭院山鳥下廳
與姜泰奉簡秀	年登十宜臺
登十宜臺	東庭海棠花
近日園臺景物	賀姜泰奉大人壽宴

喜石醒來	西事終日淋漓
泰卿自京來喜賦	十宜臺晚春
遊聖漢寺	獨名寺贊賦其事
蘭亦北那難得之物	通引升喜龍在正星
與石醒對酌於醉石上	要石醒共上十宜臺
浴佛日盆池蓮芽	與石醒坐香磐命酒
醉石樽座欠飲	閏石醒甚哀而賦一篇
賦道工事粗復日人	十宜臺香磐并刻名
日涉園故事	伴石醒及方五街將
秋八里途中	因社還未分齡

命翼兒處試于聖漢寺	癸卯正月七日石醒
八日甲子立春	住在咸安有輪行冷氣
兒曾來采南山洞	送興
十日翼兒生日也	送翼兒還京賦詩遺懷
頌天授教皇函谷	有所思拈韻
上元前夕	上元夜
因即事賦詩	賦自致詩拈韻
礪規途中	天安府早起登程有作
通德平表境苦惱	唐亭途中
少慈瘦樹山城有吟	登月波樓次板上韻

大霧賦得	春雨
嘯傲軒東庭排種	見石醒書有吟
千秋鄭志喜	泰卿自益山還
種松賦事	瑞香社冲蕭首生在一處
修祿園中雜卉分種	緞姜泰奉蘭秀問答
先考生辰日在外	近日感果尚未差效
與長卿登衙後同遊眺	泰卿而余歡舞
話鄭昌寧表地來訪	桃李海棠等採取
望漢寺前留詩戲	此近社鶴花
洪校理思鴈來訪叙話	喜柳守門將政堂來見

十七日是壽孫加冠	升加德健夏
與書士有對坐賦堂	昨日之雲已為人許
與士有恭卿賦詩遺懷	臘月二十二日克兒
牙山大洞舍雅建植	更應告享艾嘉山利
送別李判官士有還京	程也後諸般事務
去寅臘月二十七日	有所思賦得一詩
有所感	頌日規坐
癸卯正朔	首書記供未酬湯
少長元為強福床	鄉長朴準華歲歲床
次白香山韻	歲初至天

靈隱寺觀賞有吟	瘦樹亭次板上韻
公州節帖上	錦江乘艇賦得
廣寧府宿所夜賦述懷	院坐途中道問
富上里途中	礪規途中二載
天寒懷痛多般嘆苦	日益山上約事有感之作
有懷偶吟	是日心緒蕭蕭排遣
送柳慕卿之益山	草木荒蕪二載
道話曹同知東承有作	治園
釋奠禮畢退坐	社稷大祭禮畢有吟
夕間侍童崔正星	春日即事用白香山韻

世間萬事啼呼嘯我有一歌君聽之我生之初花正好我
生之從萋萋草花正好云如何故惡舖戶東風早萋萋草
云如何況光轉時人已老當時泥地設多事擊聞之寢情
根寄吟吟二落沃魚釜恰聞藍風倒平地清水黃塵迷後
前何人不化麻姑仙吾亦生且老於其間白頭非復舊紅
顏人生不及時那草笑啼悲歡煎煎有發發之為歌歌也
嘯慈慈狀阿誰照不如消引一大白濼濼背千萬種積
寒鴉叫去去空鐘唯見紅塵暗九百

水閣有感
蛛絲絡白蟻涎青滿地苔花不掃庭為問清冷閣下水八

州古彭澤偏宜閑通養萊雖自是漢文洪度大不論李布
寸刃無威波清穰仍冒受洗心南下鳩傲滿莫使長安到
雁更一應一鶴簡騎徒

工業所設設死遊會社感賦一詩
供奉分司二十年呵嗟一瘦切素田誰知環轉無窮已又
費園遊幾萬錢

以屋價不足致有如下之 盡分力解有作
吾君薛薛與克仁 教誨諄諄福若春區是何人承有此
松亭輝著 漫恩新
工業所感著之作

惆早
香樹下置怪石
日涉園
早餘過雨喜甚口粘
往問鄭昌亭病卧
後園古子新燕
得月色致佳
是夕石醒步月
庭前金池蓮
送怡孫運京獨坐
登芙蓉山口拈得生字
觀祝融路修築過雨
鴉鳴必雨今果驗
鄭守醒閣教來訪
和三疊詩贈守醒詞伯
初度日與石醒守醒
又疊前韻
唱傲軒共守石而詞伯
奉贖守醒行懣
德三行

日涉園所存竹樹
日涉園置石床有作
喜海棠見開
午與寶從上十宜臺
倚石老訪姜春蘭秀
日涉園石床
每為消閑得
午後十宜臺樹陰政好
次題呈書整閣接讀
東庭來芳之中
春開自南山洞芍藥
櫻桃香新
樹影穿淡茶樹
詩境刻成題一截
見崔正星皆床
石醒尤原強來
喜怡探來
喜怡探來
怡孫醒禮利成後喜題
灘邊堤觀獵歸路

拜仙洞叙阻喜吟
行行喜見洞陰那苦被人留帶雨忙上載結還微下里前
宵警眉稼稼登或深或但趨迎進社老漢明真廟堂而我
年來初有事融樂意溢盈

西句 山所首拜不勝感愴送一篇少抑傾廓之衷
久矣吾行七載今無從涕泗欲沾襟蒙苑有痛天因極寸
草無知日已死慈子班來真起是柳家寒食只傷心隱思
循虎空餘石塔見慈鳥每繞林瑞慕只恐暗雨空典刑空自
仰雲米嫩松掩遮胡無茂花大摧殘護見使難盡如心守
塚尸忍能猶笑去祥翠餘生沙露知無幾此日後痛恰不

裴曾此幾回得
洪陵來客使吏改送中丘號
電軍氣氣越朝歌奉審 仙却仰德元說何東州何處是
光州秋雨抵黃昏
福壽洞占取壽巖有吟
青山曾擬牛眠場經過登臨意轉傷而寄而歸都是幻不
酒旁想善喜歡
總標庄話著
我行阻隔七年今雁拜兒張喜動心豈是常若歸未得近
業乘痛又使壽

把塵刺樹何似佛思生世世此身存不欺鼓望青槐或
盡命惟思台首言司宰監前度得所如新受賜大開門
聖節問安 賜糕飛受送出志喜
五色雲邊玉殿紫丹輝拜舞賀 恩洪賴推海嶽為 君
壽大小臣凡度祝同
平澤 除命秋受感恩
聞命驚惶我問吾人微才劣誠無急百里分夏一已幸金
章稜下不離紆遂今聞呈生光彩委典瑞瑞湖茂報園自從
南移金馬郎無由保赤交度時政拙心勞長鏡壁惟思也
合汝我該豈意 鴻私倘我有煌煌花誥權分符况是茲

裴琦設選平澤郡
詩
裴震洞受價 由下幾秋受有感而作
性真吾亦與人同不敢貪天作已功衣君之衣食君食項
踵生金老此躬君有餘第入雲成報茶 鴻私君已多况
當故苑補天慶歌頌同歸而忘河圖丁致力思彈竭節辜
夏公昔講磨崖謂仁天覆我偏憐憐飭下買愛殘微軀斷
斷亦他一珠涇陰陰曠古千秋慈無由何嘗受問家感泣
彌洲天政政懷憂何由故只為家無買亦田傷哉身計拙
於鳩作此無廉沒和泥吾堂全味辭受養壽常亦解省愁

越廷來趨走足承當即以舟津渡一旋使東方
上官迷悵
有陌殊 恩渥本非尋常况分夏廷元那任命歷三秋惟
恐才靡速恒著學無優我期其五柳十載或行林
五柳館倚枕得五律一首七載七夏
緬憶曾聞記人言慣耳餘疆形如斗小村樣若棋跡山自
芙蓉菜川從軍勿除惟存風土及忠孝未嘗虛
令人不及古人高偶得彭城氣欲豪入境先占舒嘯地笑
蓉一抹是東皋

白沙津畔楫舟波動詩懷賦道量新等電機改舊排老斃
懸絮蔓迤照曳漢澁凄淡寒邪邇林疎聳翠壓
大皇橋前路知事賦得
越朝風露冷以進大皇橋未極黃無際松杉翠有龍出衆
嶽斷折似喜招邀雲暗天將雨藕惹一醉消
振處外后口號
夢罷燈明滅雨聲枕上惟支未知境近鷓鴣覺裏回異俗
紙難割治現自不反彌輪雖是素臨事數無嫌
至軍勿里有所感
行行通沃店云是郎初張長浦橫帆楫手却愁榴棗羅丁

謝漢校教師清人藍符胡文輝同者因唱酒三載
一點靈犀照兩情故來相訪若平生曾聞海內皆兄弟莫
問吾韓與爾清
申勤勞手向西隣種種天香蓮頰津從膝相酬或我臥裏
吟風味一時新
兒服常說大人風揚燭容燭不自功宿世奇緣知有素何
須今日點靈通
園印埋春審
長安大道如青天瑞日紅掛終南巔能解閑行圓無數覽
迤邐與吾多馬路過 皇壇門通閨園印新等何崔荒城

葉省拜缺行單職穿護軒軒粉百餘全明當西去那將返
只恐忽忽歲月駛
趙小雲史述說
隔望為情托契深前川明月隱虛標故來兩空留佳句每向
西州寄遠音會少別多難可恨才高數塞最難輕靈運欲
致泉臺懸珠樹庭中有寶珠
文阿呈楊雅士分庄口占
蠟屐金臨越卡初阿成遙指故人居春差岳毛雪收整蕪
籍村容水抱虛已有前期路路要仍知宿契昔年餘茲來
別拜無相贈短吟留伴學聞書

將濟眾我光嘗
嘯傲軒次板上韻
五柳憑川號這寺陶瓦窟窳榮惟恐吞思重敢忘初村俗
農多預備風物有備欲數平易改才題奈懸旗
過鯨井里奉審洪學士墓所神道碑有感
志義曾欽賞日星院利無地拜英靈收編且且如天榜補
愍今朝感涕零
省史至西而途中作
新舊今三日用行馬省史原步山轉少坪穿浦交回承英
貞志著聞狂烈孝魁須博生理簿各有保付保

個游魚細浪吹
南岡如帶復如眉一種天戎拒芻宜樹矮墻他人莫說事
簾花幾坐看時
鏡閣庭園一式寬舊未閱曠太無端行將種林坂餘地肯
笑彭衙是冷官
對策香檀不記年亭亭直上拂雲天鈴堂得此多顏色鬢
鬢長聞五月蟬
五馬初停二聖嬰慈見解何上眉橫倚人休問京解衙是
小風浮外太平
箱中藥餌帶相隨常沸奇香聞細吹分付官僮煎得善枵

養蓋取諸喜樂性之謂非致功不疎提提密衣裳明明王
者堂洞閣人盡見優臨德彌彰固足躋丹城歌頌起洋洋
臣今躬睹威敬換清河章
平澤赴任路謝知善米親
傲裝明發去天匪偏前諸君惜別離穉好舍盈言有味人
之懼悅不須知
石陽歌鏡
起裝將赴那早出國西門行伴南天鴉役得北苑藩奉而
仙我重榮耀幾人存報答丹衷在所能不素珍
水原途中

此去天三百尺風帆飛度應低回疊石鞏固功萬全其會
有三其體圓制度極宏 明堂个造化難窺七政臻 吾
皇大道當天心祀祖南郊尤克今合其神祇是或前明牙
神嘗乃君臨在外六年今矣洛明時漸員子表後忭歡奕
衷不後人統壇迴忘日夕
中和殿奉審退出賦而記之
天有星營室北有山玉座 聖主承天地宜思居位育猶
歎我大韓堂構厥謨究有從肇基後遺以 聖孫安重興
四十年百度不倚偏太室儀軒轉四門基身玄聖宜居廣
居維始在今初和煖其文矣萬萬莫大於肇錫中和守名

閑塵障雨過初帆橋遠浦隨潮出詩律前村覓酒疎尚有
客愁消未盡適者青山故自如

天安店有作

殺何役役慙成歡復悵揮手野莫端老且宜休空自負思
惟常騎馱由難鶴巢尚侍聽三唳鷄旣肯隨爭一餐身分
誰知今日事黃花對酌宿天安

木川途中

霜華曉未重氣冷怯衣使紅葉山程錦黃花地鏡金川清
魚可數林古鳥空吟有景人無伴孤懷慢自派

過清州桃坪

蕭條秋館裡或思果誰知殘菊香猶吐豈務勳自持消愁
頻嘗酒遠興浪吟詩聊以慰幽獨官閑少暑時

秋序句稍客懷愁悵倚嘯傲軒賦得一五律

吾秉情趣少安分外無餘要路多艱險靜居易卷野山茶
呈眼惜因對心虛且與秋光滯幽懷得又據

廷命路過虎堂

蓬與伊軋越天晴一望郊原路轉手經過尋真吾所好居
人指燕古彭城

稷山途中

牛宮取柶野人居未春豈登滿瓊階老畫吻筆霜落際洗

歲月消磨一再行江頭未盡老風情適匪曾慕遠名蹟彭
寧運者冒寵榮天氣蕭疎人易感山容黯淡畫難成故園
物色憑誰問籬菊應知自放英

因下陸卸拱北門前路此是前日雙樹山城有感作

較昔如經劫著條一望中世機隨手變人事轉頭空古木
烟猶絲孤城楓自紅老懷消不得詩句酒連篇

公州驛曉起占醒字

雲黑風蕭兩欲冥珊瑚鷓啞啞亂之悲誰思夜夢忘先後心
眼惟存見石醒

公州驛占光字

經過多觀聽何好醉程誣耕牛半已播種插插方收稔歲
裏情恰清秋眼力優從茲相慶喜元因而無憂

全義界卸事

送天叫過馬銀橫一簇疎林夕照明沽酒人未眠鈎吹沈
來女起噪鴉驚過那木棧杖聲滅滿道羞花宜足輕老盡
物華如畫裡此行隨處寄幽情

公州茶院止宿

一燈紗籠夜我思轉悠悠老驥千金市元龍百尺樓如何
迷出處只自感行休明日錦江上運著見白鳩

錦江頭遺懷

澤破春更誰解好至介後復平

東西途中卸事

觀風隨處此徘徊楓菊遲多遠興催橫澗石橋沈積積緣
原村路亂柴堆見與未慣見驚走對客生疎女避回故志
傳東江浦望斜陽一幅畫圖開

各面省史後述事

化會攪土蒼蒼擲洪纖巨細珠十百上上黃壤雍西開元
元者山蜀中積我夢三刀才小如乃古湖明之彭澤那本八
燕秋又無賦將巡視躬躬十里西東東南并三災水損
嘉風亦苑中更有芙蓉山一奉之小高益人憫嗚激新開

北西途中有吟

橫叨承通之奇數值豐空原脊嗟風損邪頭惜水融害者
盤末末酬答案翁也慮分憂地那能濟歲窮

南面老下里途中

新面江山望裡晴所過指點過邪行魚盤已辨商規定楫
春渾看福事成難沃雲雲連海氣安清風色帶湖聲錦筵
幾處村隣近故熟方欣賽社情

新成里午憩

午憩從情那更迎老村與此一橋橫新炊積粒沈沈清供
饌肥魚潑大明兩派自三分那管千帆爭逐萬家生山額

熊起靖花間散膚猶壞恣使隨淨找純明瑩乃一石床子
而有二刻字前所云云是嘉活會得蒙馬印蒼臺史淵明
如復見不覺拜而跪顯晦自有時怪秘若相僕一舉得兩
蹟我心光然喜姑今安其位東西對峙時芳儔也不孤評
品可相擬此物於此那無則反汗恥求思傳又後嚴責自
任已

春水樓憶石醒

今朝春水屋招恨憶聯珠陶柳因成蹶掌捩馬底陰飛遊
難得伴君醉不成吟那引角題字除煩淨洗心

獨立五柳館遺懷

邱治類觀稼亭謹古蹟曾我手編與我嬰疆形果熟今日
擊雖然亦足吸吾軍控引陣境四無陽者環牙捷踏棋形
自濟成原橫帶格山川名畫一室中直是瑤園九幅城譬
如四海皆兄弟莫設區區分主客官閱公事付成松竟日
而歸聊自適况有池州之所無五柳館前一醉石

株得醉石後記事

彭城與彭澤種種多相似有稔醜五斗去家亦百里獨有
不問塵管人非微士猶能志嚙吟托物寄自以花故東籬
我桃思北憲倚傳言有醉石今不得見美若有天誘然若
欲搥而視先得一足碑前使事蹟祀誦又聲理鳴桃之蹶

夜坐占韻得一律
 藉惠冷氣遠衣裳數度笑勤功最良擬結霜花風借力虛
 明堂歲月文光歌贈得三奇誌字操仄成萬壽看來夜
 恰字消道法酒餘考檢舊美囊
 史應若祀酒物一床供米因賦詩
 年年此日賽神辰具饌供未適口珍口林林苑苑無以報
 詩留得試嘗新
 獨坐五柳碑遺像
 陶令曾過地依舊北江山景物詩情通從知官事閑
 憶石醒有作

晚解憂歡有吟
 元天下事蓋由時勢利無端互錯推思究衛生新制度也
 難水鮮抱群疑
 次白香山韻賦初事
 斗杓初建夜一氣不相通山後前時碧楓持此歲紅紅
 駒景短落地堂花散梅梅消息這恰好敲春刀
 藥用秋菊有吟
 微霜雖異卉花繁委地黃金難護根委殘冰艷猶生態
 死幽香欲有痕馨英自可除烟累作枕端宜療眼昏會得
 陶公堪採摘休嫌今日杞盈獲

尖須知塞馬翁
 或歡途中粘源字
 凄清秋氣冷衣襟寫景新詩苦用心滿園菜莖甲甲玉排
 籬菊菜條條全木概黃雲屯纒卦楓如紅錦披山林收量
 自有昇平樂短笛橫來石徑深
 因初到還街夜有作
 外半趨秋拜二天澄清室化望如仙四宵計日程三百七
 郎歷坊戶十千過野嘉禾方獲納登揚習酒任用從古人
 出半推平易自願才陳老且憐
 獨坐拈韻

風風尚土類覺德也彌光所願三千戶境開廿六坊雲間
 龍岳北枕抱錦江長鑿輝中經地翻茂帳蒸場
 登月波接有感作
 翠華想像空山裏玉殿虛無野寺中過境杜翁先我得一
 秋懷儲古今同
 過車踏履
 融寒心獨苦可笑此類過嶺後行人夕林疎宿鳥多雲山
 圓碧響霜葉勝紅羅堪聽斜陽路後先相整歌
 過樓山瑟音所全礦處有感作
 翠華滄桑德望中居人自此有秋空世間名利真堪笑得

年相對一燈明共有氣祭金蘭美何用區分水醴評病枕
 長秋雖暮况心田拙筆難堪料
 排悶
 物盡人閒八嫁婦自言無復尚平烟官居每均慶元社年
 老端宜聽子孫宜意今年世故半聽經送舊又迎新厨下
 息空中儲主門前續呈代柯人家人望我速回車柳春柳
 東帶一書吉日團樂情所在尊章主管事何如荒年稅務
 亂如麻期會忽違亦已多公後私先吾豈敢此時抽暇未
 由何人情到此作人難惟有長吁與短歎杖藜天復贊
 先走深孤猶一燈寒當時懶不飲食泉安用葉林載石輕

霜樹迢迢接別顏沉雲飄空惚情閑許多徒有相思意莫
 可攀舌夢亦頑
 有所思
 里四堆一氣霜霜北風寒太脫山容瘦未收野色兒樓頭
 華髮短拭目眼花殘節物時供盡唾余不忍看
 曉坐
 曙色微微空意深因時俯仰欲從容城邊古寺長隣近却
 聽着牙吼曉鐘
 夜與柳雅對坐占韻
 孤懷月下日增生朋自雲山是春柳莫送大貽三月但忘

拋枕望行來合趣同自憐天壤由誰與割丹衷
 晚登南山萬松蒼鬱徘徊有吟
 探者幽勝此徘徊蒼鬱松日轉路隈根花最宜官舍柴餘
 拙懶待檢標材動龍日影陰初散暮瑟風聲韻自裁今我
 年來同是客雲鬢何獨老坡催
 遊望漢寺知事
 天德前前一道場東頭野潤挾天光圓通佛相梵宮殿頌
 禱 睿齡金字煌輝沼如迷回音波浦居還擬漢慈航且
 者諸子題名帖料得鐘聲飯後當
 城道即我韓劉見之事測量所經處羣情疑感莫可

後來千載遙思就陶君醉石堪跨躡碑足考文因人
 稱柳老過境度檀芬毛毛多奇勝那無得趣欣
 答翼兒書有感吟
 淵明師表在聊以古人謀家信藉鴻香卿心落葉慈省躬
 良可笑從宦只堪憂形役無終已白頭頭白著
 吟自嘆詩達懷
 人生云百歲七十世間補定睡精神耗經勞筋力微老頭
 無足歎病且不為非難快雖兼味運多口興違
 見鄭東家書有所思拈韻
 莫學干名者時時既省躬德宜遠恐盡福必享無窮分外

有所思迷惘
聞道家鄉聘賢士者松竹喜相連龜息極通運寧妙蒸
心抽出來非聖意思不如常人九人聞未赴者三汗虛糜
形役堪悵恍恍到彭城覺乃先
內進宴日志喜
聖德巍巍禮樂區區呼奉祀來 皇國小臣曾有仙 息
符德吹風雷宴宴雷
張德煥家傳床
大禮順成此吉辰供余酒饌一盤珍郭公不是要婚者實
丸河曾出驚人紫鳳生來野天取青鸞飛入卷朱休總由

夜咳紅梅嫩筆
彭城孤宦者六十九寒窗當供思運簿經宵睡使空眼生
雲并露耳得雷蒸風潤靜惟長物牛心似顯功
外進宴日志喜
金門此日進難攀瑞氣祥雲覆人軍冠佩應趨朝 北關
臣賽送望祝南山來第傳進同相慶歌樂張未勅賀班草
芥亦知克與世願推天道壽 君運
詒洪校理思躬
曾過達達訪大家識荆今日意毛嘉清話如風風動竹對
君疑是泛虛槎

生元空將准簿弄標紙首後安在堂堂身賦如灑四非分
內膠不更張豈若圓陽春一變霜風起沙沙紛紛出不已
只緣去舊故生新莫日奪彼而與此焉得自由任屈伸妍
媿美惡不問人使我首無官守責一笑何曾復一頓見事
風生不復得思將再遊桃源春人誰無過者能改尚望而
曾有詩新
將應告祀酒福床入來賦詩志之
收餅蒸豚雜菜香口甘牙滑通初嘗珍富曾有慈分道不
及道堂此日觴
答芙蓉山二載

氣願師出吹暖律首花聽鳥度餘年
謝日人土岐宗直給子一桶新鮮鮑二桶見饋
文涉從來作至賓榮居願賜謝難陳如非秋惠者珍味那
越新鮮鮑飛津
德勳官場後詩以道偈
老成只餘空洞骨除非太甚皆能容譬如經秋霜後豈收
茂虎豹吞虬龍白首南來未小鄉臨民師更親如傷武城
到鶴非敢擬蘇池烹鯉七何妨自從入境心欲折故將口
舌代香賦才者相背終恐懸黎難入帶處慶借道公債
積如印相視怡然不少夏朝朝伊始今既望簡書相續漸

枕支成向裏鬢夜宜冒腥聞風送吳孔繁斯亦養老實隨
身最親信又一贈柳君用之助聽敏
枕上有作
失眠常自惱便外喜猶存編緝鷄鳴龍踈林鶴唳噫禽憐
食尚冷量報酒醴滋強起志言坐扶策早掛墩
張成吳浦全雅教植來霜
風雷軒上送君時別話丁寧後期盡誓爾日須真樂性
事慈慈夢幻奇
政堂南窓本無遮限之具以日前賀未木製得一帳
西遊之始無外風直射之患寢睡所得此筒稍勝是

天定宜家宜因吳從者福履其
無聊嫩筆
可憐時序遠却老更無方請作翁吹火思博僧暖香霜寒
度索酒酒熱請酌嘗因病常吟苦極唐也不妨
顯川龍津外建桓來訪夜話
聞君備寓地此距水之陽寄梅心欲折坐穩笑談香
作菊花枕二篇一給柳春柳其後連枕試用則明日
之效姑未可知其者更甚宜於胃莫為先可喜也
我來洲明郎喜見東籬菊居常不可無有似坡竹竹畫畫
到說香摘取霜天趁度之欲其觀甚如履其近養作青囊

越嘗新不負吾
夜咳著根餅
著根搗粉合效蒸十字割分重七疑一味甘馨牙齦滑能
令老氣覺新增
次石醒見寄韻
若憶黃亭全石醒劇故豪諫轉頭空嶺梅未著詩先到勝
似連春廿四風
通引朴喜龍著根餅一盒供來意甚嘉尚有作
俗傳戊午賽神期獨坐枯淡夜久時憫我倚重炊餅進非
真在物意推知

風蕭龍蛻轉挺靈芙蓉肌內露髮形一拳之大占中野迹
拱環峯送把青
勢展結城主銀靈虬龍覺得老松形幽人偏愛青山好為
爰青山不變青
望漢寺為克兒告祝
來到空遺現在心烟雲供養想幽尋權願棟宇丹青磨
滅彌陀歲月深髮疊千峰園曠野鏡開一水護疎林僧居
靜寂憑誰話却恨無因聽妙音
為庵間潤疾之資送買皂浦掃子五十箇有作
物品隨輝產各疎林園未幾八棧俱忘思潤疾無其術為

擬蟹蛤詠病間似得誰如此煮心
神氣不平登梯遂悵
公暇初靜爐烟爨家樓崇樓者不綴翠竹舖偏生堂壁
天低野霜深鴈叫城有誰未聞我風烈少人行
自京第村于一橫送來冰鑽在傍人戲題
自武家來一橫柑擬者懷橘意專既故教何寫成分嘴滋
味運多養老單
象棋分給韓昌浩張德煇使之刻字有吟
不思人苦斷刊成抵級眩榮故忘情遠程及攻權所在運
機隨手費經營

瞻雲氣需新畫擬占星芒裏蕙然令人嘆大驚彌天極地
喧轟轟其勢震盪床足抗其威快裂門環鳴鶴以大風兼
大堂高疎閣閣飛鳥絕此地無山之候暖有雲前曾見現
減居人生長老白首深至尺餘今初有不知今此靈風雷
一時并至胡為哉忽若玄冬行夏令翻是上帝警人災此
事無由問着尹疑懼彌襟不可裁呀兒見紙題一則休咎
何居觀下回
東庭山茶花數叢植在老大幾百年株七花冒雲間
， 間間着見其奇愛月東坡堂中山茶花原韻知之
山茶本自為誰栽種樹人無我獨來神品能知余所癖故

凍雲欲卷暮鴉啼望裡青山便覺低官人際至鄉音見多
將前宵夢到聞
賦詩透悵
飢飽暖寒自適然人生常若歲寒情堂中冬栢春應晚霜
樓山茶境轉鮮爐火篆香增布置錦食紙帳任周旋陰今
如對黃帝老餘酒談詩與更全
病未中憐閑閣有吟
莫欺今老矣些些病未侵風眩空作菜如何日常尋親押
如知舊那堪苦自任眼瞭發有字手痺休攪聚成食全無
念切寒機重食何須氣飲滯無妨近事瘡靜思成一笑故

靈後
瓦殿悽悽晚風微天注雲低堂欲飛緬憶山陰乘興者有
誰為我載帆歸
八日甲午小童子初到雷三聲大作丑初刻卯正刻
并地動考聲振動門理戰戰作聲大風大靈終日深
又除此皆非常之候也靈然以韻語志之
七十人間雨露天烟花無堪畫如年一寒一暑幾日月時
晴時雨而山川溢以金膏詞玉燭三元六氣曾無恙宜意
運來水何旱時氣非常不似前通我而末達此會而文而
眼憂心煎饒望不眠成晨睡是時尚至之深冬戀 關思

先不渝毫寫用無涯何必潘却友堪副道與資
高陽者現全教官東類此是墓下居人也幸讓順宗
即墓直朴晉伊之侄且驕軍四名皆本洞居生云故
并令公當供饋朝夕有吟
朝鶴南柯報有神喜達賓帶洞之人旋聞光耀棠隸且
感避鄉慙嗟早啞學心機要務安說傳時事得詳真叙情
無暇人難合草草空錫愧不珍
謝州長朴洋華香莢
須知度我贈遺函一束淡澁細功而吸吸痞消者遠莫神
藉籍此倍新之

送柳雅恭御之京
殊方駕別緒老又送君難去路程猶過離亭思欲殘殘殘
愁旅榻風雲凍征鞍後會知何日那堪歲更闌
送懷拉經字
老去長為客辛酸已飽經衰筋扶策解故舊若農星亮木
風難響叢林鳥易聽誰知心內想意馬到黃亭
偶吟
六十九齡翁寒暄付與公暗看梅觀月清韻夕交風度以
緣愁或歡因得病空官情隨日薄懷緒有燕中
臘月一日室中見家書喜吟

可喜也戲題一詩
睡枕寒肌冷不春生憎風射感精神自茲野捲從方便暖
對梅花得句新
通引葦風夜在公頻有苦寒之狀故余二件製造一
給通身一給侍寢者深苦吹欬然以為從此免於凍
死云可憫而可笑也之口呼
何人僅卧笑未安我誠達生腐覆難那者侍童如蠅縮布
余猶足禦嚴寒
府主人元容愛持贈蓋浦硯石一面詩以謝之
形或為玉比蓋石得心披難辨瑞溪潤非同品字奇墨磨

南至日豆粥酬節
玄籥反飛自有孛天根轉磨一陽數古會八蘇慈均度俗
稱亞歲見春趨表驗年形移日晷化臻春信動花姑須知
萬物方生始老去如何寓意詠
日人藤元唯一遺書及卷烟一封又有驕子歸余之
托故依其言借送有作
昔年萍水偶相親青眼深源深不厭類自是說交成雅面只
緣公幹接芳隣定知海內曾兄弟莫道軍中有越秦患我
投分非直物感君高義許心真病憐借來留珍店神達靈
年照兩瀆別披吳洲十里月首回依類記今辰

欲觀雲景命使鉅去僅通得路與李士有步上後園
 遠近眼界潭是銀粧玉飾探而推一條帶白中之黑
 橫亘西北界認是軍勿浦也賦得
 天蒼蒼非正色地皓皓無涯眼目好其不能矚口呆了不
 敢言一團團白塞兩團相似之野相似山太湖三萬六千
 頃伴鯨鱗倒浸空運兵剛修斧斫柱玉有銀花送下吹
 逐令萬境無區別打成乾坤新開時感原牙櫻四望同不
 知誰是吾州地此堂若處作米登虞財可阜免封此不如
 只道眼前景益遊奇絕罕生齊烟九點何能罩海日三
 竿不用明今日解能從我道事居士有示高致差擬采取

朴加德健夏間曾於振威銀舍金正克家故日昨致
 書問之今日未訪溫話晚時天欲雲金與李到官
 枕之甚苦而謂云貽契期於發程甚恨也因有吟
 同是天涯客相有眼忽明叙情翻作夢堪笑若經營
 總事士有對世賦堂
 冷艷隨風空裡除漫空吹滿落粉華幻成帶障千堆玉奇
 著枯枝一色花夢秀預占埋入地梅飄飄錯認天行沙瓊芳
 不是空牢物頃刻粧成借眼看
 昨日之雲已為尺許而終夜不止至于今朝天低雲
 暗紛紛霏霏若傾瀉樹木壓摧者甚多其壯可想

留接于春水樓賦詩致歡
 知舊雲山阻會面茲有時驚覺遊仙夢覺然到天涯訪我
 非偶看種子及成悲少壯如昨日今焉髮髮衰今日復何
 日歡笑坐披連閱懷共話舊却憐此身驚視髮伴伴約那
 負正卿期風雲嗟歲暮筋力不敢持床梅春已滿重違復
 莫疑詩成連呼燭酒照臨觀棋人生能幾許不樂更何為
 情緒添香篆風味亦在茲
 謝輝長酒物
 老宦天涯又一匪喜音之子日奔趨餞頭浮熱并湯餅勝
 由知別佐沃膈其用意無此勝也於回想不承過乎豈真

教紅樓堂中閑
 奴今輩謂之致誠餞餘需謂以歡福倒連因口吟
 城頭古太守君堂由例閣人走映者黑先吉祥說得解年
 豈時憂及昇康
 春卿以象棋新到填青紅者待未因相與戲賭三句
 排分西國掌中麾俱得隨機應慶奇對墨縱橫爭戰地不
 勞金鼓快心馳
 臘月十二日李判官基種有幹陽城委未訪我日聞
 與劉視川約以二者偕行而臨發陸德不及聯驪云
 此乃稷下莫逆之舊而有此天涯相聚喜不可言因

授詩句侍童對象棋歡娛唯實事後役更何為
 吏應告享芙蓉山利後飲福入來故與士有恭卿共
 之賦一詩
 山頂靈祠古已陳吏民承祀連因循森羅叢地埋壇址算
 軟平莎勝錦首微福必從格于爾垂祥點佑感乎神眷情
 齊祝供香願頌禱何由及老身
 送別李判官士有還京
 風雲那能返相者暗新視強排呼酒饌莫若送人言恨八
 茫然惜愁隨正爾煩羈懷多未了從此與誰論
 推也後請敘事務終之為一詩以致客懷

龍門賞欲情長柳苑園記龍中別有堪蓋慶寓浦一帶分
 而二寄語滕六成三白明年以堂為上瑞
 與士有恭卿賦詩遺懷
 心靜身閒得筆香細勒碑消愁惟有酒遠興莫過詩雲釀
 雲今日梅橫春一枝情懷誰共說琴韻有餘輝
 臘月二十二日克兒生朝使恭卿賦功堂漢寺有作
 琳琳英靈善澤惡衆生歸命所無畏焚香思獲神明佑齋
 稊微誠將禮時
 牙山大洞金雅延植耒相與賦詩
 孤宦天涯暮寒燈灑正運家香風轉翹梅影月將移遠客

欣茶沸糊乾惟覺寤靜居何所有簾外每心馳
 十七日是壽孫加冠日也念崇早失怙情今至成立
 之日而為其租者世在避外不得往見老懷作惡自
 爾倍常拈韻遺閱
 衰齡滋恍是冠張固聚慶較得一番消日在心今只備平
 儀表眼倍難護况渠情先人殊異依仰堂閣惟祖存德和
 縱有聯三善忙情無由起九原悲當撫慰歡堪弄定合趨
 期登我棘公務如今方有事情私到此極無言可念老妻
 夏瑣瑣應嘲遠客憶踴躄一事前頭猶在哉未知婚媾出
 誰門

向戒情枯淡多謝今宵與客俱
 夜坐賦即事示季友來和
 睡少更張孫客情起居專委小方灰品評菊覓霜偏力種
 較梅幾月最清話久興閣燈德盡坐未覺覺皮成殺芽
 鴈叫家十里強把稱驀破萬銀
 因民訴冤懷遠情
 數中刀鎗為文羅其如怒吼象鳴那支爭端角空多事非
 是人間有幾何
 夜坐
 氣力隨年減怯寒強自主粉梅如舊及堂月足新詩冰渴

道無盡劉處幾卜云吉與言及身家諸事靈翁失白過
橫羅丹心致寸折未遠賦歸田尤解而沐泰為先春何忙
轉頭云暮年東望種遠成寒風吹蕭瑟一事意差強班衣
未鏡膝貼紙筆代勞懸孤酌許設及到今夕除懷緒難盡
迷更深不成眠翁乃作歌曰抹抹東籬花持以勵此節如
時姑未當脚與梅為匹
殊方節物時消規檢查眉題卷有痕孤宦每恨阻朋友細
君應專戲兒孫詩又僅有年老得休康初無歲計存成刻
者如蛇赴壑治滄葦葦孰能援

癸卯正月朔

髮星星現世何元元時鐘響獨鳴賦燭現花頰何以年庚
中無脚強抽筆終年做得那欲語者難志斷自全馬城公
務未及年思忽遠過歸是歲之秋非敢請准傷因便
先此索柳輝苦固督帶榮新堂 淫論戎內征林暢辭天
關長歌行路難數日驅車疾入境如掌平山有芙蓉一姑
性操難請故無鑿和詰若吟披禮趨茶供省廢七邑小真
如斗稅不盈十結按簿查舊新獨在末勒秋足多末如何
吏或作乾沒稅四者及時破責在表率性非素則深語自
傷纖密所賴齊眾心恨固稍稍出欲荒又重之者文魁一
檄傷成民食艱憂思滿日溢發棠不自由減租那可必天

心十載卧津陽

壬寅臘月二十七日有感作又疊五言詩三載

老年懷緒死於秋木落霜寒石出洲一種情根動不辭時
辰強半嘆成塔寒舍青山春越暮明朝窗聲歲將周何苦
人心不我以紛紛欲歸歸辰喜不張則已既張何任他前
陳觀舉止厨供煩能解無魚庭趨塵少仲稱兒對素悽然
下管運此時心事自知之今朝倍悲泣風樹一空相思香
自酒強意欲忘難自抑幽懷黯黯在眉頰今一堂殊氣
候東邊日出西邊雨無首之馬無尾愁故知此輩非善措
人情大抵觸生感萬種悲歡半理聚散榮辱七十年宜

彭城近海我平陸山不蓄當水不蓄居人勤儉作生涯
未滿十結七百我來巧值荒年餘民慶此當自倍於察度
聞聞翰一紙省吏郊野通小車曾經吾有一副規所到運
說欲無虧風高堂積歲將改節屋寒愁最此時兒婦婦歡
蒼綿蓬萊去朝來杜曼迎馬尾字收欲如何五斗推捐恨
未多散分微少湘膠酌大花何傷杜履賦况有 朝家優
老典每當此時道不煩盡是 吾王之赤子仰體慈忱今
髮雖黃道吻非實慮運著塞香與同科走夜詩肩起鏡
型何由整倒銅山城但願今秋得全讓口情烟火益分箱
戶戶家家樞米頻照照雖雖歌唐唐太守日之嘉一事甘

恨老來微酒量
次白香山韻

新眉驚來老半華莫可淹微波動骨并融雪酒時蒼香燭
龍涎碎雷烹雀舌纖羅祥來問歲光解話傾占

歲初丑夫崔漢程子乞叨
歲首花印故託穉手持工藝七相當最中童子无奇絕
弄身才是一場

命翼見皮誠子聖漢書有作

名別孫城近莊嚴刺處時刀神存晉澤德履念慈悲所欲
更誠得由款感應知清齋新歲祝心姓自無欺

歲朝相賀極歡樂投屠新者老更更寫而除凶先辭豐飲
要消病後膏德瓊梅巨耐冰現又卧柳舒舒暖候珠時物
辛盤今日事福和一派自茲數

首書記供未鮮湯固賦詩以贈

誰云愛我者天候盈盤新心既非容易何由得此冰
少長尼馬駭榻床供未有吟

對銀牙沉爽新膏一箸移酒因延壽舉胎固補幾時味別
江鄉有者真海國知或多情意厚脚謝短章詩

鄉長升準萃歲歲床供進多且香賦詩志之
林錦燭余枯淡相為供佳候候神年既官商一嚼更云何只

花生粟久拋書朋儕漸看如星落年少空為與日陳懷望
雲山石醒子如何阻絕若忘念
有所感於心者賦詩遣懷

吁嗟筋力切居思尚有素榆短景飛聽每聞人緣耳重寫
難或字數醉昏凍粟生膚倘索裝射風庭骨有驚視身短
心長今老矣情懷此日與誰論

旗日現坐無與立談者其無惟况可知矣但幸宦而
有泰卿家而有翼見此可云亦足張吾軍歟脚賦一
則又疊律詩願以年庚云爾
官舍似僧居臘月三十日隨例舉重徒收過早已早太守

復中情膏大煎枯淡如梅傲冰空清塵似鶴思神仙只緣
世故隨形役久已新送人間錄五柳先生真我師并其姓
字欲無知神遊一枕風先忘與夫凡月剪東籬千載荒味
乃補似此是種種欲學之別有就中消遣法花禽盡被自
安詩

孤露過生朝衰齡六十九追念幼勞思那堪悲痛嘔
遺懷多恨黯靜寂坐如禪空室雖云遠見來意可憐
石及今安在惟應記此辰強歡運笑我誰與傾清醇

有所思賦得一詩
梅堂靜度似禪居有所思方一夢虛脚氣成痺常倚枕眼

梅堂靜度似禪居有所思方一夢虛脚氣成痺常倚枕眼

蟬蝗更滿志是時樂意猶未洽如啖蔗味漸入佳林參研
豈得備習從中吾欲出不意眼去眉來備供給莫饒徑奏
罷宴曲妙理最在晨鷄更梅堂獎慶作田家揮鞭打黃聲
相促花柳擊節助舞有一時收成十三石頭頭面而凡幾
許頌晚剛勞日未汝具堪絕倒遊手見相顧流涎悔恨語
齋醮一鉢無坐立使佛當之亦應與善戲謔方誰家子一
場德談紛不已吐吟蛙吹動天機好意看未足喜古例
留儲期欲準南風散入家家裡元慶不夏樂承樂今夕之
遊不取實所貴相乎上下情謂我太康無愧怍人散慶空
運復寒梅陰境坐一詩作

京路歷見年今二十歲風成敏悟極其雅正使之留
接奉水樓賦詩志之

天涯孤鶴懷緒正勞煩昨送思兒子今逢喜成派生曾
初會面訪已重敲門何必移南渡算表世業存

有所忌括韻

世事如棋看局磨一身多難果如何城隍自撰魚吞餌嗟
爾浮生亦劇那

上元前夕因邑例許設舞樂及林琴之戲賦事志之
明月滿天人萬壑洲代鼓仙樂旋與凡之樂手中舞託
次觀者如堵場第一名唱中此葉斜風細雨歌春香銀燭

嘉陽和次第者

賦自歎詩括韻

初飲期題柱嗟死到辜謀月縮黃全俸時添白髮愁散材
寧適用操志幸無先驥老非云仗徒而恨不駒

礪硯述中

理策緣歲問鼓角起嘉微雲新孤松隔湖生煙棹歸川水
聖尚清野堂積餘成事酸胡乃已心煩直欲飛

天安店早起登程有作

嗚嗚鷄聲雞晚鐘勞生每恨苦奔街踈星點落山頭月殘
火吹明野舍春霜重沙顏補似堂東天无嗜刺如鋒微官

寒樂歡娛既已陳滿堂爭勝是吾民胡挑竇政那能辟樂
飯炊供警可伸望捨俗傳河八麥酬辰歌唱帶方春夜閑
同飽無其物故祀酒饗茲洽均

上元夜與峇峇卿登後園望月因往望漢寺踏橋凡五
番酬節之戲老猶自在還可一噱也口占一頁

憶昔得柑事已遠孤城燈火樂圓機無由逃到虹橋步只
見供齋望漢新天上清光真放最人間和氣自成揮何煩
勞問身前外脚寫新詩筆欲飛

因卸事賦詩

近日條風料峭寒常推物理以心觀得年不是偏羨老却

亦有未年會只願保留強健身

八日甲子立春是日適值空閒世傳無上吉日而甲

子立春無之真是難遇之奇會也八味先合製以是
日始之似好故命異見尋煉案作先始服賦得

日之甲子空閒展通眉立春星建寅天上一機口令邦人
聞三會戴深仁化將發育霜枯亦老亦期題病瘦身八味
長材尤自連四家明故合成真益庸種佳音羊蹄是以扶

吾瘦杜頓解使當時方試服應知靈丹可圖新
往在咸安有輪行診氣人遺辟邪符試之頓驗目戴
而隨之近日外間亦有怪症出其符以朱砂書一百

風光親辭寒韶景隨天心交委曲萬景趁榮茲

十日翼兒生日也自官厨細床供未午聞蒸白雲餅

沐體書寫史及在傳人賦詩遣懷

首齒繞過四十強生期又見此殊方慙多寒暖吟和難喜
動晨昏侍親末新供冰分玉屑餅舊醅仍酌椒花觴一恒
亞性堪剛世無愧補當始仕郎

送翼兒還京賦詩遣懷

怡悅疎鄉別出門再舟行難云嗟戎獨足以慰感情路指
山千重庭空鶴一聲吟詩回首望愁緒可裁成
順天理麓里園谷村勝瑞節余同婚朴台植撰也上

癸卯正月七日石醒再回甲日也昨歲此日既失同

度故約以今年則相守對酌矣事竟違心落暮東西
兩日又至念積年相依之餘不能無過辰倍常之懷

而且訝其未此以彼歲華云改受音尚寂無乃石醒
思花之功較歌於我之思石醒歟是未可知也然而

不思以石醒不在而產度是日仍令設酌奏樂伴歸
孤辰振子與在傍及摩下共之以終那日石醒必耳

寢矣縱筆

石醒重回誕節新歲慎猶自記今展料知家實無窮樂難
副珍懷未了因聊設醴頌頌管娘故教綴竹卷陽春願今

三十餘張散給中外各人貼其門上弄開厥症寢滅

其果符書之靈賦抑冷氣有時消息數賦一詩
門掛全則初獨樓血模糊懸鬼且走膏背撒如無四隣

聚首賀尼符何神或醫扁不足問五祝及連唱何如不龜
乎大可以封侯所望人不買白頭洋拜愁

兒曹未示而山洞早春詩一頁故次其韻和之
固知春色早料峭尚寒時積雪猶含凍凝水自洋浙鳥聲

如根似花信若數期風氣多才意吹黃者柳枝

遣興

時者春容靜身閑却似癡疎情迷醉眼花信必詩脾能暖

春半程遠六日返雲疏滑沒東西五步一顛三步跌捨
輻種種歎不矣渠輩不念工力少只恨來重路且泥况復
可憎過壩飲烟價未償竭囊緩步當車曾者定可笑仍
便計還借傾如灘上舟載也描似竿末旌懸苦由來所得
添眩累耳雷重動眼花迷若使來者皆如是賞備難副勝
高堤百後弟驅消磨盡經歷誰能齊不齊于嗟苦惱何須
說今馬如夢若仙跡
同益山上納事有感之作
魚網緣何鴈即恩斷身無處自哀鳴要津不解風波急只
道人間太守紫

亦此時今向彭城去能教瀟明郎

富士里途中

他鄉春色早草木摠新痕逝水長無礙浮雲本不恨疎情
空瑣瑣世事自昏昏呼酒寒堪散烟又此村

砥泥途中二截

世路無非蜀道難彭城歸客正平酸東風作惡謾吹雲空
惜行人遠骨寒

何處頭傳吹角聲暮寒遲著疏衣迎是知迤邐吾州界
唱有風足慰情

天寒僕痛多效習若愚之可笑滿引一酌題詩

烟雲清賞好竟詩題罷更含盃

登月波樓火板上韻

四壓烟雲此水頭勝區與廢幾春秋拖藍江色橫羅帶橫
碧山容拱高樓尹伯詩懸編畫製韓公記著補添修一筆
長笑乾坤寄世南華芥作舟

靈隱寺觀賞有吟

危巖掩護勢環并窅冥莊嚴傍古城松檜滿庭常積翠山
河當戶自涵清客閑與鳥鐘聲出僧寂心成塔影明可笑
忙中能有限擊時真當若馬情

及樹亭火板上韻

到老非榮遠應是閩人憶曉涼

過德坪表境苦惱實難支吾有所感賦懷

向身心自問可笑熱中腸無奈騎天瘦那堪涉路長草芽
抽軟銀柳眼着微黃化物春生意吾能却老方

廣亭途中

看看春色早物色望中連水解條風外山明落照前老松
蒼北崖梓麥綠肥田鷓鴣吟盡送巡依看鞭

少憩瘦樹山城有吟

早春物色絕塵埃款客居人掃石苔一水疎如拖白去氣
山梨搬送青未放宮隙地曾年所登量要津亦壯武為度

耳鳴鶴得意橫秋空星官許帝帝悽然北斗一夜東杓
全鷄拍翼叫啞啞起視乾坤動塵塵變燐紛紛貌狀光春
臺無處不照陽有時無命奈何手滿堂歡娛一向偶相隨
倚仗早聞知塞翁中格語者醉歌歌終日西夕呼兒復
引一大白

送柳春卿之益山

今日送君全而天暫勞惟望妙周旋橫微擔責公餘債全
之營謀郭外田更莫助之誰不惜哩無及矣足堪憐一生
謹慎徒為爾未答因思遺此誌

草木苑無二截

有懷偶吟

衰老年來強自常吟詩每為病相妨不如意事翻棋句可
與語人慎未腸天地無情狗歲月江山有恨神壺腸共閱
作伴惟架鶴雀老煮未春味長

是日心緒鬢髻排遣不得賦醉歌行一則以自寬

雨雨風風白髮翁兄弟弟紅玉友長歌一曲醉歌行請
君為我試聽風相煎膏火大因人破除萬事無如酒君不
見青并道子云此谷萬化索鑰年唯仗又不見龍門玉斧
既九河蛟龍走虺眠風波書卷管復亂樂譜石破天傾運
秋雨九十日春少哩風白者不白紅滄紅駭駭盤車驛雨

廣亭店宿所成賦述懷二截

荷擔躬辛自維持貴賤同趨隨分為級道傍觀者好似
安非穩孰能知

寒熱滿戎柱護持二蟲何事苦辛為孰能解識鮑魚鷺伊
惜伊閱爾自知

院登途中遺問

人生七十稀戎年既當之昏聩應表崇風眩轉覺慈老既
不足歎病本尚可治不思歸休逸如何冒寒馳驅雖無田負
郭豈是有營私有預云承之多荷 聖主恩老去怕受賜
一較亦心披報答心似在癡麻畫歲規為人聽指揮酸寒

山河襟帶設榮垣只有空林鳥雀喧龍 御祥雲瘦樹開
風鳴瑞霧萬家村浮生難藉悲霜髮往跡無恙醉玉樽如
夢繁華春又到于嗟欲語徒忘言

公州雜枕上

須知今夕好宿處是江南整衣還早起將為使君啟

錦江東艇賦得

月波堂下錦江彭城歸客波頭東風有翼短帆衝浪無痕
尾舟天際飛來孤鷗波中浮沉聞鷓鴣曠野烟雲四壓列曲
鬢鬢一周揮毫濟筆詩韻復魚神市棹翻斜陽白沙捲地
駒隙便覺難留

將神驗證昭昭
黑白相掩美哉尚書明鑑無私不妨容汝更鳴只
恐星齊雷運迢迢

種松賦事
而我一生好種樹所在口宅無閑土家傳有素聽稼庄手
植無窮廣藪羨新令裁素際悅近我今來此彭城郡蓋聞
地利貴無遺園多曠地者可開乔木請中松最魁梓亦異
日棟樑材寄語使丁董囑感我有斗酒先釀未松是汝松
非我松只留手澤稅使容分付兒童勿莫拜可度凌霜傲
雪冬多人聞此欣欣然一亞先獻出真天獨樂何如與衆

專致密語由深今朝稍懇懇信何日相逢共話心且寬
造解運起感須非折簡致君臨

千秋節志喜
元良初度載重慶 仁孝正知結 聖明 丹詔宵頒成
衆頌 耆官度衍值時亨維新瑞應 前星耀耀望惟同
幸土情拜舞賀班超夫得願非春化少神誠

恭御自益山運所傳多不近事情慨然縱筆三疊
九虎家程全生虎謂我知幾是妄人為得靈臺餘地裕我
銀無愧贊蒼昊

三刀傲更甚生駒飽待仇人笑反鏡金而至今靈亦老不

竹猶堪好韻攬風月寬闊容易得庭園傾室耗手難莫言
方便當前苦敗火須知所遇安

釋奠禮畢述坐
文教宣明象火陰上丁程祀義崇深雍容當座門徒配誠
敬遵儀天下欽儀爾承冠觀古典習陳道宜想遺音吾州
禮化庸人聽所在似同顏謙心

社稷大祭禮畢有吟
閑靈厚地古壇成伊始恭祈齊禮情已著現功補帝配克
明播殖頌神名遺儀杖杖樽聖奠嚴帶物物那邑誠慶國
為民思敢志須知率土禮非輕

園中草木有成歲年去全疎整理功發育亦聞人愛惜豈
宜專恃攝天工

去穢鋤治整舊最收陳培土待人功陽和驅蕩敷榮日備
得天機一段工

蓮話曹同知東承有作
社園未及博雲鵬身分運如愛縹緲知夫憐矣作 珍客在
亦樂乎未迷朋時強送絕舍冰鼠世故類聽過耳地枯送
靜居何所事雲詩餘韻又逢僧

治園
除故博根補社蘭界明彰胡塔遊靈老棍足以清陰庇蒼

修葺園中雜卉分種花竹而竹尤可愛喜題一律一
載
坡師彭澤我師成醫俗奇功與竹多重傲霜凌論氣味風
來日出助吟哦長思考爾成傳里思慕蕊蕤在小阿從此
蒼翁急外粟月明聊復托琴過

陳根宿莽故教則獲得倚竹數竿美日吟風如有感傷
人猶比白香山

緞委春華蘭秀同答
荷君未訪問如何近日差痊病臨展新開花園誰不愛春
常竹路亦有過

樂今日一舉得兩全
瑞香杜冲節首生在一處枝交蔓絡各自不數而節
節七多受困心甚愛惜命官棘林取瑞香杜冲移種
于甯做軒東庭開曠處節首蔓則仍置本地設架束
之於是三種俱得其所世間許多事盡在措置之如
何豈獨花卉為然哉有感而作二截詩

杜冲海棠趣不同節首纏束作或叢一架二移方便好媽
然得地待春風
那無游刃地飯飯人若尋常過眼未誰識不應遲大用至
今河泮老庸才

更向先天者不識如何此等并

春回
東風吹雨曉雲垂濛濛濛濛王及滋鼓瑟聲如聽擊止懸
麻葛若者无奇催花無語施工日潤物多情著意時野外
初生春水滿從教不負越震期

甯傲軒東庭排種十枝松五株拈韻
曉未栽植復樹園老盡惟存百尺根寄語那人須愛看破
閑留待蜜蜂喧

見石醒書有吟
憶從別去思難禁尺素傳來托萬全詩恐浮沉書不為意

夕間侍童雀正星著根餅供未意嘉尚也賦得
孤燈生火強難支一鏡薰餅若有期念我事為無飲物童
年用意量長知

春日御事用白香山韻
坐看春生意東風吹得醒游魚浮小沽融堂酒中庭漏泄
潛歸潤胎未放形梅腮誇口白柳眼著眉香容與羊抽
角留連鵲刷翎幽懷詩王拙吟麗倩誰聽

大霧賦得
邪氣為陰冒日精堂容總德約文或奔騰初擬寒雲散難
香運如駿兩傾測何能大為智辨來馬用離羞明鴻漫

木筆叢栽集瓊雲等閣排置障風庭繞長枝幹隨方便繫
得插嫩作翠屏

送柳恭御之京

此去長程越涉多 壽慈孫寄奈愁何 春風得意為君賀
次第過淑氣和

政堂會階及園庭 砌舉官額地并修 筭汛掃有作

庭院無人願佳花 惜就荒茸修完地 砌整理等頓場 叢雜
蕪穢掃蒼苔 錦綉張前過 兀幾許看作問高量

山茶花所種地界 傾側見其花開 若倒懸所見可惡
筆臺平之臺前 種植芍藥 夜合 萱草 菊花 等為題一詩

人風彩淨無埃

喜柳守門將政事未見

君自武陵來借問 迨如何依然長在日 世事空蹉跎 辛勤
今幾載 賦歸 磨筆多與言 還自悅 須知為有 覺自宜相慰
問今朝 喜君過 心既會 念我固 知此 倘煩 老夫 無足 覩胡
云 舊時 塵屐 緣何 日 了 浮生 屬 何 耶

庭除 雜木 并 拔 根 碎 伐 白 楊 及 梧 桐 取 種 賦 詩

斤斧陳荒 昔拔老 榜根 不是 棟 樑 謀 執 柯 不 遠 丁 了 營 道
可由 芳 友 可 尤

栽平夷遠厠有作



侍童崔玉星 扶得幾種名卉 以未者 莫是 自喜 賦
名卉 窮搜 見 姪 終 機 心 妙 意 一 奇 量 無 非 為 汝 誠 勤 到 火

茶園栽數十叢

克兒 以 昨 年 冬 期 試 驗 學 徒 率 業 事 進 級 陸 二 級 俸
賞 証 云 余 則 達 以 公 踐 吏 用 如 此 而 渠 能 陞 級 增 俸
可 謂 一 夫 一 僮 亦 可 喜 悅 也 志 喜 有 作

七 旬 未 解 夫 官 常 恐 虛 糜 學 祿 干 歲 世 不 曾 遭 寸 善 新
梯 密 汝 進 朝 綱

擇 根 人 葉 我 取 栽 成 木 枕 十 餘 箇 各 有 物 形 賦 得 一 詩
榜 根 扶 把 作 經 綸 枕 採 菊 蘆 野 者 類 始 信 王 公 無 棄 物 方

山茶二原 果佳 武地界 傾枕補土 量臺下 排鋪 華卉 譜花
神不 識 總 時 未

春寒

餘慶 料 消 苦 相 使 天 氣 非 常 半 是 陰 紅 翠 尚 遲 生 草 木 暄
和 新 覺 入 園 林 沉 沉 使 積 登 臨 恨 寂 寂 生 淹 玩 儻 心 人 在
異 鄉 春 信 晚 從 何 郵 律 得 如 今

登後園遺懷

小園 亭 澆 出 鹿 窠 春 到 化 工 生 意 閑 不 設 堵 垣 天 廣 大 多
栽 桃 杏 地 寬 闊 望 連 江 浦 烟 雲 外 坐 視 竹 蕭 園 畫 閣 更 有
青山 如 好 友 長 春 不 改 舊 時 顏



晴窗散手 郊宿 霧披 較者 數品 物世事 奈 奈 差

恭御 而 余 假 辭 招 歌 童 設 遊 於 廳 事 上 夜 深 而 罷 木
一消 暢 也 依 枕 口 號

不寒 不暖 仲春 堂官 供清 食 誰 見 邀 隨 身 來 鶴 長 自 任 無
價 江 山 最 偏 饒 病 客 羨 憐 而 迨 更 欺 稱 短 屏 坐 寂 寂 難 云
名 在 朝 士 籍 性 與 時 違 不 復 聊 如 何 世 事 無 可 憑 每 故 傷
人 自 秋 搖 志 得 遊 場 驚 且 喜 忌 憂 連 繫 氣 舒 翹 短 閣 調 和
琴 坊 日 新 聲 送 蕩 唱 街 誰 盡 燭 輝 煙 天 月 白 梅 如 美 人 放
香 觀 今 夕 歡 娛 差 為 度 不 用 心 未 足 堪 暢 酒 興 詩 句 隨 口
發 多 少 查 付 此 中 消

蔓知 應 乾 火 袖

秋 來 傳 摘 草 龍 珠 佳 釀 醇 味 最 殊 醉 外 高 軒 恣 嘯 傲 風
情 一 倍 誰 翁 岳

此 近 杜 鵑 花 馬 娘 扶 所 畫 所 得 無 非 寸 餘 殘 叢 因 排
植 園 中 空 曠 處 乍 看 若 無 必 著 眼 看 然 後 見 之 無 乃

植松有子耶可呵也得一載

欲 株 杜 鵑 栽 後 因 居 人 不 識 杜 鵑 存 川 取 年 年 照 收 畫 四
尤 輸 得 只 殘 根

洪枝理思 炳來訪 叙話

老 懷 寂 寂 際 難 聞 小 吏 傳 呼 學 士 未 久 花 聲 華 剝 額 在 照

喜聞 之子 帝 都 歸 聖 旦 登 庸 是 所 希 直 把 圓 花 新 茶 線
近 日 君 時 補 未 龍 衣

先 考 生 辰 日 在 外 未 奉 茶 禮 瑞 滿 瑞 極 祐 體 違 懷

此 日 難 禁 瑞 慕 情 白 雲 何 處 是 先 堂 傷 懷 靜 樹 思 何 報
葵 萱 猶 能 向 日 傾

近日感菜而末差效甚苦事也因拈韻

倘 若 衰 年 病 轉 使 豎 圍 成 覺 較 未 釋 醫 編 何 用 屈 臣 藥 龜
息 保 生 非 所 任

與春柳登榭後同遊眺遺情

休 暇 登 高 望 東 風 到 酒 危 柳 心 隨 暖 早 花 眼 怯 寒 遲 遠 嶂

話鄭昌亭春社未訪

符 君 未 問 頗 增 先 不 善 高 標 故 意 長 幸 值 今 朝 鈴 索 靜 寺
閑 潭 得 笑 談 香

桃李海棠等 採取於此 近排栽 政堂之東 庭有作

東 風 正 意 到 棠 麻 此 地 本 無 花 卉 佳 苦 用 培 栽 誰 得 解 會
教 傳 曲 見 春 華

望漢寺 葡萄移栽 哺傲軒前 賦三載

三 間 一 架 數 莖 葡萄 移 自 圓 通 寺 程 舉 寄 語 禪 僧 甚 深 惜 不
解 摘 花 作 食 餐

植 物 運 居 也 亦 慈 眼 有 憐 憐 似 逢 故 官 僮 日 澆 如 無 關 新

盆池種蓮
 栽得陶甄勝小池任看方便好相隨從前恨少同子者趣
 味未全復有誰
 庭除紫種香木花從風亂飛如雲如霞霏霏濛濛香
 又偏宜真范中之奇也有吟
 細葉經冬不改蒼枝頭瑣碎結花芳惹因風打烟雲起玉
 粉翻成滿室香
 登十宜臺閣散口號遺情
 他鄉節物劇踈阡此日登臨且土何若怯番寒心未吐柳
 嫌傷別眼空多那堪想到暗松檜不忍看過長裝養春色

喜笑丈人賀用凡成仙曹擊勞淘沙得金琢石玉此語舉
 世徒能讀奇在眼前人不知觀物之妙迷當句我肯肯中
 一池寬未尋臺時已見臺場外疎行總露繁草開孤芳蔚
 未胎功成只在一轉移成之營之乃得之登斯一望眾美
 具種種堪憐而面奇朝朝欲柱山陰菊夜夜宜傾李園危
 雖然不無於心感顯晦連連之有時洛陽或東彼名園請
 君莫作視史言今年竹樓擊馬主四笑鴻水印堂痕
 際此新地轉幽而寬暢叙自營謀後丁修葺無多早缺
 當添未得許伴單又彈琴名已在彭城或而跡空留那人
 莫道園小烟景從茲足唱酬

如抽筆欲書空
 官園日前所種杜鵑短小僅存名色者而尚能開花
 半半然附著地而化工生物之妙神且速矣戲題
 細枝短短不離根愛護偏多主上恩猶有春工注而露花
 開舖地點苔痕
 嘴傲軒庭植一樹紫標枝幹垂垂向下所見甚驚得
 二株木支使新翠於是樹底地及庭前眼界便成清
 淨道場賦得
 幹葉重重倒垂垂恍有無人愛護持物返性天人拓地而
 宜只在一撐支

知孝子有為身就因工託造仙巧邪辟奇成躡約然不似
 由狀窮道相依憑致力老倘親
 喜山茶花蓓蕾
 絳房映日亂枝交春化數葉點點芳芳管絃成知有意誰
 憐兒女寶珠胡
 朴喜龍持未虞美人種子五箇故分植庭除有作
 花有名補虞美人不施粉粧歸難真故教播近宜芳草非
 效竊香韓壽頰
 庭除平表花始開喜賦一截
 纖枝瀟露惹含風不待羣芳自化工天運花神奇操得聲

園裡千條挂全馬池中萬葉蓮白白紅紅四搜索無花不
 入吾手植頭憎憎苦莫文強口燥唇焦然後得有或云無
 無則已人少如心每歎息彭城地狹官亦闕縱欲捨花無
 他聞未時不帶諸種子刻梓其奈此之艱有一侍童喜龍
 云生得欲悟無誠動初非若使知吾意謀日得未曾嘗芬
 其多足以納花譜所可也言之論可愛非全在於茲觀
 人必自幼少時若無靈竅通悟焉能先意承順之苟非
 誰慧根天者亦何如印一板而曾多聞人老白首可見可
 况初見見所火童年業知印奉公無暇經史窺從今欲使
 在傍讀我雖云老堪汝師

雖云如暢好無端欲盡我頭舖
 通引朴喜龍年今十六歲為人頗悟才性可敬而早
 入通引未得受學為可惜且自余蒞茲他極誠勤愈
 久如一日近日見余有花癖必多予尤此無彼有者
 如桃若梅李檉柿紅白芍藥紅莖黃裝苦蔓夜合虞
 美人宜芳草等隨得持來排種於庭除又於是日三
 李六桃數十本花葉葉得來其誠意之不懈益動如
 是尤可奇愛也為之題一詩
 愛余若愛花同早年不羨陶朱公悲秋非是為畏老滿
 眼芳菲漸看空初頭出窄得桃源原名已好未刻前已後

藥性編方益氣真佐味有芽腹滿春老去身輕知分外從
 今留行天相因
 醉石既安置於南塘香樹下而東庭香樹下則苦無
 相補之物廣其得客舍前一而壁石枕樹下築臺而
 安之其品其韻可與醉石相甲乙而所之者名異韻華
 陳跡名高醉石張今未待得此方床月夕花朝無不可最
 宜長夏納清涼
 銜後園舞臺賦事
 太身之居昔何階太身之居今何高太身之居昔何儉太
 身之居今何豪山如奮迅踴躍出花似頃刻裁剪刀堂賓

是日巡視庭除則山茶花向陽展露蓓蕾成序而或
 有先發者從此可以次第看花續續不鮮可喜也有作
 栽花本為見花奇花未開時若用思深澆梓根期有爰勤
 除凡卉到無遺舊藩初從今日始慙慙如解至人遲長教
 老我遊香園隨意蜂狂又蝶痴
 十道義性成歡聚之本第得萱草數十本及月桂
 一樹而未盡甚焉高種子嘴傲軒庭除有作
 憶昔南郡四時花爰惡心願足自誇能解趨承探屢採誠
 勤如爾意專嘉
 吟得枸杞一頁

朴啓淳過小艇泛之韻效可觀題得一詩

點檢船華多少花開滿地芳馨愛實最宜心眼護持方便
睡醒和韻沾鬢几葉淑氣爭沈惠極老境堪著慶態神功
自衛忘形舊當何殊遠近風雨可憎飄零透沁臘脂明火
五錯紅輝燦星野水清漪翻白菱枝嫩葉交青魚跳游未
落莫風卷地去塵輪煤使煤總常者蜂衙今號頻聽自馬
括香蒙帳便作描畫猶身或起不勞日涉寓懷無妨時丁
人間萬事總覺莫如花下醉醒

近日無往非衆香城過遠吟美專亭清福沈林食實
之語真覺不我誣矣可喜也賦得一律

情韻誰能識出谷鶯聲新得傳

通身北窓外火口與烟榻俱香過室每點火烟熏難
堪改葺砌石火口烟榻并令愛宜人皆稱快有吟
憶昨風雷閣裡居新樓見觀奕稜稜此未烟火從方便到
塵經論若待余

散步庭園綴筆

先生柳綠柳長堤景媚華物已齊覺轉偏憐綠友鶯
忙堪笑高舍泥詩有酒引雅如舞花穠風未壓欲低如許
江山佳麗慶苦無隨意與提孺
侍僕輩多作瓶花排置於廳上以養魚器置諸其間

分與春工化白日清閑坐若仙

勤孝谷運後賦得并引
今日孝谷之行非但款款之可感見其觸目琳琅不覺
令人之歎艷兼以蓮根之惠又念蒙佩履綴一語以忘之
夜復補心越午暉出門故接見真機總結于杏花瘦方
吐或杯梨葉肥實弟全剛詩賦少阿兄樂園病痊幾荷君
高致真多謝全托蓮池許秋歸

趙尚書東見枕三疊

山湖八建廟堂安帷帷風期美妙時萬里可衝猶未半明
時留伴老蒼龜

珮珩玉珮其未遠抱枕看風才四吹何選梅花君不見河
陽桃李飛常思漸有落蕾如相續信芳菲政有期何苦
湖明偏愛菊一年繞得重陽時

洪枝理末見伴登後園臺括韻賦詩

當憲解竹暎相睜望碩春風入酒還鶯歌萬語今三月柳
眠花容又一年可憐少壯難重得無奈屢酸易變違客亦
不來春已暮香山何處欲春輝

獨坐無聊次白香山春山韻連懷

斷香一消任折旋老翁於此活機園農由耕業山無盜賊
捕遺風室有寶條解解則首德後引書花休暇休餘稍難將

木常朝末頰怪窓暖童子開門試眼昨楊花欲擬憎多
宿簪粉難纖能解揚非烟似霧美何自高者彌空下滿堂
試穿以指生鞋軟氣且微吹通爽標標鳴此可知之矣者
取風從樹上颺應嫌香有無聲色散作粉霏聞一場凝合
籠未見茸滴彌宜潤去筆紋深堪惜居人不解爰惟憂屋
暗汚采裳使或留為竹樓客明年如飲秋醪觴家散無常
那可卜姑先賦此備美兼

次卡道義詠花韻

滿庭芳樹白間紅或恐行逢雨與風能使卡生詩句妙依
然高出春刃中

紫檀香花賦詩并引

政堂之前有四株香木高大古蒼不知年祀青陽伊始
天氣稍暢樹梢頭一一作芳狀如松花及春晚花老而
屑因風散漫若絨埃香露凝滴堂宇亦一種韻致也固
縱筆賦之

五柳館前四樹香種之不記幾星霜排分初意聊隨適一
在場東三面牆遠新檜松近側栢護持官閣對脩長枝似
晚香又卷曲葉如毛傑鬱蔥蒼喜得藍日曰叱越扶藜時
復故知裡又有一哥居識吾丹其箇箇吐新芳春谷烟消
芝離露枝圓雨過竹呈翠初有飛承難名狀認以數葉青

經洪火植行行脫陰休避晚窳四極襟帶橫原感屏帳揮
牙攫疆形三百里盡在吾目中欲試吾州界一浦限西東
有村不相連烟火巨成隣八無花居一尋芳不盈癖所喜
荒餘香花滿伴陌

樹庭前播種各菜種有吟

樹園耕翻種土宜類分區別合當時方沁脚脚田蔬菜清
標常思其德之

登後園連懷

土壘塙前香院幽公餘日涉自做遊春功馳蕩宜明媚入
力精治孰算修入產青山如好友穿橋長浦泛虛舟沙鷗

此地種者效鮑詠栽培花卉生春風神功有脚敷葉在類
杞吾州八化中

朴喜龍鮑魚多得以來入於陽所羅水置廳事上寓

觀魚之趣吟得
傍人獵得一釜魚恰好成行幼孩居莫道深潭非或紫筍
中生意相忘如

蚯蚓總叙

仰無登傍苦澗無渡涉難一日環一郡歷歷入眼看出自
河八門節屢起朝霞零星刀筆呈桃杏花始繁井上主人
誰笑簞笠綠池一式度棍下古出鱗之而覽枝枝後檢曾

之物忽於青柳也。程雲根一足蹶然起全體。削平間顯
而元氣凝。凝作骨。骨凝春之如壁。壁凝移是樹。是石。而相宜
仰者。運勝松陰。好登坐。不羨巖。巖奇天形對。耦一。朝或主
翁。喜看青山橫。石醒老人時。適至與共題。品談一。梓有樹
不可無。此石有石不可無。其名樹是香檀。石是磐。名言在
茲。合而觀。鐘於竹。裡。捕竹。鐘。壇在松下。曰。松。壇。香。可。嗅。芳
馨。可。坐。籃。老。於。此。審。易。安。

蘭亦此那難得之物。而適中有。越。蓋。得。米。分。裁。香。磐
左右。香。樹。也。香。磐。也。今。可。謂。不。孤。隣。而。籃。蹶。人。亦。可
以。接。芳。於。其。間。七。歡。喜。題。一。詩。

安之與石醒論。香。錫。嘉。曰。醉。石。之。意。蓋。取。那。就。彭。城。故
引。用。淵。明。故。事。也。此。已。前。人。之。述。備。矣。則。今。可。就。以。香
磐。者。人。以。其。醉。我。以。吾。香。人。以。其。石。我。以。吾。磐。是。於。花
多。皆。同。而。無。嫌。碑。况。置。石。於。香。樹。下。而。捨。香。偏。於。石。可
乎。石。醒。曰。是。甚。著。題。目。也。賦。其。事。志。之。

樹。老。而。靈。石。應。語。成。有。新。詩。為。說。與。曰。昔。未。之。相。遇。也。一
東。一。西。誰。知。汝。孤。立。庭。前。空。老。大。理。在。土。中。人。不。舉。有。若
兩。個。神。君。余。龍。然。心。欲。通。與。居。先。能。南。理。安。醉。石。此。是。前
人。已。用。餘。慳。秘。待。今。雖。不。偶。勒。銘。甚。古。自。專。譽。而。我。亦。欲
張。吾。軍。况。有。一。樹。而。入。雲。所。之。者。石。從。何。得。使。之。四。龍。龍

臘。梅。去。已。遠。欲。飲。意。不。通。石。醒。又。不。見。欲。吟。乎。無。敵。昨。日
石。醒。來。今。日。玉。梅。開。有。朋。兼。有。花。詩。酒。合。一。回。別。彼。檀
花。石。傳。自。淵。明。昔。氣。味。連。十。載。風。流。長。一。格。自。有。沽。酒。錢
何。待。秋。林。田。不。須。高。百。人。元。龍。浪。得。名。欲。以。梅。而。友。無。妨
石。作。元。請。君。酬。我。酌。一。是。風。情

要。石。醒。共。上。十。宜。薑。小。酌。有。分
官。居。無。事。自。堪。憐。強。要。登。臺。一。奠。然。花。葉。殺。紅。春。似。草。風
輕。白。畫。如。年。地。經。新。尊。觀。遊。勝。座。有。良。朋。樂。意。園。達。興
清。閑。皆。實。事。床。頭。肯。惜。酒。沽。錢
浴。佛。日。盆。池。蓮。芽。二。箇。現。出。水。而。是。日。是。花。尤。可。奇

第一。名。香。凡。晚。蘭。香。種。樹。下。又。香。磐。人。之。笠。亦。香。之。類。願
八。三。香。作。四。者
通。引。朴。喜。龍。崔。正。星。才。可。教。而。讀。全。無。為。可。惜。故。使
之。披。丹。而。未。喜。龍。少。微。史。第。三。卷。正。星。第。一。卷。第。石
醒。設。日。披。之。此。於。石。醒。亦。一。消。遣。法。而。在。二。童。亦。可
曰。賢。子。已。九。以。余。則。倚。枕。而。聽。讀。書。聲。是。可。喜。也。作
韻。示。之

吾。清。閑。寂。爾。聞。明。餘。力。何。妨。一。事。成。莫。曰。那。無。城。下。誦。官
身。今。出。讀。書。聲
與。石。醒。對。酌。於。醉。石。上。賦。得

過。夢。吐。伏。堆。翻。水。潤。運。致。浮。世。界。春。融。正。似。醉。乾。坤。更。看
午。隴。耕。牛。歇。知。是。村。村。農。事。繁

喜。石。醒。來
愛。音。却。喜。迷。迷。穿。一。種。閑。愁。喚。得。醒。無。彼。此。弓。頭。併。白。所
由。來。者。眼。終。青。花。期。不。負。靈。鷄。醉。心。會。自。生。談。笑。誓。日。夕
相。看。從。此。又。披。骨。可。敢。起。風。霆

雨。事。終。日。淋。淋。枯。韻。連。聞
軒。鈴。不。動。雨。鈴。喧。喧。搖。盪。詩。愁。惱。琢。現。巨。時。梅。堂。無。個。事。索
頭。文。篆。解。生。痕
恭。卿。自。京。來。喜。賦

辰。年。我。謂。在。今。茲。一。卧。東。山。卷。勝。莫。胡。思。芳。春。春。二。月。春
城。埋。却。几。莖。枝
柳。寺。登。門。世。襲。因。通。家。歡。感。倍。餘。人。援。今。綱。昔。知。何。痛。白
首。天。涯。淚。一。巾

獨。坐。政。堂。有。所。思。賦。萬。懷。一。詩
此。中。趣。味。所。無。他。日。涉。園。臺。馬。與。夕。清。時。靜。觀。游。鱗。鮪。洪
泥。惹。泥。種。蓮。荷。蝶。蟬。戲。逐。穿。深。樹。鷺。許。復。未。認。故。家。四。憶
籃。田。松。下。老。何。如。今。日。費。吟。哦
幸。通。引。董。秋。林。作。郊。原。之。行。眺。望。因。郭。事。賦。得
鹿。日。鳴。第。一。香。多。情。草。色。遍。郊。原。烟。澗。柳。堤。沈。沈。鶯。轉。風

暇。各。盡。情。一。樽。登。路。作。真。率。酣。歌。竟。日。歸。岸。平
遊。聖。漢。寺
客。來。寂。寞。想。幽。尋。對。話。禪。僧。趣。更。深。壁。題。未。證。紗。籠。句。庵
鱗。無。煩。海。借。金。爐。火。噴。烟。生。細。篆。牆。條。經。雨。補。疎。林。去。通
圓。悟。休。塵。劫。潭。水。澄。清。照。鏡。心

錫。名。香。磐。賦。其。事。并。引
西。塘。香。樹。下。孰。得。醉。石。而。東。邊。香。樹。下。無。此。個。此。觀。可
欠。也。欲。覓。一。石。作。對。而。是。誠。此。那。難。得。之。物。也。幸。在。春
舍。前。株。得。一。同。碧。石。此。蓋。曾。經。及。治。今。不。見。用。而。品。明
淨。雅。錫。方。足。當。此。石。人。讀。賦。即。今。早。置。東。香。樹。下。支。而

眼。看。春。欲。盡。孤。客。思。悠。悠。公。事。捨。吟。去。家。音。柳。帶。來。又。而
輕。夏。計。曾。之。濟。民。才。所。喜。淵。明。那。重。挑。醉。石。回
十。宜。薑。觀。春。并。引
十。宜。薑。新。成。烟。景。明。媚。種。種。可。愛。思。欲。一。登。暢。叙。而。苦
無。共。之。者。念。諸。報。實。與。有。勞。於。相。役。之。日。而。其。意。亦。應
同。余。矣。是。日。以。若。干。銅。許。供。登。臨。饒。春。之。首。因。賦。其。事
以。示。老。夫。於。此。與。復。不。淺。之。意。云。爾
有。憂。有。憂。十。宜。薑。定。然。新。起。笑。容。環。被。以。軟。綠。之。細。草。就
以。扶。疎。之。老。槐。昨。日。陳。荒。蕪。棘。地。今。日。見。者。思。念。至。趨。庭
獨。驚。寶。新。成。三。月。晦。日。天。又。晴。而。成。一。生。樂。與。眾。那。無。助

涉名其園者皆是在此那石者題自是馬可少
七歲窮怪夫前之在比者既原名而思淵明如解石五
柳館及諸題味其用意與可謂功地勤矣而至於
日涉園則無及焉何也抑有待歟是未可知也又有所
感於心者此地以石貴名以余近日取用者觀之石之
體質可堪者舉經政治見用於前昔至其處猶不適於
用者亦未有不見用者獨此一園石上之可以為政治
之用下之亦可以不為不見用而地然自任乃於今日
為吾之用何也抑有過不遇歟是未可知也石醒其為
我解之

因社運未分給路過東舍訪碧下方大慨擊話
歷路仙庄暫駐軒松閣鷄犬不聞喧自憐也事運多事未
暇丹經讀一書
奉審三學士張美壇有感作
空壇瞻仰羨鳩依只願網常不異感一代珍志誰復見果
然視死儘如歸
雁討松竹里字監寒鐘數撥忙得一夏
偶有訪吾家懸懸禮意加村幽松竹里林媚海棠花似僕
農事力兒童學孔嘉何事無味供進一盃茶
露積現蹄路拈言字

賦索朱沈入石深嘉名足備後來尋賴渠傳久非閩我且
臺增光即日今點對
人以前人或以吾乍者雖別實無殊官居一是多公暇趣
味同野志有娛右音
日涉園敘事并引
按園之初見噴傲軒東庭有石著在地而西其大其品隨
皆可用而心便以兩列有用者故其間備雜石宜勿令
犯手矣是日臺及壘兩刻後告訖而日有餘力余因手
書日涉園三字便之刻於其面填紅置諸十宜臺并降
陞之中半以便懸息而之存而不用蓋以是也見以日

新開無名一小園地實為我贈雲根形愛天成仍用舊列
嶺人巧只存痕老視動色花應從幽竹增清菜不喧多謝
當年陶處士錫嘉留作後來援
伴石醒及方五街將大歡登十宜臺小酌
有酒有朋人有詩淳生不樂更何為當年元亮成千古今
日箇人煙十宜陟竹松松便自適清風明月長相隨賣身
官休榮堪戀兼得田園合老時
秋八里送中
藍與百折過長堤江樹送送草色齊幾尼斯當行盡愛飛
鶴亂飛夕陽依

對酌喜題一則
大可擊天柱小亦支月機奈此彭城郡石者不但拂自得
醉石未愛之欲其高試搜合樽者僅使空營券創岸土為
臺平依不盈踣風動其支使向落泥倒打有心不可轉謀
及廢廢砌拔及履首報重量空而際舉之置其上高可三
許尺離地四倍均者者翁意適發縱雖自我作事惟汝勤
有勞那無賞聊以酒賜飲老夫與不淺括邀石醒登勸君
須盡醉風流聲一會
閩石醒甚表為賦一篇并引
兼瑣日錄之自非秋至今之三月以後雖已大略記置

四甲日苦語仍訴秋驚時今比之來尚云健遊吳長程徒
步為舊米好事今能否試擊聞硯日未移紙毛刺家筆尖
死欠仲歌側令人問嘆我惜哉石醒乎昔何世也今何困
人生真是一列那年踰六旬不老何知唐中晚莫如我遇
以蒼蒼到暗暗由今視昔何嗟及不如尚忘一長歌
鐵道工事組負日人真殿于吉來見且有空白車
一桶見饋詩以謝之
某年常苦病侵凌康濟身家愧未能今世有人羊叔子故
將成藥飽藍丞
十宜臺看碧弄到名志之

也自官醒榆葉餅其太蒸供米又自朴春龍家甲使
解者比湯清酒一壺際至與石醒對酌共賦
記取今朝浴佛身翁心政飲酒無延祥蓮太巧穿池出蒸
莖如期帶楮疎能使兩人仍大嚼方知八日是良辰蓮未
酬節類難得寒食清明一夢春
與石醒坐看碧命酒道與共吟
香臺香果到香碧詩可為料酒可安甯藉用餘初八日吾
遊生際大三韓滄桑莫道居官好實事無如抵老歡一衆
翁翁誰贈我至今心謝佛門寬
醉石撐座久依求得二箇石支之高可三尺與石醒

而石醒來到後更與勸過一過今始告訖而嘗見石醒
於校勘編摩之夜課日較若少無疲勞之色矣今者則
其所執勞比前稍歇而種種有困憊難堪之狀其表老
可知矣長極歎惜也然而翁非非踐此境者亦何能知
人之深而又為之歎惜也哉聊述同病之憤以抑甚衰
之懷
范范一十四年前以杜亭中人日蓮霜鍾有感云何枕草
絮相逢節霜歸是時君年未五十額如渾丹髮無鬚有力
若可排南山有才如能倒三歧每當臨事察其眉只見耐
父未見瘦自從去年金馬額稍稍微覺異前時點心馬指

氣氣定可餐地近無勞瘁疑是官閩有晚倒芳樽一卷
 發處誰多少十未二三嘴做軒 右遊春
 衰年定若伏瘴成定著島中出北扉竹密不容朱鳥穿視
 高鮮掃火雲飛十分惟有涼生鬢半點曾無汗透衣試問
 第斯誰教戒而今始覺未為非 右遊暑
 行攝老瘁坐媼遞最有登斯敢眺迢遠環無邊如彼野黃
 雲滿地直誰家已於三自占全樣勝似千紅是梅花寄語
 今秋微索吏官舍卧待到牛車 右觀稼
 膝六訴天五色迷離然一夜使之齊連空玉屑無邊野滿
 地楊花極望堤埋畫樓亭難甲乙懸非日月失東西飛今

相吸相呼繞碧灣也無闊涉寄書橫斜沙渚何依在故
 傍蓬蘆趣而深沙
 古寺鐘聲度野洞太華夜碧足堪聽多情最是無心打送
 與鶻穿庭耳醒 漢詩
 與石老共嘆善後煎餅拈韻
 生亦堪餐煎況長句停油粉更和糖官商送作鴉牙煩累
 內翻驚讓鴉鴉眼到吞咽情始釋口經漱餘氣猶香謝公
 徒有調梅手不向東墩遠妙方
 十宜臺子賦
 小小山前小小園風光淺蕩飄陽暖啼啭如相吸花

於小北面自有社倉以米逆無親分給云雀鼠輩竊弄
 之災難保其心無益於日前分三次指日如委及期而
 往必親來未應竟日於井斛之場務令份好其果無未
 查數蓋初度之東面邑內而次度之西南北面隨例勘
 過則無可異之端惟小北面則有大可疑者浦洋失路
 日幾過半而了無出候指導之人及至倉所至有運民
 不來之謂使之指之所謂尊位洞長批賴無有嗔意甚
 矣京師不遠之地民習領如是則別見而然那願愚而
 然耶未可知也
 憶昨東西赴社倉規規猶得謂而康如何一見津頭上鏡

前宵經西歇野林漲新痕村畔桐花發曉原麥浪颯農
 秘應遠燕唱互交喧往送而民社幸暇不致言
 過小北面新投浦洋自朝
 搜浦城戎功自事四回尋聲望無邊爭先往路前曾笑今
 日便當慶慶旋
 東堤里社倉有作并引
 社運未原例每歲釋糧各自設倉主之近年陸附惠民
 院以備緩急自是主之規隨而革止今年自惠院為
 念災歲民情有半分未給之訓為字收者敢不悉心究
 惠于閩前此每當分給之時率多委設掌官不親檢至

庭陰半隱溪微波光轉銀輪院裡過夜深人定分先少山
 遠林疎得影夕塵與桂高誰是慶身疑舟泛我其坡杳期
 漸飛清如水故台吟現呵睡魔 右觀月
 那官知否是何官春水盈盈試取看平地成堤峯湊集早
 天為雨沃枯乾冰蹄四冒專成童決隨無由圍境歡眼日
 登臨渾漫興停盃東望故盤桓 右抱澤
 蒼山西指一荒城往事茫茫不可名日落崩壞島自下草
 深殘疎疎空鳴委魚可想其未久素海難為此日情古蹟
 庭瘦人莫訝我家黃項有題評 右獲城
 對善觀花賦得寫懷

恨少長卿筆翰與梁園錄品題 右賞堂
 除非僻出是驅移散神艾密指煎疑行孫昔何地傷舊佳
 人今忽鏡窺眉如添蹙當心先飲似按新圖眼自尋文字
 從茲生一事朝朝拄笏倚未遲 右看山
 著脚高時看眼恢海會分與一襟我酒泓浦口西南界澄
 碧天光上下開帆搖枝鷓鴣堂去島嶼撐撐泛泛回福環
 蘇州添大觀價知得此有從來 右望海
 阿誰解喚主翁余時有應鐘晚不虛月落更殘三點後風
 微地近一弓餘室以虛元通妙悟真知官舍似僧居那將
 老入看山社問聽齋竿雷吼如 右閱鐘

雨過山顏放月浮寒摩不濕水光沉誰家皎潔新磨鏡好
 向天心掛不放 漢詩
 西林影倒映紅紫新霜殘霞晚景殘者取眼前無限好何
 須預道近黃昏 漢詩
 蘆花深處訝星沉見沙鷗不自驚點點烟光寒浦上月
 斜烟淡映相明 漢詩
 溶溶觸石勢從能化作文文變態濃潑墨奇形何所欲會
 須為雨澤三農 漢詩
 一帶長洲短棹移近者倘速速者遲隨潮無怒東風卷香
 渺獨含萬里思 漢詩

出羊橋又互鄉
 院津津呼舟子因即事賦得
 漾漾清漪上輕撥一尾輪是遠齊天勢江長列地形新震
 明復暗飛鳥去遠停的約風前積浪歌亦可聽
 小懲勤考否鄭昌寧泰陸庄
 歸蹄科陽路重尋勤孝庄園林培善植堂壁煨新糕與子
 詩情好慚余公事忙寒暄猶未已例供酒蔗糖
 那有八詠鄉長因要余作不違是日與他挽牽搆得
 漸覺暄和淑氣回認其春信已傳梅化工自是多才意先
 著輕黃柳眼開 漢詩

我法温存本墟手護持活著新培脚聖蹟安生受氣俾忘
移養託雖園生可期依然耳畔龍吟箏籟若從前風吹
翁心動喜秋志向秋瘦何妨俗可留園棋且可消三景飲
酒亦堪加一危日未進進自作主何須更問太守誰

日涉園置石床有作

白髮明燈一石床園中物也倍頗尤如令濯去泥塗居依
著帶未壞玉相用代支機儀織女拜思具荷學元章湖西
此得園西覽舊老登斯幾舉蟻

喜海棠見聞

葦芳早發及先萎喜見棠花在此時才思迎風裁錦繡端

鈴帶香有年嫩石泉華髮猶無恙海屋遺籌幾度乘更願
益州從此復成隣壽域樂三登

日涉園在石竹樹北前稍數而向多空缺應是日物
關屬採取東園及自衡而在者我植特臺之四圍若
能次暢茂則雖謂妙理確可也賦詩志之

會事天中嘉而園莖翁一上十宜臺臺下風光近何若若
時已去綠陰未就中竹樹抽新翠倚倚不似舊懷悵念憶
東亭白日照晚風三福春竹記園中寸土惜如金那可樹
也多餘地一臺未得圓如懷者背僅被腰眉曠縱云今歲
長飽孫何待二年蓄放黨特飭朱衣脫看錦散搜遺根使

末從東里儲梅堂理履履及辭又許長壽氣矍矍花辰起烟
咀蘆烟玉津香饌得過中洵穆等飢鶴初充白露腸願言
贈謝吾何以酒料宜田林未黃

日長庭院山鳥下應第第幾一四覽臺園花石總
之得一律

深深柳隴一園官香細簾敲畫景寬痛飲長宜存醉石高
吟早已置香碧盈池蓮葉如殘墨凡竟蘭英比筆攬鏡院
松篁風送韻有時笑惹起燕鶯

與姜參奉蘭秀登十宜臺賦得

賀鸞綠野信居朱卷山喜色夕陽開海天雲散思家桃李野

本是玉堂提骨香如何淪落在蕪鄉露絮不解詞臣近只
許老夫與味長

升登得以余近日所得種語作畫題園進故吟示

余近得那行一詩云藍輿百折過長堤江樹送道草色
翠幾足新雲行畫簾飛鶴飛暎夕陽低升登得描寫連
連景一幅足可日依採菊簾圍揚面壁戲題一言

一幅烟雲掛看珠近瀟瀟遠挹精神青浮草木圓機活紅
實山河晚景新惠臣鋪排得趣虎踞龍蟠現如其如何
中有得與者不與飛禽自任伸

與石醒對齋香魚羹

白石新床已自奇金莎細草又重之依如玉女春風面更
遺鏡賦點畫眉

每為消閒撰得十宜臺詩十載并小引

右十宜臺詩十載每首句就唐人詩詞末下句則專用
自家意撰拙近時諸家多用此法故試一效聊爾

白家意撰拙近時諸家多用此法故試一效聊爾
出隨宮使誰賓之景為春妍費賦酬點檢芳菲惟自適何
須較計幾未遊 遊春

瀟瀟園臺無暑春扶疎松竹有清風老槐葉得陰如海蓋
取襟期冷淡中 避暑

寶慶頂臨桂風梅碧玉烟烟瀟瀟蓋日望不愁憂國願盈

容范露點脂脂遠滄眉有東破感愛賞吾無子園詩莫恨
披根開較晚中於萬條一紅奇

午與賓從上十宜臺酌日酒一觥口號

彭城五月十宜臺林翠蕭蕭非酒益諸客不知倚有石只
擬風送夢涼未

倚石老訪姜參奉蘭秀轉登後因開散仍賦多事

瑞陽天臺郡南村為院書中宿約存一室簾櫳賢父子四
圍松檜好田園飽童勝事歡羅索風水苑談走首原聽罷
黃鸝鷓鴣午歸未唱傲是吾軒

日涉園石床四面代莎被之戲題一詩

東庭海棠花白數日前始開嬌然可愛倚地賦得
不與梅爭早侍休羨艷新懶未無氣力喚起更精神詩士
官補號甜如恰屬真品題誰指有惆悵杜家痴

近日園臺景物種種奇愛而桐花竹筍添得觀賞之
趣因知事縱筆

小園林園近地賜常食佳趣此得御風柯以棠桐花發龍
節包黃竹箨開忙或如之時幹圓圓斯得文日登臺傍人
莫謂官禽齊傳可資供景又恢

賀姜參奉大人壽筵

堂孤難為兒純補賀事令相複復仍花勝增光同日慶銀

樹花懸送客五可笑輸贏當局暗頂知倚仗轉環回一春
好事如相問醉石香簪日涉臺

午登十宜臺與石醒奉御呼酒對酌賦賭象棋

不須竟元學元龍二客從余一榻同歇綠院陰侵局面微
涼竹氣入樽東臺高本為消長憂園小猶堪納善風莫遣
中牌輕報我蒼山定好秋殘紅

登十宜臺石醒亦王命歡心好頓於臺上賦得遺興

饒著丁丁對玉簾翠陰為暮草為首竹間響比揚州鶴松
下需第兩穴鱗禽塔繞盤如致勸花香度鉢香甘味足知
此處多佳境喚到深時漸入真

良宵步月上高臺故遠風沉酒作媒櫻竹一邊三影寫却
疑千載李仙來

是夕石醒步月過蓮登醉石醒嘆曰石醒坐醉石其
言似戲而實喜其相值之不偶也余謂以石醒遇醉
石直是兩相遇而已以余則并人與石而遇之何可
無一轉語於其間乎因石醒句而成篇

石醒坐醉石千載抱陶襟陸酒中趣自斟運自吟
庭前盆池蓮隨時或水免得早憂送始作花可愛也
蓮池用意蓋云深可愛花開始見今九早通來憂孔棘無
心為汝一哀吟

甚相如鳴始得看山一展眉

往問鄭昌寧病卧第月歸路口詩

昏鴉飛盡桂陽天策策笳鼓後前夕氣含風松際嫩露
華承月華頭鮮烟村訪及憐多病灌園勞民恨少錢不是
官貧無代步猶堪脚力薄言旋

後園君子新熟屬春餽摘取瓜分以其仁作粥有吟

宜花宜果又宜仁一物兼三否最真紅紫庭院雜錦片甘
酸牙頰動香球匣中剖出團圓子為程煎來緊緊津不是
奇方實飲啜人言餐得老精神

得月色故佳與石醒春柳盤桓因坐詩境命酒道與

忘情真太上無端去住費心神

登芙蓉山口拈得玉字

芙蓉秀碧掌中擎每一登未幾有情草以細鹿園可坐松
為實蓋徐備清淨回無盡欺陽共見小猶傳叔子名只恨
岳靈今不老不將雲雨沃蒼生

觀觀鐵路修等遇雨而還賦其事

古蹟尚窮搜即事可無視欲審鐵路形勢東征指時天
雲氣蒸童滿險埋蟻人以兩窟蟻我以兩沾喜越浦遇霖
微入店暫休止少間更起程鐵道役野是彼人執轡鞭我
人把鐔子沿邊沃壤田尾尾入等豈不知幾許年車較飛

送怡孫還京獨坐喟軒轅甚無聊口占一律并引

余外官數十年未嘗以家累自隨去彭澤千載之下學
陶而得焉者直此一事爾今夏三孫怡泳以親事之故
而來留望餘見其唯諾在侍晨夕趨侍乃祖慈悅之情
油然而生始知世之作宰而帶子若孫者亦常情之固
然也然而顧今早憂孔棘萬念都灰不遑有難捨之愛
始才命還京第屬柳春條之徒茲之後舉舉孤館慨然
獨坐矣老懷不能不悒悒脚鼓廢黃而自遣云爾

天涯久作獨孤人喜得河孫洽一句幾度含飴愛獨餘
紅梅棗禮儀樹容隨家累非吾素幸動羈懷為汝新萬事

萬口賀婦賢我心充然喜向何多枉算天緣乃在此自有
定嘉福人若不知爾世事少圓滿果親不見是惟願從茲
往床琴偕百撰

灘流堤觀獵歸路因柳事賦得

岸林三樹五柳官閑日長如羊卷中香拭花眼葉上香消
家烟柳及能通翠燕灘池為設魚茶彈冠步出門外也秋
行路洋遠望意莫問浪止風沉却憶斜川食者雖云甚美
得之未必獨全荏苒竹符西夕道送薄言而放去留自任
帶履散頭隨例對殘酒解長柳消唱石評太湖光天薄暮
歸來太早平地高外神仙可喜一時佐味且堪今夕安眠

順成是宜人謀野能及武乃所謂天也定已在天而杜
求於不定之地寧有可成之理乎况新婦之賢極叶

野豈非惟陽界人慶幸九原可知亦應嘉悅於冥冥之
中矣但于權在前是野開心然行將次第見過而畢我
一種剛備快矣哉

家有晚生孫童年背帖時零丁及勝冠謀在拙於理親誰
無舅姑或父過年紀嗟哉俗漸降婚不揚人已吾家世居
京烟姬蓋洛里何乃到今茲反遭公路恥集家憂失時聚
首香虛擬時余在彭城歸悟一張弛傳武方碧下為我發
縱指一使緩去采事事如相俟星期既云吉禮數亦孔美

此間余有公事老去復與詩篇

憫旱

念余髮種種半是白雪埋光率桐星吃餘脫沐露寒此年
年失稔民食不堪難食神何負有大麥又無秋那將息焉
涕惟而愁黎憂黍茲賦詩日早臨唐斯恐風伯戲加鞭雷
師敢飲鼓夜苗何地托大地一焦土陰雲既未盡累日更平
若天道本幽遠茫茫不可識羣生積殃咎却整行將臨百
里司瓦命憂懼無中腸主榮榮乃已復恐謀不賦連聞西
人既早濬是天堂

香樹下置水石拈韻得律字

一樹香前一石隨香者石石兩相奇間依白薄排三迭數
叶黃同覆六宜今日寒山堪可語千秋彭澤足為師自憐
殊怪青州舊使傳中動太守諫

日涉園

吾以錫名日涉園推思種種本原得剝碑堪與明疑信醉
石茲從暮投獲寓得十宜光景好排張履詩起居禁閣中
取趣無斯得叙事集成黃頊言

早餘過雨喜甚口占

醞釀藏來人不知雲微風冷似常時忽聞珠落鳴荷葉更
看烟沉碎柳枝若使既張成慰滿何難盡瘁憂癘民憂較

此間余有公事老去復與詩篇
憫旱
念余髮種種半是白雪埋光率桐星吃餘脫沐露寒此年
年失稔民食不堪難食神何負有大麥又無秋那將息焉
涕惟而愁黎憂黍茲賦詩日早臨唐斯恐風伯戲加鞭雷
師敢飲鼓夜苗何地托大地一焦土陰雲既未盡累日更平
若天道本幽遠茫茫不可識羣生積殃咎却整行將臨百
里司瓦命憂懼無中腸主榮榮乃已復恐謀不賦連聞西
人既早濬是天堂
香樹下置水石拈韻得律字

述夫生同乎世蓋有千里之神交事出不期偶成一而
 之雅契適未時也實無聞然固知東海先生非有尤於
 趙勝者荷南州高士時許狂狂陳善見不遠所聞愧一
 園之小小貧無以爲禮茶五斗之區區所賴相與者情
 唯以得見爲喜形骸可忘守便便足笑歸氣繁相從河
 山仰其盈掬嗚呼洋海易散乘商無多首生借三日之
 留餘香空觀向子了一世之債遊踪莫攀將何作管面
 之資卿以德由中之語說蓋猶望子已矣茲有五十六
 言難舍何常之有耶元是百千萬劫無異雲門布鼓幸
 加卯市風牙

真率達心既何必品題得細評
 又慶前韻
 趙日博霖兄刻元天心委曲茶人情一談既意恐非淺焉
 物曰蕙湖自生景從悅顏陰正暗花繁惜眼大佛明及展
 取醉居微否哉有園臺樂志詳
 嘯傲軒共妙石兩詞伯括幽字
 多止各自北懷幽逸亂風驟盡看頭名跡萬聞成契合詩
 文益有揮塵則陶謝如今非獨步鄭全堪可與同遊記實
 秤量新馮南彼功唯得掩前著
 兼隨妙醒行傑并引

鷓鴣鳴也兩今果驗夫因賦其事并引
 述於早中早自日星風雲下至昆蟲鳥雉尤可以推占
 兩侯者靡所不到而皆避然無告蓋有之矣人之審察
 有未至也二十日夕忽聞一鷓鴣鳴而過我喜謂石醒
 曰吾未見鷓鴣而不兩而今至矣僕之數日不兩又謂
 石醒曰鷓鴣亦更張歎相與一求其後三日而果有此
 兩鷓之鳴靈矣哉因吟詩三疊以志喜
 遊瑞無驗潤意癡天道幽深未可窺獨有前宵一奇事飛
 鳴老鷓向西之
 鸞聲餘嘒半疑然莫是飛禽亦異前始識鷓非欺我者今

也似東去數武寬新屋白板以暖鋸後方張聞道會社觀
 過回一周觀結構亦云侈西川聞去京何出才良里兩會
 且且西行將歸去矣何處是停車過路迹尺咫歷入一板扉
 主云德三仇款款如舊親出待茶酒美飲戶殊淺深人多我
 一已同舟載胡越族眉何密通其意亦可感別語中自揣
 石翁莫愁灣有車一役此嘉武朴浦監牛咳非野使浦落
 潮痕舟子不可編謹與涉薄言泥融欲賦借問徒笑人
 何如坐以使人情大抵同甘苦各自揆辱或轉成榮卧亦不
 如起快哉今日霖往迎不辭死仁天無盡劉普澤漢史被歸
 卧哺傲軒高吟一枕倚惟願大浦泥蒼生舞化裏

安我致剛之物無有薄薄殘草草者未知厚薄可口否
 有言殊方形影單依仰於吾又故者越鳥悲鳴代而漸其
 言認是出心肝不爲沙窟寧有此一造吾亦惻隱竭聞查
 矣深台輪如城中人或有員余千重山海半面阻委由輸
 情少似深美聞憂性出自天天之所覆同聯於寄語六洲
 倉君子莫以珠居別親履

與君相見即相親晚契契然歎有神家指香湯三汲水路
 逐池上一團春小園題品今初勝先堂文辭文愈珍自是
 樓連猶自通知應慶道不憂貧
 德三行
 董翁無事事題評祀酒戲作德三行德三生在日本國公
 輸多年佳登末近日躬掌職道務未留假屋通派坪向余
 如行避雨入雲致擊想通姓在末冠語音而不類便是同
 舟胡越并世界東南兩外風使先本自無相涉頻怪初逆
 與奔走故早頃場如不足數日通辭傳舉意令人款款交
 音冷二祀園看一臺酒臨別懸懸望白負申勤昨又來探

和三疊詩贈妙醒朝伯
 念我作文元不問尋常長憶古人風元積無忘今看而却
 喜靈犀一點通
 此日盡管歡笑同詩如花園對春風方知筆下文章力奪
 却人閒造化通
 白頭身若醉醒因文氣洋洋瀟灑風一道音中輕淡笑有
 為留待玉階通
 初度日與石醒妙醒共賦
 若尺筆頭未寫成披襟露頂故無情而未遑景跪珠走風
 動竹林唯籟生園樹穿教身杜首杯盤不使把酒明忽看

朝果見雨連天
 鷓鴣鷓鴣護白確何如使鷓鴣人音可憐那舊多神樹借
 汝年年長子孫
 鄭妙醒問敬美皆共石醒括韻三載
 契合同從越志同笑談如得世春風靜思更有難言妙竹
 石香深莫觀通
 居然合席喜生同語到玄虛有音風舉世盡從慈裡過誰
 言大道三杯通
 陽春白雪寧和同爽相心期林下風夜雨連床燈半壁掛
 膠前並與堪通



부록

평택 총쇄
平澤 叢瑣

제14책

영인본

方令碧下有書	萬壽聖節平場堂撰喜
吟唐覓紫華	平場堂賦御事遺懷
咏千里鏡	歎葡萄為鷄犀見倫
中和殿外進宴日	中雅蕭然叔別後進賦
賦苦睡不得自嘲	唐覓調候吟
對新梅辨喜題	柘下遺情
李烟仙羨鮫魚 <small>鄭奉球曹范某</small>	對李雲樵客儀
對黃辰性語到二桑野	唐菊花斜刺可愛
日人大同德二移 <small>任全</small>	嘉作節日
中秋月夜與石宜壺 <small>十</small>	琴來尚喜聞余痛苦 <small>思遠</small>

達那竹醒語到	七月初五日子夜
蓮葉酒	七夕夜與石醒口占
方令碧下一來之約	盆池蓮花
方碧下思籍	詩境縱筆
秋郊紀行七頁	故翁詩云山深四月始聞鶯
達地契事務負申銘碩	使氣漸冷旅懷無聊
紀元慶節	金陵培來訪喜題
社還米分給後賦事	趣西南面觀稼
吟亦石醒鮮嚼	地契委高錫弘
十宜臺秋興	縱筆賦懷

重陽詩	聞碧家南渡寺縱筆
登南岡回至望溪寺	東臯秋興
午復偕石老及鄉長向	上十宜臺賞月遣情
今此內行下來 <small>謂聚</small>	謝方碧下紅袖遺思
慶輝僧蓋池煎	對菊吟
謝鄭松庵惠銅魚	孫婦金氏子歸日作
石醒以柘上送 <small>謂念</small>	方令碧下庄五老會
次克兒晚帶韻	南岡晏晚石庄小集
端居少事次石 <small>醒見贈</small>	唱傲軒得晉字遣情
平場堂七老續集	送克兒之京

謝中事務負銘碩白飯	鷄冠花
朝饒李贊政址錄代	宿木川店
天安途中	錦江渡頭
公山館廷 命後退吟	中雅蕭然庄拈金字
公州途中因歷路野見	拈天字賦御事
覆山途中有野思	運樹拈名字
訪林監後喜根不遇	上十宜臺覽賞縱筆
山菊爛著庭園適黃	登十宜臺賦得秋日御事
送日桐棋箱覺 <small>吟味</small>	庭園各種花卉
與石老登日涉園共賦	荻併賦作寄方碧下鮮嚼

薈取瑣

達中拈瓜字	日涉園物色遠久不見
鄭昌寧奉誌靴三疊	黃草蓮心
是日空人生朝	可笑
頌叔覆山蕪符自嘲	題葡萄架
瘦槐堂崇藻下請教	石竹花
怪石後面刻成	百合花
鄭竹醒來訪旋別	對石老滿嚼鷄酒
近日風氣乍涼	平場堂雨中焚香靜坐
登十宜臺縱筆	秋序伊始
竹醒來訪共賦	拈韻賦得示竹醒

❖
 평택 총쇄
 제 14 책
 ❖

薈取瑣選平澤郡詩目錄

目錄	排闥賦事
因時事憂歎	排置床帳縱筆
月柱	是夕符柘賦斗升里
斗升里途中晚歸	天安途中即事
詩境	拈韻自嘲
有野思柘上作	旅館月夜憶石醒拈韻
旅館賦得	水仙亭亡次稼亭
奉審華祝館有感	雜發天安郡述懷
晚枕上聞簷鈴拈悲字	

訪全義郡黃議官斗淵	全義路二載
平湯堂父白香山 <small>詩曰</small>	對西龍僧次禪師和人詩
西龍禪師來話	次西龍僧次望溪寺板上韻
純明記宮誰述絕章	牙山公館拈漁字
牙州館夜坐遺懷	亭仁遠中風雪有吟
晚自由齊尹議政 <small>詩曰</small>	次西龍堂彩五詩韻
谷西龍禪	除夕燈下遺懷
五朝閣坐拈韻	司稅局長李健榮
賦得一詩遺懷	上元夜對燈作
次谷晚雲金琴肆 <small>詩曰</small>	對瓶金山茶花作

晚上一草亭帳望巖雲	者秋日訪諸名勝
晚登一草亭聞砧聲	嘉俳日遺情
獨登一草亭閣散拈韻	全義郡次板上韻
北面中大夫星途中	全義伴權宅沫政治有感
全義旅館因情懷 <small>詩曰</small>	旅館秋日知事
全義蟻垤地黎山一 <small>詩曰</small>	列車上拈軀字
櫻山館次徐四住 <small>詩曰</small>	夜話按嚴使安鍾惠
對話天安伴金用未	禮城館得臨字
櫻山伴郭 味要余	全義旅館逢永平中雅極履
公州府達尹德進永元	公州銅穴峴途中知事

李全雲來訪拈韻	有感遺懷
金上月桂時方爛開	冠犀樓前東并呈慈妹兒
寄詩于碧下二載	閑坐唱傲軒 <small>詩二律贈</small>
秋扶排柳 <small>詩曰</small>	白香山七十二歲
撮得遠來身 <small>詩曰</small>	遺懷
心有所感賦一載	細居士朝獨坐遺情
獨坐唱傲軒 <small>詩曰</small>	庭除草芥為近日風雨蓬蓬
金注書馮珠 <small>詩曰</small>	就李議官贈歌
七夕獨坐遺懷 <small>詩曰</small>	用白香山秋日龍蓮懷
唱傲軒牙定憶 <small>詩曰</small>	萬壽宮節日請要

登一草亭賦詩	春寒
五柳館春日喜懷	賀竹軒李議官鍾敦 <small>詩四</small>
吟 命行途中	公州黃龍洞店滯雨
公山館偶吟	霞酒坪知事
歸路吟	李竹軒鍾敦壽席原韻
春曉日登十宜臺	平湯堂初夏縱筆
殿禮花卉大本 <small>詩曰</small>	出停車場 <small>詩曰</small>
有所感拈韻	送朴善用 <small>詩曰</small>
平登後園遊賞	平湯堂閣覽蔡意詩品
午後倚松閣散子香簪	重午日有感遺懷

枕上有吟	官樓無事次石醒韻
官燈獨坐有野思	夜坐無聊拈家字
對話中事務負鉉碩	得置一雄鷄早晚高叫
夜坐自嘲	是日卯陽曆一月一日也
問卜自解	苦寒
病起	地笑行
晚坐口占	吁嗟行
明憲太后靴章	送地契監理李敏裕
不寐	平湯堂拈鷄字
有感縱筆	立春日和杜少陵韻

微春日備酒飯	德坪店枕上
公州館	許門里李春鉉拈韻
觸物有感雜詩三載	途中知事
香簪庭除取種花品	十宜臺上拈剛字寓懷
送翼兒獨坐	北軒縱筆
六月十七日登十宜臺	江山一草亭集句
次勸孝卷賈英齊 <small>詩曰</small>	江山一草亭知事
獨坐無聊登十宜臺	挹清欄賦知事
獨坐挹清欄	登一草亭賦知事
挹翠檻知事	七月二十四日登一草亭

雪樓庄宴五老	次郭參贊鍾錫蟬詩韻
菊花酒告熱	平湯堂
東舍捧還	石醒有枕上聽鷄之作
和米愁袖	石醒有枕上詠鼠詩
次白香山尚齒會原韻	靈壽杖詩
浦傲軒雜詠	晚監後杖次姚秀氏
鄭松菴以其先祖 <small>詩曰</small>	登十宜臺雪得一載
次石醒移居平湯堂 <small>詩曰</small>	夜坐即事
讀三國話有感作	十宜臺物色蕭然
冬至吟	次城北書帖韻

夜坐得鳴字	因知事有感
喜克先怕張來	生朝述懷
朝起如眉見亂雪有感	除夕懸燭而坐
正月一日途中吟	對觀容使鄭公寅昇叙話
七院途中	次金石醒錢詩三載
坐輪車上二載	還衙日獨坐平湯堂
清明日有感吟	次賈英齊諸生栽花詩
周覽鐵路至柳川茶橋	上官里途中
望漢寺逢姜春奉晚石	早春以來陪暈作崇
次白香山憶江南詞	三月晦日春臺憶江南詞韻

處在水陸要衝占得農商便宜而克廢闕曠之地四顧相望未得成效豈獨此郡為然哉良可慨也

世間營業自相隨仕農工商誰可知率土莫非農為本力穡應無因穢蕪比年旱乾苗失稔職寺司民髮欲緝之野野其故惜澤陽山童皆在誰對此地聞西人說器具巧拙適時宜曰我民生湮精理必不外乎古制遺

排闥賦事

聞道長安米價高猶嘆又從操高材方得一升買一升之外如斬刀橫行猛吏檢遺越縛之敲之氣太豪衙衙囊索護符有萬家蕭瑟空炊烟無錢不買猶可此有亦飢

三蟲皆夜致益肆置形志雙圓東德枕單地一指春寒攻性杜鶯到轉輒外復起通宵不得寐縱有朝來補無由珍蔬類惜問此何物唯委與蚊蟻其苦也如此僕防不可忘一即高足床元支攀級純四圍青紗依欲穿烟縷而或處其中隨意穩貼膝但見栩栩蝶導余困之發黃梁熟那未更漏頗忘歇依然義上人直到高春日休勞問無堪

惺惺神氣遠

月柱

種得孤根自遠匪護持堪依以歡娛流深花飽乳芽數長班杖鑿雨霖滴終類生或皆享種種知造化亦規

養頓漫遲平澤郡

詩

因時事憂歎并引

本郡近來雨暘不均致荒荐臻大抵此近處平原之地勢稍膏沃而別無堤堰如干陂池皆為勢豪買耕故也蓋農者先從事清洫以興水利收功矣現今泰西各國亦以農為本另設學校練習藝術而工商業興焉我國則不然全國以農為命者只此一業而非但講究之不為前日野務漸至退縮山林童濯陂池廢塞不思修繕徒歸劫運若值災年未免顛連可勝歎哉今觀此郡

因今初歲吾家有口三十餘日食十升猶無儲餘益宜老反切想見艱憂日甚此思量方便無其術何心獨安者城居物之不齊物之情力使低昂便不行從未濟此者便宜任他流通自快頓而今作事莫若足過地庫情與之爭孰主張是必有人揚揚自云處處均生凡厄會伊誰忘早竟仁愛臨蒼昊但願從茲集粟年粒未狼足并一殘虐時車財海戴四漢家紅蜀金益十不同街市未高下靴喫唯胡高枕眠

排置床帳紙筆

道家惠三彭制之以不睡吾法異於是等既如飲食所惑有

白石醒去後神思寂寥 十月九日

停車場邊曉見龍又地 天下紛紛何時定

送克兒登一草亭 近來情 做種東坡詩花

夜坐遣懷作 年來老懷 對恨因拍壁 還憶

鄉長賦閑志 王公志 老病嘆

達李和寶敘話 感事

夜坐自詠 偶吟遣懷

有野思述懷 執閱忠臣公泳燒

執趙忠正公秉世 對耳明酒詩以遣懷

簪香味懷 天氣陰寒頓無春意

車中有作

見堂與石醒 弟竟開 昨日常派目怪 動機六事

列車行 謝首書記早紅柿

感恩詩 與石醒登一草亭

晚後命酒與石醒又賦 聖蹟園奉觀有感

午量自公需感憤酒辭 今夕何夕

伏枕呻吟忘病無術 翼兒未開家有發花

重傷會 寄清風衙留方碧下

送石醒南歸 枕上排悶

平島堂秋日書懷 秋日陰雨排悶

驚蟄日賦作

二月十三日打鐘

病餘春感 英親王位祝望漢寺 有歲

庭院花卉爛漫數榮 晚上十豆臺迤邐有吟

持齋僧昌均慶浩未見 竊想今春以節候差晚

肇夏日強病登園亭 有感於心賦詩抒懷

庭園 一草一石無非我 精力西到因感作

驚蟄日賦作

西風滿榻入新新，老憶鱸魚未有因。江上老仙空對酒，吳中道士祇無尊。時逢遠勝以爲題，隨處好真如谷口。傳何處得來，如許大官，好三日雲紛紛。

平陽堂雨中焚香靜坐，拈龍遠懷

三時霖霖勢油然，散却人間苦鬱蒸。未去類風無積雜，并吐花雨不慙把。前姑得涼入席，調琴管管清湖。水韻筆香，羨著走頭坐，對落明珠灑碧蓮。

登十宜臺觀筆

步隨生印碧苔，地迤骨天香。碎掃包餘韻，清幽蟬曳響。殘暉明淡鳥投巢，烟和筠篔簹。臺區風帶槐黃滿，地地對景

鄭竹醒來訪旋別，因有作

有家臨門倚，解頰歡情旋別更。或悲幸緣控子，如期日徒。依論文未滿時，已科風沉埋。杜撰應知題品，且聞推如今。無暇添香篆，君亦勝在自。或思

對石老滿嘴，鷄酒之饋。侍以謝師長，升洋華

都安知我淡如僧，為設五簋大前位。依以魚狸味，自別蒸。之由孰，款可補。始消一度，臺中日變。階千會，柳底冰能使。老火風味，足夕佛格。兀懶未死

近日風氣，涼政有松江。卷調之興，而不可得。今此

鄭松庵，履立專續。忠中許思，喜題一詩

新蓬前雨，雨後長橫。棧一架，滿春光。朝看寸進，永清露日度。倚袖帶，微涼恰自。或陰當，畫瑋偏能。結子待秋香，誰知笠老中。勤意，移似蓮紅。與前並

雙槐堂崇藻下請教，并引

神仙第宅，蓋園溪山。場園果園，仲山陽樂志可見。翠哺笠館玉，桐月別業。斯存，彙寧警遊。繼未盡，桃源之美。今成。遊憶向，粗記籃田之。和鼓場，鄧誠恭。踴躍引繩之。以詩曰

窈窕城北，洞瀟灑。變槐堂，天鼓何奇。壯人謀且，停當有泉。皆雪澤，無石不全。剛處，在江山出。臺中九華，藏小舟。舊業。喚危閣，強紅標。庭園丹壁，鏡門之翠屏。張屋中，神是主山

當案一宜，應因聚。翠神克，香辨。舉起不忌，下畫燭。想無伴。吾雖有，年何無。意備呼，嗟何由。付交同，又惜。表眼有，願味。忘憂草，高眠到日。吁

可定

蘇公人嗜，檀當年。二子徐，卿莫我。而東，彼認是非。聖物對。乘此今，只下涎

碩收，櫻山蕪符。自朝

昔年蕭，頭五州。符志氣，猶吸有。有字一，被今來。何太。重。羸。腰力，的不。得。舒

題前菊架

微病作崇，轉和平。握手悲歡，好弟兄。病是安心，為客。穩詩。因搜骨，對人驚。清輝脫，鼓唯。專化老鶴，祝翎。豈有營。饒。道。君臣曾，試藥芝蘭。緬合最，閔情

達鄭竹醒，語到。鄭乃山。蓮葉酒，和約。事有。感。而作

世事變遷，日復新。和則幸，得舊交。親池荷，醜酒。無消息。眼。望泉臺，是故人

七月初五日，子夜夢覺。後枕上，有感

神理人情，是一問。今有夢見二親，願平時三字。家庭訓，為念。定官或，速運

蓮葉酒并引

賞心惟勝事，無用端。合以詩鼓

秋序伊始，不能無節物之感。拈韻得，春字。達懷

晚雨飄荷，洗點塵。堂深碧樹，嫩涼新。鶯啼如。況今。處暑人。騰八醉，即長春。老態。那堪。悲朱玉。孫。嚙將。擬賦。安仁。田園。香。猶知。多少。正是。鱸魚。一味。珍

竹醒來訪，共賦

竹風醒我，午眠。慵把酒。論文。幸再。逢交。契已。編蘭。簿。簡。視。相。漸者。晚。望。容。固。知。之子。道。將。勝。却。假。伊人。既。未。供。莫。謝。當。前。酒。盡。樂。送。君。他。日。去。何。從

拈韻賦，得示竹醒

護鼓簫，傳探。響乎已。底幾。入。鑿。諒

石竹花

亂如青節，細花。羨深。淺幽。芳。絲。繡。回。粧。點。剪。裁。非。手。巧。天。機。自有。化。功。中

怪石，後而。刻。或。十六。字。贊。戲。題。一。語

惜汝天形，贊。殊。文。身。常。事。約。在。羊。草。化。權。吾。有。南。小。露。衣。被。舟。章。刻。十。分

百合花

纖長嫩，綠。畫。難。裁。一。種。芳。華。最。莫。或。匪。合。伊。反。花。樣。子。宜。泰。名。賢。兩。看。未

外世皆壯，晚樂。隨三。可。初。心。付。兩。忘。勇。恐。仙。何。遠。調。開。病。不妨。似。將。神。秘。地。留。待。福。人。庄。占。取。專。清。餉。粧。修。集。象。芳。法。帖。懸。榻。古。朝。來。在。箇。香。棋。團。令。詩。帖。詩。社。舊。稱。黃。龍。葛。蕪。絲。竹。栽。花。驗。四。陽。方。外。乾。坤。大。開。中。日。月。長。水。聲。喧。語。笑。樓。氣。通。暄。涼。視。履。祥。宜。考。揚。謙。德。彌。彰。影。庭。趨。賢。子。弟。床。純。妙。深。即。鐘。雲。觀。並。後。難。月。又。傳。光。堂。談。話。有。翼。厨。供。養。無。方。高。卧。香。巖。上。優。遊。入。壽。鄉。陽。春。元。舉。和。白。貴。貴。合。章。我。來。窮。覽。勝。公。善。賜。頌。詳。仙。凡。雖。有。異。離。合。苦。無。常。自。願。秋。鴻。懶。長。懷。添。福。累。斗。穰。何。嘗。大。田。園。文。已。荒。雪。與。來。難。得。風。樓。暗。自。量。平。生。知。過。感。番。老。蓬。難。傷。佳。境。要。窺。管。茶。餅

達地契事務負東然碩賦得
全馬雖懷至未伸偶令相對話情親
四思往事誰知我若亦當時承準人

秋氣漸冷秋懷無聊從筆白遣

大大西沉一葉凋指中星斗照
秋有路白歸鴻飽花高掛黃金片
秋有路白歸鴻飽花高掛黃金片
秋有路白歸鴻飽花高掛黃金片
秋有路白歸鴻飽花高掛黃金片
秋有路白歸鴻飽花高掛黃金片
秋有路白歸鴻飽花高掛黃金片
秋有路白歸鴻飽花高掛黃金片
秋有路白歸鴻飽花高掛黃金片
秋有路白歸鴻飽花高掛黃金片

紀元慶節日宴待地契事務負于平陽堂

原隔勞動似量曾經同事我知詳
書期會無愧性走惟往事運多感
况遇令辰迎出帶只恨

未可畏是多言上平

消雲漢隱蟾蜍乳乳蕙與十里餘
一秋芙蓉行漸近枯

秋意

放翁詩云山深四月始聞鶯
此蓋以四月鶯猶鶯晚之意也
此北地近日鶯聲狼籍怪問居人
則此北地由來七八月鶯聲自
在東坡十月作重九會語南方氣
候不常此鶯其亦猶南之鶯耶
心甚異之錄而賦之

百轉鶯歌碧樹巔南方秋似春
好聽疑聽月看鶯鶯正憶天津
社鶯啼鳥自能隨此鶯發人未
足賦詩篇近來世事多新異未
少深求物一違

妾使病得祛身如蛛結網占多少
鳥鴉純毛話彼真只恨才疏不足
矩思量惟自費空嘆

方今碧下一束之約居然遠夏常
物漸晚懷緒依然

觸吻與懷百感身獲琴欲少知音
風聲萬擊庭梧葉雲氣沈迷院宇
林鶯啾尚含采友意鸚鵡唯存
蕊經心花香細瑣無人會珍酌清
博謔費吟

盆池種得妙蓮蓬兩聽珠碎玉聲
花以聞香葉釀酒能令孤客寄幽
情

古語云如艾蔗本漸入佳境余在
遠兼酒亦云昔今昔

醉造一依前方面既失於炊燥又
妨雨陰所以為日夕

始也如香初盡芙蓉即日可恍中
也如種高士傳令人

氣豪終也如聽清廟瑟有一倡三
歎之意日之又近而

味之流深不同如是夫然豈獨蓮
葉酒為然哉噫

貝葉蓮花八萬辭談龍畫日竟何
為乎如妙理吾家釀美

鏡中燕長一知

七夕夜與石醒口占以效乞巧之
類

今宵河漢放光新老去彼危却有
因橫羅微情是清秋无

自是農家學壤多

吟示石醒解嘲

君美余時性所令人言罕見老風
情手鼓口談誰兼得且可名留各
一評

地契委員高錫弘持贈秋筆墨詩
以謝之

深前宜情方絮教文房堪作蘆花
翰墨香色重醜鴉羽毛

顏形亦猶兒鬚松處士宜同志有
惜先生豈結交無賴君

此物充或四端現從茲不恨吾

十宜堂秋興

妙氣清涼愛遠襟西風近復動角
音菜花穩穩堆紅粒禮

自是農家學壤多

吟示石醒解嘲

君美余時性所令人言罕見老風
情手鼓口談誰兼得且可名留各
一評

地契委員高錫弘持贈秋筆墨詩
以謝之

深前宜情方絮教文房堪作蘆花
翰墨香色重醜鴉羽毛

顏形亦猶兒鬚松處士宜同志有
惜先生豈結交無賴君

此物充或四端現從茲不恨吾

十宜堂秋興

妙氣清涼愛遠襟西風近復動角
音菜花穩穩堆紅粒禮

從未彭澤小當雲薄薄不成章

金煉培未訪喜題

回首前塵每賦然因河阻劫但年
音書地遠無因寄夢

想秋未只自慳豈意病天風而裡
醜醜成今日粗探蓮英辭

備說西疇事蟻垣通霄喜不眠

社運來分給後賦事

西風吹送雨霏霏整理申勳太守
糖際此艱虞 王事適

孤運沈息憇茶寮

延西南面觀稼

一望青黃半熟未春平留豫慶時
和豈年何地酬 君賜

覺皇宮淺澤仁祐年

似有前因是大同夫妻款款出尋
常珠甘萬里其來遠節

釀半醉釀所賦德三

多從殊俗托知音時時重穿照不
沉今日西川或志好一

博則的海山深川

能通譯語等逢迎我誠恰公是後
莫機客愆愆心內事街

頭出鏡有餘情右居

形田芙蓉又同日譯稱博話士專
權箇中索論先天妙自

是人為日勝前右會

津頭半啖批黃皆沒費殘村一日
烟烟價分毫復林給由

方碧下惠鷄二白費四黃饋云甚
感也詩以謝之

碧下施遺念此翁瓶文匪武好雖
雜羽毛正備十羣卓贊

品雖殊五德同調鳥的知挾眩暈
養壽期得破昏蒙嘉君

好惠多由感誠向陶陶意不空

詩境縱筆

一團詩境在蕭瑟樂意北斯正傷
詩自有清涼遠客與可

無魂著逼人恨地連海城烟雲
供花體園林錦繡排行路

猶堪常看過茲吟何况舊朋聲

秋郊紀行七頁

大地魚燕似傷農養生濟法香無
津如今喜看豐年表儘

大地魚燕似傷農養生濟法香無
津如今喜看豐年表儘

大地魚燕似傷農養生濟法香無
津如今喜看豐年表儘

大地魚燕似傷農養生濟法香無
津如今喜看豐年表儘

大地魚燕似傷農養生濟法香無
津如今喜看豐年表儘

大地魚燕似傷農養生濟法香無
津如今喜看豐年表儘

東蘇野人可謂沒風味別供王今忘設馬赤膚之甚長腰
米出自金樛新歲日節天撒積雲色白靴地分補棋盤圓
大塊碑橫小塊側勝似八珍方走前色可餐舌香可喫不
待雲糖甘舌咽何人踏道嘔涎要時無羨烹松鮮其味
靡也別有在所貴家家各自少婦怡顏沈鼎笑阿翁便
腹抱孫眠酒食豐年風日好朝朝菜羹起炊烟且喜官倉
租稅日不教太守勞著鞭

視下道情

視陰聽訟見歸情豈止令人顏色生正好抹黃皇里去當
時索補 袁龍成

看是河生物那由苦病命此而無割術不復責微蟲

盧寬調餅吟

概以甯餅著露華色光二種勝於花尋常非特喜心眼美
候調時口便香

對新禧辭喜題

錦帶玉珍二十年今朝大嚼揚州仙光語傍人如不信請
君看我新題篇邇來此年年不熟就慶逐日元朝連跟殘
不足飲酒報社米何能解倒懸一身擔負百里重臨餐忘
味心愁然辭衆一變作石康仁覆察察上有天東事昨日
觀野也獲飽之前眼歡先克封可比康衢屋廩財擬阜南

通籍既近於 筆較之下趨走於拜壽之列今至老白
首臣臣天馬之誠固已別致而曾或矣維尋常時節之
間踴躍觀瞻恐差於餘人之後况 誕辰大慶于願跡
滯迴那未克趨過瞻望雲天不勝感誌茲披此酌相伸
微分而轉慶衛學筆對之意不寓於其間云爾
斗極終南瑞氣盤呀萬 朔野香情歡能擎金鑑雲容碧
風吹簾花日影丹口海均霽天西露一堂同 慶那衣冠
駕鶴來放鶴班賀小酌能無此會圓

吟唐范葉華

鶴花差早菊差遲惹見唐芳迺夕來錯比抵未唐范在棠

葉重葉結絲野水天長平鷺下園林陰逸散蟬吟此時
靜與誰先得正好江東一枕香

鐵筆賦懷

焉用生平志病經衰耗因飄零馬百里有笑花何人
方今岩下有書送遠魚鮮詩以謝之
非茶非酒貨非媒來自故人天素裁兼汁快元云有法深
如近我百八頓

萬壽聖節平易堂祝喜并引

於惟此日乃我韓萬德年無疆之 慶那九凡履余靈
孰能無延頤攢祝之歡而至如百密然無程倍帶一自

風日清佳百極黃熟野色油油觀稼之亭雖堪而時
政值快有豐年之樂是日之遊可謂好也何賦詩
仰看秋容沃若空蘆花惹德曉西風山園野曠天疑畫江
拖崖回水似窮鷗台易知分上下木黃難得辨邊中招選
選勝年豐慶幸與芝蘭氣味同

對黃辰性語到工乘所白雲洞事次有歲二載

年來衣狗事難常語到工乘意飢傷今日又聞前所未最
玲兩碎杜旗揚姑更
聞道東農舍尚書名園新葺好樓居自憐初志非鳩拙老
買荒庄一獎虛右白雲洞

李炳佐爨耐魚第春珠醬地菜各一器送來其美之
也濃稠稠之也甘適使病餘之口佐之加餐所謂官
厨之饋非但子本不烟教之以方而亦不承頭嘗所
憎聞仍述二載道情

相子菘菜與堂糖材料不是出尋常寄米病叟偏宜口可
想調和手法良菜沽洗

對李雲樵容儀有一幅於芙蓉山觀稼之約而方碧

羨得新鮮烹法依掛唇骨烟同歸最憎強鼻官厨下非
熟非生故欲遠粘爨
下高委負及諸事務有并請選登臨于時烟消雲散

架瀼雲篔簹翠翹鷄子吹餘懸幾願龍鬚長番成侍煉欲故
多寶供佳釀竟杖足雖先兆祝
中和殿外進宴日 皇太子殿下殿壽詩展韻謹火
吾君壽期與克句寶曆遊等歲歲新仙香重根春不老恭
將華祝致對人

申雅甫淵叙別後送賦

經事徒勞夢一場對樽憂樂足相當權宜貴放三營密託
勝遷移八世庄鼓擬昔寶慶謀止最憐新業黍黍張武使
去往前期在預笑他時較孰長

蚊苦驅不得有期

黃運頌一卷時
平易堂賦御事遠懷
史披觀時物遠懷平易堂風仙粘白雲山蔣掛紅囊地暖
鶯猶晚天晴鶯自忙何勞消日靜翠韻奏疎篁

咏千里鏡

目力常強現有涯鏡名千里最神奇度銅海市磨玄得瓦
鏡具門辨白知機迤邐疎疎左右孔隨低仰鏡毫釐不復
一那貼行畫持此疆形世可移

數葡萄為鷄羣見倫

莫讓中動有暮朝榮枯實薄宜曾科橫欄映日垂蒼玉滿

金山嶺道 命使還吟

名德曾聞清白氣聲譽重旬湖臨今朝儀節三時祝重
出微忱愛國心

申雅甫源庄拈余字

况許辛勤一屋塵營鳩得夫竟何如最情新卜仁為美回
憶先基復復餘掃勝封仗無彼此禮者登園有未除荷君
非讓田園托但恐將來堪屬余

公州送中因歷路所見賦一詩

點檢當年樂無非食作勞營新無果飯味別具芬糕圓老
編萬晒村光矣茲繁繁壤數有象妙理又清醇

宿木川店

天寒使卧內轉輒難難或霜草土聲息月林鳥夢驚水砧
春火冷蟹研獵燈明石老應相憶但聞屬陳橫

天安送中

郊原行盡日多稼足瓦蕪砧砧村對響推歡盡感呼况况
地寒路晚景况名還碧山知有素應不負吾迂

錦江渡頭

秋容淡沫畫園依鷗鳥漁翁西忘破隴掛黃雲木稼熟江
湖白雲蒼蒼霏霏倚城樓樹仍經芽懸望楓林始放輝何必
吳中鱸獨羨鯖魚賃為正廿祀

短唱伴也可忘云爾

中秋望日種金節羅氏嘉俳傳古說茶酒家神思宛結
帶塵塵兒童况况是今年秋早成歡餘快樂也時別眼者
羣止各得所遊戲羊林噓笑語彭城老射羊七旬白頭遠
在江湖塵豈無人滿堂室只能過辰增懷儲又有一爰
居知無聽此令人惱心背南隸北駕次第事去留由人不
由己棠梨一樹媚春暉明日雨晴難預揣道心算計十常
九種種思量欲狂叫梅花何瘦鶴何孤桶酸漿若新桶酒
棠梨之日獨憂感孰云今朝是秋夕所賴俯仰無愧作上
有蒼昊照丹赤

唐菊花鮮妍可愛

一種芳菲早菊花秋風分色自裁花何堪陶醉屈原醒只
許箇翁眠欲寄

日人大因德三移任全未有書取別性然有作

人情不以越秦殊我與同三契意乎今日一言或達則前
期帳望者天涯

嘉俳節日并引

今日無人者秋夕而惟余不無諸府之行在前魯河不
已岐門之望亦有由然而係別人聽不聽之如何世
事之不得自由一至於此耶老懷蕭瑟無以難解聊述

徒費消金俸文字為榮浪得名

訪林藍後喜根不遇

製作者未過半思曾自先故托深知窺摸便着斯文重聲
韻堪為後世推一識韓荆誰不顧今尋東野我猶逢滿棧
山人何去怯悵悵徘徊轉覺悲

上十里臺覽賞縱筆

自從公府去寥落遺懷難日涉思常功十里見即歡菊
傍醉石楓葉映香碧殊有清真趣請君說與著

山菊爛着庭園逾黃令人不堪開戶堪坐強病倚樓
不覺日之西沉有吟

拈天字賦知事

清秋望不極遠水淨無天野菊香無賴山楓色入鮮掃後
惟恐後刈穡各爭先晚景知多少詩成寫一箋

稷山途中有所思

老盡物華露已霜天時人事自空忙黃雲滿地未千里紅
錦掛林楓一場蹴踏辛勤功漸就電機張搭信相將至今
世故商量在試向西風意轉傷

運街拈名手

閱盡平酸六日程修人事上一番行病則取暢堪補意賦
安專閑足勝情應物無心心轉小觀華有眼眼空羸如今

謝中事務負茲願自周賦

家君方絮意團圓製備文房山水瀟灑活雲烟沁墨充縱無
瓊玖板堪與硯池張心既非容易深知故意長

鷄冠花

藥圃之奇凡亦排鷄冠尸素浪泰傳縱云丹頂潭相似一
啜無期此德幸

朝鏡孝贊政址踏丸為送 命登送送懷

里林何以未曾休可兌奔忙此走弱早鏡難通李贊政火
辱承接鄭公州人言有對猶堪慰誰道為情只有慈好事
常處虛事是登梯妄想意無由

中秋月夜與石老登十里臺適時芭底棋了以狂鼓

未集遊戲一場轟聞豪壯理理歡喜是知與眾之真
幸樂也因以酒及或體以冰給縱筆賦得

太和元氣月華灑正照山河分外奇壯與非為誇此夕清

元自是勝他時曾聞公達干歌奔故表宏暢酒詩可謝
蘇丁稍慰寂相則何惜賞我苑

聚未尚書問余病者意道重覆為述一詩謝之

吟青年來或却春身形自問亦堪人雙疏疎葉緣東道
息謀生轉若平康休養無殘子母醫編籠之樂君臣尚書
明強懸秋水連哥靈復補效神

然一出便作楊州仙吾觀熱境既誇子謗雖山積家有幾如
海良田八雲第全家坐食日高眠而老何心獨自負惟求
素志不營生一麾如貫二十載所到只要治有聲謹慎何
曾表戎美廉潔亦非穰戎羸世態漸不如前時滄桑衣狗
長相隨念家一物吾何有魚網之故鴻則羅西抹更金鏢
百出存者如千不能支彌天難根滾到極福及鷓鴣一個
枝家人捨我其誰歸聞說南渡未相依使我早入謀生街
尖無今朝此式微所願聞西楊夫子四知千秋人不非
一登南園四望望漢寺仍運樹神思稍覺惺然因拈韻
瘦屐道遠一笑秋沉病故道得秋籬山客入眼搜窮務佛

試把愁城踏解圍吁嗟及髮竟成非登高幾處要須尼掃
榻如今共食菲痛胃何嫌洗菊酒霜天正合提羅衣多情
刺得東籬下故放秋香滿眼休

聞想家南渡寄縱筆述懷

秋風颯颯秋日薄鸞鷓鴣擊鴻雁落門前五株楊柳樹榮
耀幾時今昔東昨日歸去龍山客東籬抹空復酌忽驚
家書自郵至書中備說家中事陳使債主急索錢屋券已
舊他人地皆嗟妻子惡無家扶勢欲來於我寄生平不用
子莫中住深從權團聚同口食食寒得何以益復紛紛失
西東壞心牢固也如此替言思之若在窮人懶腰符有由

庭園各種花卉入秋以來次第結子隨熟隨摘儲聚
蓋知此地無花之名可耻也思有一變作花鄉之意
故花種如是留念者也因各分裝散給邑下及外村
如能更花者使之明春栽植因成一詩
一一封中百仁家栽產種不為貪無他德政臨元上藉
作明年有脚春
與石老登日涉園興賦
為者物華侈復因江山寥廓淨秋光漫空玉堂蘆粉白安
地金錢菊輝黃野稼頻生聲程程寺鐘稀送響層層霜楓
暈似洋中酒噴起風前醉欲狂

山菊芳菲瓊瑣實先于十種後於唐何須苛誅名相異夫
必淵明得許香
登十宜臺賦得秋日即事
感極推金玉吹張涵空遠水過寒光滉窻中容儀憂碧紅
霜柳色似春黃愁轉孤懷鳴柝杵涼深寒病幽衣寒更若
一雁排雲去却惹詩情到遠蒼
近日調餚稍覺食味以詩自嘲
一用表在水雲鄉厨品當秋滋味長炊飯起先搗粒矣
魚挾箸濃油菜摘團羹時方美採圓菴著日復香正值
重陽黃菊發故披林釀指先嘗

二日官田種秫乃是彭澤古法有鼓不告禮奴甚可
駭然打單輸入可也打者禮然有恐懼之狀觀得從
者掩口微笑而後乃曰唯亦一笑科也運賦一詩
傷感逾原信步行蕭蕭草響聒聒春天紫色青龍此秋
日寒聲白雁橫得裏重陽音不新鏡中千里視偏明時時
飽倒田間事賣美村傭一喫驚
上十宜臺賞月述情
清宵散步遊郊原馬叶橫未遠故園瀟瀟氣泥塵賦不動霜
華輝月冷無痕時當秋景萬多感愁蒼女音最所現臨闕
丹心誰得似仰觀星拱紫微垣

氣凝心悟寂無量小設勞沽酒使睡回旋見引燈奴誰知
此老歸時與阮淪神精月滿街

東皋秋興

振筆臨高放遠眸西風吹入插梁秋雲屯海客牙橋浦金
散日人鏡道印三登苑觀昇平像百里初無太岸憂我林
官田今亦熟一博聊復十宜遊
午後偕石老及鄉長向東皋適上新登遠廊雅登珠
柝伴上水澄以十里鏡轉相注視野色遠迷風氣蕭
森未極幾盡收獲賦路比前倍荒穢已酒至以無趣
五行之日西而歸路過新窰村見打林者以履解供

來此後今為一因而世故東心塵債解襟襟惡度佳辰未
奢辨酬郭之遊自顧亦老矣迨日秋風蕭颯鴻雁嘶寒
節物之感鄉園之思無第可掃無神可埋而重陽載回
兼菊競艷與言對此悲歎起時使何思欲採黃東籬
澆白西園而孤吟獨酌反覺凌越茲遊歸間數三知舊
醉吟劇談以竟伊日不使孟泰軍笑人寂寂論亦老去
變興也豈可無詩篇相酬耶乃率前窰拙曰
異鄉多病成腰圍節物驚心奈已非人事空生今日趣菊
花還作去年菲無風朝解歌為帽有眉思遠望白衣戲馬
彭城何處是共君堪與醉相依

恭餅戲作寄子碧下解嘲

重陽前五日之甲方碧下下蓮人稱蓮人平生善戲謹說
與碧下遊解法黃家著根細切并調蒸粉米濃匪臣蓮人
言之碧下聽微恙所在暗相合忽惟今朝食指動有未一
僅糖兩枚新發打糕為薄雲佐以蔬酪餘盆盒數或饌或
一小要饋亦全衡不見之各將往討反迎擊所見甚同將
計願譬如兵哥相待久先機送兵送相壓好漢方能誠好
漢志氣相投到歡狸蓮人願為陶後老碧下可作文中使
眼有良辰在陽宵與君泛黃一大飲
重陽詩并引

對蓋多般趣共醉何妨自在眠

次克兒晚堂韻

睡起推窗曙不迷驚看世界一長齊神功已象瓊成海奇
貨將居玉作堤隈疑知夫隨雨後驟痕明是自風西等閑
莫說花粧早梅信從茲補舊題

南園晏晚石庄小集做白香山尚齒會輪龍之作

偶或尚齒畫朝衣合得四三兀戴碧草木欵華枝已晚
蘇閣戶動金梯圍知處世人尚齒齒有遲遲與飲飛轉重
親交謀會夫保留康便莫相違

瑞后少事次石醒見贈菊枕韻

堂寶穠寶語洋洋景祿比恒河

石醒以枕上送懷詩示余真是一般情緒也步其韻
寒燈殘夢醒還驚苦憶人生多變更最憐火枕皆夢裡
送金鷄報曙明

方令碧下庄五老會

訪君筇屐接風烟一室琴書恰眼前那序推遷嘆昔日村
坊深卧送泥年興隨宿契由心合喜聽清談任口懸人數
多在商老會且將我飲付龍眠

踏畫物華捲宿烟居人歡喜迎前松依南菊吟清日菊
似官柳抵暮平地迥無遮蓋淨列風號有力遙帆懸閣樓

真率多般趣琴鶴相隨最要身

送克兒之京

悄然送汝向京師風氣淒淒欲雪時寄重維持公務在勿
令為慮此分離

男兒年少致身初鵬路扶搖萬里餘日下親知如問我為
言漸覺廢省書

雲樵庄宴五老

茲遣會趣桂英繁喜看清風掃門有酒地惟香樂園吟詩
境豈是窮村雜華向晚凌霜助山意凝寒釀雪宮細故隨
綠酒却了白頭相勸笑談喧

任便不須試越方青囊我作素花黃眼睡偏視精加視莫
孔常障氣透香較者董人文也枕破連筒合池在鴈同情
若海秋衰意可使隨身月津航

嘯傲軒得營字遣情

笑傲忘懷氣味清世間形役若為情風翻簾殺波紋細烟
噴爐香篆安成鐘較抄分輪乳乳棋閑勝負子丁丁春官
無事堪通何必休閑有辨營

平易堂七老續集

三品官增到七旬公家金俸未全費美深豈是尋常地紫
牌原非別樣人譜性無如依老望暢懷誰似接交親謀歡

相如思渴苦難裁獨坐愁看砌菊開物既以心情可愛書
未匪意感獨推疑霜圓顆豐肌潤瑛日朱芑美味設甘途
露前真高品名稱七絕未應誣

慶輝僧甚泡煎一器供未與石老佐酒次克兒堂韻

寺持齋夜吟韻

如意天花月滿庭心香芬芬晚痕青固知其佐生分別不
是維摩賴乞堂

對菊吟并引

庭園花卉洵亦多更難要數莖只是西窗中一物豈無是花
意者豈在菊獨得霜後一時其考傑耐久儘為志士所

今此內行下來謂之團象亦不可謂之移家南渡亦
不可可笑也因賦一詩

自從彭澤蒞倉基陶淵明高風卓難及詩酒亦謙謝一事
差可擬家累不曾隨筆硯為兄弟梅鶴即妻兒首尾二十
載官舍似僧居自喜如脫屣超人上乘虛世故忽驚心蒼
茫問字空扶勢南渡未嘗見有今日竟豈能整頓柴盤
陶曾有是又覺出其下醉石應相或黃花莫笑人而頭
從今住屋程生陽春

謝方碧下紅神遺惠

珠寶貝爛盈視又如排成六花俸金鑿銀鑿頭是萬木
風霜搖落天聲復復時芳鮮胡塵不沮又必相用天獨
戴會仲連傾我秋膠為君質托我晚節長相勉歲寒心事
聊持贈誓把松筠作後殿

謝鄭松庵惠銅魚

向荷萬鱸感而餘尺書來伴又銅魚何當有此冰珍重相
報無緣數自嗟

探婦金尤于歸日作

誰言南渡是天涯三世居然集一樹虛箔夜澄迎滿月
根春煖著新花孟光能我同鐘馗阿夷戎人有望家笑聽

尚矣近見純砌黃白現者七抗常七者益可愛復著賦
不載之語得一則

平易堂中秋啟慕董人居士按花譜早非不爰晚尤奇哉
已區分別場園種種芳菲難盡名春粒夏餅如相爭彭郎
八無花居一今年便作河陽城自從蕭發露為霜香園就
次飲葦芳金谷樓危銀珠碎或隨水落津井歲最有湖明
所爰花不與桃李競繁華含笑不吐紅唇夏者與元弁歸
同科令人苦憶其未遠花到湖明應落時重陽少前與少
從白鰓黃閣互始之黃者如金白如雪金雪雪滿眼悅
風前作態美蕩旒月下馮影搖腰綴太似列貨皮斯市明

長過身少許使我時一換確石復殿級瘳走何多數似鱗
龍身猶如螺佛頂附若非化工妙彈巧詎能做此如有錢
買富人先兆願因知天地間物各有其主悅柳既禽獲桃
竹竟歸社吾知我宜壽奇慶罕今古遊將學淵明借聽田
水園

嘯傲軒雜詠并引

本郡政堂高顯題詠紀功採奕幸諸板或羊久也滄或
措置失宜今皆修潤之排廢之余亦因僚佐請願揭辭
石重出記十宜臺序平易堂三板於是軒眉標斧鱗
井并其新其舊一寫目而畫得之比雖差好事者之為

時得在島中截斷加恭供余老境者已長可過身大無
上下而促節生死改若排均是真造物者極其巧妙非
人功可及也青黎馬蹄等之自或得見儘亦多矣然彼
穿求之可得至於此物則生得這般次知其絕無豈人
與物相過不傷者存歟藏賦一則

天上白榆花海底珊瑚樹檢花精下沉珊瑚氣透湘有時
適相遭巧於島中上化為一畫很仍被喬松護塔桃故容
蟠火業與為伍滋長異无芥寸寸里霜委宜無積芥過級
薄扇常觀吾見昔公餘一見知奇過愛親欲其壽碎馬扶
老具天寶雖云美人功亦可取全身衣黍黍兩端圓錫圓

運六

太守手看滿平易堂試問有餘幾資本五升強戎有投河
術用之鴈鴉羣渴可說梅止丹宜梳鬢分餘波而收少後
得在傍觀茲吾性所喜推已及諸居謀眼不謀口豈真度
躬云

平易堂

慈愛為治化信誠推將考及得權衡委翰官事如家事審
察民情若已情才補有由方寸地心慈莫越半分程春蘭
秋菊俱難闕然後期圖平易成

東倉林選七日氣輝寒露正金庭頻苦薄寒在此可
知吾衷之甚也賦詩自遣

次郭春贊鐘錫蟬詩韻
爾本安生象石家我要象石便忙多驪然一出烟寰界苦
樂而今問若何

菊酒酒告熱

淵明不詳詳尚蓄琴之素董人不學飲能知酒中趣俗方
止麴米滴酒不足慕杜康有香付得於花弄譜松精試已
驗蓮葉妙亦具可成東籬菊謀秋早自春詩占林軒半移
傍柳雖堪摘佐重傷解甘香頰認真霜餘手自擬淨花菜
菜句慈費梳財用非全藥料神思將與衆醉謀及老孟先
指使依夫子調和異外鄉及期開春慶先遣石醒常斟從

嗟夫余而哭此文孰耶念昔春爰之志有踰至情此在
少壯尚然則今衰况同病之情與夫南北睽閱之恨種
種能轉實夢想而謂將非久歸曰重尋舊盟豈料今
日春見其九子樂樂然電綬至前就相視法然不覺長
嘯嗟夫情之學切言不盡意更述乾歌三層略持腔緒

一

吾家長德教公先望若靈光獨蕩然自戎向未書薦新豈
知離別遠或千
悲時無幾不悲多三姓堂前思復過此去趙徐相見日為
言慈慈愛婦時

然亦可見官閥多暇優哉游哉之意云爾

警睡雖云臂重懸愈見新非為余使地控權亦有因
五柳雖三字當年先或過求多非本素仍舊實如何
一韻傳相次層伏互後前運似題名記指言某也賢
五才彭城郎煥字堂及室前無習者勞豈有後來逸
出意作良圖一朝元德去城頭驚故場今日種禾黍
先天一泥石民故曰太平僅或刻使君風虎亦云得
心樓宜何少不及我量履東坡亦多事為孰慶與慈
補僚吸餘此一榻容我揚試福如紅鳥翁今七十歲
賦其後文就考允三載并引

運六

石醒有枕上詠鼠詩一截故次之
竹跡蕭如枯葉庭窺人時復壓燈青從來推究穿窺習只
是好陰不是靈

次白香山尚齒會原韻附南岡帖

江鄉雨汝新交結氣繁相投盡白鬚老去酬情懶頃刻吾
生實事是歡娛高山流水知音好下但巴人腔調罷折簡
只要依古勝傳觴何妨借他扶脚將風月供談笑且把衣
冠入畫圖字內弟兄餘幾許晨星落落漸著無

靈壽杖詩并引

京第所在靈壽杖近便下來此蓋伯兒恭川往在浴智

為念凡憂不計身勢弟故意作東遊倉鼠承羊前時遊野
碩初騰此日均恰爰玉樓寒起栗頭忘銀髮亂蒙塵今行
可喜還堪檢骨碎深知異昔辰

石醒有枕上聽鷄之作故次其韻

陽精隨照唱天是適得人聞曙色青首狀縱云皆有職無
差守信最為靈

社米慈紈非但我習慨然餘窮節之艱亦可惻也
且以連日雪仍之故未得暖春云勢或然矣為賦一詩
趁期公餘釋舍關辛苦吾民社課催天意如今懼雨粟只
將糜雷謹成唯

可憐高彈冠日金石半生地意其經涉險夷惟我爾夫
涼向載彼何人
右能文
小飲曾聞名利聞見君越得便心安詩思煒燁生花散文
氣深潭見錦還不覺明時惟思愛所存舊業是清閑歲寒
晚節貞彌勵也合聲華重泰山
右贊華
執謂解詩瘦五言吃若城故遠殿擊樂非學安期生貞侍
丹藥在掛機墨無傾形履勞後逸神思暗中明譬彼松壇
鶴時有鹿雲聲
右詞病
名臣留待至人選一及及現水石間翁與魚機而忘客
稱車馬境常閑冠萊莫道棲無地謝眺今看危近山事業

之鮮鶴帶之與匪直以物以所知者心也安歎之在此
翁謂之知全體則未敢而能知其推量高致事身而景
仰之山斗而翁亦知安歎之知能及於此謂之非知也
可乎然而世受辱賜無以仰報等且掛和韻語仰供一
絮以寓非報也來以爲好之意云爾
人間既落渺茫居經過倏如一瞬餘北海設捕素士氣南
華原有養生書鶴知抱印心常寄輝到成形較自虛憂喜
榮枯都是夢難持莫若愛吾廬
右震世
鵬路唯如歎渡河相者難辨後先花看龍畫餅何須說兩
露同雲捲一家
右仕宦

次石醒形宿平易堂原韻
爰者意梅欲羨春尋常使作吳珠人更博石老寒燈夕能
煖眉知句語新
夜坐即事
風透書燈細德惡愛者半夜問誰歸研人而飛枯淡出煤
酒施情故不稀
讀三國誌有感作并引
一近夜燈下使侍童抄喜龍讀三國誌倚枕而聽頭多可
聞而星在帝霄三顧宗臣六出元增感歎其欲漢堂興
復無聞於自己國事及到五丈原一回又不覺潸然出

權安猶幸我象山伊昔烟霞杖屨間早晚賦歸知有日且
將原草想春顏
鄭松蒼以其先租諱聯壽壬龍宣武功臣遺事讀求
和次之
天馬龍蛇輩出雄丹書殘奏應會同二三豪傑重興運第
一元勳不世功敵機誠深層浦上格是護烟石泉中至今
情收猶能說十載芬芳孰似公
登十宜堂嘗壹得一載
歷數量宜到雲津漢安龍奔逐風飛傾刻翻閱地世界等
閑無物不光輝

上於暮滿江南遊將歸日許與滿莊談
右思想
宜仙宜佛世越然勘畫人間萬種緣彩毒無護餘爰日丹
砂有欲引長年書評未悟詩社祀食拾指渴飲泉怡悵
雲泥或就質說詞鼓聲稍瓊篤
右贊大
宿昔青雲志駕鶴致者先有從道籍後如有馮然工園
餘格日沿海張帆年稔佩連州郡風毛遇順便携散雖非
通籍客實有緣不欺若三子圖報一心懸表置歸田賦冷
者皆殖篇豈知神反作連比玉焚烟龍駒散益陷寒雀夫
葉翻惟公縱情老今在五湖能有悔難進往無因自呈前
衆難傾馮畫置記存邊
右有鳴

明時知進退真仙何少憂商顏
右健健
寥落耽者空故遲風光種種上吟眉清泉白石連三種好
鳥奇花自四時身計優閑加窺飯
主息歌詠報毫縑城
閑起尺起烟父惟有飛雲許共隨
右景致
龍蛇活動掃雲烟想見揮毫魯老半妙遠張狗排位置工
裁文錦飭道緣球歲不羨千金寶繁情遠輸一而既息好
深知特贈速百餘心膽照相連
右書帖
連塗雖夫足仕者每回頭何日復視下從公畫意遊
古人竟交結同調樂不堪西家綠楊社千尺桃花潭湖西
去城北重疊幾雲米草吟太沒味獨酌不成耐若仙遊天

日涉園中堂十宜四時風物具於斯此翁滋味誰知解趣
可查至與可詩
冬至吟
道疎一分物始情天時人事存方成老懶猶似護反管轄
逐微陽興轉生
次城北書帖韻呈現視堂榮雅下衆教并引
東坡之詩元章之書傳寫者惟恐不及借覽者尚可知
爰况不傳焉不惜覽而生被贈遺者予况之詩之書一
帖而兼之者予真是獲金合璧也此可謂傳世之至寶
而願密默何以護此於洋艇先生也噫余知之矣其狗

灑然少陵長使英雄淚滿襟蓋亦如是也嘗聞才不借於
異代天之降才豈豐於古而當於今耶亦必有之矣但
身之水鏡先生深雅無以作絕言春雷是可恨也
不以異時少有聞尚陽喜得財龍運送令帝胃車輿力必
濟金刀緒業艱
昂足風雲出出奇與劉指日仰軍師運幸中道天何意五
丈原頭萬事悲
大業由來在得賢逆業豈謂豈徒然只緣風雲躬三顧綿
歷失與再紀年
十宜堂物色蕭然真是四時之景不同也賦得

其然固許民隱一出公廷壞昭如指掌中結以官契編疏
卷從前錄習一洗空只銀初見轉疑眩互相睚眦莫或先
聽衡幸動揚告示曹藍老親從方便 王事憚勞儲書期
竣功今在末多時寓幸蘇州能事單梅下呵凍賦一詩

曉空口占

曙色初升射暈紅層鴉散亂呼風情隨日事今猶昨概
合商量自反躬

呵凍行并引

夜沉沉燭燭受風瑟瑟添了丁兀子其獨坐悄步其有
思嗟夫落地七十年臣賦三十里雖眼前之清寒集變而

天却淹本自難堪况莫重公餘責在連綴而呼許也觀
望乞奄延旬日為地主者以事則無國俱保也以分則
甯主而慘也滿心憂念晨夕惶惶何事衡訓懇確者疑
漫釋考公措施行其所無事契務稍施稍行將非久
既功如卸重負喜不自勝因其事賦一則

率上莫非吾王有八家一井其區九凡有餘少頌聲作治
規地粹昔三石有從商鞅開什陌食無立雖渴玉澤漢九
三任名但假橫渠一方志可惜公家田簿徒擁虛好倘日
漏獎末如張三價善李四上北陌稅徵西備權博望星槎
返西天打破膠柱張新絃不才吾亦浪承之量田規度知

逸身前便不同

官燈獨坐有所思遣懷

水生扶水豈無緣眩暈如何不可痊月照直如排闥入風
騁還似置郵傳心隨爐火常要煖髮與霜華較執餅餅近日
下工猶未已坐禪莫恠鏡成靴

夜坐無聊拈家字示石醒米和

渴盡水結燭垂花心眼交攻漢古家數炭灰消深擁坐風
聲蕭泚雪紛斜

對話中事務負強顏

休說酸寒未穩時處君何止那人思亮合自解權衡試著

枕上有吟并引

供體親自內衛主之枕心稍安而見煩辛酸賊警之微
余率一侍僮入宿內衛之趨房每枕上聞鼓更聲輒與
寔命不備之念而亦戎履之不可但已者也研研不寐
用本廳壁上韻自嘲

擺上鸞塵付水沈家人且莫却看愁一螺執爨新移肉四
里巡更逸作頭陶令坐違還老日天孫來阻渡橋秋此身

難似安業為心事長如不繫轡

官樣無常次石醒韻賦即事
跋卒四回冒雪風酒錢不計有無中情懷此日君休問勞

時警嗟乎吾本居今世獨也全安所無勢禍見凶兇擅買
吳名色類多非古劉梵宮劫反幾番飛大帝血而無時寧
况又鷹鷂而之敵曷不揚揚化外遊時憂又有大於此請
居者邊新開純露日相持睥睨又爭雄且將朝暮起樞中
戰士如雲也港口軍備似山峙人心解駭相荷物價日
期穀不市長鯨巨浪對吞吐鹹咸安能晏然已如膠漆在
齊楚間未知廟笑將何以圖計先憂而後樂大海無津漏
無礙石印先生去已遠朝歌太守云誰是獨使 至尊憂
社稷昇平美謀何顏食水調調中間知音玉宇送道身依
北紀筆為作呵嗟行一字字是不平嗚恨無長勁一十句

骨中之印聖猶存我生之初為像照時我生之後百憂
孰掌以言乎下則銀林塞路以言乎上則黃塵漲天大
丈夫生丁此時笑矣乎做得何事白髮星星空懷報國
之心蒼堂區區不禁憂時之淚是迷呵嗟行一則用行
慷慨懷百端

天悠悠考地漢漢日烈烈芳風蕭索關山道途何險賊行
盡羊腸又劫閩兒狗縱橫任美牙齧馬輪贏互倚角憂心
惘惘恭望楚囊之為歌中夜作所可言也言之休去月才
紅落心猶驚強發情猶未定幾人不見豺虎視頭黑漢
持刀毛稀機搥吮人誰能獨山浮八銀林中火劫滄棠一

聞道泰山人新元今日乃自有舊傳常太陰猶未改

問卜自解

卜本前知許驗多後叢艾消長理已定何必索瓊茅

若寒

陽微陰壯攝寒威欲雲頑雲凍不飛知是麗凝天氣使占
春酒力亦非

病起

寒病之長方不復披藥錄請看老鸚吟雖瘦非塵丐
地契行并引

近以地契事並理李公與事務諸員未留本郡詳確寒

茶當隨檢量為已判登庸薦白屋應知陸坂拜丹墀尋常
不與人爭利日伴一囊堪笑飢

得置一雄鷄早晚高叫啼起爽覺喜占一詩

驚覺殘眠吟遠禽傳人對病夜沈沈金鷄七解鴻濛制撲
撲履研報晚音

夜坐自嘲

天容如鏡月如水把向身官較孰澄筋骨茶非金石質難
埋痛氣日侵凌

是日即陽曆一月一日也各國人來當大肆者感德則
節之喜而我人則不知今日為西曆元日者亦多有吟

朝起如願見亂室有感口占得三截
 人言世亂紛如雲我謂雖同便不真雲紛猶有春晴日世
 亂何時可離塵
 人道時處似奕棋奕棋猶得傍觀奇時更終有餘波及清
 筆何由世柱頭
 春宜無端笑對難將一木屢傾扶不如滿引屠猪酒全
 把酒現去化烟
 除夕懸燭而坐萬慮耿耿以讀語排遣并引
 余益除夕必以句語歷叙終年紀為之事非直守歲聊
 以志懼至於今年今夕回顧一歲內所遇事變可驚可

今書之選則有老室焉有見子夫妻焉有新派婦焉又
 有男強女強才美左右者焉真所謂不足與吾軍宜若
 有隨力稱情之舉以展佳時適展增懷之蘊而願以芭
 蕉老骨枯淡有味悲歎無念固已久矣况又時氣作嬰
 閉戶深卧改是多病所須惟藥物至如今積期無不發
 常年之例與否見子在非吾所知也但一種老懷外忘
 而內不忘者不容不托於詩致遺小子其為或托筆來
 當年此日恨晚離團聚今看便不奇勢學使烟煙鷓鴣的
 勢謾動羨我悲身術巧爾新添病口業非緣喜作詩良苦
 茲朝無計忘幽愁一一上履眉

雖已成野火風沙猶未備他日大耳坐寂寞歲月侵尋泣
 聲淚好好先生為之覆片言當抵龍國睡暗回青裏八陣
 圖許驍門前三顧響羽扇指麾若旋蓬掃蕩羣邪指靴次
 西戎烏道蜀為基北整為林荆有誌皇天無意若漢否白
 帝城秋悲萬事丹心星炳兩表日白髮霜繁六出地千秋
 掩卷五丈原有志男兒足涕泗風雲際遇昔何壯天地重
 慨竟莫遂忘異遺恨石不轉少陵詩人知厥志從來天定能
 勝人不復復論成敗利餘子紛紛滾滾浪蕩費勸過金仁
 瑞華實會榮誰不嘖石崔果忘終非義出處得正惟忠武
 伊呂之間伯仲視嗚呼九原難復作誰念鸞棲積賦寄帳

惟種種奇奇不一而足斯可道也惟增懷揣都不知疥
 瘡不爬之為愈也延余閑愁之末寓眼於三國誌其間
 不能無曠世之感此可引以為題嗚呼今夕之不平也
 蓋聞詩家有正變法吾之詩是始一變矣從茲而天饒
 之以年桑海奇觀不必待天台老館只從吾輩瑣錄求
 之亦足為云爾
 一大氣散金刀季天故教人披劇戲張東水符作故火海
 內昂湧雲集四童呂季權互吞噬始術孫曹對時旺建安
 天子坐受制復室之危一髮墜樓桑兩葆鉞禎祥福種自
 與常人異桃園大酒誓三人命脈精神義一字譬如羽翼

蘇緜燕何路行東腔唧唧中韻語分所不敢而此非遠與
 之尚直出於情不自己者則亦或無害於義歟
 江漢風流復論仙管岑峯契證奇緣寒慙孫韓博同病劇
 務公家念獨費道路雲晴當散髮別離梅放柳舒前可堪
 兩地相思夜回首幽遊已去年
 不寢
 照檢形骸柴運如過東鏡無眠裏自致不是守孤燈
 平陽堂拙稿字
 樹老多風色料陽氣噴梅枝替催歲暮設試沃腸茶
 有感擬筆

水作瑤池雲作花物華便得有未香因時難點難云好較
 此春工豆等夏
 喜兒兒怡孫未
 少輩今行到先者尺素書聞駭憂自功取但喜有餘見汝
 是誰賜君君不忌初圓和從此得可越老懷襟
 生朝述懷并引
 世之空家團圓已枝著行著值生朝設供歸喜乃習俗
 之所同亦家人之常情也余自專城以來每度伊日於
 公館必樓之中雖為厨厨所聞莫之或過而庭只是一
 子連觀塵只是生客問則願要有一半分像况我豈在

起扶浮雲廓神清
 明憲太后親章
 躬東坤維德配昊天正 祝味際 昌辰 黃裳北冷三
 千里 彤管歲歲六十 粵北堂 忌言今日痛 南巡猶帶
 暮雲頻避慶未克赴 宸街 恩海茫茫不見津
 送地契監理李敏裕并引
 歲五冬驚南香公監地契務于彭城不佞時以知州獲
 遂職刺之願因得源源數月歡若平常願以蒼蒼涯居
 得此晚契豈非不偶者存其間即今為公餘君能行
 履載登歲暮懷東之懷江閣去住之懷不但難難難現

形骸堪笑老遮頭雞助功名是屠樵一辨剛未敢極威百
 般從見發生夏非徒報園心如火奈此謀身芥作舟檢束
 生平空費備綽綽懷抱為詩留
 立春日和社少陵韻
 汎光荏苒晴中催雲未消時暮又來天地一周旋手相陰
 陽二氣搜爐反坫開絳粉窺新筍瑞瑞奇香燕少梅頭白
 誰人猶有祝喜者副歲陽前四
 夜坐得喘字
 時物得天然風未竹自嘯詩無梅所聞梅蕪詩偏妙
 因御事有感

試碑心頭寂虛空某誰知變態無終已沙雲野鶴跡不復
 證因果自悟是運來
 早春以來眩暈作果一無與懷以副韶景而作焉春
 將盡強發靈韻吟一百篇
 獨對東風病作魔賞心無賴奈如何花容柳眼詩和香
 語鶯歌琴調春日那由晴景少人生素自苦時多從今
 誠得韶華養非是尋常攝老過
 次白香山憶江南詞三首原韻違懷春日御事
 春光好委曲天心譜少女風前長白日王孫草上抱青籃
 淑氣滿江南

上宮里遂中
 行穿芳草放清眸野麥茸茸綠澄油百轉沉鶯何春自洽
 漢垂楊一村幽
 楚漢寺逢姜奉曉石次白香山對酒開吟贈同老
 著五言古詩十四字原韻賦事
 老以無何果昔聞今當之山閣將近日晚步不多時筋力
 轉衰弱惟存少壯思細故隨緣盡眩眩那可治來日君為
 度謀歡頗傳兒天供陽和氣春色染管承風光引我與開
 顏瘦可犯情悽猶想遠對景強裁詩酒性雖云薄陶然倒
 一危試為開散勝莫收自扶藤杖提提進行熟神暢真四肢

七院遂中
 奔忙自是若翻盆風陣磨天掃凍痕人趁年華新歲月春
 蕪時物舊乾坤凝雲吐麥初抽葉寒雪籬梅暗放魂連暈
 得中誠不易著為今日利名昏
 次金石醒餞詩三截
 臨行無暇祝春辭一種晴懷誰得知只恨年來歸未賦如
 何枉作攢愁眉
 別話忽忽趁趁陽歸期自慰見眉黃將未會面知何處有隕
 陰思却一方
 自子非凡出俊奇心子愛夫共遠隨長无相忘君知否證

望蕭條不同時極知惠歌年狂醉詩成却向東窓笑海鷗
 嗷日瘦拍翅
 正月一日遂中吟
 攜攜狂掃得年寬天地初如獲履場自顧尚看垂髮史代
 差堪笑進 香官承當奔走綠公帽正之安屋適我歡多
 少人生知此味酬茶莫若屠猪餐
 對觀察使鄭公宵寐敘話
 甘肅令尹世相親凡事線詳迥出人得失自無閒白日足
 非那有好青春會看圖報專持榻共說紅笥淨洗塵多謝
 今行偏受賜故教危錫早朝宸

星會紀重述
 殘春日備酒飯命校史園會于十里堂以示同誤之
 意適時方令碧下來春出韻共賦
 可憐代謝不相違空盡洪鈞借一陶青華飯蒸松醪酒且
 泡湯具艾蕪糕粥餅徒功吾人恨遠興詭尚留棠蔭試問
 明年重到地緣何速作發詩騷
 德坪店枕上
 晚向雲微半走鴉覺未枕上客心驚無端流破思鄉夢時
 裡誰憐大瘦生
 公州驛

春光暮物色暢南州草已夢四才子枕花猶著上老人頭
 日涉憶交遊
 春光去留恨遠身官忍可相忘證靈草為副送到涉芙蓉
 只恨是曾遊
 三月晦日再疊憶江南詞前韻
 春光好淑景有惟諧濃霧淡雲山擬盡飛鷗停鷺水如藍
 駘蕩感東南
 春晨暮明媚散江州風剪垂楊金絨縷西過芳草碧茸頭
 還得神花遊
 春晨去觸眼快心官慈緒空溪鳴鷓鴣夕陽偏照爛芙蓉

寂寞孤衙改火新餘寒風峭度今辰著香靜坐和誰語傷
 感無由蕩逸塵
 次育英齋諸生栽花詩細韻
 培養羣芳各趁時育英習俗較推移穠君詩弄嘗嫌早杜
 老種松每恨遲妙意將省揮翰手機心化作破藩籬榮枯
 一致何須說風氣隨生自有宜
 周覽殘路至柳川絮橋方張建尊浩大專在器械利
 用其精妙之巧功本倍之
 楊慶滄秦新復建精微妙處可回旋作成勿以人功少造
 物留者比自然

看晚松貞不移
 坐輪車上二截
 雷乘如梭生拔仙尻輪拍拍入雲烟任重致遠工蓋在不
 是人間造物佈
 自御冷冷到子風雲邊看過逐飛鴻一鐘離發永登浦及
 到彭城四點中
 運衛日獨坐平易堂枯韻述懷
 曾我揚名平易堂却憐到老為身忙會稽懷印誰知得莫
 慢今朝引綬償
 清明日有感吟

到江山盡處回結管替成林鳥關綺羅留作野花開滅頭
盡角無窮意且酌西風酒一盃

獨坐無聊登十宜臺拈糖韻遺懷

一宮心境帆南量獨上高臺坐夕陽火宅人間皆酷熱水
臺何處是清涼雲舍兩意翻天黑風打櫻花滿地黃造物
能如備我寂聲聲或出匣調糖

挹清欄賦卸事

軒窗新開暢心寬林翠挹清逼小閣容易相聞啼鳥樂尋
常盡得好山者奇花者櫻琴書潤松竹韻涵地集寒俯仰
中間多趣味羨豈人似漫為官

江山一草亭集句

一間草亭接太清倚欄縱日最分明千里江山增逸興四
時風月助吟情漸覺愁隨烟霧散只忘身外羽輪生且堪
留作遊觀勝野稼荒原樹干

次勸孝巷青芙蓉荷月樓韻

聲教天南第一沉播極高開越新秋門庭豈是蕪湖空紅
籍何嘗以正樓幽澁錦障香遠益靜涵水鏡影偏留滿趾
添得清明韻文氣從茲待柳丹

江山一草亭卸事

幽興每隨任去來孤亭物色絕浮埃地從日月生時見天

遂中卸事

樹陰軟綠河邊餘耕播時當百穀初麥穗建風翻起浪聞
由農新喜何如

香磐庭除

香磐庭除貯種花品自春以後次第數葉結以蕃椒
濃淡媚麗終歸風雨飄零現今芍藥海棠月桂等一
氣和同妖艷呈奇令人想起古人詩句萬綠枝頭一
點紅動人春色不須多底意因賦感懷以抒

芳藥海棠

芳藥海棠月桂花芬芳菲雅點眼前香綻散孤客幽想自

今尹帝

今尹帝全張窮民滿城和氣一團春幸逢春在承沈北風
火將者惠化均

許門里

許門里香春發綠絲節
頗覺柔羊痛病時時餐漸著每起起主人料此調新味苦
草甘留壁石魚

獨物有感

獨物有感雜詠三載
名利間身道路長堪憐風絮共飄揚楊花只是春時蕩領
我如何到老托

風雨

風雨春常貫四時調順物態更多宜客情空惹愁難過偏
於此地理甚遲

等亭成任屈伸蒼鬱松浮雲氣際蕭涼竹帶雨精神老未
變物偏多癖性臥堪容此一身

七月二十四日登一草亭望京有盼思拈韻

遙看天際樓秋光五色雲落是帝鄉憶昨丹墀趨侍日朝
衣猶濕御爐香

晚上一草亭悵望巖雲憶石磴拈韻二載

今張曲脂到新秋暈聾不自由近講草亭消遣地巖
雲江樹思悠悠
湯塵生滿寸心田悵望孤吟意可憐若待輪車功就日川
原尺地舊襟聯

獨坐挹清欄

獨坐挹清欄有爾身分不覺慨數括康字遺懷
居這勝勞感激昂神年為客馬誰忙病骨精耗知無茶心
足身閑歎未嘗何苦纏綿委在爾爾憐憐兒窺床願將
此老餘生事自樂優遊且健康

登一草亭賦卸事拈韻

烟樹江雲指顧中展開粧點畫圖同竹清不到三庚暑簷
短長收四面風最好青山如友對更宜沈水照心空坐未
參者農家事老少歌謠樂歲豐

挹翠樓卸事

小小幽園景色新檻前生態盡難真陰深花榻分高下臺

遂翼兒

遂翼兒獨坐適逢鄭守醒拈韻好懷
莫謫作牢一孤城細故隨緣易感主愛左營贊偏好意引
雜鶯語是歡情別懷因病難為緒時思經時覺疲精神醒
此未徒備爾適當慰話坐班判

北軒縱筆

酒氣豪騰打麥聲早發空負慰民情聞窗益得心幽獨泥
翠松篁分外清

六月十七日登十宜臺閑散遺懷

故園長在日觸物感多時斜日難重住好花不耐吹壯心
綠病減精力為愁衰遠望思靡連回頭有影隨

是者心不憤除

十宜臺上拈剛字寓懷并小引
十宜臺避暑時當適宜挹紫敷陰濃綠如海椒松梓篁
左右文島其他杜仲浩蕩之屬無非異品殊芽且四株
紫檀批立臺前偃蹇若擎空天矯悅與士君子入於道
觀而道遠矣近余衰病日侵未能日涉孤負真趣吁可
嗟予庸人詩云賦月如波事如夢竟留蒼翠待何人豈
非先獲我心之品題耶

蒼松

蒼松綠竹葉檀香清絕塵氛不染霜勁節高標如可借心
身從得老尤剛

鴈落天空動客情
望來瘦數快歸程
江山拖碧如雷過
雲風前一葉輕

稷山韓次徐四住居王原誦遺懷

秋日鷓鴣意欲平
每從愁裡展閑情
念他物類靈活
建園道墟都禮城
岩而全形史未割
地緣金窟榻旋橫
紛忙俗事終何用
無限西風笛一聲

夜話後數使安鍾惠

送麗南樓但使門
同泰最事更承溫
致身要識丹衷在
曾見夏時 奏萬言

對話天安伴金用未

何不省眠心宮

偏荷 洪恩不敢忘
憂愁歡樂此承當
對人言病知無實
誰識今朝苦自強

旅館秋日即事

楓葉微紅近有霜
野人籬落菊初黃
淹留旅館秋將老
愛老空嗟晚景粧

全義驢峴地鑿山一里許作穴通城道有感作

世事翻如面不同
夜遷谷變通時中
昔聞蜀道黃牛鑿一
度驚心夢裡通

別車上拈輕字

稗能知禮穀迎

松下里李蓋察庄

歷盡郊原到小園
尋君不遇又空還
好山繞屋青如畫
無限難情返照間

松下里李雅庄不過

倒着衣裳不自量
青燈紙眼熱中腸
羅陳需品皆新味
感于于今故意長

松下里李蓋察庄

不憚侵宵有意過
前街延佇感銘多
知君自是陰功厚
曾荷醫子效宿疴

鞍峴李雅庄

山回路轉月初沉
連水空明鳥沒林
為訪村莊歸杖藜
歲不動月天心

晚登一草亭聞砧聲凄涼因拈砧字遣懷

看秋日訪諸名勝賦得即事

多稼如雲半熟稜
田時文遠匪音黃
西成何地酬 君賜
老祥合生樂歲康

看秋

玉堂學士種度園
祭上遺書絕俗非
款客趨迎情可表
新醅開釀海鯨肥

蘇并里洪應教庄

小庄住在白江邊
勝簪何妨近市廛
羅鈞歸來須有暇
魚者福事慶時堅

松下里洪泰奉庄

松下岡前一草廬
高人寓得卜新居
傳家緒業推得見
滿架縱橫教子書

家聲傳播孝聞名
隨介床書適性情
如今客到賢堂下
童

見雲山已五年

公州府達尹德巡承允夜話

懸燈欲滅月如何
喜聽琴音荷訪過
博昨吾州監理署
類君經濟事凡多

公州彌次現送中郎事

眼前多少景
覓句欲留題
野菊香無類
原楓色不齊
古度懸絕壁
曲道隆危
陡木稼收方盡
瓦斯奇城躋

訪全義郡黃議原牛湖庄一宿

酸寒行役到而今
鷄黍粟成此夜
尋可笑別來
頭併白盡
簪相對共論心

聲請湖南閩最雄
今宵未坐忽春風
對君推想賢勞日
官不補才愧此同

禮城雜得霜字

秋老江南我思長
單衣初物曉添霜
緜書無雁何時到
點點情懷恰一觴

稷山伴郭璞要余對天安伴金用未小酌

落懷珍寄口誰
我深感共是
要舉杯景物有
來急不可黃
花正好滿庭開

全義驢驛逢承平申雜種復聯枕有吟

客裏相逢意可憐
挑燈中夜話無邊
宜歸未賦緣何事
不

全義郡次板上韻

三峯園野水如已碧
樹中關一小
街欵美絃歌風尚古
地肥猶足課桑麻

北面中大夫里途中

郊東閭里名蹟尚
留多力穡漢知
謀豈登滿隴禾
全義倅權完珠政治有感

驢足淹小縣專切製
錦任把公權吏
瞻施恩惟民心治
道躬親檢修災手自
耕種松彭澤郡及我
類詩吟

全義驢驛因情懷問答二載
我今七十一
齡翁氣眩眼昏
魚耳聾微官是知
細身錄如

每逢佳節思難禁
晚上園亭一
故襟為事何嘗
老無味孤

懷備苦夕陽砧
嘉俳日遠情
嘉俳令節卜年
里遊戲於今俗
尚風弱緒前
醫生觸感懼

娛故作與人同

眉間喜色幾時
黃滿野鷄愁
着瘦腸微宦
虛糜一鷄助
嗟子豈是宦家
忘

獨登一草亭聞砧拈韻

眺望寬懷得一分
夢紅蘆白稼
黃雲思將欲
共何人倚孤
屬橫窓亦念羣

屬橫窓亦念羣

殘曆明朝却復新燈花有似報光春須知老去澤漫無
計陽和及此身
把將世故竟紛紜裏病侵尋未暇云拜祝 皇圖新曆種
河清海晏掃群氛

正朝閣坐拈韻

曆以寅為正從者類物雖稱觴栢紫頌添壽椒花益筋力
隨年改心懷感節醒賀人相過少闕坐煎茶經

司稅局長李健榮以其先親故副司果李顯輝孝行

旌閭事要余一詩故賀之
至誠冠百行 馳檄 奏慶擊 靈草隨因出鱗魚格化

雲霞酒異色同汎妙慶自天成

荅西龍禪師別章韻

邂逅殊方歲半催旋開租帳淚難裁青蔬倘荷龍禪貳尺
積相酬竹丈未飢飽慶嘆維世策艱危漸愧濟時才縱知
重會非無日臨別何勞酒作媒

除夕燈下遺懷

年光盡盡能違者正如赴壑蛇堪笑兒童強不睡為
將今歲夜談詳
離家鞍掌宦遊中五載今逢此夕同窮裡送迎良自感七
白添笑二齡翁

講無為度瘦年

兩龍禪師來話依其野語黃梅泉韻贈

煉得真形一指龍寶山泉誦幸今逢圖新將純塗金像警
象須知傲晚鍾人我相來記杯渡色空談起悟雷封曾從
覺海難長物到老何堪日吟松

步西龍僧次堂漢寺板上韻因贈示

真緣透掛錫擬着迷師盧白傳談釋日湖明入社初流揚
潭月照搜句架經儲泰遠機心妙定如風止旗

純明妃宮謹述靴章

甄社名門教有方幽貞淑德配 元良調和甘旨 誠心

全義歸路三載

霜落千林薄無瑞感客情物華空覆淡有筆畫難成
汎光拋客路病苦自知瘦車來如電迅堪憐誇父追

平秀堂次白香山歸田韻賦得二載

湖海經年景物優護者試墨記曾遊秋元正似官情薄堪
笑歸心人白頭
却看庭菊有餘香自問何時返故鄉撫景題詩堪遣興神
昏不得誇身強

對兩龍僧次禪師和人詩韻唱酬

踏遍尋窮幾息既從來法教演三天隨緣卷證香山杜穗

次蒼晚雲金春奉行健贈詩韻

來書銘謝好風翻賢胤復知世業存筋力保生同病瘦火
源接武仰師尊嗟余今日江南去瘦子當時洛下論濁水
清塵難會合臨歧眼未共含樽

對甄盆山茶花作

甄盆兒女想幽尋培養數深水力深堪笑老來高在坐令香
氣惹衣襟

登一草亭賦詩

獨立孤亭一望春青山無約眼偏規舉頭臨悵家有在暮
靄連雲便作隣

成 聖朝彰孝理祖席顯 恩榮結述知君感頓今勸世

賦得一詩遺懷

斗柄回寅日漸長條風氣使動微陽雪痕尚返梅含白春
意先從柳著黃椒酒蟻浮仍醜味石鐘龍吼遠茶香須知
取次洪鈞轉試遺詩人第一章

上元夜對燈作

病裡刪辰獨對燈可憐身似過冬蠅散花雲集云塵鳴奏
樂風傳是廣陵預杜診災千蠶火驗看豈歡一輪水殘梅
粉白猶堪伴老境何嫌少友朋

率仁途中風雲有吟

忽忽狂飈雲中催到老街寒難自裁浙瀝風驅社律去蕭
疎山抱馬頭來空情未與無知已還之思賢訪隱才心眼
展開詩意味吟有聲得酒能媒

乾留齋尹議政容善相公

舟過峯鈴古亦稀文星忽墜此心遠島湖龍化空道跡誰
露西風事已非

次西龍安彩五詩韻

疎落風雲眼初明春遠釋閑悟此生晚事浮屠者老趣便
聽說法釋麼情三乘真義心身淨五蘊真空水月清莫道

篤定省晨昏 孝思彰常閱古今論及史屢經艱險淡沾棠

寶齡閱未濟仁壽 蘇衡式嗟及先祥已矣那堪成往蹟
嗚呼無復被回光忍言私分當時事 息海茫茫軌自傷

牙山公館拈漁字

曾余第履夢過餘隣接吾州隔一渠前蕪叢深如縣古平
郭上沃利民居曲橋商貨時堪暇白石行舟晚可漁來接
摩好宣恤意瘡痍幾處竟何如

牙州雜夜坐遺懷

夜寒孤坐想燕檢玉堪嗟冷覺爐殘火客餘燭餘花唱鷓
當晚亂鳴兩逐風斜自解愁眠怯酒令噴酒餘

一枝花一本升靴愛護培養朝夕勤改若珍寶然於焉數
載野居之前後左右便作家香或馮彙於公暇往訪鄭
詞伯竹暉枕有英齋下惟講道開牖後學其徒數十人
舉皆楚楚濟濟模稜可期遠覽軒宇模楷悉備而但眼
庭除別無可稱花卉大花卉者亦化育培養中一事也
若夫春夏之際新葩嫩葉輝灼蒼翠輝映左右則是心
之宜導暢達亦豈非一助也哉歸輒以菊竹薔薇石榴
葡萄山茶花等六種分贈無謀短律以求介正焉
葡萄架開書帷有羣芳若有期椒露云何容易得竹
風非是等閑知石榴紫透霜前顆宮粉紅奇雪上枝叢若

詩難盡憇消酒不空那堪耆老日寒落夕陽紅

平陽初夏縱筆并引

昨非有美齋庭除有如千草卉別無可稱者故首菊山
茶花各一本取種送寄又命卜道美檢者醫鑑勝抄錯
誤養便之厘正

新布乾坤號令行趨天紅瘦陰陰照麗天醜松芽茁待
得清風竹筍長緣病抄醫馬看症對人分并愛聞香戲方
夏早同嶺望慰洽農情兩一場

取種花卉六本贈鄭竹暉書齋作并引

彭城曾無花卉俗稱八無此居一焉余素癖於是若得

自孤懷未至哉

送升喜用之京望車行

朝來南鶴喜對面竟何如世事聞常關羈情語執轡車行
良易得善信亦難虛目渺嗟君去悠殘日落初

平登後園遊賞

物色隨時任飽觀銀秧黃麥野漫漫柯樵頓忘身前惱俯
昂方知眼界寬松菊龍形三四寸莖胎約籜百千年尚貪
幽賞堪消遣得琴書聊自歡

平陽堂閱覽蔡邕詩品次其韻賦物事

古碑醉石下庭除風月相交任起居隙映已紅鋤苦草片

長為人愛重能令晚節勝春時

出停車場迎接日本大使博恭親王有吟三截

回禮星樓軌道通文聘玉帛一團中原隔偏勞仗有和友
邦款客展和衷

黃屋輪車快聘馳國旗雙掛表風儀觀瞻不及如電過橫

吳皇華克玉雄

郊社出迎克來歡如雲士女匝旁觀驛亭風日何漫急幸

遇迎即暫頓寬

有野思拈韻

聞盡天涼世事及近來愁病兩相催有心難辨誰能解空

兼酒史酌玉盃行已以仁天報壽傳家惟孝世補恩更期

鶴算長生訣自任寶鼎留語載

送命行送中

調商春過半顏如景物新東車添宿眩故眼敗香塵壯志
憐常在少年難重僕性官惟要健忘覺老吾身

今州黃龍洞店滯雨

樓地東風計莫遲村庄蘇幕亂飛花山雲暗合鳴鳴雨漏
惜行人暫住車

此境清幽却自然此隣恰恰喜相聯店翁能解鷓鴣情獨剪

燭闌談七月篇

春寒

剪剪輕風小兩殘如今造物料尤難却使已過春信半清
明猶似社前寒未放杏花紅縱夢無由夢隴翠翻翻非常
天意良多感倒盡金樽醉暗闌

五柳歸春日書懷

因病得閑自忘疲最宜琴鶴樂相隨天時予暢皆數化人
事須知略抄醫丸里要說花并種肉隣遠約壽長危軒忘
畫永無聊坐枕苔鮮好滴故枝

賀竹軒李儀官種教日甲壽蓮

蒼髮乾顏甲再回喜逢初度暮春未改丹花神醫妙相

李竹軒種教壽席原韵并引

今朝即李竹軒朝伯花甲日也黃眉回春沙蒼添屋古
云積善餘慶仁者壽壽信不誣也其誠喜之者補祝之
舉病未能躬造快觀自不覺馳神茹恨謹撰短律以伸
摺賀之衷焉

一室和微滿眼前身骨五福到稀年短謀承度家惟存仁

善作基里所傳月甲棟風榆莢地日丁毅西驚驚天愛者

蘭砌春長在賀客稱頌意正圓

春晦日登十宜臺

春去誰能住巧歸代謝中飄殘花濕雨飛適繁會風恨入

今山雜偶吟

短燭今山雜酒知羈宦愁行將前道晚歸必故園此酒賈
堪沈腸詩或自點頭爰有新氣淡江錦而初收

靈酒坪即事

病餘行越感羈情恰恰報華望裡生四野天垂芳草連十
林烟散好花明暗飛書雨沾衣重棹過微風皺水鞋老眼
不隨住處景閑情春事教方平

歸路吟

青春歸有限物色西誰賒潑潑前樹色紅而後花多情
鶯自轉無事燕空斜客路如天遠驅馳意轉嗟

過遠於電氣製夢中還笑到家多
昨日佛理因格勤職事特蒙勅六等八卦章 賜給
榮感萬萬作詩誌之
慚無祖業裕深傳 愚教便著降自天班進六數何特爾
章加八卦信切然榮遠潔揚吾存或少輩專勝孰任愆非
我言覺曾有受貞符三字佩茲篇
兒輩與石羅考覽閱微草堂筆記見白牡丹畫詩二
截極其精妙相與談話詩格步其韻有作飲余亦決之
筆精神妙洗塵沙一幅天成冠百花展展留春深得趣休
然長似富家

恭刑若思成漢網諸病積須自擬何暇久沉埋
嘯傲軒月夜憶石羅有吟
月白風涼秋氣清吟坐繞夢珠魂驚無邊欲寫思君恨
樹送送馬叫聲
萬壽聖節日請要手書想說小酌賦得誠喜
仁壽乾坤入錦山吁萬歲拜 恩花願推又道為 君
壽何必遠求度索桃
車中有作
秋容無跡淡山阿瞻望 皇都剎剎那掃事可知古有慶
病情復得快騫和蟬聲斷續千村樹影影影橫萬頃波經

增築雲鸞飛來竊惟惆悵應思我正是圍和香獻杯極日
鄉閭善况况聊將詩句護款推
獨坐嘯傲軒賦得遠懷
滿園濃綠潤涵床有縷簾紋白晝長無賴時時夢未及意多
情驚語向人量烟雲總是心神供風雨全非時日常何恨
眼前茶具毛官遊到老費空忙
庭際草卉為近日風雨芙蓉殆同我病難不能振起
可呵而還惜也因有感於心賦一則叙懷
無酒無詩何所適一生剩得看花癖杜甫驚句曾傳瀟湘
明醉石已陳迹以之證老情偏多排置羣芳莫誰何其疑

先聊展并登帖
遺懷
室惠近聞尋復常天憐病者報無疆財占偏隣泰二局家
住新搬寄進坊最喜合成倍老日知情長在別離陽際个
那忘生朝隔我得心書執寄將
心有野感賦一截識志
丹墀承 命得臨行方外相者摠是榮三品陞寶奇且貴
祖張備被寄生成
細君生朝獨出遺情
病餘保有昨展回補慶懼娛自在閑愛者吁雜鷄啄立書

惟房充玩几業具競睡爭奇不惜錢百蓮川泥決尾閣黃
慶清水幾多餘浩歌一曲都人士曉願周京發歎歎天心
佑宋殿殫區玉樓宵行陪唐虞側席虛行聞已久海內今
豈無英吾密勿風雲廟算恢掃清塵翳昭光回黃河莫道
清期晏暖律復從寒後來瘡夷尚有復史願得到那時舞
袖揮
列車行
車制吾曾未學洋日人得之通扶桑直因身跨驚心眼試
歌其事言難詳京至千里路前水西邊鐵索直如繩長亭
間置停車計程近遠實人乘余時作吏彭城歸寫為督

別據素羅高捲翠巧施心匠妙難名若教辭語應傾國任
是幽人也動情
南臺遊觀行
平明日出東南郭紅埃匝匝彌塵廓動地輪雷轟鼓喧張
空線電珠綴絡綴步行穿綺筆沉種種逢人百不齊紛紛
前過而無涉戴履凌矜語言呢呢墮填壑起結構交兀上
與雲仙遠洋橋日星五鋪排野見非復南山舊聯樹列肆
又何壯觸生眩耀難名狀除非開苑花弁繁便是波斯珠
貝朗波斯闌苑矣西傍左應右接令人忙若使丹青移巧
妙茫然舉筆慙長康常情悅眼本同然遂使東人解尚妍

失茫茫不復伸
執李讓官鍾教
長夜成千古哭君淚滿中同心同病苦一死一生幸可笑
桑榆晚復嘆唇齒因筋骸雖化土名德不為塵頃覺添新
恨須知少善規仙城今已開回憶點傷神
七夕獨坐遺懷得雜字
健著無媒不自持旅懷此日話襟期莫言牛女稀相見猶
勝人間久別離
用白香山秋日韻遺懷
律變新涼至孤居誰與倚蟬吟秋意思屬惹草情懷莫脫

足以縮成譜無花不入吾手摩生或縱道屬陶甄長短亦
閑在幹旋粒粒奇妍如剪鍊人言太守花中仙紫白交加
相輝映日夕耽看頌忘病者蓑衣襟悅目心便教文士堪
勝詠翻盆一雨風兼隨朝來吁蓬枝羨靡自同衰度誰得
似怪他芳質更難期紫萍不滋雨露成從來思惡西閣情
可憐權賴秋氣近對此難禁老懷生
全注書場沐今春化去其文華人多愛惜詩以執之
正擬同觀日涉春如何秀篋送元真以君經世才名重應
選玉樓作記寶
筆花零落現生塵帙帳那堪下榻人青山長卧何野事得

善大嚼而四博京中古俗於此日必是誠於先墓若
或在外未妻不能亦柳柳州寒食二賦蓋田未久矣
是日見此俗俗人各隨其力供具以之事神而自
娛二樂隨之少輩及慶重則打鼓鳴鑼喧街巷亦
一豐年盛事可謂樂矣而顧余則上而感祭祀之儀
下而失園居之樂長可吁也因而擬賦得三絕
鮮酒家家歡定聲填街競鼓鑼昇平也知造化猜圓滿故
逢陰霖沮月明
我家京路此及辰香火先墳孝思伸甘旨江關歸未得每
逢仙節只傷神

善村祥亭馬山岩屋是寶蓮是三時辰非暑又非寒秋勝
亦足酬佳節誰道江南一冷官

聖蹟園奉祝有感并引

聖蹟園始建於初有之歲事也生於數千載之下獲茲
奉祝无有也蓋非我無慨然如復見之歲中我茲賦一
詩以識之

尼岑歸遊香壇空蓮五春秋只憶袁鄉高真朝暮滿繁
花惟自古今同幸茲園始新頌日如復美培及見躬早克
東移 靈夫注故教傳寫違吾東
半量自合當感備酒酬稻果寺諸品與石醒微了一

感 恩詩并引

白余通籍以來蒙被 鴻私種種倍常而願今年迎桑
榆身康原探常惡尸曠汰武之不暇矣近又旬月之間
祖而加嘉善滋而陞正三品勳六等此又何等迴香恩
恩數也圖報無路益切慙慙茲敢托物抒衷作為感
恩詩一則

絳向霜前氣早交豐肥熟蒂絳紗包多君雅意遠踪賦新
味甘香足供看
感 恩詩并引
白余通籍以來蒙被 鴻私種種倍常而願今年迎桑
榆身康原探常惡尸曠汰武之不暇矣近又旬月之間
祖而加嘉善滋而陞正三品勳六等此又何等迴香恩
恩數也圖報無路益切慙慙茲敢托物抒衷作為感
恩詩一則
附者孰非地曠懷孰非天地自不相等天或木盡金免彼
高岡樹托野何軒然上者入雲直下猶舞風前裝或巖上

自軍浦尾獲榜蹤擬穿稠曠置身椅卓無武業列車鈞造
一武強人多物聚成底底一聲流笛電噴烟首尾齊動如
貫然響漸豪雄走漸疾紅紙壓都等蟻垣近尾飛奔却倒
行連山展縮還者先視懷銀懷坐會耳欲無聞日無見
風雨驟至羣鳥屯雷霆格翠連龍戰轉巧之間到露探隔
斯浮橋橫跨長下容悅橋通來去上列欄楯擁邊傍南門
道里百六重尋刻綬消二點鍊當年造此何誰是鬼斧神
鞭泣聽從札口買票人奔波萬家貨泉問幾何吾惡一時
眼前快未免識者在傍呵
謝音書記早紅柿

好送嘉祥夕一丈四頭碩石醒
伏枕呻吟忘兩無街口占一律
湖上秋風日夜清旅人情事政堪驚驚辭兼送鷺鷥思悠去從
紙陰出劫切鳴身計有憂添白髮 國恩無路早再誠行
將傳列重陽節且對黃花一說明
買現來聞家有餘武渠有遠後俱俱更念詩以抒懷
現落家音暫觀過不如意事十常多思抽匣裡三宜勿快
碎人間百戲魔頭戴思天事是身遊夏運武卷河良辰
祀取重陽返且對籬花畫日晚
重陽會并引

閣慈巖點上層夜一味伊蕭吹夕曠消違奇方餘口業強
未前權更詩現
今夕何夕并引

夕間無日消寂之際望漢寺僧竺鍾性文在元未見使
之念佛竺鍾解以不能性文在元列坐併拳乃貧道行
乞之詞也其句甚佳但下而其聲軟滑清亮亦自覺
中轉變者之相史觀者如增便或風沉場振子老夫在
此頌不散寒寒三章記蹟羨斯數茶送歸因倚枕賦其
福牙殿雲山鳥應胡僧念佛亦堪聽衆鳴堂空煙彌靜珠
落金盤轉不停摩那烏羅嫻手法懸機紅燭照昏形骸累

感 恩詩并引

四際屏環無非而後精神滿地雲海政是豈年氣像余
不覺先思之喜用挹清襟板上讀得一律示石醒要和
去事曾未一弓寬久後登臨與放開緒本潑黃潮卷浦笑
策考碧西過山了無畫日朱扉開豈有今年白雲卷過意
賞心惟實事普管何必問高官

晚後命酒與石醒又賦一詩并小引
明日即俗所謂嘉祥名都古人云未夜陰晴未可知真
格語也若但有兩便覺是趣易居先一日作詩做則郭
二遊那疾前損賦得
掃地焚香意自寬小樓琴鶴坐來閑清風批拂陶彭澤錦

松碕河困挺出亂藤罨其顛寒霜逼其骨野賴好生威昂
歲多歲月安用寒歲安甘作陰煙物忽聞餅雷響能以陽
春隨枝柯光向暖根柢暗含滋豈知搖落節柯實又一時
歷願林慈粟誰似此偏私癡腫合老靈而知感遇情報效
將何以風枝盡日鳴瑟琴材不中樑棟老無成願化來生
石為補燭天頌
與石醒登一草亭共賦并引
石醒東從違因涼濕未得携上一草亭做一回閑散是
日風日道佳乃與優及于亭之上快展遊眺覽雲垂陰
撒涼滿福此已莫路欲飛而第見山容野色種種可度

自有舟車以運治日常少亂日常多歷春秋茶璞昔唐
五季以至宋元明已事載籍可考而猶是實地之由也
掃清巨濟不遠而復而今則天下大勢不可以海內外
界限風俗之殊才智之巧難加之於三代直道而行
之斯民始焉質樸而水炭終焉為蕪而膠漆此其勢彼
不變於我則我必變於彼彼已苦其時雖有管葛千難
決不能置列而足于一況深中其毒者最先好之者往
性出於吾黨嗚呼時運之否一至於此我爾余而露中
閉草木也固知博故不足與憂於撐危扶傾之場而得
於決白之賦長於濁染之見則有之矣每一念到不勝

舊公私互競紛
片旭亭亭早已過現論倒景碧潭成但謀歸居安身地莫
道挽回淺未何
妻渠風吹夜何其度世惡恍便覺痴只恨人非金石壽黃
河千一語無時
華髮星星瘦骨嶮巖憂頭自坐宵來短歌歌罷停寒梅宿
鳥不驚人已定
送克見登一草亭望車行有吟
孫懷林撒而誰傾幸得談論對首并漸覺寒瘦眩眩果備
增憂慮的精神未倍繞過今三日野觀應知這二更恬快

目賦得一詩連懷
對花何事道偏真性耐風霜烟小卷華并事數天有定靡
深誰復眼生新欲近陶令博陽近非想禪龕晚宴因氣候
蓋知隨斯物重陽空負年時辰
停車場遠克見編又迎送日本大使歸路二載
強顏眺望作邪行滿袖征塵西鬢者多移東故昨臨臨誰
云掃事近歇荒
現行先著大省未特地相有意難裁自是公私倘有戚淡
雲斜日送迎回
天下紛紛何時定并引

慨然一聲長吁曰天下紛紛何時定因以是七字演為
句語以寓外史之義然亦未免畏首畏尾含糊鶻突處
意思乃知董狐探或真首是其直如天也
况濯洪泥甚九年眼前邪籟入蛟涎龍門玉斧無消息我
欲去僅一問天
本來無端倒著打散聲在市又聲野當時悔不烹如羊一
漚便仿水靴下
新聞社長太申勤時耗日開所未開萬呈說風吹不斷紅
嫩東出西粉
一孔方能端端重傷時著論蓋云如今皆帶多名色新

寄清風術留方碧下文轍
無端懷緒亂花艱情倚恹恹有所思鴻鴈不來之子遠翠
書多與與誰為丹山碧水知何處紅樹黃花改此時別後
音容秋欲暮故人那惜一紙辭

送石醒南歸
離家三月復晚秋偶有相逢却忘愁楓菊何妨共談諧詩
樽正是合風沉怕無此去重看日想料蘇來更起頭送遠
長程不領惱方便願有電行歸
祖帳沙吟而鬢秋黃范空惹別離愁霜深林園紅堆臣西
通山界淡欲沉鷺思難禁頻試眼悵悵頻覺自換頭忘言

無福事失權衡
自石醒去後神思寂寥始知出人之跡賦得寂懷
揮手悲懼洛下衣列車同搭花影街題詩遠與鷺心目試
若留音沁齒牙顧我感情煩可辨對居歸思正堪嗟旋言
難任離歌發路遠寒山人已還
十月九日并引
庭除草卉無不萎萎惟獨黃白菊爛開送奇悅於風
霜搖暮之時此其得時之異也向在重陽時直鄭物之
早未及前綻只得耐節而已戴回近日滿地散艷東坡晚
宴亦足以推想其趣也與言及此孫吟獨酌復不淺

病情為思了無消遣之方擬待重陽聊共殺三知舊池
菊弄秋以為二者暢叙之遊茲在日前或書或面必妥
其起期齊赴矣及到今日呼童子問菊消息方搭簾
在房包之中菊之效負人乃如是耶彼蓋知守氣候之
常而吾乃但以時辰求之見效負不亦宜乎良足一笑
也然座有客樽有酒不足以酬佳節差賦一詩以見先
夫此此與復不淺也
常年重九見黃花今日黃花未及飽尚記合辰太陰曆強
排小酌明衡窗明鏡鏡如期到談笑團圓盡意詳莫道
茲遊者味薄東坡晚宴在非遊

極處為君賀瘦梅梅竹待回軒
枕上排欄
五柳館中秋夜長怪來神思海茫茫金鷄沒人情者不
惜一聲咫尺情
平易堂秋日書懷
故病難堪鬢雪徒誰如此差意殊深霜葉紅兼非林路露
冷黃花滿地金張翰美馬孫律興湖明自有故園心從來
鷺鷥唳吟聲故玉風生聽竹音
秋日陰雨排悶
風聲歷耳戰寒聲一雨連天減客情料得龍泉多稼熟猶

簪香咏懷

遠恨寒梅曉轉幽有官運似是真休閑未每好逢詩伴老
去方知少酒倚實記新編者述事斗經專習自為謀多方
調得衷中健餘外營枯何足憂

天氣陰寒頻無春意

春書非常料有寒來年偏苦病未于何人能解吹律律付
與洪句和一團

驚蟄日賦作

蟄子多陰苦長夏睡未常記將驚蟄日塗整試新方
二月十三日行懷

鴻毛重慶春山輕立辨熊魚取舍明東臨一人於古有西
登二子至今生圖酬五百年 思造激倡三十里義聲早
竟泉黃歸報日公為科日執程晏安

執越志正公來世

字學劉隄便缺充如公忠義日星昭 二期髮白 恩誠
大七寢心丹血未銷陸海華扶 宋社重霜天花發世家
醫慈如烈烈精靈氣應化長紅貫九霄

對耳明酒詩以遺懷

官厨新釀見深情使我專為祝耳明近日微覺綠眩暈睡
君枉用費神精



日涉園中興賞心郊原從此想幽尋一齊草八分高下五
色花隨各淺深帝幟飄揚誇酒好鳥聲斷續和春吟坐未
貪香韶華美更有疎鐘送梵音

晚上十宜堂適遇有吟

官事從容得自宜病餘閑散不嫌疲賺紅羅經皆堪實便
是東風手陟奇

培栽名卉各隨宜

培栽名卉各隨宜枉用心神頓忘疲莫託他賜賦近後
來留得便稱奇
特齋僧侶均慶浩來見備陳供養節次至於位祝後
各禪時每向余祝願者事甚未安因以有賦賦一截

春氣陰寒怯老癯復綠萊病得歸還今朝懷緒備多感詩
思忙忙轉覺悲

病餘春感

八十日春剪剪風怯寒來病及吾躬復知時使洪句在桃杏
強顏始綻紅

英親王位祝望漢寺森祥有感

法界千年古道場莊嚴善殿妙空王恩施曾荷 皇明勅
詔祝為微 聖子祥者烟芬蕊燒檀白花彩玲瓏剪芳黃
龍靜鉢忘春清演真覺禪閱禮制詳

庭院花卉爛熳敷榮



擬任人故近床愁却試野無可敵寒侵撥炭莫能防且將
世事何煩惱不用多方在意量

年來老懷每當名節自不驚行恨因拈讀遺懷

陰窮底慶轉微陽節物漸隨已備嘗誰驗前曾標八尺名
言誰復舉三腸心反不似篋反動繡線初添日線長孤寄
殊方漫有感天時人事自紛忙

鄉長賦閱忠正公忠節詩一則示及故次其韻

效忠臣分級芳塵分級芳塵步武親步武親常多懷慨常
多懷慨效忠臣

老病嘆

車行道堂劇傷一燕為羣懷

近來病體日以侵苦眩暈一五耳聾添劇聊以遺情
年來些病苦從尋東邁力難從任任非是何妨驚耳兩耳忘
言忘履兀如瘡

做種東坡賞花詩若以十一字嘆成二十八字詩體
用教育意旨次其韻一截

宵英歸翅鳥如飛翅鳥如飛導導識微時聞進步時
聞進步宵英歸

夜坐遺懷作

獨守殘燈覺夜長當窗添暈滿天霜月如好友偏開眼梅

暗塵初醒滿聲長當窗添月共需輸與老夫詩與發孤
梅故放一枝香

偶吟遺懷

天涯節物正堪嗟嗟雷壓園林憶春花一歲等閒餘幾日人
皆怪我志歸家

有野思述懷

七十二餘歲且閑勞通歷教護幸岐苦為公正當稍忌甘
作清塵涉困難持律幾多從軒願榮華可足夢枕安思量
無過成何事對酒無如此日歡

輓閔忠臣公泳燧

鑪中多病痛頭重未梳把耳或前聽而眼常昏鑪花口沙
火銀柱曼曼涕偏加于純風隨福足瘦眩轉心轉少
壯筋力亦橫斜微幸橋年過壽期自不遲

達李和寶叔話

天涯逢客喜聊欲話四圍風竹聲生枕雪松影側樽闌常
時局事雅是故人言何苦愁水現詩成可細論

感事

利權長有及時常自及時常抱愧傷愧傷何復有厥何
復有感利權長
夜坐自誌

肇夏日強病登園亭觀物草遠望見此行電車有感
借人登陟際清和芳草成茵麥漲波園關通明志地樂亭
無閑健得山多將者乳哺驚泥疊應純香探蜂窠果超取
道遠無竹畔歸心偏向電車過

有野風於心賦詩抒懷

鷄肋名途冒詭譏多漸啼鳥不如歸來癡轉劇緣何事念
到家山計已違

採食東南二十年近民平易樂天真吁嗟數計歸無能不
是登峰嘗苦辛

周覽庭園一草一石無非我精力所到因感作

感君杖屨到塵涯小榻逢迎禮意加妙演法文芳樹下落
花妨佛似僧家

供養長齋甘有緣朝來說法夜參禪懇懇向我發惡念為
祝身康痛幽瘞

竊想今春以節候墨晚九係花事澤非春盡光景而
春則盡矣因有感賦懷

三月正當三十朝惜春情懷便悽悽陰氣食婪留節候七分
韶景五分饒

難住歸期風雨催落花無語望中催老曠當錢備多帳為
構詩篇酒以謀

今朝難暇轉堪悲往事悠悠便感時
醉石重酬魯古蹟香
鑿新鋪藉良資字臺建等因其勢
花卉栽培得珥宜驛路
何須勞跋涉運芳翠鶴喜相隨

발행일 2022년 12월 30일
발행인 이보선(평택문화원장)
저자 오형묵
역자 허경진
발행처 평택문화원
주소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277(비전동)
전화 031-655-2002
팩시밀리 031-654-8807
디자인 및 인쇄 (주)이다
저작권자 평택문화원
ISBN ISBN 978-89-93983-66-1

※ 이 책의 내용과 사진에 대한 저작권은 평택문화원에게 있습니다.

평택문화원과 저자의 동의없이 내용 및 사진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책은 평택시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